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CIS

중남미

아프리카

머리말

근래 들어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저유가로 인한 수출입 단가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했습니다.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리스크 증가, 중국 경착륙 가능성,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산유국과 자원국의 경기불안, Mega FTA로의 국제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슈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외 변수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고 모두가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시장 회복세와 제조업 육성정책, 유럽의 EU기금 프로젝트 본격발주, 한-중 FTA 및 일대일로 정책, 일본의 아베노믹스 2.0 본격화,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출범, 중동의 산업다각화 프로젝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쿠바시장 개방 등 위기 속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수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KOTRA 주재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발굴한 각 지역의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이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보람이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KOTRA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선전하는 2016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기업의 지속 건승 발전을 기원합니다.

KOTRA 사장 김재홍

|| 목 차 ||

I 개관	5
II 권역별 진출전략	17
● 북미	19
● 유럽	97
● 중국	173
● 일본	235
● 동남아대양주	291
● 서남아	367
● 중동	415
● CIS	467
● 중남미	525
● 아프리카	587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I

개 관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16년 세계경제 조망

◆ '16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국 경제침체,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

1. 2016년 세계경제

□ ('16년 전망)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선진국 회복, 신흥국 부진으로 양분화 전망

- 중국경제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 속에서 '1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 예상

□ (선진국) 미국의 경기확장국면 재개와 유로존·일본의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미국) 고용개선*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와 주거용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확장 국면 지속

* 미국 실업률 추이 : 5.6%('15.1월)→5.5%('15.3월)→5.3%('15.6월)→5.0%('15.10월)

* 개인소비 증가율 : 1.8%('15.1Q) → 3.6%('15.2Q) → 3.2%('15.3Q)

- (EU)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유로화 약세는 수출 및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져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 가능성 시사

- (일본)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등으로 점진적 회복 지속

* 일본 내각부는 '16년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을 전망, 일본 민간연구소(13개사)는 평균 1.65% 성장 예상

□ (신흥국)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수출 의존국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국)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과잉투자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성장률은 6%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

* '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은행(WB) 6.7%, IMF 6.3%, 골드만삭스 6.4~6.7%

- **(인도)** 고성장·친기업정책 등 모디 정부의 개혁정책* 효과 등으로 7%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 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지원하고, 향후 4년내 법인세율 인하(33%→25%) 예정
 -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했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유망국으로 인도를 선정 : (전기전자) 1위, (자동차) 2위, (일반기계류) 2위
- **(브라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헤알화 가치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6년에도 경기침체 지속 예상
 - * 브라질 중앙은행은 '16년 경제 성장률 △3%, '17년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둔화의 주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지목
- **(러시아)** 지속되는 저유가 기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악순환 구조로 인해 '16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아세안)**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C2 리스크로 인해 금융변동성 심화가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표 1> 2016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포인트)

구분	2014	2015			2016		
		15.7월 (A)	15.10월 (B)	조정폭 (B-A)	15.7월 (C)	15.10월 (D)	조정폭 (D-C)
세계	3.4	3.3	3.1	△0.2	3.8	3.6	△0.2
선진국	1.8	2.1	2.0	△0.1	2.4	2.2	△0.2
(소비자물가)	(1.4)	(0.0)	(0.3)	(0.3)	(1.2)	(1.2)	(0.0)
미국	2.4	2.5	2.6	0.1	3.0	2.8	△0.2
유로존	0.9	1.5	1.5	0.0	1.7	1.6	△0.1
독일	1.6	1.6	1.5	△0.1	1.7	1.6	△0.1
프랑스	0.2	1.2	1.2	0.0	1.5	1.5	0.0
일본	△0.1	0.8	0.6	△0.2	1.2	1.0	△0.2
영국	3.0	2.4	2.5	0.1	2.2	2.2	0.0
한국	3.3	3.1*	2.7	△0.4	3.5*	3.2	△0.3
신흥국	4.6	4.2	4.0	△0.2	4.7	4.5	△0.2
(소비자물가)	(5.1)	(5.5)	(5.6)	(0.1)	(4.8)	(5.1)	(0.3)
중국	7.3	6.8	6.8	0.0	6.3	6.3	0.0
인도	7.3	7.5	7.3	△0.2	7.5	7.5	0.0
러시아	0.6	△3.4	△3.8	△0.4	0.2	△0.6	△0.8
브라질	0.1	△1.5	△3.0	△1.5	0.7	△1.0	△1.7
아세안5**	4.6	4.7	4.6	△0.1	5.1	4.9	△0.2

* 주 : 1. 우리나라는 WEO 7월 업데이트에는未포함, 5월 한국-IMF 연례협의 최종보고서 결과

2. 아세안 5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Ⅱ '16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1.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리스크 부각

□ 美 연준(FRB)의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016년 달러화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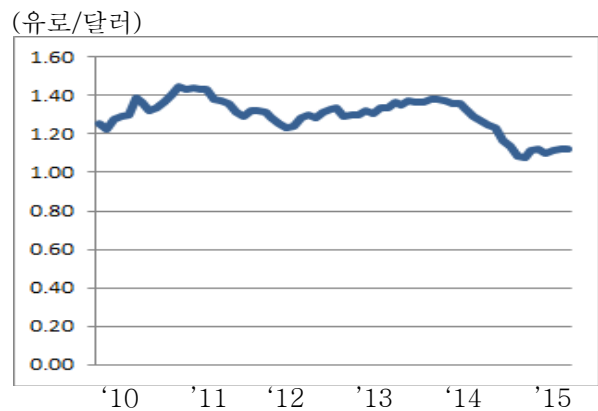
-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FRB는 2016년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
 - 내수 주도의 성장세 지속으로 고용관련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 도달
-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지속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원 : 한국은행

<그림 2> 유로/달러 환율 추이



* 자료원 : 한국은행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시행하였던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드언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 인상

<표 2>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 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 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 17회)

* 자료원 : 미국 연준(2015)

2. 중국 경기둔화와 산업정책 변화

□ (경기둔화)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 중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新常态)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둔화세
 - 중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5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9%에 그침
 - 향후 실물경기 부양 및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2016년에는 6% 초반 성장률 달성 전망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남미 등 신흥국 비롯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 (新산업화정책) 중국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형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토대가 됨

- 제조 및 혁신 강국을 3개 그룹으로 구분, 2045년까지 1그룹 진입 목표
 - 현재 중국은 영국·프랑스·한국과 함께 3그룹 → 2025년까지 2그룹(독일·일본) 진입 → 2035년까지 2그룹 졸업 → 2045년 미국과 동등한 최강국(1그룹) 도약
- '제조 2025' 정책의 핵심은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강조
- 경제성장의 축을 '수출·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내수촉진정책 추진으로, 소재·부품 수요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형 품목에 대한 수요는 확대
 - *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달러) : ('09~'14) 평균 3.9조 → ('14~'19^o) 평균 7.9조
-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고속 성장(성장률 6.5%)으로 조절 및 내수 중심 전환
 - * 新성장동력 육성(인터넷 경제), 도시화 작업, 고효율 자원 이용 개발, 자유무역시험구(PFTZ) 확대, 전국민 중산층화 등

□ (한·중 무역구조) 중국 경기둔화, 우리 주력 수출분야인 소재·부품 수요 축소, 新산업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한국 8대 수출 산업 중 6개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점유에 앞서는 등 한중 주력상품 경쟁심화
-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의 65.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 진출 여건은 점차 악화
- 중국의 내수형 품목 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 필요

3. 원자재 · 유가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비전통 석유공급 증가, OPEC 생산량 유지에 따른 원유공급 초과상태로 하락세가 장기화될 전망
- 국제유가(WTI 기준)는 '14년 6월 배럴당 105.79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5년 배럴당 40~50 달러 수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 * 가격변동(연초대비 11.5일 기준, \$/ton): 납(Δ 215\$/ton), 전기동(Δ 1,244\$/ton), 니켈(Δ 5,028\$/ton)

□ 자원가격 하락의 장기화로 산유국·자원국의 경기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세계 제 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 결정
- 프랑스 파리 테러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및 경기불안 요인 증폭
- 이란의 국제무대 재등장으로 중동지역 종파 간 갈등 재연 조짐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감소 및 관련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확대

- 자원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및 對자원보유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 석유화학, 광물성연료 수출실적은 수출단가 급락으로 1~9월 동안 각각 20.5%, 36.5% 감소 (2015년 1,000억 달러 정도 감소 예상)
- 석유화학·정유 : 중국수요 감소, 정제마진 축소, 재고 손실로 영업적자 확대
- 건설 : 오일 메이저의 설비투자 축소와 산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
- 조선 : 해양플랜트, LPG, LNG선 등의 발주 연기 및 감소 영향 확대

□ 자원보유국에 대한 부정적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 자원가격 하락에 의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R&D, 설비투자 등 생산성 제고에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
- 자원보유국 경기급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소비재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

4. Mega FTA와 AfT 확산으로 새로운 국제통상 패러다임 부상

□ TPP 타결로 본격적인 Mega FTA 시대 도래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Mega FTA*를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자국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수단으로 적극 대응
 - * Mega FTA는 3개 이상 복수국간 FTA 중 4대 거대경제권(미국, 중국, 일본, EU) 포함한 경우
- TPP는 역내 수평협력, 국경을 넘어선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지식기반 협력 등 뉴노멀 시대의 新국제통상 규범과 질서를 제시
 - * '15.10 타결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일본을 포함 총 12개국이 창립멤버로 참여
- 한국도 TPP 참여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및 국내 제도적 대응방안 수립
 - TPP 참여시 대개도국 진출환경 개선 등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예상
 - *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미개방 국가(멕시코,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진출 가능성 확대
 - * 단일원산지규정, 통관제도의 조화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예상
 - TPP 발효 시점까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수립 및 국내제도 개선,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
 - * 품목·국별 세부 동향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예: 수산보조금 금지에 따른 면세유 보조금 대응)

□ RCEP 등 기타 Mega FTA도 '16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

- '15년말 AEC*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은 경제통합 가속화
 - TPP 미참여국이 다수 포함된 RCEP*, FTAAP*도 자유무역지대 실현에 박차
 - * AEC(ASEAN Economic Community)는 ASEAN 10개 회원국 경제공동체
 -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아시아 16개국(ASEAN·한·중·일·호·뉴·인) Mega FTA
 - * FTAAP(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는 아시아·태평양 27개 APEC 회원국이 추진하는 FTA
- 美-EU, 일-EU간 FTA 협상속도도 급물살을 타면서 거대경제권의 통합·재편이 예고
 - * 美-EU도 '19년을 목표로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을 진행

□ 한편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가 유력한 경협모델로 부상

- 유엔이 SDGs*를 新개발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공여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확대
 - *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식 개발의제로 선언하고('15.9), 원조의 패러다임을 빈곤퇴치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
- SDGs는 親시장·親비즈니스 기조하에 AfT를 강조하면서 민간자금 활용과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
 - * 특히 AfT가 강조하는 민관협력(PPP) 형태의 신흥국 개발사업 확대는 한국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업체제 등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세계적으로 심화 추세

*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은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세계무역의 80%를 차지(UNCTAD, '13)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의 부품 및 원자재의 전세계 공급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 담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르게 편입

* 한국 가치사슬 참여도(65.0%)는 OECD 57개 조사대상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은 룩셈부르크(71.6%), 대만(71.0%), 싱가포르(70.7%), 필리핀(66.6%), 말레이시아(65.6%)(OECD TiVA 데이터베이스, '15.7월)

□ 기업의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

- 이에 최근 선진국까지 자국내 가치사슬 형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메가 FTA를 통한 GVC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 GVC 참여속도가 빠른 국가의 GDP 증가율이 평균보다 2% 가량 높음(UNCTAD, '13)

*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확대로 상품 복합성 1% 증가시 기업의 생산성 0.52% 증가(한경연, '14)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구조 재편 노력도 본격화

- 선진국은 제조업 新르네상스화

- 선진국은 신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투자 유치 정책으로 자국내 가치사슬 구축의 확대 및 심화 추진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 시설 유턴이 본격화되면서 美 제조업 부활을 예고

* (독일) 제조업과 정보기술 복합화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우위를 점하기위한 제조업 4.0 정책 선언

* (일본) 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진출과 함께 일본의 산업부흥을 강조한 '新성장전략'을 발표

- 신흥국은 제조업 핵심 성장 엔진화

- 중국, 인도, 중동, CIS 등 주요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

* (중국) 정부주도로 핵심 산업을 IT기술과 연계하여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제조 2025' 정책 추진

* (인도) 글로벌 제조업 허브를 목표로 'Make in India' 프로젝트 발족

* (중동, CIS) 자원중심의 경제구조 탈피 및 자국 내 제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 (중남미) 저렴한 인건비 및 선진국 인접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기지화

III

권역별 진출전략 요약

1.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지역	2016년 권역별 주요 이슈
북미	·미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11월) ·소비대국의 귀환 :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성장세 ·제조업 육성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유럽	·유로화 약세 지속, 경기 호조 전망 ·VW사태로 자동차 시장 변화,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본격 발주 ·난민 유입 확대, IS 등 테러 위협 증가
중국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및 중국시장 진출 장벽 완화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13차 중국경제 5개년 계획 및 위안화 평가 절하
일본	·아베 3차 수정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시행으로 해외 전력기자재 수요 증가
동남아 대양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미얀마 대선('16.3월), 필리핀 대선('16.5월), 태국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중산층 증가에 따라 진화하는 소비재, 온라인 유통시장
서남아	·정국안정 및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FTA 확대 노력)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중동	·'16년 상반기 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망에 따른 대이란 수출 활성화 기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주요 산유국 긴축 재정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정정불안 지속
CIS	·국제유가하락·환율불안으로 경기둔화 지속 불가피 ·서방과의 갈등으로 러시아 극동개발 및 아시아 협력 강화 예상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통한 러시아 역내 영향력 강화
중남미	·TPP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한·중미 FTA 협상 추진 및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 기회
아프리카	·TFTA 체결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소비트렌드의 변화 ·New Development Bank 출범 후 활동 본격화, 인프라 건설 활성화 기대

2. 권역별 진출환경

지역	권역별 진출환경
북미	(강점) 한국産 품질·기술에 대한 신뢰상승, FTA 발효로 우호적 진출여건 (약점) 고급시장 브랜드 인지도 부족, 중저가 시장 가격경쟁력 취약 (기회) 소비시장 성장, 제조업 부흥 등으로 수입수요 확대 (위협) 경쟁국 진출강화, 자국산 구매심리 확대, TPP발효 시 FTA 효과 상쇄
유럽	(강점) FTA효과, 기술력·인지도 제고, 건설 등 프로젝트 진출 경쟁력 (약점) 유로화 약세, 현지화 취약, EU 프로젝트 시장 경험 부족 (기회) 양적완화, 소비활성화, 아웃소싱증가, EU기금 프로젝트 발주 (위협) 엔, 위안화 약세, 경쟁 격화, 난민·재정위기 등 불안요소
중국	(강점)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고조 (약점) '중간재와 연해지역'에 편향된 수출 구조 (기회)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 (위협)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일본	(강점) 지리적 인접성과 장기 거래를 통해 구축된 협력관계 (약점) 엔저와 원자재 하락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기회)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추진에 따른 IT산업 및, 인프라 수요 증대 (위협) 일본 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TPP타결에 따른 경쟁 심화
동남아 대양주	(강점) 6억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젊은 노동인구, 역내 분업 (약점) 열악한 인프라, 낮은 정부신뢰도, 정치 불안, 투명성 미흡 (기회) 소비시장 성장, 프로젝트 지속, 한류, 통상환경 개선 (위협) 금융시장 불안정, 보호무역주의(비관세 장벽), 최저임금 상승
서남아	(강점) 전기전자, 자동차 중심 우리기업 진출 활발, 높은 인지도 확보 (약점)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기회) 전력·인프라 개선, 도시화 개발 프로젝트 수요 多 (위협) 일본, 중국기업의 공격적 투자 → 가격경쟁력 확보 우려
중동	(강점)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신규 수출 분야 확대 (약점)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축소, 이라크 등 정정불안 지속 (기회)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지속, 이란 시장 개방('16년 상반기 예상) (위협) 이란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시 존재
CIS	(강점) 거대 수입시장, 유라시아 핵심지, 자원보고, 첨단기술 인력 보유 (약점) 자원의존형 경제, 지하경제, 인프라 낙후, 언어 및 인증 장벽 (기회) 제조업 육성정책 확대, 극동개발 및 아시아 협력 증대 (위협) 경기침체 장기화, 환율불안, 역내 기업경쟁 심화, 정세급변
중남미	(강점)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 논의 및 '15년도 정상순방 효과 (약점)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정치·정책의 불안정성 (기회) 미주지역 생산기지로 도약, 미-쿠바 관계 정상화, 온라인 시장 확대 (위협) 원자재가격 하락 및 정치 불안에 따른 주요국 재정악화 고조
아프리카	(강점)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 및 기술 동시 전달 가능 (약점) ODA, 금융규모 주변국(중국, 일본) 대비 열세로 진출기업 금융지원 부족 (기회) 도시화 및 중상층 확대로 구매력 증가 (위협) 저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부국의 경기 둔화

3. 권역별 진출전략

지역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 대형 유통망 중심의 소비재 진출 강화 · 미국 제조업 부흥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 우수한 창업인프라 활용한 글로벌 창업 확대
유럽	· IT 융복합·친환경 제품 등 신성장 시장 공략 · 기술 확보 및 현지화를 위한 M&A 투자 강화 · EU 기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전준비 및 네트워크 구축
중국	· ‘13·5 계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일본	· 급성장중인 IT 보안, 자동차, 전자부품 등 첨단부품 시장 진출 · 일본 제조업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제3국 조달 수요 공략 · 대일 투자진출 진입 리스크 감소를 위한 일본 파트너와의 제휴
동남아 대양주	· 온·오프라인 소비재 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구사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투자진출, M&A 추진 · 통상이슈(한-베 FTA, TPP 등)와 직결된 신시장 수요 선점
서남아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마련 필요...경제성장 속도, 소비문화 차이 고려 ·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 진출 전략 차별화 ·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진출 희망국별 거점화 진출 기지 선택
중동	· 의료, 할랄 시장 등 신규 시장 공략 집중 · 산업다각화 관련 프로젝트 등 건설 프로젝트 시장진출 방안 다각화 · 이란 경제제재 해제 대비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CIS	· 러·카자흐의 자원 및 자금력 활용,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 우크라이나의 EU 진출기지화와 벨라루스를 통한 EEU 역내진출 다각화 · 조지아·아르메니아·EEU접경(카자흐·키르기즈) 등 미개척 시장 개척
중남미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라틴 소비재시장 개척 · IDB, ALADI 등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한 중남미 진출기회 발굴 · 성장하는 중남미 자동차시장을 활용한 한-라틴 밸류체인 구축
아프리카	· 제조업 육성수요를 활용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 다가울 경제통합에 대비, 현지 제조업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강화 · 중산층 증가,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대형 유통망 진출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권역별 진출전략

.....

북미 / 19
유럽 / 97
중국 / 173
일본 / 235
동남아대양주 / 291
서남아 / 367
중동 / 415
CIS / 467
중남미 / 525
아프리카 / 587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북미 진출전략

kotra
북미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1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21
2. TPP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23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29
4. 저유가, 미 소비확대 견인	30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32
6. 미국의 대 쿠바 엠바고 완화	34
II. 진출환경 분석	36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6
2. 경제 환경	39
3. 산업 환경	41
4. 정책·규제 환경	5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52
III. 시장 분석	56
1. 수출	56
2. 투자진출	63
IV. 시장진출전략	69
1. 진출전략 개관	69
2. 세부 진출전략	74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92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미국 대선, 캐나다 신 정부 출범과 함께 TPP 타결로 인해 북미 정치, 경제,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저유가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 소비/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나홀로 버팀목” 역할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쿠바 개방 등 새로운 먹거리 주목 필요

1.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 (미국)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2016년 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
* 이번 대선은 상원 의석의 1/3과 하원 전체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
- (경제정책)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소비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선호하며 세제인하, 세제구조 단순화 및 공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집중 추진

<2016년 미국 주요 대선 후보별 경제 정책 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최저임금	세제 개혁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시간당 12달러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부자들에게 대한 점진적인 세금 인상, 회사와 직원간의 이익공유 확대 주장
민주당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시간당 15달러	35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월가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	세율 구간을 단순화해 세금을 낮추고,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15%로 낮춘다는 입장
공화당	벤 칼슨 (Ben Carson)	-	10-15%의 균일 소득세 적용 주장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	현재 7단계인 세율을 15%와 35%로 단순화하고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제도를 없애거나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
공화당	젠틀 부시 (Jeb Bush)	-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낮춘다는 입장
공화당	테드 크루즈 (Ted Cruz)	-	소득에 상관없이 10% 소득세를 모든 개인에게 일괄 적용하고, 기업에는 기존의 고용세와 법인세 대신 16% 균일 세율 적용

- (통상정책) 민주당은 TPP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인해 자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통상 협정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공화당은 당 내에서도 지지,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

<2016년 미국 주요 대선 후보별 통상 정책 입장>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TPP 찬반	비 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반대	10월 7일, 현시점까지 알려진 TPP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
무소속 (민주 경선 출마)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반대	월가(Wall st.)과 대기업들만을 위한 협정이며, 발효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반대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
공화당	벤 칼슨 (Ben Carson)	보류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TPP의 최종 협정문을 보고 싶다고 발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찬성	TPP가 지역 경제를 통합하고 북·중미,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고 평가
공화당	젭 부시 (Jeb Bush)	찬성	TPP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평가
공화당	테드 크루즈 (Ted Cruz)	보류	자유무역을 찬성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그 어떤 협정도 믿을 수 없다고 발언

□ (캐나다) 2015년 10월 자유당(Liberal)으로 정권교체

- 10.19일 실시된 캐나다 42대 연방총선에서, 진보성향 ‘자유당(Liberal)’ 승리
 - 하원 338석 중 과반(184석) 획득,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강화공약
 - * ‘교통인프라 투자확대’, ‘친환경 에너지개발’ 등에 재정지출 확대방침
- ‘TPP(10.5일 타결)’에 대한 산업별 ‘得失’ 검토, 비준 등 후속조치
 - 자국 ‘제조업’, ‘낙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조치 강화움직임
 - * 고령화대응 ‘이민문화개방’, NAFTA역내 ‘인적교류촉진’ 등 노동인력 수용확대 예상

< 자유당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효과
재정·복지정책	▶ 적자재정운용(연간 100억 달러) ▶ 중산층 세금감면, 부유층(1%)증세 ▶ 인프라 확충(예산 1,250억 달러)	· 내구소비재 수요증가 · 건강·의약품 판매증가 · 건설 중장비·기계 수입증가
환경·에너지정책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 ▶ 기후변화협약 참가(검토) ▶ 송유관(Keystone XI) 건설	· 풍력·태양광사업 확대 · 친환경제품 조달증가 · 강관 등 기자재 수입증가
통상정책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력강화 ▶ TPP 조건부찬성(비준예상) ▶ 자국산업 육성정책 적극추진	· 북미시장 통합심화 · 제조업, 낙농업 등 주력산업 보호강화
이민정책	▶ 고령화 대응, 이민문화개방(검토) ▶ 시리아 난민수용 등 포용정책 ▶ 북미(미국·멕시코) 인력이동촉진	· 선별적 외국인 취업, 창업 기회확대 · 북미거점 입지여건개선

2.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북미 통상질서 재편

□ (TPP타결) 12개 협상 참여국, 5년 만에 최종 타결 성공

- 2015년 10월 4일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TPP 최종 타결을 이루며,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
- 공동성명을 통해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개방수준의 균형 잡힌 협정을 이끌어낸다는 협상단의 기존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선언

□ (발효전망) 최종협정문 대외공개 예정, 발효까지 2~3년 소요 전망

- TPP 최종협정문은 법률 검토, 번역, 검증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
* 10.19-30, 일본 도쿄에서 12개국 실무진들이 법률 검토 작업 시행
- 협정문 공개 후 의회 비준안 발의 등 각 국가별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 최종 발효까지는 약 2~3년 소요 전망
 -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내 규정에 따라 TPP 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전 의회에 서명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60일 전 협정문 대외 공개 필요
 - 美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 등 각계 유력 인사들이 TPP에 대한 반대 및 판단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비준 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 예상

□ (주요내용) 원산지규정통합, 관세인하, 통관절차 원활화 등을 통해 역내 경제교류 집중 추진

- (원산지 규정 통합) 단일 원산지 규정으로 역내 혜택 강화 목표

◇ [TPP 원산지 규정]

- ▶ 간소한 원산지 규정 확립을 통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촉진하고 非회원국이 아닌 TPP 회원국이 주요 수혜국이 되도록 설정
- ▶ 누적제(accumulation)를 도입하여 TPP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TPP產 원자재를 회원국 간 차별 없이 TPP產 원자재·제품으로 인정
- ▶ 통일된 TPP 원산지 검증·조회 시스템을 통해 역내 통관 간소화를 촉진

- TPP는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 간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역내 단일 시스템 확립으로 쉬워짐에 따라 TPP 활용률은 양자 FTA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통관애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등 (관세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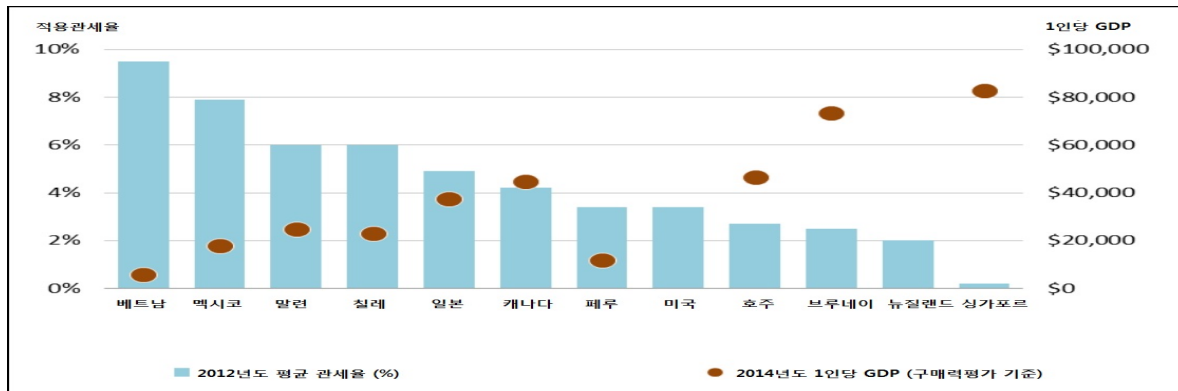
○ (관세 인하 및 철폐) TPP 역내 18,000개 이상의 관세 철폐

◇ USTR의 TPP 상품 무역 조항 요약

- ▶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
- ▶ **관세 및 교역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TPP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
- ▶ 재제조(remanufactured)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WTO 규정에 어긋나는 수출입 제한 및 관세 부과를 행하지 않기로 합의
- ▶ 관세 우대를 대가로 현지생산 요건과 같은 **조건부 이행 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 TPP 참여국은 농산품 수출 보조금 정책 폐지와 같은 농업 정책 개혁에 착수할 것이며, WTO와 공조하여 수출 신용, 국영 무역기업, 농산품 수출 제한기한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예정

- 미국은 TPP 체결로 인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18,000개 이상의 관세장벽이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은 他 TPP 가입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중 95.3%를 철폐할 계획이며, 他 TPP 국가들이 부과 중인 일본산 공산품에 대해 부과 중인 관세의 86.9%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승 예정
- 다양한 경제 개발 수준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베트남, 멕시코 등의 관세가 대거 인하 또는 철폐되어 서플라이체인 활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TPP 가입국별 평균 관세율>



* 자료원 : 미국 의회조사국

○ (통관절차 원활화) 통관 소요기간 최소화 및 신속통관 절차 마련

◇ USTR의 TPP 통관집행·무역원활화 조항 요약

- ▶ 불필요한 통관 대기 및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며, 사전심사(Advanced Ruling) 제도 활성화
- ▶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절차를 제공하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 도입을 통해 저가 화물에 대한 관세를 면세
- ▶ TPP 가입국 관세청 간 협조를 통해 모조품, 멸종위기종 및 불법 물품 교역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

- USTR,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등 주요 TPP 협상기관들은 TPP 통관집행, 무역원활화 조항이 통관 간소화, 거래비용 감소 등을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선언

* 출항 전 전산 신고, 통관 절차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PP 가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 강화를 목표

- 통관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는 각 국가별 복잡한 통관 절차와 통관 비용 때문에 수출을 기피해 온 중소기업들의 수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분석

- 특송·급송 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절차 정착은 부패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는 농가 및 식료품 제조사,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의 IT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

- 미국 등 TPP 가입 선진국들은 그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통관을 지연하던 부패 행위와 임의적 관세 부과가 투명성을 강조한 TPP를 통해 종식되기를 기대

- 현재로서는 TPP로 인한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TPP 회원국 간에만 적용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회원국이 배제될 경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참고] TPP 역내 및 대외 교역 현황

□ (역내 교역) TPP 역내 상품 교역액 약 2.1조 달러

- 2014년 TPP 12개국 간 역내 상품 교역액*은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17.8조 달러)의 약 11.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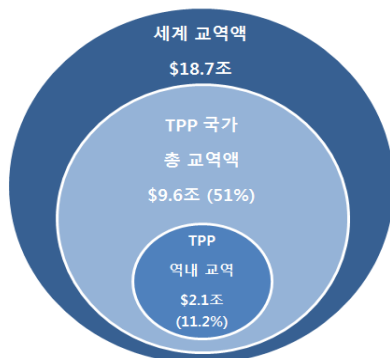
* TPP 국가들의 총 상품 교역액(역내 및 對세계)은 약 9.6조 달러

- TPP 역내 교역액 중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교역이 약 9천억 달러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과 일본 간 교역액이 약 2천억 달러로 약 1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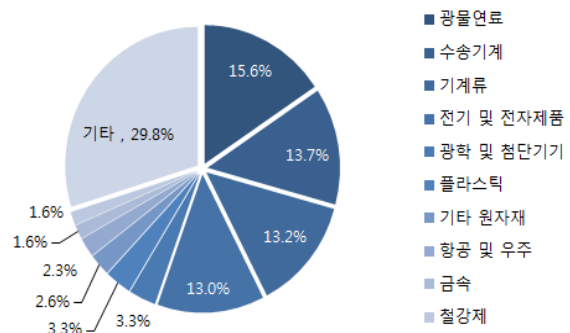
□ (주요 품목) 광물연료, 수송기계, 기계류 등이 주요 상호 교역 품목

- TPP 12개국 간 역내 교역의 주요 품목은 HS코드 2자리 기준으로 광물연료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기계류가 뒤를 이음.
- 기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TPP 간 주요 상품 교역품목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계 상품 교역 중 TPP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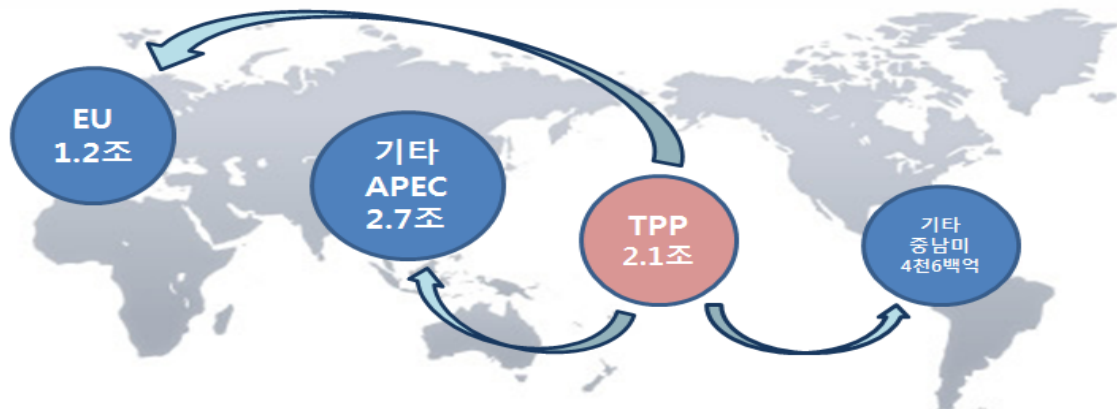
<TPP 역내 교역액 10대 품목 비중>



* 자료원 : ITC Trade Map

□ (대외 교역) TPP 참가국, 기타 APEC 국가들과 교역 규모 높아

<TPP국가들과 주요 지역과의 교역액 현황(달러)>



* 자료원 : 미국 의회조사국

- TPP 역내 교역도 세계 교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APEC국가들과의 교역이 역내 교역보다 크게 나타남.

□ (한국과 교역) 한국, TPP 참가국에 약 200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의 對TPP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對TPP 수출			對TPP 수입			對TPP 무역수지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2013	2014	증감
1,789	1,883	5.2%	1,682	1,680	0%	107	203	89.3%

*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출 품목: ①전기 및 전자제품, ②자동차, ③광물연료, ④기계류, ⑤철강 (HS코드 2자리 기준)
- 한국의 주요 對TPP 수입 품목: ①광물연료, ②전기 및 전자제품, ③기계류, ④광, 슬랙, 회, ⑤광학 및 첨단기기(HS코드 2자리 기준)
-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광, 슬랙, 회 및 화학제품, 육류, 의약품 등에서 적자 기록

□ (중간재 교역) TPP 역내 중간재 교역액 약 1.2조 달러

- TPP 역내 중간재 교역이 약 1.2조 달러로 최종재 교역액보다 약 65% 높으며, 역내 총 교역액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역내 가치사슬이 발달

<TPP 상호 교역 중 최종재와 중간재 교역 비중 및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최종재		중간재		중간재/ 최종재비율
	TPP내 수출	비중	TPP내 수출	비중	
미국	290,710.55	39.7	392,280.20	32.4	1.35
캐나다	114,200.23	15.6	269,148.90	22.3	2.36
멕시코	104,245.11	14.2	167,859.10	13.9	1.61
일본	98,221.29	13.4	138,013.90	11.4	1.41
싱가포르	35,901.20	4.9	55,413.01	4.6	1.54
말레이시아	30,794.61	4.2	50,783.41	4.2	1.65
호주	24,459.24	3.3	76,819.29	6.4	3.14
베트남	16,395.46	2.2	19,638.26	1.6	1.20
뉴질랜드	11,046.73	1.5	12,287.54	1.0	1.11
칠레	5,895.09	0.8	19,824.71	1.6	3.36
브루나이	668.35	0.1	7,137.54	0.6	10.68
TPP 총	732,537.86	100	1,209,20.75	100	1.65

*모든 통계는 2011년 기준

**OECD-WTO 무역통계에 페루의 수출입 통계 부재로 페루를 제외한 TPP 11개국에 대한 통계만 집계

* 자료원 : OECD-WTO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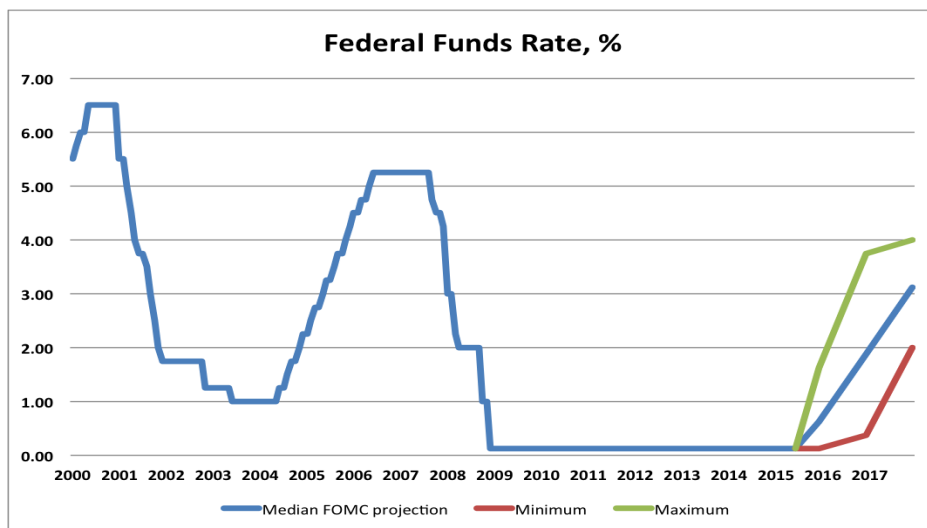
- 단순히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만을 두고 TPP 내 가치사슬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통해 가치사슬의 구성 파악 필요
-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

3. 미국 금리인상 vs 캐나다 금리인하

□ (미국) 연준, 금리인상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화 긴축 가능

- 미국 연준, 2015년 안에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0~0.25%)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점진적 인상 유력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달러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 달러로 인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방압력 가중 전망
- 달러강세로 미국 소비시장 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며 수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 후 대출비용 상승, 자산효과 저하 등으로 소비심리 약화 우려
-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로 인한 전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우려

< 미국 기준금리 현황 및 전망 >



* 자료원 : FOMC(공개시장위원회)

□ (캐나다) 금융당국, '저금리' 및 '통화절하' 정책가속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0.5%('15.10월 기준)로 하향
 -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 제조업 수출경쟁력 확보노력
 - * '15.10월, 1 USD = 0.77 CAD 선으로, 미국달러 결제관행 '수입가격' 부담가중
-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제조업 활성화
 -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기 회복과 맞물려, 수출산업 호조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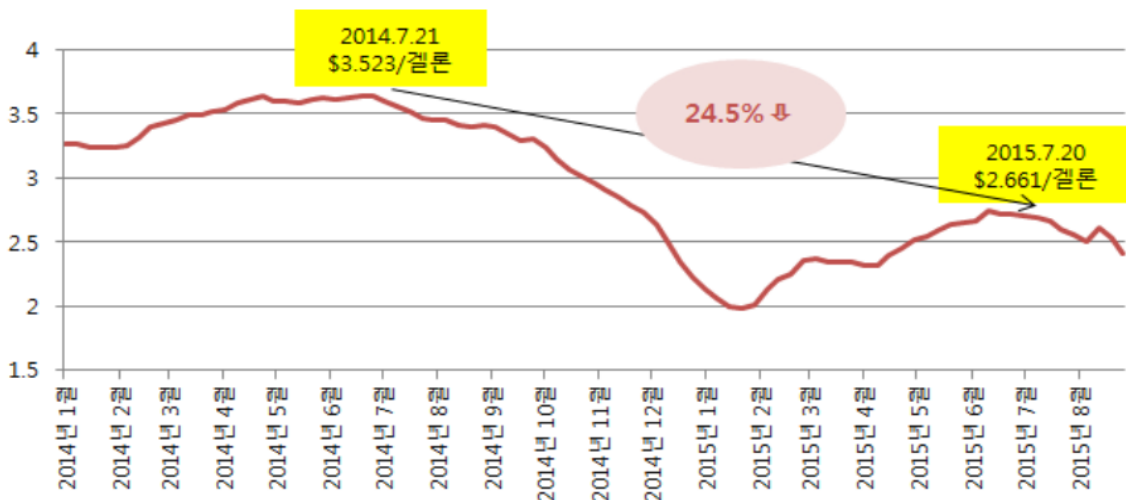
4. 저유가, 미국 소비확대 견인

□ 미국 휘발유 가격, 전년대비 25% 하락

- (총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저유가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014년 7월 갤런 당 3.5 달러에서 2015년 7월 갤런 당 2.7 달러 정도로 약 24.5% 하락
- 미국 자동차서비스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낮은 휘발유 가격으로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
-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약 1000억 달러(한 가구당 750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 추이>

(단위 : US\$/갤런)



* 자료원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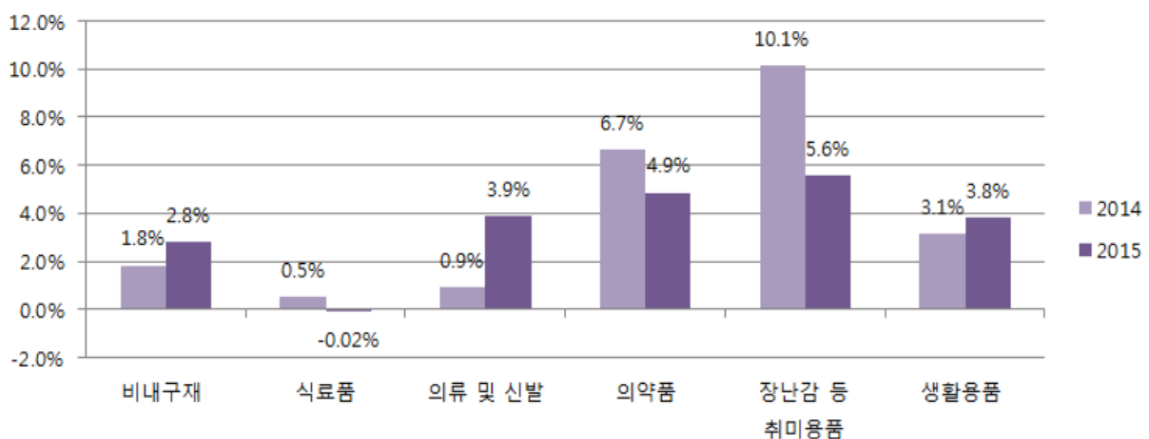
□ 저유가로 인해 화창한 민간소비, 구름 낀 에너지 부문

- (민간소비) 2015년 미국의 GDP가 3%에 근접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해 7월 이후 지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미국 내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고용촉진으로 연결되고 있음
- 고용상황의 개선은 미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 증가 →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 → 민간투자 확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 개인소비 증가율 : 1.8%('15.1Q) → 3.6%('15.2Q)
- * 미국 실업률 추이 : 5.6%('15.1월)→5.5%('15.3월)→5.3%('15.6월)→5.1%('15.9월)
- (에너지부문) 반면, 셰일가스 생산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약 \$60 이하가 지속되면서 셰일가스 광구개발 투자는 20% 하락했으며 생산증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음

□ 저유가 효과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전망) 미국의 휘발유 가격 내년 말까지 갤런 당 3달러 미만 유지가 유력해 저유가 효과 지속될 것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내년 말까지 갤런 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 내 저유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지출 확대 효과도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활용방안) 수요 상승 품목 공략을 통한 대미국 수출증대 노력 필요
 - 유가에 따라 소비가 민감히 반응하는 품목인 자동차 및 여가생활 관련 미국인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의 내구재 품목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기업들의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잉여소득 공략을 기대

<미국 비내구재와 주요 내구재 소비지출 증감>



* 주 : 2015년 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캐나다) 국제유가 하락여파,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

- 캐나다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산업 침체
 - 앨버타(Alberta) 등 산유지역 고용, 내수 부진 속 경기침체(Recession) 지속
 - * 캐나다 에너지기업들, 신규투자 취소·축소 및 고용축소·비용감축 자구노력 강화
- 유연탄, 우라늄 등 상품(Commodity) 가격하락, 한국기업 진출에 악영향
 - 기 진출 국내기업, 기존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지연발생

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Boston Consulting Group(BCG)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2005~20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에는 4.5 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20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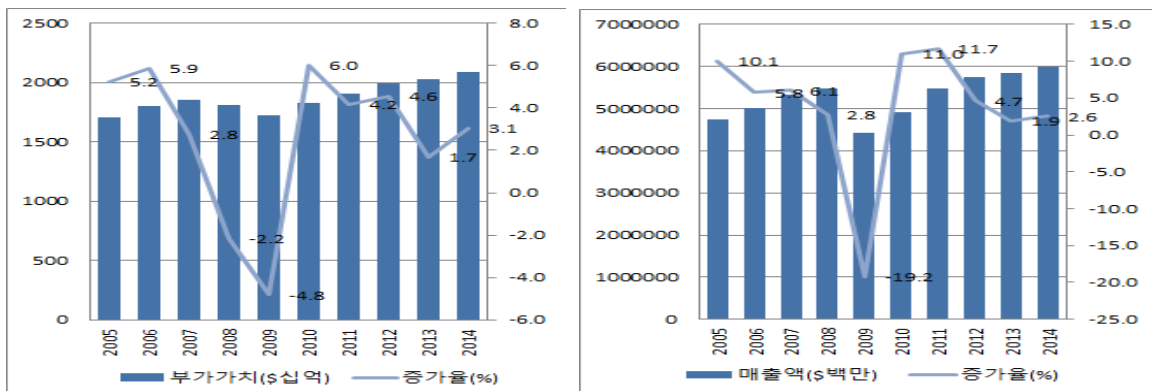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치)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 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 반영)	23%	22%	31%	44%

* 주 : 평균임금은 시간당 급여 기준

* 자료원 : 보스턴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 (현황)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가속화와 제조업 매출 상승
 - 2010~2014년간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써 2005~2009년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크게 상회
 - 2009년 급락했던 제조업 매출액은 2010년 이후 회복을 지속한 결과 2014년 5조 9,963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및 매출액 추이>



* 자료원 : 미국 상무부, 통계청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 첨단 기술 육성 가속화
 -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금융위기 이후(2010~2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 투자도 금융위기 이전(2005~20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2010~2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으며 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체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20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체 수는 2013년 3분기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동시 제공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자진출 활성화가 필요함

6.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 사업 진출 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 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 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 쿠바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쿠바産 모바일 앱 구입과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쿠바인 고용 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쿠바 외 거주 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미국 영토 내 모든 사람,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 미국인 및 미국 내 체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단체 또는 기업

- (쿠바 내 주재 및 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 활동*에 대해 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 설립하여 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 보도국, 농산품 및 건축자재 등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 국제 특송 및 화물업체,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

- (송금) 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농업, 통신, 건설 분야 미국 기업 시장 진출 시도

* (Carnival, 관광) 2016.6월부터 쿠바 취항 크루즈 노선 운항

* (Cargill, 농업) 시장 조사를 위한 쿠바 답사 수차례 진행, 인도주의적 현지 협력 및 진출 방안 모색

* (Caterpillar, 건설 및 에너지) 쿠바 시장 관심 지속적으로 표현 (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 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 직항 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2016년 주요 일정

- 1월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
- FOMC 정회(1월 26-27일, 3월 15-16일, 4월 26-27일, 6월 14-15일, 7월 26-27일, 9월 20-21일, 11월 1-2일, 12월 13-14일)
- 1월 6-9일 CES 2016 트레이드 쇼(라스 베가스, 네바다)
- 1월 26-28일 International Production & Processing Expo(아틀란타, 조지아)
- 2월 첫째 월요일 대통령 예산안 의회 상정
- 2월 11-15일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보트쇼(마이애미, 플로리다)
- 2월 16-18일 MAGIC vegas(라스 베가스, 네바다)
- 5월 2-5일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휴스턴 텍사스)
- 5월 26일 15회 DOE 스몰 비즈니스 포럼&엑스포(애틀란타, 조지아)
- 6월 16-18일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엑스포(뉴욕, 뉴욕)
- 6월 30일 의회 예산 책정안 대통령에 상정
- 7월 18-21일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클리브랜드, 오하이오)
- 7월 25-28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 8월 20-24일 NY NOW 2016(뉴욕, 뉴욕)
- 10월 1일 정부회계년도 시작, 새 예산 발표/적용
-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II

진출환경 분석

< 2016년 미국 시장의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소비시장은 저유가, 고용안정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정부의 첨단 제조업 집중 육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전역의 창업열풍으로 전 세계 창조경제를 선도 중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세계 최대의 시장 : 전 세계 경제력의 22.5%, 수입시장의 12.5% 차지

- (경제규모) 201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7.4조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2위인 중국(10.4조 달러)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미 기준 전세계 경제력의 24.5%, 캐나다 경제규모 1.8조 달러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 규모는 2014년 기준 2조 3,477억 달러
 로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2.5%)
 * 북미 기준 전세계 수입시장의 15.2%, 캐나다 수입규모 5,070억 달러
- (구매력) 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매우 높은 시장
 * 소비인구(2015년 기준) : 美 3억 2,121만명 / 加 3,510만명
 * 구매력(1인당 GDP, 2014년 USD 기준) : 美 54,629 달러 / 加 50,271 달러

□ 2016년 미국 시장 3대 테마 : 소비증가, 제조부흥, 창업확대

- (소비대국의 귀환) 소비시장(12조달러) 연 2.4% 내외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 소비 확대의 키워드 : 온라인, 다문화, 혁신제품
 * (온라인) 연 15%성장 (전체 소매시장의 10배) / 오프라인 구매의 36% 온라인으로 의사결정
 * (다문화) '14-'60간 인구증가 전망, 아시아(143.1%), 라티노(114.3%) vs 평균(30.8%)
 * (혁신제품) '09-'14간 신제품(식품제외) 출시 23.4% 증가, 소비자 17% 新혁신제품 기대(IRI설문,'14)
- (Making in America) 제조업 육성 정책 및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흥
 - 美정부 첨단제조업 집중 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 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 4개년 비교 :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 43.3%, (민간)제조업투자 9% 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창업열풍) 금융위기 이후 창업 환경 전 지표 상승 중

- 창업기업 수, 창업환경지수 등 지속 상승, 美전역 창업진흥에 총력
 - * 창업하기 좋은 40대 도시에 뉴욕(1위) 등 6개 도시 선정(최다)(엑센추어, '15)
 - * 2015.3Q 기준 창업 투자액 50% 증가(\$530억), 성장단계별 전 분야 투자 증가

□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개방 시장

- 주요 국제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

<주요 기관별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 결과>

평가기관	미국
AT Kearney ¹⁾	1위
Ernst & Young ²⁾	1위
World Economic Forum ³⁾	3위
World Bank ⁴⁾	7위

* 주 : 1) FDI Confidence Index, 2) Glob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3)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 Ease of Doing Business

* 자료원 : 각 기관별 최신 발표자료 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북미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성공해야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는 상황
- (비즈니스 인프라)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 유치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대학랭킹(2015-16)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 39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시간당 \$67로 세계 3위
 -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혁신(Innovations)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 Forbes社 발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39개 기업이 미국 기업

□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개선

- (주요내용)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출품목의 92.1%가 3년 내에 관세 철폐 되었으며, 미국 측 민감 품목은 5~12년에 걸쳐 점진적 철폐
- (교역성과)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기준 FTA 수혜품목군의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5.5% 증가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 * 연도별 한미FTA 수혜품목 대미수출 증가율 : 14.6%('12)→1.9%('13)→5.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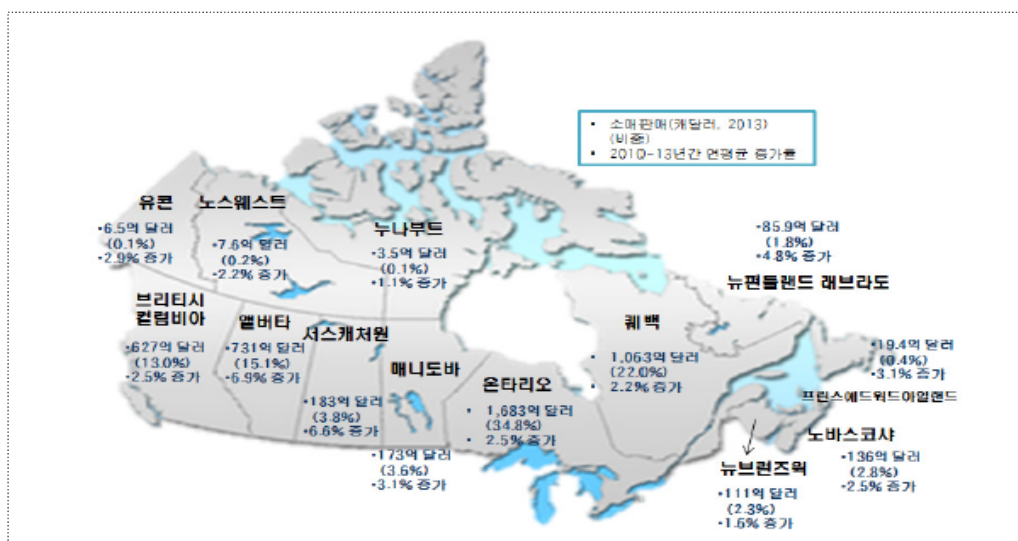
□ (캐나다) '지역협정(TPP, NAFTA, CETA)' 확대, 글로벌 경쟁·협력 심화

- TPP(일본, 동남아), CETA(유럽) 발효 시, '사실상 완전개방' 시장형성
 - 관세철폐 외, 상대적으로 투명한 '비관세' 제도·규범 등 낮은 진입장벽
- '고부가·첨단산업', 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입지여건 양호
 - TPP 체제 하에서, 확대·개편될 '글로벌가치사슬' 참여기회 확대

□ 2016년 캐나다 시장 테마 : 이민자 증가, 소비 확대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따라, 선진국(G-7) 중 높은 인구증가율(1.1%) 유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 15.7% 등 '고령사회' 진입
- 견조한 소매시장증가(연평균 1.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산 등 특징
 - '가공식품', '의약·건강', '미용제품' 등 판매증가 현상지속

<캐나다 지역별 소매시장>



2. 경제 환경

□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경제의 “나홀로 버팀목”

- (GDP) 추세적 회복이 예상되나,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는 성장세 확대의 아킬레스건('15년 2.6%→'16년 2.8%, IMF 10월)
 - (소비) 민간소비는 실업률 감소(5.1%, 9월), 주택가격 상승, 석유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15년에는 2.7%, '16년에는 3%선까지 증가전망
 - (교역) 북미지역 수입은 달러화 강세, 소비증가 및 설비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14년 2.3조(4.0%)→'15년 2.4조(4.6%)→'16년 2.5조(5.3%))
 - * 미국의 수출은 달러화 강세로 감소세가 예상되나 수입은 7% 내외 증가 전망

□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3.9% 기록, 성장세 지속 전망

- 1분기(0.6%) 대비 큰 폭 성장, 시장 기대치 상회
 - 미 상무부 잠정치(2.3%), 시장전망치(2.5%) 크게 상회
 -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 지속 성장
 - * 실업률 : ('15.3월)5.5%→(6월)5.3%→(8월)5.1%,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 수출확대, 기업투자 증가 등이 경제성장 견인
 - * 서부항만 파업사태 최종타결(2.20일), 물류 정상화
 - * 기업투자(구조물) 1/4분기 - 7.4%에서 플러스 전환

<경제 부분별 성장률>

	2014				2015	
	1/4	2/4	3/4	4/4	1/4	2/4
GDP	-0.9	4.6	4.3	2.1	0.6	3.9
개인소비	1.3	3.8	3.5	4.3	1.8	3.6
민간투자	-2.5	12.6	7.4	2.1	8.6	5.0
비주택	8.3	4.4	9	0.7	1.6	4.1
(구조물)	19.1	-0.2	-1.9	4.3	-7.4	6.2
설비	3.5	6.5	16.4	-4.9	2.3	0.3
주택	-2.8	10.4	3.4	10	10.1	9.3
재고증감	-1.29	1.12	-0.01	-0.03	0.87	0.02
순수출	-1.39	-0.24	0.39	-0.89	-1.92	0.18
수출	-6.7	9.8	1.8	5.4	-6	5.1
수입	2.8	9.6	-0.8	10.3	7.1	3
정부지출	0	1.2	1.8	-1.4	-0.1	2.6

<고용 및 실업률>



* 자료원 : 미 상무부(% , 전기비 연율)

* 자료원 : 한국은행(미 상무부)

<주요 실물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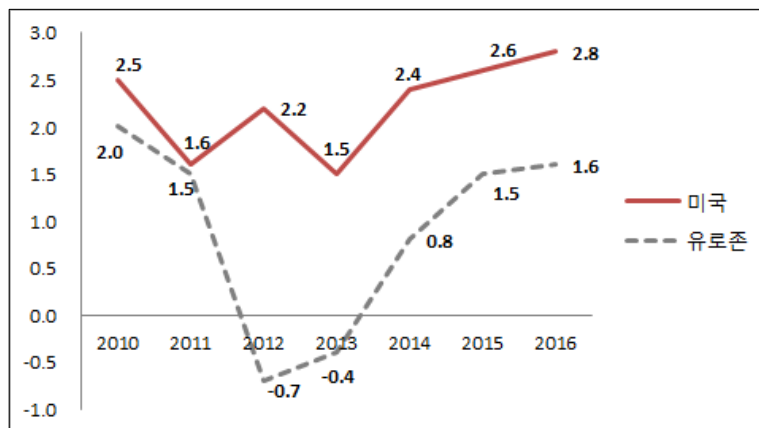
지표	'14.4Q	'15.1Q	'15.2Q	'15.5	'15.6	'15.7	'15.8	'15.9
소비(실질)	4.4	1.8	3.6	-	-	-	-	-
소비자신뢰지수	89.9	95.5	94.2	90.7	96.1	93.1	87.2	92.1
산업생산	4.6	△0.2	△1.7	△0.4	0.0	0.8	△0.1	△0.2
ISM제조업지수	56.9	52.6	52.6	52.8	53.5	52.7	51.1	50.2

* 자료원 : 미 상무부, 미시건대, 미 연준, ISM

□ 향후 미국 경제, 3%대에 근접하는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IMF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6% 성장하고 2016년에도 2.8%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1)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국 GDP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는 민간소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원인 #2) 저유가 지속에 따른 가계 구매력 증가와 투자 여력 확대는 소비와 민간투자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할 것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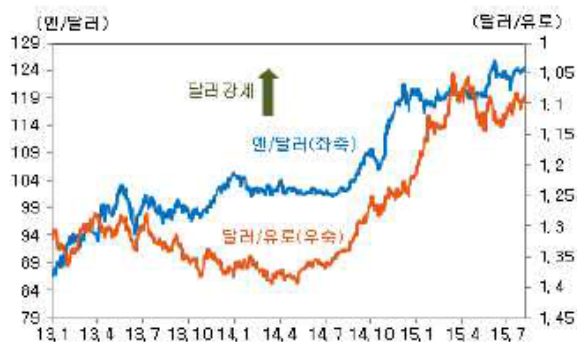


* 자료원 : IMF (2015.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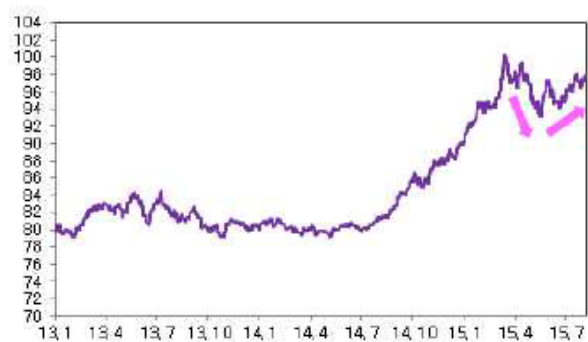
□ 환율 :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 전환

- 유로화 대비 :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 그리스 우려 완화 등에도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로 반전 (6월 1.115 → 9월 1.098, +1.5%)
- 엔화 대비 :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 등이 작용하여 경세로 전환 (6월 122.5 → 9월 123.9, +1.1%)

<미 달러화 환율>



<달러 인덱스>



□ (캐나다)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예상

- 에너지산업 위축 반면, 수출제조업 호조 등 '상반된(Two-track)' 경제여건
 - '15년 경제성장률 1.1%에서 '16년에는 2.5%선으로 회복 (加중앙은행 '15.10월 전망)
 - 물가안정, 고용부진 타개를 위해,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지속 전망
 - 중앙은행(Bank of Canada), 기준금리 하향유지(0.5%, '15.10월)
- 자료원 : 한국은행(Bloomberg)

□ 수출입 감소, 무역적자 등 교역위축

- '15년(1~8월), 수출 2,748억 달러 (전년대비 -12.8%), 수입 2,839억 달러 (-7.9%)
 -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급감한 반면,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
 - * '캐나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대미수출이 증가한 반면, 고가 내구소비재 등의 수입은 감소

<캐나다 주요경제지표 변동률>

구 분	2014	2015(예상)	2016(예상)	2017(예상)
민간소비	1.5%	1.2%	1.2%	1.1%
정부지출	-0.1%	0.1%	0.2%	0.2%
기업투자	0.0%	-0.9%	0.4%	0.8%
수 출	1.7%	0.6%	1.6%	1.7%
수 입	-0.5%	-0.3%	-0.8%	-1.2%
국내총생산(GDP)	2.4%	1.1%	2.3%	2.6%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3. 산업 환경

□ 자동차

-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 경제회복에 따라 꾸준한 성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구매수요 상승으로 2010년 이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판매량은 1,653만대 수준으로 전년도 1,558만대보다 6.1% 증가
 - 시장조사기관 Ward Auto에 따르면, 2015년 판매량은 1,690만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미국의 2014년 자동차 수입액은 1,544억 907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
 - 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이며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는 일본, BMW, 벤츠, Volkswagen이 속한 독일, 현대기아차가 있는 한국이 주요 수입국
- * 수입시장 점유율 : 캐나다 28.0%, 일본 22.0%, 독일 16.8%, 멕시코 13.9%, 한국 9.4% 순

□ 자동차부품

-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는 분석 기관별로 상이하나 IBIS World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2009년 금융위기 및 빅3 업체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위기를 겪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회복 및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연간 매출액 기준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 시장 규모 변화>

(단위: 억 달러)

'07	'08	'09	'10	'11	'12	'13	'14
545	531	373	471	521	540	559	583

* 자료원 : IBIS World

- 완성차 업체의 납품업체 수는 오히려 축소됨
 -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를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업체 수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
- 신규 연비 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 확대됨
 - 신규 연비 기준: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업체는 2009년 기준 27.3mpg인 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 당 15.0km대)로 개선해야 함
 - 연비기준 준수를 위해 GM, Ford 등 완성차업체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요가 커질 전망

□ 유통

- 美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통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14년 기준 전년대비 4.2% 상승한 2조 517억 달러로 미국 GDP 17조 4,189억 달러 중 11.8%를 차지함

- 미국 유통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매유통시장의 경우 전통적 형태인 점포기반 소매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무점포 소매의 매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점포기반 소매 매출액은 2014년 기준 2조 5,369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2.28%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전체 소매유통 매출의 87.6%를 차지
- 무점포 소매의 매출액은 2014년 기준 3,601억 달러로 전체 소매유통 매출액 중 12.4%의 비중만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7.72%의 고성장을 기록

<미국 유통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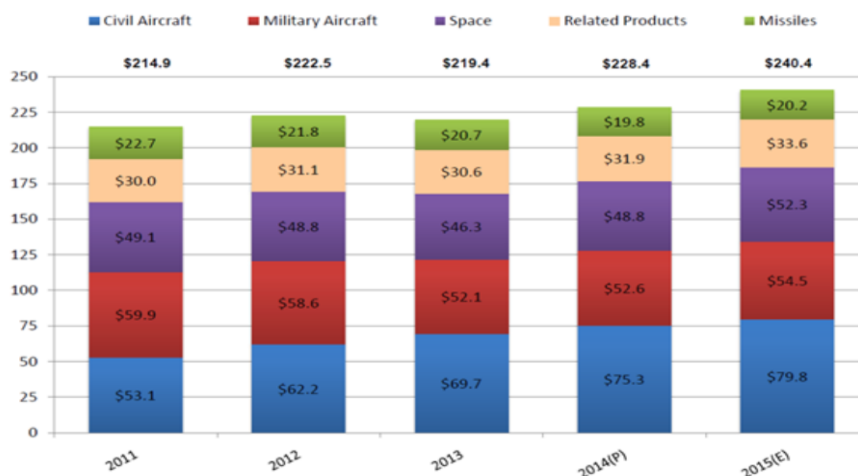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부가가치	1,799.0	1,898.3	1,969.9	2,051.7
GDP 내 비율	11.6%	11.7%	11.7%	11.8%
성장률	3.6%	5.5%	3.8%	4.2%

*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항공우주

-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미국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2,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0%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26% 성장해 2,40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항공우주산업 제품별 시장 규모는 상업용 항공기가 753억 달러로 항공우주산업 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용 항공기는 23%(526억 달러), 우주 항공기는 21.4%(488억 달러), 항공 관련 제품은 13.9%(319억 달러), 미사일 관련 제품은 8.7%(19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항공우주 산업 제품별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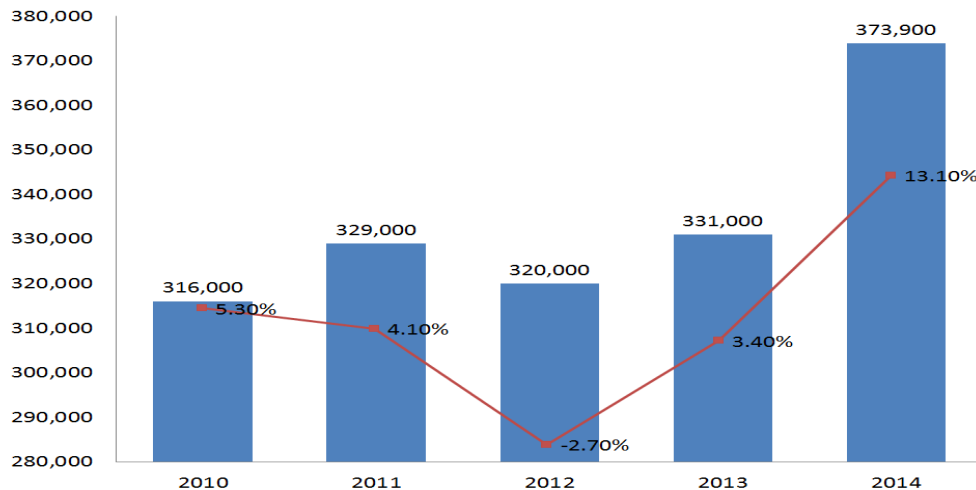


* 자료원 : 미국 항공산업 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 의약품

- 미국의 의약품 산업 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3,739억 달러
 - 이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것으로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

<미국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자료원 :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 전문의약품 수요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IMS 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14%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의 점유율이 2014년에는 3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2%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저렴한 처방약을 선호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네릭 약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3천 8백만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적정 풍속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발전부문에서 미국 내 1위이며 풍력, 수력 발전부문에서는 2위 차지
 - 특히 인근 Mojave 사막지역에 많은 태양에너지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Tehachapi에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보유
 - 타 주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공급전력의 19%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 2030년까지 공급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선두를 지키고 있음.

<201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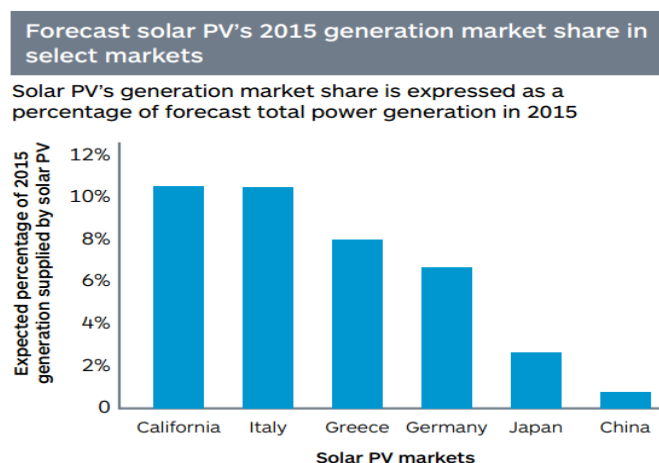
Installed Renewable Energy Capacity, 2013			
Wind Power	5,829 MW	Marine Power	0 MW
Solar Photovoltaic	5,183 MW	Biomass Power	1,417 MW
Solar Thermal Electric	393 MW	Ethanol	223 mGy
Geothermal Power	2,711 MW	Biodiesel	70 mGy
Hydropower	10,054 MW	Totals	25,587 MW; 293 mGy

* 자료원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시장에 주목

- SEIA에 따르면 '15년 현재 캘리포니아 태양에너지 누적 설치량은 8.65GW로 애리조나(1.22GW)와 뉴저지(1.22G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
- IREC의 US Solar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시설(Utility-scale Solar PV) 설치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608MW의 발전시설을 설치
-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1위 수준으로서 '13년 미국 전체 설치량의 57%를 차지
- IHS에 따르면 '15년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망과 연결된 태양광 발전량은 6GW를 넘어서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2015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점유율 전망>



* 자료원: IHS

- 또한 '14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간 Ivanpah와 Genesis 지역 태양열 발전설비의 발전용량은 642MW로 주 전체 태양열 발전용량을 전년대비 163% 증가시킴.
- San Bernardino 지역에서 '14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태양열 발전시설의 용량은 250MW로 태양열 발전량 증가에 공헌
- 한편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14년 풍력발전 누적설치량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5917MW로 텍사스 주의 1만 4098MW에 이어 2위 차지
- Tehachapi 지역의 Alta Wind Energy Center는 2014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228MW로 미국 내 최대규모 풍력발전시설
- 이밖에 '13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1417MW이며 Port of Stockton 소재 45MW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4년 2월부터 가동 시작
- 투자금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 관련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특히 '16년 말까지 총 32G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태양에너지 발전량의 급속한 증가 예상

□ 문화콘텐츠 산업

○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LA는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3D,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라이선싱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카
- 미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20%를 차지하며 '15년 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영화와 음향녹음 관련 산업 허브
- '14년 일년 중 촬영일 수(영화, TV쇼, 광고 등 포함)가 5만 5천일 이상으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01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 기록
- 픽사, 소니,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메이저 영화사 소재
- 소니, 블리자드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남가주에 포진하는 등 게임산업도 활발하며 매년 미국 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E3가 LA에서 개최됨.

○ 각 부문별 성장 전망

- PwC에 따르면 미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매년 5.2% 성장 전망
- 게임시장은 콘솔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 성장 전망
- 영화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에 힘입어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 예상

- 애니메이션 시장은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 전망
- 캐릭터 및 라이선스 시장은 애니메이션 흥행에 따라 '1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 예상

□ (캐나다) 제조업 글로벌화, 서비스업 고부가화 추세

- 자동차, 항공우주, IT·서비스 등 캐나다 핵심 산업, 미국 등과 연계발달
 - 전력, 의료 등은 여전히 정부·공공 부문 비중이 높은 특징
- 국가산업 전체에서는 부동산, 도·소매, 숙박·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 설계·엔지니어링, 미디어·콘텐츠, 금융·증권 등 고부가·서비스 발달

<캐나다 산업별 국내총생산('14)>

구 분	GDP(USD 백만)	비 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요식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자동차산업, TPP 발효 시 타격우려

-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TPP 체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 역내부품 비중하향(62.5%→45%)시, 일본산 수입확대 및 국내생산 감소예상
 - * 캐나다 정부, 자동차 제조업 보호를 위해, 예산지원(보조금) 확대방침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 추이>

연도	생산량(대)	북미비중(%)
2010	2,062,559	21.1
2011	2,125,240	20.2
2012	2,452,379	19.6
2013	2,369,961	14.6
2014	2,382,218	14.0

* 자료원 : Desrosiers Automotive

- 2015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시장점유율은 11%선으로 하락추세
 - ‘한-캐나다 FTA’ 발효에도 불구, ‘달러강세·엔화약세’ 영향으로 고전양상
 - * 일본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34.1%로 상승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수출클러스터 강화

- 세계 5위 수준인 항공·우주 산업은 ‘수출지향 클러스터’ 특성이 강화되는 추세
 - 2014년 기준 매출은 277억 달러 규모이며, 대부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
 - * 퀘벡 지역에 최대 항공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온타리오는 Tier 1, 2 위주 산업형성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산업협력에 관심이 크며, 향후 다양한 파트너십 유망
 - 부품·소재 공급·조달, 주문형 연구개발·생산협력 등 공급망(SC) 참여가능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동향>

(단위: USD 백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21,000	22,400	22,000	25,100	27,700
수출액	15,300	16,400	17,600	20,300	22,500

* 자료원 :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협회 (AI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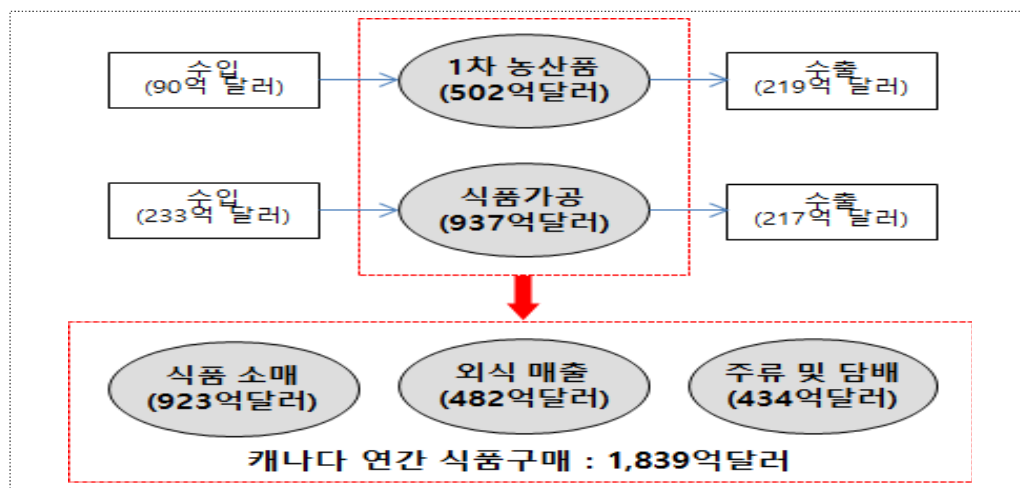
□ (캐나다) 에너지·자원산업, 원자재가격 하락영향 위축

-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에너지·자원 부문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투자축소, 생산감축 등 크게 위축
 - 대표적 산유지역인 앨버타(Alberta) 주는 실업증가와 소비감소로 경기침체
- 특히, 오일샌드를 비롯한 석유·가스 산업은 기존 탐사·채굴 사업 다수가 취소
 - 외국인투자(FDI)가 집중되는 광업도 채산성 악화여파로 신규투자 급감추세
 - * 유가회복 여부에 따라, 2025년까지 계획된 4천억 달러규모 설비투자 재개가 결정될 전망

□ (캐나다) 식품산업, 대형화 및 수출입 확대추세

- 농수산업에서 가공·포장, 유통·요식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 전·후방 계열화
 - 식품가공·포장 시장규모는 937억 캐나다 달러규모이며, 연평균 1.5% 성장
 - * 가공식품 분야는 대형화(규모경제), 교역확대(FTA·TPP활용), 빠른 변화(역동성) 특징

<캐나다 식품산업 구조>



□ (캐나다) 미디어·콘텐츠산업, 권역별 특성화 추세

- 주문형(On-demand) 모바일 콘텐츠 위주로, 현지 업계 사업구조 개편가속
 - 캐나다정부, 디지털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창업촉진 정책강화
 - *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잠재력과 IT·모바일 기술 간 연계 및 상업화 지원에 초점
- 밴쿠버(영상), 토론토(어플리케이션), 몬트리올(애니메이션) 등 지역별 장르특화
 - 한-캐나다 기업 간, 기획-개발-유통-마케팅 등 협력수요 증가추세
 - * 캐나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제작비 세금환급(25%), 창업·수출기금 확대 등 지원확대

4. 정책 · 규제 환경

□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추진배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정보기술(IT), 바이오(Biotechnology), 나노(Nanotechnology)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및 R&D 지원
 -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4大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 ①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 고성능 소형 배터리, 첨단 복합재료, 금속제작,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에 3억 달러 투자
 - ② 첨단소재 개발·보급기간 단축 : 미국 기업들이 현재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분야 연구개발, 기술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③ 차세대 로봇 개발·투자 : 제조설비, 보건·의료, 군사, 항공우주 분야에서 인간과의 협업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로봇 개발에 US\$7천만 투자
 - ④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미국 제조업계의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생산 공정(Manufacturing process) 개발에 1.2억 달러 투자

□ 수출지원 정책

※ 美 수출입 은행의 존폐 논의로 인해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의회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美 수출입 은행이 제공하던 금융지원 정책은 현재 중단된 상황

- 美 상업 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수출 컨설팅(상담) 사업(Information and Counselling) :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요령, 수출관련 문서작성 방법, 표준제도 및 각종 규정, 무역진흥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상담) 사업 수행
 - 해외시장 조사 사업(Market Research & Due Diligence)
 - ① (맞춤형 시장조사(Customized Market Research) : 개별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유료 조사 서비스로서 해당 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공
 - ② 해외 바이어/사업파트너 신용조사(Due Diligence Report) : 동 서비스 역시 유료 서비스로서 해외 잠재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들의 재무구조, 사업역량 등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청업체에 제공
 - ③ 일반 시장정보 : 'Market Research Library'를 통해 120개국 이상의 국가정보 및 110개 분야의 산업정보 제공(무료 서비스)

④ 비즈니스 직결정보 : 사전 검증을 거친 거래 오퍼(Trade Leads) 및 해외 정부입찰 정보 제공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① 제품홍보 : 'Export News USA' 라는 매거진을 통해 미국 수출기업들의 제품홍보

* 美 상무부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일종의 제품 카탈로그로서 전 세계 공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배포됨

② 업체홍보 : U.S. Commercial Service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에 'Featured U.S. Exporter(FUSE)'라는 섹션을 만들어 미국 수출기업 홍보

③ 바이어발굴(International Partner Search) : 해외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기업 제품의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발굴 및 연락처 제공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진흥정책(NEI)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와 같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적극적으로 추진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2015년 10월 말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美-EU FTA(TTIP)』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동향

- (TPP)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음

- (TTIP) 2015년 10월 19일 11차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TPP가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입규제 강화 : 반덤핑 등 직접적인 조치 외 비전통적인 규제조치 증가

○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노력 강화 : 『범정부 무역집행센터』 신설

-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역대표부(USTR)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

○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 최근 들어 자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 TBT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비전통적 수입규제조치 강화

□ '한-캐나다 FTA 발표', 관세·비관세 장벽완화

○ '한-캐나다 FTA(15.1월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혜관세(Korea Tariff) 수혜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MFN) 관세율은 평균 2.29% 수준

*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양상이지만 철강, 낙농 등 민감산업 보호정책 지속

<한국산 주요품목 관세철폐동향 (단위: USD)>

HS코드	품목	對加수출액(14)	기준세율(%)	캐나다수입시장	철폐시점
8703	승용차	2,162,429	6.1	28,069,748	3년
8708	자동차부품	242,279	6.0	20,347,446	즉시~3년
4011	타이어	90,421	7.0	3,108,064	5년
6004	편직물	20,303	8.0	68,480	3년
7610	알루미늄 자재	20,030	6.5	321,690	5년
3918	플라스틱 바닥재	15,387	6.5	338,636	3년
3304	화장품	9,460	7.5	1,232,756	3년
6115	스타킹	9,202	16.0	220,390	3년
9405	조명(LED)	5,807	7.0	1,456,052	즉시~5년
2103	식품(소스)	4,902	8.0~11.0	671,764	즉시~5년
2202	음료(기능성)	4,587	7.5~11.0	833,544	즉시~5년
9003	안경	4,117	2.5	194,760	즉시

□ 캐나다 산업육성 및 고용촉진 정부정책

- (고용촉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등, 투자와 고용 활성화 유도
 - 2019년까지 법인세를 9%(현행 11%)로 인하, 중소기업 27억 달러 감세효과
- (산업보호) 자동차, 항공우주 등 주력업종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확대
 - 2016~2026년간 자동차산업에 대해 1억 달러 감세 등 추진
 - * TPP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에 대해서는 15년 간 43억 달러 보조금 지급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 총 교역액 855억 달러, 대미 수출 2.9% 증가(9월 기준)

- 2015년 9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3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3억 달러 흑자
 - 미국 경기회복 본격화, 서부항만 파업사태 종결(2.20일) 등으로 호조세 지속
 - 자동차, 반도체, 타이어 등 수출 견인
 - * 주요 품목별 증가율 : 자동차(22.6%), 반도체(20.5%), 타이어(11.2%) / 철강(△57.2%), 무선통신기기(△11.3%)

< 2013-2015.9월 대미 무역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전체	1.1~9.30
총액 (증감율)	1,036(1.7)	1,156(11.5)	855(0.5)
수출 (증감율)	621(6.0)	703(13.3)	524(2.9)
수입 (증감율)	415(△4.2)	453(9.1)	331(△3.2)
무역수지	205(34.8)	250(21.9)	193(15.6)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 상반기 23억 달러 투자, 263개 신규법인 설립

- 2014년 기준, 55억 달러 투자, 488개 신규법인 설립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0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 큰 폭 증가

<연도별 대미 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백만\$)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백만\$)
2010	1,295	525	5,101	1,991	3,443
2011	1,139	449	16,582	1,849	7,303
2012	1,166	460	6,919	1,831	5,626
2013	1,162	479	5,861	1,787	5,676
2014	1,370	488	9,124	1,994	5,578
2015.1-6	721	263	4,429	947	2,391
누계	24,987	12,333	83,847	35,226	59,693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유치) 2015년 3/4분기 기준 30억 달러 유치, 전년대비 4.0% 증가

- 2014년 대미 투자유치는 36억 달러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19% 차지 (신고기준)

<주요 권역별 투자유치 동향>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978	4.0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1,195	-27.0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1,804	-69.6
중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0	1,136	1,530	48.1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2	1,671	5,763	71.7
전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13,270	-10.5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한-미 FTA 3주년, '14년 기준 전년대비 대미 교역액 및 무역흑자 각각 140%, 89.9% 증가

-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0년 11월 추가협상 타결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부로 발효
- '14년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 기록
- 교역액은 '1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5% 증가하며 미국의 총 교역 연평균 증가율인 2.5%를 상회
-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23.8% 증가했으며 매년 20% 이상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세

<FTA 이후 대미 교역액 및 무역수지 현황>(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역액	1,001	1,012	1.0%	1,041	2.9%	1,141	9.7%	4.5%
무역흑자	132	166	26.0%	207	24.3%	251	21.2%	23.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11-'14 국가별 대미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순 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감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3,994	4,256	6.6%	4,404	3.5%	4,667	6.0%	5.3%
2	캐나다	3,153	3,243	2.8%	3,326	2.6%	3,461	4.1%	3.1%
3	멕시코	2,629	2,776	5.6%	2,805	1.1%	2,942	4.9%	3.8%
4	일본	1,289	1,464	13.6%	1,386	△5.4%	1,339	△3.3%	1.3%
5	독일	987	1,092	10.7%	1,143	4.7%	1,232	7.7%	7.7%
6	한국	567	589	4.0%	624	5.9%	696	11.6%	7.1%
7	영국	513	550	7.3%	528	△4.0%	540	2.3%	1.8%
8	사우디	475	557	17.3%	518	△6.9%	470	△9.2%	△0.3%
9	프랑스	400	416	4.0%	457	9.8%	470	2.9%	5.5%
10	인도	362	405	12.1%	418	3.3%	452	8.1%	7.7%
전체		22,080	22,763	3.1%	22,683	-0.4%	23,452	3.4%	2.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회복 및 달러강세 등으로 총 수입액이 3.4%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11.6% 증가하며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은 최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간 협상이 타결된 TPP에 대한 신규 가입 추진을 검토 중

□ 한-캐 FTA발효(2015년 1월 1일), 수출확대 기반마련

-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 체결
 -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산업협력 미래수요 등 ‘전략적 이익가치’ 인정
 - * 관세·비관세 장벽완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유가 등 가격요인으로 양국 교역규모 정체현상
- ‘14년 기준 한국은 캐나다의 8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0위권 교역대상국에 그쳐, 향후 확대잠재력 다대
 - * 對캐나다 수출(자동차, 전자·IT) 및 수입(광물·자원, 목재·펄프) 품목제약 현상지속

<對캐나다 수출동향>

품목명(MTI코드)	2014년		2015년 (8월)	
	수출(USD 천)	증감률(%)	수출(USD 천)	증감률(%)
승용차(7411)	2,162,429	-2.9	1,558,075	-1.8
무선전화기(8121)	317,550	-52.0	183,997	-16.3
자동차부품(7420)	271,707	15.1	155,487	-16.0
타이어(3203)	90,909	-7.9	72,932	10.8
철구조물(6152)	30,721	-43.5	62,784	253.7
합성수지(2140)	64,119	-4.2	51,059	14.6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59,737	84.3	50,050	79.2
펌프(7112)	57,743	36.6	41,419	8.3
철강및비합금강형강(6111)	86,452	116.5	39,993	-30.4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57,561	11.2	37,017	-0.2
수출총계	4,916,629	-5.5	3,215,905	-5.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캐나다 연기금 등 한국투자 지속증가

- 캐나다 대한투자액(1962~2014)은 65억 달러로, 전체 FDI 유치액 중 2.7% 비중
 - ‘11년 이후 금융·보험(26.8%), 금속(18.7%), 부동산(12.1%) 등 투자다변화
 - * 최근 수년간 캐나다 연기금의 제3국 우회투자를 포함한 한국기업 인수합병(M&A) 증가
- 우리기업의 對캐나다 투자는 연간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유연탄, 우라늄 등 광업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투자는 미미
 - * ‘14년 독십자 의약품 생산공장 퀘벡투자, 애니메이션(넷잡) 합작투자 등 투자분야확대

III

시장 분석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수입액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88% 증가한 1조 6,842억 달러를 기록함.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등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수입 국가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무선전화기 등이 증가세를 보임. 2014년 한국의 대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대폭 증가했음

1. 수출

□ 2015.9월 기준, 미 수입 1.7조 달러 규모, 전년 대비 3.9% 감소

- 2015년 9월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1조 6,842억 달러 기록
- 중국은 미국 최대의 수입국으로서 전체 미국 수입시장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13.4%), 멕시코(13.0%), 일본(5.8%), 독일(5.5%), 한국(3.3%) 등이 주요 수입국가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10위 국가 중 점유율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전년 대비 9.9% 포인트 상승했으며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캐나다로 14.0% 포인트 감소

<미국의 10대 수입 대상국>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13	2014	2015.1-9	2013	2014	2015.1-9	15/14
	전체	2,268,370	2,347,685	1,684,274	100	100	100	△3.9
1	중국	440,434	466,754	357,567	19.4	19.9	21.2	5.5
2	캐나다	332,558	347,798	225,139	14.7	14.8	13.4	△14.0
3	멕시코	280,555	294,074	219,848	12.4	12.5	13.1	0.6
4	일본	138,574	134,004	98,285	6.1	5.7	5.8	△1.7
5	독일	114,349	123,260	91,879	5.0	5.3	5.5	0.0
6	한국	62,433	69,518	54,947	2.8	2.9	3.3	7.4
7	영국	52,850	54,392	44,445	2.3	2.3	2.6	9.9
8	프랑스	45,706	46,874	34,745	2.0	2.0	2.1	△0.4
9	인도	41,809	45,244	34,565	1.8	1.9	2.1	1.0
10	이탈리아	38,709	42,115	32,611	1.7	1.8	1.9	4.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 2015년 미국의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은 국제유가 급락 및 미국 내 공급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8% 하락
- 미국 고용시장 회복과 달러 강세로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은 상승
 -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정밀기기 등 기계류 수요가 상승
- 셰일 가스 개발이 부진하면서, 설비시설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 제품 수입도 크게 감소(16.9% 감소)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 (2015.9월)>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1,684,274	100	△3.9
1	보일러·기계류	241,920	14.36	1.0
2	전기기기·TV·VTR	238,182	14.14	5.1
3	일반차량	205,172	12.18	7.1
4	광물성연료	153,475	9.11	△43.8
5	의료용품	63,240	3.76	17.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 한국은 미국의 제 6위의 수입국으로서 2015년 9월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율 기록
- 한국의 대미수출 중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으로는 철강(15.6%), 광물성연료(13.4%), 고무와 그 제품(8.6%) 등이 있음
 - 미국 경기개선에 따라 산업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015.9월 기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순위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전체	54,947	3.3	7.4
1	전자기기	10,951	19.9	△4.6
2	기계류	9,134	16.6	7.4
3	광물성연료	2,441	4.4	13.4
4	철강제품	2,061	3.8	△16.5
5	철강	1,758	3.2	15.6
6	고무와 그 제품	1,475	2.7	8.6
7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22	2.6	4.4
8	유기화학물	953	1.7	△13.5
9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815	1.5	1.7
10	기타	758	1.4	42.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규제 제도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10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건, 반덤핑/상계관세는 3건

<미국의 한국산 반덤핑 규제 현황>

연번	품목		규제 유형
	한글	영문	
1	스텐레스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반덤핑
2	스텐다드강관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반덤핑
3	스텐레스 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
4	스켄레스 후판코일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반덤핑
5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반덤핑 /상계관세
6	강철 후판	Carbon steel plate	반덤핑 /상계관세
7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8	쇠못	Steel nails	반덤핑
9	PC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
10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
11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
12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반덤핑 /상계관세
13	유정용 강관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
14	무방향성 전자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 자료원 : 미국 상공부

○ 비관세 장벽

- **(무역 공표 시스템)**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므로 그 양이 방대해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고 상품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복잡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섬유, 가죽,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세관은 동 품목에 대해 다량의 세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의 소지 존재
- **(농림수산물, 식품류에 대한 복잡한 통관절차)** 농림수산물과 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이 요구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출 성공 사례 (O社)

- 성공요인
 - O사는 150여 개국에 300종이 넘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프리미엄 건강음료 기업으로 특히 알로에 음료의 경우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왔음
 - KOTRA 월드챔프 사업에 참여해 전문 딜러와의 협업, 1년에 6개월 이상 전시회 참가를 통해 대형 유통망체인에 입점 추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웰빙·유기농을 선호 트렌드에 맞춰 타 경쟁사가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형 제품을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확립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대형 유통체인점들인 Walmart, Sam's Club, Shop Rite, Trader's Joe, Kroger, Costco, Whole Foods, 7-Eleven 등 수많은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매 중
 - 201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
 -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정립한 것이 성공 요인

□ 수출 성공 사례2 (K社)

- 성공요인
 - K사는 전시회를 통한 현장 마케팅 외에 바이어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북미 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메이저 카드 발급사를 한국 본사로 적극 초청해 공장 방문 및 기술 교류 행사를 진행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OTRA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미국 카드시장의 1/3 점유율을 갖고 있는 CIP Card Group의 구매담당 Vice President와 소싱 매니저를 초청하여 신기술 소개 및 가격/물량 구매를 협상하여 거래 관계를 진전시킴
 - 전 세계적 스마트카드, 스마트여권 발급 업체인 Valid S.A.를 초청하여 신제품에 맞출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한 결과 수출 계약에 성공
- 수출 성과 및 시사점
 - KOTRA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까지 북미 수출은 9백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간 34만 달러에 비해 무려 2,470% 급증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9% 성장으로 약 3천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 특히 최근 급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IC Chip과 스마트카드 진출에 머무르지 않고 Total Payment Solution,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영업 확장 등 차세대 먹거리를 미리 개발하여 선점하는데 성공함

□ 캐나다, 수입시장 4.6억 달러 규모, 전년 대비 2.8% 성장

- 2014년 기준 캐나다의 총 수입액은 약 4,6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순
- 미국과 중국이 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5.8%를 차지

<캐나다의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USD 백만)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7)
미국	234,006	240,621	251,690	133,453
중국	50,748	51,202	53,111	29,071
멕시코	25,537	25,953	26,104	14,240
독일	14,305	14,953	14,452	8,130
일본	15,033	13,335	12,039	7,040
영국	8,545	8,182	8,307	4,548
한국	6,376	7,125	6,565	3,790
이탈리아	5,227	5,661	5,810	3,378
프랑스	5,019	5,229	5,361	3,088
대만	4,584	4,578	4,189	2,547
수입총액	462,303	461,836	463,133	248,738

*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한국제품 경쟁동향

- 우리나라 對 캐나다 주요수출품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엔화하락 등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일본제품에 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
- 휴대전화 역시 2014년 기준 캐나다 시장에서 전년대비 3.67%포인트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중국산 저가제품의 캐나다 진출확대에 따른 영향
- 철강제품은 반덤핑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
 - FTA(15.1.1발효)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은 향후 수출확대 기대

- 한국산 주력수출품 전반에 걸쳐, 일본 및 중국과 경쟁심화 추세

<캐나다 수입시장 한·중·일 경합양상>

(단위: USD 백만, %)

품목(HS코드)	2013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2014년 對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2,232 (8.47)	266 (1.01)	3,180 (12.07)	26,335 (100)	2,094 (7.74)	51 (0.19)	2,412 (8.92)	27,044 (100)
자동차부품(8708)	427 (1.98)	1,146 (5.32)	1,786 (8.29)	21,547 (100)	450 (2.19)	1,262 (6.14)	1,299 (6.32)	20,571 (100)
휴대전화(8517)	753 (8.00)	4,862 (51.66)	125 (1.32)	9,411 (100)	395 (4.33)	5,426 (59.51)	89 (0.97)	9,117 (100)
타이어(4011)	103 (3.03)	516 (15.25)	393 (11.61)	3,387 (100)	115 (3.47)	510 (15.41)	334 (10.09)	3,310 (100)
철구조물(7308)	104 (7.92)	191 (14.46)	0.71 (0.05)	1,317 (100)	34 (2.94)	245 (21.03)	1 (0.11)	1,167 (100)
평판압연(7208)	62 (5.53)	13 (1.19)	8 (0.70)	1,126 (100)	101 (7.18)	20 (1.39)	6 (0.41)	1,412 (100)
산업용밸브(8481)	100 (2.79)	450 (12.64)	65 (1.82)	3,564 (100)	81 (2.17)	501 (13.43)	96 (2.59)	3,730 (100)
건설장비(8427)	31 (3.28)	24 (2.49)	7 (0.70)	957 (100)	27 (3.02)	23 (2.63)	2 (0.19)	883 (100)
변압기(8504)	58 (2.83)	511 (24.95)	44 (2.15)	2,049 (100)	88 (4.02)	537 (24.52)	111 (5.04)	2,191 (100)
냉장고(8418)	77 (5.19)	193 (13.10)	5 (0.31)	1,473 (100)	85 (5.83)	184 (12.70)	4 (0.29)	1,452 (100)
발전기(8501)	23 (1.68)	215 (15.79)	33 (2.40)	1,361 (100)	22 (1.57)	224 (15.77)	43 (2.99)	1,419 (100)
반도체(8542)	649 (18.49)	172 (4.90)	85 (2.42)	3,508 (100)	169 (6.60)	149 (5.82)	40 (1.58)	2,559 (100)
합성고무(4002)	40 (6.51)	12 (1.98)	9 (1.39)	613 (100)	46 (7.73)	10 (1.73)	8 (1.30)	591 (100)

*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 수입규제 현황

- 2015년 기준, 캐나다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금년('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에서 제외, 최혜국관세(MFN) 적용받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 특혜관세(Korea Tariff) 동시 적용
- 캐나다는 2015년 기준, 26개국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적용

*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유압식 변압기 등 총 8건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적용

<캐나다 한국산 반덤핑 수입규제현황 (2015.10월 기준)>

대상품목	최초규제	규제기간
구조용 강관	2003.12	2003.12~미정
동제 관연결구류	2007.2	2007.2~미정
유입식 변압기	2012.7	2012.7~미정
탄소강 용접관	2012.8	2012.8~미정
동관	2013.8	2013.8~미정
열연강관	2014.1	2014.1~미정
콘크리트 철근	2014.9	2014.9~미정
유정용 강관	2015.3	2015.3~미정

* 자료원 : 캐나다 국경관리청 (CBSA)

- 반덤핑 규제 외, 인증취득, 성분표기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
 - 약 2천개 품목에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발행인증은 민간자율제도에 속하지만, 다수 품목에 의무 적용되고 있음
 - * 식품, 의약품 등 보건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관심사에 따른 수입불허 조치발생

□ 한국기업 성공·실패 사례

- 소스·장류 제조업체(A사)는 FTA 관세인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캐나다 식품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수출계약 체결성공
 - 아시아계 이민증가에 따라 한국산 식품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과 위생에 대한 현지바이어 신뢰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수출증가 기대
- 전기조명 제조업체(B사)는 필수인증(CSA) 취득문제로, 수출계약 지연
 - 바이어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 지연에 따라서, 후속상담 등 불발
 - * 유망품목의 경우, 사전 인증취득 등 필수요건 구비를 선행하여, 수출소요시간 단축필요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 **(총괄)** 2014년 한국의 對 미국 투자액은 91억 2,354천 달러로 전년대비 55.7%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도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 편
 -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투자액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에 증가로 반등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북미지역 투자진출 동향>

연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백만 불)	6,919(△58.3%)	5,861(△15.3%)	9,124(55.7%)	4,429(20.5%)

* 주 : 신고금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 **(업종별)**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세 자릿수 대 이상의 투자액 증가 시현
 - * 업종별 투자금액 및 증가율(\$,%):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0.4억, 1,672%), 운수업(4.3억, 1,635%), 금융 및 보험업(22.1억, 357%), 전문 서비스업(6.0억, 126%), 숙박 및 음식점업(1.7억,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33.1억, 58%), 도매 및 소매업(2.3억, 25%)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대미 투자 최근 감소 추세
 -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로 중국의 대미 투자액(FDI 유입액 기준)은 2008~12년 동안 연평균 70.8%의 급증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원인으로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투자액 감소
 -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9.7억 달러였으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4.7억 달러, 저축은행(depositary institutions)에 4.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도매업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선 투자액 회수
-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제 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4년 기준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337.7억 달러로 미국 전체 FDI 유입액의 32%를 차지(1위인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389.2억 달러로 37%의 비중)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액 증가를 보여 온 일본의 투자액은 올해 전년대비 23% 감소했는데 금융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액 회수와 엔저의 영향이 것으로 분석됨

<경쟁국의 對 북미지역 투자진출 동향>

(단위 : 백만 불)

국가	전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정보산업	저축은행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	기타
중국	968	474	-83	1	15	464	N/A	2	-42	N/A
일본	33,765	20,709	7,186	367	844	1,679	2,557	-207	1,205	-575

*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에 규제가 있음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 분야>

통신사업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 장벽 존재
에너지 분야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됨
운송사업	·국내 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

- 투자진출 시 예로사항

- (비자발급시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주재원비자(L)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이민국(USCIS)의 추가서류요청(REF)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투자단기이민비자(E1, E2) 신청 시 70%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고 있어 비자 획득에 어려움 존재
- (특허출원비용부담) 기술기반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 특허출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용이 최소 \$6000에서 많게는 \$20,000이 넘게 소요되어 선뜻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도 미미한 상황

□ 투자진출 성공사례 (J社)

- 성공요인
 - J사는 모바일 오디션 앱 관련 기술기반 회사로 다년간의 시스템 프레임 워크 및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경험한 핵심 인력들이 설립한 회사임
 - 우수한 기술(IT)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클라우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성 보유
- 투자진출 성과 및 시사점
 - 미국의 오디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와 브랜드 구축이 가장 중요함으로 동사의 주 프로그램인 Audition과 Show Your Talent 로고에 대한 상표 출원 진행 중
 - 현재 SONY MUSIC, MTV 등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새로운 사업개발에 대해 논의 중
 - 기술의 우위성을 갖추고 미국 내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를 구축해 미국 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공 요인

참고 : 한국 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

□ 현대차 미국 제2공장

- 개요
 - 미국 시장 회복에 따라 SUV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대차 앨러배마 제1공장 생산 능력 부족으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근 기아차 조지아 제1공장에 위탁 생산 중
- 진행상황
 - 현대차 제1공장이 위치한 앨러배마주를 포함한 인근 남부 여러 주정부의 유치 활동 진행 중
 - 미국 시장 수요 증가 및 경쟁사 특이 동행(폭스바겐 리콜 등)으로 조기 결정시 공장 설립 급속 추진 예정
 - 이에 따라, 현대차 협력사 추가 투자진출 움직임 예상

□ 한국타이어 미국 공장

- 개요
 -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100만개 생산 규모의 공장 건설 중
- 진행상황
 - 2016년 완공 예정으로, 8억 달러 투자
 - 한국타이어 8번째 해외 공장 및 미국 내 최초 공장으로, 완공시 생산량 1억개 돌파(세계 7위 시장 점유율)

- 당초 기아차 조지아 공장 인근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닛산, 폴크스바겐, GM 등이 완성차 공장을 운영 중인 테네시로 변경

□ 금호타이어 미국 공장

- 개요
 - 미국 조지아주에 400만개 생산 규모의 공장 건설 중
 - * 2016년 초 완공 예정으로, 4억 1300만 달러 투자
 - * 2008년 기공식을 열었으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
- 진행상황
 - 다임러벤츠, BMW, 크라이슬러 등 기존 공급처에서 추가 공급처 확보 추진

□ 롯데케미칼 미국 에탄분해시설 공장

- 개요
 - 미국 유화업체 엑시올과 50 대 50 합작투자로 세일가스를 이용한 에탄분해설비(ECC) 공장 건설 추진 중
 - * 2018년 중반부터 에틸렌 연 50만 톤, 에틸렌글리콜 연 70만 톤 생산 예정
 - * 에틸렌은 합성수지 기초원료, 에틸렌글리콜은 폴리에스터 섬유, 필름 등에 활용
- 진행상황
 - 미 세일가스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의한 석유가격 하락으로 투자진출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
 -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최근 삼성의 석유화학 부분 3개사를 인수하여, 석유화학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미국 세일가스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수출 재개 확정에 따라 롯데 내부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정리될 경우, 조기 투자진출 추진 예상

□ 녹십자 캐나다 혈액제제 공장

- 개요
 -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연간 최대 100만 리터 혈장을 분획하는 생산 공장 건설 중
 - * 2016년 완공 목표이며, 완공 시 아이비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액제제 북미 시장 판매
 - 총 2억 1천만 캐나다 달러 중 퀘벡주 투자청(2,500만 달러), 국민연금(7천만 달러) 투자
- 진행상황
 - 캐나다 생산설비 완공시 세계 최대 혈액제제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외국인투자유치(FDI) 주요동향

- 2014년 캐나다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총 7,322억 달러로 전년('13) 대비 5.5% 증가
 -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추세
 - * 우리나라의 對 캐나다 직접투자잔고는 38.4억 달러이며,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에 집중
- 미국기업들이 자동차, 항공, 유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캐나다투자 확대추세
 - 중국은 석유·가스 분야 캐나다 기업인수에 적극적이고, 일본은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진출이 두드러짐
 - * '중국해양석유공사'의 정유기업(Nexen)인수, '혼다자동차' 생산라인증설 등이 대표적

<국가별 對캐나다 투자신고>

(단위: CAD 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317,746	309,804	307,967	341,917	361,372
네덜란드	53,620	63,303	71,171	67,355	69,158
룩셈부르크	20,876	23,106	43,156	53,884	53,606
영국	42,379	49,622	47,245	46,105	48,267
스위스	19,652	19,227	18,163	25,083	27,678
중국	12,112	15,359	11,619	20,424	25,080
브라질	17,261	17,494	18,460	18,325	19,948
일본	12,659	14,410	17,374	15,847	17,479
독일	8,161	10,982	10,572	13,069	13,894
한국	5,075	5,481	4,827	4,235	3,839
총계	592,406	603,455	633,778	691,942	732,263

* 자료원 : 캐나다 외교통상부

□ 캐나다 투자진출 장벽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은 외국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캐나다기업 인수·합병 투자 시, '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의무화
 - 2015년 개정된 투자법은 현행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요건 완화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 시행
 - 검토기간인 최장 200일에 달해,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참고] 무역관 관할 지역별 경제규모 및 대한 수입 현황

무역관	담당주	인구 (천명)	GDP (백만달러)	1인당GDP (달러)	대한수입 (백만달러)	대한수입 비중(%)
뉴욕	뉴욕	19,746	1,310,712	66,379	1,859	1.4
	코네티컷	3,596	249,251	69,313	206	0.9
	뉴저지	8,938	543,071	60,760	3,172	2.5
	기타	23,869	1,296,534	54,319	4,741	-
	소계	56,149	3,399,568	60,545	9,978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콜로라도	5,355	294,443	54,985	285	2.0
	애리조나	6,731	279,024	41,454	227	1.4
	기타	9,285	440,744	47,468	980	-
	소계	60,173	3,216,889	50,168	16,489	-
시카고	일리노이	12,880	720,692	55,954	5,090	3.6
	인디애나	6,596	317,102	48,075	319	0.7
	미네소타	5,457	312,081	57,189	171	0.5
	기타	32,266	1,552,341	48,111	2,714	-
	소계	57,199	2,902,216	50,738	8,294	-
워싱턴	북캐롤라이나	9,943	471,365	47,407	7	1.3
	버지니아	8,326	452,585	54,358	266	1.1
	워싱턴 DC	658	113,362	172,283	10	0.9
	기타	8,761	479,055	54,680	9	-
	소계	27,688	1,516,367	54,766	292	-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11,594	526,196	45,385	1,172	1.7
	미시간	9,909	408,218	41,197	2,499	2.0
	합계	21,503	934,414	43,455	3,671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38,802	2,202,678	56,767	14,997	3.7
	워싱턴	7,061	408,049	57,789	2,490	4.8
	오리건	3,970	219,590	55,312	1,573	11.4
	기타	2,343	148,827	63,520	367	-
	소계	52,176	2,979,144	55,884	19,427	-
마이애미	플로리다	19,893	800,492	40,240	1,800	2.5
	조지아	10,097	454,532	45,017	6,224	7.4
	앨라배마	4,849	193,566	39,919	4,728	21.3
	기타	4,832	183,561	37,989	422	1.1
	소계	39,671	1,632,151	41,142	13,174	-
달라스	텍사스	26,956	1,532,623	56,856	10,615	3.5
	루이지애나	4,649	253,576	54,544	687	1.2
	오클라호마	3,878	182,086	46,954	67	0.5
	기타	5,960	229,381	38,487	190	-
	소계	41,443	2,197,666	53,029	11,559	-
토론토	온타리오	13,502	695,705	51,526	4,375	1.64
	퀘벡	8,130	362,846	44,631	693	0.97
	마니토바	1,261	61,323	48,630	80	0.44
	노바스코샤	943	39,145	41,511	26	0.37
	뉴브런즈윅	755	31,900	42,252	87	0.72
	합계	24,591	1,190,919	48,625	5,261	-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4,569	229,685	50,270	1,059	-
	앨버타	3,969	338,166	85,202	209	-
	서스캐처원	1,100	83,222	75,656	43	-
	합계	9,638	651,073	67,553	1,311	-

IV 시장진출전략

대형 유통망 중심의 북미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부품소재 수출 강화. 북미 우수 창업환경 및 글로벌 기업의 R&D전략 변화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기회 모색 필요

1. 진출전략 개관

<미국 진출 SWOT 분석>

<Strengths>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 진출 여건 개선 ○ 한류의 영향으로 한류 프리미엄 확보	<Opportunities> ○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수요 증가 ○ 저유가로 인한 소비, 기업 투자 확대 ○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축자재, 가전제품 수요 증가 ○ 소수인종(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의 구매력 확대 ○ 온라인 유통망 시장 급성장
<Weaknesses> ○ 중저가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취약 ○ 고급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이미지 부족	<Threats> ○ 금리인상 후 경기둔화 우려 ○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 중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개선 ○ TPP 발효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시사점> ○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대 ○ 한류 상품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및 미국 시장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 홍보 강화 ○ 저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는 주요 품목(자동차, 여행, 외식, 숙박업 등)에 대한 단기적 수출 확대 프로젝트 마련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른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B2C, B2B 수출 기회 확대 ○ 미국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 고급/고품질 이미지 확립이 필요하고 수출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중요 ○ 수입규제 및 제품인증 등에 대한 규제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기업들에게 전문 상담기관 활용 지침 제공이 필요 ○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층 공략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엔저 및 중국산 제품 품질 강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 미국 수입시장 진입 리스크를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투자진출 지원 강화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TPP 협정에 따른 한국 상품 경쟁력 약화 극복 필요	

<캐나다 진출 SWOT분석>

<Strengths> ○ 한국제품 ‘품질·기술’에 대한 신뢰·인지도 ○ 주력산업 ‘한-캐나다’ 협력기반 양호 ○ IT(온라인·모바일)기반, 진출역량 강화	<Opportunities> ○ ‘한-캐나다 FTA’ 발효(2015.1.1부) ○ ‘아시아계’ 이민자(소비자) 증가 ○ 새정부(자유당) ‘경기부양’, ‘이민확대’ 정책
<Weaknesses> ○ ‘환율변동’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 ‘물류·유통’ 및 ‘사후관리’ 비용부담 ○ ‘언어·인증’ 등 중소기업 진입장벽	<Threats> ○ TPP 비준·발효시, FTA 선점효과 희석 ○ 자국 산업 보호정책 강화 ○ ‘에너지·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기침체
<시사점 : 2016년 전략키워드 ‘MAPLE’> ○ M (Mobile & Media) :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협력 ○ A (Asia-Pacific Hub) : ‘FTA·TPP’ 연계, 양국·기업 ‘글로벌공급망(SC)’ 거점조성 ○ P (Partnership) :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 협력강화 ○ L (Logistics) : 온·오프 마케팅강화, 물류경쟁력 확보, 청년 취·창업 촉진 ○ E (Energy & Environ) : 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사업, 친환경조달 시장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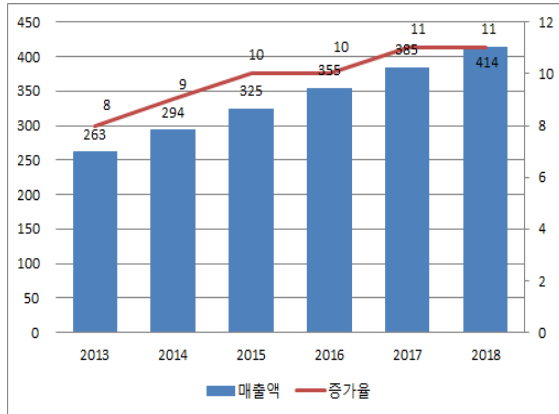
□ 진출환경

- **(미국 경기회복)** 내수 호전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
 - 2015년 미국 경제가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8%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 저유가로 인한 민간소비가 증가와 기업의 투자여력 확대가 기업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에 연결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 미국 제조업 회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체 수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성과가 미국 경기 개선에 기여
 - * 개인소비 증가율 : 1.8%(’15.1Q) → 3.6%(’15.2Q)
 - * 민간투자 증가율 : 8.6%(’15.1Q) → 5.0%(’15.2Q)
 - * 미국 실업률 추이 : 5.6%(’15.1월)→5.5%(’15.3월)→5.3%(’15.6월)→5.1%(’15.9월)
- **(온라인 시장 급성장)** 미국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미국 진출 채널 다각화
 -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약 13.2%의 고성장을 기록
 -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미국의 온라인 소매(B2C, C2C)는 연평균 9%,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는 연평균 9.6%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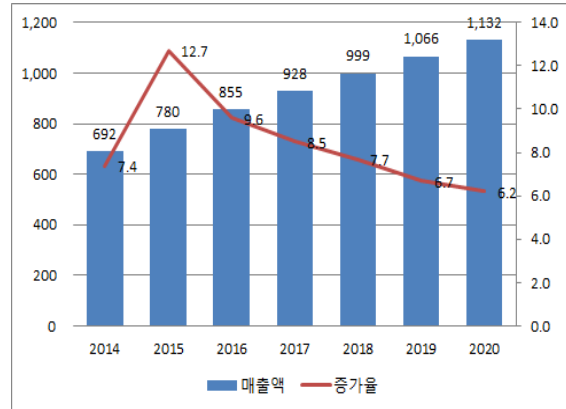
- 스마트폰 등 온라인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활용이 미국의 소비자 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미국 온라인 시장 성장성 확대

<미국 온라인 시장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불, %)

B2C와 C2C 시장



B2B 시장



* 자료원 : 포레스터 리서치

-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 '14년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
- (생산 코스트) 미국 - 중국 간 인건비 격차 축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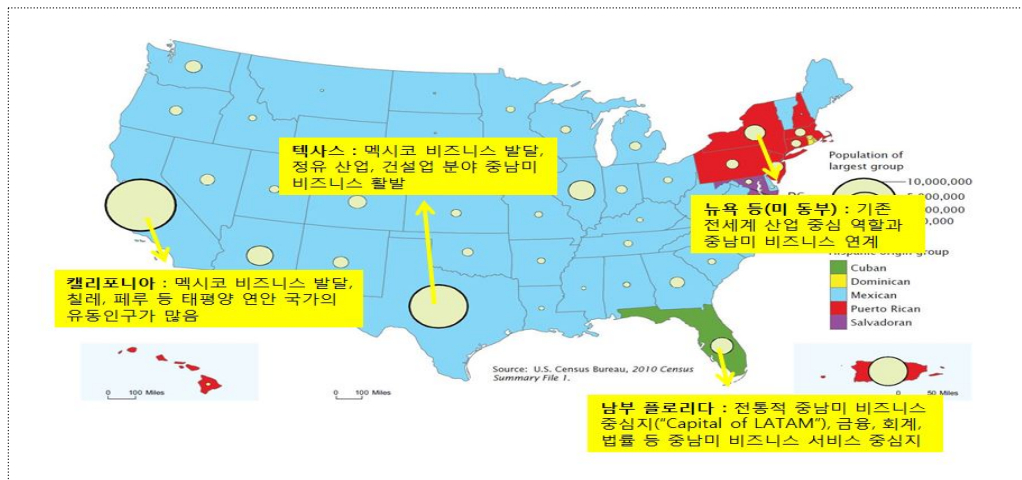
* 자료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의류산업의 경우 5년 전 중국 인건비가 미국의 1/6이었지만 현재는 3/5 수준에 불과. 생산성까지 고려한다면 격차는 미미하다.” (Brooks Bros 대표 John Martynec)

- (세일가스 혁명)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분야 제조업 경쟁력 상승
 - *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아의 1/4, 유럽의 1/2 수준
- (정부 정책) 제조업 육성 이니셔티브에 역점
 - * 제조업 투자 · Reshoring기업 대상 조세혜택 부여
 - *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학연 연계 제조업 혁신네트워크(NNMI) 구축 (45개)
- (Made in USA 프리미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 * ‘외국산보다 비싸도 자국산 제품을 구입하겠다’ : (2004)54% → (2013)68% (NY Times)

- **(다문화 시장)** 라티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문화 시장 공략 필요
 -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7%를 차지, 가장 큰 인종집단 형성
 - 2050년까지 라티노 인구는 2010년 대비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전체 미국 인구 증가는 42%, 아시아계 148, 흑인 56%, 백인 7% 성장 전망
 - 가계소득 증가, 미국 내 신분 안정화, 서비스 직종 진출 증가로 미국 소비 집단의 신흥 강자로 대두
 - 라티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미국의 對 중남미 비즈니스 거점 형성 (LA, 마이애미, 휴스턴, 뉴욕 등)
 - 많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을 기반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추진

<히스패닉 인구 분포에 따른 미국-중남미 비즈니스 거점지역 현황>



- **(한류활용)** 글로벌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K-뷰티 열풍과 함께 아모레 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미국 내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립되기 시작
 - * 2015년 1~8월간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HS 330499 기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성장해 수입시장 점유율 5위 기록
 -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중남미 신흥시장)** 쿠바 엠바고 완화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기회
 -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따라 50여년 간 지속된 엠바고 완화
 - 마이애미 소재 미국계 대기업의 중남미법인들의 쿠바 시장조사 출장 빈번
 - 현지 로펌과 컨설팅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 추세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 이후 현지 기업의 對 쿠바 비즈니스 발표
- 쿠바 직접 진출 위험을 안고 있던 유럽 및 캐나다계 기업의 쿠바 비즈니스 매각 및 파트너링 수요 증가
- 우리 기업들은 아직 제3국 기업(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협력을 통해 쿠바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 경쟁동향

- **(미국)**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킬 가능성
 - 미국의 제조업 혁신이 진전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에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
- **(일본)**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가경 경쟁력이 향상되는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 협정의 최대 수혜국도 일본으로 점쳐지고 있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80%가 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 될 예정이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 피해 우려
- **(중국)**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전반적 경쟁력 향상
 - 중국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섬유, 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품목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2. 세부 진출전략

□ (기회) 소비 시장 성장, 미국 내 제조 확대 등 새로운 수출 활력 기대

- (소비) 소비재 수입 및 온라인 시장 급성장 ⇨ **소비재 수출 확대 기회**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3년 4.7% → '14년 4.7% → '15년 상반기 7.1%
 - 美 온라인시장 매년 15% 성장하여 '18년 4천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美 온라인시장 규모(2014기준) : 3천억 달러(전년대비 15.7% 성장)
 - * 캐나다는 '14년 기준 246억 달러(17.4% 증가), '18년 426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제조)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R&D, 생산 확대 ⇨ **부품, 소재 수출 확대 기회**
 - 미국 내 글로벌 소싱, 신기술 개발을 위한 외부협력 수요 증가
 - * 美 정부, 제조업 혁신에 최우선순위 부여, '11-'15간 제조업 R&D예산 35% 증액
 - 미국 내 제조업 생산 지속증가 : '15년 2.1% → '16년 3.4%
- (창업) 창업환경 개선 및 이민자 창업 증가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기회**
 - * 이민자 창업비중 변화 : ('96년)13.3% → ('14년)28.5%, 114% 증가

□ (위협) 경쟁국 진출 강화, 미국의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경쟁국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격화
 - (중국) M&A를 통한 미국시장 영향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14년 중국의 대미직접투자 119억 달러 중 90%가 M&A투자(105억 달러)
 - *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 ('14년)19.8% → ('15년 8월)20.3%
 - (일본) 고환율 정책으로 북미시장 진출 주력 수출품 경쟁압력 지속
 - * 한국과 일본의 대미수출경합도 51.4%, TPP 참여예상국가 중 최고
 - * 자동차부품 등 우리 수출주력품목과 치열한 경쟁 우려
- Made in USA 인기, 자국보호 소비심리 확대
 - * 소비자 여론조사('13년) : “Made in USA 구매하겠다.” 응답비율 68% (NY Times)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대출비용 부담 증가, 자산효과 하락으로 소비심리 하락 우려

2-1.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수출

□ (현황) 미국 소비재 시장, 대형 유통망이 과점, 유통망 공략이 성공의 관건

- 미국, 유통망이 소비재 시장 장악, 상위 10개 대형 유통회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20.1% 점유
 - 주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나 내수기업이 당장 진출하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리스크 산재
 - *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벤더등록, 반품처리, A/S, PL 보험 등 까다로운 조건충족 필요
 - * 글로벌 유통망外 라티노, 아시아계 등 틈새 유통망을 공략하는 이원화 사업 필요

<미국 10대 유통 체인 현황(억 달러, %)>

순위	기업명	매출액			매장	
		금액	증가율	비중	점포수	증가율
전체		45,270	4.3	100	-	-
상위 10 소계		9,113	3.6	20.1	31,714	1.5
1	Wal-Mart(오프)	3,343	1.7	7.4	4,779	4.6
2	Kroger(오프)	936	1.6	2.1	3,519	△1.8
3	Costco(오프)	747	5.2	1.7	447	2.8
4	Target(오프)	713	△0.9	1.6	1,793	0.8
5	Home Depot(오프)	700	6.6	1.5	1,965	-
6	Walgreen(오프)	681	1.3	1.5	7,998	2.3
7	CVS(오프)	656	3.1	1.4	7,621	2.0
8	Lowe’s(오프)	522	3.6	1.2	1,717	0.1
9	Amazon(온)	440	27.2	1.0	-	-
10	Safeway(오프)	375	△3.7	0.8	1,335	-5.3

* 자료원 : National Retail Federation

□ (진출전략) 온라인 파워벤더 활용, 대형 유통망 구매 구조 맞춤형 공략 등 추진

- (온라인유통망) 대형 유통망별 파워 벤더와의 협력 집중 공략, Fulfillment 서비스 활용 필수
 -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직접 공략 어려움. 온라인 파워벤더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망에 우선 진입 후 미 유통망 거래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에 우회 진입 필요
 - *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우회진입을 통해 유통망 거래 초기 진입비용 절감 가능
 - 제품 포장(Packaging) 및 홍보 시 바이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대 필요. 온라인 파워벤더의 경우 신규 수출기업과의 거래가 많아 신규수출기업들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예:영문홈페이지 기본 템플릿 제공, 상품 Packaging 디자인 지원 등)

- * (아마존 파워벤더 J사 인터뷰('15.10월)) 국내 수출기업과 제품 공급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국기업의 제품 패키징, 영문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온적인 대응으로 협상 결렬. 파워 벤더의 요청사항은 미국 대형유통망/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것임에도 한국기업의 기존 홍보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성향, 미국 고객 대상 홍보를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어렵다고 호소
- 온라인 유통망 진입을 위해서는 Fulfillment Network 활용이 필수, KOTRA의 Fulfillment 서비스 네트워크 이용 또는 Fulfillment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회사와 협업 필요
- * KOTRA Fulfillment 서비스 지원 무역관 : 뉴욕, LA, 시카고, 토론토('16년 전무역관으로 확대 추진)
- * 대형 온라인유통망 중 자사 Fulfill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 Newegg)

<온라인 파워벤더를 활용한 대형 유통망 진입 전략>

수출 프로세스	수출 준비	해외 마케팅	수출 진행	사후관리
주요 애로 사항	- 영어 미흡 - 제품 소개 자료 - 영문 홈페이지 - 제품 인증, 등록	- 바이어 발굴 - 제품 프로모션 - 협상 능력	- 물류 관리 - 거래선 관리 - 추가 오더 확보	- 물류 관리 - AS, 반품 등 - 후속거래 추진
전략 방향	①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 파워벤더 적극 활용			
	- 성공기업 벤치마킹 - 파워벤더 상담, 교육 적극 활용 - 유관기관 지원 활용	-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바이어 상담 집중 공략 - 유통망별 파워벤더와의 협력 강화		
	② 물류 관리 체계 구축			
	바이어 맞춤형 포장단위, Labeling 확인, 보완	- Fulfillment 서비스 제공기업 협력 - 반송제품(미판매분 등) 처리 협력 - KOTRA 공동물류센터 적극 활용		
전략 방향	③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우회진입 추진			
	- 온라인 유통망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판매실적/성공제품 확보 →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을 통해 물량 확대 공략 * 오프라인 유통망과 제품 발굴부터 협상할 경우 비용 소요 과다			

- (오프라인유통망) 아시아구매본부(APO) 공략 등 유통망별 구매 구조 맞춤형 공략 추진
 - 미국 대형유통망은 아시아에 별도의 구매본부 운영(APO, Asia Purchasing Office)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자적 구매권한을 행사하며 아시아 공급망 관리
 - * 일부 APO의 경우 APO 산하에 한국 소싱오피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상시 한국제품 발굴
 - * 한국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소재 아시아 구매본부(APO)에서 발굴, 관리
 - APO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계약은 APO와 진행하고, 미국 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공급
 - APO 미 운영 유통망의 경우, 제품군별 Product Manager가 제품 발굴 Tour를 통해 신규 제품을 발굴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경우 아시아지역 계열사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 조사
 - APO 방문 상담 및 APO의 한국 초청 상담회 등 적극 활용 필요

<APO 운영 주요 대형유통망>

연번	유통망	본사 소재지	APO 소재지	한국소싱 오피스	품목
1	Best Buy	미네소타	상하이	x	전자제품
2	Grainger	일리노이	상하이	○	산업용품
3	Walmart	아칸소	상하이	x	백화점
4	Homedepot	사우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용품
5	Target	미네소타	상하이	○	백화점
6	Radio Shack	텍사스	홍콩	x	전자제품
7	Academy Sports	텍사스	홍콩	x	스포츠용품
8	Safeway	캘리포니아	홍콩	x	잡화
9	Sears	일리노이	홍콩	x	백화점
10	Office Depot	플로리다	선전, 항저우	x	사무기기
13	Lowe's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이	x	산업,가정용품

* 자료원 : KOTRA 설문조사

2-2.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첨단 제조기업과의 부품소재 수출

□ (현황)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및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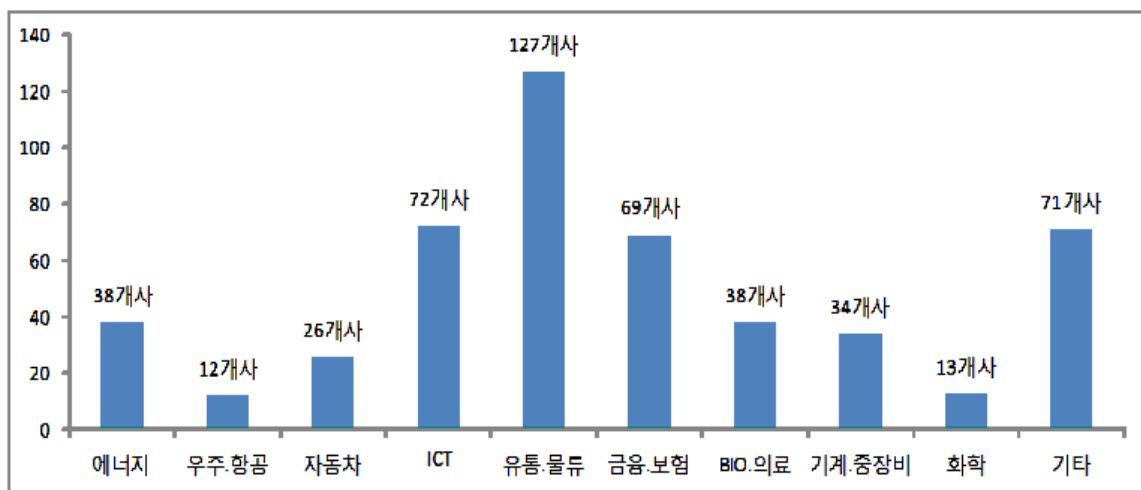
- 미국 정부 첨단제조업 집중 육성, 제조업투자 금융위기 이후 지속 확대
 - (정책) 첨단제조2.0정책 수립(첨단제조기술 투자확대, 산학협력강화 등 16개 과제)
 - (투자) 금융위기('09) 전후 4개년 비교: (정부)산업생산기술투자 43.3%, (민간)제조업투자 9% 증가
 - (리쇼어링) '12-14간 리쇼어링 현황: 미(175건), 이태리(79), 독일(39), 영국(33) 순
- 미 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해외 소싱 강화
 - Boeing 787 Dreamliner,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65개사 참여 연 40억 달러 수출
 - Triumph사, Embraer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한국기업 7개사 공동 참여
 - Dell사, 기술 혁신형 Start-up 협력 강화(연2회 Start-up 소싱 투어 진행)
- 美 Fortune 500대 기업의 영향력 확대
 - 500대 기업 매출 미국 총 GDP의 70.1% 점유
 - 500대 기업의 GDP 비중 매년 증가: ('12년)66.7%→('13년)72.2%→('14년)70.1%

<美 Fortune 500대 기업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500대 기업 매출액	107,843	121,110	122,105
GDP	161,632	167,681	174,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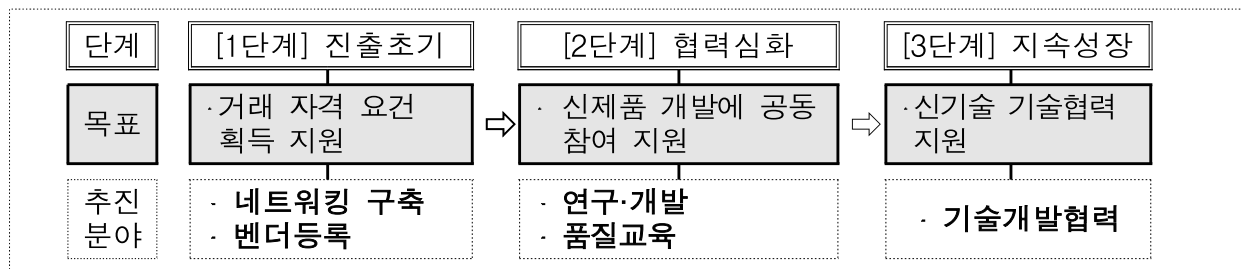
<美 Fortune 500대 기업 산업별 현황>



□ (진출전략) 부품소재 연구개발 등 협력 고도화 및 협력분야 다각화

- 부품·소재 수출 전문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자동차부품)북미 Korea Autopart Plaza, (기계류)GP Chicago 등
 - * 북미 Korea Autopart Plaza : (디트로이트무역관) Ford, GM / (토론토무역관) Magna 등
- 부품·소재 수출 상담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글로벌 협력 고도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수준을 감안한 단계별 협력 모델>



<협력 유형 별 타겟 산업 및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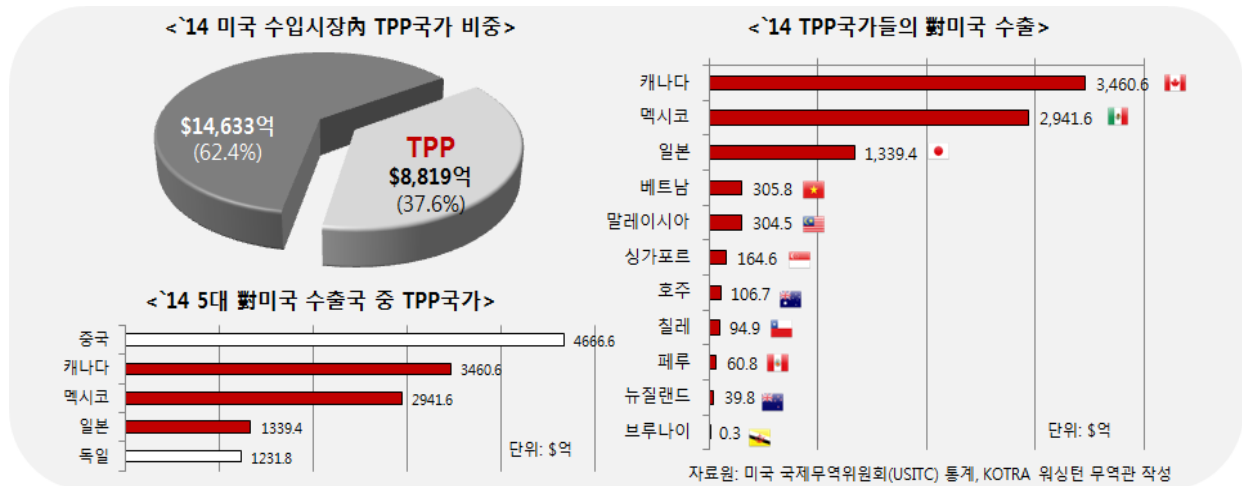
협력 유형	협력 단계	산업 분야	타겟기업(예시)
Validation (벤더 등록)	▶ 한국 제품 구매 초기 단계	항공, 에너지	Schlumberger CB&I, Triumph
R&D (연구·개발)	▶ 한국 구매 경험, 신제품 개발 수요	ICT, 신재생에너지	Tesla(전기차) AT&T(인공지능)
Tech-Train (품질 교육)	▶ 벤더 등록 필요, 품질 관리 중요	자동차, 중장비	Caterpillar(중장비) Ford(자동차 설비)
Tech-Consulting 2-(기술 개발)	▶ 한국과 기술 협력 희망 글로벌	ICT, 전기·전자	e-Bay(터치 센서) Dell사(Start-up)

- 항공, 제약, 의료 등 신산업분야로 글로벌 협력 다각화
 - (항공) 미국 글로벌 항공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 및 위험 분산 위해 다국적 구매 확대하고 있으며, 항공부품 수입은 '13년 US\$ 131억에서 '14년 150억으로 증가
 - * 최근 저가 항공기 수요 급성장에 따른 항공 부품 진출 유망, 항공기 제조 1, 2차 벤더 및 MRO 기업 바이어 공략
 - (제약) 미국 동부는 Johnsen & Johnsen 등 다수의 바이오제약회사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통한 임상과 같은 신약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잠재 협력수요 존재
 - * Johnsen & Johnsen 과 KOTRA GP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소 등과의 신약개발 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 중
 - (의료)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중저민층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장비 및 기기 시장기회 확대 예상
 - * 의료분야 맞춤형 마케팅(메디스타)과 '뉴욕 덴탈전시회'(16.11월) 한국관 등 KOTRA 지원사업 활용
 - (통신) 2017년까지 미국 통신기업, 4G 무선통신 인프라 시장에 486억 달러 투자 전망
 - * 한국 제품의 인지도 향상 노력 지속 및 대형 통신기업과의 파트너링 상담회 적극 참여

2-3. TPP발효에 대비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현황)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 40% 수준, 경쟁은 치열하나 TPP 역내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진출 기회는 많아 질 것으로 기대

○ TPP 국가들이 '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5%이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37.6%를 기록



- 캐나다(14.7%), 멕시코(12.5%), 일본(5.7%)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1.3%), 싱가포르 등이 높은 점유율 보여
- TPP 발효 시, 역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데 따른 역내 및 대미 교역 확대 효과 발생
- 캐나다 및 호주(자원/원자재)와 일본(첨단기술), 멕시코 및 베트남(노동), 미국(구매력)이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 완성

<TPP 역내 Supply Chain>



-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에 참여할 경우 10년간 2.5~2.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효과가 있지만 불참할 경우에는 0.11~0.19%의 실질 GDP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원산지 규정의 통합) TPP 통합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 양자 FTA 경우,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및 미국의 원사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으로 FTA 수혜 불가 사례발생
 - TPP의 경우, 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누적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플라이 체인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FTA의 스파게티 불 효과*를 해결
-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

<예시 : 공급망의 한·미 FTA 및 TPP 활용 가능 여부>

Supply Chain			FTA 활용 가능 여부	
자재 및 부품	완제품	소비	한미 FTA	TPP
	→ 	→ 	○	○
	→ 	→ 	△	○
	→ 	→ 	✕	○

- 그간 FTA 활용률(한미 FTA 69.3%)을 떨어트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원산지 증명관리가 쉬워져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
- * FTA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5대 어려움 :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전문인력 부족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 ▲통관애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등
- (Two Track FTA) TPP 발효 후에도 한·미 FTA 지속 활용 가능
 - TPP 가입 후에도 양자 FTA는 유효해 수출절차에서 양자택일 가능
 - TPP가 다자간 협정의 특성상 복잡한 원산지표기 등이 우려될 경우, 기존 한·미FTA 체계를 활용한 수출절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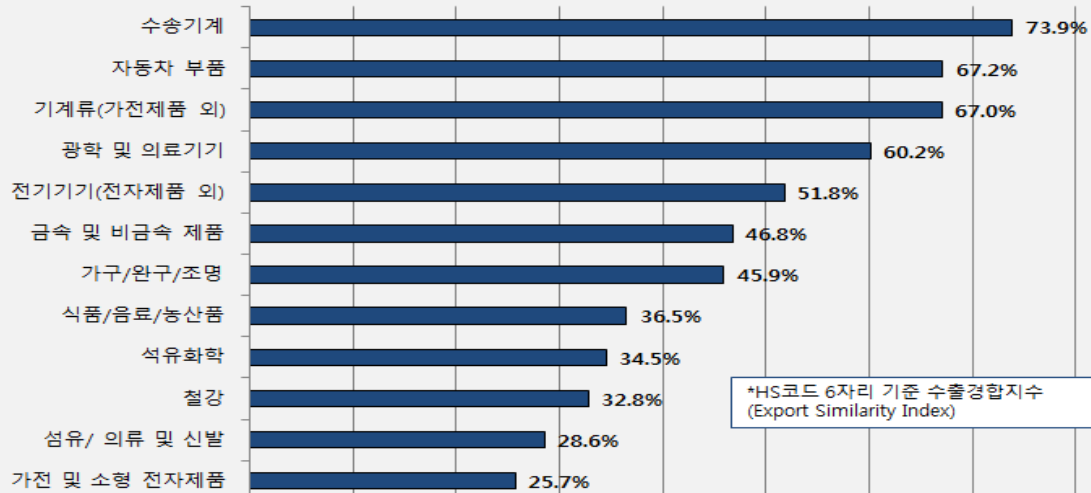
□ (진출전략) 한국 우위산업 진출 강화, 미국 신흥 중산층 공략 필요

- 한국의 우위산업 중심의 진출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IT 기기, 온라인게임,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명품 이미지를 확산하고 다른 산업과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일본의 경우 ‘Cool Japan’ 등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은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紙는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 전략이 일본 및 일본 문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분석, 해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비판
 - ‘한국産’, ‘한국의 것’이라는 자기 만족형 홍보를 지양하며 현지 특성을 고려한 특정 제품 및 콘텐츠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
-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R&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십 모색이 필요
 -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IT, 바이오·의료산업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업 및 M&A를 적극 추진
-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
-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 특히, 히스패닉(라틴계)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 문화 등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
 - 유니비존(Univision)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 장려
 - 또한, 유행에 민감한 힙스터* 세대의 기존 제품 및 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활용 방안이 필요
 - * 힙스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주류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독립적인 2,30대를 지칭
 - * 미국의 유력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 타코를 힙스터 세대를 대표하는 22가지 음식 중에 하나로 선정
 -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 ‘특정 세대, 인종 등이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발굴 및 확보

[참고] 한-일 산업별 대미 수출 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

<`14 품목별 한일 대미국 수출경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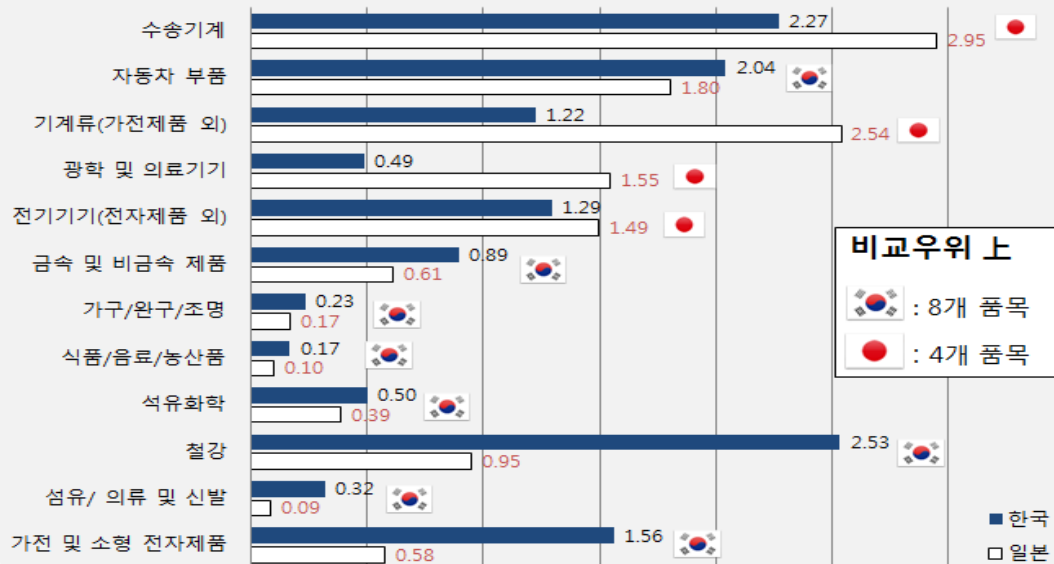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통계,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 일치할 경우 100%이며, 완전 불일치 할 경우 0으로 나타남. 수출경합도지수는 A국의 C시장에 대한 수출 상품 중 상품i의 비중과 B국의 C시장에 대한 수출 상품 중 상품i의 비중 중 작은 수치에 100을 곱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값을 합산한 수치

<`14 품목별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통계,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특정시장에서 상품i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A국의 수출에서 상품i가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시장에서 A국의 상품i의 비교우위를 수치화하는 지수로 지수가 1보다 높을 경우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

□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

-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
- 특히,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
-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 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RCA 1 이상)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

□ 한국과 일본, 한·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희비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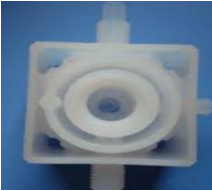
- 한·미 FTA 발효 직전년도인 `11년 대비 `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
-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 석유화학 및 화학, 가구/조명/완구, 광학 및 의료기기의 對미국 수출이 감소
-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對미국 수출은 `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
-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對미국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지속 감소

□ TPP에 따른 미·일 관세양허로 경쟁 심화 예상

-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미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 포함), 석유화학(제트유),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산에 대한 양허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주목 필요

별첨 : 수출유망품목 (HS Code 순)

품목명 1	HS 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60.7	대한수입액('14/US\$백만)	\$10.0
김 	선정사유	유기농, 친환경 식품과 건강식품 성장 전망. 스낵시장은 360억 달러 규모로 연간 3.6% 성장		
	시장동향	전체 수입은 -1.36% 감소했으나 대한수입 5.11% 증가		
	경쟁동향	일본산 및 중국산 김 스낵제품이 일부 일본계 마트와 중국계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현지 브랜드인 Annie Chun's는 한국 CJ 그룹이 지난 2006년 인수하여 Walgreens, Whole Foods 등에 스낵 김을 판매.		
	진출방안	현지 주요 리테일러의 파워 벤더들을 활용. 무엇보다 미국 시장 진출에 앞서 국제표준인증원의 위해요소중전관리인증(HACCP)과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승인 필요. 또한 미 유태인들이 선호하는 Kosher 인증과 이슬람교도 등이 중요시하는 할랄 인증마크 획득도 틈새시장 진출에 효과적		
품목명 2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무관세
	수입액('14/US\$백만)	39,5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21.7
의약품 (OTC용 소매약품) 	선정사유	미국 인구 고령화와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미국 제약 회사들은 리스크 완화와 이윤 증대를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뉴욕무역관에서 의약품 관련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한 바 있음		
	시장동향	1,02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2014년에 8% 성장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스위스(20.0%), 아일랜드(15.5%), 독일(12.0%), 이스라엘(10.1%)		
	진출방안	미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으로 직접 진출 또는 미국 제약사의 OEM 생산 진출		
품목명 3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무관세
	수입액('14/US\$백만)	2,214.4	대한수입액('14/US\$백만)	76.7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아모레 퍼시픽, 닥터 자르트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로 미국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시장동향	화장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전년대비 3% 성장해 606억 달러, 2016년 3.1% 성장해 62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하고 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프랑스(22.9%), 캐나다(17.0%), 아일랜드(11.7%), 영국(8.9%), 중국(5.8%), 한국(3.5%)		
	진출방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및 대형 유통체인점 입점. Youtube를 활용한 Beauty Video Blogger(vlogger)이 소셜마케팅 채널로 인정받고 있으며 Youtube 뷰티 블로거들은 동영상으로 자세한 화장법, 활용법, 제품 사용 후기 등을 공유하며 제품 소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뷰티 박스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매달 새로이 출시되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제품들을 소형 사이즈로 구독(subscription). 신제품 소개에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활용도가 높음		

품목명 4	HS Code	392490	수입관세율(%)	0%
플라스틱 사출제품	수입액('14/US\$백만)	1,385	대한수입액('14/US\$백만)	10
	선정사유	바이어 인콰이어리 증가 품목		
	시장동향	특히 소비자 IT 제품 시장의 확대에 케이스 등의 수요		
	경쟁동향	중국산 제품의 시장 진출이 압도적이나 품질이 조악		
	진출방안	대형유통망, 글로벌 생산기업의 OEM 제품 생산이나 기능성/디자인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		
품목명 5	HS Code	6111	수입관세율(%)	무관세
유아용품 (의류 및 악세사리)	수입액('14/US\$백만)	1,900.0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선정사유	미국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은 낮아졌으나 20대 후반 및 30대의 산모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보 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녀들을 위 한 제품에 쓰는 지출을 아끼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고급제품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매우 큼		
	시장동향	유아용품 시장은 2017년 668억 달러 규모로 전망 돼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5% 정도 성장 지속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51.3%), 캄보디아(10.9%), 베트남(7.0%), 인도 (6.6%) 등		
	진출방안	고품질 제품으로 온라인판매 통한 충성고객 구축		
품목명 6	HS Code	7208	수입관세율(%)	무관세
평판압연제품	수입액('14/US\$백만)	4,489.8	대한수입액('14/US\$백만)	806.8
	선정사유	미국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한국산 제품의 수 입 점유율 2위로 경쟁력 있음(2014년 26.1% 증가)		
	시장동향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캐나다(27.8%), 한국(22.7%), 멕시코 (6.8%), 러시아(6.0%) 등		
	진출방안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유대 관계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 7	HS Code	730721	수입관세율(%)	무관세
플랜지	수입액('14/US\$백만)	156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한국의 타워플랜지 대미 수출은 '14년 전년 대비 566% 상승하였고, 풍력 발전 시장에 따라 플랜지 수요 증가 및 성장 전망		
	시장동향	청정에너지 시장 활성화 정책이 활발함		
	경쟁동향	인도가 41%, 중국이 16%의 수출 시장을 점유		
	진출방안	풍력발전 시장 성장 및 수요에 따른 물량 확보가 필요함		
품목명 8	HS Code	84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자동차 컴프레서	수입액('14/US\$백만)	9,852	대한수입액('14/US\$백만)	462
	선정사유	미국 수출에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선정		
	시장동향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경쟁동향	중국 27%, 멕시코 20%, 일본 10% 수출 시장 점유		
	진출방안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품목명 9	HS 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1,044	대한수입액('14/US\$백만)	45
정수 필터 	선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로 식수 오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괴(hydraulic fracking)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2014년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0%가 식수 오염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답변		
	시장동향	약 17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수 필터 시장은 매년 약 5%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도 전년대비 약 7% 상승		
	경쟁동향	한국산 정수 필터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약 30% 성장하며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6위 기록		
	진출방안	A/S 등을 위한 현지화, 품질 관리		
품목명 10	HS Code	843069	수입관세율(%)	0%
건설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54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 상용차, 중장비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향후 지속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시카고는 전통적으로 건설·기계 산업의 중심		
	진출방안	현지 동종업체들과 파트너십 구축 필요		
품목명 11	HS Code	844230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1
프레임 	선정사유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SOC 산업 활성화		
	시장동향	금융위기 이후 재정난으로 낙후된 SOC 시설 급증		
	경쟁동향	시카고는 전통적으로 건설·기계 산업의 중심지		
	진출방안	현지 시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구축		
품목명 12	HS Code	846239	수입관세율(%)	0%
공작기계	수입액('14/US\$백만)	\$13	대한수입액('14/US\$백만)	\$0.9
	선정사유	미 중서부는 전통적으로 공작기계 판매 중심지		
	시장동향	일본, 독일계 기업들이 시장 선도		
	경쟁동향	일리노이 진출 42개 한국기업 중 기계분야가 다수 차지		
	진출방안	품질 및 물류 관리, A/S의 현지화 필요		
품목명 13	HS Code	846599	수입관세율(%)	0%
선반기계	수입액('14/US\$백만)	\$50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선정사유	FTA로 인한 무관세 혜택		
	시장동향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활발		
	경쟁동향	중국, 대만제품들과 치열한 경쟁 중		
	진출방안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		

품목명 14	HS Code	8471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323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3.7
웨어러블 디바이스 	선정사유	전체 미 시장규모는 8억 5,400만 달러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구글 글라스를 선두로 애플 워치, 삼성 갤럭시 기어, Fitbit 등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이 출시되어 판매 중.		
	시장동향	13.51% 수입 증가, 대한수입 4.55% 수입 증가		
	경쟁동향	구글, 애플, 삼성, Garmin, TomTom, Microsoft, Jawbone, Nike, 샤오미 등		
	진출방안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소셜 마케팅 활용 가능. 피트니스 클럽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성 마케팅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		
품목명 15	HS Code	847710	수입관세율(%)	무관세 (한국산)
	수입액('14/US\$백만)	7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선정사유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널리 이용되며 2014년 한국산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바 있음		
	시장동향	미 자동차 시장 호황에 따른 사출 성형기 수요 증가		
	경쟁동향	미국 기업들의 해당품목 아웃소싱 증가세로 한국 기업에게 유리		
	진출방안	발포 성형 등 다양한 성형 기법/기술 보유 시 유리		
품목명 16	HS Code	848210	수입관세율(%)	제품별 상이
	수입액('14/US\$백만)	1,213	대한수입액('14/US\$백만)	56
볼베어링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기대는 풍력발전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시장동향	'15년 청정발전계획 따라 미국 각 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청정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풍력 발전 300% 증가 전망		
	경쟁동향	중국, 일본 제품이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풍력 발전시장이 가장 밀집한 텍사스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출 추진		
품목명 17	HS Code	848620	수입관세율(%)	무관세
	수입액('14/US\$백만)	4,728.4	대한수입액('14/US\$백만)	337.7
반도체기기 및 회로기판 제조용 기계	선정사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첨단기술과 IT 산업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어 기술기반 기업의 증가가 예상됨. 특히 뉴욕주 북부지방에는 GE, AG, IBM, Global Foundries 등 기업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 계획을 발표됨		
	시장동향	미국 전체 수입이 2014년 66.8% 증가하고 한국		

		제품의 수입은 2013년 67.2%, 2014년 71.4% 각각 증가함		
	경쟁동향	수입점유율 : 네덜란드(42.3%), 일본(32.1%), 싱가포르(8.9%), 한국(7.1%)		
	진출방안	장비관련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참가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필요		
품목명 18	HS Code	850410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4/US\$백만)	490	대한수입액('14/US\$백만)	0.4
	선정사유	바이어 인콰이어리 증가 품목		
	시장동향	에너지 절약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고도화된 변압기 제품의 수요 존재		
	경쟁동향	현지 생산 제품과의 경쟁이 심한 현황		
	진출방안	스마트그리드 신규 프로젝트 디벨로퍼 또는 유틸리티 공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품목명 19	HS Code	85183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1640.6	대한수입액('14/US\$백만)	\$6.0
	선정사유			
	시장동향	전체 수입 - 1.04% 감소에도 한국산 33.50% 수입 증가		
	경쟁동향	유명 브랜드들인 Sony, Philips, SkullCandy, Beats by Dr. Dre, Bose, Sol Republic, Monster 등의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		
	진출방안	다양한 생식과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 블루투스 연결, 소음 차단, 리모트 컨트롤, 마이크 로폰 장착, 방수기능 등 기능성 제품 개발로 세련된 디자인 선호. 주요 소비자층인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소셜 마케팅과 이벤트 마케팅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품목명 20	HS Code	852351	수입관세율(%)	무관세
	수입액('14/US\$백만)	4,176.1	대한수입액('14/US\$백만)	629.7
	선정사유	한국은 미국의 비휘발성 기억장치(USB 저장장치포함) 수입 제 3위 국가로 지난 3년간 수입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등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보유.		
	시장동향	USB 메모리 관련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		
	경쟁동향	수입점유율('14) : 중국(49.9%), 대만(16.5%), 한국(15.1%), 일본(8.3%), 말레이시아(7.1%)		
	진출방안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으로 바이어 확대로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품목명 21	HS Code	853120	수입관세율(%)	무관세 (한국산)
	수입액('14/US\$백만)	1261	대한수입액('14/US\$백만)	58
	선정사유	해당 품목의 연간 대미 수출액 증가 추세		
	시장동향	LED 조명을 자동차 인테리어에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LED 관련 기업 수 증가로 경쟁 심화 추세		

	진출방안	ISO 인증 획득 및 북미지역 현지 지사/법인 설립		
품목명 22	HS Code	8544	수입관세율(%)	무관세
통신장비 	수입액('14/US\$백만)	18,63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0
	선정사유	미국 통신 시장 성장에 따른 부분품 소모 증가		
	시장동향	유·무선 데이터 이용 증가에 따른 통신기기 및 각종 장비 소비 증가		
	경쟁동향	한국, 멕시코, 중국 등에서 OEM/ODM으로 생산된 중저가 통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한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품질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품목명 23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3,238	대한수입액('14/US\$백만)	173
	선정사유	바이어 수요 증가 품목		
	시장동향	건설 중장비 부품 시장의 전반적 성장 추세		
	경쟁동향	Made in USA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 층위가 존재하나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우리 제품이 호평		
	진출방안	중장비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Aftermarket 시장 유통구조 파악을 통해 A/S 부품 시장 점유 확대		
품목명 24	HS Code	870850	수입관세율(%)	0%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수입액('14/US\$백만)	\$2,742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
	선정사유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분야 수요 증가		
	시장동향	미 중서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 조성 중		
	경쟁동향	야마자키, DMG MORI 등 글로벌 기업 다수 포진		
	진출방안	품질관리, 적기납품, 물류관리에 만전		
품목명 25	HS Code	870895	수입관세율(%)	무관세 (한국산)
자동차 에어백 	수입액('14/US\$백만)	2382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해당 품목의 연간 대미 수출액 증가 추세		
	시장동향	에어백과 같은 차량 안전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해당 품목은 Takata 등 일본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Takata의 경우 에어백 결함으로 대량 리콜 조치가 내려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		
	진출방안	ISO 인증 획득 및 북미지역 현지 지사/법인 설립		
품목명 26	HS Code	880330	수입관세율(%)	무관세
비행기 헬리콥터의 부분품	수입액('14/US\$백만)	15,132	대한수입액('14/US\$백만)	591
	선정사유	미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공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항공 MRO에 필요한 항공 부분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최근 보잉 차세대 기종 737 맥스 부품 공급 차질 물량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		
	경쟁동향	일본이 전체 수출 규모 32%의 높은 비중 차지		
	진출방안	미 연방항공국의 부품 안전규정 준수 및 입증된 안전기록을 제공한다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품목명 27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진단기 	수입액('14/US\$백만)	13,35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6
	선정사유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 진단기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DIY 건강진단기 및 가정용 키트(kit) 형식의 제품 인기		
	경쟁동향	독일 및 일본산 제품이 고가 제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산도 수입 급증		
	진출방안	IoT 활용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공략 가능		
품목명 28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4/US\$백만)	201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 사업 추진 성과 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 중시		
	경쟁동향	기존 미국 및 유럽계 유명 브랜드 파워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위협적인 상황		
	진출방안	FDA 취득과 이동성 제고, 병원 외 개인용 제품, IT 융복합 기술 적용 등을 통한 제품 차별화 필요		
품목명 29	HS Code	901819	수입관세율(%)	0%
환자 감시장치 	수입액('14/US\$백만)	2,323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무역관 사업 추진 성과 품목		
	시장동향	의료보험제도 공고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의료기기 디스트리뷰터 통폐합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중요, 바이어들은 안정적 공급처 확보 중시		
	경쟁동향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진출이 독보적		
	진출방안	FDA 취득과 이동성 제고, 병원 외 개인용 제품, IT 융복합 기술 적용 등을 통한 제품 차별화 필요		
품목명 30	HS Code	940540	수입관세율(%)	4.7%(한국:0%)
LED 조명 	수입액('14/US\$백만)	2,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28
	선정사유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법을 통과시키고 정부 소유 및 상업 건물의 에너지효율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고효율 조명에 대한 수요 상승 전망		
	시장동향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들도 LED 조명 등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경쟁동향	현재 중국 및 멕시코산이 미국 수출시장의 80% 이상을 잠식하고 있지만, 고품질 제품으로 경쟁 가능		
	진출방안	UL, DLC 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필수. 기술력 입증 관련 특허, 실험결과 등 증빙 자료 구비 필요. 미 시장은 "Made in USA"를 선호하고 있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ssembled in USA" 시장 공략 필요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강화

□ 온라인 유통망 진입 지원 인프라 확대

- 북미 온라인 유통망 자문단 확대 (14개사→20개사)
 - * 북미 온라인유통망 자문단 운영 무역관 ('15)6개 무역관 → ('16)전무역관으로 확대
- B2C Fulfillment 지원 네트워크 확대 (6개사→10개사)

□ 대형 온라인 유통망 조기 진입 총력 지원

- 파워벤더 활용 온라인유통망 공략 사업 전무역관 확대 추진
 - * 사업내용 : 온라인유통망 자문단 사전심사/지원기업 선정 → 유력 파워벤더 납품 → 대형유통망 진입
 - * 내수기업, 글로벌 유통망 진출지원기업 등 1천여개사 대상 추진
- 대형온라인 유통망 내 "온라인 한국관" 운영 확대
 - * Newegg(美10대 온라인유통망), Tigerdirect(美소비재가전분야4위), Shopify(캐나다) 등
 - * 연말 소비시즌('15년말, '16년초) 집중 운영 추진

2. 소비재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대형 유통망의 아시아 제품 소싱 구조 조사 및 맞춤형 공략 추진

- 100대 유통망 APO 운영 현황 및 아시아제품 소싱 구조 조사
 - * APO(아시아 소싱 본부, Asia Purchasing Office) 제품심사, 구매결정 및 매장공급까지 모든 사항 관리
 - * APO 운영 유통망 : Home Depot(상하이), Grainger(상하이), Lowe's(상하이) 등
- APO대상 방한 핀포인트 수출상담회 추진
 - * APO 미운영 유통망 : 품목별 구매담당자 제품소싱 투어 지원(방한 1:1상담회 등)등 맞춤형 사업 추진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및 주요 소비재 박람회 활용사업 확대

- 초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대상 맞춤형 상담회 개최 확대
 - * Walmart(식품), Kroger(일반소비재), Grainger(산업소비재) 등 10대 유통망 중심 추진
 - * 중견기업 및 온라인 유통망 진입 성공 기업 대상(우회진입) 추진

- 대형 소비재 박람회 연계 수출 지원사업 강화
 - * 美 라스베가스 소비재 박람회 연계 수출상담회 (LA,8월)
 - * 加 최대 소매·유통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토론토,9월) 등

3.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다문화 시장 집중 공략

- 소비력이 급증하는 라티노, 아시안 대상 사업추진 확대
 - * 한-라티노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LA), 한-쿠바 비즈니스 파트너십(상반기, 마이애미)
 - * Korean Food Festival (11월, 벤쿠버)
- 북미 진출기업(BI/IT지원센터) 대상 라티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 * 북미 4개 BI입주기업 대상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상반기, 멕시코 등)
 - * BI/IT입주기업 라티노 수출상담회 개최(상반기, LA/마이애미)

□ 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 강화

- (美정부조달) 유관기관 협업, 조달우대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 추진
 - * 정부조달협회, 방사청 등 협업 → 한-미 정부조달 파트너십, 국방전시회 참가 등 공동추진
 - *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등 적극 활용 ('15.10 美장애인산업협회 MOU 체결)
- (US조달) UN 관계자 초청 설명회, 조달 상담회 지속 추진
 - * UN조달 설명회 및 상담회 (상반기, 뉴욕), 국내기업 설명회(하반기, 서울) 추진

4. 제조업 르네상스 대응사업 확대

□ GP사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부품소재 수출 강화

- 북미 대표 GP사업 확대 및 주요 산업권역별 신규 사업 개발 추진
 - * (기존) GP시카고(기계류, 시카고), KAP(자동차부품, 디트로이트/토론토) 등 확대 시행
 - * (신규) 항공부품(달라스/시카고/토론토), 스마트카(실리콘밸리), 제약(뉴욕), 반도체(뉴욕) 등
- 전문전시회 연계 및 전문 산업협회 협력 사업 확대
 - * OTC(세계최대해양플랜트전시회,5월), 미국무선통신박람회(9월), 몬트리올 항공산업전(10월) 등 연계
 - * MARPA(미항공부품협회) 협력 회원사 초청 GP상담회 실시(10월, 라스베가스)

□ 리쇼어링 기업의 R&D, 제조 확대 수요 공략

- 첨단기술 리쇼어링 기업 대상 맞춤형 GP상담회 추진
 - * Reshoing Initiative(연구기관)이 선정한 68개 첨단기업 68개 중심 사업추진

5. 문화융성 및 창업/취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류 활용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 확대

- 美 최대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 대형 한류박람회 개최(8월, LA)
 - * CJ E&M과 공동개최(KOTRA:전시/상담, CJ:한류페스티벌), 韓150여개사 규모
 - * LA는 미국 내 다문화시장의 중심지로 사업 효과의 아시아, 중남미 파급 기대
- 문화컨텐츠 분야 수출 지원사업 강화
 - * 한-미 문화콘텐츠 라이선싱 상품 상담회(상반기), 한-캐나다 디지털 콘텐츠 페어(5월) 등
 - * KSCM(Korea Service Contents Market, 서울) 지원 강화('15년 북미 31개사 방한(최다))

□ 우수 창업환경 지역 중심 지원 인프라 강화 및 창업지원 융복합 사업 추진

- K-Move 센터 신규개소(상반기) 및 운영 강화
 - * 뉴욕 K-Move센터 신규개소, 실리콘밸리 K-Move센터 북미 창업교육 확대
- Korean Startup NYC 2016 개최(상반기, 뉴욕)
 - *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세미나/투자유치 실시, 뉴욕 전세계 창업환경 1위
- K-tech 실리콘밸리(하반기, 실리콘밸리)
 -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추진
- 미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강화
 - * Google, MS, 삼성 등 대형 IT기업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신규 혁신 동력으로 활용 중
 - * 의료/바이오(Johnson & Johnson), 제조(GE),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 등 첨단산업 수요 연계 스타트업 투자유치 강화

6. FTA 및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 활용 투자유치 강화

- 한-중 FTA 활용, 미 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유치 강화
 - * 한국 생산제품의 중국 의약품 시장 허가 시 내국민(중국기업) 대우
- 국내 제조업 집중 육성 분야 투자유치 강화
 - * 반도체(Applied Material), 우주항공(NASA), 바이오(Amgen/Genetech)등 집중 유치
 - * 제조업 혁신 3.0 전략 : 지능형반도체, 무인항공기,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등 12개 분야 집중 육성

7. 지방자치단체 전략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확대

- 지자체 전략산업과 북미 산업권역을 매칭하여 투자유치 활동 전개
 - * 산업권역 별 투자유치사절단, 타겟기업 투자유치 상담 등 추진
- 정부-지자체-투자유치 희망기업 공동 대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추진
 - * Foreign Investment Kick-off(FIK) New York 개최(상반기) 추진
 - * 지자체간 투자유치활동 중복 방지, 대형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 * Bloomberg, Thomson Reuter 등 대형 미디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규 투자자 발굴
- 美 Site Selector 대상 지자체/경제자유구역 유망 산업 연중 투자유치
 - * Site Selector : 美 기업 고객 요청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 최적 부지 발굴 컨설팅
 - * 지자체/FEZ 중 희망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Site Selector의 고객 기업 대상 연중 투자유치 추진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진출전략

kotra
유럽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99
1. 유로화 약세 강화	99
2.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99
3.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100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100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가중	101
II. 진출환경 분석	102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02
2. 경제 환경	105
3. 정책·규제 환경	107
4. 권역별 대표산업	11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114
III. 시장 분석	121
1. 수출	121
2. 투자진출	129
3. 프로젝트	130
IV. 시장진출전략	147
1. 진출전략 개관	147
2. 세부 진출전략	1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7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유로화 약세에 따른 대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VW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난민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1. 유로화 약세 강화

□ 유로화 약세에 따른 對유럽 가격경쟁력 약화

- 對유럽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기업·중국 등 신흥국과 경쟁심화 우려
 - － ECB(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 약세 기조 강화 전망
 - * 美금리인상 전망이 유로화 하락 추가요인으로 작용,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ECB는 '16년 9월까지의 QE(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 유로화 약세 장기화에 대비한 획기적 수출증대(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노력 필요
 - * ('14년 1월)1.4달러/유로→ ('15년 10월)1.1달러/유로→ ('16년 10월)1.0달러/유로^{e1)}

2. '16년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수출 유망시장 확대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소비재) '16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 온라인유통시장 '14년 대비 18% 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은 33% 증가²⁾
 - * EU민간소비 증가 전망치 : 2.1%('15년)e → 2.0%('16년)e³⁾
- (자동차부품) 유럽 글로벌 OEM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소싱 다변화 추세
 -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 * Volkswagen('17년까지 50억 유로), Audi(연 20억 유로), BMW(연 5억 유로)등
 - * EU, 역외산 자동차부품 수입은 4.1% 줄었으나, 한국산 수입은 5.5% 증가⁴⁾

1) Commerzbank

2) World Trade Atlas(WTA), 2015년 6월 전년 동기비 기준

3) EU집행위 발표치 (2015년 11월,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의료기기·의약품) 고령화 및 생활환경개선(동구)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 한국 의료제품의 기술력 상승과 맞물려 진출 기회 확대
 - * EU, 역외산 의약품 수입은 15% 줄었으나, 한국산 수입은 316% 증가
 - * 특히 동유럽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율: 對헝가리(1,968%), 對폴란드(1,584%)

3. Volkswagen사태에 따른 자동차와 주력상품 시장 환경 변화

□ '위기는 곧 기회' - VW의 원가절감 전망에 따라 기존 유럽 납품업체 대체 움직임 예상

- VW,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구조조정, 원가 절감 강화 계획
 - － 유럽산 공급업체 대체 움직임 증가, 역외산 소싱 강화 전망
 - * VW, '16년부터 연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 VW의 경쟁사(한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OEM)의 반사이익 예상
 - － PSA, FIAT 등 타 완성차업체로의 납품 확대 등 다변화 정책 필요
-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형성 본격화
 - － 2차전지, 텔레매틱스, 경량화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독일, E-모빌리티법 발효('15.9.25) /무료주차혜택, 버스 전용차선 이용권, R&D투자 확대 등

4. 유럽의 블루오션 시장,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기금 연계 동유럽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EU 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 '16년 초부터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 교통(철도, 도로), 환경 및 에너지, 보건의료,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
 - － 기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시아 및 중동 중심이나*, 새롭게 열리는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의 기회 선점 노력 필요
 - * 한국의 프로젝트 수주금액: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45.7%, 중동이 35.4%, 유럽은 1%미만⁴⁾
 - * 진출 유망 프로젝트 : ICT, 에너지프로젝트 등 국내기업 기술력 경쟁력 보유 분야

4) World Trade Atlas(WTA), 2015년 6월 전년 동기비 기준

5) 해외건설협회, 2015년 8월 기준 한국의 해외프로젝트 수주현황 통계치

5.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 가중

□ 난민 유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총 40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유입,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15년 2분기 기준)
 - － 이 중 38%가 독일에 난민 신청 (Eurostat공식 집계치, '15년 2분기)
 - * 독일(80,935명/38%), 헝가리(32,675명/15%), 오스트리아(17,395명/8%) 順
 - － 공식 등록된 난민 중 시리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21%)
 - * 시리아(21%), 아프가니스탄(13%), 알바니아(8%), 이라크(6%)순
 - － '15년 연말까지 유럽에 총 60만 명의 난민 입국 전망
- `테러범의 난민 위장` 입국 사례 발생, IS 테러 위협은 진행 중
 - － 시리아·이라크 IS기지 공습에 참여하는 국가가 주요 테러 대상(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 테러사태 빈번 발생시, 유럽 내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 * 파리 테러('15.11.13 /132명 사망)
 - * 유럽, 크리스마스마켓·축구경기등 대규모 집회에 보안 강화 중

2016년 주요 일정

- 루마니아 부가세 인하 : 2016.1.1.
- EU의 대 러시아 경제재제 종료 : 2016년 1월 (잠정)
- 한-불가리아 산업공동위원회 : 2016년 3월 (예정)
- 한-그리스 수교 55주년 : 2016.4.5.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 － 프랑스 속의 한국 : 2015년 9월 - 2016년 3월
 - － 한국 속의 프랑스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 헝가리 세제개정 : 회계법 (2016.1.1.일부 발효), 소득세인하(2016.6 발효)
- 한-벨기에 수교 115주년: 2016.03.23.
- 오스트리아 연방 대통령 선거 : 2016년 4월
- 한-EU FTA 체결 5주년: 2016.7.1
- 한-핀란드 수교 43주년: 2016.8.24
- 무역협정(EU)
 - － 미국 TTIP(10차 협상완료 2015년 10월)
 - － 일본 FTA(13차 협상 중)
 - － 중국 BIT 협상 중(차기 협상 2015년 11월)
 - － 베트남 FTA 타결(2015년 8월 타결, 비준절차 진행 중)
 - － 한국 FTA(잠정발효 5년차, 2011.07.01.) : 2015.12.13 전면발효

II

진출환경 분석

- 세계 최대 규모, 고소득 선진시장으로 높은 구매력 보유
- 글로벌포춘, 히든챔피언 등 고도기술의 선도기업 최다 포진
- 경쟁국, 생산거점 및 기술력·브랜드 확보를 위한 유럽진출 활발
- 진입장벽이 높고, 역내교역비중 및 현지화가 중요한 까다로운 시장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선진시장

-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4년 GDP 기준, 세계 1위 차지 (\$18.5조 / 1위)

EU	미국	중국	일본	인도
\$18.5조(1위)	\$17.4조(2위)	\$10.3조(3위)	\$4.6조(4위)	\$2.0조(5위)

-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 상위 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 * 룩셈부르크(1위)US\$103,187, 스위스(2위)US\$82,178, 노르웨이(4위)US\$76,266, 덴마크(8위)US\$51,424, 아이슬란드(9위)US\$51,068, 스웨덴(11위)US\$48,966, 영국(14위)US\$44,118, 독일(17위)US\$41,267 등 / 미국 US\$55,904(5위)
-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 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 핀란드, 스웨덴), 패션(이탈리아)
 - 글로벌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 포진
 - * 포춘글로벌500대 기업(145개사, 29%), 히든챔피언 기업(1,948개사, 72.5%) 유럽에 소재⁶⁾
- (투자) 세계 2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⁷⁾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 활발
 - 기술·브랜드·과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 활발

2014	EU	미국	중국
투자(Out)	2위 (US\$ 3,023억) * 전 세계의 22%	1위(US\$ 3,369억) * 전 세계의 24%	3위 (US\$ 8,042억) * 전 세계의 6%
투자(In)	2위 (US\$ 2,696억) * 전 세계의 19%	3위(US\$ 1,116억) * 전 세계의 8%	1위 (US\$ 2,890억) * 전 세계의 21%

6) 히든챔피언: 1.시장점유율 세계1~3위권 또는 유럽 1위 기업 2.매출액 50억 유로 미만 3.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7) OECD FDI in Figures(2015년 10월 발표치, 통계는 2014년 기준)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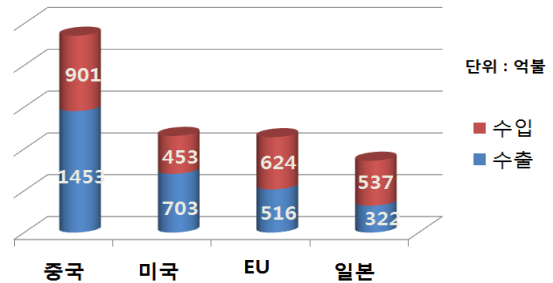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GDP기준 세계 1위, 거대 내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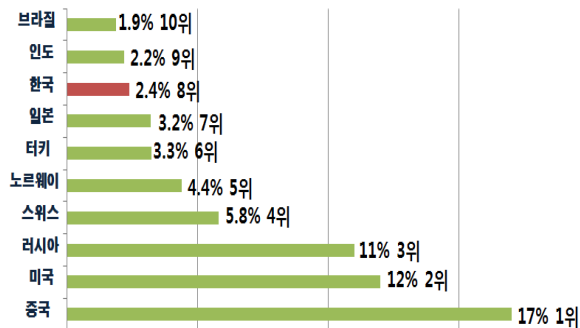
【한국과의 교역 규모】

EU는 한국의 제3위의 교역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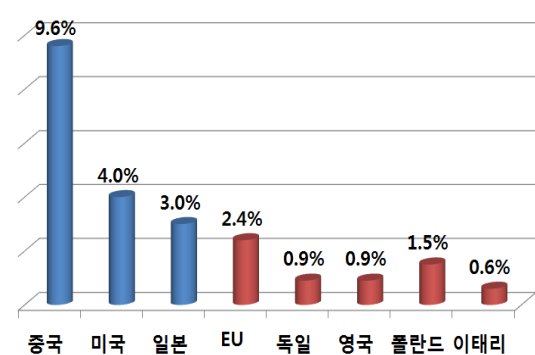
【EU의 수입시장 10대 점유국】

한국의 EU수입시장 점유율 2.4%, 8위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장】

한국의 4대 수출국가 중 낮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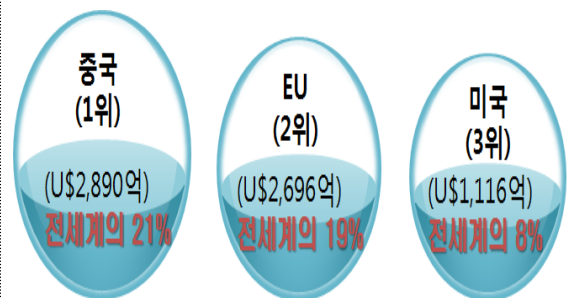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EU 역내 교역비중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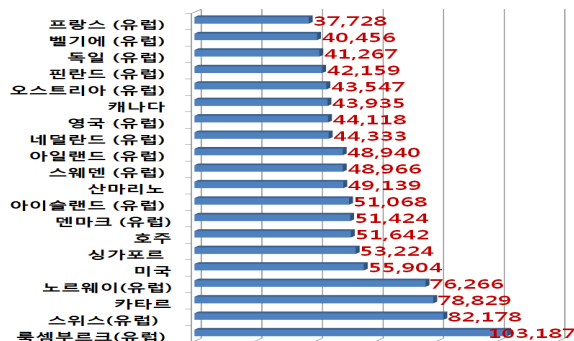
【세계 2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

전세계 해외투자의 19%가 유럽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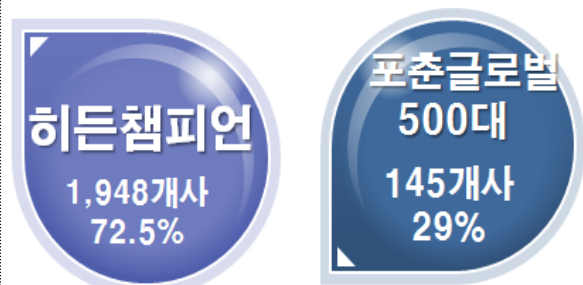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

상위20위권에 유럽이 13개국 포진



【고도기술의 본고장】

히든챔피언 최다 보유 72.5%



【숫자로 보는 유럽(EU)시장】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14)	GDP ('14)	1인당GDP PPP('14), US\$	경제 성장률 ('14/'15)	실업률 ('15)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15)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15)
	EU	100%	18.5조	36,699	1.9%	9.5%	2.4%	100%
1	독일	21.0%	3.8조	46,216	1.7%	4.7%	0.8%	13.2%
2	영국	16.0%	2.9조	39,826	2.5%	5.4%	1.1%	12.1%
3	프랑스	15.5%	2.8조	40,538	1.1%	10.4%	0.6%	5.8%
4	이탈리아	11.7%	2.1조	35,131	0.9%	12.2%	0.8%	7.6%
5	스페인	7.6%	1.4조	33,835	3.1%	22.3%	0.8%	4.6%
6	네덜란드	4.7%	8807억	47,960	2.0%	6.9%	0.7%	8.8%
7	스웨덴	3.1%	5706억	46,219	3.0%	7.7%	0.5%	1.4%
8	폴란드	3.0%	5479억	25,247	3.5%	7.6%	1.4%	5.7%
9	벨기에	2.9%	5342억	43,139	1.3%	8.6%	0.6%	4.3%
10	오스트리아	2.4%	4376억	46,640	0.6%	6.1%	0.4%	1.9%
11	덴마크	1.9%	3424억	44,625	1.6%	6.1%	3.2%	3.7%
12	핀란드	1.5%	2726억	40,661	0.3%	9.6%	0.4%	0.7%
13	아일랜드	1.3%	2508억	51,284	6.0%	9.5%	0.8%	0.8%
14	그리스	1.3%	2380억	25,954	-1.4%	25.7%	1.5%	3.3%
15	포르투갈	1.3%	2300억	27,069	1.7%	12.6%	0.5%	1.2%
16	체코	1.1%	2053억	30,047	4.3%	5.2%	1.8%	4.3%
17	루마니아	1.1%	1991억	19,744	3.5%	6.7%	0.8%	1.1%
18	헝가리	0.7%	1370억	25,019	2.9%	7.1%	1.5%	2.2%
19	슬로바키아	0.5%	990억	28,279	3.2%	11.6%	5.5%	7.7%
20	룩셈부르크	0.3%	657억	97,639	3.1%	5.9%	0.06%	0.03%
21	크로아티아	0.3%	571억	20,947	1.1%	16.2%	na	0.5%
22	불가리아	0.3%	558억	17,926	1.7%	10.1%	0.3%	0.2%
23	슬로베니아	0.3%	496억	29,867	2.6%	9.4%	4.0%	3.5%
24	리투아니아	0.3%	483억	27,259	1.7%	9.4%	0.5%	0.5%
25	라트비아	0.2%	320억	23,793	2.4%	10.1%	0.3%	0.2%
26	에스토니아	0.1%	265억	27,880	1.9%	6.5%	0.3%	0.1%
27	키프로스	0.1%	233억	30,882	1.2%	15.6%	0.4%	0.1%
28	몰타	0.06%	105억	33,198	4.3%	5.8%	0.8%	4.5%

* 자료원: 한국과의 교역규모(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 '1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시장(IMF 2014 발표치)

FDI 진출통계 (OECD 발표치, '14년 기준)

역내교역비중(EUROSTAT 2014 발표치)

GDP(IMF 발표치, '14년 기준)

경제성장률, 실업률(EU집행위 발표치 '15년6월 기준)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World Trade Atlas '15년6월 기준)

한국의 수출비중(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 '15년 9월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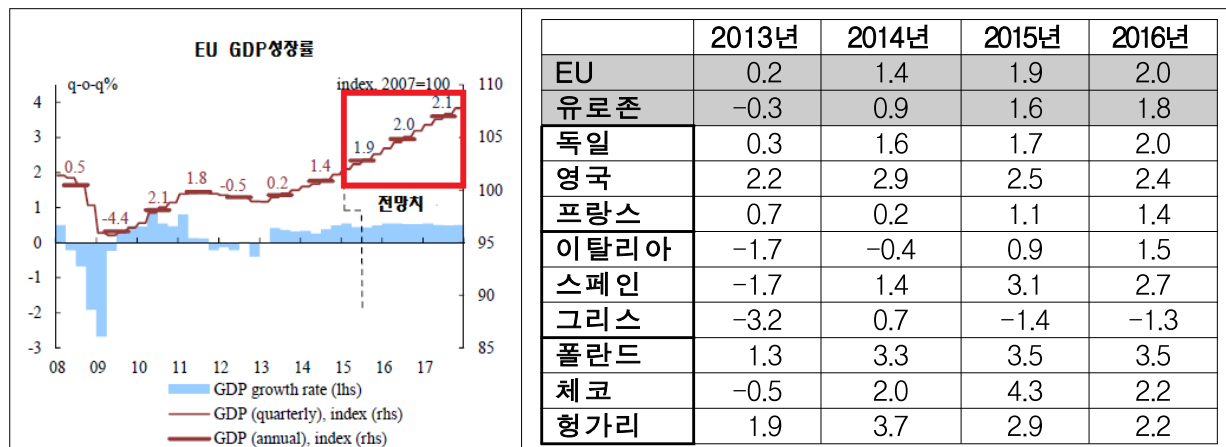
2. 경제 환경

<유럽(EU)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성 장 륜	2013	2014	2015(전 망)	2016(전 망)	2017(전 망)
GDP	0.2	1.4	1.9	2.0	2.1
민간소비	-0.1	1.3	2.1	2.0	1.8
내수수요	-0.1	1.5	1.9	2.1	2.2
설비투자	-1.6	4.1	5.4	5.1	5.6
수출	2.2	4.1	4.8	4.3	5.0
수입	1.6	4.7	5.0	4.9	5.5
실업율	10.9	10.2	9.5	9.2	8.9

* 자료원 : EU집행위 (2015년 11월 발표치)

<주요국 GDP성장률 변화 (단위: %)>



* 자료원 : EU집행위 (2015년 11월 발표치)

□ 경제동향

○ 유가하락 효과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전망

– '16년, 그리스를 제외한 EU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전망

* 독일(2.0%), 영국(2.4%), 폴란드(3.5%), 체코(2.2%), 스페인(2.7%)등 / 그리스(△1.3%)

– 그리스, 3차 구제금융협약에* 따른 긴축조치 이행으로 내수시장 위축 전망

* 향후 3년간('15년~'18년) 총860억 유로 지원 / 그리스 민간소비: 0.5%('14) ⇒△1.3%('15) ⇒△1.7%('16)

○ 수출증가(유로화 가치 하락), 소비·투자 확대 상승효과 기대

– ECB 저금리(0.05%) 및 양적완화('15년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활성화

* '16년, 수출(5.2%), 설비투자(5.7%), 민간소비(1.9%) 증가 전망

□ 경제성장 기회요인

○ 유럽중앙은행, 기존 '16년 9월까지의 양적완화정책을 '18년까지 연장할 가능성 시사

- ECB, 미 금리인상 시 유로화 하락세가 강화될 것으로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15년 물가상승률 전망 : 0%,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고용창출·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유럽전략투자기금)

- 긴축정책으로 저성장 리스크가 심각한 남유럽 지역에 중점 지원 계획
- 중소기업 기업, 대형 SOC프로젝트에 3,150억 유로 지원 (2015-2017)

* 그리스, 데살로니카市 대중교통 e-ticketing 구축 프로젝트('16년 1월 국제공개입찰 계획)등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14.11.25 발표)

- 중소기업(직원 3천명 이하) 지원 및 통신등 대규모 기간시설인 SOC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저성장 타개 (2015.2분기 기동 예정)
- 유럽집행위 및 유럽개발은행이 210억 유로 출자, 운영자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에서 유치

○ 대형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유럽결속기금)

- EU 균형발전을 위해 '14-'20 기간 동안 총 634억 유로 규모의 기금 배정
- '16년 초부터 병원 설립, ICT, 환경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14-'20)
- * 한국기업 성공사례: KT,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 프로젝트 2건 수주 ('13년/US\$1억4천만)

유럽결속기금 (EU Cohesion Fund)

- EU 28개 회원국 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인당 GNI가 EU평균 대비 90%미만인 회원국에만 지원되는 기금 ('14-'20 기금규모 : 634억 유로)
- 최대 수혜국은 폴란드(37%), 루마니아(11%), 체코(9.9%), 헝가리(9.5%) 순임

□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

○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

-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 특히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
- * 중국은 미국에 이은 EU의 제2위의 수출대상국(EU의 총 수출금액에서 9.4% 점유), 독일의 총 수출금액 중 對중국 비중은 6% / ('15년 6월 기준, WTA)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으로 유럽경기의 하방위험

-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14.7월~) 및 러시아의 EU산 농산물 수입 금지('14.8월~) 지속
-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불가리아 등 발칸국의 경제 성장 하방요인 상존
- * 러시아는 중국, 미국에 이은 EU의 3대 교역국이며 경제제재로 對러시아 수출 △45% 감소 (제약△ 32%, 자동차 △50%등), 수입은 △41%(석유 △48%등) / ('15년 6월 기준, WTA)

3. 정책 · 규제 환경

□ EU의 산업육성정책 개관

- (추진 방향) EU 차원의 산업육성정책은 개별 산업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EU 역내에 균형적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EU 차원의 중앙 집권적 지원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가고 있음
-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R&D, 에너지, 행정 절차 개선 등임.
 - (R&D) EU의 R&D 지원 플랫폼인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 EU의 중기 정책 목표인 EUROPE 2020* 달성을 위해 IEE (Intelligent Energy Europe) 프로그램으로 총 7억 3000만 유로 지원 예정
 - *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절감, 신재생에너지 20% 사용, 에너지 효율 20% 증대 목표
 - (행정 절차) 기업설립절차 개선(최대 100 유로, 3일 이내), 조세순응비용 절감(전자납부 등), 전자정부 구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뒷받침하도록 함

□ (제조업 육성정책) 전통적인 산업의 재조명 -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 (철강)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액션 플랜(유럽의회, 2014.02)
 - SustSteel 마크(Eurofer Sustainability Mark) 도입 발표
 - ▶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건축용 철강자재 인증
 - ▶ 현재 EU 전역 도입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전통적 철강제품 원료인 철광석 및 점결탄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Scrap iron) 및 가스 사용 확대로 역외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원자재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 강화
- (자동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CARS 2020 계획(EU집행위, 2012.11)
 -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OSME(후술),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 지원
 -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탄소, 저공해 차량 개발 장려를 위한 환경규제 및 정책 지원 추진
 -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채널 구축, EU차원의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중소기업 진흥)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 추진

- EU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2014-2020년임
 - * 2007-13년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의 후속
-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총 14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액 상한을 늘려, 그동안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로의 대출확대 기대
 - * EU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이 혁신 기술, R&D 실행 기업들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COSME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특히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기업 초점
- 멘토링 및 에라스무스(Erasmus: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규 창업자, 청년 및 여성 기업가 육성 및 발전 지원
- EU의 기술·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한 마케팅, 경영기업 등 전문 컨설팅 제공

나. EU의 통상정책

□ TBT등 비관세 장벽 강화

- (개괄)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며, 신규 규제 제정보다는 기존 규제 강화에 초점
- (화학물질 관리) 대표적인 TBT로는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제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 대표적임.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이미 규정된 화학 물질의 위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 (예) 장난감 내 비스페놀 A, 바륨 성분 수치 제한 강화(2014.3월)
- (인증 및 환경 규제) CE(안전통합 인증마크), EuP(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WEEE(폐가전 처리지침) 등이 대표적인 EU인증임. 최근 전기·전자 제품, 기계,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임

□ EU의 기술규제는 현재 진행형

- 자원, 안전, 환경 등 신규 기술규제가 계속 추가되어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 중
 - － ‘15.5 유럽의회 분쟁광물 사용 금지 결의(최종 법안 마련 중)
 - － ‘18.3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사고 시 자동구조 요청) 장착 의무화
 - － ‘18.9부터 B등급이하 할로겐 전구 판매 금지 예정

□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처벌 등 수입규제 지속

- **(개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역외국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 등으로 EU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킴
- **(현황)**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기준 총 85건의 수입규제를 진행하고 있음. 이 중 13건에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36건은 계속 조사 중임
 - － 심사 개시 관련, 13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신규 심사 4건, 종료 심사 5건, 중간 심사 2건, 수출자 심사 2건)
 - － 처분 부과 관련, 2건의 신규 처분(반보조금 상계관세), 3건의 종료 심사에 대한 조치(유지), 4건의 중간 심사에 대한 조치(종료 2건, 수정 2건), 1건의 기타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의 수출자 심사에 대한 조치(수정 2건)가 이루어짐
 - － 처분 종결 관련, 1건의 신규 심사 종료(미조치), 1건의 종료 심사 종료(미조치), 2건의 중간 심사 종료(미조치), 3건의 기타 심사 종료(미조치)가 이루어짐
- **(중국산)** 중국은 여전히 최다 피심사국으로 2010년 이후 32건의 신규 심사가 개시됨. 그러나 2014년에는 1건의 신규 심사만 개시됨
- **(한국산)** EU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철강 관련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 반덤핑),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 우회덤핑), 강철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반덤핑) 등 총 3종임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 **(개괄)**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No. 608/2013)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적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EU내 세관 당국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억류 및 위조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압류 후 폐기처분하거나 벌금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속현황)** 2013년 한해 35,940,294개의 위조품이 EU 세관을 통해 적발되었으며, 건수로는 총 86,854건에 해당함
 - 적발된 물품 중 79.4%가 중국(홍콩 13.3% 포함)에서 생산된 것이며, 그 뒤로 그리스(5.8%), 터키(3.7%), UAE(2.5%)순임
 - * 가액 기준으로 중국이 80.2%를 차지(홍콩 7.7% 포함)하였으며, 터키(7.4%), 말레이시아(3.0%)가 뒤를 잇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액 기준 0.8%, 6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공구류에서 2.9%로 중국(홍콩 포함 96.4%)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 개별 협정(FTA) 체결 22건, 협상 8건이며 다자간 협정은 5건이 협상 중임
 - * 중국의 경우 투자협정은 현재 협상 중(2차)
- 세부 현황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 한국 (2010) * 2011.07 발효 ·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 · 레바논 (2002) · 멕시코 (1997) · 모로코 (1996) · 안도라 (1991) · 몬테네그로 (2010) · 요르단 (1997)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 · 세르비아 (2010) · 시리아 (1977), · 알바니아 (2009) · 알제리 (2002) · 이스라엘 (2000) · 이집트 (2004) · 터키 (1995) · 팔레스타인 (1997) · 칠레 (2002) · 튀니지 (1995) · 우크라이나 (2014) · 몰도바 (2014) · 그루지아 (2014)	· 미국(직전 협상: 2014.9월) · 캐나다(2013.10월 타결이후 추가 협상 진행 중) * 2014년 하반기 내 체결 목표 · 리비아(2011.2월; 협상 중단) · 인도(직전 협상: 2010.11월) · 말레이시아(직전 협상: 2012.4월) · 아르메니아(직전 협상: 2013.9월) · 베트남(직전 협상: 2014.9월) · 일본(직전 협상: 2014.7월)	· 벨라루스 · 러시아 · 이라크 · 아제르바이잔 · 이란 · 파키스탄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중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볼리비아 ·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 ASEAN(2012.12월 싱가포르와 FTA 타결, 나머지 국가와는 협상 중) · GCC(걸프협력회의, 2008년 이후 협상 중단) ·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직전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다자간 무역 협정		협상: 2014.3월) · ACP(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 협상: 2014.4월) · ANDEAN 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콜롬비아(2013.3월), 페루(2013.8월), 에콰도르(2014.1월)와 협상 완료 - 볼리비아와는 협상 검토 중	

* 자료원: EU 집행위

□ 對한국 수입규제(EU)

- '15년 10월 22일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모두 반덤핑이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 덤핑 판정 건임

품목명	HS 코드	유형	관세율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반덤핑	44%
철강로프 및 케이블	731210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 60.4%(조사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실리콘 메탈	280469	우회덤핑(중국)	확정관세 49%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잠정반덤핑 15.05.12~(6개월)	잠정관세 22.8%, 최종판정은 '15년 11월 발표 예상

4. 권역별 대표산업

<대표산업 선정 기준>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 (WTA, '15 9월 기준)
- . ② 해당 수출산업 중 한국의 해당국 시장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 ③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년 연속('14-'15 9월 평균치기준) 증가한 산업군

□ 서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기기	플라 스틱	항공기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영국	기계	보석, 메탈	자동차	의약품	천연 역청	전자 기계	광학기기	항공기	유기 화학	플라 스틱
프랑스	기계	항공기	자동차	전자 기계	의약품	플라 스틱	음료	화장품	광학기기	천연 역청
네덜란드	천연 역청	기계류	전자 기계	의약품	광학기기	플라 스틱	자동차	유기 화학	철, 철강	원목, 식물
벨기에	의약품	자동차	천연 역청	유기 화학	기계	플라 스틱	보석류, 메탈	철, 철강	광학기기	전자 기계
오스트리아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철, 철강	철강 제품	종이	목재	알루 미늄
스위스	보석류, 메탈	의약품	기계	시계류	유기 화학	광학기기	전자 기계	플라 스틱	철강 제품	화장품, 향수류

□ 북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종이	의약품	철, 철강	플라 스틱	목재	광학기기
덴마크	기계	의약품	전자 기계	천연 역청	광학기기	육류	어류	가구	철, 철강	플라 스틱
핀란드	기계	종이	전자 기계	철, 철강	천연 역청	자동차	목재	광학기기	플라 스틱	펄프

※ 단, 對스웨덴 의약품, 종이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30위권 밖이나(31위), 한국산의 수입은 2년 연속 평균 각각 39%, 135% 증가

□ 동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 스틱	광학의류 기기	고무	천연 역청	가구	시리얼
폴란드	기계	전자 기계	자동차	가구	플라 스틱	천연 역청	철강 제품	선박	고무	목재
체코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철강 제품	플라 스틱	천연 역청	가구	고무	철, 철강	장남감
루마니아	전자 기계	자동차	기계	천연 역청	가구	의류	고무	목재	시리얼	철강 제품
불가리아	천연 역청	구리	전자 기계	기계	의약품	의류	자동차	플라 스틱	니트 의류	시리얼

※ 단, 對불가리아 의류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30위권 밖이나(45위), 한국산의 수입은 2년 연속 평균 267% 증가

□ 남구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자동차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스페인	자동차	기계	전자 기계	천연 역청	의약품	플라 스틱	과일	아연 금속	아연 금속품	채소
그리스	천연 역청	알루 미늄	기계류	플라 스틱	의약품	식품	전자 기계	지방 기름	과일	생선류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 개괄

○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

- (수출)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 악화로 11.3% 감소한 U\$354억을 기록
- (수입)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7.7% 감소한 U\$431억을 기록
- (수지) '12년부터 4년째 적자 기록 중 ('11년 무역수지: 83억불 흑자)

<對유럽(EU) 교역추이(단위: U\$백만,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출	49,371	△11.4	48,857	△1.0	51,658	5.7	35,424	△11.3
수입	50,374	+6.2	56,230	11.6	62,394	11.0	43,142	△7.7
수지	△1,003	-	△7,373	-	△10,736	-	△7,719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15년, 유로화 약세 지속으로 對EU 수출 급감 (△11.3%, 9월 전년 동기비 기준)

- ECB 양적완화('15년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 국채매입)의 효과
- '14년 1분기 1,480원을 기록하던 유로화, 현재('15년 11월) 1,241원으로 17% 하락

○ 엔화, 위안화 동시 약세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14.1%)

- 미국 제외, 對EU 10대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한국이 4번째로 높은 감소율(EU수입시장 점유율 기준)을 기록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점유순위	국가(수출 증감율)
1	중국 (△2.8%)	6	터키 (△8.9%)
2	미국 (+0.9%)	7	일본 (△11.1%)
3	러시아 (△2.8%)	8	한국 (△14.1%)
4	스위스 (△13.6%)	9	인도 (△10.1%)
5	노르웨이 (△29.5%)	10	브라질 (△17.5%)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15년 6월 전년 동기비 기준)

○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0대 주력품목 수출이 급감

- 10대 수출품목(대기업 품목군)중 전체 수출금액의 26%를 차지하는 7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

* (부진품목) 승용차, 칼라TV, 무선전화기 등 완제품위주의 對EU 수출 상위 7대 품목군 (26%)

* (호조품목) 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 (27%)

○ '16년, 유로화 약세 기조에 따라 수출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ECB의 QE가 종료되는 '16년 9월까지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 유로화 약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 부진세 지속 예상
- * 단, EU의 내수경기 회복으로 부진 폭에 대한 상쇄요인 상존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입 국가

<한국의 對EU 10대 수출국가>

(단위: U\$백만, %)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1,658	5.7	35,424	△11.3
1	독일	7,571	△4.3	4,679	△21.3
2	영국	5,783	22.3	4,275	△4.8
3	네덜란드	5,296	△3.9	3,117	△30.2
4	슬로바키아	4,299	△2.5	2,738	△15.8
5	이탈리아	3,473	11.1	2,705	5.8
6	프랑스	2,639	△24.3	2,050	△4.4
7	폴란드	3,850	6.9	2,035	△29.3
8	스페인	2,068	23.0	1,625	9.4
9	몰타	1,014	26.9	1,588	195.2
10	벨기에	2,455	9.5	1,528	△21.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EU 10대 수입국가>

(단위: U\$백만, %)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62,394	11.0	43,142	△7.7
1	독일	21,299	10.2	15,620	△2.4
2	프랑스	6,824	13.5	4,883	△1.1
3	영국	7,447	20.2	4,407	△23.9
4	이탈리아	6,261	16.3	4,313	△9.5
5	네덜란드	4,605	9.3	3,294	2.9
6	스페인	2,888	80.8	1,795	△19.3
7	스웨덴	1,800	10.8	1,190	△12
8	벨기에	1,831	15.4	1,154	△12.3
9	오스트리아	1,344	△2.8	901	△10.1
10	핀란드	1,356	5.7	814	△19.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수출품목) '15년, 총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14년은 유럽 경제 회복과 맞물려 한국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증가
 - * 상위 10위 품목 중에서는 승용차(△2.8%)·무선전화기(△27.4%), 제트유 및 등유(△1.0%), 칼라TV(△14.1)만 수출 부진
- '15년에는 유로화약세로 10대 수출품목 중 선박, 자동차부품, 반도체를 제외한 7개 품목 (對EU 총 수출액의 26.1% 차지)이 모두 감소

(수입품목) '15년, 총 수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급감

- 한-EU FTA 체결 후 3년간('11년~'14년) 對EU 수입은 연평균 9.6% 증가
- '15년에는 내수침체 및 원자재가 하락으로 대 EU 수입은 7.7% 감소한 US\$431억을 기록
 - *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 자동차(34.2%), 반도체 제조용 장비 (15.0%) 수입이 증가

<對EU 10대 수출 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51,658	5.7	35,424	△11.3
1	선박	6,280	10.5	5,666	14.4
2	승용차	5,575	△2.8	3,718	△15.3
3	자동차부품	3,879	7.3	3,111	7.7
4	합성수지	2,108	12.0	1,436	△13.0
5	평판디스플레이	2,968	8.5	1,362	△36.5
6	집적회로반도체	1,361	18.6	1,011	8.0
7	제트유및등유	1,951	△1.0	787	△55.5
8	칼라TV	972	△14.1	663	△10.5
9	건설중장비	1,077	21.5	651	△24.5
10	무선전화기	2,017	△27.4	633	△61.5

<對EU 10대 수입 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1~9월	
			증감		증감
	총계	62,394	11.0	43,142	△7.7
1	승용차	5,977	55.8	5,737	34.2
2	의약품	2,502	14.8	1,627	△11.5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31	17.1	1,524	15.0
4	자동차부품	1,771	9.0	1,118	△16.6
5	항공기	1,568	132.8	1,067	△5.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467	△2.0	1,018	△11.0
7	원유	2,650	10.6	1,014	△56.0
8	펌프	1,432	12.7	926	△13.3
9	나프타	1,616	△43.1	851	△36.6
10	원동기	1,188	△22.6	807	△9.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숫자로 보는 한-유럽(EU) 교역추이]

<EU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증감 추이> (단위:%, U\$백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9월)
對EU수출액		55,727	49,371	48,857	51,658	35,424
對EU수출증감율		4.1	△ 11.4	△ 1.0	5.7	△ 11.3
對EU수입액		47,424	50,374	56,230	62,394	43,142
對EU수입증감율		22.5	6.2	11.6	11.0	△ 7.7
對EU무역수지		8,303	△ 1,003	△ 7,373	△ 10,736	△ 7,719
對유럽 주요국 수출 증감율(%)	독일	△ 11.2	△ 21.0	5.3	△ 4.3	△ 21.3
	영국	△ 10.5	△ 1.5	△ 3.5	22.3	△ 4.8
	네덜란드	△ 12.8	9.3	9.0	△ 3.9	△ 30.2
	그리스	11.6	41.4	△ 53.7	18.6	26.3
	이탈리아	15.1	△ 20.6	△ 4.2	11.1	5.8
	체코	47.0	4.3	△ 5.8	7.7	18.8
	폴란드	△ 6.4	△ 10.3	△ 2.1	6.9	△ 29.3
	루마니아	1.5	△ 5.3	0.2	36.1	△ 13.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5년 對유럽(EU) 수출 호·부진품목>

	수출 순위	품 목	'15 (9월) 증 감 율	對유럽 수출 비중	수출 순위	품 목	'14 증 가 율	'15 (9월) 증 가 율
부 진	2	승용차	△ 15.3%	26.1%	16	의약품	62.8%	90.0%
	4	합성수지	△ 13.0%		18	석유화학합성원료	3330.3%	45.8%
	5	평판디스플레이	△ 36.5%		20	항공기부품	33.7%	42.7%
	7	제트유및등유	△ 55.5%		21	냉연강판	20.8%	50.8%
	8	칼라TV	△ 10.5%		40	플라스틱금형	37.3%	9.1%
	9	건설중장비	△ 19.8%		41	기타정밀화학제품	1.4%	18.5%
	10	무선전화기	△ 63.8%		42	밸브	10.5%	95.9%
호 조	1	선박	4.3%	27.6%	47	카스테레오	10.3%	19.5%
	3	자동차부품	6.1%		48	계측기	57.7%	9.1%
	6	집적회로반도체	12.3%		51	기타기계류	72.7%	22.5%
10대 수출품목				53.7%	50	합금철	78.8%	37.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5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 별첨 : 對유럽(주요국) 수출 호·부진 품목

<영국>					<독일>				
	수출 순위	품 목	증감률	對영국 수출비중		수출 순위	품 목	증감률	對독일 수출비중
부 진	7	건설중장비	△19.6	7.4	부 진	1	승용차	△28.9	50.9%
	8	무선전화기	△59.4			2	집적회로반도체	△21	
	9	석유화학합성원료	△17.4			3	자동차부품	△5.9	
호 조	1	승용차	1.4	63.2%		4	선박	△33.9	
	2	선박	49.7			5	축전지	△24.5	
	3	집적회로반도체	43.2			6	합성수지	△12.3	
	4	항공기부품	118.2			7	금속절삭기계	△21.6	
	5	자동차부품	6.4			8	가정밀화학원료	△27.8	
	6	철구조물	4736.5			10	무선전화기	△76.8	
	10	가전및화학제품	9.3		호 조	9	항공기부품	22.6	2.1%
		10대 수출품목	70.6%			10대 수출품목	53.0%		
對영국 수출 증감률(15년9월) △4.8					對독일 수출 증감률(15년9월) △21.3				
영국 역외수입 증감률 △10.1					독일 역외수입 증감률 △15.6				
한국의 영국 수입시장 점유율 0.7('13)→0.9('14)→1.1('15),21위					한국의 독일 수입시장 점유율 0.9('13)→0.9('14)→0.8('15),28위				

<슬로바키아>					<프랑스>					
	수출 순위	품 목	증 감 률	對 슬로바키아 수출비중		수출 순위	품 목	증 감 률	對 프랑스 수출비중	
부 진	2	평판디스플레이	△ 35.3	39.4%	부 진	2	승용차	△ 37.6	21.1%	
	4	원 동 기	△ 21.9			6	무선전 화 기	△ 74.9		
	6	컴 퓨 터 부 품	△ 18.1			7	항공기 부 품	△ 5		
	7	냉 방 기	△ 10.8			8	편 직 물	△ 38.9		
	8	광학기기부품	△ 40.8		호 조	1	선 박	299.4	42.3%	
	9	펌 프	△ 13			3	축 전 지	49.9		
	10	플라스틱금형	△ 4.6			4	합성수지	17.7		
호 조	1	자동차부품	1.7	38.9%		5	자동차부품	2.2		
	3	칼라TV	12.9			9	어육	49.6		
	5	가정밀화학제품	41.2			10	의약품	165.6		
		10대 수출품목	77.9%			10대 수출품목	63.4%			
對슬로바키아 수출 증감률(15년9월) △ 15.8					對 프랑스 수출 증감률(15년9월) △ 4.4					
슬로바키아 역외수입 증감률 △ 14.6					프랑스 역외수입 증감률 △ 17.7					
한국의 슬로바키아 수입시장 점유율 6.4('13)→5.6('14)→5.5('15),7위					한국의 프랑스 수입시장 점유율 0.8('13)→0.6('14)→0.6('15),31위					

<네덜란드>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네덜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제트유및등유	△46.5	46.3%
	2	경유	△14.5	
	5	합성수지	△23.1	
	6	건설중장비	△20	
	9	윤활유	△79.7	
호 조	3	승용차	12.4	12.7%
	4	기타정밀화학원료	24.8	
	7	반도체소재부품	62.3	
	8	공기조절기	4.5	
	10	합금철	31.6	
10대 수출품목				59.0%
對 네덜란드 수출 증감률(15년9월) △30.2				
네덜란드 역외수입 증감률 △16.2				
한국의 네덜란드 수입시장 점유율 0.6('13)→0.8('14)→0.7('15),29위				

<이탈리아>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이탈리 아수출 비중
부 진	2	승용차	△28.6	26.3%
	3	합성수지	△17.5	
	8	타이어	△25.4	
	10	무선전화기	△70.1	
호 조	1	선박	502.3	35.7%
	4	냉연강판	89.9	
	5	열연강판	86.2	
	6	금속절삭기	35.9	
	7	자동차부품	8.5	
	9	아연도강판	47.6	
10대 수출품목				52.0%
對 이탈리아 수출 증감률(15년9월) 5.8				
이탈리아 역외수입 증감률 △14.8				
한국의 이탈리아 수입시장 점유율 0.7('13)→0.6('14)→0.8('15),26위				

<스페인>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스페인 수출비중
부 진	3	합성수지	△2.4	14.7%
	5	무선전화기	△57.6	
	6	타이어	△16.8	
호 조	1	자동차부품	68.9	51.3%
	2	승용차	34.6	
	4	석유화학합성원료	188	
	7	카스테레오	435.8	
	8	원동기	7	
	9	아연도강판	96.3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6.0%
對 스페인 수출 증감률(15년9월) 9.4				
스페인 역외수입 증감률 △14.8				
한국의 스페인 수입시장 점유율 0.7('13)→0.6('14)→0.8('15),27위				

<벨기에>

	수출 순위	품목	증감률	對 벨기에 수출비중
부 진	1	건설중장비	△30.0	44.8%
	3	합성수지	△31.4	
	5	윤활유	△25.4	
	7	기타정밀화학원료	△30.6	
	8	선박	△68.7	
호 조	10	기타석유화학제품	△49.3	23.4%
	2	승용차	0.2	
	4	아연도강판	2.1	
	6	냉연강판	56.9	
조	9	자동차부품	3.9	
	10	폴리에스터직물	2.2	
10대 수출품목				68.2%
對 벨기에 수출 증감률(15년9월) △21.2				
벨기에 역외수입 증감률 △19.4				
한국의 벨기에 수입시장 점유율 0.6('13)→0.7('14)→0.6('15),26위				

<폴란드>

	수출 순위	품 목	증감률	對 폴란드 수출비중
부 진	1	평판디스플레이	△45.0	50.7%
	2	칼라TV	△41.6	
	4	합성수지	△8.7	
	6	아연도강판	△41.7	
	7	냉장고	△9.8	
	8	광학기기부품	△50.8	
	9	펌프	△0.6	
	10	무선전화기	△25.2	
호 조	3	자동차부품	18.9	10.7%
	5	승용차	1.8	
		10대 수출품목		61.4%
對 폴란드 수출 증감률(15년9월) △29.3				
폴란드 역외수입 증감률△14.6				
한국의 폴란드 수입시장 점유율 1.5('13)→1.5('14)→1.4('15),16위				

<몰타>

	수출 순위	품 목	증감률	對 몰타 수출비중
부 진	5	인쇄 회 로	△ 14.4	0.9%
	6	승용차	△42.8	
	7	집적회로반도체	△88.8	
	8	기타산업기계	△24.7	
	9	개별소자반도체	△7.2	
	10	인쇄 용지	△29.6	
호 조	1	선 박	215.4	98.4%
	2	경 유	0	
	3	가타플라스틱제품	11.2	
	4	반 도 체 부 품	167.8	
		10대 수출 품 목		99.3%
對 몰 타 수출 증감률(15년9월) 195.2				
몰타 역외수입 증감률 4.4				
한국의 몰타 수입시장 점유율 2.0('13)→1.2('14)→0.8('15),22위				

III 시장 분석

- 높은 역내교역비중(62%)과 유로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국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시장에 비해 저조
- 그러나 한국산 기술력 및 인지도 제고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약, 의료기기 4대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증가세 시현 중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분야에 집중 요망

1. 수출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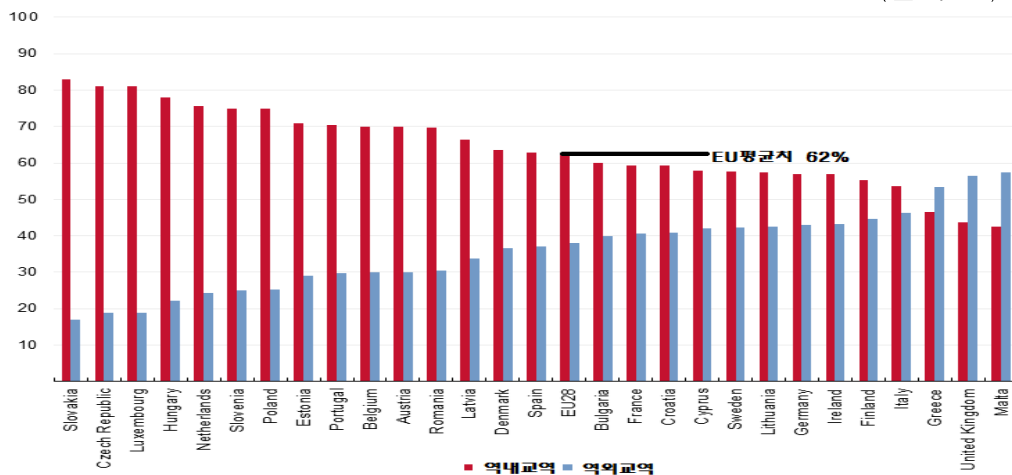
○ 권역별 특화산업이 차별화되어 있어 EU의 역내 교역비중은 무려 62%

- 서유럽 및 동유럽 간 분업체제 구축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delivery, A/S등 가능

* EU 역내교역 : 57.7%(2011), 56.3%(2012), 57.2%(2013), 62%(2014)

<유럽주요국 역내/역외 교역 비중>

(단위 %)



* 자료원 : '14년 Eurostat 통계치 기준

□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완제품 위주로 높은 역내 교역비중

-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집중
- 동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은 평균 70%대

* 최고 슬로바키아 84%, 체코 81% 順, 그리스·영국은 역외 교역비중이 높음

<역내교역 비중이 높은 상위 5대 품목>



* 자료원 : '14년 Eurostat 통계치 기준

<예시: 슬로바키아 역내교역 사례>

순위	상위 수출대상국	상위 수출품목	상위 수입대상국	상위 수입품목
1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부품
2	체코	TV	체코	전화기
3	폴란드	자동차부품	오스트리아	식유, 역청유
4	프랑스	전화기	폴란드	자동차
5	오스트리아	화학제품	헝가리	식유가스, 기타가스
6	헝가리	화물자동차	러시아	TV용, 전자제품용부품
7	영국	타이어	한국	의약
8	이탈리아	절연전선	프랑스	액정 디바이스
9	스페인	컴퓨터류	이탈리아	컴퓨터류
10	미국	평판압연	중국	절연전선

주) 유럽역내국 대상으로 완제품 위주의 수출, 수입은 완제품용 부품소재가 다수

* 자료원 : '15년 6월 World Trade Atlas 통계치 기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역내 교역 등)으로 한국은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 한국, 주요 교역대상국 대비 EU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저조

— 특히 서/북유럽 중심으로 1% 미만, 동유럽은 1%대, 단, 한국의 선박 수출 물량이 많은 덴마크는 3%대

* EU수입시장점유: 24% (폴란드:1.4%, 체코:1.8%, 독일:0.8%, 스웨덴:0.5%, 이탈리아:0.8%, 덴마크: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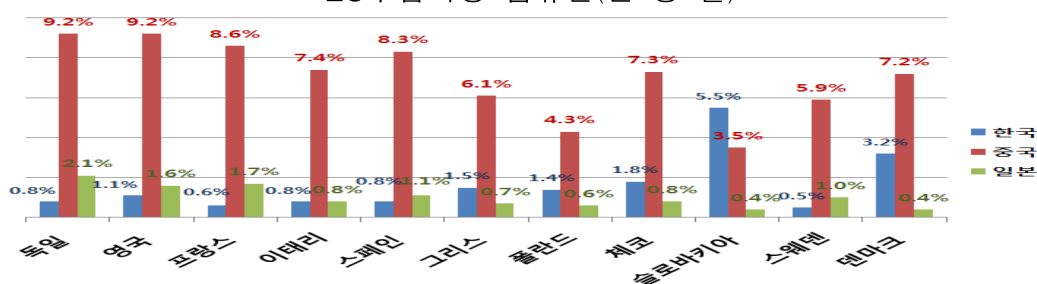
**현지국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서의 수입시장 점유율>

2015년	EU	미국	중국
한국의 시장점유율	2.4% (8위)	3.3% (6위)	11%(1위)
한국의 수출비중	16% (3위)	24% (2위)	46% (1위)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2015년 6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통계치 기준 (2015년 9월 누계기준)

<EU수입시장 점유율(한·중·일)>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2015년 6월 기준)

<지난 4년간 EU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6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15.8	1	15.9	1	16.8	1	19.3	1
미국	11.7	2	11.6	2	12.0	2	14.3	2
러시아	11.2	3	11.5	3	10.8	3	7.5	3
스위스	5.3	4	5.5	4	5.8	4	5.9	4
노르웨이	4.7	5	4.4	5	4.4	5	3.6	5
터키	2.7	7	3.0	7	3.3	7	3.5	6
일본	3.8	6	3.4	6	3.3	6	3.5	7
한국	2.2	8	2.1	10	2.4	8	2.4	8
인도	2.1	10	2.3	8	2.4	9	2.4	9
브라질	2.1	9	1.8	12	1.8	11	1.8	10
대만	1.3	18	1.3	19	1.4	17	1.5	14

* 자료원: WTA, 2015년 6월 최신통계

<EU의 對한국 상위 20대 수입품목의 수입 규모 및 점유율*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규모 순위	HS코드 (4단위)	코드품목	2013		2014		2015. 6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율
1	8703	자동차	2884.9	12.5	2938.5	10.9	2408.5	10.4	-18.0
2	8901	선박	1817.6	7.8	3215.1	11.9	1797.7	7.7	-44.1
3	8708	자동차부품	1180.2	5.1	1337.5	5.0	1411.0	6.1	5.5
4	8542	전자집적회로	911.3	3.9	929.7	3.5	1003.6	4.3	8.0
5	8905	특수선박	16.1	0.1	0	0	765.9	3.3	0
6	8517	무선전화기	1335.0	5.8	1514.0	5.6	708.4	3.1	-53.2
7	8529	송수신기기	1052.6	4.5	966.4	3.6	698.6	3.0	-27.7
8	9013	액정디스플레이	1003.8	4.3	768.5	2.9	566.6	2.4	-26.3
9	2710	경유, 등유	574.4	2.5	1072.0	4.0	557.2	2.4	-48.0
10	7210	철강	433.9	1.9	458.4	1.7	363.5	1.6	-20.7
11	8507	축전지	199.7	0.9	309.7	1.2	336.1	1.5	8.5
12	4011	타이어	358.2	1.6	443.1	1.6	335.9	1.5	-24.2
13	8429	탐핑용기계	227.3	1.0	308.8	1.1	321.5	1.4	4.1
14	8471	컴퓨터	350.6	1.5	361.5	1.3	281.3	1.2	-22.2
15	3907	폴리에틸렌	294.2	1.3	400.9	1.5	270.0	1.2	-32.7
16	8409	항공기엔진	207.6	0.9	246.9	0.9	244.4	1.1	-1.0
17	8548	일차전지	98.9	0.4	126.2	0.5	238.7	1.0	89.2
18	3002	면역혈청	4.9	0.02	64.3	0.2	201.9	0.9	213.8
19	8512	조명기구	159.8	0.7	204.1	0.8	200.7	0.9	-1.7
20	3903	스티렌	181.2	0.8	216.5	0.8	198.9	0.9	-8.1

* 자료원 : WTA, 2015년 6월 최신통계

* 주 : '15년 수입액 순위기준 상위 10대 품목, 점유율은 각 품목별 전체 수입액 중 한국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對유럽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과 품목

○ 엔화 및 위안화 약세에 따른 경합국 대비 높은 수출 감소율 기록

- 경합국(일,중) 대비 對유럽 수출 감소율이 높으나, 품목마다 상이한 양상
- 한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

<유럽(EU)수입시장 내 일본, 중국, 한국의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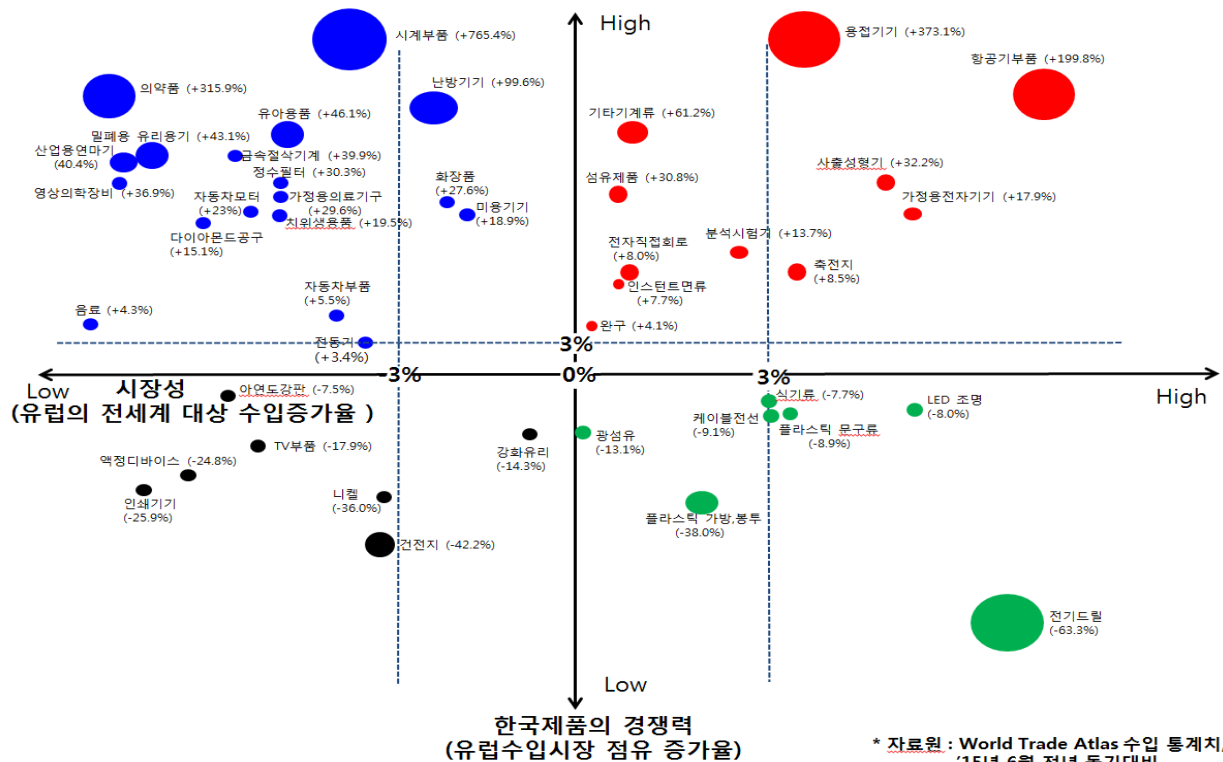
-일·중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분야-

품목	한국	일본	중국	EU 평균	HS코드
기계류	4위 (6.6%) △23%	3위(7.2%) △5%	1위 (30%) △6.5%	△13%	8431
전기전자	4위 (11%) +7.7%	8위(6%) △27%	5위(10%) △13.1%	+0.5%	8542
자동차	4위(14%) △18.8%	1위(22%) +24.5%	13위(0.4%) △47.1%	+4.7%	8703
자동차부품	4위(14%) +7.0%	2위(15%) △8.4%	1위(16%) +0.7%	△1.5%	8708
의료기기	7위(2.2%) +5.3%	6위(2.9%) △58.0%	2위(8%) △3.5%	△9.1%	9018
의약	13위(0.3%) +316%	6위(1.8%) △11%	9위(1.1%) △8.3%	△15%	3004
플라스틱	8위(2.6%) △12.7%	4위(3.4%) +0.5%	1위(49%) △3.3%	△3.6%	3926
對EU수출감소	△14%	△11%	△2.8%		

* 자료원 : EU수입시장 점유순위(점유비율), 2015년 6월 전년대비 감소율

□ 한국의 對유럽 수출유망품목(주도 및 유망품목)

대분류	세부품목	HS 코드	EU 역외 수입 증감율	한국산 수입 증감율	EU 수입상 한국 점유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8708	-4.1	5.5	4
	자동차 모터	8704	-6.5	23.0	10
항공	항공기 부품	8803	24.2	200.0	4
의료	의약품	3004	-14.9	315.9	13
·	영상의학기	9018	-12.0	36.9	13
의학	가정용 의료기	3006	-6.0	29.6	9
소비재	음료	2202	-15.6	4.3	4
	완구	9503	0.3	4.1	16
	가정용 전기기	8509	7.7	17.9	3
	마용기기	9027	-2.3	18.9	8
	섬유제품	6307	0.7	30.8	8
	반도체	7013	-9.0	43.1	8
	유아용 용품	6209	-6.0	46.1	35
	화장품	3304	-2.4	27.6	9
	인스턴트 면류	1902	0.8	7.7	5
	시계부품				
대분류	세부품목	HS 코드	EU 역외 수입 증감율	한국산 수입 증감율	EU 수입상 한국 점유율
기계류	용접기기	8515	4.9	373.1	5
	기타기계류	8479	1.0	61.2	6
	금속절삭기계	8461	-6.8	39.9	7
	산업용연이기	6804	-9.9	40.4	7
	사출성형기	8480	6.7	32.2	2
	다발본드공구	8207	-6.9	15.1	4
기타	난방기기	8403	-2.9	99.6	9
	축전기	8507	4.6	8.5	3
	전동기	8501	-3.5	3.4	9
	전자직접회로	8542	1.0	8.0	4
	정수필터기	8419	-5.9	30.3	8
	시계부품	9111	-4.3	765.4	8



품목군	내역
● 주도품목	· EU시장성 및 한국제품의 경쟁력 부문 모두 상위권
● 유망품목	· EU 역외 수입은 감소했으나, 한국제품의 경쟁력 부문 상위권 기록
● 가능성품목	· EU시장성은 좋으나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열위(EU의 한국산수입 감소)를 기록
● 한계품목	· EU 시장성 및 한국제품의 경쟁력 부문 모두 하위권

* 자료원 : 유럽지역본부 분석치 (WTA 6월 전년 동기 대비 통계치 기준)

※ 별첨 : 한국의 유럽 주요국별 전체 M/S(수입시장 기준)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 상 수 입 증 감 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 감 율 (%)
	2014	2015(~6월)			
독 일	622,824 (5,617)	525,863 (4,098)	-15.6%	29위(0.8) 1위(9.2) 2위(8.5) 4위(6.2) 6위(4.6) 8위(4.1) 13위(2.5) 15위(2.1) 24위(0.8)	한국(-27.0) 중국(-4.2) 네덜란드(-20.7) 미국(-3.4) 폴란드(-7.9) 체코(-14.1) 헝가리(-12.9) 일본(-14.3) 대만(-5.9)
프 랑 스	346,167 (2,136)	283,880 (1,588)	-18.0%	33위(0.6) 1위(17.4) 2위(8.6) 3위(7.4) 5위(7.2) 10위(1.8) 11위(1.7) 37위(0.5)	한국(-25.6) 독일(-17.2) 중국(-9.2) 벨기에(-24.0) 미국(-6.6) 폴란드(-12.9) 일본(-12.3) 대만(-10.5)
영 국	524,403 (4,921)	471,643 (4,972)	-10.1%	21위(1.1) 1위(15.1) 2위(9.8) 3위(9.3) 15위(1.6) 24위(0.8)	한국(+1.0) 독일(-6.7) 중국(-1.0) 미국(-2.1) 일본(-2.1) 대만(-8.5)
네 덜 란 드	303,611 (2,518)	254,172 (1,800)	-16.3%	29위(0.7) 1위(14.3) 2위(13.7) 3위(8.1) 4위(7.7) 9위(2.3) 24위(0.8)	한국(-28.5) 독일(-16.4) 중국(-4.8) 벨기에(-18.2) 미국(+5.8) 일본(-6.7) 대만(-23.0)
벨 기 에	235,045 (1,511)	189,465 (1,121)	-19.4%	26위(0.6) 1위(16.8) 2위(12.5) 4위(8.6) 7위(4.3) 10위(2.2) 17위(1.1) 42위(0.3)	한국(-25.8) 네덜란드(-33.3) 독일(-23.5) 미국(-2.4) 중국(-8.0) 일본(+5.2) 폴란드(-20.7) 대만(-17.4)
스 위 스	207,935 (540)	187,510 (496)	-9.8%	40위(0.3) 1위(20.7) 2위(11.5) 3위(8.6) 4위(7.8) 6위(5.0) 7위(3.1) 14위(1.5) 33위(0.4)	한국(-8.2) 독일(-14.8) 영국(-9.9) 미국(+3.6) 이탈리아(-15.0) 중국(-5.3) 오스트리아(-22.8) 일본(-7.7) 대만(+1.2)
오 스 트 리 아	89,276 (557)	72,950 (386)	-18.3%	22위(0.5) 1위(36.1) 2위(6.2) 3위(5.7) 4위(5.1) 5위(4.7) 6위(4.0) 15위(1.4) 26위(0.4)	한국(-30.6) 독일(-19.2) 이탈리아(-18.7) 중국(-8.8) 스위스(-18.2) 미국(-2.4) 체코(-21.3) 일본(-13.1) 대만(-12.3)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당국의 전 세계 대상 수입 증감율 (%)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 순위(%)	주요국으로부터의 증감율(%)
	2014	2015(~6월)			
폴 란 드	112,643 (1,660)	95,866 (1,314)	-14.9%	16위(1.4) 1위(27.5) 2위(7.5) 3위(7.1) 4위(5.7) 5위(5.3) 15위(1.7) 14위(1.9) 25위(0.6) 29위(0.5)	한국(-20.8) 독일(-11.3) 러시아(-42.2) 중국(+4.3) 네덜란드(-13.4) 이탈리아(-15.4) 헝가리(-19.7) 미국(+0.9) 일본(-14.6) 대만(-12.1)
체 코	77,767 (1,073)	68,388 (1,224)	-12.1%	13위(1.8) 1위(30.1) 2위(8.6) 3위(7.3) 4위(6.5) 7위(3.9) 15위(1.6) 16위(1.0) 21위(0.8)	한국(+14.1) 독일(-11.3) 폴란드(-7.8) 중국(+13.0) 슬로바키아(-12.5) 이탈리아(-12.9) 미국(-21.4) 루마니아(+1.2) 일본(-16.4)
헝 가 리	53,374 (554)	46,170 (687)	-13.5%	16위(1.5) 1위(25.8) 2위(6.8) 3위(6.5) 4위(5.4) 6위(4.7) 8위(4.5) 13위(1.9) 17위(1.4) 26위(0.6)	한국(+23.9) 독일(-11.3) 중국(-3.6) 오스트리아(-20.2) 폴란드(-9.0) 체코(-11.2) 이탈리아(-15.1) 미국(-6.0) 일본(-2.5) 대만(-12.2)
루 마 니 아	38,944 (290)	33,828 (266)	-13.1%	22위(0.8) 1위(19.5) 2위(11.1) 3위(7.9) 4위(6.0) 5위(4.7) 6위(4.4) 18위(1.2) 29위(0.5) 34위(0.3)	한국(-8.18) 독일(-10.2) 이탈리아(-13.2) 헝가리(-12.7) 프랑스(-14.8) 폴란드(-7.1) 중국(-2.4) 미국(+1.) 일본(+2.8) 대만(-7.9)
불 가 리 아	17,035 (54)	14,516 (45)	-14.8%	32위(0.3) 1위(13.0) 2위(12.3) 3위(7.4) 4위(7.0) 5위(5.9) 8위(3.8) 22위(0.9) 36위(0.3) 28위(0.5)	한국(-16.6) 독일(-6.3) 러시아(-26.0) 이탈리아(-16.5) 루마니아(-18.7) 터키(-16.7) 중국(-3.1) 미국(-35.9) 일본(-32.7) 대만(+45.4)
스 웨 덴	83,681 (490)	68,411 (375)	-18.3%	28위(0.6) 1위(17.9) 2위(8.0) 3위(7.7) 4위(7.6) 5위(5.9) 13위(2.8) 19위(1.1) 27위(0.6)	한국(-23.3) 독일(-15.5) 노르웨이(-16.2) 네덜란드(-15.1) 덴마크(-15.8) 중국(-3.6) 미국(-9.6) 일본(-20.0) 대만(-15.9)

국 가	수입액 / 단위: 백만 불 *괄호 안 금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해 당 국 의 전 세 계 대 상 수 입 증 감 율 (%)	해 당 국 수 입 시 장 점 유 순 위 (%)	주 요 국 으 로 부 터 의 증 감 율 (%)
	2014	2015(~6월)			
덴 마 크	50,943 (1,809)	43,134 (1,373)	-15.3%	9위(3.2) 1위(20.1) 2위(12.0) 3위(7.9) 4위(7.2) 5위(6.7) 6위(4.3) 8위(3.4) 12위(2.5) 28위(0.5) 31위(0.4)	한국(+23.9) 독일(-16.4) 스웨덴(-15.8) 네덜란드(-10.7) 중국(-3.7) 노르웨이(-24.1) 영국(-19.7) 폴란드(-14.4) 미국(-26.1) 대만(-14.8) 일본(-3.7)
핀 란 드	39,661 (115)	29,715 (122)	-25.1%	28위(0.4) 1위(16.6) 2위(15.8) 3위(9.4) 4위(7.9) 6위(3.7) 11위(2.5) 12위(2.3) 13위(2.2) 16위(1.4) 25위(0.5) 26위(0.5)	한국(+5.9) 독일(-15.8) 스웨덴(-24.0) 러시아(-50.0) 네덜란드(-19.2) 중국(-10.3) 이탈리아(-20.6) 폴란드(-22.8) 미국(-21.8) 체코(-12.5) 일본(-19.3) 대만(-16.5)
이 탈 리 아	245,927 (1,562)	209,597 (1,760)	-14.8%	26위(0.8) 1위(15.4) 2위(8.6) 3위(7.4) 5위(5.0) 7위(4.0) 12위(2.3) 14위(1.6) 25위(0.8) 36위(0.6)	한국(+12.7) 독일(-15.0) 프랑스(-14.3) 중국(-4.1) 스페인(-10.6) 미국(-2.2) 폴란드(-4.9) 루마니아(-10.4) 일본(-5.6) 덴마크(-11.1)
스 페 인	176,030 (1,073)	150,063 (1,242)	-14.8%	27위(0.8) 1위(13.0) 2위(11.2) 3위(8.3) 4위(6.1) 5위(4.9) 12위(1.7) 17위(1.4) 21위(1.1) 42위(0.4)	한국(+15.8) 독일(-8.8) 프랑스(-15.3) 중국(+1.3) 이탈리아(-11.4) 미국(+1.5) 폴란드(+5.0) 체코(-1.9) 일본(-4.2) 대만(-4.5)
그 리 스	32,487 (1,764)	24,837 (380)	-23.6%	16위(1.5) 1위(11.1) 2위(8.6) 3위(7.5) 4위(6.6) 5위(6.2) 8위(3.8) 18위(1.4) 30위(0.7) 44위(0.3)	한국(-78.4) 독일(-12.9) 이탈리아(-14.6) 러시아(-49.7) 이라크(-30.4) 중국(-8.3) 스페인(-7.1) 미국(-8.3) 일본(+45.2) 대만(-3.3)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15년 6월 전년 동기대비 기준)

2. 투자진출

□ 한국의 법인 진출 증가세

- 유럽 경제위기 영향으로 한국의 對EU 직접투자는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기록中
- 한국의 對EU 직접투자규모 추이
(신규법인수) 111건('11년)→ 91건('12년)→ 102건('13년)→ 119건('14년)
(신고건수) 342건('11년)→ 317건('12년)→ 327건('13년)→ 328건('14년)

□ 동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법인 설립 활발

- 우리나라의 최근 4개년 對EU 직접 투자는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전체 대비 차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전체 EU직접투자에서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금액기준) '11년 94%에서 '14년 82%로 하락 → 동유럽 비중이 점차 증가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현지법인 설립이 동유럽해외진출 증가의 주요 요인

<한국의 對EU 직접 투자규모(지역별)> (단위: U\$백만, %)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EU	111	3,739	91	3,681	102	3,734	119	3,027
동유럽	31	183	11	491	28	163	32	374
서·북유럽	71	3,490	68	2,810	64	2,358	77	2,482
남유럽	9	66	12	380	10	190	10	171

* 자료원: 수출입은행, 신규법인 설립건수, 투자송금금액

□ 한국, M&A형 투자진출 증가세이나 경쟁국 대비 저조

- 중국·일본의 유럽 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현지화 진출 활발
- 中, 대유럽 M&A건수 7배, 금액 40배 증가 ('02년:11건,\$26억→'12년:78건,\$105억)
- 日, 유럽기업 M&A를 통한 생산기지 노력 강화

중국의 대유럽 M&A 동향

· 포르투갈 정부 추진 민영화프로젝트의 45% 중국기업이 투자(전력, 보험 등)
· 타깃국가별 업종 차별화: 독일(친환경·기계 등 제조기술), 남유럽(민영화 프로젝트)

대유럽 투자(M&A포함) 한·중·일 동향 비교

	대 EU 투자금액('10,누계)	EU FDI 시장점유율('14)	'10년 대비 '14 증감율(%)
한국	185억 유로 ('10: 131억 유로)	0.5%	+41%
중국	268억 유로 ('10: 61억 유로)	0.7%	+339%
일본	1,615억 유로 ('10: 1,334억 유로)	4.0%	+44%

*:자료원: EUROSTAT

3. 공공프로젝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시아·중동 중심
 - 해외 수주액은 '14년 기준 660억 달러로 '04년 대비 8.8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지역이 71.6%를 차지하며, 유럽지역의 경우 1% 수준으로 매우 미미
 - * 해외 수주액(US\$) : ('04) 75억 → ('11) 591억 → ('12) 649억 → ('14) 660억
-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사례 창출
 - * 포스코건설, 폴란드 생활폐기물처리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2.5억 달러('12)
 - * KT,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 프로젝트 수주, 1.2억 달러('13)

<동유럽 국가별 우리 기업 관심 분야>

국가	우리기업 주요 관심 분야
폴란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소각발전소 건설 등
헝가리	축구경기장 건설, 병원건설, ITS, 지하철 개보수 등
체코	공항철도건설, 공항 안면인식시스템 구축, ITS 프로젝트 등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수처리 등
불가리아	철도현대화 프로젝트,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system 설비 프로젝트 등
크로아티아	전력·에너지, 전자교육시스템, 광통신망 구축 등 IT 프로젝트

□ 2016년, EU기금(2014-2020)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개시 본격화

- 2014-20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 총 3,518억 유로임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루마니아(6.5%), 체코(6.2%), 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순
 - '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추진 개시

☞ EU의 프로젝트 기금

- EU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14-2020 기간 중 총 3,518억 유로 규모 기금 배정 (농촌 해양기금 1,013억 유로 제외)
- * 전체 EU기금 중 76%가 공공프로젝트 관련 기금
- 2015년 말까지 2007-2013 EU기금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며, 2014-2020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본격 개시

<EU 회원국별 기금 배정현황(2014-2020년)>

(단위: 백만 유로)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결속 기금(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ESF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 저밀집 지역	지역간 협력	유럽사회 기금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 등								2,161.0
총계								351,854.2

* 자료원 : EU집행위

□ 경쟁국 기업의 수주 성공사례 (크로아티아 Plomin C/화력발전소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주 플로민灣 지역의 플로민 화력발전소 단지에 청정 석탄 활용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 현재 운영 중인 플로민 1 및 플로민 2 발전소 중 플로민 1을 폐쇄하고 플로민 C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
- 동 발전소에는 초임계 분쇄석탄 기술(supercritical pulverized coal technology)을 적용, 45%의 효율도 달성(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효율도는 32-37% 수준)
- 규모 : 800 백만 유로
- 발주방식 : BOT

○ 수주 유망 기업 : 일본 마루베니 컨소시엄(최종 입찰 1위)

- 우리나라의 D社 컨소시엄 2위, 최종 입찰자 선정은 미정

○ 입찰 진행과정

- 2012년 9월 PQ마감 : 한국컨소시엄(N발전, D건설, M사 등), 일본 컨소시엄(마루베니, EDISON, POL-MOT) 입찰서 제출
- 2013년 4월 : PQ를 통과한 3개회사에 최종 입찰서 제출요청 (기한 : 2013년 10월)
- * 2013년 7월 : 한국컨소시엄을 주도한 A발전 입찰 참가 취소
- 2014년 9월 : 마루베니 컨소시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2015년 2월 : 발주처, 마루베니 컨소시엄과 배타적 협상 계약서 체결
- 2015년 4분기 : 최종 입찰자 선정 예정

○ 성공 요인

- 동 프로젝트는 전력청장의 국내 방한, PQ 입찰 단계 시 한국 컨소시엄의 평가 우위 등으로 인해 수주가 매우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기업들은 동 프로젝트의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ing Agreement*)방식 때문에 국내 파이낸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컨소시엄 리딩 기업의 사업 포기로 이어짐

* 동 프로젝트 전력구매 협정 방식: 50% 발주처(전력청) 구매, 50% 운영사의 시장 판매

- 배타적 협상 계약서를 체결한 마루베니 컨소시엄은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 전력구매협정 변경을 발주처에 강하게 요청, 현재 75% 발주처 구매, 25% DG Energy* 구매 방식(EU기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 DG Energy : 유럽집행위 산하의 에너지 정책기관

- 우리 기업의 중도 사업 철수 계기는 PPA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공기업의 부채축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반면 마루베니 컨소시엄은 발주처와의 협상에 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 이 때문에 발주처의 최종 입찰 계약이 지연되고 있음

□ 2016년 유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Pulawy 발전소 CCGT 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 / Pulawy
발주처 명	Grupa Azoty Zaklady Azotowe Pulawy S.A
프로젝트 단계	세부 계획 수립
발주규모/방식	265 백만 유로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11,250억 PLN(약 3억 달러) 규모로 동 프로젝트를 위한 SPV 설립 - 저탄소 생산을 위한 400 MWe 규모의 CCGT power block 건설 프로젝트 - 신규 건설 block은 기존의 석탄발전소와 연계 - Azoty 그룹의 화학공장과 현대식 발전시설을 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 루벨스키에주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동안 폴란드 전력청 PGE에서 추진해 왔으나 Azoty 그룹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재추진
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단계로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 입찰 예정
특기사항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이며 한국 E&C업체들이 참여해볼만한 프로젝트 Azoty그룹은 폴란드 30대 대기업으로 2991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기준 수익이 28억 달러 규모(폴란드 재무부가 최대 주주)

프로젝트명	바르샤바 AFC(Automatic Fare Collection) 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 / 바르샤바市
발주처 명	ZTM Warszawa (바르샤바市 대중교통청)
프로젝트 단계	Technical Dialogue
발주규모/방식	5천만 달러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동 사업은 바르샤바 전체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망을 Open pay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 교통요금 징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임 - 시스템 보안, 신규 교통카드 및 결제 기능 등 고려 중 - 현장위치 : 폴란드 바르샤바(수도) 전지역 - EU기금 투입 여부에 따라 2016년 초에 발주 예상
프로젝트 일정	2016년 중 입찰 진행 전망
특기사항	동 사업은 가격보다는 기술적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프로젝트명	토룬市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프로젝트
국가/지역	폴란드 / 토룬
발주처 명	MZD 토룬(토룬市 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14년 전체적인 컨셉 수립 완료
발주규모/방식	26 백만 달러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VMS, CCTV,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 2014년 전체적인 컨셉 수립 완료 - 2015년 중 EU의 금융지원 신청 중이며 승인 시 2016년 중 입찰 예정 - 사업기간은 3년 예상
프로젝트일정	2016년 중 입찰 진행
특기사항	한국 ITS 사절단의 폴란드 방문 시 미팅을 한 바 있으며, '15년 6월 방한하여 관련 국내기업과 면담 진행

프로젝트명	크라쿠프市 외곽 도로 건설
국가/지역	폴란드 / 크라쿠프市
발주처 명	KHK(크라쿠프 개발공사)
프로젝트 단계	프로젝트 계획
발주규모/방식	6억 6천만 달러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두 개의 순환도로 건설 예정 ① Zwierzyńska and Pychowicka Route - Estimated value of the projects: USD 662 655 481 - Construction of fast road, two carriageways, 3 lanes each, 4.2 km long . 2.5 km tunnel / 2 km long fast road, two carriageways, 3 lanes each . 0.5 km long bridge over Vistula river / 0.4 km long bridge over channel ② Łagiewnicka route - Estimated value of the project: USD 334,439,162 - Construction of : 3.7 km long fast road, two 3 lane carriageways . 4 tunnels / Fast road, two 3 lane carriageways, 3.7 km long . 4 tunnels of the length (0.4 km, 0.6 km, 0.7 km and 0.25 km) . Tram track line / 1.7 km tram track . Tram tunnel 0.7 km long
프로젝트일정	프로젝트 계획 단계
특기사항	'15년 6월 방한하여 관련 국내기업과 면담, PPP 프로젝트 추진 가능

프로젝트명	태양광 발전 모듈(PV) 조달 입찰
국가/지역	헝가리 / Baracska City, Hungary
발주처 명	KLNSYS Kft
프로젝트 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5백만 달러 / 수의계약
프로젝트 세부내역	- 1차 시범 프로젝트로 350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헝가리 Baracska市の 제과업체에 설치할 계획 - 동 프로젝트는 약 60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연간 175,000kw의 전력을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1차분 소요비용은 약 270천 달러로 예상
프로젝트 일정	- 2015.11월말 낙찰업체 선정 - 2016. 1월말 기술제안서 접수 - 2016년 2분기 설치 시작
특기사항	- 헝가리는 EU의 공동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EU펀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의 납품기회가 될 수 있음

프로젝트명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건설
국가/지역	헝가리 / 부다페스트시 인근 지역(부다페스트에서 20km 거리)
발주처 명	F사(민간기업)
프로젝트 단계	1차적으로 2015.10월중 우선협의 대상기업 선정 예정
발주규모/방식	15백만 유로 / 수의계약(가격 + 품질)
프로젝트 세부내역	F사가 수집하는 연간 7,000톤의 폐기물 PET을 원재료로 토목 섬유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환경 프로젝트
프로젝트 일정	입찰예정일: 2015년 4/4분기 예상
특기사항	재원조달방식: EU기금(45%) + 발주처(30%) + 낙찰자(20%, 플랜트 설비투자 형태)

프로젝트명	프라하 도심공항철도
국가/지역	체코 / 프라하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 조사 및 공식승인 절차 완료
발주규모/방식	15억 달러 / 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타당성 조사 실시에 따라 최적의 철도구간 선정 작업 중
프로젝트일정	프라하공항철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부처 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여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식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되며 향후 2년 정도 소요되고 기술 솔루션 선정 절차(1-2년) 진행 예정
특기사항	PPP방식 또는 EU기금 활용 여부는 2018년까지 용도허가(zoning permit)를 확보한 이후에 결정될 예정

프로젝트명	가스 파이프라인망 건설
국가/지역	체코 /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접경지역
발주처 명	EU Stream
프로젝트 단계	2012년 Feasibility Study는 이미 완료 되었으나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사회에서 정식 투자결정이 안된 상황으로
발주규모/방식	150백만 유로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North-South노선의 일부로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잇는 총 길이 약 100km(슬로바키아구간만)를 다소 상회하는 구간. 아직 정확한 지정 구간은 미정이지만 현재 Kosice(SK)-Pustyny(Pol.)구간과 Velke Kapusany(SK)-Strachocina(Pol.) 구간이 유력 대상 루트로 검토되고 있음
프로젝트일정	2015년 초 시장추이를 보고 EU측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2016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늦어도 향후 2-3년 내에는 시 운전 예상
특기사항	동 프로젝트는 Net4Gas사에서 추진하는 모라비아 가스관 구축사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상호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됨

프로젝트명	가스 파이프라인망 건설
국가/지역	체코 /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접경지역
발주처 명	NET4GAS
프로젝트 단계	현재 디자인 및 기초설계, 본 입찰 서류 작업들을 하가 위한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입찰이 발주된 상태며 2016년 9월말 최종 입찰서류 제출예정임.
발주규모/방식	300백만 유로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폴 국경에서 체-오 국경 사이 체코 구간으로 총 길이 약 150km, 가스관 직경(DN; Nominal Diameter) 1000mm
프로젝트 일정	본 입찰의 실질적인 발주 시기는 2016년 9월 말경 서류 작업이 완료되어 4/4분기에 공식 입찰이 발주가 될 예정임
특기사항	Net4Gas는 체코 유일의 가스 TSO(transit system operator)로 체코 공공 조달법(PPA; Public Procurement Act)이 규정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자(sector supplier)임.

프로젝트명	국가 고속 광통신 기간망 및 Access망 구축
국가/지역	체코 / 전 지역
발주처 명	산업부
프로젝트 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5억 유로 / 공개입찰(EU기금 50-60% + 민간투자 40-50%-DBO 모델)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 내 고속 광통신 기간망이 폭넓게 미치지 않은 지역에 신규로 광통신망 및 Access망을 구축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광케이블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망의 현대화 및 expansion포함)
프로젝트 일정	본 입찰의 실질적인 발주 시기는 2016년 9월 말경 서류 작업이 완료되어 4/4분기에 공식 입찰이 발주가 될 예정임
특기사항	체코정부는 일부 대형 로칼 통신사들이 전체 프로젝트를 독식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참여를 권장하는 입장

프로젝트명	프라하시 통합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 구축 프로젝트
국가/지역	체코 / 프라하
발주처 명	프라하 교통공사(DPP)
프로젝트 단계	기존의 OPEN CARD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단계 수준
발주규모/방식	미정(타당성 조사제안(50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 세부내역	프라하 시내 현재 개별화 되어 있는 대중교통, 경찰 Security System, 신호체계, Parking System, Waste Collection System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 검토
프로젝트 일정	발주시기 2016년 말 예상

프로젝트명	교통부 고속도로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국가/지역	체코 / 전 지역
발주처 명	교통부
프로젝트 단계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중
발주규모/방식	발주규모 미정/ 발주방식(미정)
프로젝트 세부내역	체코 내 현재 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이 전혀 없어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
프로젝트 일정	사업계획 내각 승인 후 내년 초 입찰서를 발주, 9월경에는 최종 입자 선정 완료 예정
특기사항	체코 정부는 한국의 고속철, 일반철도, 지하철 및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부분은 적극 도입해 보겠다는 입장

프로젝트명	Sibiu-Avrig-Fagarasi-Codlea-Brasov 고속도로 건설
국가/지역	루마니아 / Sibiu-Brasov주
발주처 명	루마니아 도로공사
프로젝트 단계	EU 집행위에 기금 지원요청 예정
발주규모/방식	EUR 816.44 백만 /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총길이 : 120 km - Sibiu (Mohu Vest)- Fararas, 63.4km, EUR 413.62백만 - Fagaras- Brasov (Ghimbav), 56.6 km, EUR 402.82백만 . Sibi (Mohu Vest)-Talmaciu Nord 6.6km . Talmaciu Nord-Bradul Vest 3.8km . Bradul Vest - Persani 76.6 km . Persani-Vladeni Vest 5.5 km . Vladeni Vest- Brasov (Ghimbav) 27.5 km
프로젝트 일정	- 2015년 4분기 : EU 집행위 승인요청 - 2017년 1분기 : 입찰 - 2020년 : 준공
특기사항	유럽을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 계획

프로젝트명	부쿠레슈티서부 및 Grozavesti 온수 보일러 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지역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
발주처 명	Electrocentrale Bucuresti SA
프로젝트 단계	-타당성조사 진행 중, EU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승인
발주규모/방식	EUR 10 백만/ 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Provide the thermal power needed by the Centralized Thermal Power Supplier System (SACET) of Bucharest Municipality under safe circumstances, continuity of supply and compliance with the environmen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o cover the maximum thermal power needed in wintertime. Other feasibility indicators: a) CAF no. 1 - CTE West IRR (internal rate of return): 14.66% RT (recovery time): 9.31years. b)CAF no. 4 - CTE Grozavesti
프로젝트 일정	- 2015.4분기-2016.1분기 : 입찰공고 - 2016 하반기 : 프로젝트 시행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 계획

프로젝트명	Raja Constanta 상·하수 인프라 구축
국가/지역	루마니아 / Constanta, Ialomita, Calarasi, Ilfov, Dambovita, Brasov
발주처 명	Raja Constanta
프로젝트 단계	On February 2th 2015 has been signed the contract with consortium Romair Consulting- Lois Berger for “Technical Assistance for preparation of the Financing Application and Awarding Document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water and wast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operating area of SC RAJA SA CONSTANTA, for 2014-2020 period”
발주규모/방식	USD 325 백만 / 국제입찰
프로젝트 개요	2020년까지 6개 주의 상·하수 설비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상·하수 공급 및 수질 개선
프로젝트 일정	- 2015.8월 : 타당성 조사(F/S) - 2015.12월 : 소요 예산을 위한 금융지원 신청 - 2016년 : 입찰공고 - 2020년 : 준공
특기사항	사회간접자본 개발 OP사업으로 수행예산 조달 계획

프로젝트명	소피아 市 RDF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 / 소피아
발주처명	소피아 난방공사(Toplofikacia Sofia JSC)
프로젝트 단계	계획
발주규모/방식	1억 3,500만 유로 / 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소피아 시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약 41만 톤의 폐기물을 MBT 처리하여 연간 18만 톤의 RDF 생산(발열량 12.0-14.0 MJ/kg) - 폐기물 처리 절차 - Yana village(폐기물 처리장 및 MBT 전처리 설비) - Dolni Bogrov Village(퇴비 및 생화학 가스 에너지 생산 설비) - Toplofikacia Sofia(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 RDF에서 생성된 폐기물 연로는 소피아 Toplofikacia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 될 예정
프로젝트 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Technology selection, site selection and principal design of the plant - 1단계는 이미 KIDSF(Kozloduy International Decommissioning Support Fund) 기금 EUR 1.5백만을 활용하여 마무리 됨 - 초안 설계(Draft Design)는 마무리 된 상황 • 2 단계 : Engineering & Construction of the RDF plant - 2016 상반기 엔지니어링 및 건설 입찰 발표 예정 - 엔지니어링 및 건설 입찰과 함께 발표될 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는 EU 환경 지침 중 쓰레기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 설비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 도시고형폐기물(MSW) 규모가 가장 많은 소피아市の RDF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며 엔지니어링과 건설 입찰이 하나의 Tender로 발표될 가능성이 큼

프로젝트명	플로브디프-부르가스 구간 철도개보수 및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국가/지역	불가리아 / 플로브디프
발주처명	NRIC(National Railway Infrastructure Company)
프로젝트 단계	세부계획
발주규모/방식	3억 662만 달러 / 국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 프로젝트 구축 세부내역 - Construction of fiber optic cable along the line Plovdiv - Burgas - Elimination of level crossings and construction of overpasses / underpasses railway station Plovdiv-Burgas - Construction of signaling systems on the railway line Plovdiv-Burgas(ETCS level 1 version 2.3.0d) - Rehabilitation of the railway section Plovdiv-Orizovo - Modernization of railway station Orizovo-Mihaylovo - Modernization of railway station Yambol-Zimnitsa in Zavoy stations - Reconstruction of the rail signaling line development in station Zimnica - Rehabilitation of the contact network stations Zimnica-Tserkovski incl. Straldzha station - Rehabilitation of the railway section Straldzha-Tserkovski - Repair of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in the station complex Karnobat - Construction of protected forest belts the stations Chernograd-Ajtos - Implementation of interlinking systems in the area Karnobat-Burgas
프로젝트 일정	[구축계획] • 1단계 : 타당성 조사 - 1단계 타당성 조사 및 초안 설계는 Trakia Consult Consortium이 선정됨 • 2 단계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입찰 예정 - 발주처는 플로브디프-부르가스 구간 철도개보수 및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발표할 예정
특기사항	- 불가리아 정부의 플로브디프-부르가스 구간의 철도시설 개보수 및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은 한국의 경부선 핵심구간 철도 개보수 및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임 - 불가리아 정부는 2014-2020년 기간 OP(Operation Program) “Transport”에 할당된 EU기금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 LNG 가스터미널 구축 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 크르크섬
발주처명	LNG Croatia(크로아티아 가스공사)
프로젝트 단계	투자의향서 제출(2015년 12월 15일 기한)
발주규모/방식	405-630 백만 유로 / 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 프로젝트 목적 ○ 천연가스의 안전한 공급 및 유동성 확보 ○ 기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독립적 운영, 에너지 수출국가로의 변화 필요 (자국 생산 천연가스의 판매 다변화, 운영 효율화 창출) ○ LNG 터미널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제반 산업 육성 ○ 중·남부 유럽국가,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공급기지로서 크로아티아의 역할 기대 2. 범위(내용): EPC + Operation ○ Terminal configuration: Onshore tanks and vaporizers ○ Planned capacity: 4-6 bcm/year ○ Tank capacity: (full containment): 2 x 180,000 m3 ○ Size of LNG supply ships: 75,000-265,000 m3 ○ Regasification technology: SPV 3. 진행상황 ○ 2012년: LNG 프로젝트 발표 ○ 2013년: 사업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 ○ 2014년 8월: EU-Funded 프로젝트로 EU본부에 신청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서유럽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프로젝트로 부상 ○ 2014년 10월: EU Funded Project 및 Juncker's List에 포함 ○ 2014년 12월: EU본부에서 사업모델 컨설팅을 위해 4.9백만 유로 배정(Grant) ○ 2014년 12월: 입찰준비 컨설팅 회사 선정 입찰(5개회사 입찰 참여) - E&Y, A.T Kearney 등이 참여하였고 E&Y에서 수주 ○ 2015년 1월 - 6월: 주변국으로부터 가스공급 및 사용관련 의향서 접수(Open Season for capacity booking and allocation) ○ 2015년 7월: 가스 수입 및 사용관련 계약
프로젝트 일정	○ 2015년 12월 15일 한: 투자의향서 제출 ○ 2016년 상반기(예정): 사업자 선정 PQ ○ 2016년 하반기(예정): 사업자 선정 및 EPC 계약 체결 ○ 2020년 완공(예정)

프로젝트명	크로아티아 e-School Program 프로젝트
국가/지역	크로아티아
발주처명	CARNet INSTITUTION
프로젝트 단계	프로젝트 컨설팅업체 선정 입찰 중
발주규모/방식	총 2단계 180백만 유로/공개입찰
프로젝트 세부내역	1. 프로젝트 목적 ○ 디지털 전자 교육 시스템 마련을 통한 교육 선진화 ○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통한 저 개발 지역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 e-School Program 기반하의 교육자 양성 ○ e-교육 콘텐츠 시장 활성화 2. 범위(내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eSchools 플랫폼 기반 하에 초고속 통신망 및 장비 설치가 동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 - eSchools 기본 플랫폼 구성: 1)e -Class Book 2) Schools 2.0 3) Nikola Tesla and Classroom of the future - eSchools 플랫폼은 현재 상기 3개 분야에 대한 기본 플랫폼 이 완성되었으며, 네트워크 장비 및 기타 전자교육 자재와의 호환성을 감안 최종 플랫폼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임 1) e - Class Book - e-Clas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재 및 학교 행정 서류 일체에 대한 전자문서화 - e-Class 열람권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 동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교사들의 수업 교재 등재 및 학적관리 △학생들의 성적 조회 및 과제 열람 △학부모의 자녀 학적관리 조회 가 가능할 전망 * 현재 크로아티아 전체 학교의 30% 동 어플리케이션 활용 2) School 2.0 - 2013년 6월 크로아티아 정부의 ‘교육연구 정책’ 3대 핵심 과제 선정 - 크로아티아 아카데미연구 네트워크(Croatia Academic and Research network,CARNet)와 25개 학교와의 광통신망 구축을 통한 전자 교육 실시 - 도서지역 등 저 개발 지역 학교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교육 상향평준화 시도 - 2013년 9월 사업 개시 후 현재까지 도서지역을 포함 총 27개 초등학교 사업 운영 3) Nikola Tesla and Classroom of the future - 동 사업 전용 포털사이트(https://tesla.carnet.hr/)를 통한 수학, 과학, 생물학 등의 교육 실시 - 전자 수업을 위한 멀티미디어 시설 구축 ○ 발주처인 CARNet(크로아티아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크로아티아 연구/학술 기관, 초중등학교, 교육부, 보건부 네트워크 운영)은 전자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 통신네트워크 설치,

	ICT 기반의 교육 자재 구매를 계획하고 있음 -도심과 부도심간의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구축 -학교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원거리 통신 및 무선인터넷 망 확장 -태블릿 등 개인용 IT기기 및 전자스크린 장비 구매 -클라우드 기반의 e-Servic, e-Content 개발 3. 진행상황 - 2013년 : e-School 플랫폼 계획 발표 - 2014년 : 기본 플랫폼 완성 및 일부 시범 사업 실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IT 교육 부자재 구매를 위한 정부 조달 방안 마련 - 2015년 : 시범사업 전략 및 입찰 방안 마련 * 시범사업 대상 학교 150개 중 20개 학교에 tablet/laptop(약 800대) 전자철판(30대) 제공 사업 입찰 완료(현재 5개 컨소시엄 입찰 참여, 평가 진행 중, 9월 계약 예정) - 2015년 7월: 20개 학교 대상 e-School 시범사업(교육 및 기술 솔루션) 추진 완료 - 2015년 11월: 150개 학교 대상 시범 사업 입찰 발표 예정
프로젝트 일정	현재: 150개 학교 대상 시범사업 입찰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정 입찰 중

IV

시장진출전략

-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시장에 집중
- 유로화 약세 장기화 대비 현지진출 강화 (M&A등)
- 시장초기 진출 시 유럽 현지 Sales Representative 활용
- 공공프로젝트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가 관건으로 KOTRA 무역관의 네트워크 활용

1. 진출전략 개관

<유럽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한-EU FTA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 국내산 기술력/인지도 제고 (수출유망품목) ○ ICT 기술, 건설 노하우로 프로젝트 진출 경쟁력	<Opportunities> ○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경기 회복세 강화 ○ (자동차부품) 원가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 (의료) 고령화, 생활개선으로 의료 수요 다변화 ○ (소비재) 내수회복으로 소비시장 활성화 ○ (프로젝트)동유럽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Weaknesses> ○ 유로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 ○ M&A진출, 현지화 취약 ○ 바이어의 소량오더, 빠른 딜리버리, AS 취약 ○ 유럽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노하우 부족	<Threats> ○ 엔低, 위안화低, 유로화低 ○ 경쟁국(중국, 일본)의 현지진출 강화 ○ 유럽 내 난민유입, 그리스 디폴트 위기 등 유럽 내 사회·정치·경제적 불안요소 상존
<시사점> ○ 유럽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환율 리스크 대비, 유럽시장에 대한 현지화 및 M&A형 진출 강화 ○ 진출 경험이 취약할 경우, 유럽 내 전문 sales representative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 동유럽 주요 무역관에서 보유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유럽 프로젝트 시장 공략	

'16년도 유럽시장의 사업여건

<기회요인>

- 유럽의 경기 회복 강화 * 0.2%('13년)→1.4%('14년)→1.9%('15년)→2.0%('16년)
- 동유럽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원가 절감을 위한 역외산 소싱 증가 추세

<리스크요인>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 및 난민·테러위협으로 유럽경기의 불확실성 잔존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화 기반 확대

우리기업의 강점

- IT기반 융합상품 수출경쟁력 향상
 - 전자용 의료기기, 텔레메딕스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수요 증가
- FTA 선점 효과
 - 低유로에 불구, 한국산 소비재,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우리기업의 약점

- 브랜드파워·핵심 기술력 취약
 - 한국 프리미엄 효과 미흡
 - 고품질, 혁신디자인으로 고도화 필요
 - 취약한 현지진출 기반
 -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EU FDI시장점유율 0.5%)
- * 투자증가율('10-'12) : 한국(41%), 중국(339%), 일본(44%)



시사점

강점 강화

틈새, 성장 거점시장 공략

- ICT융합, 친환경차량, 에너지절감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권역별 유망품목 위주로 소비시장 타게팅
- EU기금 활용 대형 프로젝트 진출 (ICT, 에너지 프로젝트)

약점 보완

역내 교역국 특성 공략

- 현지 사무소 설치, 전문 Sales Rep. 활용 등 현지 거점 확보
- M&A를 통한 현지화 강화

2. 세부 진출전략

2-1 유럽은 '선택과 집중' 의 시장으로 수출유망 품목 위주로 시장 공략

□ (IT융합·에너지절감)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IT융합 제품 등 신성장 시장에 주목

<주요 정책>

- 독일, 산업4.0 (Industrie4.0)정책('12~'25) : 독일의 전통 제조 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생산기술력 및 효율성 제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독일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
- 프랑스, French Tech정책('15~): ICT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2억 유로 투자펀드 조성, 해외 ICT분야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1,500만 유로 지원 자금 조성
- 영국, 저탄소/녹색성장정책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으로 목표(법제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 장비 구입 시 무이자 대출 지원 등
- 덴마크, '2012 Energy Agreement' : 2020년까지 전력에너지의 50%를 풍력으로 조달 목표('14년, 풍력 발전비중/총 전력에너지 39.1%)
- 독일, E-Mobility법 발효('15.9.26) : 전기자동차세 면제, 버스전용차선 이용권, 고속도로 충전시설 확충, 무료/할인 주차 혜택, R&D투자 확대 등

☞ 진출 유망국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북·서유럽권

- 'IT융합기술'과 '친환경/에너지절감'은 유럽의 핵심 신성장 시장
 - 차량 IT 융합기술, E-헬스 중심의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 RFID등 스마트기기
 - LED, 리튬이온 배터리, 풍력기자재, 친환경선박기자재 등
- VW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본격화
 - VW, '16년 전년대비 10억 유로의 투자비용 감소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가속화 발표
 - * '16년 투자비용(총 120억 유로)을 차세대 차량기술개발에 집중 배정 ('15.11.20 발표치)
 - 2차 전지, 텔레매틱스, 경량화 소재 등 차세대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성공사례 :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제조 S사(독일수출)>

- 플라스틱 몰딩전문제조사로 독일 T사에 조향장치부품인 풀리(Pulley)를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 초도제품 공급에 성공
- 동사는 국내 및 북미시장에 이미 납품실적을 확보하고 있던 기업으로 2006년부터 유럽시장진출을 위해 노력
- 2013년부터 T사와의 총 1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초도제품을 납품하면서 현재 제품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

☞ 성공요인 : ①완성차의 경량화 전략을 미리 예측, R&D 집중 ② 신속한 바이어 공략
 ③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있어서도 신속 정확히 대응하여 까다로운 유럽 바이어의 신뢰 확보
 ④ 현지 적시 대응,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독일 현지사무소 설립

□ (소비재) 아이디어 생활용품 + 유럽 맞춤형 상품 제작으로 승부

<시장 여건>

- '16년, 경제회복 강화로 유럽(EU)내 소비시장 활성화 *'15년 대비 2.0%('16년)e 민간소비 증가
- 온라인 유통시장, 연간 10%~20% 내외 고성장. '15년 시장규모로는 영국(618억 유로), 독일(520억 유로), 프랑스(429억 유로 순)/ '15년 대비 '16년 성장률 기준으로 폴란드(23%)와 독일(22%), 스페인(19%)이 선두 *E-Commerce News
- 유럽 내 최대 온라인 쇼핑국 : 스웨덴(70%), 영국(66%), 프랑스(52%), 독일/폴란드(51%), 네덜란드(49%)순 *E-Commerce News(총 인구의 온라인 쇼핑인구 비율 기준)
- 한국의 전반적인 대유럽 수출부진에 불구, 소비재 수출은 증가세(+32.8%)
 - * 한국무역협회 통계치 (2015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MTI소비재 품목코드 3단위 기준)

☞ 진출 유망국 : 유럽 전역 / 단, 타깃 권역별 품목 차별화 필요

- 유럽 공통 : 화장품, 문구류, 식품류, 주방용품, 플라스틱 안경테 등
- 북유럽 : 친환경 완구 (고소득 시장) / 폴란드, 헝가리의 한국산 수입은 오히려 감소
- 동유럽 : 혈압측정기 등 가정용 의료기구 (가격경쟁력) / 스웨덴, 덴마크의 한국산 수입은 오히려 감소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

-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적용, 에너지 절감/친환경
 - * '15년 주요유통망 히트상품으로 보는 유럽의 4대 소비키워드: 웰니스, 친환경, 아이디어제품, 실용성
 - * AEG미니믹서기, Running Watch, 무필터 진공청소기, 전기자전거, 드라이샴푸(물이 필요 없는 스프레이형)

○ 분야별 인증, 다국어 라벨링 등 사전준비 철저

-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출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 사전 충족 (CE, Tüv, ROHS 등)

○ 현지 전문 에이전트(sales representative) 활용

- 현지 취향에 맞는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유통망과의 네트워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 ⇒ 예 : 독일세일즈랩협회(CDH)

○ 주요 품목별 유럽 유망전시회 활용

- 유럽의 소비재분야 국제전시회에 주기적 참가 ⇒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평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성공사례 : 이동접이식 빨래건조대 A사(독일, 이탈리아 홈쇼핑기업 QVC에 납품)>

- 독일 홈쇼핑 QVC에서 "오늘의 스페셜 상품"으로 선정, 총 1만7천개 전량 매진, 방송 1일로 13억 원의 매출 달성 성공, 독일QVC 추천 하에 이탈리아QVC에도 입점

☞ 성공요인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럽형 상품화 전략'

- ① 현지 에이전트 활용, 상품명/색상/인증. 포장 등 사전에 유럽식 맞춤형 재생산
- ② 유럽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상 사용(한국에서 인기 있는 파스텔톤 지양)
- ③ 제품에 대한 A/S 품질 보증기간을 최소 2년으로 설정(사후관리 중요)
- ④ CE, Tüv 등 인증을 미리 준비, QA과정에서 탈락되는 것을 예방

※ 별첨 : 2016년 소비재 분야 유럽 주요 전시회

【2016년 유럽 주요 소비재 전시회】

□ 가정생활용품(인테리어제품, 선물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등 종합)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Ambiente 2016	2016.2.13.~16	독일 프랑크푸르트	· 유럽 최대 준계 소비재 박람회 전 세계 유통기업 다수 참관 · 참가업체/참관자수(2015): 95개국 4,814개사/ 134,620명 참관
Spring Fair	2016.2.7.~11	영국 런던	· 70개국 3,000개사 참가(2015) · 생활잡화 종합전시회

□ 안경테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IDO 밀라노광학안경	2016.2.27.~29	이탈리아 밀라노	· 전 세계 주요 안경업체 참가 · 전시품의 다양성으로 시장동향 파악 용이
SILMO 파리국제광학안경	2016.9.25.~28	프랑스 파리	· 세계 최대 안경박람회 · 세계 유수 광학업체 참가, 제품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장 · 참가업체/참관자수(2014): 100개국 950개사/ 14,652명 참관

□ 화장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COSMOPROF 볼로냐세계화장품	2016.3.18.~21	이탈리아 볼로냐	· 세계 최대 화장품박람회 · 2300여개 브랜드 참가, 한국기업은 130여개사 참가(2015) · 향수, 악세사리, 화장품, 머리용품, 마사지, 기계 등

□ 홈/인테리어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Maison&Objet 파리생활인테리어	2016.1.22.~26	프랑스 파리	· 세계 최대 홈데코 전시회 · 3,194사 브랜드 참가, 129,430명 참관(2014)
Stockholm Furniture Fair 스톡홀름 가구	2016.2.9.~13	스웨덴 스톡홀름	· 북유럽 최대 인테리어, 가구 박람회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업체 다수 참관

□ 유아/어린이 용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Kind+Jugend 쾰른 유망/아동용품	2016.9.10.~13	독일 쾰른	· 유럽 최대 유아용품 전시회 · 친환경 소재 아기용품, 완구, 임부복 등 · 참가업체/참관자수(2014): 44개국 1,050개사/ 21,200명 참관

□ 식품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Vitafood's Europe 제네바 기능성식품	2016.5.10.~12	스위스 제네바	· 유럽 최대 건강/기능성 식품 전시회 · 노화방지·건강보조식품, 스포츠영양제 등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 사이트	특징
독 일	Wer liefert was	www.wlw.de	.독일의 대표적인 무료 수입상 검색 사이트 .총 53만개의 기업정보 제공 (제조·유통기업) .매월 160만명, 연간 2400만명이 사용
	Hoppenstedt	www.firmendatenbank.de	.독일의 대표적인 유료 기업검색 DB .30만개의 기업 정보 제공 .이용료 : 약 2300~4,600 유로
	Europages	www.europages.de	.700,000개의 회사 등록 됨.
영 국	Onesource	www.onesource.com	.정식사업자 등록된 업체 검색사이트
	First Report	www.firstreport.co.uk	.영국 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검색사이트
	Kompass	gb.kompass.com	.글로벌 비즈니스 DB
	Applegate	www.applegate.co.uk	.영국 온라인 B2B D/B
	Importers.com	uk.importers.com	.G20 수입상 온라인 D/B
이탈리아	Guidamonaci	www.guidamonaci.it	.수출입 업체명을 지역별로 검색 가능
	Reteimprese	www.reteimprese.it	.무료검색 가능
	Webdirectory	www.directory-italia.it	.유료 DB
네덜란드	Mint	mintportal.bvdep.com/version-2015226/portal.serv?product=mintportal	.회사 인원수 및 매출액등의 정보
	D&B	solutions.dnb.com/grs/jsp/EN-GB/GRSFrameLogon.jsp?news_country=994	.회사 인원수 및 매출액등의 정보
스웨덴	Allabolag	www.allabolag.se	.스웨덴 무료 기업디렉토리
	Eniro	www.eniro.se	.스웨덴 무료 기업디렉토리

【유럽 주요국별 수입상 검색 D/B】

국가명	D/B명	웹사이트	특징
폴란드	PanoramaFirm	panoramafirm.pl	.폴란드 최대 업체 검색 사이트
	Automatyka B2B	automatykab2b.pl/katalog-firm	.산업 자동화 관련 전문 B2B사이트, 관련 산업의 업체 검색 가능
	YellowPage	www.yp.pl	.폴란드 주요 업체 검색 사이트
벨기에	Trends Top	trendstop.knack.be	.벨기에 35만여 개의 수입·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 및 판매·구매 오퍼 현황 정보 보유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는 비회원 열람 가능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가, 총 매출액 추이, 업체 재정상태, 분야 담당자 등 기업거래 상세정보의 경우, 유료 회원만 사용 가능 (회원비는 연간 180 유로 ~ 725 유로)
덴마크	Krak	www.krak.dk	덴마크어로만 제공
	Commercial Agents	www.commercialagents-scandinavia.com/index.html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지역내 업종별 에이전트 검색 가능 산업별 에이전트 검색에 150 유로
그리스	ICAP	www.findbiz.gr	·그리스 최대 기업 D/B ·내용에 따라 무료와 유료 서비스

2-2 기술력 확보 및 현지화 강화를 위한 M&A형 진출 강화

□ 저유로 등 환율 리스크, 유럽 역내 경쟁 강화 추세 ⇒ 철저한 현지화로 승부

<시장 여건>

- 저유로 장기화 전망 * ('14년1월)1.36달러/유로→('15년 10월)1.13달러/유로→('16년 10월)1.00달러/유로
- 유럽 인바운드 M&A시장 규모('14년: 약 3,000억불 (전년대비 57% 증가, 딜 금액 기준)
- 중국·일본의 유럽 브랜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M&A형 현지화 진출 활발
 - 중국: 35건, 142억불/ 일본: 22건, 27억불 / 한국: 6건, 7억불 ('14년 유럽M&A기준, Thomson Reuters)
 - 한국의 對유럽 M&A실적은 중국의 1/20, 일본의 1/5에 불과

☞ 진출 유망국 : 서유럽, 남유럽권

- 독일 :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가공
- 영국 : 소비재, 에너지/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헬스케어/바이오
- 프랑스 : 자동차부품, 화장품
- 스위스 : 자동차부품, 통신/미디어 기술
- 이탈리아 : 패션, 제약, 자동차부품 / 그리스 :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 게르만권 중심으로 히든챔피언 매물과 세대교체(Succession) 매물 다대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기술력은 있으나 부채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파산한 기업
- 가족기업인 히든 챔피언 중 세대교체(자녀에게 기업승계) 실패로 M&A매물 발생
- * 독일 히든챔피언 중 3분의2가 3세대에서 4세대로의 경영이전에 실패(Deutsche Bank)

○ (매물 발굴) 현지 부띠끄 등 Sell-Side 네트워크 확보

- 중소 부띠끄, M&A 자문사 및 유관기관* 등 매물 입수가 가능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
- * 산업협회, 현지 무역투자진흥기관 등, KOTRA 글로벌M&A지원단에 문의 요망

○ (PMI) '인수 후 통합과정'을 위해 현지 로펌, 컨설팅업체와의 초기단계부터 협업 중요

- 현지 M&A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
- 특히, 현지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한국식 경영방식 고수로 M&A실패 사례 발생)
- * 중국기업의 M&A성공요인, 유럽기업 인수 후 경영진을 현지인으로 유지 전략

<성공사례 : 에코-알루미늄 N사(독일, 자동차부품 B사 지분 80% 인수)>

- 포르쉐, 벤틀리에 납품하는 독일 알루미늄합금휠 제조기업 B사 인수
- B사, 기술력은 있으나 과도한 투자로(공장 증설 등) 파산 직전 상태
- 인수로 독일 현지 생산기반 및 고객기반 확보(Porsche등),
- N사의 에코 알루미늄 소재를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공정기술파트너 확보

☞ 성공요인

① KOTRA M&A센터를 통한 적합 매물 발굴, 전문 인력을 통한 독일 자동차부품 시장 분석, 인수가격 검토 등 신속, 전문적인 사전 실사 ② 독일 B사, 한국 N사의 경량금속 신소재기술력이 B사 휠 품질향상에 기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상호 윈-윈)

2-3 북유럽의 해상풍력발전·그린선박 시장 공략

□ 유럽의 환경규제를 기회로 확대되는 해상풍력발전 · 그린선박 시장의 기회를 포착

<시장 여건>

- ‘Europe 2020’ 목표(EU평균치) : 2020년까지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 의무 ('14.6월~)
 - 온실가스배출, '90년 대비 20% 감축
 - 전체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
 -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20% 개선
-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 북유럽권,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건설에 대대적 투자
 - 네덜란드 : '15년 220MW발전용량에서 향후 5년간 총 3,500MW 확대 계획 (연간 700MW)
 - 덴마크 : '20년까지 총 1,500MW급 신규 해상풍력발전단지 6곳 구축 예정
 - * 400MW급 HornRev발전단지, 600MW급 Kriegers Flak단지, 400MW급 연안프로젝트 등
- 친환경 조선기자재(선박평형수처리장치, 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 등)에 대한 수요 증가세
 - * 국제해사기구(IMO),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부터 10%, 2025년부터는 30% 감축하도록 의무화함.

☞ 진출 유망국 : 북유럽권 (덴마크, 네덜란드)

- 덴마크 : 해상풍력발전 터빈의 80%가 덴마크에서 생산, 또는 덴마크산 파운데이션 · 부품을 탑재
세계 1,2위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 (Dong Energy, Vattenfall)가 포진
Maersk, Tom, DFDS 등 총 40개의 해운업체가 밀집, 선박 및 조선기자재 수요 풍부
- 네덜란드 : 1,4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중 (Borselee, 2015~2016), 추가로 3개소 건설 계획(2017~2019), Van Oord, ECOFYS등 세계 유수 해상풍력발전단지 설계/엔지니어링 회사 포진, 터빈 생산은 경쟁력은 취약

○ (해상풍력) 비용절감을 위한 역외산 아웃소싱 증가세

- 해상풍력발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설치 확산을 위한 비용절감'
- 납품경력(reference) 확보가 관건으로, 초기에는 ① 소형 개발업체가 추진하는 테스트 프로젝트에 공급업체로 참가 ②납품실적으로 기반으로 Dong Energy, Vattenfall등 대형 개발업체를 타게팅
- 현지 전시회 활용, 시장정보 및 네트워크 확대 (Offshore Energy/'16.10.25~26, 암스테르담)

○ (조선기자재) AS용 및 그린조선기자재 수요 증가세

- 해운업계, 원가절감을 위해 중간상 없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직거래 수요 증가세 (덴마크 Ultraship등),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 국내외 전시회 활용 (Kormarine, SMM, Norshipping), 해운사와의 네트워크 확대

<성공사례 : 해저케이블 D사(덴마크, Vestas에 납품 성공/1,500만 불)>

- 유럽 유력 NKT, ABB사를 제치고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용 해저케이블 납품 성공
- 해저케이블은 유럽 업체들이 과점 ⇒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유럽 과점시장 진출 성공

☞ 성공요인

① 유럽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② 현지 대응체제 (KOTRA 물류/지사화서비스)
Vestas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유럽업체들의 대안으로, 첨단 생산설비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D사를 선정함. 브랜드인지도가 없어서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유럽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유럽 조선산업 Supply Chain】

	오일메이저, 해운사, 선주	조선소	모듈 (부품)	특 징	마케팅 (전시회)
북구 *스톡홀름 핀란드	Statoil(O&G, 노) Neste Oil (O&G, 핀) Stena Group(스) AP Moller-Maersk(노)	Aker Yards(노) 크베너(노) Meyer Turku(핀)	Arker Solution(노) Wartsila (핀) Cargotec(핀)	특수선 중심 건조 해양플랜트 설계, 공정관리	ONS Norshipping (노) Subcontracting Fair
덴마크	Evergas (O&G) AP Moller-maersk Ultraship Nordic Tankers		MAN Diesel Alfa Laval Desmi	외국투자기업 (조선소, 선박기자재 업체)	Danish Maritime Fair
독일 *함부르크	Oldendorff (O&G) Haag Lloyd Reederei	Blohm&Voss Meyer Wefft	Thyssen Krupp Kloska, R&M (Shipmanagement)	특수선과 부품 제조, 선박엔지니어링 및 수리조선 등에 특화	SMM
네덜란드	Shell, Vopak(O&G) Dockwise, Vroon(특수 운송)	IHC, Heerma(O&G) Damen(수리조선) Royal Huisman	Imtech Marine, Atlas Copco, Croon, GEA	O&G, 특수화물 및 수리조선 등	Europort Offshore Energy METS

* 자료원 : KOTRA 유럽지역 무역관 자체 조사

- 1) 선주 지정 선급(Register of Shipping) 인증 획득 필수 (선박 건조에 다국적 특수부품 사용)
- 2) 선주의 Vendor List (Maker's List) 등록

【주요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 및 소싱 희망 품목】

기업명	기업 개요
Dong Energy	· 유럽 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로서 2014년 말 누계 설치 기준 유럽 전체 시장의 24.1% 차지 · 2020년까지 설치 용량을 2012년 수준의 4배 이상(6.5 GW) 확대 추진 · 2015년 11월 현재 파이프라인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 - West of Duddon Sandswind Farm(영국, 2014) - Borkum Riffgrund1 offshore wind farm(독일, 2015) - Westernmost Rough(영국, 2015) - Gode Wind 12 (독일, 2016) · 상기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소싱코자 하는 품목 - 220kV Offshore Export Cables (AC solutions) - 220kV Onshore Export Cables (AC solutions) - 36kV Submarine Cables (Array Cables) - also 66kV solutions - Offshore and Onshore Transformers - Reactors, GIS etc. (voltage level within 220kV) - Foundations (Monopiles and Jackets >6MW WTG's)
Vattenfall	· 유럽 내 제 2위 해상풍력발전 개발업체 · 주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DanTysk (288 MW, 독일) - Sandbank (288 MW, 영국) - Kentish Flats extension (50 MW, 영국) - Horn Reef 3 (400MW, 덴마크) · 주요 소싱관심 품목 : 모노파일

2-4 유럽의 블루오션시장, 동유럽의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시장 공략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前단계와 입찰, 사업 수행의 3단계로 구분
 - 입찰 참여 기업은 각 단계별 관련 기관과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야 함
 -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의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 프로젝트 진행 단계 및 주요 내용 >

구분	관련기관	단계별 주요내용	참여자
사업 개발	제안자 - 정부 - 국제기구 - 민간기업	- 프로젝트의 개념 개발 -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자체 전력청 등 공기업
마스터 플랜	요청기관 - 발주처 - 컨설팅사 - 프로젝트 디벨로퍼 - EPC/EPCM	- 프로젝트 환경 분석 - 주요 구조설계 - 핵심 소요 장비 - 기본적인 운영체계 - 소요자금	지자체 EPCM
F/S	수행 참여기관 - 연구기관 - 마케팅 - 엔지니어링 - 금융기관	- 경제적 효용 분석 - 비즈니스 모델 도출 (수익구조, 자금계획) - 운영관련(운영주체, 운영비) - 인허가관련 절차 등	EPCM
입찰	입찰관리기관 - 시행사 선정 요소 (가격, 비가격)	- 프로젝트 입찰 자격 - 주요 스펙 충족요건 - SPC, 자금조달방법 - 운영권자(지분, 금융) - 기술이전 등 부가요구사항	발주처 EPCM
시행	입찰관리기관 시행관리기관 감리기관	- 입찰조건에 따른 시행 여부 - 시행과정상의 조건 변경 (비용구조, 비즈니스 모델) - 시행, 운영상 특기사항 협상	발주처 지자체 EPC/EPCM 감리기관 등

1) 입찰 전 단계(Pre-tendering phase)

- 사업개발→마스터플랜 구상→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의 순서로 진행
 - 사업개발은 지자체나 전력청과 같은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외부기관, 민간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도 시작됨
 -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개요를 설정한 기본 계획으로 컨설팅사, 프로젝트 개발업체, EPC 및 EPCM 기업들이 참여
 - EPC/EPCM 기업들은 마스터플랜 작성이나 타당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EPC/EPCM 기업과의 사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발주처는 타당성 분석을 마친 뒤 적합한 입찰 방식 결정 등 내부 준비과정 진행
 - 이 단계에서 발주처는 잠재 입찰 참가업체와 Technical Dialogue 혹은 Competitive Dialogue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장 및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함

< 유럽지역 Tip >

- 프로젝트 발굴의 첫 단계는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것임.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어느 지방정부는 Tender Design 경험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EU레퍼런스 조항을 넣기도 함. 입찰 공고 이후에는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차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쿠킹’ 할 필요가 있음.
- 입찰 공고 이후 견적산출, 관련 서류 준비, 현지어 번역 등 입찰서류 준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입찰 전 발주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킹 관계 유지를 통해 발주계획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입찰 전부터 관련 서류 준비 등 대비노력이 매우 필요함.
-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업들이 직접 발주처를 접촉할 경우 사전 교섭으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KOTRA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나 제 3자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현지 EPC 기업들은 과거 발주처들과의 지속적인 사업 파트너로 활동한 경험이 많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파악이 가능. 또한 입찰정보 및 세부 기술 사양이 현지어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 잠재 파트너 활용 시 매우 유용. 따라서 현지 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프로젝트 수주 성공 가능성이 높일 수 있음.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EU지역 소재여부, 유럽지역 프로젝트 레퍼런스보유, 현지어 입찰서류 작성제출 등의 진입장벽 해소 가능.

- 발주처에서 Technical Dialogue를 통해 공개적으로 관련 기업들과 미팅을 하기도 하는데 Technical Dialogue의 기회가 있을 경우 꼭 활용할 것을 권장함.
- EU기금이 투입되어 프로젝트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자금이 100%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나 발주처에서 매칭펀드를 마련해야함. 지자체에 따라 매칭펀드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PPP(민관협력)방식의 파이낸싱을 제시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입찰 단계(Tendering phase)

- 발주처는 내부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찰을 공고
 - 발주처는 입찰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또는 자격 심사 및 평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입찰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참여자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 자료를 요구
 - 관련 제출용 자료가 입찰시 요구된 언어로 작성, 구비되어야 함
-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입찰 방식(award procedure)
 - 선정 기준(award criteria)
 - 입찰 기술(a descrip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order to provide economic operator with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make an offer in order to mee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 가장 일반적 선정 기준
 - 최저 가격(lowest price) : 가격에 의해서만 평가 진행
 - * 가격이 최저라도 환경,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배제 가능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 단순 최저가격뿐만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등 효율성 중시

< Tip >

-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총액 계산 실수, 스펙내용과 사소한 불일치, 서명 누락 등의 경우에도 입찰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며, 필요시 현지 법무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발주 시, 선정기준으로 내세우는 요소는 가격, 기술, 유사 프로젝트 수행관련 공증 서류 제출 등으로 이중 가격요인은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경쟁력 있는 적정가격 제출을 위해 사전답사 등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 또한, 기술력 제시에 있어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기술 사양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기업들의 기술력은 프로젝트 발주처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종 입찰기준 이상의 높은 기술력 제시와 함께 경쟁기업대비 높은 가격을 제시, 수주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을 최우선 적용하는 대다수 프로젝트의 기술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술력 제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프로젝트별로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는 바, 국내외 공사 경력 관련 자료 제출도 심혈을 기울여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음.
- 종종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응찰기업의 Financing 방안 제시가 중요 요인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 금융기관, 제3국 또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Financing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및 준비, 제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3) 입찰 후 단계(Post-award phase)

- 계약이 기존 제안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하는 사후 단계
 - 입찰 수주도 중요하지만 수주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 및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해당 낙찰업체(또는 국가)의 EU 조달 시장 내 지속적인 사업 참여 가능성이 결정
 - 따라서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신뢰 및 좋은 평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현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혹은 하청계약을 통해 현지기업과 협력 시에는 비즈니스·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중국 Covec사로부터의 교훈 >

- 2009년 9월에 중국 컨소시엄 Covec(China Overseas Engineering)은 바르샤바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A2 고속도로의 49km 구간 건설 입찰에서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3억3천만 유로의 가격으로 건설 사업권 확보
 - Covec의 입찰 가격은 경쟁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입찰 가격보다 48%가 낮았으며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쟁업체와 비교해도 23% 낮은 가격
 - Covec의 입찰 가격이 이렇게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자금 지원은 EU 국가에서는 불법임
- 2011년 5월 A2 고속도로 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 Strykow와 konotopa 구간을 건설 중이던 Covec의 하도급업체들이 Covec으로부터 1억1천7백만 즈워티를 지급받지 못해 건설을 중단

- 비용 초과와 함께 중국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한 노동법 및 환경·동물 보호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결국 발주처인 폴란드 국가도로청(GDDKiA)은 Covec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3천만 유로와 1억 7천8백만 유로의 배상금 요구
- 동 프로젝트 실패사례는 폴란드 'EURO 2012' 개최 준비와 맞물려,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음
- 아울러 가격요소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에 대한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됨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HS Code	88033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7,946.64	대한수입액('14/US\$백만)	56.291
항공기부품	선정사유	- 현지 유력 항공기 제조기업 Airbus는 중소형항공기 및 대형항공기 등 각 모델별로 주요 경쟁사(Boeing)를 시장점유율에서 근소하게 앞섬(2014년 현재).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제품개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고 있어 신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존		
	시장동향	- 對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 199.7%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4위 - 독일 항공기 제조시장은 2014년에 321억불 매출기록, 1995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감. 특히, 2014년 총 매출액 중에서 13.3%가 R&D 활동에서 파생됨.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미국 25.1, 3위 중국 52.0, 7위 일본 62.7, - 10위권 내 수출국 중 10위 튀니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 증감률 상승세 - 2015년 9월 현재, 최소 4,300여 개 사가 Airbus에 납품 중이며, 대부분은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들임 - 독일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 신모델에 자사부품 납품 개시		
	진출방안	- Airbus는 기존 국내 소기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 소기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5.10월 소싱관련 국내포럼 개최) - 국내 KAI사의 A320 항공기 날개하부구조물 및 꼬리날개 납품사례 등, Airbus는 국내 기업과의 소싱, 파트너십, 협력 기회에 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은 물론, 현지 까다로운 인증, 규제,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품목명	HS Code	8542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9,069.38	대한수입액('14/US\$백만)	929.714
전자집적회로	선정사유	최근 관련 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품질기술력 제고에 따른 선호도 상승,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8.0%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4위 - 동 제품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RFID의 주요 부품으로, RFID는 현재 독일 내 패션, 의료, 물류, 환경, 에너지, 재난관리 등 각 산업 분야 내 사용 확산 추세이며,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전망		

	경쟁동향	- 對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대만 13.4, 3위 미국 15.9, 5위 중국 Δ12.8, - 최근 기기의 소형화, 안정화 등의 이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집적회로(854239 품목)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수요 및 뚜렷한 수출 증가세		
	진출방안	- 산업용 수요가 많은 편이나, 기본 인증(CE)을 갖춘 경우, 전문유통 바이어를 통한 시장 진입 경로 모색 필요, 특히 고품질 맞춤형 제품이 유망		
	유망국가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품목명	HS Code	1902	수입관세율(%)	CHF26.25/100kg
인스턴트면류	수입액('14/US\$백만)	251.5	對한수입액('14/US\$백만)	16.004
	선정사유	2013년부터 한국 인스턴트면류 현지 대형유통망 진출 이후 매년 수요증가 중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7.7%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5위 - 스위스는 한인교포인구가 약 15백 명 이하로 아주 작은 시장이나 한국 인스턴트면류의 주 소비자층은 매운맛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임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Δ1.8, 4위 베트남 76.3, 12위 일본 5.8 - Nissan, Mamee 등의 브랜드가 현지시장 점유 1,2위		
	진출방안	현지 대형유통망 식품벤더를 통한 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품목명	HS Code	87082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4/US\$백만)	10,900.76	對한수입액('14/US\$백만)	1,337.53
	선정사유	- VW디젤사태 등 이슈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진요인이 발견되지 않음. - 독일제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품 품질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편이며 한번 결속된 납품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음.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 '15년 비용절감계획: VW('17년까지 총€50억), 아우디(연간 €20억), BMW(연간 5€억)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5.5%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4위 - 독일 내 자동차부품 유통규모는 '08년 145.3억불에서 '14년 296.7억불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까지 3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Δ1.9, 2위 일본 Δ1.9, 3위 터키 Δ15.2 - 유럽 내 한국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AS용 부품 등 수출 증가 추세 - 주요 경쟁사는 중국보다는 유럽 역내 기업임. 최근		

		중국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독일 수입벤더들은 중국제품과 국내제품의 포트폴리오에 차등을 두는 편이며, 제품 간 가격 차이에 따라 국내 제품을 중국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진출방안	- 국내기업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내수용 부품 생산에 따라 제품수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됨.		
품목명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영상의학장비	수입액('14/US\$백만)	366.78	對한수입액('14/US\$백만)	0.23
	선정사유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 의료기기는 유럽 및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유사한 수준의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36.9%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13위 - 동유럽권의 경우 병원시설 낙후로 현대화, 개보수가 시급하며, 첨단장비가 거의 없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또한 현지에서는 현대화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임. 루마니아 정부는 EU기금 2차 프로그램 기간인 2014년-2020년 기간 동안 10억 유로(13억 달러)에 달하는 EU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		
	경쟁동향	- 對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미국 △15.6, 2위 중국 4.5, 3위 일본 18.6,		
	진출방안	- 공공병원, 민간병원 모두 주로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므로, 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주요 벤더들을 통해 수출. 특히 영상장비,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에 대한 수요가 높음		
품목명	HS Code	8403	수입관세율(%)	0%
난방기기	수입액('14/US\$백만)	217.469	對한수입액('14/US\$백만)	0.984
	선정사유	EU 신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스보일러가 아닌 응축형 가스보일러만이 유통됨에 따라 신시장임		
	시장동향	- 對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99.6%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9위 - 현지 보일러 시장은 재정위기 이후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규정을 충족한 신규 보일러 모델 디자인 개발이 시급함.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터키 4.4, 2위 스위스 △26.7, 3위 중국 24.2, - 신규 시장으로, 기존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응축형 보일러 모델 개발이 필요함		
	진출방안	- 판매 이 외 A/S까지 담당할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계약을 통하여 진출 필요		
	유망국가	이탈리아, 터키, 한국,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		
품목명	HS Code	84807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6	對한수입액('14/US\$백만)	9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15. 7월 기준 185.1%에 이르는 독보적인 성장세 시현, 높은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정밀 사출성형기의 경우,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32.3%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2위 - 그렉시트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로 고전하였으나, 유럽 경기 회복 흐름에 따른 산업 수요 증가세 전망.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8.8, 4위 미국 58.0, 5위 일본 11.8, - 독일의 경우 금형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으며,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 위주		
	진출방안	- 산업계 수요 제품으로 B2B 거래가 주를 이루며, 주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과 기계 및 전자제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직접 납품, 물류나 A/S 관련 기술 지원 필요		
	유망국가	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체코 등		
품목명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2206.341	對한수입액('14/US\$백만)	309.76
축전지	선정사유	對 한국 10대 품목 중 최근 성장 폭이 큰 품목 중 하나('14년 +116.3%)로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 및 한국산 품질 인정 등에 따른 수출 증가효과 다대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8.5%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3위 - 연산축전지의 경우 꾸준한 교체수요 - 전기자동차 도입 확산과 더불어 핵심 부품인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전환 시점에 돌입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8.6, 2위 일본 △11.7, 4위 미국 11.6, - 주로 독일(Varta, Bosch, Opel), 오스트리아(Banner), 이탈리아(Fiamm) 등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지난 몇 년 전부터 체코, 폴란드, 중국산 등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제품이 강세 - 한국 기업의 R&D 제고에 따른 제품 품질력 향상		
	진출방안	- 독일을 위시한 주요 브랜드 기업 제품과 저가의 중국 OEM 제품 등 시장이 양분 - 동 품목은 완성차 기업에 대한 OEM 시장뿐만 아니라 소모품으로 A/S 시장을 적극 공략 필요, 다만, 브랜드 제품이 아니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을 경우 시장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향후 브랜드 제품으로 공급하기 위한 현지 판매·물류망 및 A/S 체재 구축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등이 제공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적극 이용 검토해 적기 납기 및 운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유망국가	중국, 일본, 폴란드, 체코		
품목명	HS Code	9503	수입관세율(%)	0%
완구 (학습기자재용)	수입액('14/US\$백만)	3091.978	對한수입액('14/US\$백만)	5.02
	선정사유	한국산 수출용 교육기자재 발달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4.1%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16위 - 고가의 교육기자재 수요 증가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 0.1, 3위 미국 5.5, 13위 일본 3.4, - 유럽 내 고가, 고품질 제조기업 다수 존재		
	진출방안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주요 학습기자재 전시회 World Didac 참가를 통한 시장진출		
	유망국가	스위스 및 인근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품목명	HS Code	7013	수입관세율(%)	0%
밀폐용 유리용기	수입액('14/US\$백만)	432.175	對한수입액('14/US\$백만)	2.108
	선정사유	국내 제품 품질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15. 7월 기준 +491% 급증하며 18위('14년)→7위로 부상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43.1%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8위 - 시장 내 친환경 제품 및 인체에 무해한 유리 용기 선호도 증가에 따라 무게가 나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못지않게 선호도 증가 및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 대체 경향 - 열 내구성이 있어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에 적합한 제품 선호도 증가에 따른 주기적인 교체 수요 예상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3.7, 2위 터키 △22.0, 5위 미국 △8.2, -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제품과 중국 또는 동 유럽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 - WMF 등 독일 기업의 경우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고급 제품을 시장에 공급 중이며, 한국 기업의 주요 경쟁 브랜드는 Emsa, Luminarc 등		
	진출방안	- 고가와 저가로 양분되어 있는 독일 식기류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우, 중국 위주의 저가 시장과 유럽 고가 브랜드 사이의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수출 타진이 유리 또한 관련 제품 시장 내 트렌드 주기가 짧지 않으므로, 주요 소비자는 품질 및 디자인에 민감한 편이므로, 다양한 색상의 제품이나,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승부 필요		
	유망국가	중국, 프랑스,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품목명	HS Code	6804	수입관세율(%)	0%
산업용기기 (산업용연마기)	수입액('14/US\$백만)	89.833	對한수입액('14/US\$백만)	1.427
	선정사유	외국계 기업들의 제조라인이 많은 상황에서, CNC 공작 기계에서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업용 연마기와 밀링인서트 같은 공구의 수요증가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40.4%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7위 - 정밀가공에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로, 품질이 중요한 결정 요소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11.9, 3위 미국 △3.9, 4위 일본 △4.7, - 중국이나 아시아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음.		
	진출방안	로컬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제품이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서유럽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경쟁력이 있음.		
품목명	HS Code	8419	수입관세율(%)	0%
수처리 관련 품목 (드라이어, 여과기)	수입액('14/US\$백만)	1434.429	對한수입액('14/US\$백만)	20.457
	선정사유	EU내 폐수지침 준수를 위해 수요 증대 전망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30.3 %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8위 - 현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스위스 △11.7, 2위 중국 △3.9, 3위 미국 △3.2, - 점유율 10위권 내 수출국 중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수출 증가 (전년 동기대비) - seen technologie, Aspamet 등이 주요 플레이어		
	진출방안	- 한국 제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대비 가격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EU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진입 전에 EU기준(규제 및 인증)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품목명	HS 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미용, 건강관리기기	수입액('14/US\$백만)	2975.278	對한수입액('14/US\$백만)	28.659
	선정사유	동유럽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건강, 웰빙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18.9 %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8위 - 특히 루마니아의 소득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로 도시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건강관리 기기 및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미국 △0.8, 2위 일본 △9.8, 4위 중국 12.4		
	진출방안	- 혈당측정기나 체성분분석기(Hi-tech body analyzer), 슬로우 푸드를 위한 소형가전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		
	유망국가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공동		

품목명	HS Code	3304	수입 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1478.325	對한수입액('14/US\$백만)	17.551
	선정사유	수입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난 3년간 높은 증가세, '14년 51.3%, '15년 7월 누계 +25.7%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27.6 %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9위 - '14년 독일 내 최초의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 후 인지도 상승세, 추후 지점 확대 가능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미국 2.6 , 3위 중국 4.7, 4위 일본 △14.4 - 시장 양분화 뚜렷함, 글로벌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포진한 반면, 드럭스토어를 통한 중저가 화장품도 높은 선호도 구가, 중저가 시장의 경우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기업이 시장 내 높은 입지 보유. - 한국제품은 품질 대비 중저가의 가격대를 통해 K-Pop 팬을 위시한 젊은 독일 여성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층 형성 중		
	진출방안	-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중저가 틈새시장 공략 - 독일 시장 내 브랜드 네임 없이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타 유럽국 내 OEM 등을 통한 납품 레퍼런스 축적 필요 - 아이 메이크업, 립글로스 등의 색채화장품이나 파우더류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함 - BB크림이나 마스크팩도 인기 물이 중으로 진출 유망		
	유망국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품목명	HS Code	8207	수입 관세율(%)	2.7%
다이아몬드 공구	수입액('14/US\$백만)	1372.123	對한수입액('14/US\$백만)	129.703
	선정사유	국산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15.1%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4위 - 브랜드 제품과 중국산 등 저가 제품이 혼재된 시장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이아몬드 공구가 유통 중. 특히 석재 절단용 다이아몬드 공구 수요가 높으며, DIY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용 다이아몬드 공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3.7, 2위 스위스 △16.4, 3위 미국 △10.6 , -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10위권 내 경합국 수출 감소세 - 유럽 대형 유통망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OEM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나, 석재공장 및 일반 산업 현장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사용은 증가추세		
	진출방안	- 사절단, 전시회 참가 등 현지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한 적정 바이어(공장보유) 발굴 및 신뢰관계 구축		
	유망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품목명	HS Code	8501	수입관세율(%)	0%
전기모터	수입액('14/US\$백만)	3,076.121	대한수입액('14/US\$백만)	69.407
	선정사유	기계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스위스 기계기업 다수 존재		
	시장동향	- 對 EU 한국의 수출 증감률 3.4% 증가 - EU 수입시장 한국점유순위 : 9위 - 구매력이 높은 기계산업 글로벌 기업의 수요증대		
	경쟁동향	- 對 EU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1위 중국 △4.5, 2위 스위스 △14.5, 3위 미국 31.5		
	진출방안	고품질의 가격경쟁력 제시를 통한 진출 시도		
	유망국가	스위스 및 인근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본사 유관부서)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 Transatlantic KoreaAutopartsPlaza 2016 (소재부품산업팀) * 볼보의 미국 신규 공장진출에 따른 국내공급업체 매칭 상담회	1분기 스톡홀름
2		- 유럽 글로벌파트너링(GP) 2016 (GP팀) * 글로벌/히든챔피언기업 구매전략설명회, 상담회	2분기 프랑크푸르트
3		- 글로벌/히든챔피언 맞춤형 개별 상담회 * 후속관리, 개별 수요 맞춤형 상담회	연10회
4		-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 마케팅 지원 * 입주기업 대상 M&A매물 발굴, 타깃기업별 순회 상담회	연중 프랑크푸르트
5		- 국내 창업기업 유럽진출 지원 사업 (수출창업지원팀) * 북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 Slush연계 기업별 피칭 교육 및 투자가와의 파트너링	4분기 헬싱키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동유럽 보건의료 수출 로드쇼 (의료바이오팀) * 소싱전략 설명회·상담회(동유럽 밴더, 발주처 50개사)	1분기/바르샤바, 부다페스트
7		- 북유럽 Maritime기자재 GP 상담회 (GP팀) *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그린조선기자재 수출 상담회	2분기 코펜하겐
8		- 한-독 게임포럼 2016 (IT사업단) * 벤처캐피탈 대상 기업IR, 상담회(韓벤처게임기업 10개사)	2분기 베를린
9		- MIFA 2015 연계 수출상담회 (서비스산업팀) * 영상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설명회, 개별상담회	2분기 파리(안씨)
10		- K-Beauty Day in Munich (서비스산업유치팀) * 화장품,패션 수출/투자유치 상담회, 미사지점 개막식 연계 추진	2분기 뮌헨
11	사업 TOOL 다변화	- 유럽 M&A 전략산업지도 발간 (글로벌M&A지원단) * 권역·산업별 유망 M&A정보 조사	1분기
12		- 한-유럽 딜 소싱 플라자 (글로벌M&A지원단) * 유럽 주요국(영국, 독일) M&A진출전략설명회, 상담회	2분기/런던 프랑크푸르트
13		- 한-EU 공공프로젝트 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동유럽 IT,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3분기 바르샤바
14		- 발칸국 항만개발 프로젝트플라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서유럽 대체 항만개발 프로젝트 수주 포럼, 상담회	2분기 부쿠레슈티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 진출전략

kotra
중국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75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175
2. 위안화 평가 절하	177
3.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179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계획	181
II. 진출환경 분석	18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83
2. 경제 환경	184
3. 산업 환경	186
4. 정책·규제 환경	19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194
III. 시장 분석	195
1. 수출	195
2. 투자진출	198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200
IV. 시장진출전략	206
1. 진출전략 개관	206
2. 세부 진출전략	2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232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신창타이(중국식 New Normal)’ 기조 유지에 따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양적→질적)에 따른 경제성장률 7% 안팎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는 우리 기업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중 FTA 체결,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에 따른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1. 한-중 FTA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중국 내수시장 확대 추세에 맞추어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마련
 - '15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인 '신창타이'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중국 내 소비 폭 증대 기대
 - *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 정부가 확정된 재정적자 규모는 1조 6,2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시킨 수치
-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적인 이점을 살리고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비관세장벽 제거, 신속한 통관 등, 내수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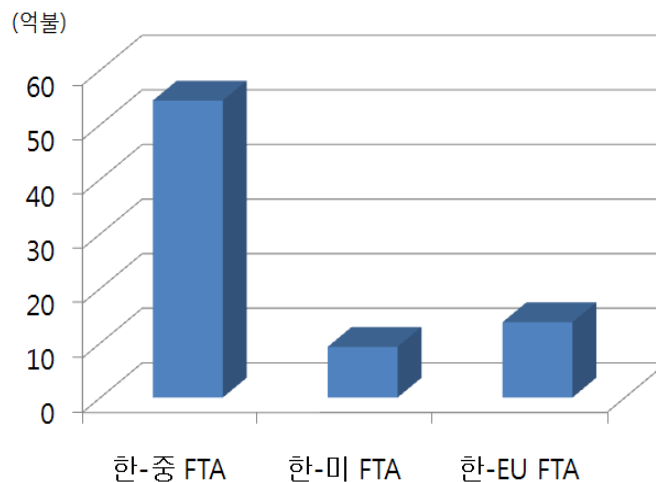
<한-중 FTA 서비스 분야 반영 내용>

분 야	반 영 내 용
법 률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의 제휴 허용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
건축/엔지니어링	중국 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유통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도서 판매 허용
건설	중국 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등 여타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	40% 지분 한국기업 허용

□ 중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 (관세) 중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147억불),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준 91.2%(736억불)에 달함
- 고급 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가 개방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소재는 일부 개방
- 낮은 관세율을 활용한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공정 조정을 통한 대중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중 FTA 예상 관세 절감액(연간)>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비관세)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시험인증 애로 완화,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에 합의
- 신속통관,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라벨링 요구사항 최소화 등의 약속사항을 대중 수출에 활용

□ Made with China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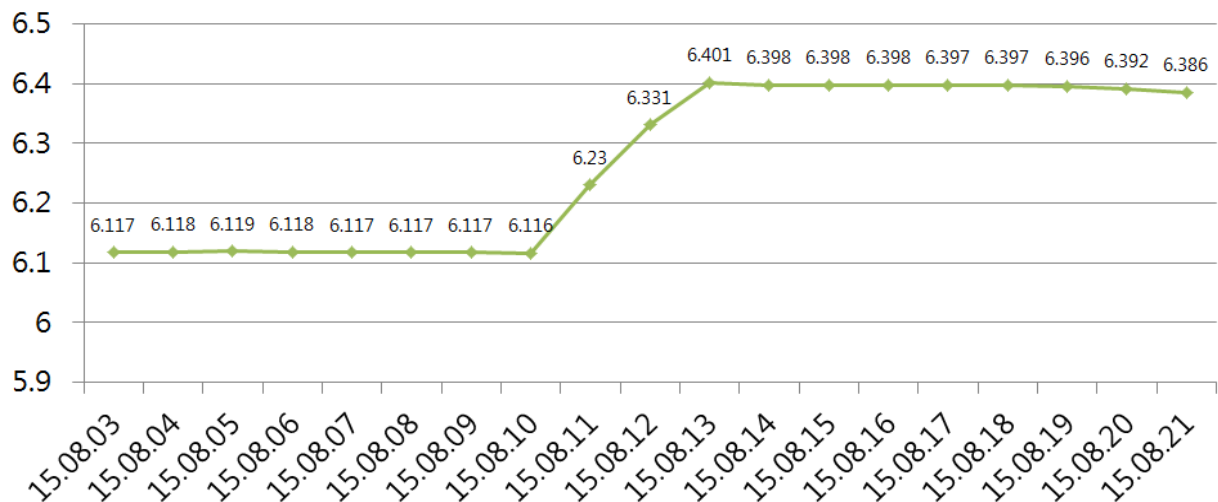
- 중국산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품의 제3국 수출,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활용, 양국 간의 상생 협력을 적극 전개
- 양국 간 경제협력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적 전환점을 구축

2. 위안화 평가 절하

□ (개요) 위안화 기준 환율 조정

- 인민은행, 8월 11일 ~ 13일 3일 간 1.86%, 1.62%, 1.1% 의 평가절하
 - * 달러당 6.1162위안(8.10) → 6.2298위안(8.11) → 6.3360위안(8.12) → 6.401(8.13) → 6.3975(8.14)
- 환율 산출방식 개선과 시장 환율과의 괴리 축소가 주요 목적
 - * 최근 중국 대미 기준 환율은 6.11~6.12위안이었으나 시장 환율은 6.21위안 내외
- 또한, 중국이 추진 중인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내 위안화 편입 목적 (HSBC)
- 일일고시 위안화 절하 폭 최고치 기록, 위안화 가치는 3년 이래 최저치 기록

<위안 / 달러 환율동향>



*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 인민은행이 환율'기준치'결정 자체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분석(골드만 삭스, 노무라 증권 등)
 - * IMF, "세계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환율 유연성을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며 환영할만한 진전."

□ 우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 (기회요인) 중국 현지 높은 생산비중과 중간재 수출 비중은 긍정적인 효과 수반
 - 최근 한국의 주요 대기업 생산기지가 대부분 중국내에 소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내수 진작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진출 기업 또한 반사적 환율 효과 이익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은 73.2%로 추산되며 중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 동반
- (위협요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가속화 될 경우 일부 한국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
 - 의류, 섬유, 신발, 식음료품 등 일부 중국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에 따라 경쟁 중인 한국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
 - 위안화 가치하락에 따라 한국 여행객 '유커(游客)' 감소는 한국 여행 및 화장품, 생활 소비재, 고급 소비재 등 관련 업종에 부정적 영향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정 (1994년 이후)>

기간	환율제도	주요 변화	일일 변동 폭
1994.1 ~ 1997.12	관리변동 환율제도	- 공식 환율을 시장환율로 단일화 (달러당 5.8위안→8.7위안)	±0.3%
1997.12 ~ 2005.7	사실상 고정 환율제	- 달러 당 8.28 위안으로 페그	-
2005.7~2007.5	관리변동 환율제도	- 복수통화바스켓제도(미 달러와 이외의 통화도 바스켓에 포함시켜 환율결정) - 위안화 환율 2.1% 절상(달러당 8.28→8.11)	±0.3%
2007.5		- 일일 변동 폭 확대	±0.5%
2008.7 ~ 2010.5	사실상 고정 환율제	- 달러당 6.83위안으로 페그(글로벌 금융위기)	-
2010.6	관리변동 환율제도	-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복귀	±0.5%
2012.4		- 일일 변동 폭 확대	±1%
2014.3		- 일일 변동 폭 확대	±2%
2015.8	관리변동 환율제도	-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등 시장 환율 중시 성명	±2%

*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및 언론 발표 종합

3.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시장진출 본격화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 명(세계인구의 60%)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대일로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
- 동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는 약 8,000억불에 달함
 - 중 민생거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으로 68%가 철도, 도로, 공항 등 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투자도 524불에 달함

□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 방안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국과 정책 조율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에 이르는 5개 분야의 협력방안을 발표
 - 5개 분야는 관련국과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 교역 활성화, 금융협력 확대, 민간교류 활성화 등으로 구성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원칙 및 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방안	세부내용
정책연계	양국의 상호이익 보장을 위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해당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부합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국가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견을 조정
인프라 연결	주요 거점별 교통 인프라 구축, 자원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및 정보교류 강화 등 추진
무역확대	투자 및 무역장벽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구 건설, 무역분야 확대, 통관 간소화 추진
자금조달	AIIB와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 개발은행, 상하이 협력기구(SCO)설립 등을 추진하고 중국-아세안 은행연합, 상하이 협력기구 은행연합의 협력 장려
민간교류	인적교류 확대, 관광분야 협력, 방역방제분야 정보 및 기술공유, 산업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의료 및 빈곤구제 부문 개선을 통한 민간단체 교류 진흥 추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러시아, 몽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 내륙지역 기업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진출 확대 전망

- 일대일로를 통해 내륙지역의 물류여건 개선 및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가능
- 한편 상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 중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 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 '14년 Engineering News Record 기준, 현대건설(전력부문 2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 건설부문 3위, 정유부문 6위)등에 랭킹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에 따른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시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
-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으로, 역내국 지분 비중 75% 이상을 차지
- * 한국은 37억 4,000만 달러를 배분(전체 5위)받아, 3.81%의 지분율(=37억 4,000만달러/982억 달러)
-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포함된 통화바스켓을 AIIB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가 예상
- 개발은행과의 정례 협의 개최, 수주기회 발굴, 협조 융자 실시, 인력 파견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4. 13차 중국경제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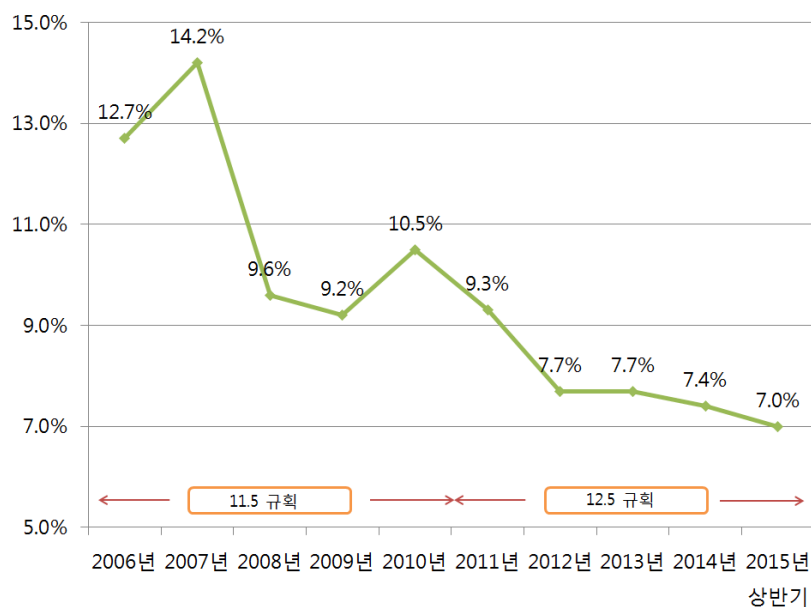
□ (개요) 13. 5 계획, 10월에 윤곽 드러내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 계획, 성장률 및 육성산업 발표
 - ‘13.5계획’ 초안은 완성된 상태, 18기 5중 전회에서 전체 내용 논의 후 각 부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서 최종 확정예정
 - 주요 쟁점은 ① 향후 중국 청사진 도출, ② 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③ 전략 육성산업 및 권역개발 계획 발표 등

□ 13.5계획 기간 동안의 성장률과 정책 발표

- (전망1)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계획’ 기간의 평균 목표 성장률을 6.5%~7%로 설정

<최근 10년간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원 : 국가통계국

- 중국 지도부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소비확대 및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점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대형프로젝트 구체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조 2025’ 세부화 방안 발표 기대

-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녹색제조업 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이 핵심 내용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대내외 수요창출 및 공급과잉 해소
 - 경기침체 방어 위한 인프라 수요증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증대는 거시경제 난제 해결 추진제고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 육성에 역점
 -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대, 심화하는 한편 기타 프로젝트와 연계할 전망
 - ICT 분야,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관련 산업 지원책 발표 전망
 - 에너지 분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기계, 친환경 설비, 오염저감장치 등 수혜 전망
 - 교통, 건설, 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수요도 대폭 증가할 전망,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인프라 및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시사점) 13.5 계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단계, 한국 기업 득실 더욱 복잡해질 전망

- 2020년은 중국이 제시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
 - * 의식주 해결 단계에서 고소득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경제수준을 지칭
- 13.5 계획으로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되는 반면,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2016년 주요 일정

- 양회 (전인대+정협) : 3월
- 6중전회 : 10월
- G20 : 항저우, 미정
- 경제공작회의 : 12월

II

진출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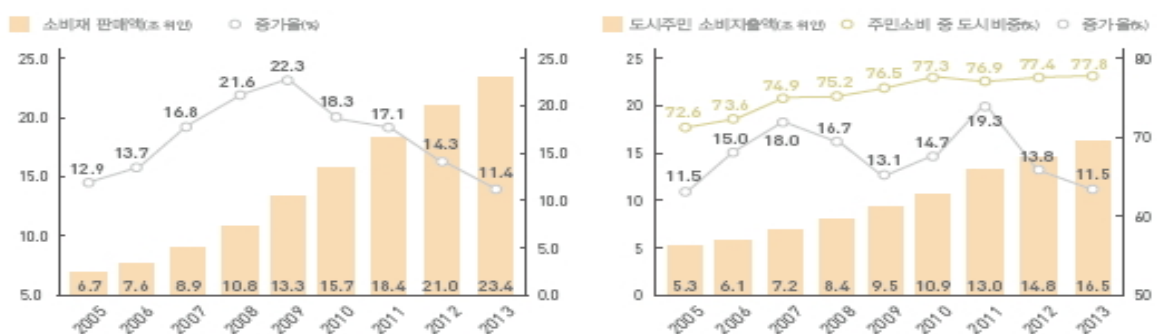
금년 3분기 6.9%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감소로 잇따른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ICT·자동차·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프로젝트 제시로 관망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신창타이'하의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

- 소득증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통한 구매력 증가
-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인 '신창타이'를 통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화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
- * 중국의 소비재 판매액 추이: '13년 5조 2,500억 위안→'14년 26조 2,000억 위안 (연평균 16% 증가)

<소비재 판매액 및 도시주민 소비 지출액 추이>



* 자료원 : 국가통계국

□ 동북아 경제권 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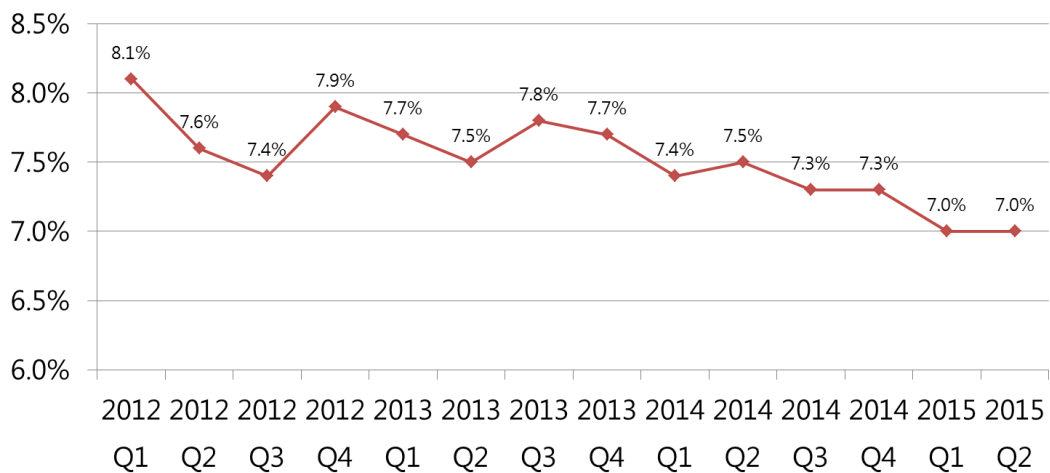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에 기여
 - 관세 철폐 및 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상품 수출 확대 기대
- * (중측 자유화율)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 정상외교를 통한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 상대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 내 위상 저하
- * (수입시장 점유율, '14년) 한국 9.7%, 일본 8.3%, 미국 7.8%, 대만 7.8%, 독일 5.3% 등

2. 경제 환경

□ (현황)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성장 둔화

- 2015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3%를 밑도는 7% 이하를 기록
 -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된 6.8%~6.9% 성장을 예측 했으나 전망치는 소폭 상회
 - * 금년 1/4분기 성장률은 6.8%, 2/4분기 성장률 7%
- 경제 성장률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공산품출고가격, 핵심물가(에너지 제외), 도매물가지수(W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지속 하락
 - 15년 1~2월 기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급감 (전년동기 - 4%)
 - 해외수요의 경우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이는 수입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기인

< 중국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12년 1분기-'15년 2분기) >



*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중장기 전망) 이어지는 중국의 침체와 재도약 가능성

- 세계은행(WB)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전망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 7%를 하회하는 6%대의 성장률 예측

<각 기관별 2015년, 2016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관명	2015 전망치	2016 전망치
세계은행	6.9%	6.7%
IMF	6.8%	6.3%
노무라 증권	6.8%	6.7% ~ 5.8%
골드만삭스	6.8%	6.7% ~ 6.4%

* 자료원 : 언론 발표 내용 종합(10/12 기준)

- 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률은 6.8% ~ 7.1%로 전망되며 중국 정부목표(7.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각 기관별 2015년도 하반기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

기관명	전망치
세계은행	7.1%
인민은행	7.0%
IMF	6.8%
OECD	6.8%
사회과학원	7.0%

* 자료원 : 언론 발표 내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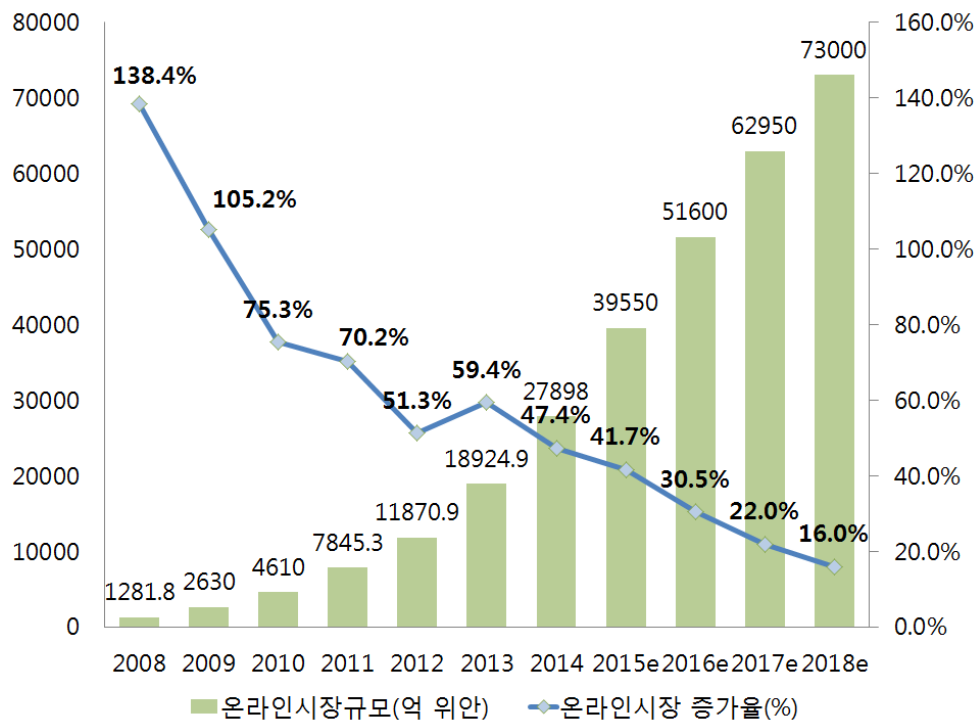
-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화대책 효과의 가시화와 서비스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 속도 가속화에 기인
- * 리커창 총리 “고정자산투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 (‘15.9월, 다보스 포럼)
-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진기(京津冀) 협력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 1조 812억 위안
- 중국철로총공사(中國中鐵), 금년 하반기 철도 관련 투자는 5,349억 위안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 억제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 단,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총통화(M2) 증가율은 11.8%로 정부 목표치 12.0%에 미달

3. 산업 환경

□ 온라인 유통 산업

- 급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 2014년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조 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한 수치
 - 2014년 중국 B2C 거래규모는 1조 2,900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 중 45%를 차지
- * 2014년 중국 B2C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 : 1위 텐마오(天猫) 61.4%, 2위 징둥(京東) 18.6%

<2008~2018년 온라인 시장규모 추이>



* 자료원 : iResearch

-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소비가 주요 소비 채널로 부상
 - 2008년 온라인 판매가 사회 소비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8%, 2014년에는 10.6%로 점차 증가 추세
 - 금년 말까지 온라인 시장규모가 약 4조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소비재 매출액 비중이 1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ICT 산업

□ 2015년 2분기 대중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25억 3,000만 달러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55억 8,000만 달러
- 2분기 D램 시장규모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4.8% 감소한 114억 4,000만 달러이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73.7%) 기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중국 등 해외 생산 본격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64억 8,000만 달러
-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73억 2,000만 달러로 스마트폰 수출은 29억 4,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43억 3,000만 달러

<ICT산업 분기별 대중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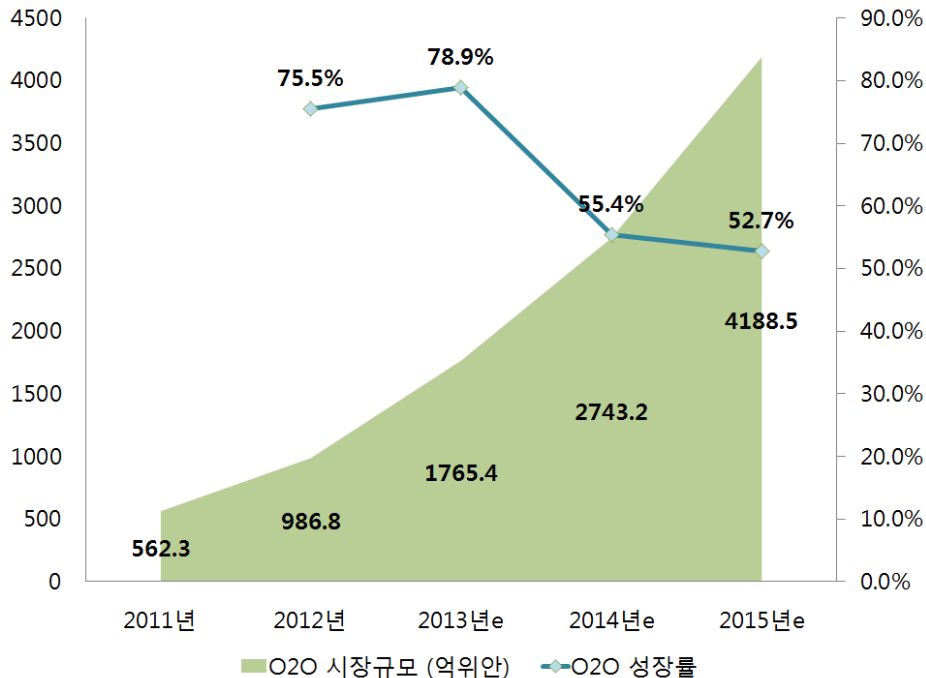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 산업	ICT 산업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7.2	410.6	-0.2	1,121.8	222.7	7.4	215.4	187.9
	2분기	1,355.6	425.5	-0.2	1,104.9	216.9	0.9	250.8	208.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가파른 중국 O2O시장의 상승세

- 중국 O2O(offline to online) 시장은 2012년 968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금년엔 4,188억을 돌파 할 것으로 전망

<2011-2015년 중국 O2O 시장규모 및 예측>



* 자료원 : iiMedia(艾媒諮詢)

- 현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O2O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6억 1,000만 명, 이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의 57.5%

*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 6,000만 명

○ 그 중 요식업은 전체 O2O 시장의 1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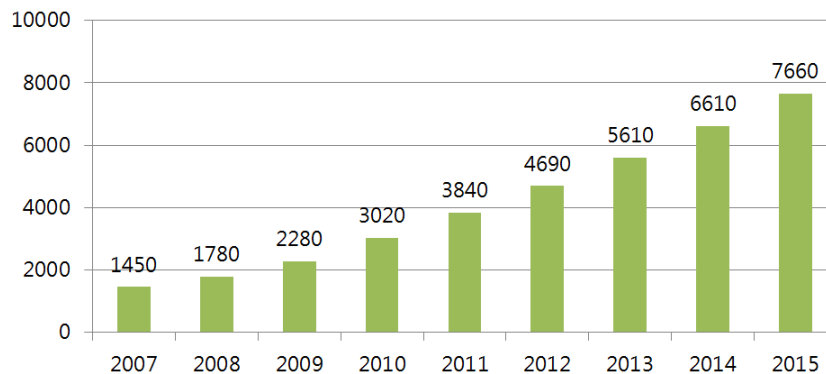
- 2014년 이용자 규모는 1억 9,300만 명으로 2013년 보다 38.8% 증가했으며, 2015년 이용자 규모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2억 6,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
- 1선 도시의 O2O 이용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요식업 O2O 시장도 안정적으로 발전 할 전망
- 2014년 12월 기준, 메이투안(美團網)의 이용자 수는 요식업 O2O의 15.47%를 차지, 요식업 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
- 따종디엔핑(大衆點評), 바이두누어미(百度糯米)가 각각 9.27%, 3.5%로 2, 3위를 차지

□ 자동차 산업

-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2년 2,490억 위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이 증가하였고, 현재 7,660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연말에는 8,0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2007~2015년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 >

(단위: 억 위안)



* 자료원 : 이방동력원(億邦動力網)

- 자동차 생산 현황
 -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0.8%, 0.39% 증가한 1161.51만대와 1335.79만대
 - 그 중 승용차 총생산량이 1163.03만대를 차지하고 총판매량은 1136.32만대로 전년대비 각각 4.01%, 3.39% 증가

<2015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승용차		상용차		총생산량	총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	판매량		
1월	196.93	203.80	31.77	28.16	228.70	231.96
2월	141.28	139.67	21.90	19.66	163.18	159.33
3월	192.85	187.04	35.50	37.02	228.36	224.06
4월	175.41	166.88	32.56	32.57	207.97	199.45
5월	167.69	160.93	28.73	29.45	196.42	190.38
6월	158.74	151.14	26.34	29.17	185.08	180.31
7월	130.13	126.86	21.67	23.44	151.80	150.30
합계	1163.03	1136.32	198.47	199.47	1361.51	1335.79

*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 2015년 1분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0.3억 달러로 10% 하락, 수출은 156.37억 달러로 2% 증가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순위는 변속계통, 차체부품, 엔진부품 순으로 규모는 각각 27.17억 달러, 17.77억 달러, 10.42억 달러
- 동년 동기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순위는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체코, 스페인, 영국 순

* 그 중, 멕시코의 증가 속도는 48%로 매우 빠른 증가

<2014년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국>

부품수입 합계		독 일	일 본	한 국	미 국	프 랑 스	헝 가 리	체 코	멕 시 코	영 국	이 탈 리 아	태 국	스 페 인	폴 란 드	타 이 완
억 달 러	393.3	133.2	96.2	52.1	21.7	11.9	8.5	7	6.8	5.6	4.9	4.3	4.3	3.2	2.9
증 가 속 도	12%	18 %	0%	11 %	23%	15%	-4 %	22 %	69 %	12 %	-20 %	26 %	20 %	75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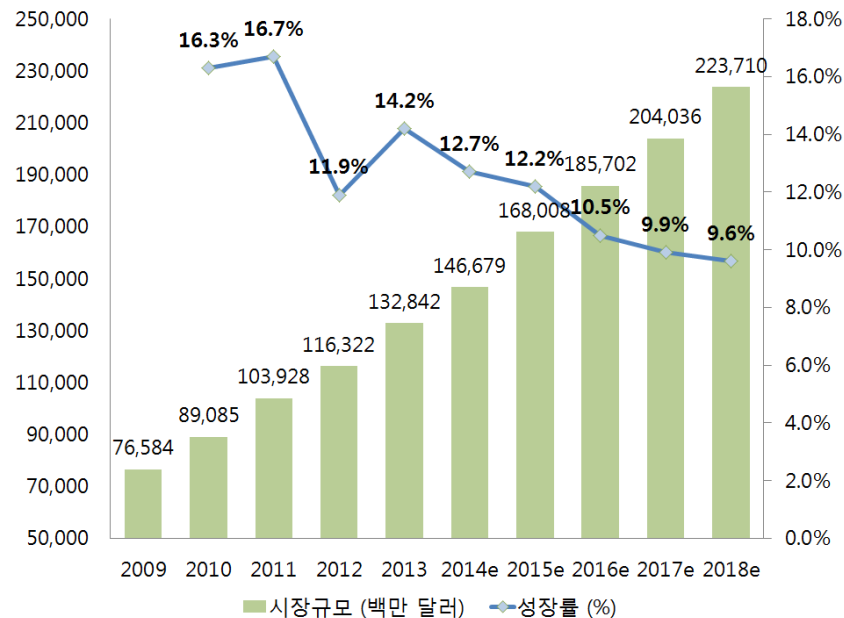
*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 지식서비스 시장

○ 문화 콘텐츠 시장

- 2013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14.2%의 높은 성장세
- 향후 5년간 중국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2,23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 콘텐츠 시장 중 지식정보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2009~2018년 중국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추이>



* 자료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온라인 게임 산업

- 지난 2014년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1,144억 8,000만 위안으로 2013년 892억 위안에 비해 약 30%의 성장률 기록, 평균 20~25%의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전망
- 2014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게임(온라인 게임)으로 전체의 53.1% 점유율로 608억 9,000만 위안의 규모
 - * 2위 모바일 게임(24%, 274억 9,000만 위안), 3위 웹 게임(17%, 202억 7,000만 위안)

○ 출판 산업

- 2009년 3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출판시장은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며 2013년 23.2%까지 비중이 하락
- 전체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며 2018년 18%까지 축소될 전망

○ 광고 산업

- 2009년 26.6%의 점유율을 보이다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26.6%까지 확대
- 무한한 시장성이라는 특징으로 2018년 27.9%까지 성장할 전망

4. 정책 · 규제 환경

□ 중국제조 2025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19일, “중국제조 2025”을 발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10년 단위 국가전략(총 30년)으로서, ① 2015년 ~ 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진입, ②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위권 진입, ③ 2035 ~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진입을 목표로 함 (‘15년 9월)

<중국제조 2025 10대 전략산업>

산업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자제품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을 국내 생산하여 국산 부품의 사용범위 확대
바이오헬스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영상장비 및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의 혁신 및 상용화 수준 제고
전력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 등을 발전
선진 궤도교통설비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
항공우주장비	항공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항공산업 체인을 구축. 차세대 탑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해저정거장을 구축하고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 수준 제고. LNG 선박 등 최첨단선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소재	특수 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를 중심으로 발전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고정밀·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 생산시스템을 개발. 로봇의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을 추진하고 로봇의 응용범위를 확대
농업기계장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 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발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을 확대

□ 중국 정부 정책

- (내수 진작) 지급준비율(RRR), 기준금리 인하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개시
 - 금년 8월부터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연 4.85%에서 4.6%로 0.25%포인트 인하
 - 금년 9월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인민은행, 단기유동성조작(SLO)을 통한 시중 은행에 약 3400억 위안(37조원)의 유동성 공급
- (외자 유치) 금년 1월 상무부, 현행 외국투자 관련 3개법을 통합하고 외국기업의 심사승인 관리절차 삭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시작
- (대외 수출) 금년 3월 국무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
 -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바로잡고 해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이 목표
 - * 바이밍징(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집중돼 있는 동부 연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어 불균형이 존재했으며, 개정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수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시장)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서킷브레이커’도입 검토
 -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는 공개검토 후 확정할 예정
- 중국 재정부 등,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에게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 실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주식 보유자, 배당금의 소득세 50% 감면
 -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 대한 부양책이자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
 - * 단,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 배당소득 전액 과세, 20%의 세율 일괄적용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국-중국 수출 동향

-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대중수출 하락세
 - 금년 1월을 제외한 2014년 6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증감률이 금년 9월까지 이어지는 추세
 - * 2014년과 2015년 9월 수출증감률은 각각 -0.4%, -3.8%
 - 중국의 수요둔화에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원인으로 그 풀이

□ 한국-중국 투자 동향

- 중국의 대 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금액 기준으로 '12년 1억 8,600만 달러 → '13년 2억 1,000만 달러 → '14년 11억 9,000만 달러(147.2%)로 대폭 증가
 - 주로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IT, 관광·레저 등으로의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전체 FDI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으로 여타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FDI 유치 규모가 높지 않은 수준
 - 금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도착 기준)는 4억 9,020만 달러
 - *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인 미국으로의 동 기간 투자규모는 16억 7,844만 달러

□ 한·중 FTA 동향

-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 완료
 -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군 정의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였으며,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동식물 검역 등 분야별 협상을 거쳐 최종 양허안에 합의
 - 금년 6월 1일,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삼음
 - 한국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 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신규 일자리는 5만 3805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

III 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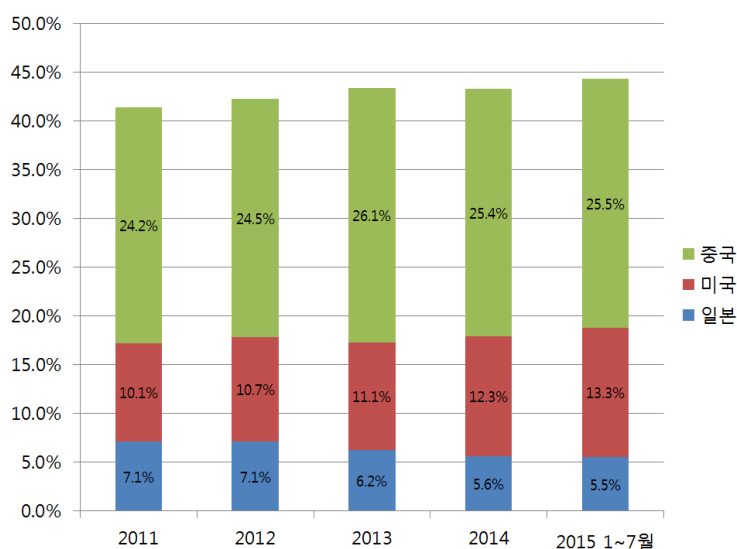
최근 중국 제조업의 위축,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부품 국산화를 제고 등으로 인해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가, 한-중 FTA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 수출

□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교역 1위, 무역흑자 1위)

-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 확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도 상승
 - 2014년도 한-중간 교역액은 2354억 달러(전년 대비 +2.8%), 552억 6000만 달러의 흑자 기록(전년대비 -12%)
 - * 2015년 상반기, 한-중간 교역액은 약 1311억 2812만 달러(동기 대비 -1.1%) [출처 : 한국무역협회]
 - * 한국의 무역의존도 : ('01) 54.7% → ('07) 64.9% → ('14) 75.8%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대중 교역 의존도 급상승, 전체 수출의 25% 이상 중국에 집중
 -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25% 내외로 유지 중

<우리나라의 주요국 교역 비중>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대중 무역수지 양호

- (對中 수입) '14년 對中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 기록
- '14년 對中 수입액은 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증가
- (무역수지) '14년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흑자 규모는 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하락

<한-중 교역 추이>(단위: 억 달러, %)

연도	무역총액	對中수출	對中수입	무역수지
2012	2,151.2(-2.5)	1,343.3(0.1)	807.9(-6.5)	535
2013	2,288.8(6.4)	1,458.4(8.6)	830.4(2.8)	628
2014	2,383.6(4.1)	1,452.8(-0.4)	900.8(8.5)	552
2015(1~8월)	1,491.8(-1.4)	900.1(-3.6)	591.6(1.9)	30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최근 對중국 수출 동향 >

1 현황

- '13년 들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1월을 제외한 금년(15.2~8월)기간 동안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 주요 품목별로는 전자기계제품(5.7%), 도자가; 유리(39%) 등이 증가한 반면 광학·시계·의료설비(-6.4%), 화학공업제품(-4%), 플라스틱·고무(-4.3%) 등은 감소
 - * 對中 수출비중(%): ('12년)24.5 → ('13년)26.1 → ('14년)25.4 → ('15.1~8월)25.5
 - * 對中 수출증가율(%): ('12년)0.1 → ('13년)8.6 → ('14년)-0.4 → ('15.1~8월)-2.8%
- 일대일로(一帶一路)등 대규모 투자 증가효과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라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
 -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중국 제조업의 위축 등 3분기까지 수출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수출부진의 원인

- 中 제조업의 위축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금년 2월 이후 50이하의 수치를 보임
 - * (2월)50.6 → (3월)49.6 → (4월)48.9 → (5월)49.2 → (6월)49.4 → (7월)47.8 → (8월)47.3
- 2000년 이후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 가공무역을 금지 및 제한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
 - * 2014 中 가공무역정책 개정안 : 총 1,871개의 가공무역금지 품목 확대
 - * 중국 가공무역 비중 : (00')41.1% → (14')26.8%
- 차이나 인사이드
 - 자국의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해 수입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
 - * 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 : (00')64.4% → (14')14.6%

□ FTA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 통관절차
 - (문제점)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대표적 애로사항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과도한 수수료 부과, 투명성 결여 등
 - (FTA 합의내용) 48시간 내 통관원칙 명시, 전자서류를 통한 사전 수입 신고
 - * 통관시간 단축 및 보세창고 이용료 등 수출비용 절감
- 원산지 규정
 - (문제점)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으로 세관의 통관 보류 및 지연, 추가비용 발생
 - (FTA 합의내용)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 *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활용 활성화 및 수출절차 간소화 기대
- 상품검사
 - (문제점) 지역별 상이하 인증절차 및 집행, 검사비용 과다, 필요이상의 시험 및 검사 요구 등
 - (FTA 합의내용) 국제 공인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협력
 - * 시험·인증 비용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수출 성공사례

- 주요 성공요인 : 높은 기술력은 물론 로컬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화 노력 등이 필요

<대표적인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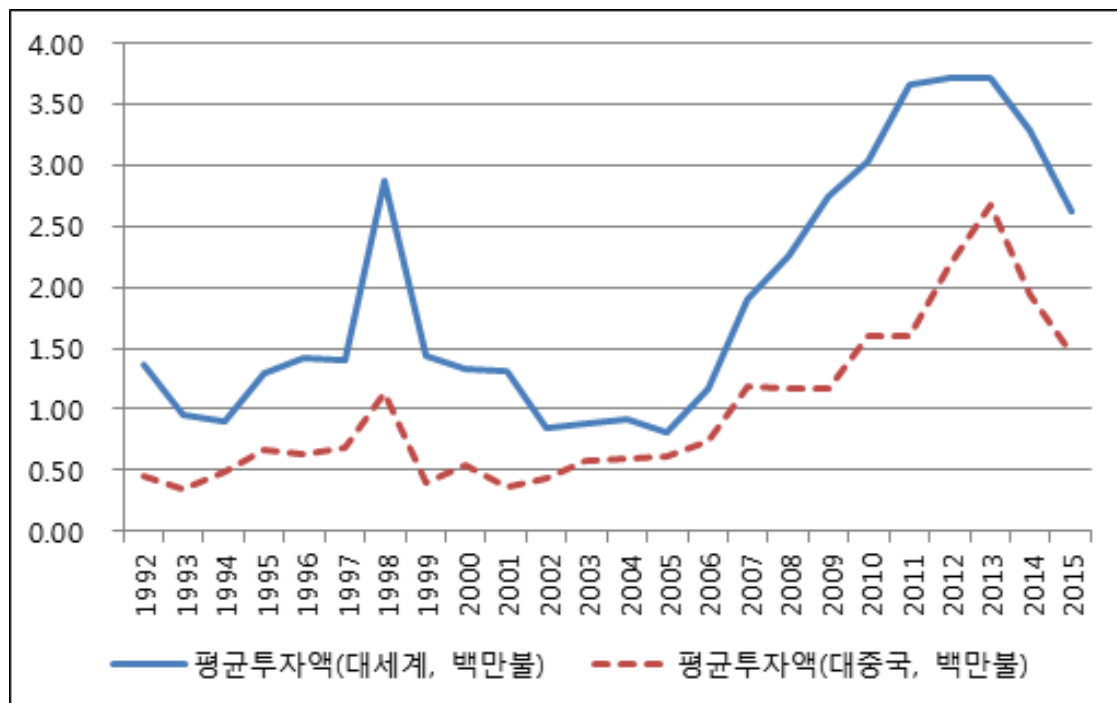
품 목	성공사례
소비재	주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제품에 중국어 디스플레이와 음성안내 기능을 탑재하여 현지화에 주력함. 또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과 골드색상 제품을 프로모션하여 중국에서 인기를 얻음 - (성공요인)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파악하여 현지화로 승부
컨텐츠	공연기획사 P사는 한국의 음식을 소재로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여 중국 27개 도시 투어 공연을 진행 중 - (성공요인) 한국적 소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음식과 화려한 볼거리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어필
부품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는 글로벌기업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현지형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CCTV시장을 석권 - (성공요인) 현지형 영업 네트워크에 성공
친환경	친환경 설비업체 N사는 탈황,탈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로컬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 가능한 시공사를 발굴 - (성공요인) 높은 기술력과 로컬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

2. 투자진출

□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5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는 총 5만 768만 건, 금액은 500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건수(13만 6,512건)의 37.2%, 해외투자금액(2,873억 달러)의 17.4%를 차지
- 금년 상반기 13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1% 감소한 수치
- * 2015년 1분기 대중 투자 : 5억 1,000만 달러(-36.6%)

<한국의 평균 해외투자액>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전체 해외투자 중 투자건수 대비 금액 비중이 작은 것은, 대중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
- * 한국의 해외 평균투자액과 대중국 평균투자액 : 210만 달러, 99만 달러
- 대중 평균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세계 평균투자 규모를 하회

중국 투자 진출 사례

○ 성공사례 (화장품 생산·유통 업체 K사)

① 성공요인

- K사는 현재 중국 내 28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2년 기준 5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화장품 업체
- K사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가격 경쟁력'
- K사 사장은 창업 전 중국 진출 아이템을 모색하던 도중 중국 화장품은 '쉽게 살 수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를 발견
- K사가 현재까지도 중국브랜드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
- 결국 '명품'이 될 수 없다면 '품질 대비 저가'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결론
- 화장품 가격 이외에도 아웃소싱, 인력,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 채택

② 해결과제

- K사의 사업 초기 최대 문제는 '자금'과 '사람'
- 중국내에 독자법인을 세우고 회사를 운영하였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
- 이후 화장품의 250여 가지 품목으로 구성, 3,000개 이상의 물량의 이유로 투자비용 역시 증가
-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점이 인력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 습득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수반
- 단순히 경력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교육을 통해 인재로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

○ 실패사례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① 실패요인

-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동종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품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거대 중국 내수시장만을 고려
- A사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원가 발생
- 기업의 부품 공급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의 소규모 투자 법인이 가진 경쟁력이 부족했으며 중국의 대기업은 국영 성격을 띄고 있어 중국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 구매, 다국적 기업 역시 자국 제품을 선호
- A사의 기술력은 중고급 수준으로 이미 중국의 중견기업에 의해 따라 잡힌 상태

② 시사점

- 중국 투자진출 이전에 투자진출 전략 수립은 중국 현지의 동종 제품 생산 현황, 가격, 자사의 기술력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 더 이상 저가의 노동력만 이용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세계의 많은 제품이 들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장임을 인식해야 함

3. 주요 품목별(산업별) 시장동향

3-1.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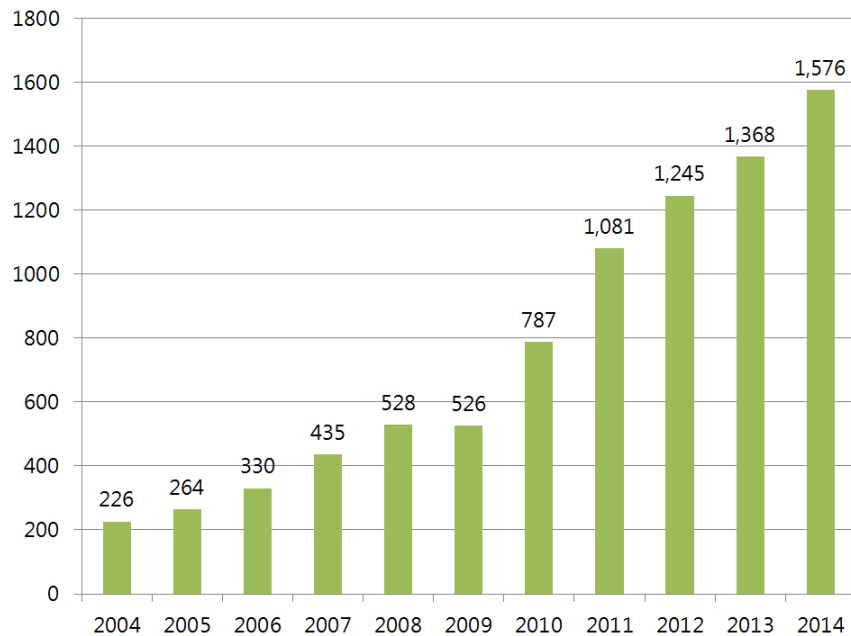
□ 중국 소비재 수입동향

- 2014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1,576억 달러
- 최근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총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수입 비중도 2002년 4.5%에서 지난해 2014년 8%로 상승

* 중국 수입시장 소비재 비중 : 4.5%(2002) → 4.0%(2004) → 5.6%(2010) → 8.0%(2014)

<중국의 소비재 수입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중국이 2014년 수입 품목 중 2007년에 수입되지 않았던 신규 품목은 총 19개이며 이 가운데 17개가 가정용 식음료군에 포함(HS코드 6단위 기준)
- * 2007년 대비 2014년 신규 수입품목 : 아보카도, 딸기, 오디, 참다랑어 등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

□ 한·중 소비재 교역동향

-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국 5위로 2007년 이후 점유율은 1.5%p, 1위 품목 수(HS 6단위 기준)는 16개 감소
 - * 한국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 및 1위 품목 : '07 (6.0%, 59개) → '11 (5.8% 48개) → '14(4.5%, 43개)
- 중국의 세계 수입 수요는 반내구성, 비내구성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화장품, TV 카메라 등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서 대(對)한국 수입수요는 오히려 감소
 - * 대(對)한국 수입 : 주방용 목재가구(-35.6%), 귀금속 장신구(-29.2%), 매트리스 침구(-31.0%)

□ 주요국 경쟁동향

- 중국의 소비재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14.2%)이며,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156개)
- 최근 유럽 선진국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고급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국별 점유 현황(2014)>

순위	점유율			1위 품목		
	국가	점유율(%)		국가	개수(개)	
		'07	'14		'07	'14
1	독일	11.2	14.2	이탈리아	142	156
2	미국	10.7	12.8	미국	164	117
3	일본	15.8	8.9	일본	130	85
4	영국	2.7	7.8	베트남	31	71
5	한국	6.0	4.5	독일	59	62
6	이탈리아	2.2	4.0	태국	44	52
7	프랑스	3.5	3.4	한국	59	43
8	베트남	1.2	3.3	북한	24	42
9	뉴질랜드	0.9	3.3	프랑스	57	40
10	태국	3.1	3.2	인도네시아	16	30

*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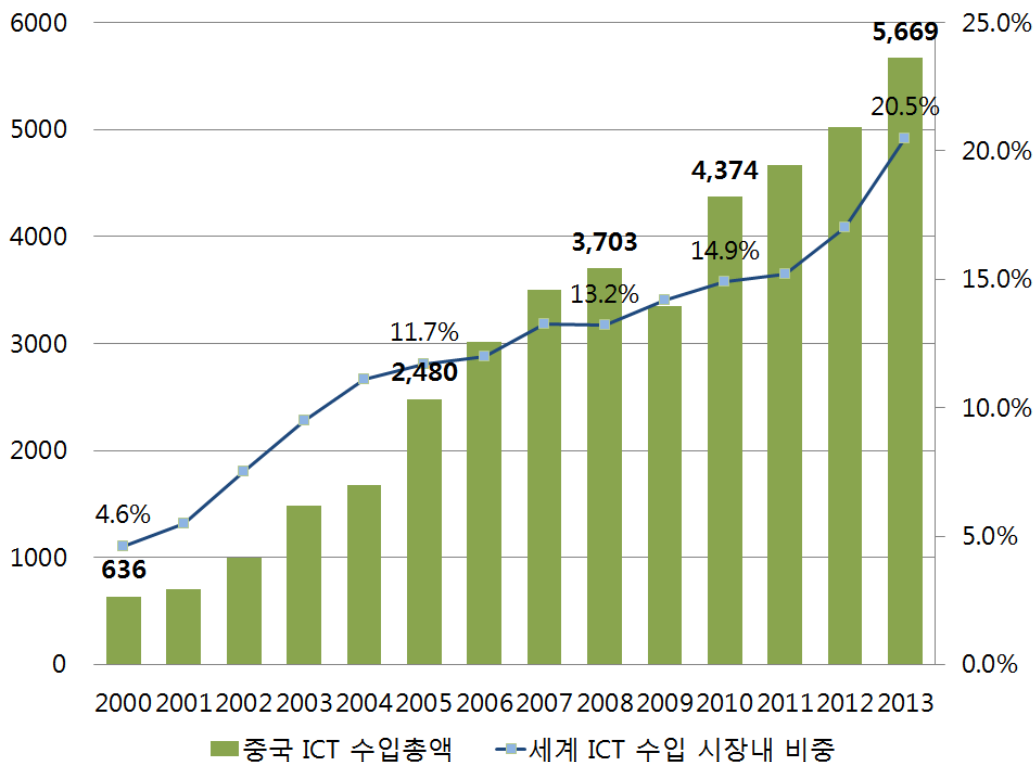
- 한국의 2007년 중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 가운데 48개가 2014년에는 그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은 2014년 이탈리아(11개), 프랑스 (4개), 기타 EU국가(5개) 등 유럽에 의해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남

3-2. ICT

□ 중국 ICT 산업 수입 동향

- 중국의 2013년 ICT 수입 시장 규모는 약 5,669억 달러 규모
 - 중국의 ICT 수입 시장은 2000년 약 636억 달러에서 2013년 약 5,669억 달러로 증가
 - 세계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6%에서 2013년 20.5%로 확대
 - 2010년 약 4,374억 달러로 미국(약 4,039억 달러)를 앞선 이후 점차 그 격차를 벌리며 최대 ICT 수입국으로 성장

<중국의 ICT 수입 총액 및 세계 ICT 수입 시장 내 비중 추이>



* 자료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3년 기준, 전체 ICT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를 포함, FPD,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접속품목 등이 주요 품목
 - 반도체가 ICT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7.7% 수준이었으나, 2005년 37.9%에 이어 2013년엔 46.6%까지 오르며 중국 ICT 수입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한·중 ICT 교역 현황

- 2000년~2013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ICT 수출은 큰 폭의 성장 지속
 - 2000년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709억 달러규모로 17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의 최대 ICT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 한국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인 반면, 2004년 19.6%로 미국(18.1%)를 앞서고 2013년 40.1%의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중국의 ICT 수입품목은 반도체, FPD,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접속부품 등 ICT 전체 수입시장의 품목과 대체로 동일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의 주요 ICT 수입 상대국은 선진국 → 신흥·개도국으로 변화
 - 중국의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ICT 수입은 2000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2,173억 달러로 21배가 넘는 급증
 - 이에 따라 중국 ICT 수입에서 신흥·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38.3%로 상승
- 중국 최대 ICT 수입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의 ICT 수입액 하락
 - 2000년 중국 ICT 수입액의 24%에서 2013년 9.6%로 하락
 - EU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각각 16.4%, 12.4% 수준에서 2013년 6%, 5.3%로 급락
- 반면,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 한국, ASEAN의 위상은 크게 강화
 -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 수준에서 2013년 18.7%로 크게 확대되어 최대 수입 상대국에 위치
 - 한국과 ASEAN도 동 기간 8.7%, 9.1% 수준에서 17.5%, 13.1% 수준으로 확대

3-3. 농식품 산업

□ 중국 농식품 수입 동향

- 2013년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975억 7,000만 달러로 총수입의 5.03% 기록
- 2000년 82억 5,200만 달러 규모에서 2007년 이후 연평균 20.5%의 증가율로 성장
- 농식품 수입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한·중 농식품 교역 동향

- 2013년 대한민국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로 0.7%의 점유율
- 2007년 이후 연평균 15.7%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
- 세계 농식품 수입 증가율(20.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에 기여

□ 주요 경쟁국 동향

- 대두 수출국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유럽,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파트너들의 시장
- 대두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이 농식품 수입시장의 1위 차지
- 뉴질랜드는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 2008년 11위에서 2013년 4위로 상승
- ASEAN, 페루, 칠레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상위권에 위치
- 한국은 중국의 20위 농식품 수입국으로 2008년 19위에서 2013년 20위로 하락

<중국의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입액>

(단위 : 억 달러, %)

국가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브라질	102.0 (28.0%)	145.3 (42.5%)	173.6 (19.5%)	217.9 (25.5%)	21.2%
미 국	148.3 (24.2%)	177.7 (19.9%)	212.0 (19.3%)	196.9 (-7.1%)	11.6%
캐나다	26.1 (11.1%)	27.9 (6.8%)	47.8 (71.2%)	49.1 (2.7%)	26.5%
뉴질랜드	18.4 (67.2%)	23.7 (28.7%)	30.9 (30.3%)	48.6 (57.3%)	45.0%
아르헨티나	56.0 (66.2%)	51.2 (-8.6%)	48.8 (-4.5%)	47.9 (-2.0%)	-10.5%
한 국	4.0 (35.0%)	6.0 (51.5%)	5.8 (-3.2%)	6.8 (16.2%)	16.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4. 부품소재 산업

□ 중국 부품소재 수입 시장

- 연이은 하락세의 부품 수입 시장
 - 금년 9월까지 5397억 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
 - 2014년 12월을 제외한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한·중 부품소재 교역 동향

- 대중국 수출비중 35% 내외의 안정적 유지
 - 중국의 성장둔화와 기술력 향상에 불구, 한국 부품소재 산업의 산업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부품소재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13 상반기	'13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대중국 수출집중도	33.9%	35.6%	33.8%	35.3%	34.8%
대중국 수출액	440.9	474.0	450.9	502.0	467.1
전체 수출액	1,298.9	1,331.5	1,335.6	1,423.8	1,342.7
대중국 무역흑자액	221.5	248.1	213.2	254.3	233.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수입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가 모두 마이너스 수입 증감률을 기록
 - * 20위권 국가에서도 베트남(35.5%), 멕시코(16.4%), 인도네시아(3.2%)를 제외, 모두 마이너스 증감률

<중국 부품소재 수입시장 동향(2015년 9월 기준)>

순위	국 가	수입액(억 달러)	수입 증감률	비 중
1	한국	942.2	-8.2%	17.5%
2	대만	848.3	-4.5%	15.7%
3	중국	810.8	-1.4%	15.0%
4	일본	622.6	-10.5%	11.5%
5	미국	370.2	-9.2%	6.9%
6	독일	334.0	-12.8%	6.2%
7	말레이시아	270.8	-2.4%	5.0%
8	태국	144.7	-5.3%	2.7%
9	싱가포르	115.8	-6.5%	2.1%
10	필리핀	101.7	-4.5%	1.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IV

시장진출전략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간재와 연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China Inside' 효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정상외교 등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내 '친한(親韓)' 분위기와 한-중 FTA 발효를 통한 상대적 진출 우위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1. 진출전략 개관

<중국지역 SWOT 분석>

<Strengths> 한류와 정상외교로 한국 선호도 최상 ○ 한국 문화/컨텐츠에 대한 꾸준한 인기 ○ 정상외교 효과로 친한(親韓) 분위기 고조 ○ 인적·문화적 유사성 ○ 低단가/高품질 부품·제품 공급력 우수	<Opportunities>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 한-중 FTA 체결로 시장장벽 완화 ○ 中 내수시장 진작정책, 시장 확대 전망 ○ 소비자 소득수준 확대에 구매력 증가 ○ 中 정부 인프라 등 재정투입 지속세
<Weaknesses>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된 수출 구조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 감소 ○ 성장세 높은 중서부 내륙시장 진출 미흡 ○ 소비재 분야에 대한 낮은 브랜드 인지도 ○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 미비	<Threats> 'China Inside' 효과와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 부품·원부자재의 자체 조달 확대 ○ 中 로컬기업의 경쟁력(기술, 마케팅) 강화 ○ 글로벌기업 진출 확대 및 경쟁 치열
<시사점> ○ (강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필요함 - 소비재는 물론 對정부 관계시(인증, 허가 등) 유용한 '경쟁력' ○ (기회) FTA로 넓어지는 시장과 구매력 갖춘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 방안 절실 - (상품) 관세 철폐 및 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 (서비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발생하는 新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응책 마련 ○ (약점) 中 유력기업과의 협력 체제 마련 및 최종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중장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기업의 협력 파트너십 체제 구축 -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해야 함 ○ (위협) 기업 자체의 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중요 -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틈새와 타겟팅 전략 필요	

□ (강점) 역사상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한-중 관계와 한류

- 양국 정상외교와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선호도 최상 유지
- 상대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중국의 반일감정 악화로 수입시장내 위상 저하
- * 中 수입시장 점유율 (1-9월, %) : 한국 10.6 > 일본 8.9 > 미국 8.9 > 대만 8.8 > 독일 5.6

□ (기회) 한-중 FTA 발효(예정)로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관세 · 비관세 장벽 해소 및 서비스 분야 양허 확보
- 관세 철폐 및 특혜 관세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상품 수출 확대 기대
- * (中측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 서비스 · 프로젝트 등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확대
- (서비스) 中 서비스 시장 확대되는 가운데, FTA 추가 협상 전망
- * 中 3차산업의 GDP 비중(%) : ('13년) 46.1 ⇨ ('14년) 48.2 ⇨ ('15.3Q) 49.5
- (프로젝트) 한국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기준 완화 예상
- * ('15년) 민자 프로젝트 3천억 달러 / (13.5 기간) 녹색 프로젝트 자금 2.5조 달러

□ (약점)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간재와 연해지역' 편향

- 中 가공무역 제한 정책으로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 '04년 341개 ⇒ '14년 1871개 (+448.7%)
- ☞ 中 가공무역 수입국 비중 : (한국) 20.2% > (대만) 15.4% > (일본) 11.2%
-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 미흡
-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정책 등)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필요
- * 중서부 지역은 中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나 수입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미개척 수출시장

□ (위협) 중국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로 수입대체 가속화

- 중국 제조업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기술력 강화 및 국산화율 제고
- 첨단기술 R&D 및 낙후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 하락
- * 한-중간 기술격차 1.4년 ('12년 1.9년에서 0.5년 단축)
- ☞ R&D 투자총액 ('14년/USD) : 1위 미국 4.5천억 > 2위 중국 1.9억

2. 세부 진출전략

2-1. '13·5 규획' 기간 '고소득 사회'로의 본격 전환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중고속 성장 속, '전국민의 중산층화' 추진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낮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중고속 성장으로도 GDP 및 1인당 소득은 2010년의 2배로 확대 전망
 - * '13·5 규획' 기본방향 : ① 중고속 성장, ② 전국민의 중산층화, ③ 혁신형 경제, ④ 대외개방 확대 등
-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
 - '세계 부(富) 보고서 (크레디트 스위스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 5만~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 인구는 모두 1억9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집계 (미국 9,200만명)
 - * 자산규모 10억 달러 이상 인구 ('14년) : 중국 596명 > 미국 537명 (후룬 리포트)

□ 중국 정부 또한 내수진작을 위한 세수 인하 등 정책 추진

- 중국 재정부,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세율 인하 발표
 - 소비세 및 관세에 대해 일부 품목별 평균 50% 인하
 - * (의류) 14~23% ⇨ 7~10% (기저귀) 7.5% ⇨ 2% (신발류) 24% ⇨ 12%
 - ☞ 세부 내용은 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뉴스 > '중국 6월부터 인기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 잠정 인하, 득과 실 ('14.5.27일)' 참고 요망

□ 치열한 경쟁 속에 FTA, 한류 등의 기회요인 활용 적극적 시장 공략 중요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 접근 필요
 -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 필요
 - * KOTRA, 2016년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추진 예정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인증, 상표 등)에 대한 조기 준비 필요
 - 허가, 인증 등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중국 바이어 관심 저하
 - * (허가) 중국내 유통시, 허가/인증에 대한 검사 강화되었으며 유사상품간 경쟁이 심하여 바로 시장 진출할 수 없는 경우 바이어가 대체품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음
 - * (상표) 최근 중국내 상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권리확보해야 함

□ 적격 유통 채널에 대한 선택 필요

- 제품과 마케팅 전략에 맞는 유통 채널과의 협력 구축 중요
 -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품과 지역에 따라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15년 상반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소매기업 121개 폐점 (매출실적 지속 하락 원인)

<중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소매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10-'1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12%	10.8%	9.9%	5.1%

- 특히, 식품류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음
 - '14년 저장성 최대 유통채널인 리엔화 마트(联华)내 식품류와 생활용품, 개인 청결용품 등의 한국제품 매출이 30% 증가함

(참고) 중국 식품 시장 동향

-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의 10대 식품 수입국가의 하나
 - 한중 FTA 이후 식품 수출 확대 전망

<중국내 수입 식품시장 국가별 규모 (2014년)>

국가/지역	수입금액 (억 달러)	점유율
EU	94.1	19.5%
ASEAN	89.1	18.5%
뉴질랜드	61.1	12.7%
미국	55.0	11.4%
호주	25.3	5.2%
브라질	23.1	4.8%
캐나다	17.7	3.7%
러시아	16.0	3.3%
아르헨티나	9.2	1.9%
한국	7.1	1.5%

* 자료원 : 중국 국가질검총국

- 대중 수출식품 품목을 살펴보면 유제품, 식용유지, 수산물, 육류, 곡류, 주류, 설탕, 음료, 가공식품, 캔류 상위 차지
- 최근 수입식품 검사 강화로 통관/검역시 불합격 물량은 전년대비 209.1% 증가
 - 불합격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은 품질문제와 식품안전문제

- 그러나, 최근 소비재 판매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전자상거래임
 - 온라인 판매가 사회소비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1.1%에서 '13년 8%, '14년에는 10%대를 넘어선 10.6%로 지속 증가함
 - * '15년 온라인 시장규모는 4조 위안 육박 전망, 소비재 매출액에서의 비중도 13% 돌파 예상됨
 - 특히, 오프라인 유통망이 덜 발달한 농촌 및 3-6선 도시의 소비 지속 확장세
 - * 온라인 구매율 순위 TOP 50에서 3, 4선 도시 비중이 50%를 초과하였으며, 4-5선 도시가 1선 도시보다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남
 -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를 위해 고객 또는 판매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징둥) '14년부터 고객 대출 서비스 : TV, 스마트폰 구입시 최대 수만 위안까지 대출 (알리바바) 쇼핑몰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서비스를 통해 할부 지원

2015년 '광군제(11.11일)' 쇼핑

- ◆ 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에서 11.11일 1일간 쇼핑 행사 개최
 - 하루 총 매출 912억1700만 위안 (한화 약 16조5천억원) 집계
 - * '09년 '광군제' 할인행사 개최 이래 매년 신기록 갱신, '14년 대비 60% 증가
- ◆ 232개국의 판매자와 소비자 참여, 1만600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 거래
 - 33%의 소비자가 글로벌 브랜드 및 업체(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
 - * 중국 소비자 대상 국별 판매량 순위 : 미국 > 일본 > **한국** > 독일 > 호주
 - ☞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류, 미국 견과류, 일본 기저귀, 독일/호주의 분유 등 인기

- 다양한 인프라의 확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
 -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제3자 결제시스템 플랫폼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 * ('15년 中 '광군제') 알리페이 결제건수 총 7억1천만건, 피크시점 초당 8만5900건 결제 처리
 -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쇼핑이 보편화 되어 있음
 - * ('15년 中 '광군제') 전체 매출 총액 중 68.6%가 모바일 쇼핑 ('14년 42.6%)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인 O2O 시장도 활성화 전망
 - 2014년 중국 O2O 시장의 총 규모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에는 4655억 위안 이상으로 성장 전망
 - * 중국의 대표 대기업인 BAT(Baidu 바이두, Alibaba 알리바바, Tencent 텐센트)가 모두 O2O 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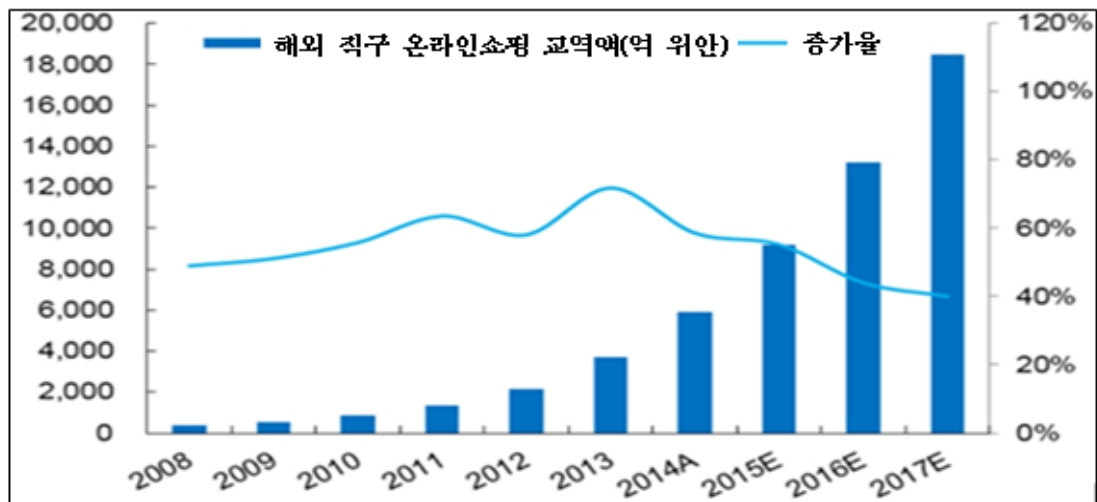
제품에 대한 언어 표기

- ◆ 일반적으로 중국내 판매 제품은 '중국어' 우선 원칙임
 - 설명서는 물론 현지 '라벨 규정'에 맞는 포장지 중문화 작업이 필수임
 - * 또한, 상표 역시 한글/영어는 '도안 상표'로 인식되어 '중문 상표'가 필요함
- ◆ 그러나, 마케팅 측면에서 '한글'을 의도적으로 사용(병기)하기도 함
 - 한국산 제품을 강조할 필요가 있거나,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 선호 유도

□ '해외 직구 온라인쇼핑'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 주요 전자상거래 채널들 대부분 '국가관'을 구성하여 직구 수요에 대응
 - 2014년 해외직구 교역액 5904억 위안, 2017년 1조8천억 위안까지 확대 전망
- 중국 정부차원에서 '시범도시' 지정 등 직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검역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초기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큰 비용 부담 없이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충칭, 선전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쇼핑 교역액 및 증가율 ('08-'17년)>



* 자료원 : iResearch, 중국 통계국

□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지적권 보호 절실

-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라, 지적권 침해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
 - '14년 공상행정관리총국 조사 결과 중국 주요 온라인 마켓 판매 제품 중 58.7%만이 정품으로 조사됨
 - * 알리바바(타오바오)내 정품률은 37.25%로 조사대상 온라인 마켓 중 최하위
 - ☞ 알리바바, 모조품 판매/제조상 제재 및 '7일내 수시 반품 제도' 등 모조품 근절 노력 강화
-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상표) 선등록'에 따른 우리 기업의 침해 사례도 증가
 - 중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상표' 등록은 필수 사항임
 - '직구'의 경우,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침해 고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내 판매자(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음
 - * 이 경우, 중국내 정상적인 판매는 물론 결제대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받게 됨

(참고) 중국 소비재 시장 특성

- 본 내용은 Bain&Company가 발표한 'Winning over shoppers in China's new normal'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

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FMCG* 제품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출액이 하락

* FMCG : Fast moving consumer goods, 생필품

- 홈케어와 퍼스널케어 분야의 판매량 하락이 큰 영향
 - * (홈케어) 휴지, 세제, 섬유유연제 등 / (퍼스널케어) 스킨케어, 샴푸, 치약, 기저귀 등
- 2014년 계속됐던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 많은 사람이 관례상 선물로 많이 주고받던 포장식품과 음료 매출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
- 또한, 중국인들은 FMCG 대신 여행, 레저, 자동차,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② 프리미엄화 제품의 성장

- 프리미엄화는 요거트, 맥주, 생수, 스킨케어 제품 등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건강과 관련된 상품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 식품이 국산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 실제로 전체 요거트 판매 규모의 38%는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하며, '12년에서 '14년 평균 요거트 판매가는 총 9.4% 상승했으며, 프리미엄 요거트 규모는 22%에서 38%로 증가
 - * 맥주 판매가는 3.8% 상승했으며 프리미엄 맥주 규모는 23%에서 29%로 증가

※ 가격 탄력성이 낮은 범용화 제품들 (탄산음료, 섬유유연제, 휴지 등)

- ▶ 평균 탄산음료 가격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1%, 섬유유연제는 1.5%, 화장실 휴지는 1.1% 증가했으며 페이스티슈는 1.8% 하락함
- ▶ 가격탄력성이 낮은 제품들은 타 제품들보다 프로모션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음

③ 중국 vs 외국 브랜드

- 중국 브랜드가 26개의 항목에서 해외 경쟁자들 제치고 시장 판매액에서 70%를 차지
 - * 주로 스킨케어, 섬유유연제, 색조 화장품, 유아용품, 주스와 비스킷 등에서 우위를 차지
- 해외 경쟁기업들은 8개의 항목에서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
 - * 화장지, 맥주, 헤어컨디셔너, 껌, 라면, 초콜릿 등

[세부 내용은 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뉴스 > '뉴노멀시대의 중국 생활소비재시장' 참고]

2-2. '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 활용, 中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 중국, 제조업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정책 추진

- '1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중국제조 2025'시행을 발표
 - 2015년까지는 12.5 기간의 제조업 정책인 7대 전략적 진흥계획을 추진해 왔음
 -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3.5계획('16~'20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육성전략의 근간이 될 예정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중국제조 2025'의 성공에 따른 우리 산업 추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전망
 -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대상 업종과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 육성 대상이 매우 유사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우리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
- * 우리 정부가 제시한 19개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 중국의 육성 산업과 중복되는 업종은 12개, 일부 중복되는 업종은 6개인 것으로 파악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중국제조 2025' 육성 대상 비교>

구분	한국 19대 분야	중복 여부	중국 10대 업종
미래 신산업	지능형 로봇	○	고급 디지털선반 및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	차세대 정보기술
	실감형 콘텐츠	△	차세대 정보기술 (조작시스템 및 공업용 S/W)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농기계 장비
	가상훈련시스템	△	차세대 정보기술
주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양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5G 이동통신	○	차세대 정보기술
	수직이착륙 무인기	○	항공우주장비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맞춤형 웰니스케어	○	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 하이브리드	○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재난 안전 시스템	×	
	직류송배전 시스템	△	전력장비
	초소형 발전 시스템	△	전력장비
기반산업	융복합 소재	○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	신소재
	사물인터넷	○	차세대 정보기술
	빅데이터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소재 가공 시스템	○	신소재

- 대내외 여건상 ‘중국제조 2025’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특정산업 육성이 아닌 전체 경제의 체질 개선, 산업의 정보화, 시장과 개방형 경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중소기업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색 등 중국 산업발전 전략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기회 활용과 협력 확대에 노력 필요

- (수요확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ICT 분야 소프트웨어와 장비가 필요하고 10대산업 육성정책 및 5대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되어 방대한 수요 지속
 - 정보화 관련 업종 및 10대 육성대상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노력 강화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예측가능한 대외경제정책은 진입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직면한 온 우리 기업에 양호한 기회
 -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에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진출 확대
 - * 한-중 FTA는 물론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에 따른 개방확대 기회 활용
 -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활용, 중국기업과의 제휴·협력 노력 강화
- (경제협력) 한중 FTA에서 두 나라는 17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중국제조 2025’의 육성대상 업종/분야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중 FTA 경제협력 조항과 ‘중국제조 2025’ 중점 육성분야를 연계하여 한중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 및 글로벌 기업들,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위해 기업간 협력 강화 움직임

- 모바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력과 기술력, 현지 마케팅 능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최근에는 IT, 전자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추세
 - * 일본의 샤프는 중국 ZTE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납품 등 협력
 - * 한국의 쿠첸도 중국 Midea그룹과 합자회사 설립, 쿠첸 브랜드로 가전제품 판매 추진
- 중국 기업, 제품 프리미엄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개방적
 - KOTRA 주최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참가 대형 기업들 한국기업 기술력에 호평
 - * “中 모바일 S/W 기술 부족, 기술력 높은 한국기업 미팅 희망” (Oppo / 中 6위)

2-3.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지역개발 정책 활용, 新시장 개척 확대

□ 경제발전을 위한 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13·5규획'에 중국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및 지역발전 전략 포함 예정
 -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 외에도 60여개 국가와 연계된 국제적 프로젝트로서 세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발전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 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일대일로' 액션플랜 중 인프라와 자금 등 정책에 주목 필요
 - 인프라 분야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신설과 연결을 강화하고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 특히, 2015년 출범한 AIIB(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 이 외에도 환경정화 사업 역시 일대일로/지역개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꾸준히 추진될 예정임
 - '13·5규획' 기간 중 녹색 금융의 자금 수요는 연평균 최소 3조 위안으로 추정

□ 경제발전을 위한 꾸준한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전망

- 2015년 일대일로 관련 투자금액은 4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조 위안 이상 투입될 전망임

* '15.1월-9월 중국 정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고정자산 프로젝트 규모는 총 218건, 1조8100억 위안

분야	건수	금액
교통 및 기반시설	84건	9906억 위안
농업 관개설비 및 수자원	53개	3982억 위안
에너지	25개	2366억 위안

-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일대일로가 열어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해 중국 시장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거점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의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AIIB내 한국의 지분율은 3.81%로 역대 4위(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대일로 등 중국 국내외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회 적극 활용 필요

☞ 중국 30.34% > 인도 8.52% > 러시아 6.66% > 독일 4.57% > 한국 3.81%

(참고) 42조 위안의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① 수도권 경제발전 프로젝트 -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京) 베이징 (津) 텐진 (冀) 허베이

-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 교통, 환경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확정한 정부 주도의 국가 전략
- 2020년까지 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 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 베이징 밖으로 이전 계획
 - 이외 수도권 내 9000km 고속도로 건설, 9500km 역내 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 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 포함돼 있음

② 지역별 특화 기능 수행

- 베이징은 정치·문화, 텐진은 물류·금융, 허베이는 제조·자원 등 중점

베이징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 기술이라는 4가지 기능을 집중시켜
텐진	제조업 및 국제항운(선반운송) 중심지, 금융혁신 및 개혁개방 시범지역
허베이	북방 첨단 제조업 기지, 물류기지, 전략자원 비축 중심지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 편입 예정
 - 에너지, 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풀이됨
- * 후보도시 : 산둥성 더저우(德州), 산시성 다통(大同), 네멍구 츠핑(赤峰)과 우란차부(烏蘭察布) 등

③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 잇따를 전망
 - 中 재정부는 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 전문가들은 42조 위안은 인프라 건설만 고려한 것으로 미래 에너지와 산업 연계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자본 투입규모는 10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 교통·산업·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
 - * 민간협력(PPP) 방식의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2-4. 中 서비스 중점 발전 정책 연계, 서비스 시장 진출 가속화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주도 추진

-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15.7월)에서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 결의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의 성장률은 8.4%에 달해 성장을 주도함
 - 또한, 중국 전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46.1%로 2차산업을 추월한 이래 '15.3분기 49.5%를 기록함
 - *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난을 해소하는 민생에 이로운 선택” (중국 국무원 왕양 부총리)
- 또한, 제조업 PMI 지수는 '15.9월 기준 49.8(50 이하 '위축')로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非제조업활동지수(IT, 도소매, 서비스 등)는 53.4%로 성장세 시현

□ 한-중 FTA 발효 이후, 본격 시장개방시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 제공

- 중국 FTA 최초로 한국에 '서비스 및 투자협상' 등 약속
 - 서비스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원칙 및 금융·통신서비스 등 교범설정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의 의료 및 의료관광,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이 유망
 - 특히,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와 건강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 ◆ '14년 의료비용 3조1천억 위안, 의료 관광객 600만명 돌파
 -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총 인구의 14.9%인 2억명 이상)
 - * 노인 질병 등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연평균 17.6% 성장('09년-13년)
- ◆ 의료기술 및 서비스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
 - 중국 중·고소득층의 자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음
 - * (中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불만 41% > 보통 33% > 만족 26%

-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지상황에 적절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함
 - 또한,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자와 직결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 정부 차원의 '착한기업'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CSR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사소한 잘못에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

(참고)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①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2013년 부가가치가 2조1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함
 - 세부 분야로는 문화상품 제조업, 문화상품 도소매업,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
 - 서비스업 비중은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3%를 차지하면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
 - *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
- 한국의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규모는 54억 달러('13년)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으로 56.4%에 달함

② FTA에 따른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규제

-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등에 합의
- 그러나, 완벽한 개방은 아니며 아직까지 규제가 상존함
 -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임
 - * 상당부분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분은 49%까지만 허가함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주의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시장 개방(합작, 합자 형태로 공연장경영업, 공연중계업 가능)	중국 기업과 합작, 합자 형태로만 가능. 합작시 경영판단 주체는 중국 측
지적 재산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 도입 (한중 양국이 인터넷상 저작권 반복적 침해 대응방안 마련 의무화)	발효 시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수준,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방송 포맷 베끼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일시적 복제권 부여 (RAM에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제권도 저작자 권리로 인정)	일시적 복제권의 주요 형태인 '스트리밍'은 이미 양국에서 전송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향후 새롭게 생겨날 형태의 일시적 복제권에 대응 가능한 부분이 의미

* 자료원 : 한국산업연구원

③ 한국 정부, 문화콘텐츠 산업을 한중 FTA 수혜 분야로 파악

- 한중 양국간 공동 콘텐츠 제작 등 지원 계획 (공동 발전펀드 조성 등)
 - 중국 시장이 제도적으로 접근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 이후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진출 노력 필요

2-5. '한류' 및 '한국 선호도' 활용, 미개척 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정부의 개발 우선 지역 등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 선점 필요

- 1선 도시로 불리우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은 시장 포화상태
 - 명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상품의 범위가 넓어 마케팅 포지셔닝이 어려움
 - * 경쟁이 치열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품질, 가격 등 우위를 바탕으로 1선 도시에서 성공할 경우, 중국 전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2-3선 도시
 - 2·3선급 도시는 향후 10년간 개발 가능한 부동산 면적이 모두 1억㎡가 넘어 부동산 개발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전망됨
 - * '일대일로', '지역개발정책' 등의 중국 정부의 전면적 개발 대상 지역 역시 2-3선 도시임
 - ☞ (일대일로) 시안, 우루무치 (자유무역구) 텐진, 푸저우 (징진지) 탕산, 스자좡 등

중국내 출점 전략을 수정한 CGV

- ◆ 2006년 상하이에 첫 진출했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답보 상태
 - 1선 도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입지 선정'에도 어려움 발생
 - * 1선 도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해도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 미흡
- ◆ 성장성이 높은 2-선 도시를 선별해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
 - 브랜드 구축을 위한 주요 거점 도시 효과적 선점 (우한, 충칭 등)
 - * 인건비나 임대료, 각종 프로모션 비용 저렴하고, 경쟁도 덜해 매출증가와 이익개선
 - * 2선 도시 위주의 출점 전략으로 2014년 중국 내 'Top 10' 사업자로 등극

□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3선 이하 도시

- 1-2선 도시의 생필품 시장 연간 성장률은 2%인데 반해, 3-5선 도시는 7.7%
 - 전체 도시 생필품 매출액 중 3선 이하 도시의 매출액 비율은 2012년 60.5%에서 2014년 62.3% 상승
- 3선 이하 도시를 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필요
 - 중국의 중산층의 10년 후 4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소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 * (2022년 중산층 비중 전망) 1선 도시 축소 < 2선 도시 보합 < 3선 도시 확대
 - ☞ 농촌지역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 8,297위안 (실질 증가율 전년대비 8.1%)
 - 따라서 대도시와 소도시 중산층의 소비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 시장 접근 필요

- 특히, 농촌 지역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주목 요구
- 중국의 농촌 가구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이구환신’, ‘가전하향’ 정책으로 대대적인 가전제품 구입 붐이 있었음
 - * 이구환신(以舊換新) : 헌 제품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바꿔주는 정책
 - 가전하향(家電下鄉) : 농촌 지역의 가전제품 보급 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농촌은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음
 - * ‘농촌 타오바오’ 매출에서 대형 가전제품이 1위 차지
 - ☞ 품목별 순위 : 세탁기 > 평면TV > 온수기 > 냉장고 > 냉동고 > 에어컨 등

농촌으로 향하는 ‘타오바오’

- ◆ ‘농촌 타오바오’, 농촌지역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거점 추진
 - “천현만촌(千縣萬村)” 프로젝트를 통해 3-5년 내 100억 위안을 투자 계획
 - * 구매대행, 서비스관리 및 제공, 물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0개 현금 서비스 센터와 10만 개의 촌급 서비스센터 설립 예정
- ◆ 농촌 온라인 쇼핑 규모는 '14년 1800억 위안이며, '16년까지 4600억 위안으로 성장 전망
 - 중국내 유명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 추진 중
 - * TCL, 하이얼, Midea, 하이신, Galanz, 창흥, 로레알, 유니레버, P&G 등
 - ☞ 글로벌 미용제품 기업들, ‘농촌 방문 메이크업 교육’ 등 마케팅 추진 예정

□ 중국의 내륙도시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해 좋은 이미지

- 문화 ‘한류’가 제품 구매에도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 분석*
 -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이 주요 소비재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 한국 제품의 ‘한류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은 ‘非한류국(지역)’ 대비 증가세 지속 (현대경제연구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타겟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은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
 - 한국제품 구매의사가 높은 내륙 도시로의 시장 확대 노력

中 신흥도시 소비자 분석

(신흥 고성장 2-3선 도시 10개 지역, 소비자 500명 대상)

- ◆ 한국제품 구매 경험 : 70% 이상의 소비자가 “있음”
 - 구매결정 요인 : ① 품질 ② 디자인
- ◆ 향후 한국제품 구매의사 : 50% 이상의 소비자가 “긍정적”
 - 구매희망 품목 : 의류/패션용품, 디지털 제품, 화장품 등

* 자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1	HS Code	854231 / 85235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105,654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04
RFID	선정사유	- RFID기술은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중국도 최근 급속한 발전을 거쳐 전량 수입 단계에서 응용단계로 접어듦. - 특히 물류, 유통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데이터 입력의 오류감소, 실시간 물류관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물류분야는 RFID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이나 중국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향후 물류분야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편임.		
	시장동향	- 국제사물인터넷무역 및 응용촉진협회(IIPA)에 따르면 2013년 중국 RFID 산업 시장규모는 238억 5,300만 위안에 달하며, 2015년에는 311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 중국에서 RFID 제품은 주로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자산관리, 물류관리, 위조방지, 전자결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됨. - RFID 제품 중 40% 이상은 신분식별, 교통관리, 군사와 안전 분야에 사용됨. - 주택, 회사, 학교 등 출입통제분야에서도 RFID 기술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도시화 확대와 스마트도시 추진 분야에서 가장 보편화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경쟁동향	- RFID 시스템은 전자라벨, 안테나와 판독기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자라벨이 기술함량이 높으며 이 분야는 외자기업이 주도함. - 칩 설계와 밀봉재 분야의 대표기업은 NXP, TI, Alien, 통팡귀신(同方國芯), 화홍전자(華虹電子) 등이 있음. - 소프트웨어 분야는 IBM, SAP, 오라클 등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시스템통합 분야에서 왕웬구(遠望穀), 중싱통신(中興通訊), 항텐신시(航天信息), 아파디(阿法迪), 베이징 웨이선(北京維深), 통팡즈닝(同方智能) 등 현지 기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에서 고·초고주파 전자라벨 제품 공급 가능한 기업이 몇개사에 불과하며 이 분야는 기술요구가 높은 만큼 이윤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튼튼한 기술력을 내세워 이 분야를 공략한다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음. - RFID는 태그, 판독기, 소프트웨어 등이 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움. - 중국 RFID 연맹 등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 후,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임.		

품목명2	HS Code	8421395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4/US\$백만)	1,108	대한수입액('14/US\$백만)	208
가스 탈질장치 (flue gas denitration apparatus) +SCR탈질기술	선정사유	-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으로 중국은 “12.5”계획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주요 오염 물질에 포함함. 또한 “대기오염 10개 조항”의 공포 및 관련 후속 정책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대기 오염 관리가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력 업계의 가스 탈질/탈황처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2년간의 잠재 시장 예상 규모는 연평균 1,2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국의 가스 탈질/탈황 설비 및 기술은 중국 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광대한 시장을 노려봄직 함.		
	시장동향	- 새로운 가스 배출 표준 규정이 정식으로 실행됨에 따라 강철, 시멘트 등의 업계는 물론, 화력 발전 업계의 가스 배출이 더해져 가스 탈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2.5”계획 기간 탈질 시장 규모는 3천 억 위안에 달함. - 탈질 공정, 저탄소 연소, SCR 및 촉매제 시장 등의 분야에서 우세를 띤 기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룸. 그중 탈질 기술을 갖춘 기업, EPC, BOT 공정과 관련된 기업, 탈질 검사 기업 등이 고속 성장을 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의 탈질 기술은 미국, EU, 일본, 한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임. - 중국의 주요 경쟁 대상으로는 Jiangsu Ruifan Environmental Protection Equipment Co., Ltd (江蘇瑞帆環保裝備股份有限公司)의 SCR 탈질 시리즈가 있음.		
	진출방안	- 중국의 90%이상의 환경 보호 입찰은 중국 기업에게만 자격을 줌. 따라서 한국 기업은 중국의 환경기업과 합작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입찰을 하거나 설비 수출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환경보호 설비는 사용 주기가 기므로 유지 관리가 필요함. 한국 기업은 A/S에도 중점을 두는 기업 정책을 펼쳐야 함. -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A/S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성공 관건임.		

품목명3	HS Code	85365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2,256	대한수입액('14/US\$백만)	96
스마트조명	선정사유	- 2010~2030년간 중국 인구 3억5,000만 명이 도시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城鎮化)'가 진행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스마트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스마트 조명산업의 전망은 밝음. - 스마트 조명은 3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광원의 수명을 3배 이상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력을 높여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임. - 중국의 영향력 있는 포털사이트 치엔잔왕(前瞻网)은 중국의 첨단 스마트 조명시장 규모가 2017년에 2000억 달러(한화 약 203조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시장동향	- 아파트, 빌딩 등의 스마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 조명은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급격하게 성장함. - 2013년 중국 스마트 조명의 시장규모는 10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함. - 2015년 4월 중국 국가주택부와 과학기술부는 제3차 국가스마트시피 시범도시 명단을 공개해 전국에 스마트 시범도시가 총 290에 달함. -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OFweek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스마트조명 시장규모는 430억 위안에 달할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1990년대에 들어 Dynalite, Lutron, Wieland, e-bfb 등 외국기업이 연이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생산공장을 설립함. - 2000년대에 들어서는 TCL, 루이랑(瑞郎), 바이편바이조명(百分百照明), 칭화동광(清華東方), 수어보(索博), Haier 등 중국 기업이 대거 생겨남. - 외국기업은 중국시장에 이른 진출을 한 데 이어 우수한 연구 개발력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 조명시장의 대부분인 71%를 점유 - 체육관,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대형 공공 건축물의 중국 기업 시장점유율은 90% 이상		
	진출방안	- 스마트 홈 건설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조명의 도입이 가속화돼 공용 및 가정용 스마트 조명 분야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 소비자의 스마트 조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스마트 조명 전시회나 판매점을 활용해 신제품 및 우수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등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상승시킬 필요 있음. - 향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기술특허 등을 획득하는 것이 시장선점을 위한 관건이 될 것임.		

품목명4	HS Code	890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245	대한수입액('14/US\$백만)	72
순항선 유람선 페리보트 화물선 부선(barge) 및 이와 유사한 선박 및 탱커(tanker)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선박 및 탱커의 중국 수출액은 7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록 - 2014년,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국 중 2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1.6%)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액의 약 29.3%를 차지 - 중국의 조선사들은 정부정책에 힘입어 저가 중 소형 벌크선위주의 수주에서 점차 고가 및 대형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국 조선관련 기업들의 선진기술 및 제품 중국 수출 가능성이 큼 - 현재 중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낮고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고기술을 요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선박 및 탱커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음		
	시장동향	- 보하이만(环渤海湾),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江三角洲) 3대 조선 기지의 생산량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20대 기업의 생산량이 71.6%를 차지, 산업 집중도가 높음 - 불경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발주가 줄어 기업들간 저가 경쟁으로 인한 타격이 큼 - 중국 선박용 핵심 부품의 기술력 및 현지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조선소 및 유통상의 수요도가 높음		
	경쟁동향	- 중국 조선공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총 1664개의 선박 제조 기업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1541개로서 92.6% 달함 - 중국 중소 조선사는 한국 기업보다 10~15%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저가 경쟁을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며,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 -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입산 선호 현상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조선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진출방안	- 중국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음 등의 적극 홍보 필요 - 한국의 장점인 기술, 정보화, 관리제도 등을 극대화해 고기술·고부가가치 선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기술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해양플랜트, LNG선, 대형 컨선 등)에 더욱 입지를 다지고 기술 연구에 투자해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함 -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중요 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 강화 등 국제규제에 부합하는 선박 제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품목명5	HS Code	847950	수입 관세율(%)	8%
	수입액('14/US\$백만)	905	대한수입액('14/US\$백만)	42(19.9)
산업용 로봇	선정사유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로봇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제로봇연합회(IFR)의 의하면, 2018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 설치량은 세계 1/3을 차지하게 될 것임 - 2015년의 중국 로봇산업은 '중국 제조 2025'(中國製造 2025) 정책과 '강국전략'(強國戰略)에서 제조업 발전의 주요 기대 산업 중 하나로 비중 있게 여겨져 있음		
	시장동향	- 중국로봇산업연맹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산업용 로봇시장은 호조세를 지속, 2014년 판매량은 5만7000대로 2013년보다 55% 늘었으며 전 세계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함 - 2014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로 전년대비 77% 증가함 - 2015년9월 기준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입액은 8,754.8만 달러 달성함		
	경쟁동향	- 중국은 세계 1위의 로봇 소비국이지만 산업용 로봇의 사용 밀도는 전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낮음 - 한국은 산업인구 1만 명당 로봇 437대로,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밀도가 가장 높음. 2위인 일본이 323대, 3위인 독일이 292대인 것에 비해 중국은 30대에 불과해 국제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로봇기업은 530여 개로, 그 중 60여 개가 상장기업임. 로봇 산업단지도 40여 개로 2020년에는 지방의 로봇산업단지 투자액이 5,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진출방안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접, 설비, 자동차제조 등 영역에서는 수입산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술 격차를 보임 - 업계 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활용분야는 여전히 자동차 및 전자업계일 것이며 방산·항공·식품·의약설비 등 분야의 산업용 로봇 점유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품 목 명 6	HS Code	940120	수입 관세율(%)	10
	수입액('14/US\$백만)	51	대한수입액('14/US\$백만)	1
유아용카시트	선정사유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중국 자동차보유량은 2억 6,400만대를 돌파했으나 유아동 카시트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임. - 최근 10년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12% 내외로 매년 평균 1,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특히 2015년 10월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향후 신생아 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시장동향	- 중국 유아용 카시트 보급률은 0.1%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아용카시트는 주로 1, 2선 도시에서 수요가 활발하며 3, 4선 도시에서의 사용률은 낮음. - 1선 대도시뿐만 아니라 2, 3선 도시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산 브랜드를 선택함.		
	경쟁동향	-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아동 카시트 기업은 약 90개, 외국 브랜드가 우세로 고가시장을 점유한 반면 토종 브랜드는 중저가 시장을 차지 - 중국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기업은 일본 콤비(Combi)사로 점유율이 21.1%임. - 중국 로컬브랜드는 주로 1,000위안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며 외국 브랜드는 2,000위안 이상의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함.		
	진출방안	- 소비자가 아동용 카시트를 고를 때 안전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요소는 브랜드로 한국 기업은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야 함. -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카시트 제품의 특성상 가격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높낮이 조절, 벨트, 어깨끈 길이 조정 등을 통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		

품목명7	HS Code	6111 / 6209	수입관세율(%)	14~16
	수입액('14/US\$백만)	1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
영유아의류	선정사유	- 중국은 경제 고속 발전시기로서, 소비자들의 소비의 식과 소비능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가족마다 대부분 자녀 한명만 키우기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의류를 구매하기를 원함. - 2015년 10월 26-29일 개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영유아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영유아 제품 시장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됨.		
	시장동향	- 유아 의류는 고가품과 저가품으로 구분, 도시주민은 주로 고가품을 구매하고 저가품은 주로 농촌 및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구매함. - 1선 도시 주민들은 비교적 큰 백화점 또는 전문적인 영유아 의류 프랜차이즈에서 고가품을 구매함. - 저가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뒤떨어져 있어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배제되고 있음.		
	경쟁동향	- 외국브랜드는 주로 1선도시의 고급백화점에 입점해 있고 로컬 브랜드는 중·저급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음. - 바라바라(巴拉巴拉), 하오하이쯔(好孩子), 샤오주빠나(小猪班纳), 쉐저(萱澤)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바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가방, TWINKIDS, RIOBRAVO, 베비라, 꿈바이꿈, 꼬즈꼬즈, 무크 등이 있음.		
	진출방안	- 현재 중국 시장에는 중·저가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으므로 한국 제품은 고가전략으로 1, 2선도시의 경제력이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는것이 바람직함. - 중국 현재 시장현황에 따르면 한국산 영유아 의류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도시주민으로 한국기업들은 도시에서 전시회를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주민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매체 또는 신문잡지를 통해 자기브랜드를 홍보할 필요성 있음.		

품목명8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3~6
	수입액('14/US\$백만)	12,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79
아동 의약품	선정사유	- 현재 중국은 성인의약품 개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고, 일부 약품은 아동용 의약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성인 복용량보다 줄여 직접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8,000여 종의 약품 중 아동 의약품은 약 300종으로 전체 약품 개수에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해 아동 전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 중국 의약품시장은 소비자들의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다국적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 - 일반 감기약, 기침약 같은 경우는 중약성분이 첨가된 중국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해열제, 정장제와 같은 약품은 외국 브랜드를 선호 - 중국 소비자들의 습성으로 볼 때 부모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아이에게 먹이며 일반 감기약 혹은 기침약일 경우 약국에서 권장하는 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가격대는 20위안 정도이나 수입약일 경우 50위안 이상의 높은 가격대의 의약품도 인기 많음. - 중국에서 의약품에서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싼 가격임에도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음.		
	경쟁동향	- 현재 중국에는 약 10개의 아동전문 의약품 제조업체가 있음. - 해외브랜드는 존슨앤 존슨(Johnson&Johnson), 한미약품, IPSEN이 유명하고 해열제, 정장제, 기침약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함. - 한국제품의 현지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한미약품의 마미아이(妈咪愛)는 중국 아동 의약품 시장에서 강장제 대표약품으로 꼽힘.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 시 단순히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시장 수요에 맞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영업망을 갖추어 마케팅 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9	HS Code	3306109000	수입관세율(%)	10
	수입액('14/US\$백만)	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
의치세정제	선정사유	- 중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노인 인구가 많음. 중국의 주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관념에도 큰 변화가 생겨 실버산업 시장 또한 팽창하고 있음. - 대규모 임상실험을 통해 의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장기간 의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의치 세정제의 필요성이 부각됨. - 이러한 환경 가운데 수입 의치 세정제의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		
	시장동향	- 현재 중국은 1억 명 이상의 노인이 의치를 사용함. 또한 전문적인 의치 세정제 상품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시장 진출 전망이 매우 밝음.		
	경쟁동향	- Y-kelin(雅克菱)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의치 세정제를 판매한 의치 관리 용품 시장의 개척 기업임. 베이징 Y-kelin 바이오 과학기술 유한공사(北京雅克菱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제품을 생산함. -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Y-kelin과 미국의 Polident의 제품임. - 일본 기업인 京東良品、質の恵、小林 등도 일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진출방안	- 한국의 의치 세정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오프라인 판매점, 박람회 참가, 홍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젊은층과는 다르게 노인들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대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상품 배치를 통해 노인층에 신뢰감을 주어야 함. - 여기에 한국 수입 상품에 대한 입소문과 미국, 일본 상품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겸한다면 중국 시장 진출 전망은 밝음.		

품목명 10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
	수입액('14/US\$백만)	2,914	대한수입액('14/US\$백만)	215
화장품	선정사유	- 2014년 한국 화장품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8% 급증했으며 2009년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 흑자폭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중국 10대 화장품 수입국 4위(전년대비 중국 전체 수입액 증가율 68.9%)의 자리를 지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 화장품은 오프라인 유통 방식 외에도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오바오, 티몰, 징둥, VIP 등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어 수입소비재 중 시장 전망이 가장 밝은 대표적인 품목임 - 화장품의 한중FTA 관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으나 올해 6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수입관세가 기존 5%에서 2%로 인하되고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입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시장동향	- 화장품은 오프라인 유통 방식 외에도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오바오, 티몰, 징둥, VI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음 - 최근 웨이신, 웨이보 등 모바일 SNS 플랫폼을 통한 B2C, C2C 방식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 가정주부 등도 모바일 상거래 판매 대리상에 직접 뛰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마스크 팩 등 수입 화장품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향후 소득 증가와 웰빙 수요 확대가 목욕용품(바디케어 제품), 클렌저 제품, 유아용품 남성용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군 수요 견인 전망		
	경쟁동향	- 중국 화장품 시장 80% 이상이 외국브랜드(수출, 현지생산)가 점유, 2014년 상위 15대 브랜드중 2개만이 로컬브랜드(上海家化, 伽藍集團) - 특히 1,2선 도시 중심 경쟁 치열, 중국 주요 로컬브랜드들도 점차 하이엔드 시장을 타깃으로 급성장 중		
	진출방안	- 화장품 시장 진출 시 중국식약청(CFDA)로부터 위생허가증을 획득하여 정식 통관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임. 일반적으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리나 위생허가증을 갖추지 않은 제품은 수입상 및 유통망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소 - 백화점, 마트 등 전통방식 비중 축소와 동시에 전문점, 로드샵 증가. 온라인(해외직구, 내수) 모바일 SNS(微信) 등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이 필요 - 향후 2-3년이 중요하며,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이 단순 수출, 해외직구 방식 위주 뿐 아니라 장기적 현지화 전략 필요		

품목명11	HS Code	3923	수입 관세율(%)	8%
	수입액('14/US\$백만)	1266	대한수입액('14/US\$백만)	296
플라스틱 용기	선정사유	- 2015년 9월 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은 248백만 달러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1위 플라스틱 용기 수입국이 됨 - 락앤락을 필두로 한국산 밀폐용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시장동향	- 소득증가와 중산층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일반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수지나 강화유리 제품을 선호함. 최근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등에 사용가능한 내열강화플라스틱 제품이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음 - 필수생활용품으로서 밀폐용기를 구매하는 일반 가정의 늘어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음. 각종 행사나 통신사, 은행 등에서도 고객 선물용으로 밀폐용기 세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경쟁동향	-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이 강화되면서 한국산 브랜드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함 - 현재 중국에는 약 1500개 정도의 토종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가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저가제품만을 취급함 - 저가시장에서는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높으며, 중·고가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산 제품들이 경쟁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품질과 디자인 방면에서의 강점을 잘 살려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산 저가 유사 제품에 주의하여 상표권 등록 등의 보호 조치 필요 - 최근 중국 내 2, 3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음식물 보관용 랩에 암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 질량감독국이 음식물 보관용 랩에 대한 검사 기준을 엄격히 함 - 용기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입업체가 세관 상품검역검사국에 수입화물통관서 신청해야 함. 수입화물통관증서 신청 시 계약서, 포장리스트, 상업송장, B/L 등 서류가 필요하며 통관 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서, 중문라벨, 상품관련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상품검역검사국은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화물통관증서를 발급함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경제협력)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 FTA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진출 선제적 사업 추진
 - 한-중 FTA 상담회 (1월 /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 * ‘상담회(수출, 기술, 프로젝트 등)+FTA설명회+투자IR+기업 컨설팅’ 등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 문화 마케팅을 통한 국가/기업 브랜드 및 고객 로열티 제고
 - * 한류 상품 박람회 (2-3회 / 베이징, 청두 등)
 - ☞ 대도시 1회 (파급효과) + 내륙도시 1-2회 (한류 활발한 지역)
- 중국 정책 변화에 맞는 시장 접근으로 소비제품 진출 촉진
 - 中 전자상거래 및 O2O가 경제성장 주도 ; 적격 플랫폼과 협력
 - * (주력) Tmall, JD, VIP 등 (신규) 바이두, 쑤닝, 해피고 등 (8회)
 - ☞ (해외직구) 구매액 240억 달러, 이용자 2천만명 ⇨ 연평균 93% 증가
 -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시장 접근성 제고
 - * ‘통관 간소화’ 및 ‘보세구 활용 확대’ 등 현지 세관과의 협력 확대
 - ☞ (칭다오) 해상간이통관 시행 ⇨ 물류비 절감 (텐진) 보세구 직판장 등

□ (수출 新먹거리) 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지역) 미개척·新시장 공략 강화
 -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붐 조성 사업 개최
 - * (동북시장 공략) 한국 우수상품전 (2분기 / 선양)
 - ☞ 中 5중전회 “동북3성 경제발전 강화” / 통일 대비 전략시장 육성 필요
 - * (미개척 시장진출) 한국상품 판촉전 (2회 / 내몽고, 난닝 등)
 - ☞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심 지역 등 미래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선정
 - 현지 유력 유통망 협력 2-3선 내수시장 진출 사업 추진
 - * 유통망 연계 판촉전/입점 사업 (6회)
 - ☞ 청두(이토요카도), 시안(화룬완자), 충칭(충바이), 항저우(렌화) 등

○ (분야) 新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서비스) FTA 이점 활용 (WTO 도하개발어젠다 개방범위보다 우위)

- * 중국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 청두, 샤먼, 다롄 등)
- *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 선전, 항저우 등)
- *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 광저우, 샤먼 등)

- (공공조달) 시장(8천억 달러 규모) 개방 대비 선제적 대응

- * 중국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 서울)
- ☞ 의료,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건설기계 및 농수산물기계 등

-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일대일로 등) 및 환경정비 등 정책수요 연계

- * AIIB 프로젝트 상담회 (2분기 / 서울)
- ☞ KOTRA-AIIB 협약 체결 추진, 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 지원
- * 중국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 우한, 시안)

□ (파트너십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중국기업 협력 강화

○ 중국내 글로벌·대기업 밸류체인 진입 지원 강화

- (수요 발굴) 中 글로벌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 (사업별 바이어 10개사 내외)

- * (3월) 상하이 - 기계/부품 (6월) 베이징 - IT/SW (9월) 선전 - 모바일

- (맞춤형 지원) 中 기업 수요 파악, 개별 기업 밀착지원

- *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10회 / 中 대기업 10개사)
- ☞ 하이얼(中 최대 가전), 화웨이(글로벌 3대 스마트폰), AVIC(中 최대 항공기제조) 등

▶ “中 모바일 S/W 기술 부족, 기술력 높은 한국기업 미팅 희망” (Oppo / 中 6위)

○ 中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對韓 투자유치 확대

- 국가 IPO로서 對中 투자유치 플랫폼 역할 수행

- * 국가 투자환경 설명회(IR) (2-3회 / 베이징, 상하이 등)
- ☞ ‘한-중 FTA’ 통해 한국을 글로벌 진출 Gateway로 활용하도록 유도

□ (기업역량 강화) 對中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 특허(상표) 등록 등 지원

- * (인증서) 의약/화장품, 전자기기 등 인증 필요기업 대상
- * (특 허) 지재권 보호 필요 분야 등록/침해 지원

○ 대중 수출 '신수종(新樹種)' 품목 개발 및 '수출 길잡이' 사업

- '중국 미래산업 백서(정부정책, 발전현황 및 전망, 주요 기업 등)' 심층 조사

- * 한국의 對中 수출 감소하는 가운데, 中 10대 산업 육성정책 분석
- ☞ '新수출 주력 품목' 발굴을 통한 對中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중국 8대 권역별 중국인의 소비성향' 기획 조사

- * 중국 시장진출 시 성향에 따른 타겟 시장 선정 등 기업 전략 수립 지원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FTA 활용 중국진출 촉진	한-중 FTA 상담회	1분기	서울 및 지방 주요도시
	한류 상품 박람회	年 1-2회	베이징, 청두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상담회 (Tmall, JD, VIP, 바이두, 쑤닝 등)	年 8회	상하이, 광저우 등
내수시장 진출 확대	한국 우수 상품전	2분기	동북지역
	한국상품 판촉전	年 2회	내몽고, 난닝 등
	유통망 연계 판촉/입점 (화룬완자, 렌화, 이토요카도 등)	年 6회	시안, 청두, 항저우 등
	프랜차이즈 사절단	1분기	청두, 샤먼 등
	메디컬 파트너링 사절단	2분기	선전, 항저우 등
	콘텐츠/애니메이션 사절단	3분기	광저우, 샤먼 등
	공공조달 플라자	3분기	서울
	환경시장 진출 로드쇼	2분기	우한, 시안
중국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기업 네트워킹 상담회	年 3회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年 10회	-

* 이 외에 '무역사절단 60여회' 및 '전시회 40여회' 등 추진 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일본 진출전략

kotra
일본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37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237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239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240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241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242
II. 진출환경 분석	24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244
2. 경제 환경	246
3. 산업 환경	247
4. 정책·규제 환경	24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251
III. 시장 분석	254
1. 수출	254
2. 투자진출	260
IV. 시장진출전략	266
1. 진출전략 개관	266
2. 세부 진출전략	2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286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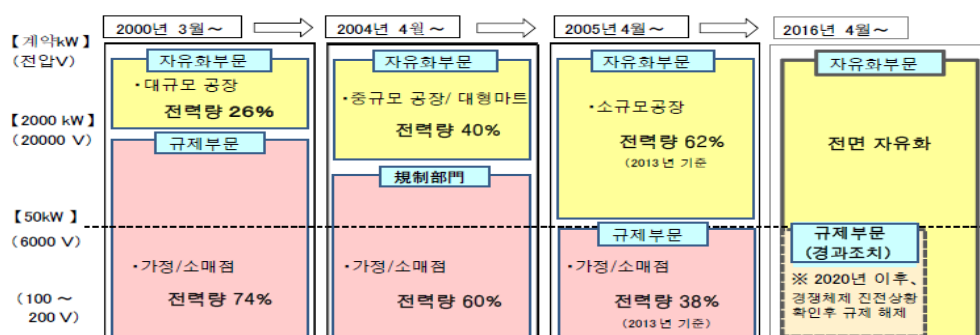
- ▶ '16.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전망
- ▶ '16.1월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 → IT 보안 관련시장 확대 예상
- ▶ '17.4월 소비세를 재인상 → '16년 재인상 전의 고가 소비재 중심의 선취 수요 확대
- ▶ 제2차 아베노믹스 개시 →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시행에 총력 집중 기대
- ▶ '16년 TPP 서명 예정 → 일본 이륜차, 자동차 국내생산 증가 가능성 다대

1. 전력소매 완전자유화로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 개시('16.4월)

- 일본 정부,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시스템 3단계 개혁 돌입
 - (1단계) '15년, 광역계통 운용 확대를 위한 '전력광역적운영 추진기관' 발족
 - * '13.11월 법안 성립, 전력 수급 지역 기반 관리를 넘어 안정적 전력 수급 체계 강화 목적
 - (2단계) '16.4월, 전력 소매와 발전의 전면 자유화 실시
 - * '14.6월, 법안 성립
 - (3단계) '20년,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 송배전 부문 법적 분리, 중립성 확보
 - * '15.6월, 법안 성립
- 전력소매 완전자유화에 따른 전력시장 지각 변동 예상
 - 희망자 누구나 전력 공급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일반 가정 등 전력 수요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
 - 일본 전력소매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5년 기준 공장·빌딩 등 고압 전력 수요자만이 자유화 대상
 - * 가정용 등 저압전력 이용대상 도쿄전력 등 10개 일반 전기사업자만이 지역별 독점 공급 중
 - '16.4월부터 저압 수요자 대상까지 전력 소매사업 실시가 가능
 - * 저압 전력시장 : 시장규모 약 7.5조 엔, 전국 약 8,420만 가정, 상점 등이 잠재적 대상

<일본 전력소매 자유화 진행 상황>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15.11월 발표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전력 소매시장 신규진출 급증

-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기회를 겨냥한 다양한 사업자의 PPS 등록 증가
 - 등록 PPS수 : 62개사('12.7월) → 468개사('14.12월) → 710개사('15.7월)
 -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Power Producer and Supplier) : 별도의 자사 전력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 기존 전력 회사 보유 송전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 PPS 등록 710개사 중 실제 전력 소매사업 진행 중인 사업자는 82개사로, 등록 사업자 다수가 시장 상황 관망 중
- 전력사와 이업종 기업간의 제휴 확대 및 새로운 전력 판매모델 출현
 - * 도쿄전력과 소프트뱅크 제휴, 전기와 통신을 세트로 한 저가상품 판매 예정

□ 전력소매 자유화 실행을 위한 관련 기자재 시장 확대

- 전력량 측정을 위한 전력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 전국 10개 전력 회사는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 교체 완료를 목표로 설정,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전지, 통신 모듈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 * 전력 스마트미터 : 시간대별 측정된 사용량 정보를 송신, 시간대별 요금 확인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 계측기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시장 확대 기대
 - '14년 이후 관련 기업들 고기능 제품 투입 추진, 추후 중소 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의 추가 수요 예상. 측정 전력량이 적은 저가 제품 출시 등 관련 시장 확대 기대
 - * 전력 수요 제어시스템 : 최대 전력을 모니터링, 사용 전력의 계약 전력 이상 상승 시 전자기기 제어

□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전력산업 투자 확대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 등록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 확대
 -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자체의 PPS 직접 설립 및 신규 발전 설비 투자 증가세
 - * 군마현 오타시, PPS 오타전력 설립, 태양광발전소 설비 추가 설치 추진
 - ** 후쿠오카현 미야마시, PPS 미야마스마트에너지 설립, 태양광발전소 설비 구축 완료
 - 민간 관련기업의 PPS 사업 참여 및 발전소 건설 사례 등장
 - *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 PPS사업자 등록, 자체 정유소 내 화력발전소 건설

2. 마이넘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IT 보안시장 확대

□ 한국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작 (’16.1월)

- 사회 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시 마이넘버 (개인 및 법인에 부여된 12자리 번호) 기재 의무화
-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대책 등과 관련 신속한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

- 2013년 5월 : 마이넘버제도 성립
- 2015년 10월 : 개인 대상 번호 부여
- 2016년 1월 : 건강·고용보험, 세금 및 재해대책 분야 관련, 마이넘버 제출 필수
- 2018년 이후 : 금융 및 의료분야 선택적 사용 가능 예정

□ 일본 정부, 핵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유출 방지에 주력

- 일본연금기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마이넘버 도입 시의 정보보안 중요성 대두
- 동 기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준비 강화 필요성 대두 및 ’16.1월 시행 예정이었던 연금분야 마이넘버제 도입 연기
- 사이버보안기본법 토대, 일본정부의 다양한 마이넘버 관련 보안 강화 움직임
- 총무성,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정비 필요 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 설정
- * 지자체 간 중간서버 연결 단말기 네트워크 부분의 엄격한 보안 조치 요구

□ 보안 솔루션 등 ICT 시장 확대 전망

- 일본 정부 및 지자체, 마이넘버 관리 관련 시스템 발주 증가
- 중앙부처 시스템 구축 약 1,500억 엔, 지자체 시스템 2,900억 엔 규모 추정
- 마이넘버 보관 및 운용 관련 보안 시장 지속 성장 기대
- 소속 직원의 마이넘버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 * 日 정보보안 시장규모 전망 : (’14년) 3,594억 엔 → (’18년) 4,712억 엔
- 방어벽 및 부정접속 감시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등 일반적 보안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 및 ‘샌드박스 장치’^{*}와 같은 신규 보안 대책 수요도 증가
- * 샌드박스 장치 : 외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구동하여 메인 시스템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장치
- ’18년부터 금융 및 의료분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 시 보안솔루션 추가 수요 발생 예상

3. 일본 소비세율 재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 예상

□ '17.4월, 아베정권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

- 아베 정권, 정부부채 해소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14.4월 17년 만에 소비세율 인상 단행 (5→8%) 및 제2차 소비세율 인상 예정('17.4월)
- '14년 소비세율 인상 직전, 일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8.5%까지 성장하는 등 대폭적 소비 진작 효과 거양
- 자동차 등 대형 내구재 및 고액물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수요 제고

□ 소비세율 인상전 선취 수요 확대 전망

- '17.4월 제차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증세를 피하기 위한 선취 수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4.4월 소비세율 인상 직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는 '14년 말부터 점차 회복으로 반전, '15년내 일정 수준(소비자 심리지수 40포인트 수준) 유지
- 소비세 재인상을 앞둔 '16년도에 1차 소비세 인상시에 필적하는 소비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소비자 수요 증가 전망

- 소비금액이 큰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선취 수요 확대
 - 가구, 자동차, 백색가전 등,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량 집중 증가 전망
 - * '14년 소비세 인상 직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휴대폰 등 5개 가전제품 판매량 급증 (일본 내각부 발표)
 - 선취 수요 특수 활용 위해 일본 제조·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연장, 소비세 인상 이전 제품구입 권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예상
- 한국 對日수출에도 호조로 작용 기대
 - 선취 수요 확대 영향으로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과 철강, 자동차부품, 휴대폰 관련제품, 고무제품 등의 기초중간재 수출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소비세 인상 직후 큰 폭의 경기위축 발생 가능성 상존 및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 1차 소비세 인상 직후인 '14.2분기 일본경제성장률 △7.5% 기록
 - **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세금 추후 환급 또는 생활필수품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 검토 중

4. 아베 3기 내각 출범 및 ‘아베노믹스 2.0’ 추진 본격화

□ 아베 3기 내각 발족, 국내 경제 활성화에 정책 총력 기대

- 일본 아베정권 3기 내각 출범 (‘15.10월)
 - ‘14.12월 발족된 아베 2기 내각에서 일부 인사가 교체된 수정내각
 -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추역할을 담당해 온 3인(관방장관, 재무장관 겸 부총리, 경제·재무장관)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연속성 유지 의지 천명
 - 안보법, TPP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따라 ‘16년에는 경제정책에 역량 집중 예상
 - 안전보장(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개정안 통과(‘15.9월), TPP타결(‘15.10월)에 따라, 향후 일본 국내경제 활성화에 내각 역량 집중 전망
- * “앞으로는 경제가 최우선이다.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 (‘15.10.7, 아베총리)

□ ‘아베노믹스 2.0’ 추진계획 발표

- 제 1차 아베노믹스,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일부 긍정적 효과 거양
 - (아베노믹스 목표)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통한 저성장(디플레이션) 탈출 및 2% 물가상승
 - 정책 초기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 실시를 통해 엔고 극복, 주가상승, 수출대기업 실적 개선, 취업률 확대 등 부분적 성과 창출
-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1억 총활약사회’ 제안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통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 구축이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세 개의 화살’을 새롭게 설정

□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과도한 목표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

- 새롭게 설정된 ‘세 개의 화살’
 - (강한경제) 약 490조 엔(‘14년) 수준의 GDP를 ‘20년 600조 엔으로 확대
 - (육아지원) 1.42인 출산율을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확대
 - (사회보장) 2020년대 초 개호(병간호)로 인한 퇴직 제로화
- 실행 계획 없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는 일부 지적
 - 매년 3%대 고성장을 달성해야 ‘21년 GDP 600조 엔 달성 가능 (현재 성장률 1%대)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소비세율 재인상 예정(‘17.4월)인 시점에서 육아, 개호(의료) 등 복지 분야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5. TPP 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 TPP 협상 타결로 지구촌 최대 경제 공동체 탄생

- 인구 8억 명, 세계 GDP의 약 40%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
 - 세계 제1위,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 '15.10.5 협상 개시 후 5년 반 만에 타결, 발효까지는 1~2년 소요 예상
 - * '16.1월 협상 참가 12개국이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에 서명할 전망
-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자율화율 약 95%. 특히 자동차 등 공산품은 99.9% 품목에서 궁극적 관세철폐 합의
 - * (즉시 철폐율) 품목 기준 86.9%, 금액 기준 76.6%, (관세 철폐율) 품목 기준 99.9%, 금액 기준 99.9%
 - (역내 규칙정비) 역내 국가간 기업 활동 활성화 위해 투자규제 등 대폭 완화
 - *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 투자, 월경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SPS 등 비관세장벽,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
 - 원재료의 일정비율 이상(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 TPP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주요 산업별 영향

- 관세철폐 효과만 고려한 일본 정부 추산 경제효과는 실질 GDP 3.2조 엔 증가
 - 투자규제 완화 등 역내 규칙정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대폭 확대 추정
 - * TPP의 일본경제에 대한 효과는 연간 GDP의 2%인 10조 엔 (美 브랜다이스大 Petri 교수)
- (공산품) 관세 철폐율이 높은 품목군으로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전망
 -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대폭 상승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 * 북미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제이텍트(JTEKT) 임원, “수익 반등 기대”
- (농산물) 쌀 농가 등 타격 예상되는 한편, 일본 농산물 해외 수출기회도 기대 가능
 - 쌀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농가의 반발. 그러나 와규(일본산 소고기) 수출한도 6,250톤(현재의 30배 이상)으로 확대 등, 일본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 가능
- (기타) 대형 이륜차(2.4%), 공작기계(2.2~4.4%)는 발효 5년 후 철폐

□ 주요 산업별 움직임

- 일본 유통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 TPP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편의점 출자규제와 외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통소매 기업의 해외진출에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 활로를 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관련 규제 정비 환영
 - *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 매장 오픈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 (Family Mart)
- 공급망 재편 가능성
 - TPP에 참가하지 않은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 다대
 - * 일본 의류 수입의 7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나, 베트남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경우 관세 철폐 혜택이 커짐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 일본 국내생산 확대도 가능
 - 발효 5년 후 대형 이륜차 관세 철폐는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이륜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자동차 부품 55% 이상의 역내 조달 등을 규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도 일본 국내 생산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 케이힌(엔진 부품기업), 베트남용 이륜차 부품 생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016년 주요 일정

- TPP 서명(잠정) : 2016.1월
- 2016년도 예산안 각의 결정 : 2016.1월
- 일본 도쿄 제17회 국제 전자 부품 전시회 : 2016.1.13~15
- 제81회 도쿄 국제 선물 용품전(기프트쇼) : 2016.2.3~5
- 개정 노동기준법 시행 : 2016.4.1
- 한·중·일 정상회담(잠정) : 2016.5월
- G7정상회의 : 2016.5월
- 한일 국교 정상화 51주년 : 2016.6.22
- 일본 참의원 선거 : 2016.7월
- 도쿄 반도체 박람회(Semicon Japan 2016) : 2016.12월

II

진출환경 분석

- ▶ 명목 GDP는 감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
-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에 빛나는 기술 대국으로 제조업이 견인하는 나라
- ▶ 고령화를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 무역자유화율은 한국 대비 부진하나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중
 -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22.3%, 교섭중 국가와의 비율 62.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의 교역 대국

- 명목 GDP 축소세이나 여전히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대국
 - 일본의 명목 GDP는 4.21조 달러로 한국(1.43억 달러)의 2.9배 수준
 - * 미국 18.1조 달러, 중국 11.2조 달러 (IMF, 2015)
 - GDP 대비 무역 비중은 32.7%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시장
 - * 한국(81.2%), 프랑스(42.5%), 중국(40.2%), 미국(22.8%) (UNCTAD, 2014)
- '14년 교역규모는 총 1조 5,060억 달러로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4번째 규모
 - 수출액 6,838억 달러(△4.4%), 수입액 8,222억 달러(△1.3%)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일본 수출 주력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부품, 과학광학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LNG, 의류, 전자부품, 통신기, 석유제품 등

□ 제조업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 일본이 세계 1위 (2013년 발표)
 - * 일본(1위, 0.5409점), 독일(2위, 0.5176점), 미국(3위, 0.4822점), 한국(4위, 0.4044점) 순
- 일본은 선진국 중, 독일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 * 독일 22.2%, 일본 18.5%, 미국 12.4%, 영국 9.7%, 한국 31% (World Bank, 2013)
- '14년 포춘 500대 기업 중 일본기업 57개사 (그 중 제조업 2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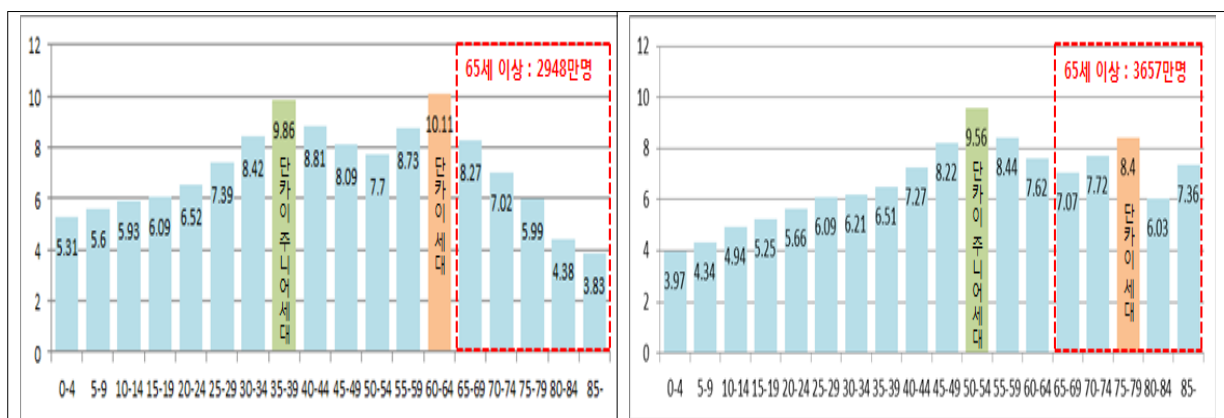
□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21명을 배출한 세계적 기술 대국

-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
 - '14년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입액은 연간 18조 1,000억 엔으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 * GDP 대비 연구비 비중은 한국 4.15%에 이은 세계 2위 수준(3.75%) (일본 문부성 과학기술요람 2015)
 - '14년 연구자 총수는 약 84만 명으로 중국, 미국의 뒤를 이어 3위
 - * 인구 1만 명당 연구자수는 **일본이 66.2명으로 세계 1위** (한국이 64.1명으로 2위)
 -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과학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
 - * '13년 전세계 과학기관 상위 100개 중 일본 연구기관 6개(중국 6개, 한국 1개) (네이처 출판 인덱스)
- '14년 신기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2위
 - 미국에 이어 약 4만 2,000건 특허 출원 기록 (이하, 중국, 독일, 한국 순임)
 - * 자료원 :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2014년 특허 국제출원 건수'

□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로 전세계 고령화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 일본 총인구는 1억 2,700만 명으로 '60년에는 '10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4만 명까지 감소 전망이며, 고령화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
 - '10년 기준 고령화율(23%) 세계 1위,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 * 자료원 : 일본 총무성 '14.10월 발표자료 및 내각부 2015 고령사회백서

<2010년 → 2025년 일본 연령계층별 인구분포>



* 자료원 : 일본정책투자은행

- 고령자 급증과 함께 향후 고령자 소비가 일본 전체 소비시장 견인 전망
 - 고령자용 휴대전화·가라오케, 식품, 고령자용 여행상품 등 전산업에 걸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추세
 - * '12년 일본 고령자 시장규모 약 100조 엔으로 매해 1조 엔 규모로 확대 전망 (닛세이 기초연구소)

2. 경제 환경

□ 강력한 회복세 기대 어려우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15년 2분기 실질 GDP, 3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민간 소비지출, 기업설비투자 부분에서의 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영향
 - * '15년도 분기별 실질경제성장률(전기비) : 1.1%(1분기) → △0.3%(2분기)
- '16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한 1.7% 성장 전망 (내각부)
 - '16년 하반기에는 '17.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취 수요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경기 회복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 * 일본 민간연구소(13개사) 평균 1.65% 성장 예상

□ 연료 재고조정으로 인한 연료 수입 대폭적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입확대 요인이었던 에너지 수입증가 일단락 및 전반적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일본 무역 적자폭 축소
 - * 일본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13년) △1,197 → ('14년) △1,228 → ('15.1~8월) △214
- 중국 등 신흥국 경기 감속으로 엔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출회복세 기대 난망
 - * 일본 수출 추이(수량, '10년 기준) : ('12년) △4.8% → ('13년) △1.5% → ('14년) 0.6% → ('15.1~8월) 0.6%

□ '15.2분기 일본 경제지표 약세 시현, 향후 견조한 추이 전망

- (개인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임금 상승 추세로 '15.7월, 27개월 만의 실질임금 0.3% 증가(전년동기대비) 기록
 - * '15년 임금 베이스업(기본급 인상) 전년대비 0.69% 기록, 여름 상여 3년 연속 증가 기록
 - 다만, '15.2분기, 일기불순에 의해 개인소비 4분기 만에 감소세 시현
 - * 日 개인소비 추이 : ('14.3분기) 0.3% → ('14.4분기) 0.3% → ('15.1분기) 0.4% → ('15.2분기) △0.7%
- (고용) 유효구인율 1.23배로 22년 만의 최고치 기록 등 고용환경 개선 추세
 - * 日 완전실업률 추이 : ('13년) 4.0% → ('14년) 3.6% → ('15.1~8월) 3.5%
- (설비투자) 양호한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일본 국내 재고조정 장기화, 중국경제 감속 우려 등으로 설비투자 보류 또는 관망 기업 증가, 설비투자 3분기 만에 감소
 - * 日 설비투자 추이 : ('14.4분기) 0.1% → ('15.1분기) 2.6% → ('15.2분기) △0.9%
 - 다만, 엔저 및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반영 본격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향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전망

3. 산업 환경

□ (자동차) 북미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

- 리먼 쇼크 이후 일본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000만 대 전후로 추이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글로벌화가 확대**
 - 2000년대까지 북미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확대
 - * 일본 자동차 해외생산 추이(만 대) : ('90년) 326 → ('00년) 629 → ('14년) 1,747 (일본자동차공업회)
- 자동차 수출대수는 '12년 이후 엔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리먼쇼크 이전 대비 부진
 -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부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일본 자동차 수출증가율(전년대비) : ('12년) 8% → ('13년) △3% → ('14년) △4% (일본자동차공업회)
 - 일본 자동차 제조사의 서플라이체인 다양화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입은 증가세
 - * 일본 자동차부품 수입추이(억 달러) : ('12년) 69.8 → ('13년) 71.9 → ('14년) 77.5 (JETRO)
- '15년도는 일본 국내 생산 감소 등이 우려되지만 북미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사 수익 증가 전망

□ (석유제품) 일본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수요 감소 지속

- '14년도 일본 석유제품 수입은 3,560만kl로 전년대비 1.9% 감소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이동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요 감소 전망
 - * '30년 日 석유 관련제품 수요는 2000년 대비 85% 수준 예측 (경제산업성, '2030년 에너지 수급전망' 발체)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유소 장기 가동정지 및 석유화력발전 가동 증가 영향으로 가솔린 등 석유제품 수입량 급증
 - '10년 이후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
- '15년도는 일본 경기회복 및 원유시장 안정 등이 석유수요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연료유 수입은 288만kl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전년 수치를 상회
 - * 자료원 : 경제산업성, '석유통계 15.8월 속보'

□ (전자부품) 자동차, IoT 관련 수요 견조하나 R&D 비용이 높아 경쟁 격화

-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엔저 현상이 경쟁력 유지에 기여
 - 높은 소재기술, 고객 수요에 대한 세심한 기술대응력, 해외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일본 전자부품 제조기업 경쟁력의 원천
- * 日 전자부품 생산추이(억 엔, 전년대비) : ('13년) 23,138(△5%) → ('14년) 24,301(5.1%) → ('15.1~8월) 17,153(10.3%)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15년도는 신흥국 위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예측되지만, 최종제품 업체간 경쟁 격화, 교체주기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가시화
 - 반도체 역시 스마트폰 위주로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DRAM 가격의 하락세 진입 등으로 성장 속도 둔화
 - 향후 스마트폰 수요를 대신하여 자동차용 전자부품이 업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설비투자, 유지보수 등 견조한 수요 지속

- '14년도 일본 일반기계 생산액 13조 8,382억 엔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세 시현
 - 금융완화, 엔저에 따른 수출증가, 유가 하락, 설비투자 감세정책에 따른 효과에 의해 '13년도부터 일본 일반기계 회복세 전환
- * 日 일반기계 생산 추이(조 엔, 전년대비) : ('12년) 12.7(△5.5%) → ('13년) 13.4(7.2%) → ('14년) 13.8(3.2%)
(일본 기계공업연합회)
- '15년도는 제조업 강화 각종 정책 지속에 따른 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 기대, 노후설비 등의 유지·갱신 수요 표면화로 견조한 기계수요 추이 예상
- * '15년 일반기계 생산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4조 2,979억 엔 추정 (일본 기계공업연합회)

□ (식품) 경기회복 등으로 소비 증가 기대 속 절약지향형 소비 등 부정적 요인 존재

-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7월 기점으로 상승세, '14년도는 소비세 증세를 계기로 4월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
 - 경기 회복 및 일부 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증세 등에 기인
- * 가구(2인 이상)당 식료품지출액 월평균 추이(엔) : ('12년) 67,275(0.5%) → ('13년) 68,604(1.9%) → ('14년) 69,926(1.9%)
(일본 총무성)
- '15년도는 즉석 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가격인상 실시로 가격 면에서의 매출 확대 효과 기대
 - 다만, 소비자의 절약지향형 소비 선호, 소매업계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가격 인상 효과의 일정 부분 상쇄 우려

4. 정책 · 규제 환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

-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 대담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은 실물경기 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하는데 성공했으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일본경제를 탈피시키기에는 미흡
 - * '14년도 경상이익(전규모·전산업)은 64.6조 엔의 사상최고치 기록 (법인기업통계)
 - ** 잠재성장률 : '01~'10년(평균기준) 0.8%, '12년 이후 0.6% 내외(내각부)
 - 성장전략은 금융과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회복세를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일본재흥(再興)전략 JAPAN is BACK’으로 명명
 - '15.6월, ‘일본재흥(再興)전략 개정 2015’ 의결
 -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수요 부족 해소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를 지나 인구 감소 하에서 공급 제약 극복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2단계에 돌입

<성장전략 개정 2015의 세 가지 핵심시책>

시책 구분	내 용
미래투자를 통한 생산성 혁명	▶ 생산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 기업 지배 구조 강화 - 주주 대상 정보 공개 촉진 - 성장지향적 법인세 개혁 • 혁신 벤처의 창출 - 실리콘밸리와 일본 가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벤처챌린지 2020 추진 • 아시아 등 신흥시장 도전 -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추구 ▶ ‘제4차 산업혁명’ 신시대 도전 가속화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 - 보안대책 근본적 강화를 토대로 한 마이넘버 활용 확대 등 IT 활용 ▶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한 개인 잠재력 발현 지원
로컬 아베노믹스 추진	▶ 중견·중소·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강화 - 사업자 대상 일체 지원 거점 강화 ▶ 서비스산업 활성화 - 지역 금융 기관 등에 의한 경영 지원 민관 협력 생산성 향상 운동 ▶ 농림수산업, ICT활용 의료·개호, 관광산업 기간산업화 ▶ 민간-공공부문 파트너십(PPP/PFI)을 통한 신사업 창출
「개혁2020」 성장전략을 가속하는 민관프로젝트 시행	▶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솔루션 수출 - 차세대 교통시스템, 자동주행, 분산형 자원활용, 로봇 등 ▶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환경정비 ▶ 대일직접투자 확대와 사업환경 개선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 일본 3대 국제 통상 전략 전개

- 세계 경제연계망, 다각적 자유 무역 체제 구축
 - 국제 통상을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성장시장 개척
 - TPP뿐만 아니라, RCEP, 한중일 FTA, EU EPA 등 다각적으로 경제연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커버하는 경제연계망을 형성
-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 (1)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2)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3)자원공급 확보를 각국 특성에 따라 전략적·중점적으로 추진
 - 경제발전 수준, 일본기업 진출현황, 타국기업 등과의 경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중국·ASEAN/서남아시아·중동·러시아·중남미/아프리카 3개 그룹으로 분류, 개별 중점분야를 특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 대내 직접투자 촉진
 - 외국 기업의 경영 자원 유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 규제 및 제도 개혁, 법인세 개혁 등의 사업 환경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강화 진행 중

□ 경제연계망 구축 현황

- TPP타결로 한국대비 부진하던 일본의 EPA/FTA 추진 급물살

<일본 EPA(경제협력협정)/FTA 추진 현황>

구분	국가 및 지역
기체결 (14개국/2지역)	(발효)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타결) 몽골, TPP
협상중 (3개국/4지역)	(협상중)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EU, RCEP, (협상재개 여건조성) 한국, GCC
검토중 (1개국/1지역)	뉴질랜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 무역총액 중 EPA/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 ('15.1~9월, 9,617억 달러 기준)
 - 기체결 지역과의 무역규모 : 38.6%
 - 협상 중 지역과의 무역규모 : 66.7%
 - 검토 지역과의 무역규모 : 73.7%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수출입

□ 한일 교역,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기록

- 엔저 심화, 양국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양국 교역 지속적 감소
- 한국 수출 및 수입에서의 일본 비중도 '11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시현

<한일 교역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對日 수출			對日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對日
2011	39,680	7.1	40.8	68,320	13.0	6.3	△28,640
2012	38,796	7.1	△2.2	64,363	12.4	△5.8	△25,567
2013	34,662	6.2	△10.7	60,029	11.6	△6.7	△25,367
2014	32,184	5.6	△7.2	53,768	10.2	△10.4	△21,584
'15.1월~9월	19,374	4.9	△20.6	34,954	10.6	△13.4	△15,58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엔저 본격화 된 '12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5.1-9월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 석유제품(△47.9%), 철강판(△31.2%), 무선통신기기(△14.4%) 등 10대 대일 수출품목 전반적으로 부진
 - *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중국의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원자재 수출 부진 요인
- 엔저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했던 **자동차부품 수출도 감소로 반전**
- 대일 수출기업 엔화 결제비중 높아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 * 엔화결제비중 : ('12년) 51.4% → ('13년) 46.9% → ('14년) 48.5% → ('15.1~6월) 49.6%

□ 한국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11년 683억 달러를 정점으로 대일 수입 감소세 지속
 - * 대일수입 추이(백만 달러) : ('11년) 68,320 → ('12년) 64,363 → ('13년) 60,029 → ('14년) 53,768
- '15.1~9월 대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
- 10대 수입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를 제외한 9개 품목이 모두 감소
 - * 반도체 호황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 확대 : 제조장비(23.9%)

<대일 수출 품목 상위 10개>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석유제품	8,442	△1.8	24.4	6,462	△23.5	20.1	2,640	△47.9	13.6
2	철강판	1,991	△21.5	5.7	2,126	6.8	6.6	1,167	△31.2	6.0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6.9	2,011	△16.0	6.2	1,231	△14.4	6.4
4	반도체	2,246	△15	6.5	1,888	△15.9	5.9	1,380	△2.3	7.1
5	금은빛백금	1,058	△20	3.1	955	△9.7	3.0	701	△1.8	3.6
6	자동차부품	801	26	2.3	884	10.3	2.7	614	△8.9	3.2
7	플라스틱 제품	851	△136	2.5	817	△4.0	2.5	543	△12.9	2.8
8	합성수지	831	△54	2.4	807	△2.8	2.5	476	△24.6	2.5
9	정밀화학원료	712	△34	2.1	760	6.8	2.4	487	△15.5	2.5
10	주단조품	501	△153	1.4	534	6.7	1.7	355	△11.3	1.8
10대 품목 합계		19,828	△106	57.2	17,244	△13.0	53.6	9,594	△27.3	49.5
총 계		34,662	△10.7	100.0	32,184	△7.2	100.0	19,374	△20.6	100.0

<대일 수입 품목 상위 10개>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3			2014			2015(1~9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5,111	11.5	8.5	4,286	△16.1	8.0	3,078	△0.8	8.8
2	철강판	3,658	△21.4	6.1	3,360	△8.1	6.2	1,809	△29.9	5.2
3	플라스틱 제품	3,264	△17.0	5.4	2,838	△13.1	5.3	1,761	△18.6	5.0
4	기초유분	2,292	72.9	3.8	2,658	16.0	4.9	1,574	△20.8	4.5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3.2	2,080	7.9	3.9	1,836	23.9	5.3
6	광학기기	2,089	△14.7	3.5	1,815	△13.1	3.4	1,094	△16.2	3.1
7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0	3.6	1,664	△23.8	3.1	714	△47.7	2.0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2.8	1,477	△12.2	2.7	895	△22.0	2.6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2.2	1,336	△0.6	2.5	882	△12.6	2.5
10	석유제품	1,873	21.4	3.1	1,282	△31.5	2.4	433	△57.8	1.2
10대 품목 합계		25,427	△8.5	42.4	22,796	△10.3	42.4	14,076	△18.0	40.3
총 계		60,029	△6.7	100.0	53,768	△10.4	100.0	34,954	△13.4	10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순위는 2014년 기준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

□ '15년 상반기 9.73억 달러 대일 투자유치, 전년 동기대비 대폭 감소

- 일본 '15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투자는 9억 7,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3% 감소
- '15년 상반기, 일본 기업의 대규모 한국 투자 거의 전무

<대일 투자유치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0	'11	'12	'13	'14	'15.2분기	증감률
일본	금액	20.8	22.9	45.4	26.9	24.9	9.73	△ 15.3
	비중	15.9	16.7	27.9	18.5	13.1	11.0	-
전체	금액	130.7	136.7	162.6	145.5	190.0	88.71	△ 14.2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nvest Korea 투자통계 (신고기준)

○ 비제조업 비중이 제조업 대비 현저하게 높은 구조

- '15.2분기 기준, 일본의 대한투자는 비제조업과 제조업 비율이 각각 57%와 43%

<산업별 · 형태별 투자유치 실적 ('15년 상반기)>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M&A		그린필드		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제조업	43	△ 78.3	341	△ 16.2	384	43.0	△ 36.5
비제조업	110	84.1	398	△ 17.3	508	57.0	△ 6.1
계	153	△ 40.7	740	△ 8.0	892	-	△ 22.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Invest Korea 투자통계 (신고기준)

□ '12년 이후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금액 지속 감소

- 일본의 '14년도 전체 해외투자는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감소
- '14년도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4.3% 감소
- * 對中(△26.9%), 對美(△3.6%) EU(△20.6%) 투자 감소 등 주요국에 대한 투자 전반적으로 감소
- '15년 상반기 대한투자 역시 전체 비중은 '14년 2.6%에서 1.7%로 축소됨

<일본의 해외투자 중 한국 비중>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0	'11	'12	'13	'14	'15.상반기
對 한국	금액	10.8	24.3	39.9	32.9	31.5	11
	비중(%)	1.9	2.2	3.3	2.4	2.6	1.7
전체	금액	572	1,088	1,223	1,350	1,197	640

* 자료원 : 기재부, JETRO 통계 (국제수지 기준)

III

시장 분석

- ▶ 연료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연료수입 대폭 감소 → 일본 전체 수입 감소세
-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가운데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 자주적 인증제도 등 타국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다수 존재
-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등이 대일 투자진출 주요 저해요인

1. 수출

□ (일본 수입시장) 연료수입 대폭 감소로 전체 수입 감소세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한 연료 수입 증가 영향으로 '12년 일본 최대 수입 기록(8,858억 달러) 이후 점진적 수입 감소세
 - 일본 국내 연료 재고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유가하락 등의 영향에 기인
 - * 일본 수입규모 추이(억 달러) : ('12년) 8,858 → ('13년) 8,326 → ('14년) 8,129 → ('15.1~8월) 4,377
- 일본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 지속 증가 및 자원국 점유율 감소세
 - 연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자원 수출국 점유율 하락 및 한국 점유율 순위 상승
 - * 일본 수입시장내 한국 순위 : ('12년) 6위 → ('13년 및 '14년) 7위 → ('15.1~8월) 4위
 -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인 대만의 일본 시장내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일본 수입시장내 국별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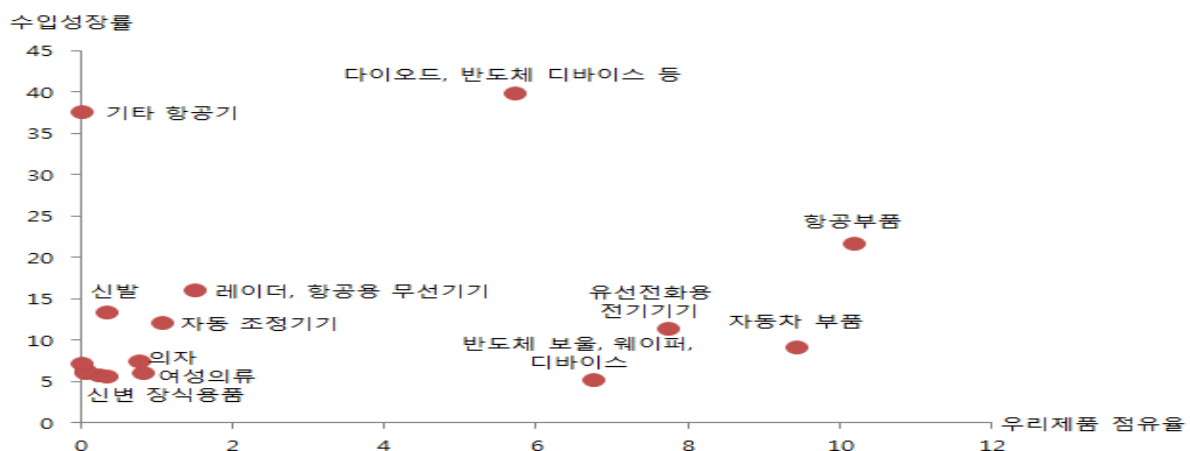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1~ 8월	시장 점유율(%)			2015 1~ 8월 증가율
					2013	2014	2015 (1~ 8월)	
	전 세계	832,628	812,954	437,702	100.0	100.0	100.0	△20.6
1	중국	180,841	181,039	104,538	21.7	22.3	23.9	△11.3
2	미국	69,825	71,386	45,419	8.4	8.8	10.4	△6.3
3	호주	50,990	48,176	24,189	6.1	5.9	5.5	△27
4	대한민국	35,852	33,409	18,271	4.3	4.1	4.2	△19.4
5	사우디아라비아	49,888	47,584	17,754	6.0	5.9	4.1	△46.7
6	UAE	42,521	41,771	16,862	5.1	5.1	3.9	△42.4
7	대만	23,713	24,290	15,535	2.9	3.0	3.6	△4.7
8	말레이시아	29,779	29,204	15,133	3.6	3.6	3.5	△24.2
9	인도네시아	28,850	25,657	13,369	3.5	3.2	3.0	△11.1
10	카타르	37,007	33,576	11,746	4.5	4.1	2.7	△51.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순위는 '15년 1~8월 기준, '15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1~8월)

□ 일본 주요 수입품목 동향 및 우리기업 경쟁력

-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및 역청유 등의 화석연료,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 자동데이터 처리기계,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등
 - '15.1~9월 수입 중 석유 및 역청유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8.6% 감소 기록하는 등 연료 수입 전반에 걸쳐 대폭적 감소세 시현
 - 자동데이터 처리기계($\Delta 20.3\%$), 자동차($\Delta 13.1\%$), 반도체장비($\Delta 24.4\%$)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수입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
- 일본 상위 100대 수입품목의 3개년 수입 추이(HS Code 네 자릿수 기준)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11.5%),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39.9%), 기타 항공기(37.7%), 항공부품(21.8%), 신발(13.4%), 항공용 무선기기 및 무선원격 제어기기(16.1%), 자동 조정기기(12.2%) 등이 3개년 평균 10% 이상의 높은 수출신장세 기록 (괄호 안은 3개년 평균 수입신장률)
 -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6%), 자동차 부품(9.2%), 의자(7.5%), 시계(6.3%), 여성 캐주얼 의류(6.1%), 신변 장식용품(5.6%),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5.2%) 등도 5% 이상의 수출성장세 시현
 - 이와 달리, 석탄($\Delta 13.7\%$), 백금($\Delta 16.8\%$), 담배($\Delta 16.2\%$), 천연고무($\Delta 28.1\%$) 등 주로 원자재 해당품목이 10% 이상의 대폭적 감소세 기록
- 수입확대 품목 중 기계 및 부품 시장점유율 높은 반면, 소비재 점유율은 낮은 편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전기기기(7.7%), 다이오드·반도체 디바이스 등(5.7%), 항공부품(10.2%), 자동차 부품(9.4%), 반도체 보울·웨이퍼·디바이스 등 및 부분품(6.8%) 등 기계 및 부품 등의 점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괄호 안은 우리 제품 점유율, '14년 기준)
 - 신발(0.3%), 의자(0.8%), 시계(0.1%), 여성 캐주얼 의류(0.8%), 신변 장식용품(0.3%) 등 소비재 분야는 1% 이하의 낮은 시장점유율 기록

<일본 주요 품목 3개년 수입성장률 및 우리제품 점유율>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수입성장률은 '12~14년 평균, 우리제품 점유율은 '14년 기준

□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 및 경쟁동향

- 대일 수출금액 기준 대기업 수출을 제외한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분품·부속품, 미가공 은, 전자집적회로, 금속 주형틀, 기타 철강제품 순
- 동 품목은 주로 중국, 대만, 미국과 경쟁구도 형성

<대일 수출 주요 품목과 경쟁국>

순 위	석유와 역청유(2710)		자동차 부분품·부속품(8708)		미가공 은(710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23.4	중국	35.3	한국	87.5
2	사우디아라비아	10.0	한국	9.6	미국	4.0
3	인도	9.6	태국	9.5	멕시코	1.7
4	말레이시아	8.8	독일	8.5	중국	1.2
5	카타르	7.5	미국	7.2	홍콩	1.1

순 위	전자집적회로(8542)		금속 주조용 주형틀(8480)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대만	47.8	중국	41.9	중국	61.2
2	미국	14.5	한국	40.6	한국	6.6
3	한국	11.1	태국	5.1	미국	6.1
4	중국	7.3	대만	3.3	대만	4.7
5	싱가폴	5.9	베트남	1.5	베트남	3.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15년 1~8월 기준) / HS code 4단위 기준

○ 일본 시장에서 대만의 약진 주목 필요

-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대만 점유율 및 순위 매해 상승

* 일본 수입시장 내 대만 순위 : ('11년) 12위 → ('12년-'14년) 11위 → ('15.1~8월) 7위

- 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은 매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수출규모는 매해 감소세**

* 대만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규모(백만 달러) : ('12년) 6,497 → ('13년) 7,158 → ('14년) 7,573

** 한국 전자집적회로 대일 수출규모(백만 달러) : ('12년) 2,499 → ('13년) 1,971 → ('14년) 1,861

□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일 수출시 진입장벽

○ 수산물 수입쿼터제도 운영

- 자국 어업자 및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수입쿼터를 운영
- 수입쿼터제는 총 세 분류로 나뉘며 ① 대 한국 쿼터(김), ② 글로벌 + 대 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 글로벌 쿼터(오징어 등 7품목)

* 전체 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으로 인해 수출에 애로 발생

○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강화

-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

* 한국의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파프리카 등 12개 품목

** '14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작물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 자발적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외국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수입동향에 따른 감시체계를 강화

○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장벽 존재

- 일본 정부조달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외국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 각 기관별 서로 다른 입찰 등록 절차, 입찰정보의 분산 공표, 일본어 단독표기 등

○ 자율 인증제도 통한 신규 진입규제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각 업계별로 관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존재하며,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저해

* 자율 인증의 경우, 취득하지 않아도 유통판매에 문제는 없으나 암묵적 룰 때문에 수입에 나서는 바이어도 없을 뿐더러 유통채널 진입자체가 원천 불가

(사례) 석유난로의 경우, 일본 내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JHIA(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 취득 필요. 취득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과 3천만원 이상의 금액 소요
(설계변경 필요시 관련 소요예산은 수억 원에 달함)

□ 우리기업 일본 수출 성공사례

① 일본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공략 성공사례 'S사' (무인택배시스템)

○ S사 기업 개요

- '13년 설립된 벤처기업
- 세계 최초 IoT 기반 물품전달-무인택배 시스템 개발
- 기존 택배박스에 첨단 IoT 기술을 적용한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배터리로 독립 구동되며 무선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 가능
- 물품전달자가 수령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물품을 택배보관함에 넣으면,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가 수령인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



○ S사 일본 진출 개요

- '13.6월,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 기업 선정
- '13.8월, 일본 TIS사(도쿄지역 3위권 물품보관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14.10월, 물품보관함 활용 광고서비스 SLIDEC, 요코하마역 등 공급 시작
- '15년 말, 무인택배시스템 납품 완료 예정

○ 시사점

- 미래성장산업인 IoT 분야 무선통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
- 일본은 맨션 및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택배보관함이 일반적이라는 문화를 활용, 일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및 공략
-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바이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바이어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것이 성공 요인

② 성장 추세인 일본 전자재 시장 진출 성공사례 'T사' (농업 및 건축용 도금강판)

- 일본 주요 메이커 간 가격담합, 유착 구조 등 비관세장벽 존재
 - T사는 일본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단계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일본 내 유통 가격이 한국보다 약 3배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파악
 - KOTRA에서 농업 관련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폐쇄적인 유통구조 및 담합 형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
 - * 바이어 측에서 1/3 가격으로 유통시킬 경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꺼려하거나,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조건(일본 내 공사 실적, JIS(일본공업규격))을 제시
- 현지 파트너 발굴, 협동조합 설립 통한 우회진출 전략 수립
 - KOTRA에서 발굴한 A사(하우스시공 등)는 이러한 일본 시장의 담합구조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T사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 농업협동조합 설립을 제안(5개사 공동출자 통해 '14.11월 설립)
 - 한번에 가격담합구조를 깨뜨릴 경우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A사의 기존고객 및 영업망을 활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로 결정
 - * 시장 추이를 관망하면서 일본 오이타현 → 규슈 → 일본 전국으로 점차 확대시키기로 합의
- 시장조사로부터 1년 만에 첫 거래에 성공
 - 수차례의 품질테스트를 통해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품질 향상함과 동시에 초기 판매용 제품을 일반 하우스용에서 파프리카 하우스용으로 좁혀서 추진
 - * 한국산 파프리카가 일본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고객에게 시장성이 높은 한국식 파프리카 하우스 설치를 적극 유도
 - 그 결과, 일본시장 진출시도 1년여 만인 '15.8월 일본 기업에 의한 첫 공식발주 접수 (초기 거래규모 3억원)
- 시사점
 - 주요 기업간 담합구조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선불리 진출을 시도하기보다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장기적인 플랜 수립을 통해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투자진출

□ 일본 투자유치 동향

- 일본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감을 반복, 최근 증가 추세
 - '14년 90억 7,800만 달러 투자유치 기록, '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 일본 투자유치금액(백만 달러) : ('12년) 1,761 → ('13년) 2,358 → ('14년) 9,078 → ('15.1~6월) 2,623
 - ** '14년 말 기준 대일 직접투자금액(Stock 기준) : 23조 3,440억 엔
 - 일본 기업의 M&A 건수도 증가
 - * M&A 건수 : ('13년) 2,048건 → ('14년) 2,285건
 - 증가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로 '14년 말 엔화 환율은 1달러=119.80엔으로 전년 대비 13.7%의 엔화 약세가 진행
- 일본정부,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노력 전개 중이나 목표 달성은 난망
 - 아베 정부, 일본 재흥전략에 '20년 시점 35조 엔 대일 직접투자잔액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의결('15.3.17) 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 전개
 - * 다섯가지 약속 : 외국어표기 확대, 무료 공중무선 LAN 설치 확대, 지방공항의 비즈니스 제트기 수용환경 정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정비, 외국기업 상담체제 정비
 - '14년 일본 투자유치 전년 대비 5.3% 증가한 23조 3,440억 엔 기록했으며, 동일 추세의 경우 '20년 시점 대일 직접투자유치잔액은 28조 엔에 그칠 전망
- 투자처로서 일본의 매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
 - '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 사항에서 아베수상이 언급한 주주와의 대화를 필수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조정 지침이 적용되면 해외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 질 것이라는 견해 존재

□ 주요 국가 대일 직접투자 동향

- '14년 기준 각 국의 대일 직접투자 중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감소를 기록
 - 특히 스웨덴(전년대비 △16억 달러), 네덜란드(전년대비 △20억 달러), 이탈리아 (전년대비 △1.8억 달러)의 직접투자금액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안건으로 대일 직접투자 급증
 - 태국(전년대비 1.5억 달러), 독일(전년대비 6.1억 달러), UAE(전년대비 2.8억 달러), 홍콩(전년대비 17.3억 달러)의 대일투자 증가가 눈에 띈
- 한국의 대일 투자는 '14년 1억 4,400만 달러로, 전년의 3배 이상 증가

<일본의 국별·권역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시아	3,128	1,383	2,895	866	5,401
중국	314	109	71	140	594
홍콩	698	125	872	171	1,907
타이완	21	110	365	185	1,035
한국	273	197	558	47	144
싱가폴	1,574	781	977	325	1,431
태국	8	△ 1	37	3	154
북미	3,014	△ 3,120	△ 61	1,413	4,360
미국	2,960	△ 3,196	△ 110	1,377	4,327
중남미	△ 7,723	△ 1,387	△ 1,955	△ 1,363	235
멕시코	△ 7,320	△ 248	-	△ 172	10
대양주	△ 17	89	124	375	557
호주	△ 6	89	123	365	414
유럽	203	1,203	892	1,061	△ 2,195
독일	2,205	17	448	10	625
프랑스	1,128	3,437	△ 462	△ 645	△ 130
네덜란드	△ 7,732	3	△ 434	536	△ 1,469
이탈리아	162	10	△ 16	88	△ 90
벨기에	△ 478	△ 555	△ 135	-235	△ 181
룩셈부르크	380	△ 405	△ 4,425	1,278	854
스웨덴	8	△ 262	△ 58	505	△ 1,129
동구, 러시아 등	5	0	△ 14	12	12
러시아	-	-	△ 14	12	1
중동	0	142	△ 115	8	710
아랍에미레이트	0	27	0	2	286
아프리카	35	△ 12	△ 18	△ 8	6
남아프리카공화국	-	-	0	-	4
세계	△ 1,358	△ 1,701	1,761	2,358	9,077

* 자료원 : 일본 국제수지 기준, 재무성, 일본은행 자료 토대 JETRO 작성

□ 우리기업 일본 투자진출 동향

- '14년 기준, 한국의 전세계 투자금액 중 대일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8%, 국가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
 - 연도별 한국의 대일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대형안전 발생시 증가, 대형안전 부재시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형국
 - '12년, 국내 대기업을 일본기업 대규모 M&A 등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 기록
 - * 한국의 대일투자금액(백만 달러, 법인기준) : ('12년) 650 → ('13년) 694 → ('14년) 420 → ('15.1~6월) 452
 - '13년, 삼성전자의 일본 Sharp 지분 인수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인 6억 9,300만 달러 기록
 - '15년 상반기 대일투자실적은 4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일투자실적을 상회
- 일본 진출 주요 국내기업
 - 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등 주요 대기업 70~80년대 기 진출
 - 2000년대 후반, 한류 영향으로 CJ 등 식품 관련 회사, NHN 등 IT 관련 기업들의 진출 및 활약이 눈에 띈
 - NHN의 경우, '13.4월 LINE(주)와 신 NHN Japan으로 분할, 신 NHN Japan은 '13.8월 NHN PlayArt로 사명 변경, 일본 내 게임사업 담당, LINE(주)은 메신저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담당하는 체제로 변경

<일본 진출 주요 한국 기업현황>

(단위: 억 엔, 명)

연번	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내용/제품	자본금	직원 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 등)	83.3	546
2	대우 재팬	2002	도·소매업(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등)	4.8	50
3	현대모터 재팬(연구소)	1995	자동차 연구개발	4.5	-
4	LG 재팬	1980	도·소매업(전자부품등)	0.9	55
5	한화큐셀 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 등)	26.9	160
6	진로 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 등)	2	103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 키친 등)	0.95	-
8	SK하이닉스 재팬	1983	도·소매업(반도체 등)	10	50
9	KNTV	1996	한국어 위성방송	9.8	-
10	LINE	2000	게임, 메신저 등	125	903
11	CJ Japan	2002	식품	0.4	59
12	포스코 재팬	2004	냉연강판 제조	44.4	85

* 자료원 : 자본금 및 직원 수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인용

□ 일본 투자진출 진입장벽

○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수속, 인허가절차에 장시간 소요

-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꼼꼼함이 행정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
- 대일 투자진출 계획 수립시 행정처리 소요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도 필요

(실패사례) 한국기업 A사, 대마도에 신규 사업장(숙박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대일 진출을 준비. 자체 조사를 통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책정하고 자금조달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할인 나가사키 현청의 늦은 처리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어 결국 투자계획 철회

○ 폐쇄적인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방식

-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으며,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시 보증인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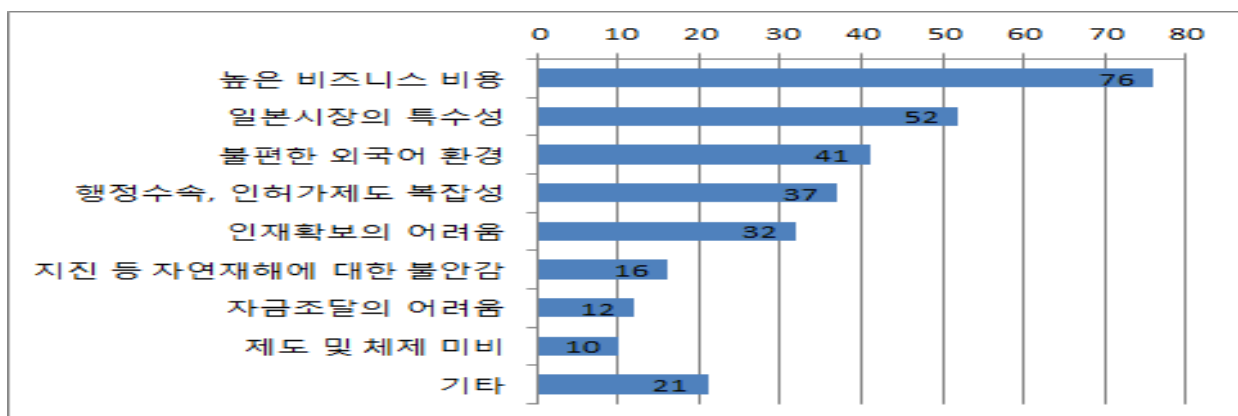
(실패사례)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를 추진했으나 건물주가 외국인에 대한 임대를 꺼렸으며, 임대를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제시, 결국 진출 보류하게 됨

○ 고비용, 불편한 외국어 환경, 인재확보 어려움 등이 일본진출 장애요인

- 높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고임금, 고임대 비용 등 타국 대비 일본 비즈니스 전개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진출 장벽으로 작용
 - * 일본 법인실효세율 : 32.11%, 한국 24.2%, 영국 24.2%, 싱가포르 17%
- 글로벌 인재,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동성 부족
 - * 일본 투자 저해요인으로 '인재확보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외국기업 32% (JETRO 조사, '13년)

<일본진출 외국기업이 생각하는 일본 투자 저해요인>

(단위 : 개사)



* 자료원 : JETRO 조사(2013)

□ 일본 투자진출 우리기업 성공사례

① 대리점 계약을 발판으로 일본진출기반 다진 'I사 (비즈니스 톨 관리 시스템)'

○ I사 기업 개요

- '01년 설립, 매출액 약 150억 원, 종업원 70여 명
- 대표 제품인 BRMS는 업무로직과 IT를 분리, 논프로그래밍으로 일원 관리하여 개발효율의 향상, 업무정보의 자산화를 실현한 IT솔루션
- 기존 제품이 업무로직을 소스에 직접 넣어 개발했기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문제와 복잡성을 제거, 업무로직만 별도로 수정하면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는 장점을 보유한 제품
- 신규 제품 출시가 잦은 금융권, 보험업계 중심 고객 보유, 외환은행 방카슈랑스 프로젝트 중 보험 분야 보험료 계산 등에 적용되었음

○ I사 일본 진출 개요

- '12년, 일본 대리점 A사와 거래 시작, 오릭스신탁은행 등 대상으로 판매 성공
- '13년,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KOTRA 도쿄 IT지원센터 입주
- '15년, 일본법인 1개사 설립
- '15년, 일본 대표 보험회사 S사 대형 프로젝트 계약

○ 진출 특이사항 및 시사점

- 대리점을 통한 수출을 우선 추진으로 일본 진출 단계별 접근, 성급한 투자 진출을 시행하지 않음
 - * 재일교포기업과 최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을 통한 일본 시장 수출을 우선 시도, 일본 시장에서의 자사 제품에 대한 반응을 확인
 - ** 시장에서의 가능성 확인 후, 도쿄 IT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여 전방위 지원을 확보, 법인 설립 준비 시작
- 한일 양방향 완벽한 언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 채용, 자사 엔지니어 S사 상주를 통한 밀접 지원을 통한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일본 시장 내에서의 자사 입지 확보 후 법인 설립 진행

② 확대되는 일본 재생의료 시장 수요를 활용한 진출 성공사례

- 기업 개요
 - 기업명 : 올림푸스 RMS ('08년 설립)
 - 한국 세원 셀론텍과 일본 광학기기 제조기업인 올림푸스가 세포 재생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일본에 설립한 합작회사
 - '15.1월 고베 첨단의료 센터에서 도쿄 하치오지시로 본사 이전
- 일본정부 국책자금 지원 등 재생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 도전 중
 -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임에도 불구하고,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반 기술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조성금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어 연골세포 치료제(콘드론) 상용화 추진 중
 - * 특히 '15년 자금지원 규모는 '14년 대비 2배
 - ** 현재 일본에서 의약품 상용화를 위한 최종 검증단계 진행 중
- 韓 기술력 + 日 기업 유통망 통해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 진출 추진
 - 세원셀론텍의 콘드론은 한국에서 '01년 승인된 의약품으로 제조·판매 중
 - 일본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무릎관절 질환 환자 700만 명 이상인 거대시장
 - 올림푸스 RMS는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올림푸스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 일본 우수 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보험 등재를 사전 준비하는 등 시판허가와 동시에 일본 전역 판매가 가능토록 준비 중

③ 기존 유통망 활용, 점진적인 일본진출로 성공한 T사 (안경테 제조)

- 수출을 통해 시장기회 포착
 - 어린이용 안경테 전문 제조기업 T사는 일본 유명 안경 유통체인을 통해 수출 시작
 - 진출 당시 어린이용 안경테 시장이 미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출 성공
- 예상을 넘는 반응 속 본격적인 시장 진입 위해 법인설립
 - 일본 '키즈 디자인상'을 수상('14.8월)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시장에서의 선전을 계기로 '14.10월 후쿠오카에 법인 설립
 - 재고부담 경감 위해 항만 인근에 거점 확보, 도매직판과 통신판매로 판매채널 이분화
 - '15년 상반기 일본 매출액이 한국 내 매출의 50% 수준까지 도달, '15.10월에는 일본 국제광학박람회 '올해의 안경상' 수상하며 인지도 확대 중
-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후 점진적으로 일본 진출
 - 투자 진출전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을 통해 시장 분위기 파악, 점진적 진출을 추진한 것이 성공 요인
 - 무리한 대형매장 개설이 아닌 항만 근처 사무소 개설형태로 진입하여 도매 판매와 통신판매로 저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

IV

시장진출전략

- ▶ 에너지, 의료바이오, IT 등 아베정부 주요 성장정책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 ▶ 자동차, 전자산업 분야에서 첨단 부품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극복
- ▶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일본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필요
- ▶ 일본 제조기업 제3국 생산 확대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수요 공략

1. 진출전략 개관

<일본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낮은 물류비용 ○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구축된 협력관계 ○ ICT·의료분야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대외인지도 ○ 국내 대기업 납품실적의 레퍼런스 인정	<Opportunities> ○ 전력소매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 마이넘버제, IoT확산에 따른 IT분야 신규 수요 ○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인프라 프로젝트 특수 ○ 고령화에 따른 의약·의료기기 수요 증대
<Weaknesses> ○ 엔저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 악화 ○ TPP 체결국 대비 불리한 교역·투자조건 ○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주요 수출품 단가 하락 ○ 미·중과의 높은 수출상품 경합도	<Threats> ○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부품수요 감소 ○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소비재 수출환경 악화 ○ 엔저에 따른 전기전자·자동차부품 일본내 조달 확대 ○ TPP 타결에 따른 일본 시장내 경쟁 심화
<시사점> ○ IT 보안제품, 자동차 탑재용 첨단 전자부품 등 급성장 중인 시장에서 기회 발굴 ○ 가격경쟁력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첨단부품 수출로 대일 수출 돌파구 모색 ↳ 혼다, 닛산 등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의 한국 첨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디자인 및 기능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소비재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입 확대 ○ 일본 제조업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제3국 조달수요 공략 → 일본 국내 직접 진출시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 ○ 대일 투자진출시 진입 리스크 최소화 위해 일본 파트너와의 제휴 통한 진출방안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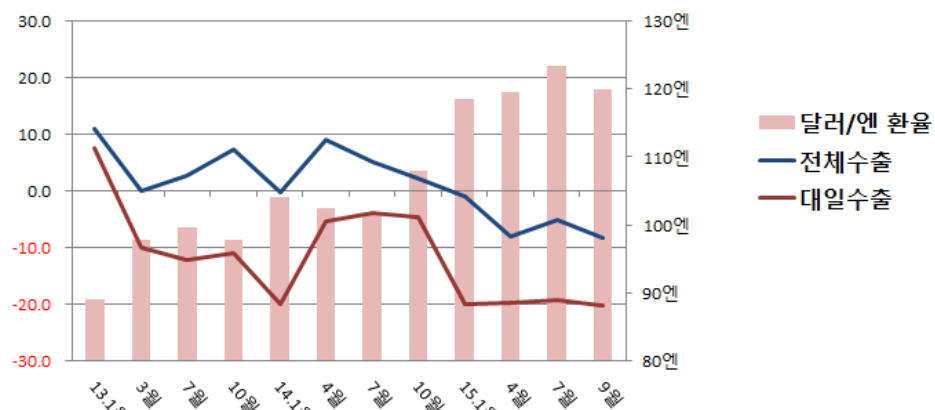
□ (기회요인) 아베 정부 성장정책, 올림픽 특수 등에 따른 기회요인 다수

- 마이넘버제, 전력소매 자유화 등으로 IT 및 전력기자재 시장 확대 전망
 -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 마이넘버제 전면 시행('16.1월)
 - * 日 정보보안시장 확대 전망 : ('14년) 3,594억 엔 → ('18년) 4,712억 엔
 -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에 따른 전력기자재 해외조달 증가
 - * 기업간 경쟁 격화로 비용절감 필요성 증대, 각 전력사 해외조달 비중 확대추세 (도쿄전력 10% → 30%, 간사이 전력 0.3% → 30%)
-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동일본 대지진 재건 수요에 따른 건설 관련 시장 확대
 - (건자재) 국토강인화 계획, 2020 올림픽 개최 준비로 건자재 수요 증가
 - * 국토강인화 계획 (10년간 200조 엔 투자), 2020 올림픽 특수 (경기시설 3,800억 엔, 인프라 55조 엔)
 - (건설기계)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일본 건설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 * 건설기계 시장규모(억 엔) : ('12년) 21,495 → ('13년) 23,352 → ('14년) 24,396

□ (위기요인) 엔화 약세, 일본내 수입수요 감소 등에 따른 위기요인 상존

-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12년부터 엔화약세 지속 및 대일 수출 지속적 감소
 - * 엔/달러환율 변화 : ('13.1월) 89.0 → ('15.8월) 123.13, 엔화가치 약 63% 하락
 - ** 대일 수출추이(억 달러) : ('13년) 34.7 → ('14년) 32.2 → ('15.1-9월) 19.4

<달러/엔 환율에 따른 대일수출 증감률 변화>



* 자료원 : 환율(OECD), 수출액 증감률(한국무역협회, 전년동월 대비)

- 아베노믹스 강화에 따른 엔화약세 '16년에도 지속 전망
 - * 엔/달러화 전망 : ('15.12월) 123.6 → ('16.12월) 132.2 → ('17.12월) 136.1 (Oxford Economics, '15.8월)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지속 증가로 인한 대일 수입수요 감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제조업 현지법인의 76.4% 소재
 - * 해외생산비율 : ('05년) 29.2% → ('10년) 33.3% → ('13년) 33.7% → ('14년) 36.5%
 - ** 전기전자(49.5%) 및 자동차(44.8%) 해외생산비율이 특히 높은 수준 ('14년 기준)

2. 세부 진출전략

2-1.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을 활용한 IoT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IoT 시장은 향후 연 11% 이상의 속도로 급성장 예측
 - '14년 일본의 IoT 시장 규모는 9조 3,645억 엔으로, 향후 연평균 11.9%로 성장, '19년 16조 4,221억 엔으로 확대 전망
- IoT 대표 분야인 '스마트하우스' 관련 제품·시스템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13년 2조 764억 엔, '20년에는 2조 8,886억 엔으로 예측
 - *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일본 국내시장 규모 : ('13년) 113억 엔 → ('20년) 303억 엔
- 기존 농업 기술과 ICT를 연계, 생산의 효율화와 농작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농업' 역시 일본의 향후 급성장 예측 IoT 활용 분야
 - '13년 66억 1,400만 엔 규모, '20년에는 308억 4,900만 엔 규모로의 성장 기대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전반) 아베노믹스 일본재흥전략, 미래성장산업으로의 IoT 육성 언급
 - '15.6월, Io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를 고려한 일본 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 '15.9월, 산·학·관의 연계조직 'IoT추진 컨소시엄'을 설립, 시범사업 창출, 규제개혁, 자금지원 등의 환경정비, 관련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스마트하우스) '16.4월 전력소매 완전자유화 대비, 각 지역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기로의 교체 추세
 - '14년부터 도쿄전력이 본격 도입 시작, 전국 10개 전력회사 '25년까지 전국 8,000만 대 이상 교체 완료 목표
 - 스마트미터, 실시간 체크 전력 사용량의 전력공급자와 사용자 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 즉 IoT 대표 기술이 활용되는 제품
 - * 스마트미터용 리튬 1차 전지, 통신 모듈 등 수요 증가 기대
 - 스마트미터 등 일본 HEMS 시장의 성장세, 현재 약 100억 엔 규모 시장이나 '20년 300억 엔 규모로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농업) TPP 타결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본의 과제로 부상, IT 기업의 농업 진출 지속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시장 성장 추세
 - '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농업 참여가 가능, 개정 이후 약 5년간 신규 1,712개 법인이 농업 사업 진출
 - 생산부터 판매까지 IT를 활용하는 추세, IoT 기술인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조합한 서비스도 시작
 - * CTC, '15.10월 농약 잔류 판별시스템 발표, 농업협동조합과 실증실험 개시 방침
 - ** 소프트뱅크그룹, '16년 봄 홋카이도 농가와 농업생산법인 설립 예정, 농지에 센서 설치, 환경 및 생육정보 수집, 최적의 재배 방법을 도출하여 품질과 수확량 향상시킬 계획
 - IoT 기술이 활용되는 정밀 농업 시장, '13년 기준 11억 1,900만 엔 규모였으나 '20년에는 4배 이상의 성장 기대
 - * 농업용 GPS지도 시스템, GPS이용 자동조타시스템 등의 성장 유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IoT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3개의 분야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
 - 업계 관행상 최종 수요자 기업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 발굴 병행 필요
- 제품 및 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를 명확히 설정, 단계적 관련 기업군 타겟팅
 - (스마트미터용 통신 모듈 등) 전력회사의 스마트미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1차 타겟팅, 통신 모듈은 IoT 기기에 필수적인 제품이므로 그 외 분야 기업 2차 타겟팅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스마트농업용 센서 등)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 발표 IT기업을 최종 수요자로 설정하고 접근, 전시회 등 참가로 대리점 발굴도 병행하는 방식이 가능
- 일본 기업의 자사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시장성이라 스스로 평가하여 선부른 투자 진출 등을 시행하는 것은 금물
 - 일본 선도 기업 역시 IoT 청사진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 제품 및 솔루션을 검토해가며 사업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양상
 - 최종 수요보유 대기업 발굴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 → 대리점을 통한 제품·솔루션 납품 등의 과정에서 시장성을 평가, 지사·법인설립 등의 후속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51762	수입관세율(%)	없음
통신모듈 (유선전화, 영상 또는 음성 등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수입액('14/US\$백만)	3,90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1
	선정사유	○ 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연결에 필수인 전자부품		
	시장동향	○ 통신모듈 사용이 필수인 IoT 서비스 목적의 원거리통신망(WAN) 사용 계약의 급격한 증가 - 서비스 계약 수: ('14년) 3,660만 건→('20년) 1억 202만 건		
	경쟁동향	○ TDK가 '15.9월 세계 최소형 통신 모듈 양산을 시작하는 등 일본 기업이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분야 ○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순임 - 한국의 경우, '13년 이후 수출액 증가 추세		
	진출방안	○ NTT Docomo, 소프트뱅크 등 일본 내 IoT 통신 환경·서비스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도 병행할 것 - 최종수요자가 지정하는 대리점과만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경우 빈번		
품목명 2	HS Code	특정불가능	수입관세율(%)	특정불가능
센서 (IoT 디바이스의 내부와 주변의 다양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디지털·데이터 화하기 위한 장치)	수입액('14/US\$백만)	-	대한수입액('14/US\$백만)	-
	선정사유	○ IoT 기능별 구성요소 중, 개발 가시화가 진행중인 분야 ○ 국내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일본 기업 대상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시장동향	○ '19년 전 세계 5조 5,576억 엔 규모 시장 예측, '14년 대비 21.4% 증가한 규모 ○ 센서 카테고리 중 일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생체센서(미각, 뇌파, 맥박, 지문), 열감지 및 시공간 측정센서 순 ○ 미래 성장 센서 2순위인 뇌파 센서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개호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높음		
	경쟁동향	○ 일본 주요 기업은 르네사스, 무라타 ○ 미각 센서의 경우, 일본기업이 세계 최초로 제품화하는 등, 일본 국내 수요가 전 세계 시장을 견인		
	진출방안	○ 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스마트농업 진출 IT기업 소프트뱅크, 후지쯔 등을 타겟팅 할 필요가 존재 ○ 그 외 히타치 등 일본 내 IoT 산업 환경 구축 선도기업 대상 지속적인 제품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출·투자진출이 필요 ○ 대리점 및 파트너사 발굴도 병행할 것 - 최종 수요자가 지정하는 대리점과만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존재		

2-2. 도쿄올림픽 특수 등을 겨냥한 건설기계 시장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건설기계 산업, 일본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동반 증가 추세 진입
- '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수요, 민간 설비 투자 확대 영향

<일본 건설기계 시장개황>

(단위 : 억 엔)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 산	5,110	6,631	7,802	10,094	9,939
수 출	14,520	16,873	13,693	13,259	14,457
총 계	19,630	23,504	21,495	23,352	24,396

* 자료원 : 2015년 건설기계공업회 발표, 일본회계연도 기준

- 건설기계 수입, '10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
- '15.1~8월 이후 수입 실적,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 수입증가세 지속
- 대 한국 수입도 '10년 이후 호조

<일본의 건설기계·광산기계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엔, %)

	2012년		2013년		2014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對 세계	121,384	13.0%	143,963	18.6%	167,923	16.6%
對 한국	18,233	10.0%	19,693	8.0%	19,686	0.0%

* 자료원 : 2015년 건설기계공업회

-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제조사와 서플라이어 관계가 특징 → 신규 진입 어려움
- 건설기계는 장기 사용 제품인 관계로 제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다년간 사용실적이 축적된 기존 서플라이어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 강함
- 제조사의 서플라이어에 대한 자금원조, 재고처리 지원 경우도 빈번
- 일본 주요 건설기계 제조사, 서플라이어 조직화를 통해 관계 강화
- * 코마츠 서플라이어 모임 '미도리 카이(164개사 참가)', 히타치건기 서플라이어 모임 '치쿠 호카이(69개사 참가)' 등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베정권의 국토강인화 추진, 정부·민간 차원의 건설 투자 지속
 - * 日정부 민간 건설투자금액(억 엔) : ('12년) 452,914 → ('13년) 512,900 → ('14년) 513,000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재개발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건설 수요 발생 전망
 - 건설기계 업계 역시 건설업 호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제조사의 생산력 증강, 생산 가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조달처 모색 분위기 확산**
- '14년 일본 내수 건설기계 출하액, 1조 185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 특히 건설용 크레인, 미니굴삭기 등 호조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건설기계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 타겟바이어 대상 적절한 접근
 - 제조회사와 전문상사의 특수한 관계 이해, 자사 제품의 타겟기업 설정 등 선제 조사 작업이 필요
 - * 일본 제조회사 : 코마츠 등 최종제품을 조립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 ** 전문상사 : 일본 제조회사와 부품회사(중소기업 등)를 중개, 건설기계를 전문적으로 취급
 - 제조회사와 기존 협력사인 부품 등 납품 중소기업의 공존공영 문화 이해, 주요 제조회사 대상 신규 납품을 위한 명확한 세일즈 포인트 준비
 - * 코마츠, 협력사조직 미도리카이(164개사) 내에서 국내 조달량의 75% 조달
 - ** 히타치건기, 3개의 협력사조직 보유 : 치쿠호카이(69개사), 헤키스이카이(75개사), 토키와카이(47개사)
-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추진
 - 한국 및 타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 기술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시
 - 일본 제조회사의 사내기준인 품질 확인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 클레임 접수, 상시 A/S 대응이 가능한 일본 전용 창구 설치 등 품질대응체계 확립
- 일본의 관련 규제사항 파악,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주력제품으로 설정 필요
 - '11년 시행된 4차 배출가스 규제의 유효기간이 '15년 종료, 구형 기계수요 반동 감소로 일본 내수 출하 주력 제품인 굴삭기 수요 감소
 - * 일본 국내 출하 굴삭기 : 전년대비 4% 감소한 8,326억 엔, 2년 연속 감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431.41 ~ 43, 8431.49	수입 관세율(%)	없음
중장비부품	수입액('14/US\$백만)	1,043	대한수입액('14/US\$백만)	182
	선정사유	○ 일본 건설기계 완성품은 대기업이 80% 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은 중소기업이 70% 점유, 국내 유망 중소기업 진출 가능성 높음		
	시장동향	○ 수출입 모두 증가세, 수입보다 수출이 큰 시장 ○ 일본 내 기업들이 해외 수요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부품 공급체계도 다양화		
	경쟁동향	○ 일본의 관련제품 수입시장은 중국이 점유율 1위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한국은 점유율 2위이나 중국 강세로 점차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음		
	진출방안	○ 중장비 부품별 타겟 바이어 설정, 명확한 세일즈 포인트 토대로 장기적 관점의 접근 시도가 필요		
품목명 2	HS Code	8424.89	수입 관세율(%)	없음
세륜기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5
	선정사유	○ 시장 지속 확대중이며, 한국산 제품 고평가 시장		
	시장동향	○ '12년 이후로 지속 수입시장 성장 - '14년 94억 2,900만 엔 규모, '11년의 약 2배		
	경쟁동향	○ 중국이 수입시장 점유 압도적 1위 (한국 4위) - 한국산 수입, '1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진출방안	○ 타겟 바이어 설정, 명확한 세일즈 포인트 토대로 장기적 관점의 접근 시도가 필요		

2-3.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그린전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 시장 급성장 전망
 - 그린전력 시장은 '13년 1,350억 엔에서 연평균 36.6%씩 증가, '20년에는 1조 2천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 그린 전력 시장 전망>

구분	2013년	2020년 예측	2013년 대비
그린 전력 시장	1,350억 엔	1조 2천억 엔	788.8%

* 자료원 : 야노경제연구소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 구성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3년 11%에서 22~24%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5.4월)
 - *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적극적 확대 계획
 - 한편 '12.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 높은 고정 가격으로 장기간 구매하는 제도('12.7월 시행, '14.12월 개정)
 -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스템 시장은 '11년 1조 5,594억 엔에서 '13년 4조 7,356억 엔으로 급성장(환경성, 환경산업 시장규모, '15.7월)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16.4월)에 따라 사상최대 전환기 맞는 에너지 시장
 - 일본은 '13년 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중
 - 특히 '16.4월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자유화되면서 이중업종에서 전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PPS(신전력사업자) 급증
 - * PPS 판매 전력량, '13년 227억kWh에서 '20년 530억kWh로 2.3배 증가 전망(후지경제연구소)
 - PPS의 과제는 전원의 확보이나, 대규모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확대 움직임
- 경쟁체제 도입으로 열리는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4월 이후 요금인가 철폐, 전력시장에서 경쟁체제도 본격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 움직임 가시화
 - * 도쿄 전력, 해외조달 비중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계획, 간사이 전력, 한국 전력 기자재 관련기업 발주 요청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유망시장 적극 공략
 - 변동성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로 HEMS, 축전지 등 스마트 하우스 설비시장 확대 전망
 - * '20년 스마트 하우스 설비기기 시장: '13년 대비 36.4% 증가한 1조1,795억 엔에 달할 전망
- 일본 전력회사 및 유지보수 기업과 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일본 전력회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남동발전 등 한국 전력회사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42199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3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9
백필터 집진기	선정사유	○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인한 수요증가 예상		
	시장동향	○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백필터 집진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일본의 백필터 집진기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로 1강(아마노) 이외에는 중소 업체가 주류임		
	진출방안	○ 발전소용의 경우 집진기 장비의 특성상 발전소 내 설비 엔지니어링 업체(EPC)를 통한 진입이 필요		
품목명 2	HS Code	8481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1,017	대한수입액('14/US\$백만)	47
발전설비용 밸브	선정사유	○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인한 수요증가 예상		
	시장동향	○ 일본 전력 부족에 따른 신규 발전소(바이오 매스, 폐기물 등) 건설 움직임 확대에 따라,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밸브(배관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		
	경쟁동향	○ 일본의 발전설비용 밸브시장은 일본 3강, 해외 2강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EPC업체를 통한 한국제 밸브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진출방안	○ 발전설비는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의 외국 제품의 직접구매는 거의 없음 ○ 이에 발전설비를 전체 관리하는 EPC 및 설비 업체를 통한 납품이 필요		

2-4. 일본 신성장정책 활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최근 의료비 억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일본 정부, 의료산업을 성장전략으로 지정하고 의료개혁 실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규모를 '12년 12조 엔에서 '20년 16조 엔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13년 일본재흥전략)
 - '14년에는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타업종 기업의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
 - * 의료기기 제조업 인허가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신규 진출기업 증가 도모
 - ** 이에 따라 니콘, NTT, 도레이, 테이진 등이 진출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IT화 진전에 따른 의료기기 개념 확대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승인대상에 단체의료 프로그램이 포함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및 벤처기업 등 진입 확대 및 경쟁심화 예상
-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 의료기기 성장세
 - '14년 개정 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시행으로 국가 승인기간 대폭 단축
 - * 기존 약 7년 → 약 2~3년
 -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고, 의료비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 * '12년 90억 엔에서 '30년 1조 6,000억 엔으로 성장 전망 (경제산업성)
- 복제약 시장 급성장 전망
 - 일본정부의 복제약 보급촉진 정책 추진 등으로 '14년 1조 1,130억 엔에서 '17년 1조 4,715억 엔으로 32% 성장 전망(야노경제연구소)
 - * 일본 정부의 복제약 사용비중 목표('15.6월) : '17년 중반까지 70%, '18~'20년 사이 초기에 80% 달성. 한편 '12년 기준 복제약 사용 비중은 약 40%에 불과
-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망도 밝아
 - '15~'20년 특허 만료 의약품이 많아,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적극적
 - * '13년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9.1%씩 성장, '20년 9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바이오 시밀러 분야 한일 기업간 협력 고도화
 - 일본 유통망 및 자금, 한국 기술 및 제품을 통해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 * (예)셀트리온-일본 화약 바이오 시밀러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 일본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 공략 강화
 - 정부의 복제약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복제약 대기업 3사 모두 설비를 증강하고 있으나, 수요 충족이 어려워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상황
 - * 복제약 대기업 사와이 제약의 미츠오 회장, “2017년 중반까지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조 위탁 및 증산 등을 통해 복제약 80%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힘
 - 일본 복제약 대기업-한국 제약기업 1:1 상담회 개최
- 한일 합작을 통한 협력 확대
 - 의료기기는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합작형태로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만함
 - * (예)세원셀론텍은 올림푸스와 합작을 통해 일본 재생 의료기기 시장 공략 중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4/US\$백만)	13,768	대한수입액('14/US\$백만)	153
	선정사유	○ 정부의 복제약 보급목표 상향 조정으로 일본 복제약(제네릭) 시장 급성장		
	시장동향	○ 복제약 아웃소싱 시장도 확대		
	경쟁동향	○ 사와이, 토와약품, 니치이코우가 3대 기업 시장 지배		
	진출방안	○ 일본 대기업의 복제약 아웃소싱 공략		
품목명 2	HS Code	902131	수입관세율(%)	0%
인공관절 인공뼈, 및 시술관련제품	수입액('14/US\$백만)	440	대한수입액('14/US\$백만)	0
	선정사유	○ 고령화에 따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에 있는 시장이나,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시장동향	○ 관절질환환자는 총 130만 명, 시장규모는 총 2,000억 엔 규모. 최근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 Zimmer, Stryker, J&J의 북미 유럽메이커의 수입 제품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		
	진출방안	○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현지기업 유통망 활용		

2-5. 수입 확대세인 일본 전기전자 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생산액 감소 추세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산거점 해외이전,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민간용 제품 (TV, 카메라 등) 수요 감소 등으로 일본 내 제품 생산액 감소 중
 - * 일본 내 전자공업 생산액 2000년(26조 엔)을 정점으로 절반 이하까지 감소
- 고부가가치 디바이스, 자동차용 부품 생산 호조
 - 완제품 생산액 축소와는 달리 반도체, 집적회로(IC), 액정디바이스 등 부품·디바이스 생산은 호조
 - * 아베정권 이후 엔저 등으로 일본 내 생산 환경 호전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
 - ** 과거 자국기업 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구조(개발-생산에 이르는 일관공정)에서 점차 GVC (Global Value Chain) 구조로 전환 중
 -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안전·환경규제 강화 흐름 속 전자부품 수요 증가
 - * 자동차 원가 중 전자부품 비율 : 가솔린(20~30%), 하이브리드(40~50%) (경제산업성)
- 스마트폰, 태플릿 시장 지속성장 속 TV, PC 등은 상대적 감소
 - iPhone 등 고사양 제품에 이어 중국산 보급형 스마트폰(샤오미 등) 본격 판매 확대로 스마트폰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TV, PC 등 디지털 가전 판매는 부진
 - * '14년도 판매량(만 대, 증가율) : TV 579(△5.0%), PC 1,581(△0.3%) (GFK JAPAN)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TPP, 전자산업 U턴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관세철폐 품목 95% 이상,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99% 이상이 철폐됨에 따라 발효시점 등에 이목 집중될 것으로 예상
 - * 대미 수출 시 디지털카메라 관세 즉시철폐, 리튬이온전지 15년 후 철폐 등
 -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하였던 세트메이커의 U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TPP 체결이 촉매 역할 할 것으로 분석
 - * 파나소닉(백색가전), 다이킨(가정용에어컨), 캐논(카메라) 등 일본으로 U턴 발표
- 디바이스, 전자부품 수입규모 지속 증가 예상
 - '14년 전체 수입액의 약 43.7%를 점유하였으며, 전년 대비 디바이스는 17.7%, 전자부품은 16.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엔저, TPP 등으로 완제품의 일본 내 생산비율이 높아질 경우, 부품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IoT 응용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글래스, 워치처럼 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Wearable Device) 본격적으로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규모 : ('13년) 53만대 → ('17년) 1300만대로 24배 성장전망 (야노경제연구소)
 -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과 더불어 IoT 응용 시장도 함께 확대 예상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대 및 안전/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요는 크게 증가
 - * 자동차 제조 코스트 중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30%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대기업 납품실적 활용, 대일 수출 추진 효과적
 - 부품·디바이스 수출 시, 국내 대기업 납품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
 - 삼성, LG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동 대기업 납품 실적은 일본 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수단
 - * T사 (화장실, 욕실용 가전메이커) 조달담당자, '한국의 백색가전 품질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삼성, LG에 부품납품 실적 있는 기업이라면 신뢰가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532	수입관세율(%)	없음
	수입액('14/US\$백만)	206,477	대한수입액('14/US\$백만)	18,618
콘덴서	선정사유	○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라 관련 제품 및 주요 원료 (단층 및 적층 세라믹컨덴서) 수입 증가		
	시장동향	○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기기의 일본 국내 생산체제 확대로 원료 조달수요 확대 중		
	경쟁동향	○ 무라타제작소, 교세라, 세이코인스트루 시장 지배		
	진출방안	○ 모듈화 전략 등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산 저가격 제품과 차별화 필요		
품목명 2	HS Code	8523	수입관세율(%)	없음
	수입액('14/US\$백만)	1,721,539	대한수입액('14/US\$백만)	128,046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스마트카드	선정사유	○ 전자 디바이스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로 인해 관련 부품의 해외 조달 증가 추세		
	시장동향	○ 컨덴서와 함께 수요 증가 중으로, 특히 관련 부품 대부분을 해외 조달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 도시바,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주요 제조사		
	진출방안	○ 규슈 '실리콘아일랜드(일본 국내 IC 30% 생산)' 활용 각종 조달 상담회 유치		

2-6. 한류 후광효과 사라진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거대 규모의 변동이 없는 성숙한 시장
 - 일본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1조 4,881억 엔 ('14년도, 메이커 출하액 기준)이며, 매년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성숙한 시장구조가 특징
 - * '14년의 경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수요 등으로 4.3% 상승 기록
- 비화장품 메이커 신규 진입 증가, PB 브랜드 확대
 - '07년 '아스타리프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후지필름을 필두로, 식품(글리코, 아지노모토), 의약품(로토제약) 등 비화장품 메이커들의 시장 참여 증가
 - 소매 유통의 양대 산맥 이온과 세븐&아이 홀딩스가 각각 화장품 PB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일본 소매시장에 불고 있는 PB열풍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대
- 소비재 중 한류의 특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제품군 중 하나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K-Beau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한국 화장품 큰 인기 형성. BB크림, 달팽이크림, 마스크팩 등 히트상품도 다수 배출
 - * 한국산 화장품의 강점은 가격 대비 높은 품질과 뛰어난 아이디어
 - 최근 한일관계 경색으로 화장품 수출 감소했으나 경쟁력에 대해 충분히 검증된 만큼,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
 - * 화장품 대일 수출추이(백만 달러) : ('12년) 170 → ('13년) 145 → ('14년) 122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생산 아웃소싱 확대
 -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및 산하 브랜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탁 생산 시장 확대 중
 - 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도 확산 중이며, 최근 트렌드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에서도 아웃소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
 - * 시장규모 : ('14년) 2,277억 엔 → ('15년) 2,338억 엔 → ('19년) 2,570억 엔 (예상)
-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시장 견인할 것
 - 엔저, 면세품목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 중이며,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매년 증가 추세임
 - * '15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소비액 3조 엔 돌파 예상 (관광청)
 - '16년에도 외국인 소비가 부진한 내수소비를 보완하는 형태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소비재에 해당하는 화장품 판매도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PB,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회요인 모색
 - 수년 전 한류붐 전성기에는 한국산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주효하였으나, 최근 들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PB 및 위탁생산을 희망하는 화장품 메이커를 공략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한국 화장품 수입 경험 보유 파트너 발굴
 - 한국 화장품이 붐이던 당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아이디어 제품이 크게 히트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지 않아 실패한 사례도 발생
 - * 한방, 인삼성분 함유 제품 → 일본인의 향에 대한 거부감 등
 -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의 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3307	수입관세율(%)	4.6~6.7%
면도용 조제품, 인체용 탈취제 등	수입액('14/US\$백만)	471,12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265
	선정사유	○ 사회적인 관심 및 다양한 상품 출시로 향후 시장 확대 유력		
	시장동향	○ 남성화장품 시장 규모 7.3% 증가 (3년전 대비)		
	경쟁동향	○ '가츠비'로 유명한 만담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여성 화장품 전용 업체에서도 잇달아 신제품 출시하는 등 경쟁 심화되고 있음		
	진출방안	○ 모발케어 및 안티에이징 제품을 중심으로 남성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2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5.8%
미용용 조제품 (기초화장 관련 조제품)	수입액('14/US\$백만)	780,430	대한수입액('14/US\$백만)	57,378
	선정사유	○ 특정 효과를 어필하는 화장품보다는 화학 성분이 적게 함유된 기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욕 증가		
	시장동향	○ 목욕 또는 세안 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가의 대용량 기초 화장품 판매 증가		
	경쟁동향	○ 시세이도 및 카오가 시장 60% 이상 차지, 천연 소재 및 비교적 저가격의 환켄과 닥터시라보 등 비교적 신규 업체의 매출 증가 중		
	진출방안	○ 일본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국내 한방 성분보다는 화학성분이 적은 원료와 친환경 재료를 엄선한 화장품으로 시장 공략 필요		

2-7. 해외생산 확대중인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전략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완성차/부품) 산업의 일본 경제 비중은 20%
 - * 전체 GDP의 20.6%, 전산업 매출액의 27.0%, 제조업 출하액의 54.6% ('14년 기준)
- 주요 완성차 신흥 해외생산거점 확대 활발
 - 주요 완성차 및 1차 벤더는 동남아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적극 확충중
 - * 신공장 가동예정: 멕시코(도요타 '19년/닛산 '17년), 인도(스즈키 '17년), 인니(미쓰비시 '17년)
 - 생산거점 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상 기획 및 개발업무 해외이전 상승 추세
 - * 제품기획(10.2%→17.6%), 기초연구(3.7%→6.7%), 시작개발(10.7%→14.7%) (경제산업성, 주요기업대상 설문조사('12.12월))
 - 일본 완성차의 '15년도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약 929만대, 해외 생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약 1,906만 대로 전망
- 마더 팩토리(에코카 중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
 - 자동차산업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25.7%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 추세
 - * 해외/국내 비율은 '14년 110.6%, '15년 97.8%로 국내투자비율이 상승 : 엔저 기조로 마더 팩토리에 대한 국내설비투자 증가가 원인 (일본정책투자은행,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15.8월, 대기업))

<2015년 일본 주요 완성차별 세계 생산계획>

구분	2015년 생산계획			
	국내생산(대)	전년대비(%)	해외생산(대)	전년대비(%)
도요타	3,200,000	100.5	5,850,000	101.5
닛산	877,378	100.7	4,604,000	110.7
혼다	850,000	98.0	3,895,000	108.8

* 자료원 : IRC, '자동차산업레포트'('15.6.10)

□ '16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저연비 경쟁 심화) HV 뿐만 아니라 일반 연료효율을 높인 가솔린 엔진, 클린 디젤엔진 등을 탑재한 2000cc 이하의 소형차들을 시판,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모
- (신규장르 차량 개발) 디자인, 엔진 등 주요부문에서 새로운 장르의 차량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필
 - 경차의 실내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여성 등 신규 소비자층 확대 추진 (다이하츠, 스즈키)
 - 수소연료전지차(FCV), 자동운전차량 등 신개념 차량 상용화(도요타, 닛산, 혼다)

- (첨단안전기술 도입 확대)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PCS(Pre-Crash Safety System) 등 운전지원 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안전성 제고
- 도요타는 '17년부터 PCS를 전체 도요타 및 렉서스 라인에 도입할 예정
- (부품공통화/모듈화)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NCMF(Nissan common module Family) 등 부품공통화 정책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 및 코스트 절감 움직임 확대
- (VW 배출가스 문제) '클린디젤차'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손실로 일본 완성차가 향후 주도권을 질 수 있는 호기이며 HV, EV, FCV로 시장관도 변화 예상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완성차 업체 및 1차벤더가 부품공통화·모듈화를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듈부품 또는 부분품이 유망
- 완성차에서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동일품목에 복수의 서플라이어를 이용하고 있어, 일본계기업이 독점적 공급구조를 갖는 품목을 위주로 시장진출 시도가 유리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80000	수입 관세율(%)	없음
	수입액('14/US\$백만)	312	대한수입액('14/US\$백만)	103
쇼크 업소버 (Shock absorber)	선정사유	○ 일본국내 상위 3개사가 9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해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 최근 만도→닛산, 에스앤티모티브→다이하츠 납입을 개시하여 급격하게 대한 수입량 증대중		
	경쟁동향	○ KYB 39.8%, 히타치오토모티브 28.4%, SHOWA 25.9%		
	진출방안	○ 자기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완성차를 대상으로 코스트 메리트 어필 및 해외생산거점 타겟으로 영업활동		
품목명 2	HS Code	870829000	수입 관세율(%)	없음
	수입액('14/US\$백만)	1,013	대한수입액('14/US\$백만)	130
선바이저 (Sun visor)	선정사유	○ 일본국내 1개사가 86.4%의 시장점유율 보유, 코스트절감을 위해 각 완성차별로 대체 기업 모색중		
	시장동향	○ '15년부터 용산에서 스텝키사 납입 개시. 패드재료는 리사이클이 용이한 PP수지로 단일화 되었으며 향후 에코프라스틱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교와산업 86.4%, 시게루공업 6.6%, 카사이공업 4.7%		
	진출방안	○ 부가가치를 부여한 상품을 개발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일본계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일본시장 공략		

2-8. 공작기계 중심의 일본 기계산업 진출전략

□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기계산업 시장 축소경향
 - 일본 기계산업 생산액은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으로 신규설비 투자 증가, 소비세 증세 전 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그러나, 유럽 경제불황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아 '14년 전체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62조 9,061억 엔으로 집계
- 공작기계 수입 완만한 상승 추세
 - 내수시장 개선 및 일본 공작기계 메이커의 현지공장 역수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 대수 증가
 - 공작기계 대한수입은(대수 기준) 최근 3년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추세

<공작기계 수입대수 추이>

(단위 : 대,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대수(비중)	증가율
총수입	138,525(1.1)	△0.6	139,702(1.9)	0.8	141,358(2.9)	1.2
대한수입	1,463	23.4	2,644	80.7	4,164	57.4

* 자료원 : 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 산업기계와 ICT 융합 대두
 - 일본 정부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및 건설기계 분야의 ICT 융합 가속화 추세
 - 기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ICT 융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작기계 분야 기존 절삭가공에 신기술 접합,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
 - 3D프린터 기술(적층조형)을 활용해 하나의 공작기계로 부품 원형 제작하거나 마찰열로 두 소재를 용해시켜 접합하는 등의 신기술을 기존 공작기계에 추가하여 복합가공에 따른 공정 간략화로 신규 수요 발굴

- 일본 국내 금형 수요 감소, 해외거점 수요 확대
 - 주요 고객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거점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어 해외거점에서의 금형수요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해외거점의 현지 서플라이어만으로는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 일본 또는 기타 해외로부터 금형을 조달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기계산업 분야내 경쟁제품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함
 - IoT 기능 탑재, 3D 프린터용 기계부품, 소형 정밀금형 등 블루오션 선점이 필요
- 관련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정부 수출지원제도(해외지사화,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를 활용하여 타겟 바이어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HS Code	848071	수입관세율(%)	없음
	수입액('14/US\$백만)	613	대한수입액('14/US\$백만)	327
사출금형	선정사유	○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뛰어나 신속한 납기 가능		
	시장동향	○ 금형을 제작하던 기존 일본 기업들이 제작에서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변화 (정밀금형 제외)		
	경쟁동향	○ 동 품목은 한국, 중국, 태국의 3개국이 일본 수입물량의 약 90%를 차지 ○ 한국은 전체 물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여년간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중		
	진출방안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통해 금형설계 (이전 금형제조)기업 대상 영업활동 진행 ○ 공동 해외진출 및 A/S 협력체계 구축 - 일본 제조업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일본 금형업체의 해외진출 요청 증가 - 인력 및 자본 등의 문제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일본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해외진출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日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심화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Korea Parts & Components Plaza 2016

- 추진 목적
 - 엔저 장기화에 따른 대일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대형 상담회
 - 부품소재 GP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대규모 GP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년 하반기 / 도쿄
- 사업 내용 : 日 글로벌기업 및 계열사와의 1:1 수출상담회
- 추진 규모 : 혼다, 닛산, 히타치 등 글로벌 바이어 등 200개사, 국내기업 70개사

□ 덴소 차량용 애프터마켓용품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덴소사는 '20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용 애프터마켓 사업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
 - 신흥시장의 차량용 애프터마켓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의 판로 개척 필요
- 시기/장소 : '16.2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애프터마켓용 전장제품 및 교체부품 생산 국내기업 대상 제품 전시회 및 1:1 개별상담회 개최
- 추진 규모 : 국내 차량용 애프터마켓 용품/부품 생산기업 20여개사

□ 닛산 납품기업 품질관리 교육 (계속, 확대 추진)

- 시기/장소 : '16.2.4분기 (각 2회) / 닛산 납품기업 본사 및 공장 라인
- 사업 내용 : 닛산자동차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불량 재발방지 및 불량 해결 방안 지도 등
- 추진 규모 : 닛산 납품 1차 협력사 및 2, 3차 협력사

□ 차세대 차량 부품개발 전략수립 세미나 개최

- 추진 배경 : 환경규제 강화 및 차량 경량화로 차세대 차량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세대 차량 부품 기술대응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필요
 - * '26년 세계자동차 생산대수 1억 1,300만대 중 차세대차량의 비율은 18% 수준 확대 예상
- 일시/장소 : '16년 하반기 / 시즈오카 공업 기술연구소
- 참석자 : KAPP 입주기업 마케팅 및 R&D 담당자
- 사업 내용 : 차세대 자동차 산업동향 설명회, 실제차량 분해 및 분석 통한 향후 개발전략 구축(차량 분석)

□ 스즈키자동차 인도 구자라트 신규공장 조달상담회

- 추진 배경 : 스즈키사 인도 구자라트 신공장 건설('17년)에 따른 조달수요 선제공략
 - * 구자라트 신공장 서플라이어 체인 구축은 '16.1분기 구체화 예정
- 시기/장소 : '16.3분기 / 나고야
- 사업 내용 : 스즈키사 조달정책 설명회, 1:1 개별상담회, 인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업유치 설명회
- 추진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현지진출기업 포함) 및 금형기업 30여개사

□ 日 완성차메이커 FCV 및 ADAS 부품조달 상담회

- 추진 배경 : 자동차 관련 첨단분야 시장 확대 전망
 - * (혼다) '16.3월 FCV 출시 예정에 따라 수소센서, 연료탱크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첨단 부품소재 조달수요 증대
 - * (닛산)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에 주력, 주요 협력사 또한 선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신규벤더 발굴수요 확대 움직임
- 시기/장소 : '16년 상반기 / 일본 완성차 본사 및 공장
- 사업 내용 : 완성차 개발 / 조달담당 및 협력사와 1:1 개별상담
- 추진 규모 : 일본 완성차 기업, 국내 FCV 및 ADAS 관련기업 15개사

□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연중 편포인트 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10.5(수)-7(금) /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개별 수요 발굴, 적격 국내기업 발굴 및 상담 주선, 방한 상담 개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 규모 : 혼다, 닛산, 히타치, 소니 등 일본 글로벌기업 40개사 연중 지원

2. 일본 성장정책 등 수요발생 분야 활용 신규시장 진출 강화

□ (IT) Korea Japan Security Partnering 사업

- 추진 배경
 - 마이넘버 도입에 따른 일본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 보안강화 기조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 IT시스템 보안 기준 강화 움직임
- 시기/장소 : '16.3.16(수)-18(금) / 본사 및 KINT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SECON 2016) 참가
- 추진 규모 : 도시바 등 보안 관련 글로벌바이어 5개사, IT 보안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IT) Smart Korea Forum In Japan 2016

- 추진 배경 : IT업계 핫이슈인 IoT, Wearable기기 및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IT산업 전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 '16.6월 / 도쿄
- 사업 내용 : 한국 IT산업·시장동향 세미나 및 전시상담회
- 추진 규모 : 일본 ICT기업 바이어 500여명, 국내기업 50개사

□ (IT) KOREA ICT PLAZA 2016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 시기/장소 : '16.10월 / KOTRA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 참가
- 추진 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KDDI, Softbank 등) 5개사, 국내기업 30개사

□ (IT) KOREA IoT Partnering 사업

- 추진 목적 : 日 이동통신사 신규 수요에 대응, IoT 기업의 일본 진출기회 발굴 및 지원
- 시기/장소 : '16.10월 / 본사 및 COEX
- 사업 내용 : 1:1 개별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IoT Korea) 참가
- 추진 규모 : 일본 주요 통신사(NTT, Softbank 등) 5개사, IoT 관련 국내기업 30개사

□ (바이오) 제 4회 한일 Medical Partnership Plaza

- 추진 배경 : 일본 바이오 의약품 시장 급성장 및 관서지역 국가 의료특구 지정('14.3월)
 - * 일본 의약품시장 규모 : ('13년) 8,900만 달러 → ('20년) 9억 달러
- 시기/장소 : 미정 /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메디컬 파트너십 설명회, CRO포럼, 바이오벤처 라이선싱 발표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부자재, 병원, 한방 수출 상담회
 - 한국 의료 투자환경 설명회 병행 개최
- 추진 규모 :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100개사

□ (에너지) 제 6회 한일 절전·에코 플라자 개최

- 추진 배경
 - (전력기자재) 소매전력 시장 전면개방('16.4월) 및 요금인가 규제 철폐('20.4월) 등 경쟁체제 본격 도입으로 비용절감 위한 해외조달 확대 움직임
 - (절전 및 에코제품) '20년 에너지 절약기준 준수 의무화, '30년 ZEB, ZEH 실현 계획에 따라 절전 및 에코제품 관련시장 확대 전망
- 시기/장소 : 미정 / 오사카
- 사업 내용
 - 한·일 절전 에코 포럼
 - 절전 에코 1:1 상담회 / 전력기자재 기업 파트너링 상담회
 - (동반성장진출) 남동발전 전력기자재 무역사절단 연계 추진
- 추진 규모 : 일본 전력기자재, 절전제품 취급 기업 100개사

□ (건설기계) 건설기계 부품&자동차 부품 연계 상담회

- 추진 배경
 - 일본 수도고속도로 등 중장기적 수도권 인프라 관련 수요 증가로 일본 건설 기계사의 생산력 증강 및 제조비용 절감 위한 신규 조달처 모색 활발
 - 건설기계 부품에는 산업기계부품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계상담회 실시
- 시기/장소 : '16.7월 / 도쿄
- 추진 규모 : JFE엔지니어링, IHI, 건설/자동차관련 바이어 30개사, 국내기업 15개사

3. 프리미엄 소비재 활용 통한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K-CON 2016 연계 대중소 동반진출 전시상담회

- 추진 목적 : K-CON 2016 콘서트와 연계, 한류 프리미엄 활용 문화+비즈니스 융복합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 추진
- 시기/장소 : '16.2분기 / 도쿄
- 사업 내용 : 패션/미용, 한류컨텐츠, 생활용품 등 40여 개사 참가, 日 글로벌 유통망 대상 1:1 전시상담회 개최

□ Amazon Japan B2B 방한 수출상담회

- 시기/장소 : '16.3분기 / KOTRA 본사
- 사업 내용 : Amazon Japan과 국내 소비재 기업간 1:1 수출상담
- 추진 규모 : Amazon Japan B2B 사업본부 및 유통 벤더사, 국내기업 20개사
- 상담 품목 : 인테리어 제품 등 생활 소비재

□ 간사이 TV 한국 프리미엄 상품 판촉전

- 추진 배경 : 일본 B2C 전자상거래(EC) 시장의 비약적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온라인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시기/장소 : '16.4분기(연중 1회) / 오사카
- 사업 내용 : 일본 현지 지상파 TV 연계, TV 판촉방송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추진 규모 : 한국기업 10여개사

□ Beauty World Japan West 2016 한국관 운영

- 추진 배경 : 한류 활용 일본 화장품 등 뷰티시장 공략 확대 필요
- 시기/장소 : '16.4분기 / 오사카
- 추진 규모 : 뷰티용품 제조기업 및 유통상사 100개사, 국내기업 10~15개사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93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293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295
3. A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298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300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301
II. 진출환경 분석	30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04
2. 경제 환경	305
3. 산업 환경	307
4. 정책·규제 환경	310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312
III. 시장 분석	314
1. 수출	314
2. 투자진출	325
3. 프로젝트	337
4. 인력진출	345
IV. 시장진출전략	348
1. 진출전략 개관	348
2. 세부 진출전략	349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363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FTA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아세안 전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었고, 12월에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산업별 분업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침체, 미국 금리인하 등 외부 요인별 영향은 아세안 회원국별 다원화, 분산되는 한편, 공통적으로 도시화 진전 및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 고급 쇼핑몰,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고급화, 대형화되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추세

1.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 목표 :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 특징 : EU식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을 통한 공동 대외관세를 도입한 반면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별 관세제도 유지
- 경과 : 우선적 조치 기준 진도율은 92.7%(469/504)이나, 전체 조치 기준 진도율은 79.8%(486/611)로, '16년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합의단계 첫 해로 의미부여
- 단, AFTA(아세안 FTA)의 착실한 이행과 대외경제 통합노력은 대내외 교역확대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 시현
- * 아세안국가들의 무역규모는 1993년 4,3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조 3886억 달러로 6배가량 증가했고, 동 기간 세계무역증가율은 8.4%인 반면 아세안의 무역 증가는 10.7%
- ☞ 아세안 고위급 실무단 회의(2015년 3월 1일)에서 201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역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을 발표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목표 및 진도율>

목표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추진내용	- 아래 분야의 자유화 - 상품 - 서비스 - 투자 - 자본 - 인력	- 아래 분야의 토대 마련 - 경쟁 정책 - 소비자 보호 - 인프라 개발 - 지적재산권 - 운송협정	- 중소기업 발전 - 회원국간 경제 개발격차 해소	- 대외경제관계 협력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진도율(%)	92.4	90.5	100	100

* 자료원 : ASEAN(AEC Scoreboard. 2015.10월)

□ 주요 항목별 이행 진도율 및 쟁점 사항 분석

① 상품

- (경과)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은 교역 상품관세의 99% 철폐,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98.6% 철폐, 2018년까지 민감품목 포함 완전 철폐
- (현안)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 시급

② 서비스 및 인력

- (경과)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진도율은 57%에 머뭇.
- (현안)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 커,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
- *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소수의 전문직 직업군(의사, 간호사, 치의공, 건축가, 회계사, 엔지니어, 여행관련업종)으로 제한하여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

③ 투자 및 자본

- (경과) 2011년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ACIA)를 비준하고 제조업, 농수산업, 임업, 광업 분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와 기준을 수립,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
- (현안)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정책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며, 회원국 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심해 역내 투자협력에 소극적

□ 전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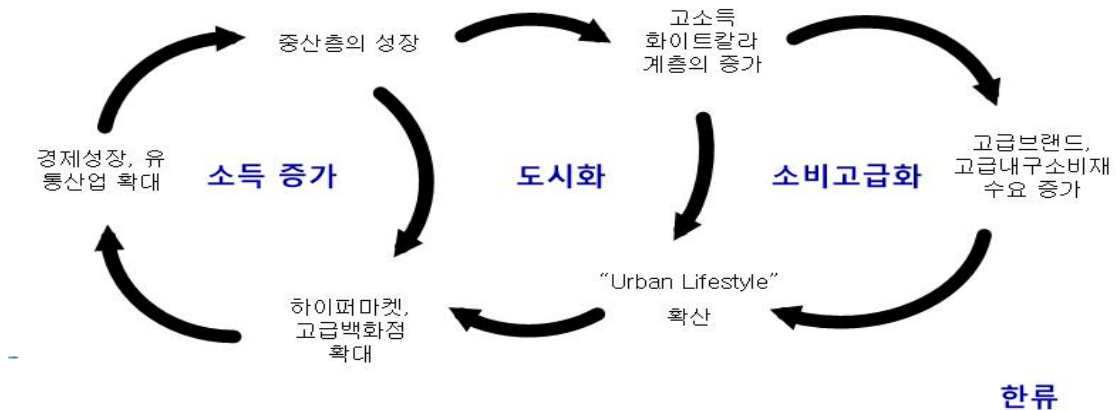
-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경제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단, 그 과정에서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이 가속화 되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아세안의 역할이 증대되고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 교류 확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증가 예상

2. 진화하는 소비재 시장

□ 동남아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전체 규모 급성장

-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증가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 아세안 국가의 중·상류층 인구는 2008년 2억 명에서 2020년에는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일본 미즈호 은행)
- 가처분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의 고급화·서구화
 - 친환경·기능성 식료품, 패션용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 폭증
- 이는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통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 현대적 유통망 선호, 확대 추세

< 동남아 소비시장 변화 유인 분석 >



<아세안 주요 국가별 소매 유통시장 현황>

국가	현황 및 주요 이슈
 베트남	☞ 자국계 쿠팡마트(Co-op mart) 등 강세 롯데마트(10개 매장), 이마트(1,2호점 개설 준비 중) ▶ 슈퍼마켓, 쇼핑센터 등 서구형 유통매장 빠르게 확산 ▶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이상의 고성장세 기록
 인도네시아	☞ 자국계 Indomaret, Alfamart 등 강세 롯데마트 진출 (39개 매장) ▶ 현대식 유통매장 비율이 '04년 7.5%에서 '14년 16.2%로 성장 ▶ 자국계 2개 브랜드가 상위 10위 매출액 합계의 50% 차지
 말레이시아	☞ Aeon(일본), Mydin(자국계) 등이 강세 ▶ 정부의 소매유통 지원 정책으로 현대적 유통매장으로 시장 개편 중 ▶ 자국계/글로벌 유통기업의 공격적으로 현지 확장 전략 - Aeon(일) 35개→60개 매장 확대, Mydin, '18년까지 42개 매장으로 확대
 태국	☞ BJC, Central Group 자국계 강세 ▶ 현대식 유통채널의 비중이 약 40% 정도이며, 대형·고급 유통망 시장 활성화되는 추세

* 자료원 : KOTRA (www.globalwindow.org)

□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비중은 평균 1~3%, 성장률은 20~25%로 성장 잠재력 다대

- 소비시장 성장속도가 빠르면서 규모가 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는 온라인이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미미하나(온라인유통비중 : 전 세계 평균 5.8%, 중국 12%) 연 20% 내외로 급성장 중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 (단위: 조VND,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333.7	99.2	1,526.2	99.1	1,733.7	99.0
- Grocery	917.5	68.3	1,092.8	71.0	1,257.8	71.8
- Non-grocery	413.0	30.7	429.3	27.9	470.8	26.9
- Mixed	3.2	0.2	4.0	0.3	5.1	0.3
온라인	10.6	0.8	13.9	0.9	17.9	1.0
- Direct selling	5.2	0.4	5.9	0.4	6.6	0.4
- Home shopping	0.4	0.0	0.6	0.0	0.7	0.0
- Internet retailing	4.9	0.4	7.4	0.5	10.6	0.6
- Vending	-	-	-	-	-	-
총계	1,344.3	100.0	1,540.1	100.0	1,751.6	100.0

*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베트남 유통시장 전망 (단위: 조VND, %)>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4.7	5.2	1,914.2	4.9	2,000.6	4.5
- Grocery	1,334.8	6.1	1,407.1	5.4	1,473.3	4.7
- Non-grocery	484.2	2.8	500.6	3.4	520.1	3.9
- Mixed	5.7	11.8	6.4	12.3	7.1	10.9
온라인	21.5	20.1	25.9	20.5	31.1	20.1
- Direct selling	6.9	4.5	7.2	4.3	7.5	4.2
- Home shopping	0.8	14.3	0.8	0.0	0.9	12.5
- Internet retailing	13.8	30.2	17.8	29.0	22.8	28.1
- Vending	-	-	-	-	-	-
총계	1,846.2	5.4	1,940.1	5.1	2,031.7	4.7

*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현황 (단위: 조IDR,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오프라인	1,483.0	98.4	1,622.8	98.2	1,767.9	97.8
- Grocery	1,018.3	67.5	1,102.7	66.7	1,191.3	65.9
- Non-grocery	431.5	28.6	482.6	29.2	534.3	29.6
- Mixed	33.1	2.2	37.5	2.3	42.4	2.3
온라인	24.5	1.6	30.0	1.8	39.1	2.2
- Direct selling	19.0	1.3	21.9	1.3	25.4	1.4
- Home shopping	0.1	0.0	0.3	0.0	0.3	0.0
- Internet retailing	5.4	0.4	7.9	0.5	13.4	0.7
- Vending	-	-	-	-	-	-
총계	1,507.5	100.0	1,652.7	100.0	1,807.0	100.0

*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전망 (단위: 조IDR, %)>

구분	2015년(F)		2016년(F)		2017년(F)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시장규모	성장률
오프라인	1,826.2	3.3	1,885.4	3.2	1,945.1	3.2
- Grocery	1,219.7	2.4	1,248.4	2.4	1,277.1	2.3
- Non-grocery	560.8	5.0	587.8	4.8	615.0	4.6
- Mixed	45.7	7.8	49.3	7.9	53.0	7.5
온라인	45.5	16.4	52.9	16.3	61.5	16.3
- Direct selling	27.1	6.7	29.1	7.4	31.1	6.9
- Home shopping	0.4	33.3	0.4	0.0	0.5	25.0
- Internet retailing	18.1	35.1	23.5	29.8	30.0	27.7
- Vending	-	-	-	-	-	-
총계	1,871.8	3.6	1,938.3	3.6	2,006.6	3.5

*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젊은 중산층 주도, 가격보다 질 우선

- 동남아 소비시장 주도 계층은 중산층 여성으로, 가처분 소득증가로 가격보다 질을 우선하며,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선호



* 닐슨 리서치 2014년 보고서 "ASEAN 2015"

□ 시사점

- 한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온라인 유통시장이 도입-고속성장 단계인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온라인 유통진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추진
- 까다로운 입점조건·수입벤더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하여,
 - ☞ KOTRA-온라인 쇼핑몰-유력 수입벤더 3자가 협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3. AIIB 출범과 인프라 시장 변화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개요

- 신흥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한계 및 결점 보완

- * ADB는 2010~2020년 간 인프라 투자 수요 약 8조 달러의 5% 정도만 충족 가능
- * 중국의 ADB지분율 6.5% (일본 15.7%, 미국 15.6%, EU 14.4%)
- * 미국은 IMF(17.7%), WB(15.9%)에서 거부권 행사 (중국 3.8%, 4.4%)

<AIIB와 기존 국제 금융기구의 비교>

	AIIB	IMF	WB	ADB
설립목적	아시아인프라개발	국제금융 안정	세계 경제 부흥	아시아 경제 개발
설립시기	2016년(예정)	1945년	1944년	1966년
주도국 (지분)	중국 (30%이상 예상)	미국 (17.69%)	미국 (15.85%)	일본(15.67%), 미국(15.56%)
본부	베이징 (예정)	워싱턴 DC	워싱턴 DC	마닐라
자본금(US\$)	1,000억(잠정)	8,370억	2,230억	1,650억
회원국 수	57개	188개	188개	67개

□ 기대효과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붐 조성 및 경기침체 돌파구 마련 가능
- 기존 국제금융기구들이 빈곤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한 최초의 은행으로 연간 80~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 기회 창출
- 자원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어 건설 붐 및 경기 활성화 기대

<AIIB 자금 활용 가능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예시>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내용	현 단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대 방조제 (NCICD)	347억 달러	자카르타 북쪽에 17개 인공 섬과 거대 방조제 건설 프로젝트	초기 인공 섬 간척 작업이 개시됐으며, 거액의 자원 조달을 위한 방안 모색 중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150억 달러	인니 자바 섬을 횡단 하는 86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 사업	1단계 자카르타-반둥 구간에 대하여 중국 - 일본 기업 컨소시엄 간 수주 경쟁 중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300억 달러	하노이-호치민간 1600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1단계 420km 구간 발주 예정
ASEAN	ASEAN 전력망 프로젝트	-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 통해 화석연료 무역 거래에 소요되는 물류비 절감 및 경제성 제고	총 14개 커넥션 중 2개 완성, 나머지 프로젝트 실행 준비 중 (분야별로 2020년 이후까지 지속)

-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국제금융기구에 영, 독, 프 등 서구 선진국까지 참가를 선언, 2차 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주도 국제 금융질서에 변화 조짐
-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진입과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발족도 촉발 가능

[참고] 기타 지역 다자개발은행(MDB) 설립 추진 현황

- NDB(New Development Bank): 신 개발은행 (World Bank와 유사한 성격)
 - BRICS 5개국 참가, 회원국 간 교역증진 목적, 2016년 출범예정
- CRA(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긴급 외환 지원기금 (IMF와 유사)
 - BRICS 5개국 참가, 회원국 간 금융위기 최소화 목적, 2016년 출범예정

- 기존 인프라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를 장악해온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궁극적으로는 MDB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우리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의미

<MDB 시장규모 및 우리기업의 MDB 수주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시장규모	한국실적	점유율
WB	14,584	363	2.48%	13,238	91.68	0.693%
ADB	7,580	278.72	3.67%	6,570	473.94	7.20%

* 주 : 실제 수주기업은 일부 기업 10여 개 사에 편중 (시공분야)

* 자료원 : 한국국제협력단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
-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철도, 해상물류, 에너지, 통신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신 실크로드’ 구축 구상을 최초 발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 실크로드’의 ‘一帶’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 출발해 서남아를 거쳐 유럽 -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一路’를 의미.



4. 지속되는 한류 영향력

□ 한류 연관 산업 수출 효과

- 對 아세안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5% 성장(성장률 기준 세계 1위)

<한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중국	일본	아세안	북미	EU	기타	합계
2011년	1,119	1,248	777	468	325	209	4,146
2012년	1,229	1,348	862	491	329	200	4,460
2013년	1,306	1,456	931	519	349	189	4,750
연평균 증가율(%)	8.0	8.0	9.5	5.3	3.6	△4.9	7.0

* 콘텐츠 분류 : 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 자료원 :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최신자료)

- 식품, 화장품, 의류 등 한류상품 수출은 최근 3년간 평균 22.7%로 급성장

<대 아세안 한류품목 연도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MTI)	2012		2013		2014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농산가공품(016)	92	24.3	101	9.5	116	14.6
음료(0159)	29	73.3	46	53.9	55	20.6
화장품(2275)	193	23.0	219	13.4	249	14.1
의류(441)	368	21.4	498	35.5	597	19.8
합계	682	23.8	864	26.5	1,017	17.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한류마케팅 활용 제고

- 한류 이외 아시아권 킬러 콘텐츠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K-POP 및 한국 드라마 인기를 활용한 PPL, 한류 스타 마케팅은 계속 유효할 전망

* 말레이시아에서 중소기업 B사의 트레이닝복이 걸그룹 '씨스타'를 통해 홍보, 30억원 매출 기록

- 중산층 확대에 급성장하는 동남아 소비재 유통시장에 주목

- 한류 연관 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식음료, 생활소비재 등)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유통기업 진출 및 성장이 가파른 동남아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Two-Track 공략

5. 선거 등 정치상황 변화

□ 미얀마 총선 이후 변화

- 2015년 총선(11.8)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압승
 - 아웅산 수치여사가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
 - * 미얀마 대통령 후보자격(제59조) : 군사지식 보유자, 후보자 직계가족의 미얀마 시민권 보유
 - 상하원 의원의 25%가 군부에 할당되는 만큼, 군부의 합의 없이는 미얀마 헌법 개정 불가하여 헌법 개정에 대한 집권당의 태도가 관건
 - * 미얀마 헌법 개정요건(제436조) : 상하원합동의회 75% 이상 찬성, 국민투표 요구
- 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던 미얀마 통합 투자법이 제정되면, 개선된 투자 환경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얀마 통합 투자법은 미얀마 시민 및 외국인을 각각 대상으로 하던 두 종류의 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으로서, 현존하는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기존에 애매모호했던 법안들을 구체화하고자하는 내용을 포함
- 대외적으로는 2012년 시작된 미국의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
 - 미국이 미얀마의 첫 민주주의 선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 부여 움직임 본격화 전망
-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급변을 우려하여 다소 주춤하던 외국인 투자가 대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가 총선 및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수입 및 투자가 주춤했음.
 - * 전년도 대비 대미얀마 투자 유치액 증가율 : 189.2%('13), 95%('14), △13.6%('15.8월 기준)
- 재정수입 적자 축소 및 신규 재정투입 확대 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연이을 전망
 - 조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체되었던 법안 및 세부시행령이 속속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필리핀 대선 실시 ('16.5.9)

- 집권여당 후보 마 로하스(Mar Roxas) 前 내무부장관, 야당 후보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現 부통령, 무소속의 그레이스 포(Grace Poe) 여성 상원의원 등 세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음.
- 2015년 9월말 기준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비나이 후보(21%), 로하스 후보(18%)가 추격하고 있음.
- 세 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비나이 후보가 가장 親기업, 親한국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정부 발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잠정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1월 이전까지 이미 공지된 프로젝트 발주를 서두르고 있어 입찰 참여 희망 기업들 역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태국 군부, 정권 민정이양 연기

- 태국은 군부의 정권 민정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과도기형 정부 체제 지속, 정치 불안 잔존 및 효율적 경기 부양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2014년 5월 22일 군부가 쿠데타를 선포하면서 출범한 태국 과도정부는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헌법 개정 후 총선을 통해 정권 이양 계획
- 2015년 9월 National Reform Council이 개정 헌법 초안을 부결함에 따라 개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총선은 2017년 이후 가능할 전망

<태국 총선 로드맵>

목표	소요기간	내용
2015년 10월	1달	새 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CDC) 멤버 임명
2016년 4월	6개월	새 헌법 초안 작성
2016년 8월	4개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Public Referendum)
2016년 9월	-	헌법 개정 완료(Decla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new Charter)
2016년 10월 이전	2개월	관련 법령 개정 작업
2017년 1월	3개월	National Reform Council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승인
2017년 2월	1달	Constitutional Court 관련 법령 검토 및 승인
2017년 3월	3개월	총선 이전 관련법령 개정 공고 및 발효
2017년 6월	-	총선 실시
2017년 7월	1달	새 민선 정부 출범

* 자료원: Manager Online

2016년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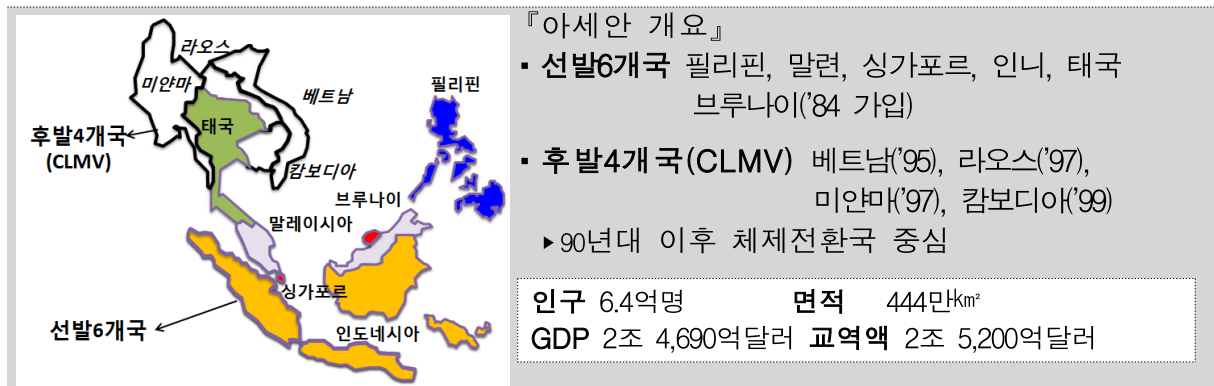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비준 : 2016 연중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운자활동 시작
- ASEAN-Hong Kong FTA (AHKFTA) : 연내 협상 완료 추진
- 한-뉴 FTA 발효 : 2016
- 한-베 FTA 발효 : 2016
- 베트남 5개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2016~2020년) 발표 : 1월(잠정)
- 태국 철도복선화 2단계 착공 : 2월
- 싱가포르 2016년 정부 예산안 발표 : 2월
- 싱가포르 에어쇼 : 2.16~21
- 미얀마 대선 : 3월
- 뉴질랜드 국기변경 국민투표 : 3.3~24
- World Halal Summit : 3.30~4.2 (쿠알라룸푸르)
- 라오스 총선 : 3월말
- 라오스 대선 : 4월
- 2016 베트남 엑스포 : 4.6~9
- 뉴질랜드 정부 예산안 발표 : 5월 (잠정)
- 필리핀 제16대 대통령 선거 : 5.9
-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CommunicAsia) : 5.31~6.3
- 아시아 프랜차이즈 박람회(Franchise Asia Philippines) : 6월(마닐라)
- 뉴질랜드 Fieldays 농업박람회 : 6.15~18 (해밀턴)
- 세부 제조업 박람회(MANUFACTURING TECHNOLOGY CEBU) : 7월(세부)
- 전력·전기 전시회(POWER & ELECTRICITY WORLD PHILIPPINES) : 7.17~7.19(마닐라)
- 태국 새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 실시 : 8월
- 호주 상하원 선거 : 8.6 (잠정)
- Auto Expo Myanmar : 9.29~10.2 (양곤)
- 싱가포르 국제 물 주간 개최 : 7.10~14
- 29차 ASEAN Summit : 11월(비엔티안)

II

진출환경 분석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생산기지로서 미중일 간 진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2대 교역, 수출 대상으로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최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관세인하 적용 및 상호주의 제도 축소 등 개정안 시행 첫 해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전망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다양한 문화 및 경제상황이 공존하는 6억 인구의 거대시장

- **(경제)** 아세안 선발 6개국과 베트남 제외 후발 3개국(CLM) 간 심각한 경제 불균형
 - * 1인당 GDP 기준 싱가포르(54,000달러)는 캄보디아(1,100달러)의 49배
- **(종교·문화)** 무슬림, 힌두교, 기독교 등 지역별로 종교문화 색채 다양
 - * 화교인구 2천6백만 명, 이슬람인구 2억2천만 명
 - *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우대정책), 할랄 인증 등 특정 인증 및 종교를 우대하는 제도 존재

□ 지정학적 요충지

- 중국 및 인도 국경을 잇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중심 및 해상 교역 핵심 루트
 - *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은 대규모 국제교역의 루트이자 경유지 / 원유·가스 등 에너지 핵심 공급로로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80%가 동 지역을 경유
- 우리나라와 물리적·문화적 동일 영향권
 - * 우리와 가깝고(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 : 양곤 3,796km), 이질적 문화권인 인도 및 중동보다 동양적 문화 동질성을 지닌 지역

2.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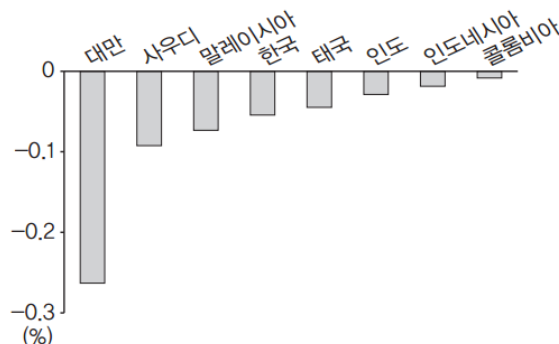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베트남, 필리핀은 성장
 - (인도네시아) 석유 관련제품 수출 감소 및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연료보조금 삭감 조치로 물가안정 영향은 제한적
 - * 2014년 11월 연료보조금을 30% 삭감하고 유류 소매가격 30% 인상 조치
 - (말레이시아) 산유국으로 경상수지 악화 및 재정적자폭(2014년 4분기에만 20억 달러 재정손실 발생)이 확대되어 경제성장 둔화 지속 예상
 - (베트남) 산유국으로 GDP대비 원유수출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되나, 제조업 수출증가 기조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국제유가 30% 하락 지속 시 29억 7,600만 달러 경상수지 감소 전망
 - (호주) 주요 산업중 하나인 광업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금융, 관광 등 내수산업 성장으로 경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필리핀) 원유 순수입국으로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하락했으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
 - (태국) 원유 순수입국이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대중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 인니, 말련은 연초대비 10% 이상 환율 상승
 - * 말련 링깃화 가치 '97년 이후 최저 수준(미달러대비 '14.4Q 3.37RM → '15.3Q 4.05RM)
-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은 고정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말련, 태국, 인니 등 경제 성장 둔화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국 경제성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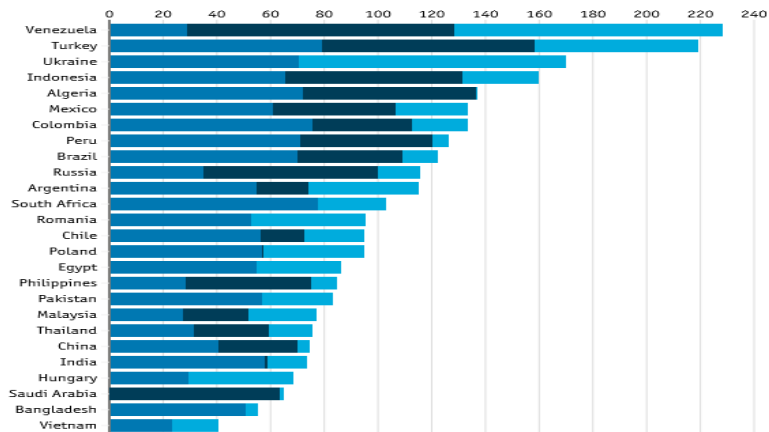
* 중국의 소비비중이 현재보다 10% 높고, 투자비중은 10% 줄었을 때 각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자료원 : LG 경제연구원(2015.11)

□ 미국 금리인상 영향

-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경상수지 악화, GDP 대비 높은 외채를 보유한 인니, 말련을 중심으로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주요 신흥국 자본동결지수>



* 자료원 : Economist(2015.9월)

□ 권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

- (아세안)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美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핫머니 유출 등 트리플 악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탄탄한 내수 및 FDI 유치 증가세 유지로 아세안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전망

* 아세안 5개국(인니, 말련, 태, 필, 베) 경제성장률 전망(IMF) : ('15) 4.7% → ('16) 5.1%

- (대양주) 호주는 자동차 제조 중단 및 대중국 광물 수출 수요 급감으로 제조업 둔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2%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대양주 경제성장률 전망(IMF, OECD) : ('15) 2.4% → ('16) 2.9% → ('17) 3%

- (참고)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7%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

* 자료원 : IMF 아세안시장 분석보고서(2014년 발간)

- 아세안의 GDP 규모는 1990년 3,425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6,655억 달러(전망치)로 약 8배 증가

* 세계 GDP 대비 비중은 동기간 1.5%에서 3.3%로 증가

- 아세안의 무역 규모는 1990년 3,066억 달러에서 2013년 2조 5,192억 달러로 약 8배 증가

* 세계 무역 규모 대비 비중은 동기간 4.3%에서 6.7%로 증가

3. 산업 환경

□ (아세안) 국제 원자재 수요 하락으로 광업 경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아세안 역내 및 일본, 중국과의 분업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지속, 건설업은 주택공급 확대 및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아세안의 역내교역은 가공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동남아내 밸류 체인을 확대하면서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및 교역액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가전·컴퓨터 수출액이 395% 증가, 휴대폰은 3년 전에 비해 932.6%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품목이 섬유·신발에서 전자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화가 빠르게 진행 중
- * (동남아 역내분업 예시) 토요타의 동남아 전략모델 키장(Kijang)은 바디프레스는 태국, 엔진은 인니, 변속기는 필리핀에서 생산하여, 완성차를 인니에 판매해 국민차 반열에 오름.

베트남의 주요 상품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유	1만450	6210	4944	7236	8395	7236
쌀	2902	2662	3212	3643	3689	2986
커피	2022	1710	1763	2741	3686	2694
고무	1597	1199	2376	3223	2876	2526
수산물	4562	4207	4953	6107	6156	6734
섬유제품	9108	9004	1만1172	1만4028	1만5035	1만7891
신발	4697	4015	5079	6523	7246	8366
목제품	2779	2550	3408	3905	4641	5496
가전·컴퓨터	2703	2774	3558	4198	7882	1만677
핸드폰	-	-	2307	6860	1만2644	2만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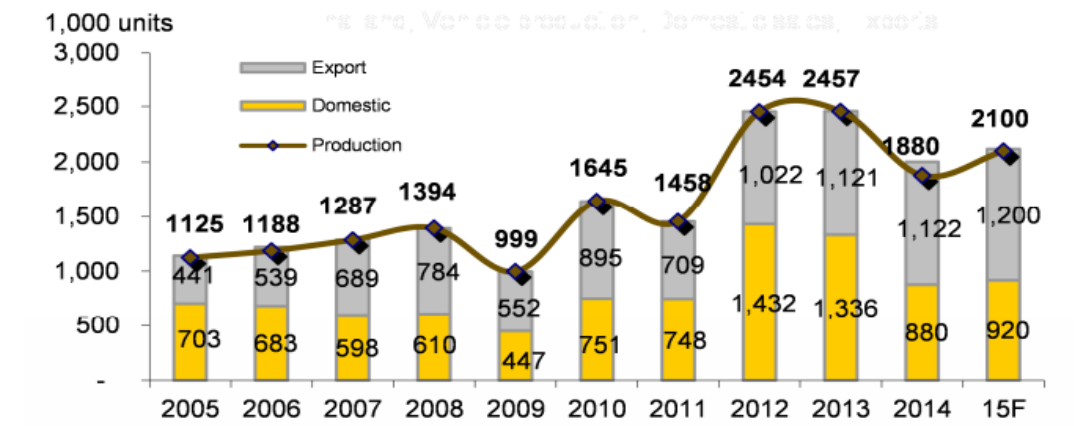
* 자료원 : 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세계통계(2015년 11월기준 최신)

- 전자산업
- (태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가 전자부품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며 전 세계 HDD의 40%가 태국에서 생산, 에어컨(세계 2위 생산), 냉장고(세계 4위 생산) 등 태국 내 생산되는 소비자 가전제품의 80%가 수출용
- (인도네시아)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분야가 주종으로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 한·일 기업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 인니기업, Midea 등 중국기업이 선전
- (베트남) 컴퓨터와 전자 제품 수출은 2015년 9월 누계기준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343억 달러, 약 39조5800억 원)의 99%를 차지,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담당할 정도로 FDI에 의존

○ 자동차산업

- (태국) 2015년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로 전년대비 11.7% 증가 전망, 일본 자동차 기업이 태국 자동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생산거점 역할로서 전략적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향후 생산량은 지속 증가 전망

<연도별 태국 자동차 생산량/내수 판매량/수출 판매량 추이, 2005-2015(F)>



* 자료원 :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Year 2015 forecasted by TRU

- (인도네시아) 국내 조립 일본차가 시장점유율의 92%를 차지, 기후 및 도로사정, 정부 조세 제도에 따라 승합차 부문이 집중 성장했으나, 2015년 경기불황으로 전년대비 54.5% 감소한 84만대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자국 및 일본 브랜드를 제외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와 별도로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 2014년 점유율 : Perodua(29.4%), Proton(17.4%) Toyota(15.3%), Honda(11.6%), Nissan(7%)

○ 섬유·봉제산업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종사인원이 약 130만 명으로 생산량 중 61%는 수출, 우리기업은 약 400개로 고용 45만 명, 수출 70억 달러 달성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9억 달러로 베트남 총 수출액의 14%를 차지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수출액(억 달러) : '11(140) → '12(151) → '13(179) → '14(209)

○ 건설업

- (태국) 건설 산업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이며, Ch. Kanchang, Ital-Thai, Sino-Thai 등 태국 건설업체도 다양한 인프라 공사 경험을 통해 토목 공사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 2014년 신정부 수립이후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로, 특히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일본 및 미국계 우수 건설기업이 시장을 장악

< 인니 건설 산업 성장률 >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0%	6.1%	7.4%	6.6%	7.8%

* 자료원 : Global Business Guide

- (베트남) 건설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주택 건설 부문 생산 가치는 총 건설업 생산가치의 40%에 해당, 건설업 전체 매출액의 8.8%가 국영기업, 84.9%가 민간 기업임.

* 베트남의 연간 건설업 생산가치(조 동) : '11(676.4) → '12(720.2) → '13(770.4) → '14(849)

○ 서비스업

- (필리핀) 소매유통시장 규모는 609억 달러를 기록,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5-20% 성장, 상당부분 해외취업근로자의 송금액이 구매력 원천
- * 콜센터, 서비스센터 등 비즈니스 아웃소싱 산업은 90년대 기반형성 이래 2010년 산업규모 91억 달러(GDP의 5%), 고용 53만 명으로 세계 1위국 부상
- (말레이시아)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움.
- (태국)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천만명에 달할 전망

□ (대양주) 호주 및 뉴질랜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림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 및 금융 등 서비스업 위주 산업구조

- 호주는 2017년까지 자동차 제조 3사(도요타, 홀덴, 포드) 제조시설을 완전 철수시키면서 자동차 제조업도 사라져 서비스업 비중이 더욱 증가할 전망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2.4%	8.8%	6.8%	82%

* 자료원 : 호주무역투자진흥처 Austrade (2015.7),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5

4. 정책 · 규제 환경

□ 주요국 산업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2015년 하반기, 경기 부양 정책 다수 발표
 - 주요 정책 내용은 규제 완화, 관료주의 철폐,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포함

<인니 2015년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

경기부양정책	주요 내용	시장반응
1차 (‘15.9.5일 발표)	○ 상업인허가(수입자 ID, 무역허가서 등) 절차 간소화 ○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제도 통한 수출지원 ○ 산업단지 조성, 협동조합 역할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향 부재로 부정적
2차 (‘15.9.29일 발표)	○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천억Rp이상 투자, 천명이상 고용시) ○ 임업 투자 간소화, 운송관련 제조업 부가가치세 면제 ○ 수출업자의 정기예금 이자세금 축소 등	긍정적
3차 (‘15.10.7일 발표)	○ 석유, 가스, 전기료 인하 (일반 가솔린 제외, 심야전기 인하) ○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 토지 투자 행정 소요시간 축소	긍정적
4차 (‘15.10.15일 발표)	○ 지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 발표 ○ 노동집약 수출 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경기활성화 기대심리 일시 상승

- (베트남)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 (Decision No.879/QD-TTg)을 발표
 - 민간기업 및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 골격으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부문으로 선정하고 선진기술 도입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꾀하고 있음.
 - 특히,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품 제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플랫폼(SNP,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 포인트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을 2015년내 수립
 - 핵심 프로젝트 과제는 센서 인프라 구축이며, 공기, 수질, 교통 등에서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2015년내 1,000여개 센서 구축 프로젝트 발주계획이 세워질 예정

- (태국)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2) 발표
 -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Activity 기준 (Sector Based Incentive)으로 재편하였으며, 법인세 면제 혜택을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

<태국 투자 인센티브 현황>

Group	Subgroup	Description	CIT exemption	Import duty exemption on machinery	Import duty exemption on raw materials for export	Non-tax ¹	SEZ privileges for promoted business ²
A: Activities that are granted CIT incentives	A1	Industries with R&D and use high technology	8 years (without cap)	✓	✓	✓	8 years CIT exemption + 50% tax reduction for the next 5 years + Full non-tax incentives
	A2		8 years (with cap)	✓	✓	✓	
	A3	Industries with some technology	5 years (with cap)	✓	✓	✓	
	A4		3 years	✓		✓	
B: Activities that are granted non-tax incentives	B1	Industries using low technology	-	✓	✓	✓	
	B2		-	-	-	✓	

1. Non-tax benefits are permission to own land, permission to import foreign experts

2. Promoted business list is yet to be confirmed by SEZ promotion board; Businesses not listed in the promoted list will receive extra 5 years of 50% CIT reduction (A1,A2) or extra 3 years of CIT exemption (A3, A4, B1, B2)

* 자료원 : 태국 투자청, SCB 경제연구소

□ TPP 효과

- 동남아대양주지역 내 TPP 가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련, 베트남이며, 발효 후 수출·외자유치 확대 기대
 - 특히, 역내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TPP로 인해 2020년 기준 235억 달러 추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년까지 235억 달러, '25년까지 335억 달러 GDP 상승분 추가 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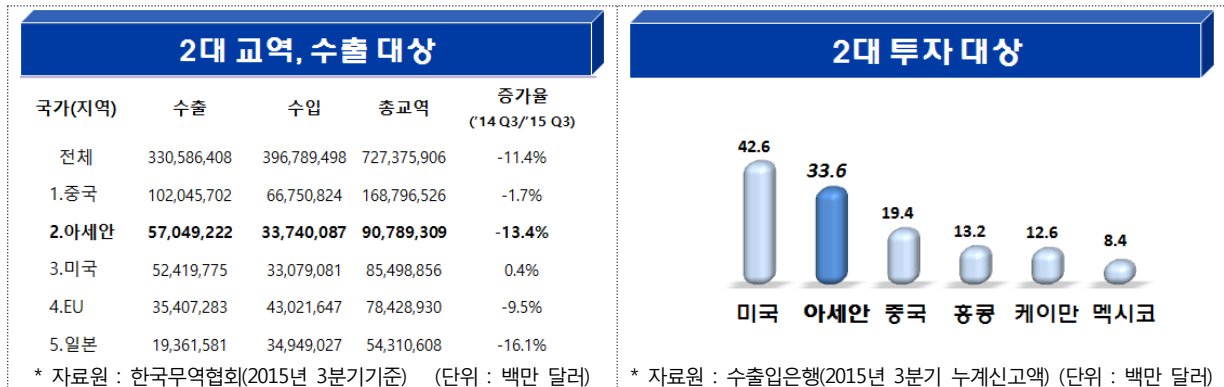
- 관세철폐 또는 인하에 따라 섬유·의류, 제화, 해산물, 쌀, 원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섬유산업의 경우 TPP 불참국인 인나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반면, 베트남은 수출비중이 높은(40%)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적용으로 연평균 10~15% 수출액 증가 전망 (현대증권 분석자료, 2015.10월)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FDI 유입 증가 기대
 - TPP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과 TPP 회원국으로 수출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혜택 등을 활용코자 해외기업들의 베트남, 말련 등에 투자진출이 지속될 전망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중장기 협력 파트너

- 상품수출·투자진출에서 서비스·인력 진출까지 교류 확대



<한-아세안 주요 교류지표 순위>

- **해외건설수주 2위 (1위 중동)**
* 2014년 한국의 해외건설수주액 660억불 중 아세안에서의 수주액 108억달러(16.4%)
- **인적교류 2위 (1위 중국)**
* 2014년 한-아세안간 상호 방문 총 675만명(한국→아세안 방문 495만명, 아세안→한국방문 180만명)
* 자료원 : 한아세안센터
- **국내 이민자수 2위(1위 중국)**
* 2013년 국내 체류 동남아 이민자 39만명, 전체의 26%(e-나라지표 최신통계)
* 아세안 국적 유학생 7,500명은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핵심이며 아세안 근로자 16만5천명은 재한 외국인근로자 25만명의 약 64%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진출기회 증가

-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를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15.8.23)
- 또한, 2016년은 아세안 주요 6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련, 인니, 필리핀,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 인하(0~5%) 시점

【참고】 한-아세안 FTA 주요 개정내용

- **무역원활화 규정** :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의 개별기업별 선택 허용,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사전심사제로 관세혜택 여부 확인
- **상호주의 제도 축소** :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베)과는 '적용 중단', 기타 4개국과는 대상품목 추가 중단
- **관세인하일정** : 국별 '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한 양국 경제교류 확대

- '15년 5월 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베 FTA가 '16년 1월 중 발효될 전망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 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 * 베트남 양허안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믹서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 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한-호주 FTA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인력 교류 기회 증가

- 한-호주 FTA 협정문에 시청각 공동제작(Audio-Visual Co-production) 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영화 등 콘텐츠 공동 제작에 대한 기회 증가
 - 호주 정부는 Screen Australia를 통해 국제공동제작 장려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참여 MOU 및 양국 간 별도 협약에 근거하여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임.
 -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제작자 환급제를 받기 위한 호주 자국물 검사를 면제받고, 제 3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수월한 제작비 조달 등 여러 혜택이 있으며, 향후 이를 활용한 양국 간 교류 확대 기대

【참고】 호주 제작자 환급제

- 호주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
 - 장편영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호주 영상물 제작 지출액의 40%를 환급해주며, TV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환급

III

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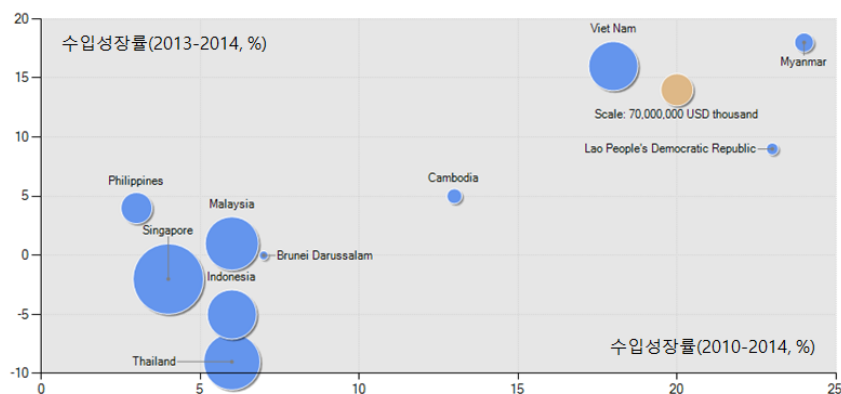
대동남아대양주 수출액은 2015년 10%대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침체 여파가 주요 원인. 아세안지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 등 수입규모 상위제품의 수요가 최근 지속 감소한 반면,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 글로벌기업은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태국, 인니,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목적으로 투자진출 확대

1. 수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입시장 동향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의 수입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2013년부터 증가 속도는 2% 이하로 둔화,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4%
- 베트남, 미얀마 수입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나, 인니, 싱가포르, 태국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베트남은 2014년 인니를 제치고 싱가포르, 태국, 말련에 이어 아세안 4대 수입국으로 부상

<아세안 국별 수입규모 및 성장률 추이>



* 자료원 : Trademap(International Trade Center)

- 아세안의 연평균 수입시장 성장률은 7.5%로, 석유제품, 전자기기(반도체), 기계류,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순이며, 기계류 및 광학기기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성장률은 10% 미만이나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입 성장률은 10% 이상 고성장 추세

- 대양주의 경우 2차 산업 기반이 미약한 산업구조로 공산품 수요가 다대하나, 2014년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입시장 성장세 둔화
- (호주) 2014년 수출은 2,410억 달러, 수입 2,27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2013년 대비 소폭 하락
 - 지난 5년간 중국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 중국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의약품 등임.
- (뉴질랜드) 2014년까지 증가하던 수입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

<호주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565	△4.99	2,526	△1.38	2,410	△4.61	1,283	△21.81
수입	2,505	6.9	2,321	△7.17	2,277	△1.90	1,331	△12.2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 수출 동향

- 한국의 대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기준 아세안은 11.9%, 대양주는 0.7% 감소했으며, 중국 경기침체 영향 및 국제 원자재가 하락 영향
- 주요 수출국 중 베트남은 호조, 싱가포르, 인니는 부진
 - * 베트남은 삼성, LG 등 전자기업과 효성 등 섬유기업의 지속적 투자진출로 관련 원자재 및 부품소재 수출 증가
 - * 싱가포르는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수출액 지속 감소
 - * 인니는 재정 적자로 정부투자 감소, 자원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지속,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사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로 4월부터 수출 감소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교역동향 (백만 달러, %)>

지역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분기)
아 세 안	수출규모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84,577	57,043
	증가율	△16.8	29.8	35.0	10.2	3.6	3.1	△11.9
	수입규모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53,418	33,740
	증가율	△16.8	29.5	20.5	△2.1	2.6	0.1	△16.0
대 양 주	수출규모	16,321	13,396	17,065	15,393	19,173	21,444	15,766
	증가율	45.5	△17.9	27.4	△9.8	24.6	11.8	△0.7
	수입규모	16,044	22,140	28,477	24,935	22,874	22,414	14,043
	증가율	△17.8	38.0	28.6	△12.4	△8.3	△2.0	△18.2
총계	수출 합계	57,300	66,591	88,866	94,538	101,170	106,021	72,809
	수입 합계	50,097	66,239	81,598	76,912	76,213	75,832	47,78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위치 및 경쟁국 동향

-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5대 수입국으로 아세안 입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적자 대상

<아세안의 10대 수입국가 현황(2014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	총계	1,320,985	3.9	1,272,080	1.6	48,904
1	중국	168,328	10.0	237,583	17.1	△69,256
2	일본	122,085	△0.6	108,590	△7.5	13,495
3	미국	128,370	11.5	89,248	△3.8	39,122
4	싱가포르	69,048	1.7	81,256	11.8	△12,207
5	한국	52,734	△1.0	81,187	△0.4	△28,453
6	말레이시아	78,135	△3.1	72,174	△4.7	5,961
7	대만	39,949	12.2	67,344	1.5	△27,395
8	태국	45,916	2.0	57,389	7.9	△11,474
9	인도네시아	62,548	△5.0	41,462	△2.6	21,086
10	아랍에미리트 연합	15,844	△15.7	35,510	△15.1	△19,66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을 비교하면 한·중간 90%, 한·일간 70%가 동일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일본은 철강을 제외하고 전 품목 감소세, 중국은 기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연평균 10% 이상 크게 증가

<아세안의 한·중·일 10대 수입품목 비교(2014년)>

(단위 : 백만US\$, %)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HS	품목명	수입액	CAGR
'85	전자기기	2,503	1.9%	'85	전자기기	41,489	15.2%	'84	기계류	21,049	-1.4%
'27	석유제품	17,483	9.0%	'84	기계류	28,530	9.7%	'85	전자기기	16,967	-5.3%
'84	기계류	6,396	5.2%	'72	철강	7,547	27.0%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11,389	-0.5%
'72	철강	4,981	7.4%	'27	석유제품	5,225	8.7%	'72	철강	10,169	0.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081	7.5%	'73	철강제품	5,052	17.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519	-1.6%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2,391	12.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902	20.0%	'73	철강제품	4,329	0.1%
'60	편물	1,705	17.1%	'87	운송기기 (기차제외)	4,090	33.5%	'90	광학기기	3,178	-2.7%
'73	철강제품	1,615	-15.6%	'90	광학기기	3,703	22.7%	'27	석유제품	2,432	-3.0%
'29	유기화합품	1,390	-3.1%	'29	유기화합품	3,632	16.5%	'71	귀금속	2,042	-4.7%
'90	광학기기	1,351	25.1%	'61	의류	3,436	61.9%	'74	구리 및 그 제품	1,988	-2.8%

* 주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 자료원 : Trademap(International Trade Center)

- 아세안의 수입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 중 시장성장률은 높으나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평균(6.4%)에 못 미치는 품목은 12개로 식음료, 농수산물 및 축산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와 항공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아세안지역의 품목별 수입동향 및 한국제품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연번	HS	품목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한국제품 점유율
-	-	총계	951,642	1,156,208	1,226,165	1,251,472	1,272,882	7.5%	6.4%
1	27	광물성 연료 및 석유제품	177,014	254,125	271,692	275,920	268,552	11.0%	6.5%
2	85	전자기기 (반도체 포함)	213,277	216,386	238,215	251,169	254,246	4.5%	9.8%
3	84	기계류	133,196	147,097	162,012	156,986	156,875	4.2%	4.1%
4	39	플라스틱 및 부분품	30,590	37,567	39,471	40,956	42,918	8.8%	9.5%
5	72	철강	34,641	42,513	44,168	43,990	41,650	4.7%	12.0%
6	87	운송기기 및 부품 (철도, 열차 제외)	30,236	35,748	44,389	41,300	40,565	7.6%	5.9%
7	90	광학기기	21,578	23,581	27,460	27,968	29,722	8.3%	4.5%
8	29	유기화합물	21,671	26,436	26,022	26,712	27,416	6.1%	5.1%
9	71	귀금속	24,096	35,599	28,539	34,004	27,107	3.0%	2.0%
10	73	철강제품	18,286	21,541	25,860	25,495	24,369	7.4%	6.6%
11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분품	12,346	16,192	19,717	21,492	18,545	10.7%	0.3%
12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0,944	13,148	13,605	14,621	14,778	7.8%	4.7%
13	76	알루미늄 제품	8,923	11,166	10,595	10,388	12,293	8.3%	7.3%
14	40	고무 제품	9,797	13,224	14,117	12,893	11,556	4.2%	9.4%
15	23	식품공업 잔재물, 조제사료	7,426	8,427	9,833	11,222	11,548	11.7%	0.9%
16	74	구리와 그 제품	11,038	12,972	11,790	13,245	10,931	-0.2%	9.6%
17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8,052	9,579	9,550	9,744	10,073	5.8%	6.5%
18	10	곡물	8,042	10,427	9,857	9,172	9,781	5.0%	0.0%
19	30	의료용품	7,313	8,727	9,351	9,860	9,706	7.3%	2.8%
20	03	어류	4,136	5,236	5,668	5,811	9,399	22.8%	1.7%
21	52	면	6,188	8,833	7,520	7,691	9,318	10.8%	3.4%
22	99	기타	11,400	17,275	10,587	9,162	8,779	-6.3%	2.5%
23	60	편물	4,355	5,361	5,879	6,844	8,551	18.4%	19.9%
24	28	무기화학품	6,402	8,288	8,514	8,132	8,316	6.8%	6.4%
25	33	조제 향수 및 화장품	4,965	5,849	6,358	7,109	7,444	10.7%	2.7%
26	02	육류	2,184	2,651	2,680	2,986	7,190	34.7%	0.4%
27	31	비료	6,739	9,631	9,680	8,441	7,177	1.6%	3.6%
28	22	음료, 주류, 식초	2,941	4,146	4,558	5,092	6,819	23.4%	1.0%
29	04	낙농품, 식용 동물성 생산품	4,569	5,684	5,345	6,109	6,702	10.0%	0.0%
30	61	의류 및 그 부분품	1,726	2,095	2,324	2,919	6,419	38.9%	1.4%

* 주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 자료원 : Trademap(International Trade Center)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에 대한 아세안의 수입 성장률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
- 한국의 대아세안 30대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제품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이며,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대기업 품목으로 편중,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소비재 등 중기 품목 위주로 수출품목군 확장 필요

<한국의 대아세안 상위 30대 수출품목>

순위	MTI (3단위)	품목명	2014년		2015년(9월 누계)	
			수출액 (백만\$)	비중(%)	수출액 (백만\$)	비중(%)
1	133	석유제품	18,759	27.7	8,087	18.1
2	831	반도체	11,706	17.3	8,499	19.0
3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267	9.2	2,476	5.5
4	613	철강관	3,808	5.6	2,394	5.4
5	214	합성수지	2,759	4.1	1,824	4.1
6	812	무선통신기기	2,732	4.0	3,692	8.3
7	436	편직물	1,997	3.0	1,417	3.2
8	741	자동차	1,968	2.9	1,613	3.6
9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583	2.3	1,383	3.1
10	834	기구부품	1,422	2.1	1,298	2.9
11	622	동제품	1,312	1.9	1,048	2.3
12	310	플라스틱 제품	1,183	1.8	1,070	2.4
13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871	1.3	469	1.0
14	621	알루미늄	863	1.3	703	1.6
15	790	기타기계류	848	1.3	786	1.8
16	228	정밀화학원료	841	1.2	620	1.4
17	215	합성고무	805	1.2	550	1.2
18	742	자동차부품	759	1.1	570	1.3
19	813	컴퓨터	737	1.1	737	1.6
20	434	인조장섬유직물	717	1.1	496	1.1
21	725	건설광산기계	686	1.0	490	1.1
22	252	종이제품	620	0.9	446	1.0
23	721	섬유 및 화학기계	607	0.9	553	1.2
24	441	의류	597	0.9	439	1.0
25	842	정전(static electric)기기	597	0.9	485	1.1
26	614	철강관 및 철강선	589	0.9	417	0.9
27	439	기타직물	582	0.9	582	1.3
28	711	원동기 및 펌프	552	0.8	426	1.0
29	753	금형	532	0.8	532	1.2
30	814	전자응용기기	514	0.8	583	1.3
		총계	67,813	100.0	44,685	10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니의 교역규모는 2014년 354억 달러를 달성, 인니 수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제4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양국 간 교역은 자원 및 일부 기자재 품목에 치우쳐 저변이 취약한 편
 -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순이며, 인니 수입시장 내 점유율 10% 이상 한국산 품목은 선박, 석유제품, 전자부품 3개에 불과
 - 2012년 이후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4년 대 인니 수출품목 중 피아노, 안경, 기타 악기, 전자게임기 등의 소비재가 1,000~166,00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 베트남의 대한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 한국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2위 수입국 위치
 - 1위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4년 기준 43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30%에 달하며 증가율은 18%로 가파른 성장세
 -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8.3%, 11.3%, 17.6% 증가한데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1%로 상대적으로 성장속도 둔화
 - 대한 수입품 중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수입액은 50억 달러를 초과, 베트남의 해당 품목군 전체 수입액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등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인
- (태국) 2013년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중국이 1위 자리를 차지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기계 및 기계부품,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도 6위에서 2015년 상반기 8위로 순위가 하락
 - 한국의 기존 대 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류 및 부품(HS code 84) 수출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금액도 2015년 8월 누계 기준 14.1% 감소
- (필리핀) 2014년 기준 총 수입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전자제품(△4.4%), 산업용 기계장비(△2.4%) 등이 부진한 가운데 플라스틱(36.2%), 곡물 및 조제품(27.8%)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를 주도
 -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국별 점유율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를 기록
 -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미국과 일본은 동 기간 동안 점유율이 3배 하락
 - * 2014년 기준 주요국 수입 점유율 : 중국(15.02%), 미국(8.72%), 일본(8.05%), 한국(7.82%)
 - 미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 밀리며 추격을 당하는 추세

- (말레이시아) 2014년 기준 말련의 수입국 1위는 중국(16.9%)이며 싱가포르(12.6%), 일본(8%), 미국(7.7%) 등에 이어 한국은 7위(4.6%)
 - 2014년 기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석유제품(12.7%), 반도체(10.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7.9%), 동제품(5%) 등임.
- (싱가포르) 2014년 기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위 5개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통신기기, 트랜지스터, 절연전선 등으로, 주요 경쟁국은 중국, 말련, 미국, 대만 순이며, 통신기기는 중국, 반도체는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격차 확대
-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의 수출은 125억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6억 3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88% 증가
 - 미얀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며, 한국은 9위 수입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4억 9300만 달러를 수입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점을 통해 저렴한 운송료로 소비재부터 건설기자재,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SANY사, LUI HONG사의 제품, 소비재 또한 상당부분 미얀마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일본은 자동차, 건설용 중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으로, 미얀마 자동차시장의 80%를 장악. 일본차는 현재 TOYOTA, HONDA, SUZUKI, MAZDA 등이 판매법인으로 진출해 있음.
- (라오스)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1,2위는 승용차, 화물자동차이며, 한상기업인 KOLAO의 소형트럭 제조로 인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
 - '15년 9월까지 차량 관련 제품(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수출이 약 77%로 운송수단에 집중되어 있음.
 - 라오스 내 한국 제품의 위치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며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태국 제품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
 - 차량을 제외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으며, 의료기기 및 기계류는 일본, 유럽의 선진 시장제품에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남.
- (호주) 호주의 '15년 상반기 수출은 1,436억 달러, 수입 1,501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14년 동기 대비 17.34%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이자 4위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

□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특정 품목의 상업적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금, 담배 재료, 달걀, 설탕에 대해 관세율할당 제도를 운영 중
 - * 관세율할당 :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 또한, 베트남 내 외투기업은 여송연 및 담배, 원유, 신문, 저널 및 정기 간행물, 음향 또는 영상용 기록미디어의 수입이 불가

<베트남 수입금지 품목 현황>

- 베트남 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문화적 제품
- 섬유 및 의류, 제화 및 샌들, 옷, 전자기기, 의료기기, 가구 등 중고 소비재
- 차량용 중고부품
- 중고 IT 제품
- 무기, 탄약 및 폭발물, 군사기술장비, 특정 폭죽 등
- 프레임이나 엔진 번호가 제거되었거나 운전석이 좌측인 차량

- (인도네시아)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5년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93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845개에 달함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종류 및 개수>

비관세장벽 유형	개수
소비자 부가세	2,683
추가 부가세	126
수입 싱글 채널	65
국영무역 허가	10
기술 측정 관련	568
품목 인증 및 서류 관련	407
마케팅 요구	3
기술 규제 관련	3

* 자료원 : ASEAN

- (말레이시아) 철강기업들이 중국산 철강 등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14년부터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함.

<말레이시아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현황>

품목명	유형	단계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코일 (Hot-rolled Coils)	세이프가드	조사중	'15.9.11	-	
후판 (Hot-rolled Plates)	세이프가드	규제중	'14.8.18	'15.6.29	- '15.7.2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PET	반덤핑	규제중	'14.6.19	'15.3.13	- 반덤핑 판정 :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석도강판 (electrolytic tinplate)	반덤핑	규제중	'13.2.20	'13.11.16	- 반덤핑 판정 : 한국, 중국
선재 (Steel Wire Rods)	반덤핑	규제중	'12.6.25	'13.2.19	- 반덤핑 판정 :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 무혐의 판정 : 터키

* 자료원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 (태국) 태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7건(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4건)이 실행 중
 - 철강 품목 6건, 기타 품목 1건으로 철강제품이 주요 보호대상
 - 태국은 2014년 ASEAN의 철강 총 소비량 6천 3백만 톤 중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이지만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판재류를 생산하는 종합 일관 제철소가 없어 자국 철강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필리핀) 농산품 및 철강, 종이에 대한 수입 규제 적용
 -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수입 규제 실시
 - * 쌀에 대한 총량 규제, 설탕의 경우 생산 및 처리과정 관련 규제, 옥수수 가격지지 정책 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
 - 2015년 9월 기준 수입산 아연 도금 강판(galvanized steel iron), 신문용지 등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됨.
 - 신문용지 세이프가드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신문용지가 수입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함.
- (미얀마)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일부 품목만 무면허 수입이 가능했던 포지티브(Positive) 수입 제한 방식을 2015년 8월 5일부로 Hs code기준 4,405개의 품목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싱가포르) 기술표준 전환에 따른 맞춤형 제품개발로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 국내 소프트웨어 M사는 현지 기술표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설계로 정부기관 및 국립대학(NUS)과 연계한 대규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표준 도입 전파 및 우리 소프트웨어 제품의 필요성과 강점을 집중 마케팅, 2015년 상반기 8억원 매출 달성
 - 2015년 10월, CSR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최고 국립대학(NUS)에 제품을 무상 기증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2016년부터 건축기술학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되는 성과를 거양
- (인도네시아) 기존 바이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 3국 수출
 - 건설 장비를 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가입 2년차 기업으로, 서비스 첫 해 신규 수출거래 성사
 - 이 후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빠른 A/S 처리로 인해 꾸준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B사의 제품을 신뢰하게 되어 말레이시아 동료 바이어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 인근 국으로 수출 확대 성공
 -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B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 및 A/S를 기존 바이어에게 홍보하여 제 3국 수출로 결실
- (태국) 전문 로드쇼 개최를 통해 태국 화장품 제조사로 수출 확대
 - Y사는 약 130억 달러 규모의 태국 내 제조되는 화장품 용기 공급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전시상담 로드쇼 및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을 실시해 우수한 기술력 홍보 및 제품신뢰도 제고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업체 과점 시장을 뚫기 위하여 전시회, 전문로드쇼, 유망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 개척 필요
- (미얀마) A/S, 정기 미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에 즉각 대응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2015년 신규 수출 성공
 - 한국의 D사는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2014년까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으나, KOTRA 양곤무역관에 바이어 찾기 서비스를 의뢰, 미얀마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매칭으로 2015년 8월에 미얀마에 첫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한 후에 첫 수출을 달성, 10월 방문을 하여 두 번째 수출을 달성

2) 실패사례

- (싱가포르) 가전제품 제조업체, 안전인증 미보유로 거래 무산
 - 정수기 및 정수필터 전문 중소기업 L사, 신제품 개발 및 독자적 브랜드를 론칭하여 싱가포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관련 국제인증 부재로 무산
 - 싱가포르는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품 표준을 요구함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CE인증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이나 인증 보유는 필수
- (베트남) 의사소통의 부재와 문제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한 수출 실패
 - C사는 천연페인트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14년 4월 하노이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D사를 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력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하였으나, 가격과 수량의 문제로 제품 수출에는 실패
 - 이 과정에서 바이어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무역관 지사화 담당 직원이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C사로부터 회신이 거의 없어 바이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만을 사게 됨.
- (미얀마) 미얀마 현지 바이어의 업무 스타일 이해 부족으로 계약 파기
 - 한국의 S사는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미얀마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에게 접촉을 하였으나, 통신사정이 좋지 않은 미얀마에서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고 느긋한 바이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 계약이 수출 전까지 갔으나, 바이어가 메일을 확인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점을 다그쳐서 계약이 파기되었음.
- (호주) 불량 제품 납품, A/S 미비로 손해 배상 피소
 -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았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개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회전을 위하여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 납품, A/S 조차 미 실시
 - 호주 바이어는 K사로 인해 현지 주요 딜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으며 K사와 거래를 접었고, 다른 일부 업체에서는 K사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
 - 호주업체와 거래시 안정적인 납품과 지속적인 A/S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문제 발생시 수입 업체의 양해를 먼저 구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2. 투자진출

□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시장 동향

- 아세안의 FDI 유입액은 2014년 기준 4,870억 달러로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이 증가세인 반면, 브루나이, 말련, 태국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세, 대양주는 550억 달러 수준의 지속적 FDI 유입

<동남아대양주지역 FDI 유입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아 세 안	브루나이	481	691	865	776	568
	캄보디아	1,342	1,372	1,835	1,872	1,730
	인도네시아	13,771	19,241	19,138	18,817	22,580
	라오스	279	301	294	427	721
	말레이시아	9,060	12,198	9,239	12,115	10,799
	미얀마	6,669	1,118	497	584	946
	필리핀	1,298	1,852	2,033	3,737	6,201
	싱가포르	55,076	48,002	56,659	64,793	67,523
	태국	9,147	1,195	9,168	14,016	12,566
	베트남	8,000	7,519	8,368	8,900	9,200
	소계	422,702	452,037	427,295	455,118	487,068
대 양 주	호주	36,443	57,050	55,802	54,239	51,854
	뉴질랜드	1,026	4,034	3,424	1,585	3,391
	소계	37,469	61,084	59,226	55,824	55,245

* 자료원 : UNCTAD

-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급증

* 인접 신흥국인 베트남(92억 달러), 필리핀(62억 달러), 태국(126억 달러)보다 월등

<연도별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FDI)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231	108	2,965	162	3,592	195	4,416	246	6,863	286	8,885	285

* 자료원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 단, 지난 2013년부터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인상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어 경영전략의 변화 도모 필요

* 수도인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은 2,441,301 루피아(약 244불) ('14년 기준)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61%를 담당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80%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DI의 수출기여도는 2013년 66.8%에서 2015년 67.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통신기기 제조업 등 첨단산업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하려는 노력 강화
 - * 베트남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14)
 - * FDI 기업 수출액 : '13(88.2억 달러) → '14(102억 달러) → '15(113억 달러 전망)
 - * FDI 수출기여도(전체수출 대비) : '13(66.8%) → '14(67.7%) → '15(67.9% 전망)
- (싱가포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013년 기준 4,082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전체 투자액의 47.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17.7%), 도소매업(17.1%)이 뒤따르고 있음.
-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반도체, 저장장치 등 IT 제조업 및 바이오제약 기업유치에 집중
- (말레이시아) 2015년 상반기 FDI는 213억 링깃(48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8% 감소했는데,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큰 감소폭이 2014년 상반기 Tokuyama Malaysia(60억 달러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
- (필리핀) 2015년 1분기 FDI는 4억 8,31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 * 자료원 : 필리핀 중앙은행 ('15.10월 기준 최신 수치)
- 2015년 1분기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은 1억 5,842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으로 32.8%의 비중 차지
- 이외 1억 1,909만 달러를 투자한 한국(24.6%), 3,728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7.7%)이 상위권을 형성
- (태국) 최근 정정불안 및 경기부진으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
- 일본은 태국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가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동남아 거점으로 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아세안 역내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싱가포르(19억 7,174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미얀마) 2015년 3분기 누계 FDI는 575.2억백 달러로 석유가스와 전력에 집중
-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4/15 회계연도 간 투자유치액은 8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4~9 월도 32.8억 달러 기록

<연도별 대 미얀마 투자 유치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4-9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8,010	3,280

* 주 : 연도별 통계기준은 4.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연도별 기준

* 자료원 : 미얀마통계청(2015.10월 발표기준)

<미얀마 산업별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2015.9월 누계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석유/가스	151	19,641.778	34.15
전력	8	19,324.542	33.60
제조업	558	6,110.764	10.62
교통/통신	28	3,274.341	5.95
광업	70	2,870.866	4.99
부동산 개발	31	2,510.643	4.37
호텔/관광업	57	2,208.720	3.84
축산/어업	34	452.835	0.79
농업	17	242.686	0.42
산업단지 개발	3	193.113	0.34
건설	2	37.767	0.07
기타 서비스	37	499.353	0.87
합계	996	57,517.408	100

* 주 : 투자승인기준 누적(2015.10월 발표 기준)

* 자료원 :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투자유치 분야는 석유가스(\$196.4억), 전력 (\$193.2억), 제조업(\$61.1억), 교통/통신(\$32.7억), 광업(\$28.7억), 부동산 개발(\$25.1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호주) 세계 자원개발붐에 힘입어 에너지·자원분야가 FDI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3차 산업이 FDI 중심으로 자리매김
- 호주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며,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요를 주도

□ 우리나라 및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인도네시아)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200 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3,000 개사 상회 추정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이 외국인투자 최소액을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을 25%(30만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투자 확대
- 국가별로는 전 업종에 고른 진출을 보인 미국이 1위, 제조업 분야의 진출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이 2위, 그 뒤를 독일, 중국, 한국이 잇고 있음

* Fortune 500대 기업중 국별 진출기업수 : ①미국(26) ②일본(18) ③독일(8), ④영국(7) ⑤한국(6)

<Fortune 500대 기업 인니 진출 현황>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석유·광산	22	Exxon Mobile(미), BP(영), Total(프), Gaz Prom(러)
금융	21	Citigroup(미), Allianz(독), HSBC(영), JP Morgan(미)
자동차	11	Toyota(일), GM(미), Honda(일), Volkswagen(독)
전자	12	GE(미), 삼성(한), Sony(일), HP(미), Nokia(핀)
소비재·유통	10	Carrefour(프), P&G(미), Unilever(영), Nestle(스)
IT	5	Oracle(미), Microsoft(미), Cisco(미)
의약 등 기타	22	GlaxoSmithKline(영), Mierck(미), Siemens(독)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집계

- (베트남) 베트남 투자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누계기준 투자액 및 투자건수 선두는 한국으로 2위 일본보다 13.9% 높은 규모이며, 2013년 3위에서 2014년 1위로 올라선 후 2, 3위와 큰 격차를 두고 투자규모 확대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 * '15년 9월 누적기준 4,700개 433억 달러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 진행, 투자 금액기준 북부지역 51%, 남부지역 49% 투자 분포
- 한국의 가파른 대 베트남 투자 증가세와 달리, 기존 상위 투자국(일본, 싱가포르) 등은 2014년 한 해 동안 투자가 감소 * 베트남 정부 발표 최신자료
- * '13년 대비 '14년 투자증감 : 한국(70.6%↑), 일본(64.3%↓), 싱가포르(36.0%↓)
-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분야(66.5%)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개발(17.8%), 건설(6.0%), 물류운송(2.2%) 순

<대 베트남 국가별 투자액 최근 5년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건)

순위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2015. 3Q	누계
1	한국	1,466.6 (345건)	1,178.0 (332건)	4,293.5 (488건)	7,327.5 (684건)	5,745.4 (685건)	43,381 (4,700건)
2	일본	2,438.4 (285건)	5,137.9 (378건)	5,747.8 (416건)	2,050.2 (436건)	862.8 (318건)	38,085 (2,759건)
3	싱가포르	2,208.2 (137건)	1,727.5 (138건)	4,376.8 (139건)	2,799.8 (147건)	534.0 (113건)	33,455 (1,456건)
4	대만	565.6 (121건)	453.0 (104건)	595.5 (118건)	1,178.0 (139건)	972.8 (124건)	29,425 (2,476건)
5	버진 아일랜드	481.0 (38건)	788.3 (42건)	306.6 (25건)	524.4 (49건)	1130.3 (52건)	19,076 (579건)
6	홍콩	3,093.1 (68건)	657.6 (59건)	701.9 (76건)	3,002.9 (122건)	1,064.0 (99건)	16,616 (957건)
7	말레이시아	453.4 (32건)	224.2 (44건)	144.3 (28건)	400.3 (46건)	2,505.2 (26건)	13,332 (505건)
8	미국	253.9 (52건)	125.2 (48건)	125.5 (43건)	259.8 (45건)	155.9 (48건)	11,147 (766건)
FDI 투자총계		15,598 (1,191건)	16,348 (1,287건)	22,352 (1,530건)	20,230 (2,182건)	5,493 (1,038건)	269,560 (19,220건)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누적 투자순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규모는 누적기준 해외투자 진출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약 61억 7423만 달러임.
-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누적기준 미국이 약 1142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높은 비중(13.4%)을 보이고,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

<대 싱가포르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68~2014	1,911	618	7,468	2,285	6,174
2015*	85	21	1,547	103	1,134

* 주 : *2015년 2분기 누계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stock 기준)>

(단위: S\$백만,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74,649	11.0	104,636	13.8	114,191	13.4
2	네덜란드	69,373	10.2	75,371	10.0	84,351	9.9
3	영국령 버진 제도	55,892	8.2	60,370	8.0	74,260	8.7
4	일본	53,722	7.9	58,702	7.8	71,992	8.4
5	영국	55,654	8.2	48,865	6.5	58,546	6.9

*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 (2015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 (말레이시아) 누적 투자액(도착) 기준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2위, 2014년 5위를 달성하는 등 활발히 투자를 진행 중
 - 롯데타이탄, 삼성전자(Seremban 복합단지), 포스코, 한화큐셀, KISWIRE 등의 기업이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에는 CJ바이오가 8만톤 규모의 메치오닌 공장을 가동(6월), 휴켄스는 1조원 규모의 화학공장 착공(7월)
- (태국) 주로 POSCO 등 철강, 삼성, LG 등 전자업체 위주로 진출
 - (전자산업)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 LG 가전 공장이 위치하여 협력업체 위주로 진출을 많이 하였음.
 - (금속가공) 유니온스틸, 포스코 등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공장도 건설 중에 있음.
- (필리핀) 한국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액은 2015년 2분기 기준 5,54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상승
 - 신규법인 개설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융업 개방에 따른 은행 부문 투자 대폭 증가
 - 2014년과 비교 시 신규법인 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금액 역시 축소되었으나 은행 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시중은행의 투자 규모가 대폭 유입(2015년 9월 현재 신한은행, IBK 등이 현지진출 추진 중)
 - 전통적인 투자 집중 분야인 건설 부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으나, 그 외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대폭 상승세
- (미얀마)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은 48.3억 달러(전체투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억 달러(전체투자의 0.8%) 기록
 - 2012년 이후 대 미얀마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며, 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최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투자가 활발
 -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옥퓨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대형 투자는 감소했으나, 제조업 중심 투자는 점차 증가세

- 미국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 투자가 증가세이며,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국가별 누적투자액 순위는 1위 중국(\$148.7억), 2위 싱가포르(\$108.4억), 3위 태국(\$102.9억), 4위 홍콩(약 \$72억), 5위 영국(\$40.5억) 6위 한국(\$33.8억)
- (라오스) 우리나라는 건설업,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 현재 진출 기업은 10개사가 있음.
 - 최근 5년간 투자액이 전체 누계의 40%를 초과하는 등 진출 가속
 - * 진출기업은 흥화, 부영, CJ 대한통운 등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
 - 일본 투자기업 수가 100개를 초과했으며, 제조업 및 농산물 등의 생산에 주로 투자(일본 JETRO '14년 7월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
 - * Nikon, Toyota 등 라오스 경제특구에 생산기지 건설
 - 중국은 정부원조와 민간 자본투입으로 라오스 진출
 - SEA Game 경기장, ASEM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사업에 중국 정부의 원조자금 투입이 이어지며, 민간의 광산, 수력발전, 신도시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측면 지원
- (호주) '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8억 6백만 달러 규모의 66건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7억 달러 감소한 수치
 -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투자유치 누계액('14년 5월)을 보면 미국이 1,494억 호주 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뒤를 따르고 있음.
 - 중국의 투자가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산업(24%)과 에너지 분야(21%)에 집중적으로 투자, 2006년~2013년 투자의 13%가 5억 미달러가 넘는 대형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투자가 국영 기업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임업, 식품, 수산업 분야가 두드러짐.
 - 한솔, 선창산업 등의 한국기업이 조림사업에 투자, 오뚜기는 소고기가공 공장을 운영, 동화기업은 현지 MDF 제조사를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동원, 주암산업 등 한국 원양선단 진출, KD미디어가 출자한 예스숍 홈쇼핑 채널 개국
 - 중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진출이 증가세로 주로 식품 및 유통분야이며, 일본은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 활발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2개의 허가단계 필요
 - '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RC)와 기업 등록허가(ERC)로 분리하여, 두 번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 과거에는 투자허가서(IC)로 사업가능, 기업등록허가(ERC)는 사업자등록허가와 유사
 - 2009년 이후 베트남 소매, 유통업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었으나 품목수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허가서 발급을 제한
-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투자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 진출에 제약을 두고 있음
 - '14년 5월,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과 관련한 개정 Negative list를 발표,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축진을 유도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등 일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축소 시행
 - '15년 9월, 인니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제한규정을 완화 및 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예정)
- (말레이시아) 서비스업 투자제한 및 현지기업 우대관행 잔존
 -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30%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서비스업에 현지인 지분 조건 존재
 - * 현지인 지분 조건 : 대형유통매장 30% 부미푸트라(현지인 중 말레이계), 법률 서비스 100% 현지인, 건설업의 상시 건축면허 70% 현지인 등
 - 국영기업 및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 참여조건으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소유기업을 지정하거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함.
- (필리핀) 외국인투자 제한 여전
 -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 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 허용됨.
 - 그러나 주요 업종을 이른바 "Negative List"에 포함, 외국인투자 참여에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태국) 서비스업은 외국인진출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 JV를 통해 진출해야 함.
 -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임
- (미얀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낙후된 행정, 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장애요인
 - 현지 내국기업은 공공요금을 차트화로 지불하는데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2~10배 비싼 요금을 지불
 - 미얀마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금융외환제도 등 투자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렵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예 : 단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
 - 미얀마의 행정서비스는 보통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사전에 약속이 되면 6시까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주의체제 및 군부집권 영향으로 책임회피를 위해 결재가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협조를 얻어야 할 기관도 많아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 투자제한
 - 별도의 진입장벽은 없으나 WTO 가입 후 서비스 시장이 일부만 개방된 것과 같이 내수산업의 역량강화 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 14개 분야 36개 업종 자국민 보호업종 지정(상공부 고시 1590호/2013.8.26)
- (호주) 현지 인력 관리,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투명성 규칙 배제
 - 원가 및 제비용, 경력 중시, 정해진 규정·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투자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FTA 타결로 현지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해당조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회적인 규제정책 입안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해외 기업에 반하는 제한 조항은 따로 없으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이 낙찰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맥이 있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유리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규제가 약하고 청렴도가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이나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이 단점.
 - 또한, 영화제작 외에 이렇다 할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없고 인건비나 물류비 등의 생산비용이 높아 제조기업의 투자는 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미미

□ 우리기업 성공·실패 사례

1) 성공사례

- (인도네시아) L사는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판단 하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유통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2008년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 Makro(19개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 2010년 8월 소매 1호 점인 간다리아점을 오픈하였으며 2011년 11월 도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끌라빠가당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37개 매장을 운영 중
 - L사는 기존 마크로의 매장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 고급 인테리어 등 쾌적한 쇼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업체와의 차별화에 성공
 - 또한 현지 업계에서는 최초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였고, 매장 내 놀이방 운영, 다양한 상품 제공, 경품 할인행사 등 한국적 마케팅 방법을 접목하여 인도네시아 내 새로운 쇼핑문화를 선도
 - 모든 임원 및 경영진에 현지인을 임명함으로써 인력 현지화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기도시간을 존중하고 매주 금요일을 인도네시아 전통의 상인 바틱을 입는 날로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실천
 -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시설지원, 무료 엠블런스 기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 자립을 위한 창업 컨설팅, 장학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고 있음.
- (싱가포르) 현지화 성공으로 싱가포르 화장품시장에서 승승장구
 - 한국 유명 화장품 L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어두운 색조톤을 도입한 파운데이션 출시로 색상의 차별화와 함께 아열대 기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방습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공병 수거 독려 그린 캠페인, 판매수익 기부 등의 CSR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또한 한류스타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싱가포르 방문 행사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싱가포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한류를 적극 이용

- (말레이시아)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 온라인 유통기업 S사는 2015년 4월 한류스타 이민호와 현지스타 에밀리 첸을 앞세워 말레이시아에서 론칭 후 공격적으로 할인쿠폰 및 무료 배송 등의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교민 등 현지 셀러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원가입 수 등의 예상목표를 훨씬 앞당겨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
 - 현지 경쟁사 플랫폼보다 깔끔하고 사용하기 쉬운 웹디자인을 적용하고 할인혜택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
- (미얀마) 현지 정부와 신뢰기반 네트워크 구축 성공
 - I사는 2012년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모색하였으나, 단기간 내 다수의 사업(주상복합, 복합화물터미널, 포장재공장 증설)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시장현황, 미얀마 투자 진출환경 및 법인 설립 절차, 회계 및 법무 등의 투자 정보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요 유관기관 등의 미팅 주선 등에 어려움을 겪음.
 - 양곤 무역관의 자료 제공 및 상담 주선, 한투센터 비상근 법률자문 연결 등을 통해 적기에 추진 대상 3개사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
 - I사는 초기 미얀마 진출부터 미얀마의 정부기관과 현재까지 긴밀한 신뢰도를 쌓고 있어 현지 정부 협조가 수월했음.

2) 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및 인력 관리 실패로 철수
 - 한국의 대표적인 섬유기업인 T사는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지법인을 설립
 - 생산을 개시한 초기에는 채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T사가 생산하는 같은 종류의 직물이 수출시장에 공급과잉 되면서 경영압박이 시작
 - 내수시장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악성 외상매출이 늘어나며 원단 값이 회수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단 도매업자간 잘못된 유통구조로 VAT 부담이 늘면서 현지직원들의 임금체불, 파업까지 발생
 - 또한 빈번한 현지법인장의 교체로 인한 체계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관리 실패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기에 이룸.

- (싱가포르) 한류 맹신, 무리한 확장으로 철수
 - 동대문 패션 편집숍 S사는 싱가포르 패션의류 시장의 성장세와 한류를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에 진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매장 수 확대
 - 탄탄한 브랜딩,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이 계속되고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싱가포르에서 한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화된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없이 한류에만 의존하여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진출 전략이 바탕이 되어야 한류와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얀마) 현지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실패로 철수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2013년 홀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승인을 받아 신발제조 라인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신발 납품 건에 대해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한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였음.
 - 동사는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 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단기간 내 성급히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이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추진해 이러한 결과 초래

- (호주) 현지기업 네트워크 구축 부재로 프로젝트 수주 실패
 - S사는 호주 민관협력방식(PPP)의 민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최종 탈락
 -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로 사업비만 80억 호주달러(7조 64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 S사는 스페인, 영국과 공동출자한 이너링크그룹으로 입찰하였으나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입찰 제안에 밀려남.
 - 정부조달 사업에 현지 기업 또는 현지 법인을 선발하는 관행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호주 기업들과의 사전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3.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

-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을 선정, 조코위 대통령의 중기개발계획(2015-2019) 추진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발전설비 발주 증가 추세

<제3차 중기개발계획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요 프로젝트 내용
Maritime Axis (해양 축)	해양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 확보 및 균형개발	- 24개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의 상업용 항구 및 1,481개의 비상업용 항구 확장 프로젝트 -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 추진
Transportation Development (교통/도로)	'14년 제품원가의 27% 비중 물류비용을 '19년까지 19.2%로 낮추는 것을 목표	- '19년까지 2,650km 신규도로 및 1,000km 유료도로 증설 - '19년까지 15개의 신공항 증설 - '19년까지 총 3,258km 철도망 증설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프라 개발)	식량자주권(Food Sovereignty), 에너지자주권(Energy Sovereignty) 및 수자원(Water Sovereignty) 확보	- 경작지 확대, 49개 저수지 개발 - 1000만 헥타르 규모의 관계시설 공사 - 오일정제시설 건설, 도시가스 보급, 가스 배관시설 건설, 부유식가스저장플랜트(FSRU), 수력/지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 전력
 - 인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로, 2019년까지 240개소에 35,000MW 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건설비용은 1,100조 루피아로 추산
 - 전체 용량 중 10,000MW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의해서, 나머지 25,000MW는 민간개발 예정. 2015년 PLN에 의하여 58억 달러 규모 발주가 추진 중임.
 - 발전소 건설은 보일러, 변압기 등 다수의 관련 기자재 조달을 수반하며 동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시 연간 40억 달러규모의 기자재 수입 창출 기대
- 교통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2015-2019)과 대선 공약사항인 해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개보수 할 예정

【참고】 인도네시아 주요 교통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 도로 : 국도 2,650km, 고속도로 1,000km 신설, 46,770km 보수
- 철도 : 3,258km 설치 (도시간연결 2,159km, 도시철도 1,099km)
- 공항·항공 : 공항 15곳 신설, 초계기 20대 도입
- 해양인프라 : 항구신설 24곳, 12곳 조선소 활성화, 상업용 항구 83곳/비상업용 항구 1,481곳 확장, 항해선 7,500척, 초계함 6,048척 건조 등

○ 통신

- 2015년 ICT 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로 디지털 방송 및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역점
- 공영방송(TVRI) 네트워크 디지털화 : 4억 5천만 달러
- e-Government 인프라 구축 : 1억 8천만 달러
- 국도 광케이블 연결(Palapa Ring) 프로젝트 : 5억 3천만 달러
- 국가 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천 3백만 달러

○ 경쟁동향

- (현지기업) 인도네시아 내 경기둔화 분위기 속에서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에도 현지 주요기업들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
- 인니 주요 국영건설기업(PT WIKA, Adhi Karya, Was한국무역협회, PT PP) 4개사의 2015년 상반기 신규 건설수주액은 총 40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
- 재계 순위 1위인 ASTRA INTERNATIONAL 그룹(주력: 자동차 사업)은 최근 동부 자바 고속도로 프로젝트(26km)에 참여하였고, Bakrie & Brothers(재계 순위 9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통해 프로젝트 사업 참여 본격화
- (외국계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약 60%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등의 개발자금 원조를 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 있음.

○ 향후 전망

- 2015년 예산 중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율은 9월3일 기준 33.4%(27억5천만 달러)이며, 인니 정부는 연말까지 약 93% 집행 계획
- 2016년 예산은 인프라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 향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 정부는 '2020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사회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

【참고】 베트남 2020 경제개발계획 내 주요 인프라 개발 계획

- (전력) 현재 16,000MW에서 2020년까지 59,440MW로 확대 계획, 향후 10년간 매년 4,000MW 신규 발전소 건립 추진
- (도로) 2020년까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 20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예정(500억 달러 투자)
- (용수) 2025년까지 도심, 산업 지구 상수보급 개선 목표, WB, ADB 등 국제원조 및 정부 주도로 매년 6억 달러 이상 투자 중

○ 전력

- 2010~2015년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 및 전력 분야에서의 수요 또한 급증
 - * '01~'15년 동안 전력소비량은 매년 8.1~8.7%가량 증가해 왔으며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평균 4,000MW의 전력 필요
- 2020년 베트남의 전력공급 비중을 수력발전 19.6%, 석탄화력발전 46.8%, 가스화력발전 24%, 신재생에너지 4.5%, 원전 2.1%, 전력수입 3.0%로 구성, 국내 생산 및 수입전력 목표는 3,300억 kWh
 -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75,000MW의 전력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488억 달러 투자계획

○ 교통

- 베트남은 국가고속도로 17,300km, 지방고속도로 22,000km, 도심도로 6,650km, 지방도로 130,000km, 구역도로 45,000km 등 총연장은 약 220,000km
- 베트남 전체 도로의 약 40%는 상당히 낙후한 상황으로 보수 및 재건설 추진
 - * 대부분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 금융기관(아시아 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한국 수출입은행 Korea Eximbank 등)의 정부 개발 원조(ODA) 펀드로 진행
- 베트남 철도는 베트남 국가 수송 인프라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노이-호치민 구간 (1,726km), 교량 1,790개(45km), 터널(11.5km) 등 총 연장은 2,632km
- '15년 2월 베트남 수상은 2020년까지 베트남 철도개발 계획을 발표, 하노이-호치민 구간 철도교량 교체 사업이 주 골자이며 관련 산업에 총 174억 달러 투자예정
 - * '09년 560억 달러 규모의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

- 용수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14~'18년 연평균 5.4% 성장 전망, 하노이 및 호치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러 차관 제공을 약속
 - * 베트남 전역 15개 시/성에 수처리 플랜트 사업계획, 5억 달러 예산 필요
 - * 베트남 전역 232개 산업공단 중 143개 공단만이 수처리 시설 운영 중

- 경쟁동향
 - 주로 ODA 차관으로 유럽 및 일본 주도로 프로젝트 추진

【참고】 베트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주요국 참여 현황

- 2A(Cat Linh - Ha Dong)구간 : 14km, 투자액 8억 9천만 달러(중국 ODA)/'16년 완공
- 3-1(Nhon-Hanoi)구간 : 12.5km, 투자액 10억 달러 (프랑스 ODA)/'16년 완공
- 2-1(Nam Thang Long-Tran Hung Dao)구간 : 11.5km, 투자액 12억달러 (일본 ODA)/'17년 완공
- 1(Ben Thanh-Suoi Tien)구간 : 19.7km, 투자액 11억 달러(일본 ODA)/'16년 완공
- 2(Ben Thanh-Tham Luong)구간 : 11.3km, 투자액 12억 달러(독일, 프랑스 ODA)/'16년 완공

- 향후 전망
 - 베트남의 2014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2015년은 전년대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건설시장은 성장률 8.6%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12%의 성장 지속 중
 - * 주택 건설시장 65억 달러, 인프라 시장 60억 달러, 플랜트시장 35억 달러
 - 베트남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위해 '16~20년까지 총 347.6억 달러의 예산투입
 - 베트남 정부예산 부족으로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조달 계획

□ 필리핀

- 2015년 10월 기준 총 10건의 PPP 프로젝트(사업규모 42억 달러) 추진
 - 그 외 16건의 프로젝트(사업규모 135억1,790만 달러)가 입찰을 진행 혹은 준비 중
 - 필리핀 정부는 상기 16건을 포함한 총 41 건의 신규 프로젝트(사업규모 189억 달러)를 추진할 계획
 - 이 중 North-South Railway(South Line) 프로젝트는 총 사업 규모 36억9,911만 달러로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임.

【참고】 필리핀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사업명	Laguna Lakeshore Expressway-Dike Project	발주처	공공사업도로부(DPWH)
사업규모	약 26억 6,110만 달러	방식	BTO & BT
사업내용	라구나호수(Laguna lake) 서부 해안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홍수 피해 방지를 한 47km 제방과 6차선 유료 고속도로(나들목, 교량, 수문, 펌프) 건설		
응찰기업	3개 컨소시엄이 기업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 통과 · Team Trident(Trident Infrastructure & Development Corp./Ayala Land, Inc./Megawide Corporation/Aboitiz Equity Ventures, Inc./SM Prime Holdings, Inc.) · San Miguel Holdings Corp. · Alloy Pavi Hanshin LLED P 컨소시엄(Alloy MTD Capital BHD/Prime Ass Ventures, Inc./한신공영)		
진행상황	2015년 11월 입찰 제안서 제출		
사업명	North-South Railway Project (South Line)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 36억 9,911만 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 마닐라부터 알베이(Albay) 지역 도시와 연결하는 635km 길이 철도 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2015년 10월 사전적격심사(PQ) 진행중		
사업명	LRT Line 4 Project	발주처	교통통신부(DOTC)
사업규모	약 9억 2,943만 달러	방식	미정
사업내용	메트로 마닐라 내 주요 구역과 도로를 연결하는 11km의 경전철 건설		
응찰기업	미정		
진행상황	입찰 준비 중		

□ 말레이시아

-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프로젝트 추진
-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서 투자활동을 펼치며, 대부분 PPP 등 민간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부투자 프로젝트
(일부 예산규모는 PPP 형식 등의 민간투자 예상액을 포함하여 산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동안 적극적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년 GDP의 26.7% 차지 전망

【참고】 말레이시아 추진예정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RAPID Complex	조호주 내에 석유화학단지 개발	180억
Cyberjaya Cyber City Center	사이버자야 과학단지 내 상업지구 개발	110억
KLIA Aeropolis	6,750 에이커에 걸친 공항 신도시 개발	70억
Khazanah Nasional	카자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별 프로젝트 투자	67억
Malaysian Vision Valley	10.8만 헥타르 Nilai-Port Dickson 지역 개발	50억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존 기차 노선 확충 및 신설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MRT 1호선	51km 구간(Sungai Buloh-Kajang)	320억
MRT 2호선	52km 구간(Sungai Buloh-Serdang-Putrajaya)	280억
LRT 3호선	36km 구간(Bandar Utama-Klang)	100억
LRT 1,2호선 연장	Ampang 및 Kelana Jaya 기차 노선 연장	100억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싱가포르와 협상 중	-
BRT 버스노선	KL-Klang 구간(15억 링깃), 코타키나발루(10억 링깃)	25억

○ 보르네오섬에 있는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포함한 지방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예산(링깃)
Pan-Borneo Highway	사바주-사라왁주 관통 1,796km 고속도로 건설	289억
도로 건설 및 보수	지방도로 700km 구간	14억
Rural Electrification Project	1만여 지방 주택에 전력 공급	8.8억
Rural Water Supply Project	3천여 지방 주택에 상하수도 공급	5.7억

○ 기타 산업별 주요 프로젝트

산업분야	프로젝트명
농업	- 생산성 향상 및 연구개발 지원(4.5억 링깃) - 배수 및 관개(irrigation) 인프라 보수(1.8억 링깃)
물류	- Jalan Tun Razak Traffic Dispersal 프로젝트(9억 링깃) - 사라왁 및 관탄 등 지방 공항 신설 및 확충 프로젝트(4200만 링깃) - 멜라카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등 육상물류 인프라 개선 추진
환경	- 수처리 플랜트 건설 등 각종 KeTTHA 주관 프로젝트(20억 링깃)
교육	- 공립학교 60여개 건립 - 영어 및 말레이어 언어교육 프로그램(1.35억 링깃)
의료	- Kuala Lumpur Women & Children's Hospital '16년 10월 개원(8.48억 링깃) - 지방 병원 건설 및 보수(2.6억 링깃)
국방	- Littoral Combatant Ship 6대, 초단거리 대공방어망, 장갑차량 등 조달 - Unmanned Airborne System & Maritime Patrol Aircraft 도입 - Offshore Patrol Vessel 구매 등 해양경찰(MMEA) 운용(8.64억 링깃) - 순찰용 차량 및 오토바이 조달(3500만 링깃)

□ 미얀마

- 미얀마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 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
- 미얀마 내 외국기업 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민관합동 패키지딜 전략추진이 필요

【참고】 미얀마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 교통

프로젝트명	투자국	발전 분야	위치
양곤(Yangon) - 달라(Dala) 연결우정의 다리	한국	교량 연결 프로젝트	양곤
홀라잉(Hlaing)강 왕래 Aye Ywar 교각 건설 프로젝트	JFE 엔지니어링 (일본)	교각 신축 프로젝트	양곤
양곤 역사 개발 보수공사	미정	양곤 역사 개발 및 주변지역 개발	양곤
미얀마 간선도로망 프로젝트	한국	미얀마 주요 도로 연결	미얀마 전지역
GMS East-West Economic Corridor Projects	미정	아세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	까인(KAYIN) 몬(MON)

○ 전력

투자국	발전 방식	위치	발전량
Black & Veatch(미국)	태양광	마그웨이(Magway)주	220MW
Gateway Pvt. Ltd(인도), Singapore Global Advisors (싱가포르) Pte. Ltd 외 2개사	석탄화력 발전소	양곤(Yangon) 차욱타다	미정
Sunlabob社(라오스)	바이오메스	산, 친(Shan, Chin)주	미정
JFE엔지니어링(일본)+YCDC(미얀마)	바이오메스	양곤(Yangon) 쉘 피타	700kw
Vestas Asia Pacific Wind Technology(덴마크)+Zeya & Association(미얀마)	풍력	몬(Mon)주	미정
Sembcorp Industries Ltd(싱가포르)	복합화력 발전소	미얀마	225MW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 중
 -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 있음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얀마 남북 간 송배전시스템중요성이 크나,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 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한국, 세르비아, 일본의 원조자금(EDCF) 투입
- 현재 미얀마 송배전 시스템 사업 중 우리나라 구역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15년 중 입찰 결과 발표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짝푸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
- 미얀마는 최근 수력발전소의 환경훼손 및 장기간 소요시간으로 복합 화력발전소, 바이오 메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라오스

-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ODA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위주
 -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는 2025년까지 138억 달러 규모의 역내 교통연계를 위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도시개발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 * 다자개발은행,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유무상 원조자금 또는 PPP 사업 형태의 재원지원을 희망
 - 교통인프라 외에도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개발 또한 ODA 의존도가 높음.
- 라오스는 UN이 인구, 경제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지정하는 세계 최빈국에 197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선정
 - WB, ADB, WHO 등 36개 이상의 국제·양자 원조기구들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4억 달러 이상 규모의 원조자금 프로젝트 시장 형성
 - * 무역투자연구원, '라오스 위생검역시스템 개선사업' ADB 프로젝트 수주('13.2월/215만불)

<라오스 ODA 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총 사업수	FY 2012-2013			FY 2013-2014		
	계획	실행	이행률(%)	계획	실행	이행률(%)
892 건	440	425	96.5	324	417	128.8

* 주 : 라오스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임.

*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4. 인력진출

□ 시장 동향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외국인고용자가 전체 고용자의 33.8%를 차지하여 인종차별 없이 양질의 인재를 요구하며 실업률 2% 내외로 상시 인력이 부족한 취업 유망시장
 - 금융, IT, 물류, 서비스 등 싱가포르의 중점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 발생
 - 신규직원 보다는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직 선호
 - 단, 싱가포르 정부는 반외국인 국민정서가 커진 2010년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조절해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 비자 발급 증가율 감소 추세
 - 2013년부터 싱가포르인 채용우선 공고를 원칙으로 14일간 싱가포르인 대상 취업 공고를 통해 우선 취업의 기회를 준 뒤, 외국인 대상 채용공고 가능

<싱가포르 내 외국인 인력 추이>

(단위: 명, %)

비자 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Employment Pass (EP)	143,300 (25.37)	175,400 (22.40)	173,800 (-0.91)	175,100 (0.75)	178,900 (2.17)
S Pass(SP)	98,700 (19.20)	113,900 (15.40)	142,400 (25.20)	160,900 (12.99)	170,100 (5.72)
Work Permit (WP)*	415,800 (1.54)	430,300 (3.49)	439,900 (2.23)	441,000 (0.25)	446,100 (1.16)
전체*	638,900 (8.60)	699,100 (9.42)	731,300 (4.61)	748,100 (2.30)	764,500 (2.19)

* 주* : 가정부 및 건설노동자 제외

* 자료원 : 싱가포르 통계청

【참고】 싱가포르 외국인력 고용법

- 1990년 제정. 외국인 유입완화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 고용자의 채용 기준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
 - ① EP(Employment Pass):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가, 신입기준 최소급여 S\$3,300 이상으로 경력과 직무에 따라 발급기준 상향조정
 - ② SP(Skilled Pass): 4년제 대학졸업 및 기경력 기술 노동자. 최소급여기준 S\$2,200 이상으로 고용주세 부담 및 산업별 기업 쿼터제 적용
(예: 서비스 부문, 직원 수의 15%)
 - ③ Work Permit: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한정된 저임금 근로자, 고용주세 및 의료보험 의무부담(최소급여기준 없음)

○ 인력 진출 진입장벽

- 2013년 이후 진행된 외국인 인력 규제안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무경력 한국 청년의 비자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주요 대학 졸업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대졸 청년들의 EP 발급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고용 기업 부담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비자 발급 쿼터를 강화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외국 인력 채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영어로 기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의 경우 싱가포르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및 타 영어 가능 외국 인력에 비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2) 호주

○ 호주 인력부족 직업군에 대해 해외인력 수요 꾸준히 발생

- 현지의 높은 실업률(6.3%, 2015.02 호주통계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 산업 및 비인기 직종에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 발생
- 높은 영어 성적 기준(IELTS 모든 영역별 최소 5.0 이상)으로 영어권 국가들이 주요 수혜대상

* 영어권 국가(인도, 영국, 필리핀,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국) 출생 이민자수가 전체 이민자 중 약 63.6% (2013-14년 기준)

○ 호주 정부는 '09년부터 인력부족 직업군*을 지정, 동 분야 이민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타 직업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입장벽 형성

* 엔지니어링, 회계, 목수, 용접, 전기기술자, 자동차 정비, IT 등 전문기술자 그룹

【참고】 호주 취업비자 유형

비자 유형	비 고
Working Holiday Visa(417비자)	.만 18~30세 대상 1년(최장 2년) 취업
독립기술이민비자 (유학생 졸업비자 : 485비자)	.호주대학에서 2년 이상 취학, 졸업 시 2년 내 체류가능 .영어시험 통과 및 기술직은 기술심사 통과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 (457 비자, RSMS 비자, ENS 비자)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스폰서 자격허가를 받아야함 .457 비자 2년 고용 후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로 등재 가능 .ENS 등재 이후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RSMS(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비자로 지방 취업 시 신청가능하며 2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영어시험 통과 및 해당분야 경력 2~4년 이상 필요

- 호주의 한국인 워홀러는 2013~14 크게 감소, 457 비자 획득자는 유지세
- 워홀러는 2008년 이후 매년 3만명 내외를 유지하다 2014-15년 약 1만 3천명 가량 줄어 대폭 감소
- 반면, 한국인의 457 비자 승인 수는 2013~14년 기준 2,440명(8위, 전체의 2.5%)으로 2011~12년 900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 900명(2011~12) → 1,460명(2012~13) → 2,440명(2013~14)

□ 취업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현지 인력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
 -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K씨는 본인의 강점인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해 보고자 싱가포르 취업을 결심하였으나 한국에서 싱가포르 구직 시장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낌.
 - 이후 에이전시를 통해 유통업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싱가포르에 왔으나, 업무 및 근로 조건이 본인의 역량과 맞지 않다고 여겨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월드잡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의 Tech Support 포지션에 대해 알게 됨. K-move 센터를 통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 취업 지원 사례에 대해 전달받아 구직에 성공함.
 -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해외 구직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가능한 포지션, 적절한 근로 조건 파악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에이전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수락하는 경우도 많음.
 - 싱가포르 취업 희망자는 관심기업 홈페이지나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등 개별적인 노력 및 시간 투자 필요
- (실패사례) 비자 관련 이슈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을 하다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이후 관광비자로 싱가포르에 와 구직활동을 계속하던 중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게 됨.
 - 싱가포르에는 따로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구직자들이 일단 싱가포르에 와서 구직 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나, 싱가포르 관광비자는 3개월 만에 만료되고 이후 주변 국가에 잠시 나갔다 오는 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비자 및 시간적 제약 하에서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IV

시장진출전략

동남아대양주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 및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투자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소비재 수요가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타겟팅 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기업화 전략에 적극 활용

1. 진출전략 개관

<동남아대양주 지역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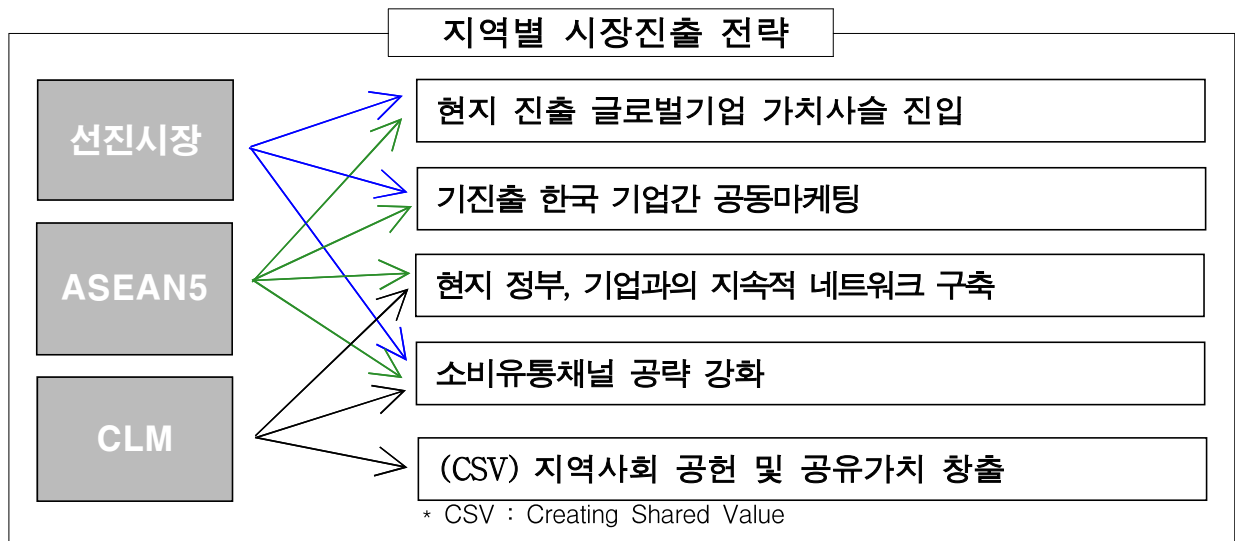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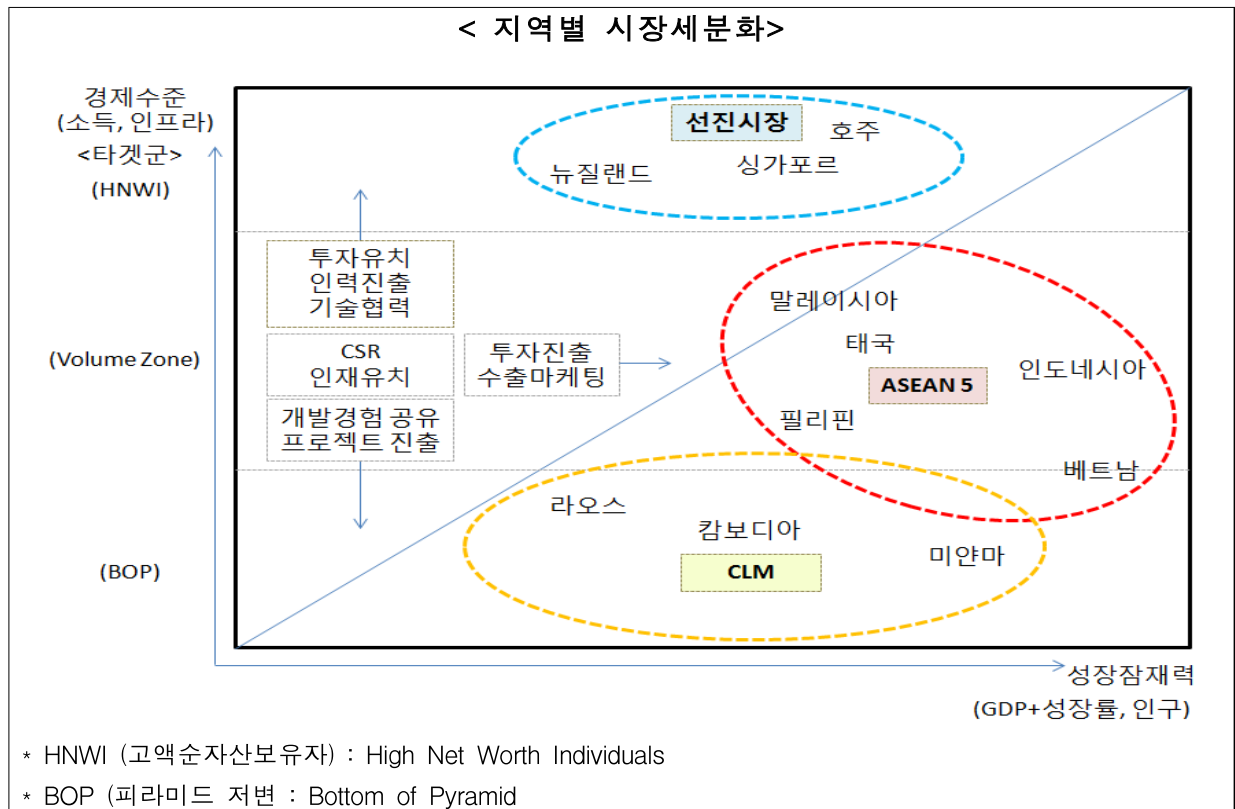
<Strengths> ○ 성장잠재력 큰 6억 내수 소비시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젊은 인구, 30년 이상 인구보너스기 지속 ○ 초고가(싱가포르, 호주), 초저가(CLM) 시장 공존으로 역내 분업화 가능 ○ 동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Opportunities> ○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가속화 ○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지속 ○ 한류 열풍 지속 ○ 글로벌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기회 증대 ○ 역내 경제통합 진전(AEC 출범), 양자 및 다자간 FTA 추진으로 통상환경 개선
<Weaknesses>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낮은 정부 신뢰도 및 정치적 불안정 ○ 낮은 노동생산성(숙련 노동력 부족) ○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투명성 미흡	<Threats> ○ 수입억제정책 및 수입품 인증절차 강화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지속,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 정책 잔존 ○ 인니 등 최저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
<시사점> ○ 동남아대양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에 익숙한 문화적 동질성으로 우리기업의 신규 진출이 유리하나, 국가별 제도, 문화가 다양하여 현지문화의 물이해나 단순 저원가 생산 기지로만 접근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아 “현지화”를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이 요구됨. ○ 증가하는 중산층의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젊어 이들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대형유통망 증가로 이에 대한 진출 시도와 더불어 서구권에 비해 비중은 매우 낮으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 유통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여 신규 수출동력으로 활용 ○ 글로벌 생산기지화 가속으로 역내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이를 염두에 둔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세안경제통합, TPP 등으로 아세안 역내 생산 여부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투자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 ○ AIIIB 출범으로 이 지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 프로젝트를 발굴, 수주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증대할 필요	

2. 세부 진출전략

2-1. 지역별 시장세분화를 통한 진출전략 차별화

□ 동남아대양주시장을 3대 경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 차별화

- 선진시장은 기업간 협력, ASEAN5는 민관협력, CLM은 정부협력관계 위주로 접근하되 동남아시아는 지역토착문화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구되어 사회공헌 활동 및 현지화 전략을 통한 중장기 진출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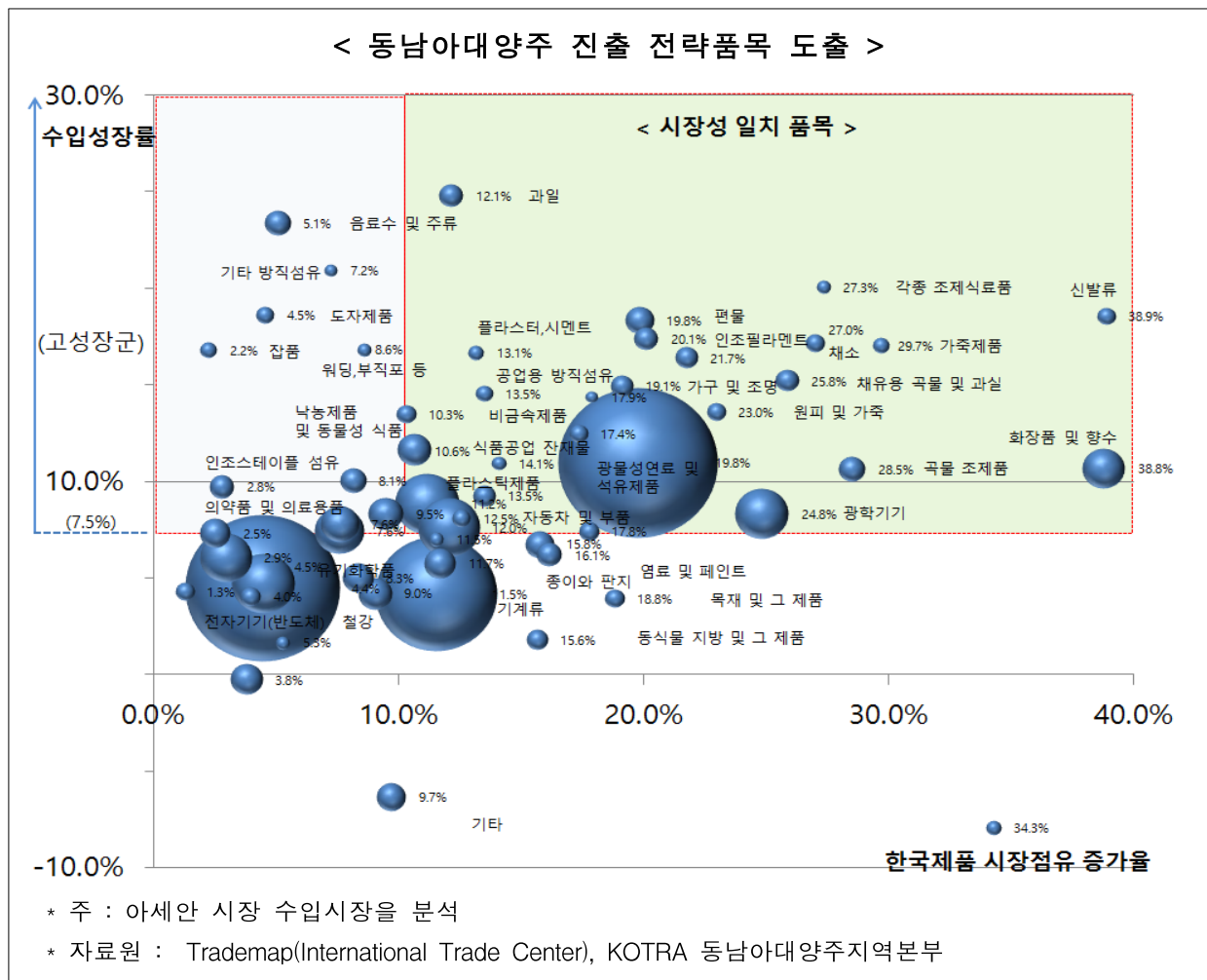
2-2. 수출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타겟마케팅

□ 시장성 일치 품목에 대한 수출 노력 집중

- 동남아 수입시장 성장률과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 추이를 비교하여 평균 수입시장 성장률(9.5%) 및 평균 한국제품 점유 상승률(7.5%)를 동시에 상회하는 품목 중 대기업 수출품목을 제외하여 중소기업형 진출전략품목 선정
- 10대 전략품목 중 6개 품목이 소비재이며, 중간재가 3개, 자본재가 1개로,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포함, 현지 중산층 소비 수요에 집중되어 있음.

1	2	3	4	5	6	7	8	9	10
식품	화장품	섬유	의류	잡화	광학기기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건축기자재	비금속제품

* 건축기자재 : 플라스터, 염료, 가구조명 포함/ 비금속제품 : HS83으로 문구류, 장식류, 금고 등 포함



2-3. Omni-Channel형 소비유통시장 진출 강화

□ 온·오프라인 소비유통시장 동시 진출 마케팅 전략 구사

- 동남아지역은 브로드밴드 기반 IT 인프라 수준이 낮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으나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모바일을 통한 구매 특징은 이동시 검색이 가능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노출된 상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양방향 구매패턴이 더 활발히 나타나 Omni-Channel형 진출 전략이 필요

【참고】 Omni-Channel 쇼핑 원개념

-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 과거에는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소비자의 경계가 분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경계가 무너져 쇼루밍(showrooming,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경로로 하는 것), 역쇼루밍(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모루밍(morooming,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것) 형태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주목받고 있음.
- ☞ 각각의 유통 채널의 특성을 모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조성하는 마케팅 방식

* 자료원 : 네이버 지식백과

- (오프라인) 현지 전시회 및 유통기업 상품판촉전, 쇼케이스 등에 참가해 대형 유통기업 등 현지 유통망 입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
-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력한 이벤트성 판촉전은 형식상 수출성과는 소규모 이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출초보기업은 사업성 테스트 및 현지 시장 사전 조사 기능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음.
- (온라인) Lazada, Qoo10 등 온라인 유통기업, 기진출 홈쇼핑 입점 추진
- 동남아지역은 온라인 유통기업 진출이 초기단계로 입점 기회가 많고 향후 주요 소비계층이면서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20-30대 현지 주요 온라인 고객층 확보 노력을 집중하여 미래시장에 대비
- (초기진출 마케팅 예시) Lazada 온라인 한국관 입점, 제품 노출 ▶ 싱가포르 백화점 판촉전에서 제품 체험 기회 제공 (반복노출) ▶ 구매욕구 상승

2-4.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형 FDI, M&A 방식 투자진출 추진

□ 현지조달 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 부품공급을 위한 투자진출 강화

- 일본 등 글로벌기업은 동남아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진출을 강화, 동남아 시장내 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로부터 값싼 제품을 소싱하는 등 부품조달 루트의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투자진출을 통한 이들 기업 밸류체인에 참가하는 전략이 필요

<일본 기업의 대인니 진출전략 변화>

구분	기존 전략	신 전략
전략체계	선진국 위주의 전략 체계 적용	인니 비중을 높이는 전략 추진 체계
타겟고객	부유층	중산층
제품기획	선진국 진출 모델을 기초로 제품 계획	인니 특성에 맞는 제품기획
차별화영역	고품질/핵심부품의 국내생산	현지수요에 맞는 품질/핵심부품 해외 생산
품질관리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	인니 실정에 맞게 품질기준을 현실화

*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현지 대기업 부품공급형 KOTRA GP 사업 참가
 - 인니 현지 대기업과 매칭 아웃소싱 및 상담회
 - * 화학, 향만 개발/운영, 부동산 개발, 가전, 주방용품, 조선 등 분야 자산규모 상위 10개사 중 5개사 선정, 최종 2개사와 GP형 사업 추진
 - 말련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합작투자 프로젝트 사업
 - * Perodua(말련 자동차제조사) 벤더 대상 인콰이어리 발굴 및 우리기업 매칭 추진
- 현지 진출 글로벌기업 부품공급형 GP 사업 참가
 - 베트남 진출 글로벌 IT제조기업 - 한국 중소·중견기업 매칭사업 추진
 - 태국 내 일본계 자동차 및 전기전자 OEM 공급선 개척 지원
 - 태국 기계전(Metalex)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부품 진출 지원
- 타겟분야
 - (인니) 현지 일본 완성차 및 1차 벤더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 (태국) 플라스틱사출금형,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자동차 부품, 에어컨 등 가전 부품
 - (베트남) MS노키아, 캐논, 혼다 등 휴대폰 등 IT기기, 가전 부품, 자동차 부품

□ M&A, 합작투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른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 2014년 전 세계 중소형 M&A는 6,06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반면, 아시아(일본제외)는 전년대비 42.9% 증가한 1,419억 달러 기록
- 아시아지역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 비중이 8%에 불과한 반면, 5천만~5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 M&A 거래가 전체 M&A 건수의 35%, 액수의 32%

<M&A 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대효과>

-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진입 : 해외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유통망, 고객망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빠르게 진입
- 무역장벽 회피 : 현지에서 생산·공급을 하게 되므로 각종 비관세 장벽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회피가 가능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M&A를 통해 신속하게 핵심기술을 확보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유명 브랜드 및 생산거점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동남아대양주 권역별 M&A 사업여건 및 유망분야>

지역	기회	위험	유망분야
동남아	○ 증산층 증가 ○ 성장 잠재력	○ 정치 불안정 ○ 정부 규제 ○ 환변동	○ 소비재 ○ 제조업
대양주	○ 정치적 안정	○ 성숙 시장	○ 광산 ○ 바이오
싱가포르	○ 아시아 투자허브	○ 성숙 시장	○ 금융

* 자료원 : Mergermarket 보고서(2015),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종합

- 최근 M&A 프로젝트 현황
 - 최근 동남아 제조업 기업들이 M&A를 통해 사업 분야별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매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국영자산투자공사(SCIC)는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250여 매물기업 정보를 제공,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희망
- ☞ KOTRA 글로벌 M&A센터와 협력, 목표매물을 선정하여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베트남 M&A 사업 참여 지원 추진 예정

* 사업절차 : M&A 관심매물 20~30개 선정(3월) → 관심매물 분석보고서 작성(4월) → 한국투자자 평가(5월) → “한-베 M&A 설명회” 개최(5월)

* 대상 : 베트남 정부 및 매물기업 대표 30명, 한국 중견중소 M&A 투자희망 기업 100개사

- 한-호 FTA 수혜분야 타겟 M&A 수요 증가

- * 건강식품 기업과 유제품 기업 : 포장시설 설립 및 M&A 검토 추진
- * 철광석 등 광물 개발기업, 바이오신기술 전략 산업분야

2-5.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MDB(다자개발은행) 및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지역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ODA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여 각국 정부기관 뿐 아니라 ADB, AIIB, WB 등 MDB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링 사업 참가 등 지속적 F/U 필요
- 인니, 베트남에 설치된 KOTRA 상생협력 포럼을 활용하여 주요 발주처 정보 입수 및 현지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 ADB가 위치한 KOTRA 마닐라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 상시 정보 입수

□ 중소형 프로젝트 관심 제고 필요

- 1억 달러 미만 프로젝트 수요에 주목
- 인니 시추장비 프로젝트 발굴 확대
 - * 부유식 생산설비(FPU)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나 현지 발주기업들이 선호

※ (추진 프로젝트) Husky-CNOOC의 가스유전 시추용 FPU 건설 프로젝트(36백만달러)

· 국내기업 가능분야 : 부유식생산설비(FPU) 건설 (바지선 부분은 인니업체가 제작)

- 캄보디아 조달사업은 수자원 개발(관개사업), 수력 발전 사업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1개 기업이 조달 가능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 USD 이하
-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공조달이 가능한 사업 다대

□ 동남아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개발계획에서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의 어려움
- 예산조달 과정의 지연 등 동남아 대부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드문 점에 유의 필요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지역 프로젝트는 투명한 절차가 드문 점을 인식, 계획 초기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일단 프로젝트부터 수주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하려는 식으로 추진했다가 낭패를 볼 위험이 있음.

2-6. 통상 이슈와 직결된 新시장 수요 선점

□ FTA 관세 수혜 품목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

- 한-ASEAN FTA 양허표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수입품 상당수가 관세인하 예정(20%→5%)
 - 주요 수혜 예상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 플라스틱 제품, 화학원료, 개폐기 등
- 한-베 FTA 발효 원년인 2016년 FTA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
 - 베트남 최대 종합전인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확대 등 FTA 발효 계기 한국 소비재 마케팅 강화
 - FTA 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 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여러 기능을 적극 활용 필요

[참고] 한-베 FTA 주요 내용

- 한-베 FTA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 및 투자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 상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3%p, 베트남은 6%p 자유화율 증가
 - * 베트남 양허안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믹서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 투자의 경우 베트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도시적 경관 건축서비스, 기계장비 임대차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
-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 기계 및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은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기어박스, 차축 등)

□ TPP 타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TPP 타결로 큰 수혜가 예상되는 베트남 섬유산업에 주목
 - 베트남,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대미 섬유 수출액이 현재의 2배 규모 증가 기대
 - * TPP대상 국가 중 동남아 대양주 소재국 :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 최근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상승 및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 등 투자여건이 어려워져 베트남 섬유산업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소싱, 생산방식, 판매시장 설정 등에 대한 새로운 운영전략 필요

2-7. 동남아 지역사회 공헌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 동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공유형 동반성장 사업모델 개발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 뿐 아니라 인니,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은 빈민층 인구 비율이 높으며, 저취업 저개발 지역이 상당수로 중장기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동남아 주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롤 모델로 하고자 하여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한국의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이 요구됨.

□ 동남아 주요국 CSV 추진 사례

- 인도네시아
 -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도요노 대통령 초청으로 인니 국민 방문,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
 - 인도네시아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 개발 추진

[참고] 한국의 인니 OVOP(一品一村) 정책 지원체계 구축

- 목적 : 인니 OVOP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인니 지역사회의 자생적 수익모델 개발
 - * OVOP는 지역특화 상품개발을 통한 인니 정부의 낙후지역 소득 증대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인니 중소기업부 및 유통기업(Qoo10, 롯데마트, 레젤홈쇼핑, 무궁화 유통 등)들과 공동으로 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 * 인니 술라웨시 지역의 특산물인 Fried Onion 등을 기 판매중
 - DR TV, Aeon 등 다른 유통채널과 추가 협력을 추진하고 청년 취/창업과도 연계
 -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선발하고 OVOP 주관부서인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OVOP 제품의 기획, 발굴 등을 지원
 - KOICA 협력 사업으로 추진, 인니 중소기업부 요청서 접수(1월), 하반기 파견(1명/1년)
 - * 국제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선발하여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함으로써 OVOP 밀착 지원 체계 구축

<OVOP 유망 품목>

지역	품목	지역	품목
중부 술라웨시	Fired Onion	중부자바	열대 과일(Carica)
서부 칼리만탄	Aloe Vera	말랑	사과 시럽
족자카르타	Brown Sugar	서부자바	딸기
남부 술라웨시	해조류, 버섯 가공식품	토라자	커피

○ 필리핀

- 미국 코카콜라사는 필리핀 소비경제의 중심인 소규모 상점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STAR 프로그램” 시행

[참고] STAR(Sari-sari Store Training and Access to Resources) 프로그램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상점주들에게 소액대출, 인프라개선, 교육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원조 프로그램으로, 코카콜라의 글로벌 CSR 이니셔티브인 “5 by 20” 정책의 일환
- * 5 by 20 : 코카콜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2020년까지 전세계 5백만 여성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선포된 CSR 이니셔티브

○ 미얀마

- 중국은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에만 주력하여 공사 무산.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CSR 활동을 강화함.
- 한국은 한-미얀마 Great Work Place Awards를 제정, CSR 활동 강화
 - 미얀마 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에게 좋은 근무환경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 ☞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 합동 CSR 강화 추진

○ 캄보디아

- 캄보디아는 인프라가 부족한 미성숙 시장으로,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 창출만을 목표로 독자적인 진출을 꾀할시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기업의 CSR을 통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효과적인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음.
- *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중소기업의 CSR 사업 보조(기술학교 개최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캄보디아 시장확대 및 홍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CSV 사업(경관농업, 농업조합사업, 수산업 양식 FS 사업 등)을 개발 수행중에 있음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1905	수입관세율(%)	0
과자 및 스낵류	수입액('14/US\$백만)	14,789	대한수입액('14/US\$백만)	936
	선정사유	- 과자 및 스낵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상품군 중 하나임		
	시장동향	-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식품소비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FMCG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 - 특히 인도네시아인은 수입 고급식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며 최근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고급의 비싼 간식류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스낵은 하이엔드 마켓으로 진입용이		
	경쟁동향	-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은 한류 열풍, 특색 있는 맛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 크게 각광 받고 있음. - 여러 식품관련 바이어들과 인터뷰 결과, 한국산 과자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여러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유통)		
	진출방안	-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 마켓이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산 과자 및 스낵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진출용이		
	유망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품목명 2	HS Code	210690	수입관세율(%)	5
기타 음료수	수입액('14/US\$백만)	475	대한수입액('14/US\$백만)	14
	선정사유	- 2013년 대비 80%나 한국산 제품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한국산 제품 판매액 상승		
	시장동향	- 필리핀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 싱가포르 산 제품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미국, 중국, 아세안 제품들이 판매		
	진출방안	- 현지 대형 슈퍼마켓 및 교민대상		
	유망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품목명 3	HS Code	8422	수입관세율(%)	0
포장기계	수입액('14/US\$백만)	154,795	대한수입액('14/US\$백만)	2,234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 포장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취향이 빠르게 변화하여 식품 소매유통 분야의 포장수요가 급증		
	시장동향	- 포장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0% 내외로 인도네시아 평균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음 - 현지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원료 및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중국, 한국, 일본 제품을 주로 선호		
	경쟁동향	- 제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보다 품질과 브랜드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 - 독일, 이탈리아, 중국 시장이 큼		
	진출방안	- 제조, 물류업의 발전에 따라 산업용 포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유통채널을 활용한 진출 확대 필요		
	유망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품목명 4	HS Code	850940	수입관세율(%)	25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수입액('14/US\$백만)	34	대한수입액('14/US\$백만)	0.6
	선정사유	- 베트남 가전 산업은 아직 개발이 저조해 해외 수입 제품에 의존도가 높음 - 9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가정용 가전기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 * 1인당 평균 GDP : '11년 1,543 달러 → '14년 2,052 달러		
	시장동향	- ITC에 따르면 '12년에서 '14년 사이 가전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꾸준히 성장 중 - 소득증가에 따라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와 같은 건강관리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음.		
	경쟁동향	- 가장 큰 경쟁대상은 중국산 제품으로, '14년 중국산 믹서, 과즙 및 채소즙 추출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무려 46%에 달했음. -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해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		
	진출방안	- 베트남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 대비 한국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여기고 있음. - Nguyen Kim, Media Mart, Pico 등 대형 전자·전기 제품 전문마트를 통해 제품의 광고 및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유망국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품목명 5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10, 20, 22
	수입액('14/US\$백만)	113.5	대한수입액('14/US\$백만)	35.7
화장품	선정사유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수입 제품이 90%를 장악 - 한-베 FTA 발효 시 HS코드 3304 품목은 10년 내 관세 철폐 예정		
	시장동향	- ITC에 따르면 베트남의 화장품(HS코드 3304 기준) 수입액은 '12년 7,450만 달러에서 '14년 1억 1,350만 달러로 증가 - 소득증가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가		
	경쟁동향	- '14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570만 달러로, 한국은 수입 시장의 31%를 차지하며 베트남의 화장품(HS코드 3304 기준) 1위 수입국 - 주요 경쟁국은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등으로, 각각 수입시장의 16%, 10%, 7.8%를 차지		
	진출방안	- 제품 홍보 및 현지 유통업체 발굴을 위해 현지 전시회 활용 필요 - Lotte Dat Viet 홈쇼핑, SCJ TV쇼핑 홈쇼핑 채널을 통한 광고 및 판매도 고려해 볼만함.		
	유망국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품목명 7	HS Code	950300	수입관세율(%)	0, 5
	수입액('14/US\$백만)	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6.4
완구류	선정사유	- 베트남 현지 대표적인 유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N KID Corporation에 따르면 아동용 제품 시장규모는 '13년 1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 30~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매년 약 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용 제품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함.		
	시장동향	-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으로 향상된 베트남 국민의 생활수준과 함께 자녀 관련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완구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완구류 수입액 규모는 '12년 1,600만 달러에서 '14년 3,160만 달러로 증가		
	경쟁동향	-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과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중국 제품들이 매우 인기가 높았으나,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장난감 구매 시 원산지를 고려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음. - 베트남 내 장난감 제조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공급업체들이 진출할 좋은 기회임.		
	진출방안	- 베트남의 부모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퍼즐 등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두뇌 개발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이 인기. 이를 감안한 제품 및 홍보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한 소비자 및 현지 유통업체 대상 제품 홍보 가능		
	유망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품목명 6	HS Code	600632	수입관세율(%)	0
매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중 염색한 것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29
	선정사유	- 필리핀 내 한국산 점유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1위에 등극 현재 점유율 1위(49.2%)를 기록		
	시장동향	- 최근 3년간 수입 규모가 매년 10% 증가		
	경쟁동향	- 중국이 점유율 30.9%로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 동 제품 및 원료 수출		
	유망국가	필리핀, 베트남		
품목명 8	HS Code	8429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	수입액('14/US\$백만)	363	대한수입액('14/US\$백만)	75.9
	선정사유	- 베트남 내 건설기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14년 베트남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추진이 활력을 찾아감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시장동향	- 건설기계(HS코드 8429 기준) 수입액은 '12년 2억 2,200만 달러에서 '14년에는 3억 6,300만 달러로 증가 - BMI에 따르면 베트남의 건설산업 가치는 '15년 107억 달러에서 '18년 158억 달러로 성장 전망 - 경제 활성화 및 정치적 안정화에 따라 베트남 내 FDI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5년 1~9월 기준 건설 분야 FDI 유치금액은 18억 달러로, 산업별 유치실적 중 3위를 차지 -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 유입이 지속될 전망		
	경쟁동향	- '14년 베트남의 1위 수입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43% 차지 - 한국은 2위 수입국으로 수입시장의 21% 점유 - 그 외 중국, 독일, 미국 등이 주요 수입국		
	진출방안	- 베트남 현지의 건설기계 전문 대형 트레이딩 기업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		
	유망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품목명 9	HS Code	84134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4/US\$백만)	921.1	대한수입액('14/US\$백만)	553.3
콘크리트 펌프	선정사유	- 호주는 콘크리트 펌프를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2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남.		
	시장동향	- 호주는 최근 건설업 붐으로 인해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원거리 콘크리트 운송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전체 수입 비중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는 60%를 담당하고 있음.		
	경쟁동향	- 한국(60%)/ 중국(14.5%)/ 이탈리아(13.3) 순		
	진출방안	- 콘크리트 펌프는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이 우선시되기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하며 현재 건설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 콘크리트 펌프 시장 지배를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함.		
품목명 10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1~5
	수입액('14/US\$백만)	52.531	대한수입액('14/US\$백만)	2.867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 2012년 이후 자동차 수입 완화		
	시장동향	- 2012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정부가 일반 개인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해 자동차용 부품의 수입도 증가 - 미얀마에 자동차 부품은 고무 관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미얀마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99%의 수입산과 1%의 국내산(미얀마산)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약 20-25%가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경을 통해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 미얀마의 전체적인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US\$5,097만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약 17%가 성장됨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자동차 법으로 인해 우측 핸들의 수입을 줄이겠다고 발표		
	경쟁동향	- 미얀마 운행 중인 차량의 80%는 일본 자동차이며, 나머지 20%는 한국, 중국, 유럽, 현지생산차량임. 미얀마에 운행 중인 한국 (현대, 기아)차량 중에 인기 브랜드들은 Starex, k-3, Santafe 등 - 관세 및 운송료의 문제로 인하여, 바이어들은 국경을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통관을 하는 중국 및 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음. -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산 부품 수요 다대		
	진출방안	- 미얀마에 일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은 이유는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으로, 우리기업들도 부품 보증 기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9월 이후 변경된 법률 및 추후 시행령 변경을 대비해 좌측차량의 수요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차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우리 측 부품의 우수성 및 홍보를 통한 마케팅 필요		
	유망국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내수시장 타겟 수출 확대

- 베트남 엑스포 2016 확대 개최(4월/하노이)
 -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 참가규모 확대로 베트남 소비재 시장 공략 확대
 - * 종전 60개사 참가규모를 100개사 이상으로 확대 추진
- '베트남 식품 산업전' 연계 시장진출 로드쇼(5월/호치민)
 -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재, 식품, 프랜차이즈 등 진출확대 로드쇼
- Made in Korea Consumer Fair in Vietnam 2016(하반기/하노이)
 - 베트남 온라인쇼핑몰 입점 기업 대상 오프라인 마케팅 병행 지원
 - * adayroi.com(하노이 무역관 지원)과 lazada.vn(호치민 무역관 지원) 입점 기업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개최
- Korea-Vietnam Partnering 사업 고도화(연중/하노이)
 - 베트남 토종 대형글로벌 기업 대상 파트너링 사업으로, 소싱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전시상담회 개최
 - * '14년 : 한-아세안 비즈니스 플라자(12월), 한-베 pre FTA Show 2014(12월)
 - * '15년 : K-V Day in Seoul 2015(9월), 한-베 FTA Show 2015(12월)
- MIHAS 2016 전시회 한국관 운영(3.30-4.2/ 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 장소 :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METAL TECH 2016 전시회 한국관 운영(5.25/ 쿠알라룸푸르)
 - 전시회명 : METALTECH
 -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 규모 : 한국관 10개사 내외
- 필리핀 유력 온라인쇼핑/홈쇼핑 납품 지원사업(연중/ 마닐라)
 -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Lazada 한국상품전, 현지진출 CJ홈쇼핑 납품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의 소비재 Test Marketing 실시

- Line 모바일 쇼핑 플랫폼 확대 구축(상반기/ 방콕)
 - 아웃소싱 상담회 및 플랫폼 확대 구축
 - 타겟 품목 : 캐릭터제품, 아이디어상품, 한류콘텐츠(음반,의류 등)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 아웃소싱 상담회	LINE 본사 및 태국법인 공동, 국내기업 아웃소싱 상담
② 플랫폼 확대	아웃소싱기업별 '공식계정' 발급, 가입자대상 홍보 홈쇼핑채널 보유기업과 제휴

* 공동물류센터 사업과도 연계 가능

- 2016 태국 한류 상품전(하반기/ 방콕)
 - 타겟분야 : 화장품, 주방용품, 캐릭터상품, 팬시용품 등 소비재 품목
 - 주요내용

행 사 명	개 요
① 한국 상품 전시 및 상담회	• 한류상품을 전시하여 KOREA 브랜드를 이용한 홍보 • 태국 유통기업 및 현지 에이전트와 1:1상담
② 유통채널별 진출전략 설명회	•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이커머스 등 유통채널별 진출전략 •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연사를 섭외하여 현장감 확보
③ 한류스타 공연 및 부가행사	• 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 공연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 • 한국식품 시식행사 등 다양한 부가행사 개최

- 2016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2016) 한국관 참가(11월/ 방콕)
 - 개최일시: '16. 11. 19 - 22(4일간)
 - 전시면적: 46,000 sqm
 - 참가업체 수: 50개국 2,700개사
- 라오스 K-Health&Beauty 진출 사업(2,3분기/ 비엔티안)
 - 의약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에 특화된 소비재 진출 사업 추진
 -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2분기), Health&Beauty 로드쇼 개최 (3분기)
-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1분기, 3분기/ 비엔티안)
 - 라오스 내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추진
 - 특화 조사보고서 발간 (1분기), 프랜차이즈 쇼케이스 개최 (3분기)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M&A 투자진출

- 베트남 지방성 통합 투자환경 비교설명회(5월/한국)
 - 베-남 진출희망 한국기업 대상 각 지방성 투자환경 정보 제공
-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아웃소싱 파트너링 사업/GP 사업(5월/하노이)
 - MS 노키아, 파나소닉, 소니, Canon 등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의 부품소재 구매 설명회 개최, 베트남 진출 및 한국 소재 우리 기업과의 1:1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 견학 추진 등
- 한-베 글로벌 M&A 협력 파트너링 사업(상반기/서울)
 - 목표매물 선정 및 분석 보고서 작성, 한국 투자자 평가를 거쳐 '한-베 M&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M&A 시장 참여를 지원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강화

- ITS 및 교통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현지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ITS 및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사절단 초청, 상담회 개최
-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연중/마닐라)
 - 전력부족 및 기후변화에 민감한 주재국 특성을 반영, 우리기업의 필리핀 전력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KOTRA-KEPCO 전력시장 개척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속 추진
 - 2014년 사업추진 후속조치로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중인 한전 발전기자재 기업, 전력·신재생 프로젝트 관심기업 대상 수출로드쇼 개최
- Ayala Healthcare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및 수출상담회(연중/마닐라)
 - 동 그룹 추진 병원 프로젝트 참가업체(4개사)와의 MOU 체결, 관심기업 대상 프로젝트 설명회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16 한-아세안 그랜드 프로젝트 파트너쉽(하반기/마닐라)
 - ADB 추진사업 등 아세안 국가 대상 프로젝트 수주 관련 한-아세안 협력포럼, 프로젝트 수주 비즈니스상담 등

□ 통상협정 활용 수출 여건 개선

- FTA 활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연중/하노이, 호치민)
 - 우리 기업 대상 FTA 활용상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FTA 설명회 개최, FTA 활용전략 수립 지원 등 추진
- Textile Partnership Plaza from ASEAN 2016(하반기/하노이)
 - 섬유산업 관련 아세안 진출 우리 기업과 세계 각국 글로벌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TPP에 따른 섬유산업 시장기회 활용 지원

□ 기타

- 라오스 전략 CSR 사업 (연중/비엔티안)
 - 농기계(대동공업), 색채선별기(대원GSI) 등 지사화사업과 연계한 CSR 사업 추진
 - 철도학교(1분기), 자동차정비기술학교(2분기), 수자원학교(2분기), 전기학교(3분기), 농기계·색채선별기 기부 및 사용자교육 사업(3분기) 등
- 2016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0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현지 취업인력들 대상 한국기업 홍보 지원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서남아 진출전략

kotra
서남아지역본부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6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69
2. 주요 이슈	371
II. 진출환경 분석	373
1. 경제 환경	373
2. 산업 환경	375
3. 사회·문화적 환경	377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380
III. 시장 분석	385
1. 국가별 시장특성	385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388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393
IV. 시장진출전략	399
1. 진출전략 개관	399
2. 세부 진출전략	401
3. 분야별 진출전략	405
#첨부: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407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410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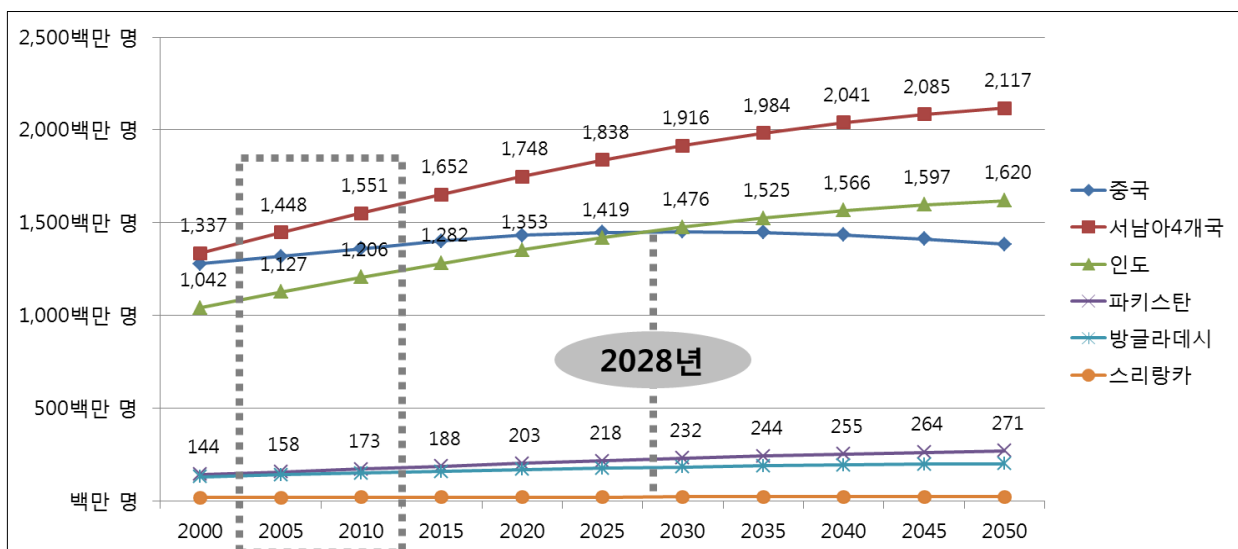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17억 명의 인구,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잠재성 보유
- (지역간 연계의 중심) 서남아 4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을 중심으로, 서남아-동남아, 서남아-중동, 서남아-아프리카 Connectivity 이슈 부각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꾸준히 증가하는 17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 전망

- '15년 현재 서남아 4개국의 인구는 약 17억 명으로 35세 이하 젊은 층 중심
 - 특히 인도는 연평균 인구증가율(1.35%)이 중국(0.62%)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2028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파키스탄(1.84%), 방글라데시(1.09%), 스리랑카(0.79%) 등 서남아의 인구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의 부상 전망

<서남아 4개국과 중국의 인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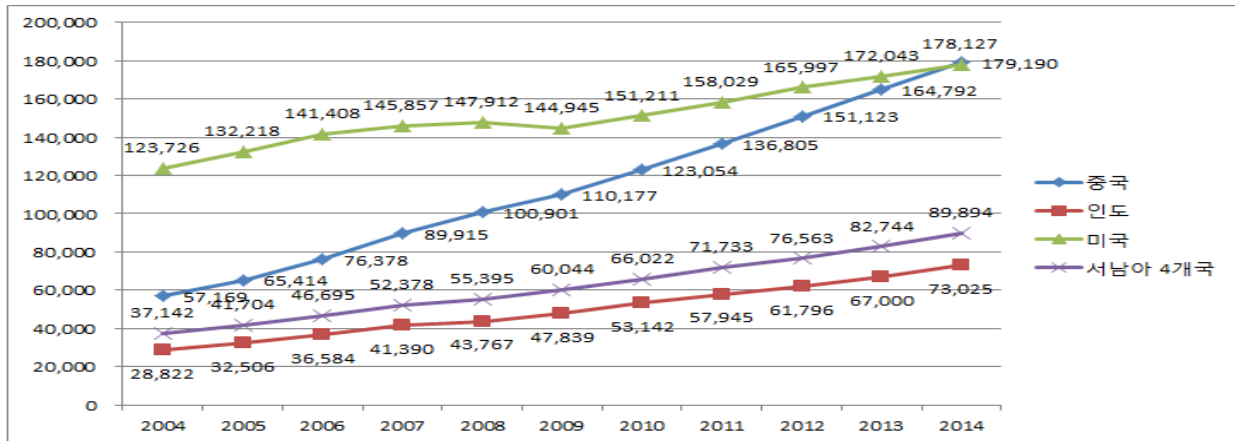


* 자료원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2 Revision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
 - '14년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7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른 이래 순위 지속 유지 (일본 : 4조 8천2백억 달러)
 - 인도의 중산층 인구는 1억 8천만명(연 5,000~30,000달러 소득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숫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함.

<상위3개국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

(단위 : 억 달러)



* 자료원 : World Bank (2014)

□ 서남아시아의 거대 경제권과 세계경제를 잇는 축(Hub)으로 발돋움

○ 서남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 활성화

- 서남아 4개국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06년)*, '남아시아 지역협력체(SAARC, '85년)** 체결 및 구성 이래, 역내 경제교류를 꾸준히 확대해옴.

*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협정국간 교역액 : ('09) 56억 달러 → ('12) 82억 달러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8개 국가로 이루어진 남아시아지역 협력체

- 미얀마 경제개발 가속화로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을 잇는 벵골만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 예정

*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97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미얀마, 태국 7개국이 발족한 지역협력기구로, 벵골만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상호협력 증진 목적

○ 풍부한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로, 신흥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

-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각각 5백만, 4백만 명의 인도계 주민이 거주하며, 지역 간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는 54개국이 참가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개최('15.10월)하는 등, 교류 지속 확대

* 인도-아프리카 교역액('14~'15) : (수출) 380억 달러, (수입) 328억 달러



<인도-아프리카 서밋('15)>

○ 서남아 거대경제권을 통한 FTA 허브 구성

- 인도는 ASEAN, 한국을 포함한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1개국과 FTA 체결 협상 중이며 추가로 12개의 FTA를 체결 검토 중
-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포함되어 FTA 확대에 적극적 동참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인도 FTA 체결현황>

구분	내용
기체결국	SAFTA, ASEAN, 스리랑카, 싱가포르, 부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협상진행	BIMST-EC, EFTA, EU, 태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스라엘, RCEP ※ (협상중단) GCC FTA
체결검토	페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파키스탄, 중국, 대만, 터키, COMESA, 칠레, 페루,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 주요이슈

□ (인도) 모디 정부 3년차 경제개혁 지속 및 투자유치 활성화

○ 3대 경제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

- 노동법 개정, 세제개혁*, 부지수용 절차 간소화 등 3대 경제개혁 법안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세제개혁 : 현재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GTS (Goods and Service Tax) 제도 도입

-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순위를 '16년까지 50위까지 개선하고 주정부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 지방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경주

* Doing Business 순위 : ('15) 134위 → ('16) 130위

* 주정부 평가('15. 9월) :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DIP) 주관 하에 29개 주, 3개 직할지에 대한 사업 용이성 평가 최초실시. 사업시작, 토지할당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 평가

○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지속 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자동차부품, 방산, 전자시스템, 항공, IT, 화학, 전력 등 25개 중점 육성산업을 제시 및 지원하고, 향후 4년 내 법인세율을 인하(33%→25%) 예정

* GE, 아마존, 지멘스, 시스코, 소프트뱅크, 현대 등 전 산업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對인도 투자진출 및 투자확대를 추진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점산업 FDI한도 상향 및 사전심사 한도액 조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전심사대상 한도액 상향조정 : 120억 루피 → 300억 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파키스탄) 공공기관 민영화 및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자산 대폭 매각
 - 정부 보유자산 매각으로 현재 178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안정성 제고
 - 매각자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17년까지 50여개의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계획
- 무역확대를 위해 FTA 본격 추진
 - 기체결국(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 SAFTA 등) 외 터키와의 막바지 협상 진행 중
 - 한국 포함, ASEAN, EU, 뉴질랜드, 이집트와 FTA 체결 검토

□ (방글라데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프로젝트 재개

- 1인당 GDP 증가로 방글라데시 소비시장의 변화조짐
 - IMF는 '16년 방글라데시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GDP 1,500 달러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기존 봉제가공업 외에,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제조업 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가시화
- 정국 조기안정으로 산업투자 및 프로젝트 시장 회복 기대
 - '15년 초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기업 신규투자 회복 가능성이 높아짐.
 - '13~'14년 정부 측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추어졌던 상당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전망

□ (스리랑카) 신정부의 친인도·친서방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내각구성 완료로 정국안정 실현 후 신정부의 개혁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수상이 이끄는 UNP가 다수당을 구성
 - 47개 부처 장·차관 임명 완료
 - 친 서방, 친인도 성향의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관련국과의 관계강화 및 교역증가가 예상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 투자관련 법규개정 작업 및 공격적인 투자사절단 파견 계획 수립
 - 45개 경제자유구역 및 11개 산업·기술개발지역 조성으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 * (폭스바겐)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3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결정

II 진출환경 분석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과 함께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산업구조) 각국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탈피를 도모
- (사회문화)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1. 경제 환경

□ 세계경제 저성장에도 '15년 서남아 4개국은 전세계 평균(3.1)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16년까지 파키스탄을 제외, 연6% 이상의 고 성장세를 지속.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 특히 인도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자 Next China로 각광받으며, 7%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서남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13년	'14년	'15년(f)	'16년(f)
세계 평균	3.3	3.4	3.1	3.6
인도	6.9	7.3	7.3	7.5
파키스탄	3.7	4.0	4.2	4.5
방글라데시	6.0	6.3	6.5	6.8
스리랑카	7.3	7.4	6.5	6.5

* 자료원 : IMF(2015)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05~'14년도 10년간 서남아 전체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0% 증가
- 교역규모가 '04년 2,446억 달러에서 '14년 9,847억 달러로 4배 가까이 확대됨.
- * (수입) 서남아 4개국은 원유수입국으로,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안정세에 따라 고성장 및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 (수출) 정부의 지속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완성차(인도), 의류(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수출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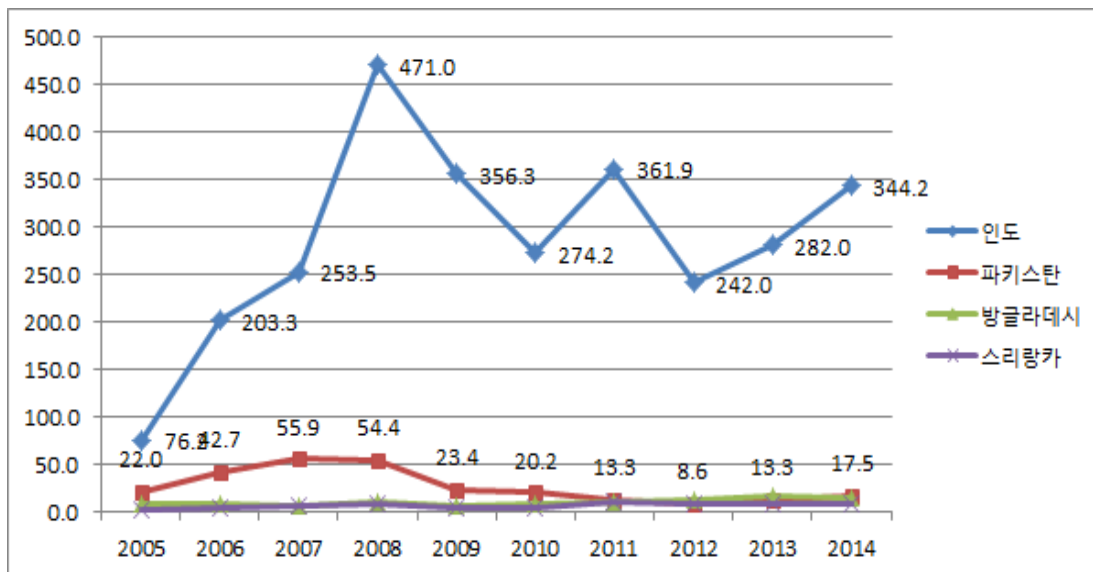
- '14년 기준 국가별 교역비중은 인도(79.0%), 파키스탄(8.8%), 방글라데시(7.1%), 스리랑카(3.1%), 기타(2.0%) 순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26.0% 증가('05년~'14년)

- 對서남아 투자 규모는 '05년 109억 달러에서 '14년 386억 달러로 3.5배 이상 확대
- 서남아 지역 내 각 국가 대상 투자 비율은 인도(89.1%), 파키스탄(4.5%), 방글라데시(4.0%), 스리랑카(2.4%)순으로 인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서남아시아 FDI 유입액 (2005~2014)>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 UNCTAD(2015)

- 對인도 FDI투자액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00~'14년 말 누계기준)
 -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다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對인도 투자 실시
 - 일본은 '52년 인도와 수교를 체결한 이래, '05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정상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일본 전용공단 설치 등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출함.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유망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속화
 - 주요 투자분야는 서비스업, 통신업, 건설업, 전력 등임.
 - 일본국제협력은행(2014)은 향후 1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투자 유망국으로 인도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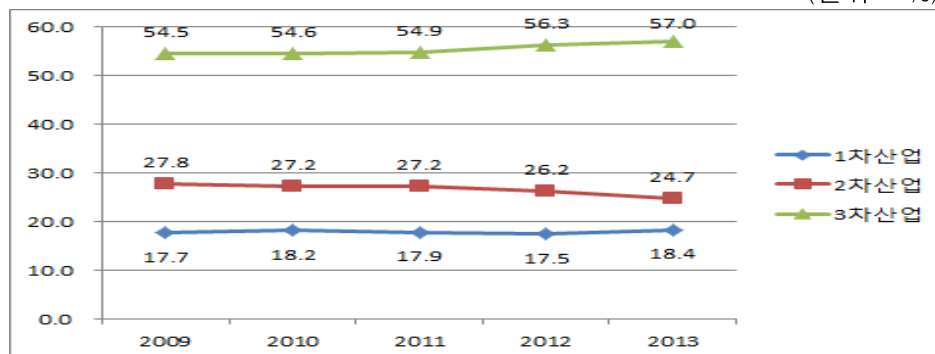
2. 산업 환경

□ (인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 가속화
 - 지난 수년간 인도의 경제성장은 건설, 서비스 분야가 주도
 - 농업 중심에서 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적인 구조로 변화가 진행

<인도의 산업비중 (GDP대비)>

(단위 : %)



* 자료원 : ADB(2013)

-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16년 기준 인도의 자동차 산업규모는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를 차지
 -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는 '16년 인도의 자동차 산업 위치를 승용차 세계 7위, 상용차 4위, 삼륜차 1위, 이륜차 2위로 전망
 - * 자동차 부문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왔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로 소형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주요 메이저 완성차의 투자가 확대
 - (철강) '08년 세계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았으나, 꾸준한 국내 인프라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
 - * 인도 철강 산업 규모는 '08년 이래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
 - (IT) 인도는 전 세계 글로벌 IT기업들의 연구와 개발 허브로 고성장 중
 - * 인도 경제에서 IT산업은 GDP의 8%, 서비스 수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고용규모는 310만명에 이르는 주력산업 중의 하나임.
 - * 시장규모는 '11년 기준 1,180억 달러이며, '20년까지 연평균 13~15%의 성장을 보이며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통신 산업) 인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하나
 - * '14년말 기준,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9억 500만 명으로 세계 2위임. '07년 이래 가입자 수는 연평균 27.5% 성장
 - * '15년 8월부터 시장점유율 1위인 Airtel사가 4G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인도 인터넷 사용자의 10명 중 8명이 모바일 기반 인터넷을 사용하여 모바일 커머스 등 관련 분야의 성장 가능성 다대

□ (파키스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섬유산업을 필두로 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12~'1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차 산업 비중은 23.3%, 2차 산업 비중은 22.7%, 3차 산업 비중은 41.6%, 기타 12.4%
 - 1차 산업 중 농림축산업분야는 곡물재배, 축산, 수산, 임업 등이 포함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45%가 종사
- 주요산업별 동향
 - (섬유)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함.
 - * 섬유부문은 파키스탄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Ministry)가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음.
 - * 아울러 전체 생산품의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제품은 면직사(cotton yarn), 침구류(bed linen), 의류 등
 - (가전) LG, 삼성, Philips 등 다국적 기업과의 JV를 통한 현지 생산방식 위주
 - * TV, 에어컨, 냉장고 등이 주요 생산품으로, 파키스탄 경제성장에 따라 내수 수요가 확대되고 고급화되는 추세임.
 - * LG, 삼성 등 한국산의 점유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파키스탄-중국간 FTA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를 보임.

□ (방글라데시)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제1산업인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 규모 및 고도화 추진
 -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적박함에도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 활발
- 주요산업별 동향
 - (의류봉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이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름
 - * '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티셔츠 류가 최대 수출 품목이며, 우븐(woven) 의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
 - * 원사, 원단 등의 수입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미발달로 단순 봉제업이 주종
 - * 전 세계 대형 마트, 중저가 의류 체인 등 Fast Fashion 기업의 주요 소싱(sourcing) 국가

□ (스리랑카)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동향

- 핵심 산업인 관광업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 스리랑카의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될 전망
 - Colombo, Hambantota를 중심으로 항만 개발프로젝트, 고속도로, 정수장, 수처리, 송전효율 개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 주요산업별 동향
 - (관광업) '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접객시설, 도로 등 관광 인프라 수요 확대
 - * 매년 25%가량 증가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호텔 신축 진행
 - * 주요 관광객은 중국, 유럽, 중동 방문객임

<스리랑카 관광산업 동향>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객 수(천 명)	1,005	1,275	1,600	2,000	2,500
고용창출(명)	163	270	425	513	600
호텔룸수(개)	21,960	23,121	35,880	42,840	45,000
외화수입(백만 달러)	-	1,360	1,740	2,120	2,500
일일 관광객소비금액(달러)	103	110.7	117.5	124.3	130

* 자료원 : 스리랑카 관광청

- (기타산업) 제조업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 * 투자유치 : 폭스바겐의 3천만 달러 차량조립 공장, Google Loon Tech 투자결정 등
 - * 농수산물 : 대유럽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기대.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가공, 운송, 포장 개선지원

3. 사회 · 문화적 환경

□ 인구구성

- 서남아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년 현재 11억 명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10억 명)을 능가하는 수치로,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서남아 4개국과 중국 생산가능인구수 비교>

(단위 : 백만 명)

연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15	1,015 (72.4%)	849 (66.2%)	118 (62.8%)	106 (66.2%)	14.2 (65.9%)
2020	1,004 (70.1%)	908 (67.1%)	130 (64.1%)	116 (68.2%)	14.6 (65.3%)
2025	1,002 (69.2%)	959 (67.6%)	143 (65.6%)	123 (69.2%)	14.8 (64.9%)
2030	988 (68.0%)	1,005 (68.1%)	155 (66.7%)	129 (69.6%)	15.1 (64.7%)
2035	951 (65.7%)	1,042 (68.3%)	166 (67.9%)	133 (69.5%)	15.1 (64.1%)
2040	909 (63.4%)	1,072 (68.4%)	175 (68.8%)	135 (69.2%)	15.1 (63.5%)
2045	885 (62.6%)	1,090 (68.3%)	183 (69.3%)	136 (68.1%)	14.9 (62.3%)
2050	849 (61.3%)	1,098 (68.3%)	188 (69.2%)	134 (66.5%)	14.6 (61.2%)

* 자료원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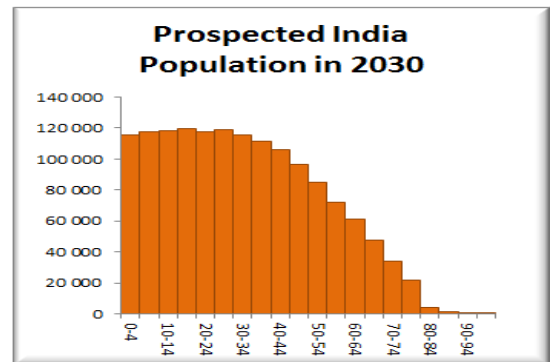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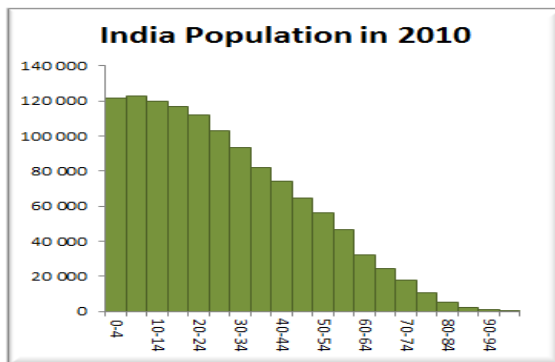
○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는 '30년 중국을 추월할 전망

- 인도는 생산가능인구가 '35년 전체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정점에 도달

* 반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15년 현재 72.4%에서 '35년 65.7%까지 하락 예상

< 인도 연령별 인구변화 전망 '10년 → '30년 >

(단위 : 천 명)



* 자료원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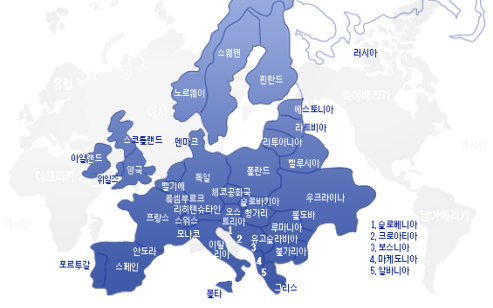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및 종교

○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직할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주별 인종, 종교, 언어 구성이 상이함.

- 주 급 공용어 기준으로 공용어만 27개에 이르며, 연방 급 공용어인 영어, 힌두어를 비롯해, 지방언어인 구자라트어, 타미르어, 펀잡어 등이 있음. 이외 프랑스어와 네팔어 등의 외국어가 공용어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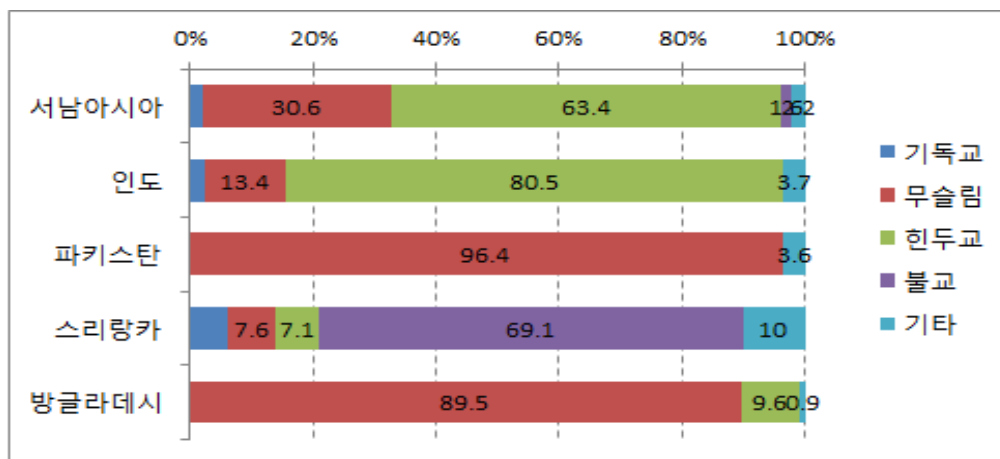
- 문화, 언어가 상이한 지역 간 정치적 분할요구는 파키스탄 분할독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 '14년에는 Telangana주가 Andra Pradesh주로부터 독립

<인도의 다양성 : 인도 vs EU>

	
■ 29개 주 ■ 27개 공식 언어 ■ 12억 인구 ■ 주별 맞춤형 진출 전략 필요	■ 28개국 ■ 23개 공식 언어 ■ 5억 인구 ■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필요

- 서남아 4개국의 주요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 불교이며, 기독교가 소수를 차지
- 인도는 힌두교가 80.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각각 96.4%, 89.5% 차지,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다수(69.1%)

< 서남아 4개국 종교 분포 >



* 자료원 : CIA(2014)

- 서남아 지역의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은 '47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래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문제임.
- * 인도 내 소수자인 무슬림, 시크교도에 대한 차별 및 이에 대한 상호테러가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 (Ex) 인디라 간디 인도총리 암살('84, 시크교도), 라지브 간디 인도총리 암살('91, 스리랑카 분리 독립 단체), 아요디야 이슬람 사원파괴('92, 힌두원리단체), 뭄바이 테러('08, 무슬림-파키스탄) 등
- 인도내의 힌두교 원리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의 종교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인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 대상국이자 21위 수입 대상국
 - '02년 26억 달러에서 '14년 181억 달러로 양국 간 무역규모는 약 7배 증가
 - 양국 무역은 한-인도 CEPA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 뒤 180억 달러 선에서 정체
 - 하지만 루피화가 달러당 62~65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경제교류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향후 교역량 증가 예상

<對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수출(증감률)	126.5(10.7)	119.2(△5.8)	113.7(△4.6)	127.8(12.4)	50.9(△1.9)
수입(증감률)	78.9(39.1)	69.2(△12.3)	61.8(△10.7)	52.7(△14.7)	18.5(△15.1)
무역수지	47.6	50.0	51.9	75.0	32.4

* '11년 수출입 급증사유 : 한-인도 CEPA발효에 따른 교역량 증가

* '12~'13년 감소사유 : 루피화 절하 및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 (수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소비재보다는 산업용 부품 및 기자재가 주를 이룸.
 - 무선통신기기는 '14년 10.9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인도 휴대폰 시장의 확장에 따라 '15년 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4.0% 수출급증
 - 자동차 부품은 인도정부의 현지생산 장려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형 및 기계류의 수출이 호조세임.

<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782	12.4	5,093	△1.9
1	철강판	1,531	12.4	591	0.8
2	무선통신기기	1,088	174.6	545	44.0
3	합성수지	1,058	15.6	438	△2.5
4	자동차부품	1,065	△14.9	434	8.2
5	석유제품	739	20.0	195	△39.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입) '11년 79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음. 기초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산업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對인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별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275	△14.7	1,851	△15.1
1	석유제품	1,812	△34.0	345	△45.4
2	알루미늄	354	66.6	196	40.3
3	식물성물질	386	16.6	122	△41.4
4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63	31.2	89	△53.9
5	정밀화학원료	331	8.6	87	13.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파키스탄)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12년 이래 교역규모, 특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파키스탄-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제품이 빠르게 현지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 '07년 FTA 체결 이후 중국의 對파키스탄 수출은 매년 10% 이상씩 증가
 - 한편 현지 치안불안으로 한국기업의 무역활동은 위축된 상황임.

<對파키스탄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8)
수출액	818	847	819	770	518
수입액	737	776	522	402	200
교역규모	1,555	1,623	1,341	1,172	718
무역수지	81	71	297	368	31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이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급감
- * ('14년 수출 감소량) 열연강판(△77.4%), 석유화학합성원료(△86.2%), 합성고무(△59.8%), 폴리에스테르섬유(△54.6%)

<對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69,963	△23.0	323,947	4.5
1	합성수지	99,124	△12.3	49,069	3.5
2	건설중장비	27,551	△100.0	20,233	76.5
3	기타석유화학제품	34,187	△100.0	16,609	34.1
4	아연도강판	31,919	0.0	15,313	32.1
5	윤활유	54,047	△97.1	15,061	△34.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입) 반면 수입품은 섬유류, 농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파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음.

<對 파키스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4년		'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01,916	△23.0	122,357	△37.1
1	순면직물	57,254	△5.2	25,559	3.6
2	면사	57,879	△3.2	18,939	△22.9
3	주류	46,885	△34.1	14,430	△7.4
4	나프타	88,699	△50.4	8,956	△86.2
5	기타가죽	28,430	△1.7	7,943	△29.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47위 수출대상국이자, 64위 수입대상국('14년)
- 수출은 '10년 5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인 이후, '12년 이래 감소세이고,
수입은 '11년 이후 증가하다가 '15년 감소로 전환하였음.

<對 방글라데시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554	46.1	139	14.2
2011	1,628	4.7	244	75.3
2012	1,459	△10.4	295	20.8
2013	1,427	△2.2	332	12.7
2014	1,236	△13.4	345	3.9
2015.1~8	836	△1.7	217	△6.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출) 과거에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직물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철강, 아연제품, 동제품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임.

<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27,204	△2.2	1,236,207	△13.4
1	합성수지	135,331	30.3	127,652	△5.7
2	철강판	127,175	△9.9	117,239	△7.8
3	종이제품	94,936	△15.3	89,086	△6.2
4	아연제품	74,500	17.6	77,694	4.3
5	동제품	26,583	△28.8	53,559	101.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입) 수입 또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신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죽, 섬유원료, 동괴도 높은 비중을 차지

<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13년		'14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332,478	12.7	345,288	3.9
1	의류	143,626	15.2	170,703	18.9
2	가죽	87,631	26.7	88,999	1.6
3	기타섬유제품	25,509	164.0	27,675	8.5
4	신발	14,088	31.8	16,837	19.5
5	석유제품	16,800	△68.6	12,532	△25.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 對한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수출 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로 아직은 교역규모가 미미
 -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교역규모가 더욱 축소되는 상황이나, 제품수요 다양화에 따라 신규 수입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스리랑카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2013(금액/증감율)	2014(금액/증감율)	2015(예상액/증감율)
수출	299(△6.6%)	314(4.9%)	288(△8.2%)
수입	85(18.1%)	94(11.%)	86(△8.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콜롬보 무역관(2015년도 예상치)

- (수출) 주요 수출품은 봉제의류용 직물, 승용차, 강판 등이며,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도 예상됨.

<對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4,125	4.9	109,326	△15.2
1	편직물	35,413	4.1	13,409	9.5
2	폴리에스터 직물	18,809	9.4	6,251	8.6
3	승용차	16,452	1.3	6,161	△33.6
4	아연도강판	18,525	37.6	5,998	△24.2
5	면사	12,334	△20.7	5,303	2.9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수입) 봉제의류, 코코넛 제품(식물성재료)을 비롯한 농수산물, 보석 등임.

* 봉제의류는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함.

<對스리랑카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14년		'15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93,802	11.0	34,073	△10.5
1	직물제의류	26,061	12.0	11,134	△2.5
2	편직제의류	15,665	34.1	7,170	34.4
3	기타식물성재료	7,502	△4.4	3,166	6.6
4	기타섬유제품	5,741	2.9	1,916	△9.2
5	기타비금속광물	4,916	32.9	1,555	△13.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III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 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1. 국가별 시장특성

□ (인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구분

- (인도 권역구분) 권역·주별로 산업화의 정도, 노동력의 수급 및 노사문화, 부존자원 현황 등이 상이함.
 - (북부) 수도인 뉴델리 주변의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의 인구는 5천만에 육박. 정치, 행정의 중심이며, 국내외 주요기업들의 본사가 위치
 - (서부) 인도 제2의 도시인 뭄바이가 위치해 있으며, 금융, 방송, 문화의 중심지임. 뭄바이를 주도로 삼고 있는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등 공업이 발달함.
 - (남부) IT산업의 중심지 벵갈루루가 위치해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물류가 발달함.
 - (동부) 과거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가 위치해 있으며, 갠지스 강 하류, 벵골 만의 중심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과 국경 인접

<인도 권역별 현황 및 주요 州>



구분	주요 주 및 도시
동 부	서벵갈(콜카타), 자르칸드, 오리사, 차티스가르, 비하르
서 부	마하라슈트라(मुंबई), 구자라트, 고아
남 부	타밀나두(தெனாி), 카르나타카(ಬೆಂಗಳೂರು),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쉬(హైదరాబాద్)
북 부	뉴델리, 하리아나(गुर्गाँव), 우타르프라데쉬, 라자스탄(자이푸르), 편잡, 우타라칸드, 잠무 & 카쉬미르, 히마찰프라데쉬, 마드야프라데쉬

- 권역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조건에 따른 FDI 유입액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
- 항만,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있는 서부지역의 경제력 수준이 다른 권역을 압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집중되어있는 상황

구분	1인당 GNI (Rs)	경제성장률 (%)	인구 (억명)	FDI 유입액 비중(%)
동부	40,440	15.9%	2.9억	2%
서부	119,606	15.6%	1.7억	44%
남부	75,860	15.9%	2.5억	18%
북부	63,575	17.2%	4.2억	31%

* 자료원 : Reserve Bank of India, 2012

- 권역별 주요 특징

구분	인도 북부	인도 서부	인도 남부	인도 동부
소비 수준	진보적인 소비문화	소득·소비 수준 높음	소득 수준 양호, 소비 수준 보수적	소득·소비 수준이 가장 낮음
인프라	도로 및 통신 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 전력은 여전히 부족	우수한 인력 풍부함, IT 대학 집중, 인도 최대 해운 물동량을 가진 뭄바이 항구 위치	IT 허브 위치, 거대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아세안 각국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첸나이 항구 위치	저렴한 인력이 풍부함, 인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프라
기타	식품가공분야·BT 및 제약 부문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FDI에 우호적, 주류반입 금지, 부지확보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 존재	종교 분쟁, 테러위험이 높음,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 강성 노조	광물 및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100% 허용, 강성 노조

- 인도 정부는 주요도시 연결을 통한 도시, 산업화 및 권역간 네트워크 추진
- (인프라 확충)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북-남,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총 7,300km에 이릅니다. 이외, 철도와 항만, 공항에 대한 설비투자가 진행 중

- (지역간 연결) 주요 도시를 잇는 5대 산업회랑을 따라 도로, 철도, 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구축예정

- * DMIC(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 * BMEC(방갈로르-뭄바이 경제회랑,
Bangalore Mumbai Economic Corridor)
- * CBIC(첸나이-방갈로르 산업회랑,
Chennai Bangalore Industrial Corridor)
- * ECEC(동해안 경제회랑,
East Coast Economic Corridor)
- * AKIC(암리차르-콜카타 산업회랑,
Amritsar Kolkata Industrial Corridor)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경제구조·정책	루피가 장기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변동 큼	정부 지출 확대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음. 본국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대외부채 수준이 매우 높음
부존 자원	원유와 천연가스 보유, 국내 수요 미충족. 비금속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 일부 금속 광물 또한 생산	원유와 천연가스보유, 국내 수요 미충족. 광물자원은 거의 없으며 석회석, 고령토 미량 매장	천연자원은 부족하나 보석류와 준 보석류 등 일부 희소자원 보유
인프라	전력난 등 매우 열악한 인프라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사회보장제도 부족, 점진적인 임금 인상 잠재성	현지 노동자의 결근율이 매우 높음.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 노동자 부족
법·제도	복잡한 조세제도, 과실송금에 대한 비공식적 규제 존재	과실송금, 차관기관 연장 등 금융 지원	불규칙적인 조세 및 보조금 제도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인도) 수출입 동향

- 인도의 전체교역은 '12~'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3~'14년과 '14~'15년에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에 의한 수입 감소에 기인함
- (품목별 동향) 인도는 구조적으로 무역수지적자를 보이는데, 수입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임
- 인도는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비중은 '14년 기준 38.3%에 달함
-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물성 연료와 귀금속임.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귀금속은 인도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임

<인도의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현황 (2014)>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 연료(27)	64,780	20.12	△1.62
귀금속(71)	42,119	13.08	△3.01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87)	14,539	4.52	15.7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84)	13,627	4.223	13.64
유기화합품(29)	12,099	3.76	△0.6
의료용품(30)	11,682	3.63	7.1
곡물(10)	10,243	3.18	△5.51
철강(72)	9,075	2.82	△2.43
의류(62)	9,060	2.81	11.8
전기기기(85)	9,056	2.81	△13.48
수입			
품목	금액	점유율	증가율
광물성 연료(27)	176,840	38.33	△2.53
귀금속(71)	60,195	13.05	△14.26
전기기기(85)	31,943	6.92	7.67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84)	31,169	6.76	△2.34
유기화합품(29)	18,286	3.96	8.73
플라스틱(39)	11,809	2.56	18.38
철강(72)	11,415	2.47	10.58
동물성 · 식물성 지방 기름(15)	10,657	2.31	8.77
광물류(26)	7,556	1.64	△10.43
광학기기(90)	7,048	1.53	4.5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국가별 동향) '14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사우디, UAE, 미국 등이며, 한국은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임.
- 인도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있으며, '12년 점유율 1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상승
- 원유가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사우디, UAE, 쿠웨이트와 같은 산유국과의 수입거래 비중이 높음.
- 한편, 수출시장에서는 미국과 UAE가 주요 대상국인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보석류와 광물성 연료의 주 수입처가 이들 국가이기 때문임.

<인도의 중 국가별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2,418	9.9	13.2	중국	58,301	13.3	12.6
2	UAE	33,159	3.8	10.3	사우디	32,590	△9.68	7.1
3	홍콩	13,669	4.6	4.3	UAE	27,222	△18.04	5.9
4	중국	13,310	△8.3	4.1	미국	21,375	△8.88	4.6
5	사우디	12,645	7.2	3.9	스위스	21,169	△17.94	4.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규제 동향)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건수는 타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빈번히 활용됨.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개시	2	13	2	3	4	4	4	3
발동	1	3	2	2	2	2	2	0

* 자료원 :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 '15년 6월 현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 반덤핑 품목은 23개로, 가성소다, 탄산칼륨과 같은 화학재료와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알루미늄 휠 등 철강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 *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페놀, 포화지방알콜, 디옥틸 프탈레이트, 무용접 강관 등 4개 품목임.
-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 세이프가드 총국 혹은 인도 국내기업의 청원을 받아 개시되며, 세이프가드 총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고 재무부의 공지를 통해 최종 부과함.
- * '15년 세이프가드 조사가 3건 이루어졌으며, 최근 철강제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인상과 세이프가드 부여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인도는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10년 발효된 CEPA에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엄정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파키스탄의 교역량은 65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파키스탄 대외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액	24,811	23,641	22,537	25,075	24,132
수입액	40,414	44,912	41,427	41,630	41,175
교역규모	65,225	68,553	63,964	66,705	65,307
무역수지	△ 15,603	△ 21,271	△ 18,890	△ 16,555	△ 17,043

*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 (품목별 동향) '14~'15년 대외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1.2% 감소하였음.
- 이는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을 상회하는 섬유제품과 기타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
- 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14.1%) 및 원유(-23.7%)의 감소세가 주원인

<파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출품목	'13/'14	'14/'15	증감률	수입품목	'13/'14	'14/'15	증감률
섬유제품	13,658	13,527	△ 1.0	석유제품	9,020	7,752	△ 14.1
기타제조업 제품	4,478	4,407	△ 1.6	원유	5,755	4,393	△ 23.7
식품 및 농수산물	4,240	4,395	3.7	철강	1,540	1,813	17.7
가죽제품	1,083	1,073	△ 0.9	플라스틱소재	1,680	1,772	5.5
석유 및 석탄	949	921	△ 3.0	기계류	1,426	1,667	16.9

* 자료원 : State Bank of Pakistan

- (수입규제 동향) '15년 6월 기준 파키스탄의 對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3건이며, 모두 화학품목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10.9.27	- 반덤핑관세 한국 : 0~14.77%
포름산 (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11.2.30	'12.2.10	- 반덤핑관세 한국 44.1%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09.5.29	'10.9.30	- 반덤핑관세 한국 : 7.3%

*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주요이슈) 한-파키스탄 FTA 추진을 통한 교역증진
 - '15년 7월 쿠람 다스트기르 칸(Khurram Dastgir Khan)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파키스탄 FTA 관련 정부간 논의가 진전됨.
 - 양국은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민간공동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함.

□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 국가 최대의 산업인 봉제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입, 완성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4~'15 연도의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3.4% 증가에 그침. 이는 對미 의류수출이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방글라데시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0/'11	'11/'12	'12/'13	'13/'14	'14/'15
수출	금액	22,928	24,302	27,027	30,187	31,209
	증가율	41.5	6.0	11.2	11.7	3.4
수입	금액	33,658	35,516	34,084	40,693	45,190
	증가율	41.80	5.5	△4.0	19.4	11.3
무역수지		△10,730	△11,214	△6,954	△10,506	△13,981

* 자료원 : Mager Economic Indicators.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품목별 동향) 주력 수출품은 봉제의류이며, 관련된 면사, 면섬유,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높음.
 - (수출) '13~'14 기준 수출품목 중 의류(HS 61,62)가 81.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방직용 섬유제품이 부진한 가운데, 신발, 원피,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그 뒤를 이음.
- (국가별 동향)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의 수입국인 유럽, 북미지역의 국가들이 수출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 '13~'14년 기준, 미국이 1위로 전체 수출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순. 한국은 19위에 위치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21%)으로, 기계류, 면사,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이 주를 이룸. 17%를 차지하는 인도의 경우, 면사, 면섬유, 차량이 주요 수입제품임.

□ (스리랑카) 수출입 동향

- (품목별 동향) 원유, 섬유 등의 원재료 수입을 통한 가공품 수출
 - (수출) 의류, 봉제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식품, 고무, 수산물 등의 원자재와 농산품의 비중이 높음.
 - (수입) 석유, 자동차, 봉제의류 원자재, 시멘트, 의약품 순
- (국가별 동향) 핵심 산업인 봉제 산업과 관련된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출) 미국, 영국 등 의류를 구입하는 서방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음.
 - (수입) 의류가공을 위해 인도,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차량 등의 공산품을 수입. 원유를 수입해오는 중동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도 높게 나타남.

<스리랑카 국가별 수출입 현황('15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액(천 달러)	점유율(%)	국가별	수입액(천 달러)	점유율(%)
미국	1,396,155	26.5	인도	2,233,875	23.24
영국	545,691	10.4	중국	1,772,836	18.5
인도	358,705	6.8	일본	671,605	7.0
독일	241,318	4.6	UAE	530,868	5.5
이탈리아	217,717	4.1	싱가포르	457,933	4.8
중국	207,530	4.0	영국	322,220	3.4
UAE	151,992	2.9	미국	249,020	2.6
한국	32,900	0.63	한국	154,470	1.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3. 국가별 시장매력도 및 투자진출 현황

□ 글로벌경쟁력 평가결과(WEF Report)

글로벌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국가의 글로벌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
- 교육수준 및 숙련도, 부패정도, 인프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국가 랭킹을 발표함.
- 2015~2016년 보고서에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결과, 인도(55위), 파키스탄(126위), 방글라데시(107위), 스리랑카(68위)를 기록 (한국은 26위)
- 남아시아 공동협력체(SAARC) 회원국들 중에 50위 안에 들어간 국가는 없으며, 인도가 수위를 차지함.

<글로벌 경쟁력 순위 변화>

국가	'14년 ~ '15년	→	'15년 ~ '16년
인도	60위	→	55위
파키스탄	133위	→	126위
방글라데시	110위	→	107위
스리랑카	65위	→	68위

*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 Report

- 인도는 5년 전 순위와 비교하여 16단계가 상승함.
 - 이러한 상승은 모디정부의 친 기업, 반부패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정부의 거버넌스 순위가 10단계 상승(60위)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거시경제 측면(10단계 상승, 91위)에 있어서도 10%대의 물가상승률이 '14년 기준 6%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 또한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드는 추세임.
 - 인프라의 경우, 131위에서 81위로 급등하였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서남아 타국가의 경우, 작년대비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였음.
 - 하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10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며 '07년의 결과와 비교 시 파키스탄은 34단계가 떨어진 수치임.

□ (인도) 투자진출 여건

- (일반현황) 인도 산업진흥정책국(DIPP)에 따르면 '00~'15 기간동안 FDI 누계 유입액은 총 3,802억 달러에 이릅니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현황>

(단위 : 십억 달러, %)

구 분	'00~'01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계
금액	4.0	41.8	37.7	34.8	46.5	34.2	36.0	44.2	380.2
증감율	-	20	△10	△8	34	△26	5	23	-

* 자료원 : DIPP

- 모디 정부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혁, 부지수용 간소화,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노력
- 모디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FDI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전심사대상 한도액 상향조정 : 120억 루피 → 300억 루피

* 방산 및 보험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철도인프라 분야는 100% 허용

○ 권역별 투자여건 개요

권역	내용
동부	▷ 장기적인 공산당 집권과 지역민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 많음
서부	▷ 대부분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 추진
남부	▷ 주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지원정책 ▷ 남부권역은 인도 전체 공장수의 38.2%, 노동자수의 36.0% 차지하여 인도에서 가장 많은 공장과 노동자 보유 → 가장 많은 SEZ 보유
북부	▷ 파키스탄과 갈등 존재 및 정책실행가능성이 제일 낮은 지역

○ 한국기업 투자진출 현황

- '14년 말 신고기준, 총 49.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11년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누계
금액	538	288	343	199	650	443	384	341	4,964
건수	206	215	130	170	173	179	163	131	2,080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대부분으로, 독자진출은 소수임.
- * 제조업 분야는 전체 투자건수 기준 60% 이상, 금액기준 80% 이상을 차지
- * 전자, 상사, 화학,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였으며, 건설부분은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이 모두 진출해 있음.
- 지역별로는 델리(164개사), 첸나이(172개사)를 중심으로, 뭄바이/푸네, 벵갈루루에도 상당수가 진출

<지역별 진출기업 현황>

지 역	기업 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 인근	164	전기·전자 건설·중공업 자동차·기계 무역·물류 금융, 컨설팅 화학 기타	33 31 27 22 17 9 25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POSCO
첸 나 이	172	자동차 및 부품 건설 제과 전기전자 무역·물류 금융 기타	102 15 1 15 15 24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뭄바이, 푸네, 구자라트 인근	79	제조업 건설·중공업 운송·물류 도소매·유통 서비스	32 6 11 13 17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상선, 한진해운, STAR-CJ
벵갈루루	31	연구개발 제조업 도소매·유통 건설업, 기타	11 11 3 6	삼성, LG,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446			

* 자료원 : KOTRA ('15.2월 현재)

□ (기타 3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비교

국가	내용
파키스탄	▷ 인프라가 열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비용 발생에 따라 원가 상승 ▷ 로비가 공공연한 정부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시행 연기 사례 다수 ▷ 기타 서남아 지역에 비해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바이어 신용도 조회 어려움, 환율변동 리스크, 온라인 무역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 ▷ 반면, 수입통관절차, 비자취득, L/C 개설이 비교적 쉽고, 수입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방글라데시	▷ 최저임금이 68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의류생산, 수출이 용이한 국가로 평가 ▷ 고학력 인재 증가로 점진적인 임금인상 가능성이 높음
스리랑카	▷ 항만, 물류운송 관련 인프라 부족,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 (파키스탄) 투자진출 여건

-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에 이어 '13~'14년에도 17억 달러가 유입
- 하지만 만연한 치안불안,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는 상황임.

<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1/'12		'12/'13		'13/'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FDI	812.6	△48.3	1,456	79.1	1,698	16.6

* 자료원 : Board of Investment, State Bank of Pakistan

- '14년 말 기준, 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계액은 1억 3,800만 달러로, 파키스탄은 한국의 제76위 투자 대상국

<對파키스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1	8	4	31	20	33
2012	6	2	5	12	5
2013	14	1	35	10	11
2014	7	3	14	10	38
합계	35	10	85	52	87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투자

- * 제조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 인프라 관련 분야가 20.6%를 차지
- * 제조업 세목별로는 식료품업이 50.1%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가공제품(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순. 최근에는 건설업의 투자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음.
- * '11~'14년 기준, 파키스탄 투자의 95.9%가 대기업으로부터 집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8%에 그침.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여건

- '14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 8,625백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 영국, 호주 등 서구국가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
- 한국은 제3위 투자국으로 섬유, 의류분야의 최대 투자국가임.
- 영국, 호주 등은 에너지, 금융 분야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음.
- '15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방글라데시 누계 투자액은 2억 6,621만 달러임.

<對방글라데시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수(개)	투자금액(천 달러)
'80~'05	281	125	163,034
'06	14	11	1,068
'07	22	14	8,046
'08	26	11	3,864
'09	24	10	5,537
'10	47	12	44,731
'11	38	8	9,038
'12	36	13	13,149
'13	36	7	9,144
'14	35	1	5,942
'15.1~9	34	7	2,661
합계(누계)	593	219	266,214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통계상의 전체 진출법인 수는 238개이나, 폐업 및 신고 후 진출취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산됨.
-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투자가 절반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높음.
- * 제조업 투자비중이 66.4%에 달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분야의 비중은 56%에 이름. 여기에 기타섬유(모자 등)를 포함하면 78%에 달함.
- * 기타 업종으로 광업(15.5%), 금융 및 보험업(8.3%) 등이 있으며, 광업의 경우, GS칼텍스의 가스전 채굴권 투자('10년)에 의한 것임.

□ (스리랑카) 투자진출 여건

- 적극적인 FDI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목표금액 (20억 달러) 달성 실패
-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은 자유로운 편이나, 지나친 외환통제와 경직된 노동법, 열악한 부품산업기반, 높은 관세 등이 걸림돌임.
- 제1위 투자국은 중국이며, '15년 상반기의 경우 홍콩계 상그릴라 호텔 건설 자금 유입으로 순위 변동

<對스리랑카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순위	국가별	FDI
1	중국	239.935	1	중국	403.501	1	홍콩	145.879
2	말레이시아	176.197	2	영국	382.543	2	모리셔스	76.157
3	홍콩	139.141	3	미국	127.911	3	중국	60.119
4	네덜란드	118.240	4	싱가포르	102.531	4	네덜란드	48.015
5	싱가포르	111.665	5	네덜란드	98.595	5	버진아일랜드	35.940
6	UAE	111.320	6	모리셔스	98.082	6	인도	33.051
7	영국	70.229	7	홍콩	73.698	7	말레이시아	20.514
8	인도	50.524	8	인도	51.839	8	싱가포르	16.803

*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BOI)

* 주 : 한국은 각 32위, 30위, 28위를 기록.

- 한국의 투자진출은 '04년 150여개사 진출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임.
- '14년말 기준, 스리랑카에서 실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총 41개로 추산되며, 주요 업종은 의류 및 의류부품 임가공임.
- 섬유 의류(10개사), 생활용품(6개사), 건설시공(7개사), 유통업(6개사) 등

IV

시장진출전략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역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 1) 국가별, 권역별 구분을 통한 접근방식 필요, 2)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재수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 3) 정상외교를 활용한 투자진출 고려

1. 진출전략 개관

□ 진출환경 및 시장분석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진출 환경	○ (경제 환경) 전 세계 평균을 2배가량 상회하는 고도성장세 지속 예상. 세계적인 무역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10년간 4배 가까이 급증 - (미래시장) 17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토대로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예상 - (성장률, '15) (인도) 7.3%, (파키스탄) 4.2%, (방글라데시) 6.5%, (스리랑카) 6.5% - (서남아 교역규모) ('04) 2,417억 달러 → ('13) 9,426억 달러 ○ (산업구조) 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기존 1차,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 (인도)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제조업을 전방위 육성 - (기타 3국) 제조업 비중 확대 노력 및 FDI 유치 가속화 ○ (사회문화) '아대륙'으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인종의 복합사회로, 역동적인 사회문화 형성
시장 분석	○ (시장특성) 각국별 시장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 경제, 정치, 문화에 따라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 ○ (수출입 동향) 원료 및 부품의 수입, 가공을 통한 공산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무역구조 ○ (투자매력도) 인도는 지난 4년간 꾸준한 개선을 보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정체된 상황임. - (인도) 55위, (파키스탄) 126위, (방글라데시) 107위, (스리랑카) 68위

□ SWOT 분석

<서남아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진출 발판 마련 - 한-인도 CEPA('09) 체결, 정상외교('14~'15)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아 경제권 진출토대 마련 - RCEP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경제권 통합 및 교류강화 ○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가공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제조업 진출이 활발하며, 현지 인지도 또한 높은 편 - (인도) 삼성, LG 시장점유율 1,2위, 현대자동차 2위 - (방글라데시) 의류부분 투자진출 1위	<Opportunities> ○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남아-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Connectivity 구축 - (인도) 인도의 세계제조 공장화를 활용, 남아시아를 생산거점으로 하는 진출전략 모색 가능 -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 - (방글라데시)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른 벵골만 경제 활성화 ○ 인프라 개선, 도시화 개발 프로젝트 수요 多 - (인도)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5대 산업회랑 추진으로 인한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인프라 확충 - (파키스탄)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 적극추진 - (방글라데시) 정정안정으로 중단되었던 국가 프로젝트 재추진 시작
<Weaknesses> ○ 서남아 전체 투자진출 미미 - 대외 투자액의 1.5% 수준 - (인도) 13위, (스리랑카) 30위 ○ 대기업에 편중된 투자진출 - (인도) 대기업 85%, 중소기업 14% - (파키스탄) 대기업 95%, 중소기업 3% ○ 인프라 부재, 행정처리 비효율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Threats> ○ 일본, 중국기업의 대규모 공격적 투자 - 제조인프라 구축 활발 → 가격경쟁력에서 고가, 중저가 모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 발생 위기감 ○ 서남아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스펙트럼은 통일된 전략구사를 어렵게 함.
<시사점> ○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스펙트럼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구사 - 국가별, 권역별, 나아가 주별 구분에 근거한 접근 방식 필요 -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의 수립 필요 ○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서 검토 필요 - 인도정부의 'Made in India' 육성 정책을 비롯, 각국의 산업육성정책 및 산업단지 적극 활용 ○ 정상외교를 활용한 현지 투자진출 및 유망 프로젝트 발굴 - 한-인도 정상외교를 통한 현지 투자진출 적극 모색 - 다대한 인프라 수요에 대한 현지 프로젝트 발굴	

2. 세부 진출전략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 권역별 특성 연계 전략

- 서남아는 권역별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상이, 소비문화의 차이도 크므로 권역별 경제성장 속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 구사 필요

구분	단기	중장기
시장개척	1순위 인도 서부 -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मुंबई), 고아	3순위 인도 북부 - NCR, 하리아나(हरियाणा), 노이다, 찬디가르
	2순위 인도 남부 - 카르나타카(कर्नाटक), 타밀나두(தமிழ்நாடு)	4순위 인도 동부 - 서벵갈(서벵갈), 오리사(ଓଡ଼ିଶା), 아삼(অসম)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사례, 일본 Hitachi, 권역별 계열사 진출】

- 인도 델리에 첫 진출한 뒤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에 지점을 개소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 이후 계열사들을 각 권역의 거점 지역에 단계적으로 설립 확대
-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
- 모기업의 자회사가 먼저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서 시장환경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진입하고, 진출에 성공한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들의 진입을 지원하는 전략 구사
- 이는 인도의 권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진입비용이 높은 인도시장 진출에 따른 제반비용 절약 효과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내수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 성향 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파키스탄
	생산 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 민감 생산 환경에 민감	남부권역 (타밀나두, 카르카타카)	방글라데시
수출· 생산거점	생산 및 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 높음	남동부 항구도시 (첸나이 등)	방글라데시
		중동, 유럽 수출비중이 높음	서부 항구도시 (뭄바이 등)	

나 대기업·중소기업 전략 차별화

□ 기업규모별 진출확대 및 조기 안착 전략

기업규모	권역별 진출확대 전략
대기업	○ 권역별, 거점별 동시 확대 전략 ·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 · 서부지역 진출 적극 추진
중소기업	○ 점진적 확대전략(점·선·면 전략) · 우선진출 권역 선정, 권역 내 진출 확대 · 조기인착 후 차 순위 권역 선점 및 진출 · 경제특구(SEZ) 입주 적극 활용 ○ 인도 및 해외 기업과의 협력 · 해당 권역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

- (대기업) 현지 경험과 기업역량이 풍부하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에 우선 진입 후, 이를 기반으로 타 권역 진출확대 동시 추구
 - 조기 안착이 쉬운 대기업 업종 진출 후, 협력 및 지원업종 등 중소기업 진출
- (중소기업) 최우선 권역, 거점 주 및 도시에 우선 진출한 후 조기안착을 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권역 내 확대 도모
 -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 보완

【대기업·중소기업 차별화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첸나이 안착 후 관련 중소기업 진출 증가

- ▶ 제조업 및 수출 여건이 양호했던 첸나이에 현대자동차가 먼저 진출하고, 뒤이어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진출
- ▶ 현대자동차 안착 이후 이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 보험, 회계, 컨설팅, 요식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업종인 가전 및 제과 업종 등도 진출하여 안정적인 클러스터 형태 형성

- 한국의 S, H사 2개 중소기업, 스위스 I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수도계량기를 생산하는 S사와 입찰, 마케팅을 담당하는 스위스 I사의 협력으로 첸나이, 뉴델리, 방갈로르, 푸네 등 인도 주요 4개 도시 수도계량기 공급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납품업체 선정 성공
- ▶ 전력 플랜트를 생산하는 H사, 입찰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스위스 I사와의 협력으로 인도 발전소 프로젝트에 납품 예정
- ▶ S사와 H사, I사 모두 중소기업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성공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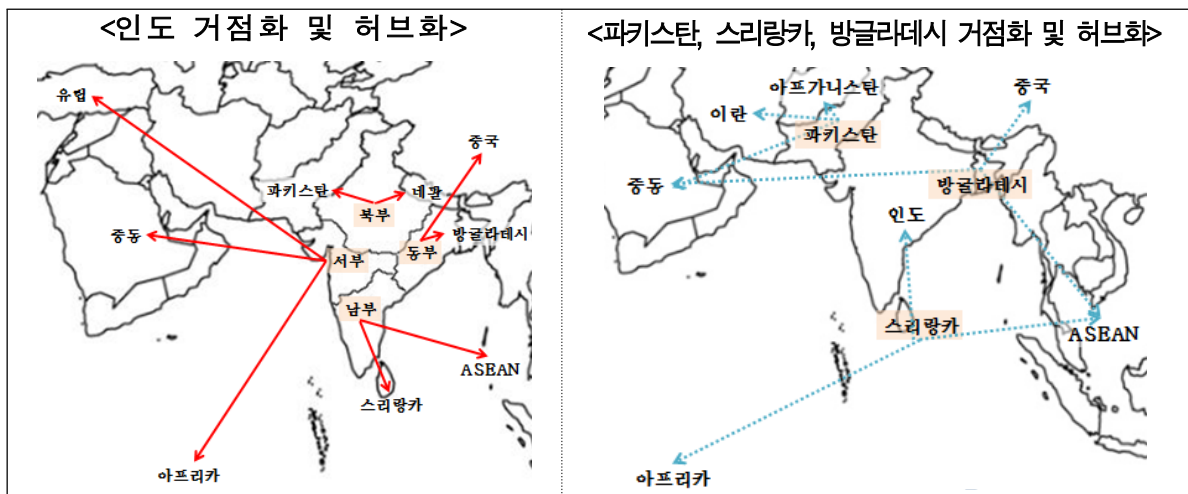
□ 인도

- 동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등을 겨냥한 거점화 진출 기지
- 서부 :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 유리
- 남부 :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진출
- 북부 : 육상교통 수단을 이용, 파키스탄 및 네팔 접근

□ 파키스탄 : 이란 또는 아프가니스탄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 가능

□ 방글라데시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계 가능, 이슬람교도들이 많아 중동 진출에 유리하면서도 이슬람교 성향 자체는 약해 한국 기업과 협력 유리

□ 스리랑카 : 인도와 인접해 있는 동시에 인도양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물류 흡수가 용이하며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항만도시와 연계 가능



【거점화·허브화 사례】

JCB, 인도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이용

- ▶ 스코틀랜드 중장비업체인 JCB는 인도 내 건설장비산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JCB'라는 브랜드 네임은 인도 건설장비업계 자체의 상징
- ▶ JCB는 인도를 글로벌 제품 서비스 전초기지로 삼아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글로벌 비용 우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대규모 엔지니어링 R&D 센터를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중

만도, Anand와 손잡고 인도를 넘어 세계로

- ▶ 자동차부품사인 만도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기업인 Anand와 협력, 74 대 26의 비율로 MIS의 신주발행 인수계약 체결
- ▶ 모터 구동 전자제어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MIS는 인도 내에서 108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만도와 Anand그룹은 1997년부터 합작사인 MIL을 운영하여 탄탄한 신뢰 관계 구축
- ▶ Anand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인도 시장 안착과 동시에 인도를 미국, 일본, 유럽 ABS 브레이크시장 진출의 생산기지화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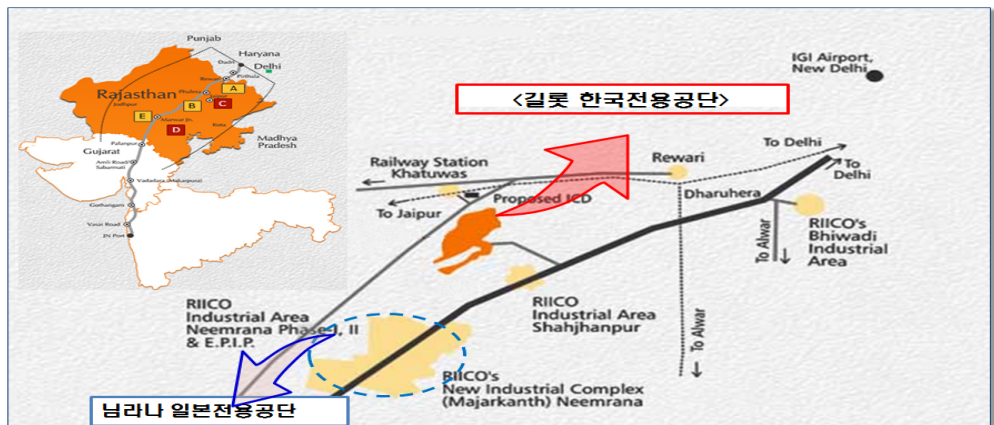
라 정상외교 활용 현지 투자진출

□ 모디총리 방한 후속조치 및 Make in India 정책 활용

- 모디총리 방한('15.5월) 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 인도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는 한국인 투자자 대상 지원기관인 'Korea Plus'를 설치할 예정
 - * Korea Plus는 Japan Plus('14년 말) 개소 이후 첫 특정국가 대상 투자지원 데스크
 - Invest India는 '16년부터 조직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Korea Plus를 중심으로 한국의 對인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 Make in India 정책 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 인도 정부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인도 29개 주와 3개 직할지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평가하는 등 각종 투자규제 개선을 독려하고 있음.
 - * (평가항목) 법인설립, 부지취득 및 인허가, 환경절차 준수, 노동 규제 준수, 인프라, 조세절차, 감사이행, 계약시행 8개
 - 한국인 전용공단이 위치한 라자스탄 길롯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강화됨.

□ 라자스탄 길롯 한국 산업 전용공단

- 한국 산업 전용공단은 뉴델리 서남단 120km 지점에 위치
 - 뉴델리-뭄바이 산업회랑에 걸쳐있으며, 델리광역전철, 고속도로(NH8)와 연결되어 주요 도시에 접근 용이
 - 자동차(혼다), 태양력(Birla), 건설(L&T) 등 주요 대기업이 위치한 공단과 인접



- '15년 3월부터 부지할당 진행 중
 - (조건) 한국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인 현지법인 중 KOTRA 추천기업
 - (규모) 263.11에이커 (약 30만평), (가격) 3,500루피(60달러)/m²

3. 분야별 진출전략

가 업종/산업별 우선진출 검토지역

□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른 우선진출 검토지역

제품 및 사업특성	우선진출 선정지역	선정 이유
제조업	인도남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 안정된 노사관계 * 인도 남부는 평균임금 807,802루피를 기록, 서부(934,203루피)에 비해 저렴 * 인도 동부, 북부 : 임금이 저렴하나 노사관계·정치 환경이 불안
	방글라데시	섬유 및 의류사업이 타국에 비해 발전
석유화학 산업	인도서부	구자라트의 칸들라 등을 중심으로 해당산업 발달
	파키스탄	해당산업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도 발달
영화산업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푸네, 뭄바이 ‘발리우드’ 중심 발달 * 발리우드, 연간 1,000여 편의 영화 제작 * '11년 순이익 30억 달러를 돌파, '16년 45억 달러로 증가 전망
IT, BT, BPO	인도남부	카르나타카의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IT 산업, 안드라프라데쉬의 하이데라바드를 중심으로 IT, BT 산업 발달
	스리랑카	IT 육성정책 확대와 적극적인 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영어구사 가능 인력 이용 가능
금융	인도서부	마하라쉬트라 뭄바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본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대부분이 위치, 뭄바이 증권거래소 소재지
석유/ 가스	파키스탄	석유·가스 매장량 상대적으로 풍부
채광/ 제련	인도동부	크로마이드,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며 제철소 등 관련 기업 대부분이 위치 * 오리사, 자르칸드는 철광석 및 석탄 등 원자재 확보 유리
관광	스리랑카	이국적인 바닷가, 우거진 녹음, 역사적 문화유물, 온난한 기후, 고지대의 장관, 다양한 생물자원 등 보유 * Lonely Planet 선정 “Best Country to Visit in 2013”

나

거점별 유망산업

국가/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인도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 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 전통적 강세 (바이오산업) 최근 집중 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 전통적 강세 (IT 산업) 최근 전략적 육성 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 자동차 및 IT, BT 회사의 대거 진출 및 주 정부 전략 육성 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 인구로 전통적 강세 (농업) 넓은 농토를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발달
파키스탄		(경제개발) 전력 및 통신, 금융기관 활성화, 도농간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 등 (보건 및 의료, 교육·인력 개발) 빈곤해결 위한 중점사업 개발전망
스리랑카		(사회 인프라 구축)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중 도로 및 상수도 부문은 개발 시급 (전자정보, IT 산업) 최근 적극적 육성 확대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발 공유,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한 협력
방글라데시		(경제 인프라 확충) 빈곤 감축, 교통 및 에너지, 정보통신 등이 중점 (농어촌 소득 증대) 식품가공기술 개발 및 수산업 분야 개발 활발

#첨부 : 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1부.

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1부. /끝/

첨부1 '16년도 KOTRA 서남아지역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동반진출 판로확대 사업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소재부품산업팀)
 - 한국의 유망 자동차부품사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 * 한-인도 Autoparts Plaza ('15.4분기 뉴델리, 뭄바이)
 - * 도요타 및 닛산 GP-Korea ('16.2분기 첸나이)
- 현지개최 전시회 한국관 참가 확대 (해외전시팀)
 - 인도국제박람회(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한국관 참가
 - * 매년 11월 개최하는 인도 최대 종합박람회로서 전시참가기업 7000개사
 -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16.2분기, 뭄바이)
- R&D 협력 플랫폼 구축
 - 국내기업이 인도 현지실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 한국연구재단, KIST 및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and Technology Alliance)와 협업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인도 대형 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수출첫걸음팀, 중소기업지원팀)
 - 인도 온라인유통 1위 업체 Flipkart 입주 지원
 - * 내수기업수출기업 지원 140개사 발굴 → 50개사 화상상담지원 ('15년말 완료)
 - * 내수기업 발굴, 인허가, 인증, 제품 통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업
 - * '16년, 상기 140개사 대상 벤더확보 주력
- 공공조달 협력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제조업 발달 미진으로 막대한 공공수요 대부분 국제입찰 의존
 - * 인도 벵갈루루 Waste to Energy 프로젝트, 민관협력(PPP) 대중소 동반진출모델로 진행
 - * 서남아 정부조달 진출 플라자 ('16.5 서울)
 - * 제3회 군/경 조달 시장 진출 로드쇼 ('16.10 다카)

- 원조사업 활용 엔지니어링 진출 지원

- * 방글라데시 세계 8위 원조수원국 부상,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지속
- * 아시아 엔지니어링 협력 플라자 ('16.5 서울)

○ 한류연계 문화상품 수출지원 (서비스산업팀)

- 주인도 한국문화원과 협업 한류행사연계 상담회 개최

- * (목적) 인도 북동부지역에 한정된 한류를 인도 중심으로 확산노력 및 한국 문화상품의 대인도 판로개척 지원
- * (내용) 한국문화원 주관 개최 연례행사에 뉴델리 무역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하여 문화행사 + 경험행사로 확대발전('16.4분기)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 개최 (홍보실, 마케팅지원팀)

- 차이나리스크 증대, 인도의 고성장으로 인도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 KOTRA-조선일보 인도포럼 및 상담회 ('16.1.14~15, 뉴델리)

- * (포럼) 조선일보 계획, 한국 사절단 150명 참가
- * (상담회) KOTRA 수행, 3개분야(수출,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14년 VIP방인, '15년 모디 총리 방한 상담회 후속사업 일환

○ 한국전용공단 구축 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해외투자지원단)

- 한국전용공단 업체유치 및 공단 조성 플랫폼 확산

- * 중장기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별 특화된 한국전용공단 조성 단계적 추진

- 한국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 풀 체계 가동

○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 서남아 연계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바이어 모집 (해외전시팀)

- * (배경) 인도 북동부, 미얀마, 태국, 중국 연결 산업회랑 개발 프로젝트 추진
- * (목적) 발전단계가 유사한 서남아 산업 연계공략, 시너지 효과 거양
- * (내용) 다카 섬유기계전, China-South Asia Expo (중국 쿤밍) 전시회 참가

□ 2016년 KOTRA 서남아지역본부 대표사업 리스트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도요타, 닛산 GP-Korea	2/4 첸나이
2		한-인도 오토파츠플라자	4/4 뉴델리 뭄바이
3		R&D 협력 플랫폼 구축	3/4 뉴델리
4		경기한국상품전 개최	2/4 뭄바이
5		인도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	4/4 뉴델리
6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서남아 의료기기 시장진출 포럼	2/4 서울
7		서남아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2/4 다카
8		파키스탄 화학염료협회 구매상담회	2/4 서울
9		인도 조선산업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3/4 뭄바이
10		제3회 군/경 조달 시장 진출 로드쇼	4/4 다카
11		한국문화원 한류행사 연계 상담회	4/4 뉴델리
12		인도 대형 온라인 유통망 진출지원	연중 벵갈루루
13		Waste to Energy 프로젝트 추진	연중 벵갈루루
14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 개최	1/4 뉴델리
15		한국전용공단 구축사업 등 투자진출 지원	연중 뉴델리
16		서남아 Connectivity 시범사업 추진	2/4 뉴델리
17		서남아 비관세장벽, 인증 기획보고서	3/4 뉴델리

첨부2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인도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54140	수입관세율(%)	17.390%
LED	수입액('14/US\$백만)	837	대한수입액('14/US\$백만)	20
	선정사유	인도 전력부는 인도내 가로등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하는 계획 발표('15.8.27) "Make in India" 정책은 전력 효율화를 위해 LED,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분야에 호의적		
	시장동향	인도 LED 제조협회(LEDMA)에 의하면, 인도내 LED 조명의 50%는 정부조달로 공급됨. 따라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		
	경쟁동향	Wipro, Bajaj, Surya 등과 같은 인도기업과 Philips, Osram, GE 등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임.		
	진출방안	심화되는 경쟁에 대비 사업성에 대한 다각도 검토필요		
품목명 2	HS Code	481014~481099	수입관세율(%)	14.121%
지와판지	수입액('14/US\$백만)	538	대한수입액('14/US\$백만)	50
	선정사유	인도정부의 식자율 증대정책과 "Make in India"에 따른 제조업 활성화, 컨슈머리즘의 확대로 제지수요 지속 확대		
	시장동향	'14년 기준, 인도내 제지생산능력은 1,138만톤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1,310만톤에 이름. 제지수요는 '20년 2,0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인도내 생산자들의 비효율적인 원료조달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상황임.		
	진출방안	CEPA협정으로 인한 관세특혜를 최대한 이용 * 한국은 해당품목에 기본관세율 10%가 아닌 협정세율 3.13% 적용받고 있음.		
품목명 3	HS Code	283640	수입관세율(%)	21.373%
탄산칼륨	수입액('14/US\$백만)	29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선정사유	인도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탄산칼륨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 (연 7%)		
	시장동향	인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사가 총생산량의 70% 차지. 이외, 한국, 러시아, 태국, 미국, 유럽국가 순으로 수입량이 많음.		
	경쟁동향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근('15.8월) 인상되면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임.		
	진출방안	유럽 및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인도정부의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부여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품목명 4	HS Code	842121	수입 관세율(%)	18.421%
정수기	수입액('14/US\$백만)	86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선정사유	인도내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수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13년 이래 연 25% 성장)		
	시장동향	고가 정수기 시장은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저가 정수기 시장은 중국과 대만기업들이 저가정책을 펼치고 있음.		
	경쟁동향	정수기 필터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며, 중국산 카피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음. 정수기 부품의 하나인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요는 많으나 시장가격은 낮게 형성		
	진출방안	'15.8월에 개최된 인도 물 산업전 당시, 7개 기업 148개 기업이 참가할 정도로 인도 수처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 및 관심 필요		
품목명 5	HS Code	848060	수입 관세율(%)	25.937%
성형용 주형	수입액('14/US\$백만)	76	대한수입액('14/US\$백만)	22
	선정사유	인도 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20년까지 100개)에 따라 건축용 주형에 대한 산업수요 확대		
	시장동향	인도 전체의 수입량은 14,000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말레이시아산이 60%, 한국산이 25% 정도로 추산됨.		
	경쟁동향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주요한 수입처임		
	진출방안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은 약하지만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있었음. 인도 건축분야 바이어들의 성향상, 신뢰도가 높은 주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에 경쟁사 대비 품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파키스탄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630900	수입관세율(%)	5
중고의류	수입액('14/US\$백만)	126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은 아직까지 1인당 GDP가 1,500달러에 머물고 있어 중고의류에 대한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중고의류 수입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동기(1억 100만 달러) 대비 24.9% 증가		
	경쟁동향	특히 현지에는 중고의류를 수입, 세척하여 인근 아프가니스탄 및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성업 중		
	진출방안	파키스탄에는 단순 소매상보다 재수출 업자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겨냥하여 접촉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HS Code	321511	수입관세율(%)	15
검정 잉크 (Printing Ink Black)	수입액('14/US\$백만)	3.5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파키스탄의 경우 대부분의 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출판 수요가 꾸준히 발생		
	시장동향	20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검정 잉크 수입규모는 352만 달러로 전년동기(284만 달러) 대비 23.9% 증가		
	경쟁동향	파키스탄 검정 잉크 시장은 주로 EU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품질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진출방안	진출 초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쇄업체를 중점적으로 접촉하여 수요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품목명 3	HS Code	721049	수입관세율(%)	20
아연도금 강판	수입액('14/US\$백만)	91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건설용, 가전제품용 제품 수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냉장고, 세탁기, 믹서 등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힘.		
	시장동향	'14/'15 회계연도('14.7~'15.6) 파키스탄의 아연도금 강판 수입규모는 9,060만 달러로 전년동기(5,460만 달러) 대비 약 66% 증가		
	경쟁동향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메트릭톤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어 가격책정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진출방안	현지에서 건축용 자재로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스리랑카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322	수입관세율(%)	통관세:25% VAT:11% PAL:5% NBT:2% Cess 80% to 150%
자동차	수입액('14/US\$백만)	435.316	대한수입액('14/US\$백만)	23
	선정사유	최근 수입세 시스템의 변경으로 일본차 가격이 증가함(Rs 600,000에서 Rs 1천7백만 증가)		
	시장동향	1500CC 차량이 지난해 129% 수입 증가		
	경쟁동향	일본 97%, 인도 1.51%		
	진출방안	자동차 전시회와 미디어		
품목명 2	HS Code	600690	수입관세율(%)	Rs150(키로당)
편직물	수입액('14/US\$백만)	286.095	대한수입액('14/US\$백만)	16.198
	선정사유	GSP 공여재개로 인해 대 EU와 USA의 직물, 의류제품 수출증가 예상		
	시장동향	직물수요는 '14년 대비 거의 20% 가파른 성장세. '15 상반기 동안 26% 이상 증가		
	경쟁동향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중국30%, 타이완 28%, 홍콩 17%, 인도 8%		
	진출방안	해외유명브랜드 제품의 스리랑카 생산기지 활용, 관련제품 전시회 적극 활용요망.		
품목명 3	HS Code	3901110	수입관세율(%)	통관세:Free VAT:11% PAL:5% NBT:2%
폴리에틸렌	수입액('14/US\$백만)	85.535	대한수입액('14/US\$백만)	0.161
	선정사유	스리랑카의 플라스틱제품 수출 증가추세		
	시장동향	산업 작년 대비 30% 증가		
	경쟁동향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가 총수요의 75% 차지 사우디만으로는 39% 차지		
	진출방안	스리랑카 내 전시회를 통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접촉 가능, 비닐백 제조업체 접촉 필요		
품목명 4	HS Code	551219	수입관세율(%)	Cess Rs100 Per Kg
합성직물	수입액('14/US\$백만)	137.397	대한수입액('14/US\$백만)	21.149
	선정사유	對EU와 USA 수출시장 급성장 예상에 따라 직물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13대비 '14년 직물수요는 28% 증가. '15년 상반기 27% 성장, 72백만 달러 달성		
	경쟁동향	시장점유율 중국 57%, 인도와 한국은 13%		
	진출방안	직물, 편물품 전시회가 스리랑카에서 개최함.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진출전략

kotra
중동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17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417
2. 신산업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418
3. 이란 시장 개방	420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 성장 기대 ..	421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422
II. 진출환경 분석	42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424
2. 경제 환경	428
3. 산업 환경	430
4. 정책·규제 환경	432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434
III. 시장 분석	436
1. 수출	436
2. 투자진출	443
3. 프로젝트	447
IV. 시장진출전략	450
1. 진출전략 개관	450
2. 세부 진출전략	452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465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6년 중동지역은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각 국의 非석유부분 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
- 이란 시장의 개방이 '16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음

1.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16년에도 지속될 전망

- '14년 평균 원유 가격 배럴당 96.2달러, '15년 10월 현재 56.2달러에 불과
 - 원유가격이 약 50% 정도 급락하면서 내수경기 침체 및 정부 정책에도 변화
 - '16년에도 배럴당 60달러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기관별 예상치(Brent Oil) : HSBC 60달러, Barclays 63달러, Goldman Sachs 49.5달러, EIA 58.57달러 → 평균치 57.77달러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화

<GCC 국가별 석유의 국가재정 차지 비중>

(단위 : %)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80	90	88	85	80

* 자료원 : 각국 무역관 조사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

□ 저유가로 인한 각 국의 정책 변화

- (UAE) 세수 충당을 위한 연방법인세, 부가가치세(VAT) 도입 추진
 - '16년 실행이 예상되며, 각종 공공 수수료(사업자등록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자동차 통행료 등) 인상에 대한 논의 가속화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원유 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정책 본격화
 -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및 건물의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 '16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기준 시행 예정('14년 연비 관련 규정 수립)
- (쿠웨이트) 전기·수도·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 삭감 검토
 -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가치세(VAT) 도입 또한 검토
- (알제리) 수입규모 큰 품목(자동차, 식품,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 허가제 실시, 보조금 축소 등
 - 자동차의 경우 연간 40만대로 수입상한쿼터 지정 가능
 - 또한 현지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약 25개 품목)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억제 조치
 -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관세 조정, 보조금 축소, 일부 품목 부가세 조정 등 단행
 - 최우선 민생 관련 프로젝트(주택, 의료, 전력) 등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 (공통) 정부 재정 감소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취소·연기 및 주요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형태(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 추진
 - (UAE) 기존 수·전력 분야에서만 동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교육·주택 등 타 분야로도 확대 예상
 - (쿠웨이트) 발전소, 메트로, 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민간 협력 추진
 - (오만) 향후 신규 프로젝트는 PPP형태로 추진 가능성 높음
 - (이라크) 기존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프로젝트로 전환, 민간기업 시설투자 관련 용자 혜택·민간 위탁 등 민간부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추진 등

2. 신산업 분야 등 산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 저유가로 인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다각화 노력은 지속 전망

- 대다수 중동 국가들은 국가 재정, 외환보유고 등 거시경제 타격으로 주요 산유국 긴축재정 실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연기
-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비석유부분 개발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각 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노력 및 계획

○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

- 1)석유화학 수직적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추진 2)비교우위분야 산업다각화 강화
3)수입대체 및 민간부문 전략적 육성 4)신성장 산업 투자확대

○ (UAE) ICT Strategy 2021, Smart City Strategy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의료, 신재생에너지, IT, 교육, 안보 등에 투자

- '16년 연방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부분에 배정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다변화 정책 시행 중

- 사회 인프라 확충, 기간산업 육성, 금융·의료·관광산업 육성, IT산업 육성,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Isuzu Motors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Jaguar Land Rover는 현지 생산공장 건립 프로젝트 추진 중

* 수송기계 수입현황(사우디리알 기준) : 88,104백만SR(2011) → 114,938백만SR(2012) → 119,248백만SR(2013)

○ (쿠웨이트) 산업단지 건설, 도로·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제조업 육성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법률 제정 추진 및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펀드 조성(70억 달러 규모)
- 플랜트 기자재, 수전력 기자재, 태양광, 의료용품 등에 대한 수요 다대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수출의 98%, 재정의 75% 비중 차지,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다각화 노력

-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내국인(51%) 대 외국인(49%) 지분비율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 시행

□ 장기적 관점의 현지 진출 고려 필요

○ 국가별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

- 이란, 오만, 카타르, 알제리, 이집트 등 자국 생산제품 구매비중 확대 정책
- 모로코의 경우 현지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단순수출보다는 합작투자 등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 또는 생산·조립 설비(CKD 또는 SKD 형태*) 투자 필요

* CKD : Complete Knock Down,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

* SKD : Semi Knock Down, 일부 조립 후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

3. 이란 시장 개방

□ '15년 핵협상 논의에 큰 진전, '16년 상반기 중 경제제재 해제 예상

- 인구 약 8천만의 내수시장인 동시에 세계 4위의 원유 및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한 거대시장의 개방
- 제재 해제 후 교통, 수자원 등 인프라 및 자원,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 다대
 -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설비 및 기본 인프라 낙후, 항만·철도·도로·병원 등에 대한 중점 추진
 - South Pars 가스전, 석유화학 플랜트 등 자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예정
- * 중동 3위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발주국(사우디아라비아-1위, UAE-2위)
- 프로젝트 발주형태는 대부분 'EPC+Finance'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원, 이란진출 희망 외국기업과의 매칭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해결 필요

□ 한국상품 선호도가 있는 수입의존도 높은 시장,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경제제재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현지 시장 활동으로 인한 신뢰감 형성
- 현재 가전시장의 80% 국내브랜드(삼성, LG 등) 점유
 - 경제제재로 인한 서방기업의 철수 후 대체품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해운, 자동차 및 부품, 의료, IT 유망
-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과의 경쟁 예상
 - 독일 벤츠社, 프랑스 푸조社 등 현지 생산계약 협의 중

□ 수년간의 경제제재로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제도적 불투명성 상존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상존

- 이란은 국내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및 고관세 정책 유지
- 현재 제도 및 법규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진출 시 대금지급, 조세,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

* 제재 복원(Snapback) 리스크 : 이란이 합의사항 미이행 시 경제제재 복원 가능

○ 이란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 모니터링 및 현지 시장 정보 수집 필요

- 이란 바이어 특성 및 상관행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합의사항 준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서 명기 필수

4. 새로운 수출먹거리 분야(할랄, 의료, 소비재 유통망)의 성장 기대

□ (할랄시장) 이슬람 시장의 필수 요건인 할랄시장 적극 진출

○ 별도의 '할랄인증'을 거친 제품만 할랄제품으로 판매 가능

- 중동의 전반적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해당되는 할랄시장의 중요성 대두
- 국가별 인증제도, 기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별 타겟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의료)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 (카타르) 인구 급증,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통한 의료관련 수요 다대

○ (오만) 지난 4년간 약 1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병실 부족,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 (요르단) 급격히 늘어난 시리아 난민 등으로 인해 의료 관련 수요 증가

- 2015.11.2. 현재 공식 난민 수 630,776명(UNHCR 발표), 비공식 150-160만명 추산(Jordan Times, 2015.11.15.)

□ (소비재 유통망) 대형 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진행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의 현대화 진행

- (터키) 약 8천만 인구의 67%가 15-67세의 청장년 연령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수 급성장 중
 - * 국내 대기업(11번가)과 합자한 온라인 플랫폼 n11(네 온비르) 현지 매출액 1위
- (이스라엘) IT 산업 활성화된 시장으로 독과점 등에 의한 고비용 시장구조 타파를 위한 해외 온라인 직구 활성화
 - 생필품 가격 세계3위로 유럽 평균 가격보다도 25-30% 대비 고물가
 - 상당수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 구입을 위해 해외 사이트 이용
 - * 품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산 제품 구매
 -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비재 수출 마케팅 가능성 타진 필요

5. 중소·저개발국의 꾸준한 소폭 성장세 구현

□ 중동경제의 전통적 강대국 외 중소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노력

- (카타르) 최근 3년간 GDP 및 국가재정 상승세
 - 천연가스는 카타르 주요 수출 자원으로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음
 - 에너지산업에 의존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의료 등 지속적인 투자
 -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라 토목, 건축, 발전 프로젝트 지속 유지 전망
 - * 카타르 GDP(십억달러) : 183.4(2012년) → 202.6(2013년) → 210(2014년) (자료원 : WEF 2015)
- (모로코) GDP 성장과 더불어 재정수지도 개선 중
 -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자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Le Emergency Plan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시행(당초 2009-2015년 대상으로 추진, 현재 2014-2020년까지 프로젝트 연장)
 - 정서적으로 유럽(프랑스)에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FTA 체결, 아프리카의 교두보 역할 노력
 -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섬유, 농식품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
 - * 모로코 GDP(십억달러) : 97.5(2012년) → 105.1(2013년) → 109.2(2014년) (자료원 : WEF 2015)
- (알제리)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통한 제조업 육성책 시행, 꾸준히 성장 중
 -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코자 합작투자자와 기술이전에 총력
 - * 제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 유럽, 중국, 터키로부터 수입

* 알제리 GDP(십억달러) : 207.8(2012년) → 214.1(2014년) / 1인당 GDP(달러) : 5,438(2013년)
→ 5,532(2014년) (자료원 : WEF 2015)

□ 해당 국가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 확보 필요

- 중소기업의 장점인 융통성있는 진출전략 활용, 틈새시장 진출
 - 중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등을 공략
 - 모로코, 이집트의 경우 시장이 상류층과 빈곤층(인구의 50% 이상)으로 양극화되어있는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품목 및 마케팅 전략 필요

2016년 주요 일정

- 이란 국회의원 총선 및 전문가의회 선거('16.2.26)
- 이란 한국상품전 개최('16년 2분기)
- UAE 신규 PPP법 본격시행('16년) 및 VAT·법인세 도입('16년 하반기)
- UAE 신노동법 시행('16.1.1)
- 16차 GCC 공동무역전시회 ('16.10, 사우디아라비아)
- ICCO(국제커뮤니케이션 자문기구) 세계정상회담('16.10, 터키)
- 제 29회 세계 LPG(액화석유가스) 포럼('16.9.27-29, 터키)
- MENA 철도시설관리·운영준비 정상회의('16.1.23-26, 카타르)

II

진출환경 분석

- 저유가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프로젝트 시장으로 풍부한 자본력 및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탈석유화 및 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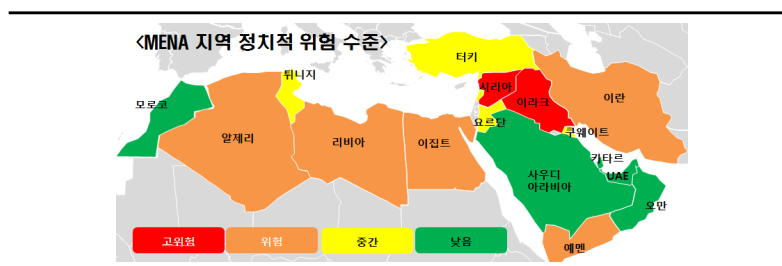
□ 시장규모, 경제통합,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특징	< 권역 구분도 >
GCC (6개국)	- 인구 5,200만명, GDP 1조7,000억달러 (1인당 41,454달러) - 걸프 산유국 연합 (전세계 석유 40%, 가스 23% 매장) 1조 8천억 달러 규모 국부펀드 운용 (전세계 35%)	
레반트 (4개국)	- 인구 6,200만명, GDP 3,000억달러 (1인당 5,374달러) - 이라크 제외 자원보유 빈약 - 최근 정치불안 가중, 안정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상	
마그레브 (4개국)	- 인구 9,100만명, GDP 4,700억달러 (1인당 6,045달러) - 자원은 풍부하나(알제리, 리비아), 전반적으로 낙후 - 적극적 시장개방 정책 (외자유치 및 민영화)	
3대 국가 시장	- 인구 2억4,900만명, GDP 1조4,000억달러 (1인당 6,099달러) - 제조업 발달 및 대형 내수시장 등 성장 잠재력 보유 - 터키(FTA), 이란(핵협상타결), 이집트(안정) 등 시장기회 다대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5.10), EIU

□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장 큰 지역성장의 걸림돌

- 시리아 내전, 이라크 ISIL사태가 가장 큰 이슈
 - 예멘 내전 및 정정불안, 이집트 시나이반도 테러단체 또한 위협 요소
 - 리비아 내 이슬람계 민병대 vs 비이슬람계 민병대 vs 정부군 대립 장기화 및 리비아 IS세력 대두, 우파정권의 강경노선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심화



* 자료원 : Control Risks, Risk Map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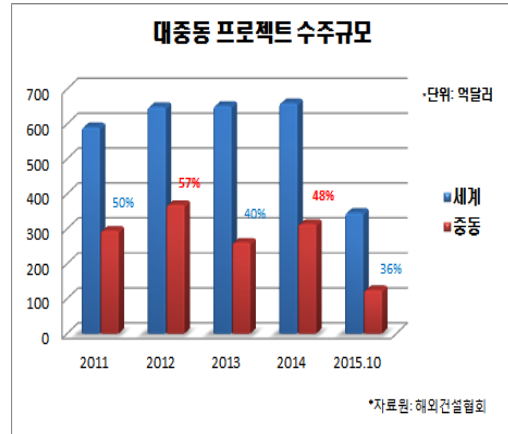
□ 최대 프로젝트 수주시장

- '14년 아국 건설 플랜트 수주액(660억달러)의 48%(314억달러) 점유
- '15년 10월 기준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 : 125억달러(36%)
- GCC 지역 국가가 발주 규모의 약 68% 차지

<2015년 중동지역 주요국별 수주규모>

국가명	계약건수	계약금액(천달러)
쿠웨이트	5	4,859,071
사우디아라비아	9	3,158,183
이라크	7	2,713,975
기타	6	1,078,929
UAE	6	346,700
알제리	10	269,404
이집트	1	44,718
카타르	3	38,611
리비아	1	2,124
오만	1	763
합계	49	12,512,478

*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15.10.14 기준)



<주요국 프로젝트 규모 및 발주금액>

국가명	프로젝트규모 (진행및계획, 백만달러)	발주금액 (백만달러)	전체 프로젝트 중 비중(%)	
			규모	발주금액
사우디	1,229,016	23,370	36	28
UAE	826,178	8,269	24	10
이라크	375,012	2,305	11	3
카타르	287,641	5,829	8	7
이란	243,632	556	7	1

* 자료원 : MEED ('15.8), 걸프지역 총계=GCC+이란+이라크

-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 활발히 전개
 - (GCC) 오일/가스, 발전, 주택, 학교, 병원 프로젝트
 -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 (UAE, 카타르) 두바이엑스포(2020), 도하월드컵(2022)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 특히 IT와 접목된 교통 인프라(철도, 항만, 공항) 프로젝트 다수 발주
- 1970년대 건설된 노후설비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요 발생

□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

- '15년 9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84%(360억달러), 천연가스 59%(84억달러) 점유
-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

<중동지역 원유매장량 추이>

(단위 : 십억배럴)

국 가	1994년	2004년	2014년	전세계 매장량내 비중 (%)
사우디아라비아	261.4	264.3	267.0	15.7
이란	94.3	132.7	157.8	9.3
이라크	100.0	115.0	150.0	8.8
쿠웨이트	96.5	101.5	101.5	6.0
아랍에미리트	98.1	97.8	97.8	5.8
카타르	3.5	26.9	25.7	1.5
오만	5.1	5.6	5.2	0.3
예멘	2.0	3.0	3.0	0.2
시리아	2.7	3.2	2.5	0.1

* 자료원 : BP Energy Statistical Review 2015

□ 활발한 투자시장이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자본력 보유

<중동지역 국부펀드 현황>

(단위 : 십억달러)

국가	기관	자산규모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621.2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111.0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22.0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66.3
	Investment Corp. of Dubai	183.0
	Mubadala Development Co. PJSC	66.3
사우디아라비아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NEW)	448.0
	Sanabil Investments (NEW)	7.7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Investment Portfolio	235.0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92.0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334.0
오만	Oman Investment Fund	17.2
	State General Reserve Fund of the Sultanate of Oman	34.4
바레인	Bahrain Mumtalakat Holding Company	11.1
	Future Generations Reserve Fund (NEW)	0.4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67.0

* 자료원 : Sovereign Wealth Center 2015

- 최근 세계경기침체 속 안정적 성장 및 큰 규모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유동성을 지닌 국부펀드의 중요성 대두
- Sovereign Wealth Funds 2015에 따르면 전세계 국부펀드의 규모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수에도 꾸준한 성장률 시현
 - * 2014년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5년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4% 성장률 전망
- 세계 국부펀드의 60%는 석유수출국 소유이며, 저유가가 장기 지속 될 경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이탈 가능

□ 젊은 국가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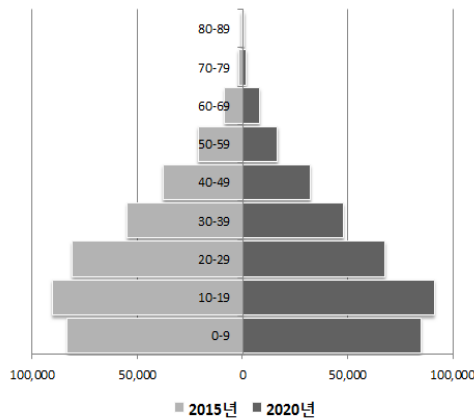
<2015년 중동 연령대별 인구 비율>

연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비율	24.3%	26.1%	19.4%	13.7%	9.2%	4.7%	2.2%	0.4%

* 자료원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Database

<중동지역 인구 통계>

(단위 : 천명)



* 자료원 : World Bank

- 지속적인 인구·소득증가 및 차세대 소비계층인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장년층이 과반을 차지하여 안정적 소비시장 형성
 - 2015년 GCC의 15-64세 인구비중은 74.2% 전망으로 미국(65.9%), 전세계 평균(65.8%) 보다 높음
- 이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및 터키는 많은 인구수 및 낮은 평균연령을 바탕으로 풍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

<관할국가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단위 : 백만명)

권역	국가	0~19	20~39	40~59	60이상	합계
GCC (6개국)	사우디	11.5	11.0	7.4	1.6	31.5
	UAE	1.7	4.7	2.6	0.2	9.2
	카타르	0.5	1.3	0.5	0.1	2.2
	쿠웨이트	1.1	1.8	0.9	0.1	3.9
	오만	1.2	2.3	0.8	0.2	4.5
	바레인	0.4	0.6	0.3	0.1	1.4
	합계	16.3	21.7	12.5	2.3	52.7
레반트	요르단	3.5	2.5	1.3	0.4	7.6

(4개국)	이라크	18.7	10.9	5.0	1.8	36.4
	시리아	9.0	5.4	2.9	1.2	18.5
	레바논	2.0	2.0	1.2	0.7	5.9
	합계	33.2	20.8	10.4	4.1	68.4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12.3	11.3	7.5	3.3	34.4
	알제리	14.3	14.0	7.8	3.6	39.7
	튀니지	3.5	3.8	2.7	1.3	11.3
	리비아	2.4	2.1	1.4	0.4	6.3
	합계	32.5	31.2	19.4	8.6	91.7
3대 국가 시장	이란	24.2	32.0	16.4	6.5	79.1
	이집트	38.2	29.8	16.3	7.2	91.5
	터키	26.9	25.2	17.8	8.8	78.7
기타	이스라엘	2.9	2.3	1.7	1.3	8.1
	예멘	13.8	8.7	3.1	1.3	26.8
	말리	10.2	4.7	1.9	0.7	17.6
	모리타니	2.1	1.2	0.6	0.2	4.1

* 자료원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Database

2. 경제 환경

□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 : 소폭 감소

<주요 경제권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경제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3.1	3.6	3.8	3.9	4.0	4.0
유럽연합	1.9	1.9	2.0	1.9	1.9	1.9
G7	1.9	2.2	2.1	2.1	1.9	1.7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2.3	4.5	4.9	5.1	5.2	5.3
MENA	4	3.8	4.1	4.1	4.3	4.3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5.10.)

-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침체중인 상태
- '15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긴 하였으나 '16년내 극복할 것으로 기대

<관할지역 국별 주요 거시경제지표>

권역	국가	GDP성장률(%)	GDP(십억달러)	1인당 GDP(달러)	물가상승율(%)
GCC (6개국)	사우디	4.5	805	25,778	3.2
	UAE	3.0	339	35,400	3.7
	카타르	7.7	227	93,535	3.5
	쿠웨이트	1.8	181	44,032	3.5
	오만	3.4	82	21,272	2.8
	바레인	2.9	35	28,707	2.4
레반트	요르단	4.0	39	5,745	2.6

(4개국)	이라크	1.5	240	6,491	6.2
	시리아	-4.8	29	3,887	33.6
	레바논	2.5	51	11,159	4.0
마그레브 (4개국)	모로코	4.7	122	3,638	2.0
	알제리	4.0	239	6,041	4.0
	튀니지	3.7	50	4,503	5.0
	리비아	15.0	63	9,998	6.3
3대 국가 시장	이란	2.2	417	5,284	20.0
	이집트	3.5	324	3,724	13.5
	터키	3.0	722	9,290	7.4
기타	이스라엘	2.5	299	35,702	-0.1
	예멘	4.6	51	1,802	11.4
	말리	5.0	11	672	2.4
	모리타니	4.1	5	1,262	3.6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5.10.), EIU

- GCC 국가 중 카타르는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가 가장 높음
 - GCC 국가의 1인당 평균 GDP는 4만달러로 타지역 평균 대비 2배 이상
 - 1인당 GDP의 경우, 카타르-쿠웨이트-이스라엘-UAE-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 및 낮은 인구수 영향
 - 튀니지, 예멘은 협소한 경제규모로, 이집트는 높은 인구수로 1인당 GDP가 주변국보다 낮게 형성

□ '16년 상반기까지 저유가 기조 지속 예상

- 주요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 * GCC국가 석유부분 성장(IMF, '15.10.) : ('15) 3.25% → ('16) 2.75%
 - '14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유가는 산유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야기
 - 원유수입국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역내 정정불안과 군사갈등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업에 어려움
 - 세계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효율성이 개선중이며 석유생산확대 계획,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원유시장의 재진입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관련기관들이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세계 유가전망>

(단위 : 달러/배럴)

구 분	Dubai	Brent	WTI
2013	105.47	108.66	97.99
2014	97.07	98.95	93.28
2015.10.13	49.61	49.86	47.1
2016 상반기	51.62*	58.57	53.57

* 자료원 : BP, EIA, *값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치

<중동 주요 산유국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수준>

(단위 : 달러/배럴)

국가	균형유가	
	2014	2015
리비아	317	184
예멘	160	145
알제리	132	131
이란	131	131
바레인	125	127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오만	99	103
이라크	111	101
UAE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브렌트유 기준

3. 산업 환경

<한눈에 보는 주요국 특징산업>

국가	GDP 비중 기준 특징산업
사우디아라비아	-공업(57%): 채굴(70%), 제조업(19%) -서비스업(41%): 정부서비스(44%), 금융보험(28%), 무역(26%)
아랍에미리트	-건설(17%), 무역(12%): 도매(67%), 소매(33%)
카타르	-원유/가스(52%), 금융/보험/부동산(13%), 제조(10%), 서비스(9%)
오만	-석유산업(47%): 원유(93%), 천연가스(7%) -서비스업(35%): 공공관리/방위(24%) 도매/소매(18%)
요르단	-건설(22%), 무역(19%), 공업(14%)
이집트	-제조업(17%): 기타 제조업(93%), 석유정제(7%) -농업/목업/수산(16%)
이란	-서비스업(52%): 무역/요식/호텔(28%), 부동산(27%) -공업/광업(24%): 제조(50%), 건설(40%)
터키	-제조업(15.8%), 수송/보관(12%), 무역(12%), 전문과학/기술(3.4%)

* 자료원 : 각국 통계청 및 중앙은행 보유 최신자료

□ 석유·가스산업

- 중동 각국의 정유능력 확대 및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설 노력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정유 프로젝트 투자 참여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화학프로젝트 건설중으로 향후 상업생산에 착수하면 석유화학산업 위상 제고 가능
- (알제리) 석유가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98%를 차지하며 관련 산업의 꾸준한 개발을 위해 노력 중

* 원유매장량 세계 14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8위,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3위

□ 건설업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GCC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 국가 이벤트 관련 프로젝트(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최소한의 민생 프로젝트는 꾸준히 발주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현지기업의 수주 급증
- 건설 분야 프로젝트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추진하는 국가(UAE, 쿠웨이트, 오만 등) 증가세,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조업

- (GCC)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非석유부문 산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 노력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제조하고 있으나, 이외에는 완제품 가공이나 포장하는 형태가 대부분
 - 최근에는 화학, 자동차, 시멘트, 기계, 식품공업 분야 급성장 중
- (3대 국가 시장) 이집트, 이란, 터키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섬유 및 의류, 식품, 철강, 제약, 건축자재 등
- (이스라엘) 제조업 기술 및 생산성 낮아 한국산 진출 가능성 존재

□ 에너지

- 인구 증가 및 제조업 육성에 따른 전력소비 상승으로 수전력 에너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증가 기대
 - 노후화된 시설의 폐쇄, 업그레이드, 개보수 등의 수요도 다대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한 복합발전(Combined Cycle)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
 - (모로코) 전력공급 부족으로 스페인 등으로부터 수요전력의 10-20%를 수입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비중을 42%까지 확대 계획

4. 정책 · 규제 환경

□ 자국산업 육성정책

- 중동 각국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쿠웨이트) 중소기업 육성법 신규 제정,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 민간부문 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공통) 로컬 자재 구매 확대, 기업 설립 승인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개선, 외국산 제품 벤더등록 관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는 중

□ 국별 정책/규제관련 특이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6년부터 농산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환경규제 강화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절차를 재개정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를 통해 확인 가능
- (UAE) ESMA(표준측량청) 수입제품인증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 규제 움직임 활성화
 -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및 할랄 규제 등 신규 제정 및 강화
 -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인증과 관련 역내 선두적 위치에 있어 GSO(걸프 표준화기구) 및 타 GCC 국가가 UAE의 제도도입사례 및 규제기준을 벤치마킹할 가능성 높음
- (이란)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 국내생산 가능한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 중
 -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강화, 제도의 불투명성, 및 관련 법규 미완비로 진출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 애로 예상
- (이스라엘) 식품 수입 규제 완화법(콘플레이크법) 승인
 - 건조식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 규모 500달러 이하의 경우 무관세

- (모로코) 모로코는 EU, 터키,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과 FTA를 체결, 무관세로 완성차 수출 가능
 - 한편, 과도한 통관절차 및 과중한 비용, 일관성 없는 현지 업체의 자동차부품 제품테스트, 반덤핑 규제로 피해 발생
 - * 터키와 유럽산 열연강판에 최소11%-최대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14.9.26부터 5년간 부과, 또 냉연강판 수입시 22%의 관세 부과 및 '18년까지 2%씩 줄여나가 '19년 종료 계획
- (리비아) 수입금지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내전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입규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법** 존재
 - * 수입금지품목(총 10개) :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 식품이 대부분이며, 아국 수출 관련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엔진, 타이어 및 부품 포함하고 있고,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5년-3년, 버스 및 트럭 등의 경우 출고 후 7년-5년으로 수입 제한
 - ** 에이전트법 :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리비아의 무역업자(trade agent)는 무역의 형태와 기간, 활동영역 및 지역, 보수 등을 명시한 에이전트계약을 외국 수출업자와 체결하고 계약서를 리비아 산업무역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승용차, 버스, 트럭, 농업용 장비,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류의 수입은 리비아 산업 무역부에 무역업자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에 의해서만 가능
- (이집트) '15년 2월 압달러 시장 일소를 위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 계좌입금 제한)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 중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 및 자국내 생산 가능한 수입대체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입억제조치 단행, L/C개설 한도 및 수입허가증 제도 강화
- (북부아프리카) '15년 6월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3각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약에 아프리카 3개 지역 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서명하고,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 '17년 공식 출범
 -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이르는 아프리카 최대 단일시장 구성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교역규모 및 동향

- '15년 9월 기준 유가하락으로 수출 감소(-8%), 수입도 하락(-41%)

<중동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 9월	증감률
수 출	37,946	-8	41,451	9	27,854	-8
수 입	126,878	-1	119,727	-6	54,743	-4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중동지역본부 소속국 기준)

- 對중동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이며 가전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또한 우수수출품목으로 '16년도에도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국별 주요 수출입 품목>

국가	수출	수입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및 부품	원유, LPG, 나프타
아랍에미리트	자동차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원유, LPG, 석유제품
오만	자동차, 석유화학합성원료, 건설중장비, 공기조절기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요르단	자동차 및 부품, 알루미늄조가공품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이란	자동차부품, TV,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원유, LPG, 나프타, 알루미늄, 아연괴
이집트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철도차량 및 부품	석유제품, 실물성 물질, 의류
리비아	자동차 및 부품, 가열난방기, 타이어, 변압기, 전선, 펌프, 축전지	원유, 어육,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알제리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및 부품, 건설기자재	천연가스, 나프타 등 탄화수소 품목
이스라엘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커피, 가전제품 등	측정 및 검사용 기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 무역관

□ GCC 주요국 투자진출 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15년 6월 기준(누계)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금액은 18억 35만달러이며,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UAE) '14년 기준(누계) 對UAE 투자금액은 9억 8천만달러이며, UAE 전체 FDI 규모(130억달러)에 비해 작은 비중 차지

□ 기타 교류 동향

- (이란) 매년 개최되던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07년 이후 對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으나 '16년 1월(잠정) 재개 예정

III

시장 분석

- 對중동 수출입은 유가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의 경우 형태와 분야의 다양성 결여
- 프로젝트는 저유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중요 프로젝트 또는 민생 관련 프로젝트는 차질없이 진행

1. 수출

□ 중동 수출시장 특성

- 중동은 수입 의존형 시장구조
 - 현지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 의존
 -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유 및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고 발전이 미약
- 20대 수출 품목은 대기업 상품 위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임
 - 자동차, TV, 선박, 무선전화기, 가전제품 중심 수출 증가
 - * 현대 자동차, 삼성 스마트폰, LG 전자 등 대기업 브랜드 위주
-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기자재 동반수출 형태 다수
 - * 주요기자재: 중장비, 전선, 변압기, 밸브, 펌프, 철강관, 철구조물, 차단기, 발전기 등

□ 對중동 수출 동향

- (전체) '15년 9월까지 對중동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한 277억달러
 - * 메르스, 정세불안, 위안화·엔화·유로화 약세 등의 원인
- (권역별) GCC(52%)와 3대 국가 시장(34%)이 전체 수출의 84% 차지(232억달러)
 - * 정세불안 등으로 마그레브(-35%)·레반트(-30%) 수출이 급감
 - * GCC와 3대 국가 시장도 유가하락·메르스·환율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
- (국가별) 對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24%)하여 호조세이나, 터키(-5%), UAE(-14%), 이란(-1%)은 부진
 - * 사우디아라비아(72억달러, 전체의 26% 비중), 터키(47억달러, 17%), UAE(46억달러, 17%)

<한국의 對중동 국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권역	주요국	2013	2014		2015.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3대 국가 시장	터키	5,658	6,665	17.8	4,713	△5.3	50	17
	이란	4,481	4,162	△7.1	2,953	△1.3	32	11
	이집트	1,535	2,364	54.0	1,703	2.5	18	6
	소계	11,674	13,191	13.0	9,369	△2.7	100	34
GCC	사우디아라비아	8,828	8,288	△6.1	7,226	23.6	52	26
	아랍에미리트	5,738	7,212	25.7	4,607	△13.7	33	17
	쿠웨이트	1,133	1,976	74.4	635	△56.9	5	2
	카타르	852	904	6.2	538	△20.1	4	2
	오만	1,007	1,172	16.3	731	△17.3	5	3
	바레인	234	275	17.6	141	△32.6	1	1
	소계	17,792	19,827	11.4	13,878	△3.8	100	50
마그레브	알제리	1,024	1,417	38.4	604	△45.7	43	2
	모로코	293	308	5.4	263	21.4	19	1
	리비아	1,064	893	△16.1	420	△36.0	30	2
	튀니지	167	208	24.4	125	△29.4	9	0
	소계	2,548	2,826	10.9	1,412	△34.7	100	5
레반트	이라크	1,973	1,798	△8.9	1,042	△19.2	52	4
	요르단	1,317	1,383	5.1	651	△40.1	32	2
	시리아	445	423	△5.1	147	△50.1	7	1
	레바논	378	303	△19.9	181	△21.0	9	1
	소계	4,113	3,907	△5.0	2,021	△30.3	100	7
기타	이스라엘	1,464	1,225	△16.3	865	△5.3	83	3
	예멘	179	322	80.3	172	△38.1	17	1
	소계	1,643	1,547	△5.8	1,037	△0.1	100	4
중동합계		37,770	41,298	9.3	27,717	△8.5	100	10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15.8월까지 對중동 주력 품목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0%), 기초산업기계(20%), 철강제품(12%)은 증가
 - 저유가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선박(-100%), 컴퓨터(-39%), 무선통신기기(-28%), 석유화학(-27%), 자동차(-13.6%) 등은 실적이 급감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 對중동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4년(증감율)		2015년 8월(누계)	
자동차		9,935	(4.5)	5,660	(△13.6)
자동차부품		1,232	(15.2)	881	(10.5)
반도체		47	(27.4)	28	(△10.4)
무선통신기기		898	(△3.1)	459	(△27.8)
일반 기계	기초산업기계	1,917	(26.8)	1,537	(20.1)
	산업기계	1,907	(0.6)	1,203	(△3.9)
	정밀기계	77	(△5.5)	46	(△7.7)
	기타기계류	224	(18.1)	118	(△20.1)
석유화학		2,444	(11.9)	1,215	(△27.2)
선박류	선박	1,270	(83.8)	3	(△99.7)
	선박용 엔진·부품	22	(△1.7)	13	(△5.3)
	선박용 부품	3	(44.1)	2	(△8.0)
철강제품		2,695	(△11.4)	1,897	(11.7)
석유제품		486	(140)	348	(△4.9)
가정용전자제품		2,052	(10.4)	1,139	(△13.7)
컴퓨터		170	(12.3)	82	(△39.3)
섬유류		1,103	(△4.4)	642	(△15.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00	(33.0)	324	(29.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기준)

□ 중동 수입시장 동향

○ 중동지역 권역별·국별 수입동향 ('14년 기준)

- (권역별) GCC국가 수입시장이 5,510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42% 차지

* 3대 국가 시장(4,150억달러, 32%), 마그레브(1,450억달러, 11%)

- (국가별) UAE 수입시장이 2,730억달러 규모로 중동 전체의 21% 차지

* UAE(2730억달러, 21%), 터키(2,420억달러, 18%), 사우디아라비아(1,700억달러, 13%) 3개국이 52% 비중

<중동지역 권역별·국별 수입 동향>

(단위 : 십억달러, %)

권역	주요국	2013년	2014년			2015년4월
		금액	금액	권역내 비중(%)	전체대비 비중(%)	금액
3대 국가 시장	터키	252	242	58	18	71
	이란	95	105	25	8	33
	이집트	65	68	16	5	24
	소계	412	415	100	32	127
GCC	사우디아라비아	163	170	31	13	54
	아랍에미리트	263	273	50	21	88
	쿠웨이트	29	32	6	2	10
	카타르	27	30	6	2	11
	오만	34	29	5	2	11
	바레인	16	17	3	1	6
	소계	531	551	100	42	181
마그레브	알제리	52	56	38	4	17
	모로코	45	46	31	3	13
	리비아	27	19	13	1	5
	튀니지	24	25	17	2	7
	소계	147	145	100	11	42
레반트	이라크	53	51	45	4	16
	요르단	22	23	20	2	7
	시리아	18	20	17	2	6
	레바논	22	22	19	2	6
	소계	115	115	100	9	35
기타	이스라엘	72	72	83	5	20
	예멘	16	15	17	1	4
	소계	87	88	100	7	25
중동 합계		1,293	1,315	100	100	410

* 자료원 : IMF

□ 주요 경쟁국/경쟁기업 진출 동향

<2015년 對중동 주요 경쟁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지
한국	10,072	△ 1.7	△ 13,960
중국	36,650	0.7	708
일본	8,904	△ 4.8	△ 20,222
미국	20,658	1.5	6,618
인도	17,789	△ 18.3	△ 8,76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중국)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으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역 진행 및 에너지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주력
 - 이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원조를 통해 강력한 공조체제 구축
 - 중국의 對중동 수출입 현황은 GCC 6개국과 터키, 이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성에 기인, 특히 UAE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높은 교역량
 -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신속하며 강한 마케팅 대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에너지확보를 위한 협력강화 추진
 - (쿠웨이트) 가격관여 제품의 경우 중국제품의 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
 - (카타르) 對카타르 2위 수출국가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며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품질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이란) 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
 - (요르단) 중국은 요르단 수입 2위국으로서 입지 강화
- (일본) 친미적 성향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소극적이거나 중동지역에 대한 ODA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한 협력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미래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
 - (UAE·오만)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효자종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에서 강세
 -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입 점유율도 하락 중
 - GCC 국가와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수입,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며, 일본 무역통계청의 '15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운송장비(60%), 기계(14%), 식품(14%), 전기기기(5%) 순
 - (요르단) 원조를 통한 협력기반 형성
 - (이라크) 병원 설계감리, 발전소 건설 등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EU)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낮은 편
 - 중동 지역 내 EU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비아 등이며 중동국들의 유럽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이러한 특성으로 수출 상품의 항목이 다양하며,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과거 식민지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 양상
 - 민주화 혁명 이후 양자 간 정치·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상이한 이해관계로 발전은 더딘 상태

- (미국) '70년대 이후 석유 및 국방산업체의 중동시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동 오일/가스 산업체에 대해 기술이전과 플랜트 공급 및 신약·의료·교육 관련 설비 공급을 위한 투자진출에 주력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우호관계 지속, 고가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제품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지인 및 고소득층 외국인 중심으로 선호가 형성됨
 - (카타르) '13년도 對카타르 1위 수출국가로 주요 수출품목은 항공기, 기계류, 승용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며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 분야에 대규모 투자, 미국은 전체 LNG 수입의 26%를 카타르에서 수입
 -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非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 병원, 관광, 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인도) 인도에는 약 1억 5천만명의 무슬림이 있어 중동 국가들과 종교적 · 역사적 유대가 깊음
 - 걸프 지역 이민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은 '10년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한 금액을 550억달러로 추정
 - 對중동 수출은 UAE(53%, 330억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18%, 112억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과의 교역량은 유지 혹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對터키 수출은 21%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연료, 쌀, 자동차 및 부품 등 소비재 품목
 -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4대 교역국, 對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인력 수출국
 - (오만) 아시아 최대의 對오만 투자국
 - (카타르) 현지 거주 인도인 대상 소비재 품목 수출 강세
 - (이란)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무역협정) 협상 중
- (터키)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동지역과 무역부문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현지 수입 점유율 또한 늘고 있는 추세
 - (이란) '15년 1월부터 양국간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무역협정) 발효 및 PTA의 FTA화 가능성(이란 관세 무역장관 발언)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이미지 활용을 통한 소비재 진출 성공사례
 - 면도날 생산기업인 D사는 현지 A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브랜드인지도 제고가 급선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전략 적극 추진 위해 아랍권 위성채널, 테헤란 주요 지역에 빌보드 광고, 주요 매장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동시에 신제품 개발 노력 및 이란시장 동시 출시(연 2천만 달러 수출)
-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병원 한국최초 HIS 수주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병원에 7천만달러의 의료정보시스템(HI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국가방위군 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 3억달러의 매출 효과 거양이 예상되며 동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GCC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최대 7억달러의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발굴부터 리야드 무역관이 국가방위군 병원을 접촉하여 HIS 구축을 위한 입찰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밀착 지원
 - 발주처인 국가 방위군 병원은 IT사절단을 한국에 2회 파견, 1차는 '14.2.20-21 간 고위사절단 3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병원, IT 병원 정보시스템 견학하였고 2차는 '14.5.11-16간 실무사절단 3명이 분당서울대병원 HIS운용을 실사함
 - 설명회, 시스템구현 시연회, 워크숍 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절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리야드 무역관이 활동을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수출 성공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국 IT기술 인정과 정부예산 절감의 이해가 맞물려 달성한 결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실패)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송부는 악성 바이어에겐 가장 큰 선물
 - 안경테를 수출하는 D사는 수출물품을 항공을 통해 바이어인 M사에게 발송
 - 1차분(2만5천달러) 수출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령하였으나 2차분에 대해서는 발송 후 대금 지불 기일이 지났음에도 미송금함에 따라 대금 지불을 독촉하였으나 바이어는 1차분 품질이 불량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2차분 대금지급을 거절

- 국내 업체는 결제조건이 DP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 후 항공 화물운송장 원본을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서는 수출된 물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으나 바이어는 이미 화물을 인수해서 처분
- (시사점) 원칙적으로 원본서류 없이 물품 반출은 불가하나 바이어가 사본을 제시하고 물품 인수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화물 반출이 가능했으며,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돌다리도 두드리듯 원론에 충실한 거래 필요
- (실패) 화장품 인증 절차에 수출 실패
 -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O사는 이스라엘 진출을 위해 유망바이어를 소개받아 수출 진행 하였고 현지 업체에서는 이스라엘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보건부 인증취득 요청, 국내 업체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지 업체 측의 늦은 대응과 까다로운 인증절차에 수출 포기
 - (시사점) 해외시장 진출 희망 시 해당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유망한 에이전트를 소개받을 것을 권장

2. 투자진출

□ 중동지역 투자유치/진출 동향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유입된 투자금액은 1,210억달러로 프로젝트 수가 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상승
 - 이집트와 모로코가 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 중
 - * 특히 이집트는 1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프로젝트수 또한 42% 확대
 - UAE는 역내 투자유치에 가장 탁월하며 가장 많은 프로젝트 발주
 - * NASDAQ Dubai에 따르면 포춘지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의 80%가 두바이에 진출해있으며 프리존에는 2만여개의 외국기업이 입주
 - * 최근 생산거점형 제조업, 소매유통분야 투자 확대 중
 -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제조, 운송, 금융·보험업계 약 150개의 지상사가 진출해있으며, '13-'15년간 주요투자분야는 제조업(2,067달러), 건설업(1,205달러), 도소매업(276만달러) 순
- 중동은 최대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국내산업 발달이 저조하여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며 투자분야도 석유화학 및 부동산에 국한

<FDI 상위4개국 투자동향>

IN			OUT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증감율)	국가	투자액 (십억달러)	프로젝트수
이집트	18	51(42%)	UAE	19	243
UAE	13	302(11%)	이스라엘	2	74
사우디아라비아	10	75(△22%)	사우디아라비아	2	30
모로코	5	65(59%)	모로코	1	25

* 자료원 : The FDI Report 2015, FDI Intelligence by Financial Times

□ 경쟁국 진출 동향

- (중국) 자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석유·가스, 석탄, 구리 등의 원자재 공급선 발굴을 위해 석유화학공사(Sinopec)과 같은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진출 중
 - (모로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부터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에너지산업 플랫폼화 계획
 - (이라크) 유전개발, 항만 등 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오만) IT 및 플랜트 분야에서 영향력 확대 중
- (일본) 파이낸싱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 및 석유, 엔지니어링, 플랜트, 발전, 통신,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EU) 오일/가스산업 중심으로 소매유통, 금융·보험, 호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 소비재 시장 전반에 진출
- (미국) 방산재, 소비재, 내구재 등 전 분야에 대해 M&A, 합작 및 유망기업 지분인수 등 가장 다양한 형태로 투자
- (인도) 철강, 화학, 비료,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 시행 중

□ 중동 국별 투자진출유치 확대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분야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외국인기업 대상 100% 지분 인정, 개인소득세 미부과
 - 산업단지 조성 (29개) 통한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UAE) 자유무역지대(FEZ) 입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지분 100% 인정, 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 없음
- (쿠웨이트) 기존 스폰서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현지법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지사, 연락사무소 등 3원화 된 진출 형태로 재편
- (알제리) 자국인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 권장
- (모로코) 비관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투자금액의 10-20%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자동차산업 신규부문 투자 업체에 투자금액의 30% 지원, 항공 우주산업 장비제조(10%)와 유지보수분야(30%) 투자시 보조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유치

□ 우리나라의 對중동 투자진출 현황

<최근 3년간 對중동 해외투자현황>

(단위 : 건, 개, 백만달러)

법인구분	항목	2013	2014	2015.9
현지법인	신고건수	128	121	95
	신규법인수	34	29	26
	신고금액	355	917	708
	투자금액	334	1024	656
지점	신고건수	103	88	49
	신규법인수	12	11	6
	신고금액	64	34	34
	투자금액	25	20	8
지사	신고건수	25	19	12
	신규법인수	6	3	3
	신고금액	2	2	2
	투자금액	0	0	0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15년 법인 형태의 對중동 해외투자금액은 664백만달러로, '14년 대비 37% 감소
 - 신고건수 및 신규 법인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
 - 누계 신규 법인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순으로 많으며 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달러로 가장 높음
 -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주요 분야는 광업, 건설업이 압도적
 -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나 M&A, 단순판매조직 등 진출형태 및 규모가 매우 제한적

<중동지역 주요국 투자진출현황>

(단위 : 개, 백만달러)

국가	대표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제조	185	2,000.23
예멘	광업	6	1,294.49
터키	제조, 건설	107	1,256.40
UAE	부동산 및 임대, 건설	227	997.57
오만	광업, 제조	37	594.22
이집트	광업, 제조	34	203.14
바레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제조	8	91.96
카타르	건설, 제조	62	55.20
이란	제조	14	45.21
이스라엘	부동산 및 임대, 제조	16	40.51
쿠웨이트	금융 및 보험, 제조	15	21.67
요르단	제조, 도소매	13	15.34
레바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2	7.50
시리아	제조	2	2.67
이라크	제조, 건설	4	0.57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9월 기준(누계)

<주요 업종별 對중동 투자진출현황>

(단위 : 개, 백만달러)

업종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건설업	223	1,879.17
광업	8	1,841.74
제조업	127	591.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	415.0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	219.31
도매 및 소매업	79	155.69
운수업	21	15.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	14.6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11.72
금융 및 보험업	2	10.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5.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2.67
숙박 및 음식점업	5	2.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7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0.70
농업, 임업 및 어업	1	0.15
합계	591	5,167.14
세계	61,084	291,911.78
중동비중(%)	0.97	1.77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상반기 기준(누계)

□ 중동의 對한국 투자 동향

- '14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규모는 100억달러로 전년대비 124% 증가
- 중동지역은 산유국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성 높은 재무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
 - 중동의 對한국 투자는 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업종은 서비스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
 -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중동지역 산유국은 석유화학 이외의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기술력이 확보된 석유화학부문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생산 체제 구축에 관심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또는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어려운 취업비자취득 및 낮은 인프라 수준과 행정관료주의 및 절차의 불투명성
- 중동 다수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이 많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거나, 스폰서 선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음
- 모로코, 알제리는 대부분의 행정 및 비즈니스에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어 투자진출에 언어적 어려움 겪은 중소기업이 대다수

3.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동향

- '14년 중동에서 진행 및 계획중인 프로젝트는 3조2천3백억달러 규모로 GCC 지역의 프로젝트가 이중 77%를 차지,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조달러, UAE가 7천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과반점유

- 저유가 장기화 추세로 정부재정 프로젝트보다 민관협력 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발주 증가 추세이며, 분야 또한 수·전력 분야에서 메트로, 병원, 교육, 주택 등으로 확대 예상
-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및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저가수주공세 등 경쟁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
 - (쿠웨이트) 언어와 인력공급에 유리한 인도의 경우 '14년 정유탱크 프로젝트를 전부 휩쓸어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
 - (이란) 경제제재 중 건설프로젝트 시장은 중국 EPC기업들이 지하철 건설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
- 오일/가스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주물량의 중단 또는 감소로 기존 시설의 보수·확장이나 철거 관련 프로젝트에 수주역량 집중

□ 프로젝트 수주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15년도 1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의 총 계약액은 152.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의 건설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저유가로 인해 '15년 신규 프로젝트 발주 감소
 - 또한 로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경쟁 심화 및 아국기업의 강점인 고기술이 요구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연기 혹은 중단으로 당분간 수주 감소 불가피
- (UAE) 발주정체로 전년도 대비 프로젝트 계약률이 25% 수준이며, MEED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수주계약금은 11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

<국별 주요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매디컬 시티	2020년 완공예정(17억달러)
	대형 스포츠 스타디움건설	2019년 완공예정(44~55억달러)
	파딜리 가스 플랜트	2019년 완공예정(30~40억달러)
	와드 알 샤말 파워플랜트	2019년 완공예정(10억달러)
	사우디-이집트 전력망 연계사업	2018년 완공예정(16억달러)
	아크릴로니트릴 플랜트 생산설비	2017년 완공예정(5억달러)
	메카시 지하철 건설	2016년 3월 입찰공고 예정(1단계 68억달러)
	제다시 메트로 건설	2016년 5월 입찰공고 예정(120억달러)
쿠웨이트	알주르 민자 담수화·발전소(2)	입찰예정(30억달러)
	알키란 민자 담수화·발전소(1)	입찰예정(30억달러)
오만	바티나 고속도로 건설(7~11)	2015년 발주예정(39억달러)
	Ras Markazi 전략적원유비축시설	2016년 발주예정(7억달러)
	무스카트 관광항 개조 공사	2016년 발주예정(26억달러)
	국가 철도망 프로젝트	2018년 1단계 완공예정(100억달러 이상)
이란	이맘호메이니 공항 확장사업(2)	계획중(22억달러)
	샤히드 라자이항 3단계 발전계획	착수(5억달러)
모로코	LNG 산업 인프라	발주예상(46억달러)
	Nador 화력발전소	발주예상(26억달러)
	Tanger Med 2 항구	발주예상(20억달러)
이스라엘	아쉬도드 항구건설	2022년 완공예정(9억달러)
	아코-카리미엘 철도건설	2016-17년 완공예정(8억달러)
	텔아비브 에일랏 고속전철 구축	현재입찰중(19억달러)

* 자료원 : KOTRA 중동지역 무역관

□ 프로젝트시장 진입장벽

- 자국산업 보호정책 : 현지인 고용 및 현지 생산 제품 사용 의무
- (사우디아라비아) Saudization(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 (오만) Omanization(오만인력 고용), ICV(In Country Value) 및 Made in Oman Index* 도입, Offset 프로그램 의무 시행**

* 오만산 제품 사용 의무로 입찰시 평가에 반영

** 정부 또는 정부 지분 50% 이상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5백만리알(미화 13백만달러) 규모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업 대상 수입자재 금액의 약 5% 상당을 국방 및 보안, 시설, 운송, 보건, 인적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함

IV

시장진출전략

- 각국의 산업다각화정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등 신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 할 필요가 있음
-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할랄시장과 현지 소비재 유통망 시장 등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투자진출방안 검토와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을 구축해야함.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플랜트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

1. 진출전략 개관

<중동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장기간 고유가로 축적된 정부 재정 여력 ○ 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현대적 소비문화 확산 ○ 신산업, 할랄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 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 ○ 정상외교 후광효과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및 한류 영향	<Opportunities> ○ 산업다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이란 시장 개방('16년 상반기 예상) ○ 산유국 국부펀드, 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로 투자정책 변화 ○ 국가별 최소 민생인프라 프로젝트 및 국가적 이벤트* 대비 프로젝트 발주 또는 유지 * 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두바이 엑스포 ○ 중소·저개발국의 시장 성장
<Weaknesses> ○ 여전히 높은 석유 부분 의존도 ○ 유럽, 중국 대비 낮은 한국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 ○ 이란 시장의 제도 불투명성 등 제재 복원 (Snap-back) 리스크 존재 ○ 재정감소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 및 한국의 저가 수주형 프로젝트 진출전략 한계	<Threats> ○ 저유가 기조 지속 전망 및 정부의 긴축재정 시행 ○ 가게 가처분소득 감소 우려 ○ 경쟁국(유럽, 중국, 일본) 환율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및 글로벌 경쟁 심화 ○ 역내 생산 장려에 따른 단순 수출 확대 곤란 ○ ISIL 등 지역 정세 불안정
<시사점> ○ 산업다각화 정책 편승을 통한 신산업 분야(신재생, IT, 의료, 교육) 등 수출 품목 다변화 ○ 할랄시장(뷰티, 식품) 공략, 소비재 유통망 진출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신규 수출 먹거리 창출 ○ 현지 생산 정책 활용, 합작투자 및 생선설비 투자 등 현지 진출을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 ○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및 플랜트 기자재 수출 창출 노력 ○ 새로 개방되는 이란 시장 정보 및 현지 관행, 빠른 습득으로 진입 리스크 최소화 ○ 정상외교 후속성과 창출 확대 및 한국 프리미엄을 통한 한류 붐 조성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필요	

□ 정부가 주요 시장결정자인 중동의 특성에 따라 정책 맞춤형 진출전략 필요

-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및 자국산업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분야 및 형태 공략
 - (상품교역) 각 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신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 IT, 의료, 교육, 보안) 분야 관련 적극 진출
 - (투자진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법인설립, CKD 또는 SKD* 형태의 생산·조립 공장 설립 권장
- * CKD : Complete Knock Down,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
 SKD : Semi Knock Down, 일부 조립 후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
- (프로젝트) 각 국의 기본 인프라(도로·교통·산업단지·주택·병원) 관련 중소형 프로젝트,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관련 분야
- (투자유치) 정책추세가 자국산업육성 가능한 투자프로젝트 발굴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

□ 중동의 신규시장 및 분야의 적극적인 선점 노력

- 이란시장 개방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진출
 - 거대한 내수시장 및 프로젝트 수요 관련 정보 수집 필요
 - 시장 관련 제도 확인 후 공격적 마케팅 활동
- * 한국기업의 이란진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활용 필요
- 한국기업에겐 틈새시장일 수 있는 할랄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필요
 - 전세계 할랄 생산품 시장은 2조 3천억달러('13년 기준)이며,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 이 중 2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의 무슬림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거주
 - 할랄제품은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인구 수 대비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이며, 무슬림 인구는 20년 후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소비재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 진출
 -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동 인구 4억중 25세 미만이 25% 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휴대폰·인터넷사용자 증가
 -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A.T.Kearney)*에 따르면, 상위 30개국에 중동 국가 중 카타르(4), UAE(7), 터키(11), 사우디아라비아(17), 요르단(25), 오만(26), 쿠웨이트(27) 7개국이 랭크되어 있음*

* 각 국의 소매시장을 시장매력도, 국가위험, 시장포화도, 진입시기 압박 4가지 요소로 신흥시장을 평가, 상위 30위를 발표

- 정상외교 후광효과를 이용한 지속적인 후속성과 창출 및 한류 붐 활용 필요
 - '15년 상반기 정상외교로 생긴 한국 프리미엄 활용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지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 접촉, 한국기업에 유용한 정책 정보는 사업으로 연계
 - 순방 시 성과창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사업 연계 필요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류 추가 확산 움직임 활용
 -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류 붐이 산업 분야까지 확대 전망
 - 국가적 이미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중소기업 상품 수출부터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한국 기술 전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프랜차이즈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2. 세부 진출전략

2-1. 산업다각화 정책 활용 신산업분야 진출 전략

- 신재생에너지
 - 각 국별로 중동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 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각화 정책 추진 중
 - (UAE) 신재생에너지 사용 극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UAE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중국 적극적으로 접촉 중
 - (카타르) '18년까지 100-200억 달러 투자, 총 18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 (알제리) 사하라사막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연간 일조량 보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국내 소비량의 40%수준까지 확충 목표
 - (이집트) 화석연료, 원전 등의 전통적인 발전 프로젝트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
 - 국가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사 후,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태양광 모듈, 연료전지 등)에 전략적 진출 및 사업 추진

□ IT

- 중동지역에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및 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 중인 단계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신뢰
 - (UAE) 스마트시티 건설, e-교육 솔루션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 다대
 - (카타르) National ICT Plan 2015 수립, 16억달러 투자
 - * 당초 예정은 '15년 종료예정이었으나, 개발지연으로 향후 몇 년 추가 진행 예상
 - (오만) UN이 선정한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국가 기록원 시스템 등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 선진화를 위한 e-learning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
 - (이란) '16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국가개발계획의 8개 분야 중 정보기술 및 통신이 7개 조항에 포함(경제, 사회 다음으로 많은 수이며 전자정부, IT 인프라 등이 포함)
- 중동은 한국에 비해 IT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으로 국가별 편차도 심한 상황
 - 국가별 수요가 높은 유망 IT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 할 필요
 - 한국 중소기업도 IT 관련 기술과 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매칭이 관건

□ 의료

- 가장 기본적인 민생인프라에 포함되는 의료 프로젝트는 저유가 기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예정이며,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도 이에 한 몫
 - (사우디아라비아) 적자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16년 의료 분야 예산 확충.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48% 증가한 총 427억 달러 배정, '15년 Military Medical City 건설 추진계약
 - * 국가방위군병원 7천만달러 규모의 의료정보시스템(HIS) 한국과 계약 체결(2014)
 - (오만) 약 15억 달러 규모의 Muscat Medical City 건설 중. 병원, 의료기기, 시스템, 전문인력 등 의료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 한국의 의료시설이 UAE와 카타르에 성공적으로 진출 중, 이를 모델로 현지 병원 진출 및 의료기기 수출, 인력과 같은 일자리 창출까지 방대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 상품수출, 현지진출, 프로젝트 수주, 해외인력지원 등 여러 사업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과 사업 실행이 필요

2-2.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산업 분야 공략

□ 중동지역의 틈새시장인 할랄시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진출 노력

- 국가·품목별 할랄인증제도 확인 및 필요시 인증 발급
 - 한국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해외유명브랜드의 할랄인증 제품이 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경우 유럽 명품브랜드 보다 앞서 시장선점 가능
- 국가·품목별 맞춤형 마케팅 사업 진행 필요
 - 인증 희망기업의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 품목에 맞는 마케팅 사업 진행
 - 바이어들도 할랄인증 진행중인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

□ 소비재 유통망

- A.T. Kearny의 2015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평가요소 중 진입 시기에 대한 압박* 관련 30위내 있는 중동 7개국의 평균점은 23.6점으로 아직 중동 국가들의 소매시장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 100점에 가까울수록 진입시점을 서둘러야하는 상태
- 1)국가별·유통망별 진출 유망품목 2)소형가전 등 유통망 진출 유망 중소제품 대상 규제 또는 인증제도 3)국가별 대형 유통망의 PB(Private Brand) 등록요건 등 진출 요건들에 대한 확인 필요
- 중동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중인 인터넷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한국 중소기업이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SK플래닛과 제휴한 현지 온라인마켓 매출 1위.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동 사이트에 한국관을 구축, 중소기업제품 입점 및 판매 중)
 -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년 내 온라인 마켓 및 구매행태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사업 기회 확인 및 진출 노력이 필요

2-3.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통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활용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준비
 - (쿠웨이트) 외국인 100% 소유 법인설립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중소기업육성 법률 제정 추진하여 70억 달러 규모의 SME 펀드 조성, 산업단지 부지 적극 지원 및 제조·무역업 지원자금 융자 확대
 - (알제리) 내국인과 외국인 지분을 51:49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정부 부처 또는 국영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분 투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이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현지 진출 전략

- 생산 원자재 조달형
 -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 원자재 가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 * 석유·가스과 같이 중동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자원을 원자재로 하는 석유화학 관련 분야 등이 유망
- 수입규제 또는 고관세 회피형
 - 수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고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현지 생산
 - * (알제리) 저유가 지속으로 수입품쿼터제가 지속되는 경우, 현지 주요 수출업체는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
 - (이란) 국내생산 가능 제품에 대해 고관세 정책 지속 강화 방침
- 현지 정부의 기자재 현지생산장려 정책 대응형
 -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업체의 현지 업체 생산비율을 선정 심사에 반영
 - *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발주 정부 프로젝트 참여시 현지에 산업시설 설치하도록 유도, 현지 기업과 합작 필요
- 제3국 수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추구형
 - 현지에 생산기지 구축 후 주변국 수출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 달성
 - * (북아프리카 지역) 정서 및 제도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알제리, 모로코와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의 경우 현지 진출시 EU 지역과의 무관세 협정에 의한 혜택 향유 가능

□ 중동국가의 자국산업화 연계 국부펀드 투자 활용

-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해외 유망기업에 투자
 - 해외유망기업의 지분 인수, 해당 기업에서 수입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 기자재의 외국기업 의존도 감소 등 국부 유출 최소화

산업다각화를 위한 중동국부펀드의 對한투자 사례('15년)

①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ICD) 쌍용건설 인수

- (목적) 대형프로젝트의 해외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바이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공한(두바이의 Grand Hyatt 시공) 쌍용건설 인수 (투자금액 1.5억달러)
- (기대효과) 두바이의 주요프로젝트를 쌍용건설이 시공함에 따라 두바이는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쌍용건설은 우리 협력사와 사업을 추진, 양국 모두 'Win-Win'모델

② 사우디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 PIF) 포스코 지분인수

- (목적)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인 포스코 지분인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차 생산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투자금액 십억달러)
- (기대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의존도 감소, 산업다각화 등 Saudization을 달성하고,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PIF-포스코 합작법인 납품을 통해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증대 기대

2-4. 중소형 프로젝트 및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 역량 확대

- (중소형 프로젝트) 정부 재정감소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에 따라
중소형 프로젝트 위주 발주 가능성

→ 이에 대응하는 진출 전략 및 역량 강화 필요

- (1단계) 국별 시행되는 중소형 프로젝트 정보 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타격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16년 신규 발주 프로젝트 14.4억달러 내외로 예상
 - (오만)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인 Vision 2020 추진 중이나, '16년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

- (2단계) 프로젝트 타겟팅
 - 한국기업이 고기술분야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단순건설의 경우 중국·인도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분야를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
 - * 단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중소 동반성장형 대기업 제휴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역량 강화

- (3단계) 벤더등록을 통한 수주 시도
 -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국가별로 상이한 발주처별 벤더등록 필요
 - (오만) '15년 하반기부터 석유가스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벤더 등록 시스템(JSRS) 구축, 시스템으로만 벤더등록 가능
 - (카타르) 관련 기관별로 까다롭고 명확하지 않은 벤더등록 절차와 요건을 제시, 이와 관련된 밀착지원 필요

- (PPP형 프로젝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국가재정 감소 영향으로 국가 프로젝트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으로 발주 증가 예상

- UAE, 쿠웨이트, 오만, 이란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도입
 - 한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조달에 대한 부분 강화 필요
 - 이란의 경우 UAE를 통한 수출 및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UAE 진출 한국기업(EPC)과 UAE 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계획

□ (중소형 플랜트 및 기자재) 현지 생산을 위한 수입대체상품 플랜트 설비 수요

- 한국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중소형 플랜트 집중 공략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건축자재 관련 분야 등 유망
 - * 중동지역 전반에 걸쳐 한국자동차(현대, 기아) 및 가전제품(삼성, LG)의 시장점유율 및 인지도는 높은 편임
 - 기존 오일·가스 플랜트 수주에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등으로 진출 분야 다각화
 - 특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 풀(Pool)을 확보, 매치메이킹 필요
- 여러 형태로 플랜트 기자재 관련 현지 진출 가능
 - (기술이전) 라이선싱을 병행한 설비 공급을 통해 OEM 형식 납품
 - * 신규 공장 설립 업체 주타켓 또는 산업단지내 신규시설 확대 기업 대상
 - (현지합작) Joint Venture와 같은 형태로 현지합작을 통해 진출, 단독 진출에 비해 리스크 감소
 - (완전/부분조립공장) 부품을 그대로 수출하여 현지 조립 또는 부분 조립 후 반제품으로 수출하여 조립함으로써 완성품의 품질 유지
- 한국 중소기업의 플랜트 기자재 기술 양극화 해결방안 필요
 - 특수핵심기술, 마케팅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하며 발주처도 미국·유럽 제품 선호, 가격은 중국·인도에 열위
 - 기술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2-5.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사업 시행

□ '1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시장 개방,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노력 요구

- 이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제재가 복원 될 리스크(Snapback Risk)가 있으며, 수년간 지속된 경제 제재로 현지 관행 및 시장 상황, 조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새로 개방될 현지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는 시장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 * KOTRA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15.9.21 개소하였으며, 이란 현지 테헤란 무역관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과 협력 원루프(One-Roof) 시스템으로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할 예정

- 이란 역시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타 중동 산유국에 비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철강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진행 필요

□ 이란 한국상품전 참여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이란 현지에서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상품전 개최 예정

* 이란 한국상품전 : '16년 2분기 개최 예정

- 거대시장에 대한 경쟁국들의 진출 노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문전시회, 사절단, 상담회 등을 통하여 이란 바이어 상담 기회 최대 활용 필요

<이란 진출 유망분야>

분 야	주요내용
철 강	● 국내업체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시 철강제품 수요증가 기대 ● 철강제품 수출 : ('13) 6.8억 달러 → ('14) 5.7억 달러 → ('15.1-10) 4.5억 달러
석 유 화 학	● 경제성 높은 이란産 원유 수입 확대 → 석유제품 가격 유지기여 ● 국제유가 하락 예상 →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가격 경쟁력에 호재
조 선 해 운	● 건설/석유화학 분야 수요확대 → 장기적 해운 수송량 증가 기대 ● 제재 해제시 이란 LNG 운반선박 80척(160억달러 상당), 원유 수송선박 10척(10억달러), F-LNG(2억달러) 등 발주할 것으로 관련업계 예상
건설 플랜트	● 대규모 석유화학/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 향후 1,600억 달러 규모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계획 ● 제재 본격화된 '09년 이후 우리기업 수주 실적 전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이란 핵협상 타결로 자동차 생산·조립용 부품 수출 재개 예상 ● 이란의 수입규제, 이란핵반대연합(UANI) 압력 등으로 완성차 수출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보 건 의 료	● 이란정부, 의약품 부족 및 낙후 의료시설 개선 위해 의료산업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 검사·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항암제 등 의약품 진출 유망
정보통신 기술(IT)	● 서방기업 이란시장 철수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IT장비/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 크게 증가 - e-러닝시스템, 은행시스템, 전자교통시스템, 디지털 병원 등 진출 유망
신재생 에너지	● 이란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 -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000MW로 확대 계획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 진출 유망
중소형 플랜트	● 이란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 추진으로 자동화라인 등 생산설비 수요 증가세 - 국내생산 촉진 정부방침으로 관세장벽(완제품 40~90%, 기계·부품 5~25%)이 더 높아지고 수입규제 강화 추세

□ 이란 프로젝트 수주 노력 필요

- 이란은 낙후된 인프라 및 산업기반시설을 개선코자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자체금융(Finance)을 요구하는 'EPC+F' 형태가 될 것
- 정부는 석유·가스, 석유화학, 항만·철도·도로, 병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 프로젝트 분야별 현황>

구 분	내 용
석유·가스	- 이란의 석유생산용량은 400만bpd로서 2020년까지 470만bpd로 증가 계획, 가스생산용량은 650백만입방미터(/일)로써 2017년까지 10억입방미터(/일)로 증강 계획 · 이를 위해 유전개발에 200억달러, 사우스파(South Pars)가스전 개발에 290억달러 투자 예정 - 중점 투자지역은 웨스트카룬(West Karoun)으로, 동 지역내 남·북 아자데간(Azadegan), 남·북 야란(Yaran), 야다바란(Yadavarar) 등 5개의 유전이 대상
석유화학	- NPC(국영석유화학공사)에 따르면 2014년(회계년도 기준) 석유화학 생산물은 43백만톤이었으며 2016년에는 180백만톤으로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 · 현재 70여개 플랜트에서 60백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생산은 70% 수준), 진행 중인 60개 프로젝트 완성시 생산능력은 120만톤 수준이 되며, 36개 신규프로젝트 완성시(410억달러 투자 필요) 180백만톤으로 확대 - 유망지역은 이란남부의 Chabahar와 Jask 등
교 통	- 현재 도로는 총 20만km로 전체 화물수송의 70%를 담당 · 도로 및 도시개발부(MURD)의 테헤란-북부 카스피해 간을 연결하는 121km의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 - 철도는 총 연장 13천km로, 매년 1천km씩 확대하여 2025년까지 25천km로 확대 예정 - 항만은 반다라압바스가 해상무역의 85%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확대 추진 중 · 반다라압바스의 샤히드 라자이항 3단계 발전계획(5억달러 규모)에 착수, 현재 6백만 TEU의 선적요량을 8백만 TEU로 확대 - 공항은 전국에 319개의 공항이 있으며 (활주로가 포장된 공항은 140개소/민간 54개소, 국제공항 8개소) · 이맘호메이니 공항 2단계 확장사업(22억달러 규모)이 계획 중임
발전·수자원	- 발전량은 '14년 228.1TWh로 연간 수요량 185.4TWh를 충족하고 있지만,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 지속적으로 확충 예정 · 천연가스 154.1, 석유 55.8, 수력 12.2, 원자력 5.4, 석탄 0.4, 신재생에너지 0.2 등 · 가스발전 비중을 현재 68%에서 2023년까지 74%로 확대 예정

2-6. 정상외교 후속성과 및 한류 붐 활용

-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 정기적 접촉 등을 통한 추가 성과 창출 필요
 - 순방 시 업무 유관기관 및 기업을 정기적으로 접촉, 관련 정책 변화 및 정보 수집 지속을 통해 후속 성과 창출
- 한류 붐 조성을 위한 노력
 - (상품교역) 화장품 등 뷰티제품, 가전제품, 소비재 등 유망품목 진출을 통해 Made in/with Korea Products의 프리미엄 추가 구축
 - (기술이전) 현지 진출 시 합작 형태로 진입하는 한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현재까지 경제규모에 비해 중등 투자진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이미지 쇄신
 - (유통망·프랜차이즈) 신규 유통망을 통한 수출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한국 프랜차이즈 전파, 브랜드 이미지 확립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사업 분야 확장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9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꾸준한 수요 및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 호조
	시장동향	현지에서 완성차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으며, 기 수출된 자동차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도 증가
	경쟁동향	한국산 차량부품은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대라는 인식이 있으며, 주요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터키, 중국 등
	진출방안	외국브랜드에 사용가능한 부품 개발 노력 및 완성차 업체 납품 수요, 유럽 등 인근국 수입 수요에 대비 필요
	유망국가	GCC 국가, 요르단, 모로코, 리비아 등
품목명 2	HS Code	8481
밸브	선정사유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각종 산업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밸브의 수요 증가
	시장동향	현지 제조업체 전무, 수입액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미국산 제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주축으로 한 EU, 일본, 인도, 한국산이 경쟁중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출 방법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GCC 국가
품목명 3	HS Code	8431
유압브레이커	선정사유	아랍의봄 이후 자국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 증가와 더불어 일반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 활발
	시장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다대
	경쟁동향	현지 제조업체가 없으며, 미국의 Indeco, CA와 일본의 Furukawa, Toku, NPK 등이 주요 플레이어
	진출방안	중공업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쇼룸, 창고, 서비스센터 등 장비 홍보에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잘 갖춘 에이전트 섭외 및 그들의 판매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
	유망국가	GCC 국가
품목명 4	HS Code	901819
	선정사유	수요와 기회에 비해 진출 미미
	시장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헬스부문 시장 성장중이며 정부의 보건시설 및 신규 의료기술에 대한 지출 증가

의료기기		(오만) 연간평균 시장규모 30백만달러로 추정되며 '17년까지 165백만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 해당 제품 자국제조환경은 미미, 인구증가 및 평균수명 증가로 병상 및 의료기기, 전문인력 등이 부족, 무스카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등 연이어 의료시설 확충계획 발표 (요르단) 중동의 의료 허브로 매년 약 20만명의 의료환자가 방문하며, 중동 최대 의약품 제조 및 수출기업인 HIKMA사를 비롯 유망한 의약품 제조 기업 및 취급기업이 다수 존재 (모로코) 자국 의학장비제조 기반이 열악하여 90% 이상 수입
	경쟁동향	수입국가 :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진출방안	현재 저가의 중국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므로 고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승부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등
품목명 5	HS Code	3304
스킨케어제품	선정사유	해당제품에 대한 아국의 뛰어난 경쟁력에 비해 중동시장 개척 미미
	시장동향	중동지역은 문화적으로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소비성향이 강함
	경쟁동향	글로벌 뷰티브랜드의 진출속에 고가/저가 브랜드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진출방안	관련 규제 및 인증관련 준비 필요 및 시장조사, 온라인 진출을 통한 인지도 제고
	유망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품목명 6	HS Code	9405
LED조명	선정사유	에너지효율화정책 및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 다대
	시장동향	높은 출생률과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부 인구로 주거용 건물 및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주로 미국과 유럽국의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시장기회는 존재
	진출방안	조명제품에 대한 규제에 유의
	유망국가	대부분의 중동국가
품목명 7	HS Code	852580
방산 및	선정사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감시카메라, 대테러장비, 보안용품 수요 다대

보안제품	시장동향	내전, 테러, 데모 등 정정불안으로 정부의 치안 및 안보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 * 주요품목: 총탄, 해상경비정, 살수차, 방탄조끼, 방패, 국경경비시스템, 실내사격시설, CCTV 등
	경쟁동향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 선호되며 중국산도 선전
	진출방안	CCTV의 경우 프리미엄시장 공략 필요
	유망국가	중동 대부분의 국가
품목명 8	HS Code	8443/8445/8474
산업기계	선정사유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정부의 생산설비 기계류 수입 장려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자국 내 기계산업 낙후로 관련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하거나 간단한 기계를 생산하는 정도이므로 기계류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유럽산 기계류가 강세이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산 기계류 수입도 증가
	진출방안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필수이며, 사후관리 및 충실한 서비스 제고 노력이 필요함
	유망국가	GCC국가, 이란 등
품목명 9	HS Code	8517/8525/8523
ICT 관련제품	선정사유	통신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예상
	시장동향	중동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GCC국가 및 3대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50%를 상회하며, 사용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자인 젊은 인구 구성의 특성상 해당제품 시장성 밝음
	경쟁동향	중국은 중산층 이하를 겨냥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독일 및 터키 제품도 진출 증가중
	진출방안	저가 중국산과 차별화 된 고품질 마케팅 필요
	유망국가	GCC국가, 이란 등
품목명 10	HS Code	7308/6506/3925
도로교통 안전용품	선정사유	자동차 및 도로 수요 증가
	시장동향	GCC국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장 프로젝트가 계속되어 도로안전 관련용품 수요증가 예상
	경쟁동향	주요품목 : 가드레일, 안전모, 방음벽, 교통표지판 반사필름, 차량감시시스템 등
	진출방안	프로젝트 기자재 납품 가능
	유망국가	GCC국가

첨부

'16년도 KOTRA 중등본부 주요사업 (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지역생산거점형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추진
 - 산업다각화 트렌드 부응, 제조업·신성장 산업 진출 기반 사업
 - * ① ICT, 보건의료 등 신산업분야 투자진출 ② 중등 국가별 산업 단지 개발 참여 ③ 청년·퇴직 전문 인력의 해외취업 도모

☞ 한-중등 산업다각화 협력주간 (신규, 3분기/해외투자지원팀)

- 시장여건 변화 대응, 非에너지 분야* 및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 환경(수자원, 폐기물처리 등), 신재생에너지, IT(스마트시티), 항만개발 등 물류, 보건의료 등
 - 선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럽기업(영국 등)과의 파트너링

☞ 중등 프로젝트 올인원 (All-in-One) 사업 (계속, 2분기/해외프로젝트사업단)

* 국가별 중소형 프로젝트 조사 및 DB 구축 사업 포함

□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 교육, 보건·의료*, IT, 할랄시장 등 신산업분야 진출 강화
 -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병원시스템 수출, 신규병원 건축 수주 등 대중소 동반 프로젝트성 사업추진

☞ 할랄 인증제도 및 절차 기획조사/설명회 (2분기/중아CIS팀)

- 대형유통망, 유망 프랜차이즈 등 유통망 진출지원
 - 수출부진타개를 위해 날로 성장하는 유통망 진출 강화
 - * UAE 및 터키 뷰티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30개사) 대상 온라인 유통망 입점사업 추진 ('16년 下, 유통전자상거래팀)

☞ 한류활용, 범 이슬람 블루슈머 2016 (계속, 2분기/글로벌파트너링협력팀)

□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 VIP 순방성과 F/U 및 후속 성과창출
 - 중동 순방 4개국 합의사항을 중동진출 지렛대(Leverage)로 활용
 - * 본사 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와 상시협력 채널 구축 및 대응 (연간사업)
- 이란시장 선점 위한 사업 확대
 - 이란제재 해제이전, 초기 및 경제활성화 단계별 사업*추진
 - * (초 기) 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를 통한 시장개방 선점('16년 2분기)

☞ 2016 테헤란 한국상품전 개최 (2분기/해외전시팀)

- * (활성화) 투자진출, GP사업 등 동반성장형 사업추진 ('16년 하반기~)
- 이란과의 접근성, 금융·물류인프라를 구축한 UAE를 통한 진출*
 - * UAE진출 우리기업(EPC)과 UAE소재 이란기업(Finance)간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사업 ('16년 상반기)
- 한·터키 FTA 활용, 수출확대
 - FTA 관세 인하 및 한류 활용, 소비재 유통망 진출
 - 현지 진출 홈쇼핑(CJ, GS등) 및 인터넷 쇼핑(11번가)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플랫폼구축/국내업체모집('16 上) → 시범추진('16 下)

□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투기업 유치 노력 강화

- 중동 국부펀드의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 국부펀드의 투자방식 전환추세(자국산업육성 연계투자) 대응
 - * 사우디국부펀드(PIF) 포스코지분 인수(10억달러) → 국민차 생산 법인설립 추진
 - * 두바이투자청(ICD) 쌍용건설인수(1.5억달러) → 2020 두바이엑스포 건설
 - 자국산업 육성 및 다변화 정책에 부합한 투자프로젝트 발굴·소개
 - * 자동차·가전·산업설비 등
- '자본+기술' 융합형 투자유치를 통한 역내 수출확대
 - 중동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중동 역내시장 진출
 - * UAE C사는 한국의 J사에 투자, 자사제품 생산·수입
 - * H사는 한국의 O사 지분매입을 통해 O사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확대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CIS 진출전략

kotra
CIS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69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469
2. 러-서방간 갈등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471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협환경 변화 ...	473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475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477
II. 진출환경 분석	479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479
2. 경제 환경	484
3. 산업 환경	486
4. 정책·규제 환경	489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493
III. 시장 분석	495
1. 수출	495
2. 투자진출	500
IV 시장진출전략	504
1. 진출전략 개관	504
2. 세부 진출전략	50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521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6년에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CIS 경제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급락, 서방 경제제재로 수입대체가 절실히 되면서 자국 제조업 육성·보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 강화, 아시아 협력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자국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신규 도입, 기존 유럽산 대체 수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 외국인산 제한 강화 등 경제외적 요인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러시아 경기 침체 장기화와 CIS 지역 동반 경기 하락

□ '16년까지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 전망

- '14년 시작된 경제위기, 돌파구 찾지 못하고 '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경제부진에 따른 대유럽 에너지 원자재 수출 감소로 '13년부터 경기둔화
 - * '13년 기준, 러시아 수출의 50%, 외국인투자의 70% 이상을 유럽이 차지
 - '14년 국제유가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위기 촉발
 - 국제유가 정체, 서방의 대리 경제제재 연장 결정 등으로 '16년 말까지 경기 침체 지속 전망

<주요 기관 발표 러시아 경제성장률>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EIU	3.4%	1.3%	0.6%	-3.6%	0.6%
World Bank				-2.7%	0.7%
EBRD				-4.5%	-1.8%
IMF				-3.4%	0.2%
러 경제개발부				-2.8%	n/a

□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CIS 지역 국가 성장률 동반 둔화

- '15년~'16년 CIS 지역 대부분의 국가 경제 성장 추세 하락
 - 무역, 에너지, 투자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에 따라 경기 하락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CIS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세 시현

<러시아 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카자흐스탄	5.0%	6.0%	4.3%	1.5%	2.4%
우즈베키스탄	8.2%	8.0%	8.1%	6.8%	7.0%
벨라루스	1.7%	1.0%	1.6%	-3.6%	-2.2%
타지키스탄	7.5%	7.4%	6.7%	3.0%	3.4%
키르기스스탄	-0.9%	10.5%	3.6%	2.0%	3.6%
아르메니아	7.1%	3.5%	3.4%	2.5%	2.2%
몰도바	-0.7%	9.4%	4.6%	-1.0%	1.5%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5

- (카자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러시아 경기 침체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유전 및 운송망에 대한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급감
 - * 러시아의 대카자흐 직접투자액(백만 달러) : ('12년)2,409 → ('13년)2,083 → ('14년)657
 - 루블화 가치하락에 따른 저가 러시아 제품 유입 증가로 자국 산업 축소
- (우즈벡) 다른 CIS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 부각
 - 주요 전략산업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감소로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
 - * UzGM의 '15년 1-9월 대러 자동차 수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 후방산업인 부품, 플라스틱 제조 등에 부정적 영향 파급
 - 루블화 가치하락, 실업률 상승 등으로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 감소
 - *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우즈벡 송금액은 우즈벡 GDP의 11.9%('13년 기준)를 차지
 - * '15년 상반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우즈벡 송금액 약 54%(11.5억 달러) 감소
-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적은 CIS 국가들에는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친서구 정책 추진 중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과의 가스관 연결로 중국 의존도 확대 중

<러시아 비영향권 CIS 국가 경제성장률 : 2012~2016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상)	2016년(예상)
아제르바이잔	2.2%	5.8%	2.8%	4.0%	2.5%
조지아	6.4%	3.3%	4.8%	2.0%	3.0%
투르크메니스탄	11.1%	10.2%	10.3%	8.5%	8.9%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5

2. 러-서방간 갈등 지속과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

□ 러-서방간 상호 제재 연장 등 양 지역 갈등 당분간 지속 전망

- EU, '14년의 대러경제제재 조치 대부분을 6개월 추가 연장(2015.6.22.)

<서방의 대러시아 주요 제재조치>

제재 형태	주요 내용
자본시장 접근제한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지분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등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등
에너지 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 제한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 (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 허가조치 시행 등)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푸틴 측근 정부 인사, Gazprom, Rosneft, Gazprombank 등이 대상)

- 러시아, '14년 8월 EU,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에 취했던 농식품 금수조치를 '16년 8월까지 연장(2015.6.24.)
- '15년 8월 러시아 '제재식료품 폐기령' 법안 발효로, 벨라루스 등 인근국을 통해 러시아에 유입되는 서방산 식품까지도 폐기 가능
 - * 제재식료품 폐기령 발효 직후 압수된 서방산 식료품 319톤 폐기(2015.8.6.)
- '15년 말 러시아의 시리아 공급으로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고조 가능성 상존

□ 러 정부, BRICS 및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전망

- 중국 및 BRICS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14. 10월), 차관 제공 등을 포함한 러-중간 포괄적 경제협력 체결('15. 5월)
 - BRICS 국가들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 1000억 달러 비상재원을 보유, 회원국 통화 문제 발생 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유럽에서 아시아로 경협 파트너 중심 이동 중
 - 베트남, 태국 등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경협 관계 발전
 - * '15년 3월, 러 총리의 베트남, 태국 방문시 포괄적 경제협력에 합의
 - * 베트남과의 FTA 체결('15.5.29)로 교역대상 품목의 88% 관세 인하 전망

- 극동개발 관련 법안 잇달아 발효, 아태지역과의 협력 강화 예상
 -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및 기존의 유럽 편중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극동개발 정책 지속 강화
 - * '15년 3월, 극동개발을 위한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
 - * '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 선도개발구역(TOR)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한 개념이나, 해당 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놓았다는 것이 FEZ와의 차이. '15. 10월 현재 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의 TOR 구축이 승인되었으며 TOR 입주자 대상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Free Port)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해주 내 15개 시·행정구역이 자유항 지대로 승인. 법인세·고용주세 감면 등의 혜택과 무비자 입국(8일), 통관 간소화, 외국 인력 고용에 대한 쿼터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요 혜택임

- 극동지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부 주도하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로 제1회 '동방경제포럼' 개최('15. 9월)
- * 푸틴대통령, 포럼 개막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세계 경제 견인차로, 아태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라 언급

□ [기회] 서구제품 대체 수요 등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 부상

- 유럽 및 미국산이 장악했던 의료, 농식품 분야에서 대체 수요 확대
 -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타격이 덜한 분야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함.
 - 유럽산 농식품 금수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식료품 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비닐하우스 설비, 농기계, 식품 가공 설비 등의 수요 증가

□ [기회] 러시아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부각

- 러시아의 극동개발, 아시아 중시 정책에 최적 파트너로 한국이 경쟁우위
 - 일본은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경쟁국이자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존재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극동 러시아에 제공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활용 검토 필요

3.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경험환경 변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 EEU 창설 협정에 서명(2014.5.29)
- * 회원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 회원국 전체 인구수 약 1.8억명, GDP 2.5조달러 규모
- *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석유 매장량의 15%를 보유
- * 현재는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지만, 향후 정치, 군사 등의 분야 통합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



- (내부강화) 회원국 확대 및 역내 무역 자유화 증진, 역외국의 회원국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 유도
 - '15년 경제연합 출범 후 아르메니아(1월), 키르기스스탄(8월) 추가 가입
 - 세관통과 절차 철폐를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 확대
 - *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규 세관규정 발효(2016.1.1. 예정)
 - 현재 국가별 제품 인증 및 각종 안전 규정의 통합화가 진행 중
 - 역외국 기업의 건설, 경공업, 의료, SW분야 정부조달 참여 제한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역내 국가간 협력 증가 전망
- (외연확대)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영역 확대
 - 베트남과의 FTA 체결(2015.5.29.)로 국가간 교역 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간소화 등 합의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희망 의사를 피력한 국가는 약 30개국
 - '16년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 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CIS내 전통적 경험관계 변화

-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실크로드 트랜짓 창출 협약 체결('15. 10월)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양국이 광물자원, 농업엔지니어링, 식품, IT 분야 협력 추진
 - 우크라이나의 대러 자원의존도 감소 목적과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경계심이 부합한 결과
 - * 카자흐스탄은 '14-'20년까지의 대외정책개념에서 자국 경제발전 다변화를 주요 국익의 하나로 규정
- 우크라이나-EU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16. 1월)
 - 우-EU DCFTA 발효 시, 수출입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 EU 공공조달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실질적인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국가간 전통적 경험 관계에 변화 불가피
- 중국의 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과 CIS 국가들의 대러 경제의존도 감소 요구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 *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 아스타나에 경전철 교통시스템 구축 합의
 -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 차관 제공 발표, 인프라 건설 협력 제안 등

□ [기회] 유라시아 시장 통합에 따른 투자진출기회 확대 및 수출환경 개선

- 역내교역 확대에 따라 접경지역 중점 도시간 단일시장 형성
 - 러시아-카자흐스탄 접경 지역 2,400만명 인구, GDP 1,112억 달러 시장 형성
-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소국 활용 가능성 증가
 -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및 저임금 등 유리한 입지조건 활용 가능
 - (아르메니아) 친기업 정서, 러시아-이란 쌍방향 진출 교두보로서 활용 가능
- 대륙간 물류허브구축으로 수출환경 개선
 - 중국의 '일대일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줄' 등 대륙간 물류인프라 개선 정책 활발, 수출환경 개선 기대

4. 러시아 및 CIS 주요국, 자국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화

- (육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제조업 육성 움직임 강화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 주요국 환율관리 포기 후 통화가치 급락
 - '14년 말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등 가치하락, 주요국 중앙은행 환율 방어 포기,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 * '14.11.10 러시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15.8.20 카자흐스탄 관리변동환율제 포기
 - '14년 대비 러시아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가치하락하여 수입여력 약화
 - 통화가치 급락에 더해 서방의 대러제재, 러시아의 서방식품 금수조치 등으로 수입대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육성 정책 본격 추진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국가	제조업 육성 정책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15.1.27) -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 러정부와 특별투자협약('15년 7월부 시행)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카자흐스탄	정부지원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선정, 집중지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국산제품 박람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15.3.4) - 1225개 제품의 생산 및 원자재 가공 관련 600개 프로젝트 승인 - 국산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3년간 세제 및 관세 혜택 부여

- 현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조업 전환 및 강화 움직임
 - '14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도소매업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5.6%가 제조업 전환을 희망했으며, 이 중 60.6%가 향후 3년 이내 전환 계획이 있다고 답했음.
 - * 제조업 전환 희망 제품으로는 산업설비 기계 > 일반 잡화 > 건설 기자재 순
 - 러시아 정부가 조성한 산업개발펀드에 약 500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수혜 기업 약 40개사가 선정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이 산업개발펀드 신청 기업 대상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 조사 결과, 약 100여개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중 40여개사는 '한국산업대전'('15.10월, KINTEX) 연계 상담회에 참가 신청하였음

□ (보호) 외국산 공공조달 참여 제한 및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 (공공조달참여제한) 러시아 정부, 외국산 경공업 제품, 의료제품 등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도입
 - '14년 7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반작용 성격, 경제 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확대 적용, 역외국 기업이 회원국의 엔지니어링, 의료 등 법률상 제한된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여 역내 경제활성화 시도

<러시아의 외산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 (비관세장벽강화) 위생검역, 수입제품 특소세 도입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 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 규정 초과 발표('15.8)
 -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 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 몽골,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중)

□ [기회]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설비, 플랜트기자재 수요 확대

- 러시아 등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분야의 기계 설비 및 기자재, 부품 공급 기회 확대
 - 특히, 러시아의 서방산 식품 금수조치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식품제조분야의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위협] 현지 제조기업과의 경쟁심화 및 보호정책 강화는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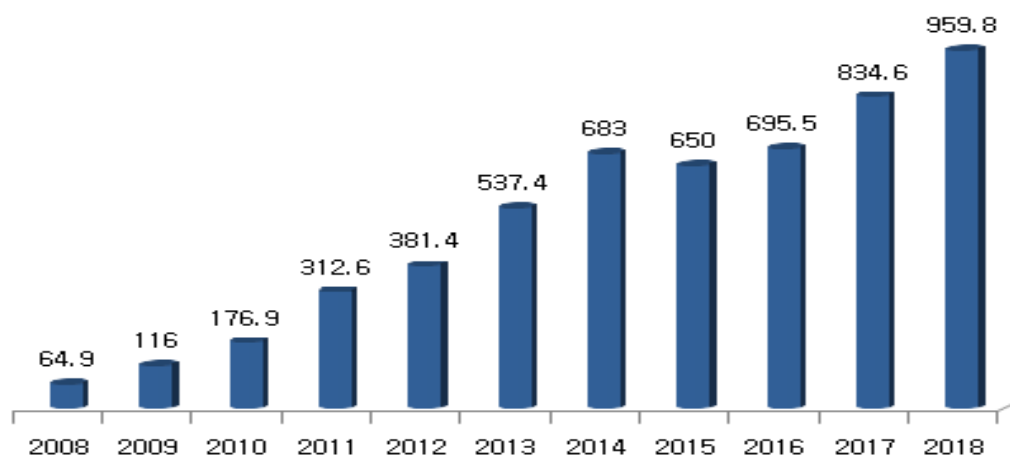
- 제조 기업 확대 및 루블화 급락 등으로 저가 러시아제품과의 경쟁 심화 예상
 - 경기 침체로 저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유라시아연합회원국의 역내 제조품 보호 정책 등은 우리 기업에게 위협요인

5. 경기침체 지속, 수요 다변화 등으로 신성장 시장 출현

□ 경기침체 장기화로 저가 유통시장, 온라인 쇼핑물 성장세

- PL, SPA 브랜드, 가격정찰제 체인점 등 저가 유통시장 형성
 - 러시아 내 대형유통망은 자가상표브랜드(PL) 제품 판매를 확대하여 '15년 말 전체 판매 제품의 20%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4년 러시아 내 고가 의류브랜드 11개 철수 후,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SPA 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 Cortefiel, Superdry 등이 '15년 말까지 러시아 시장진출 예정, H7M, Forever21 등 기존 진출 브랜드는 임대료 인하 기회를 통해 사업 확대 의사 표명
 - 독일의 가격정찰제 체인점 '유로샵', '16년 러시아 진출 계획
- 경기 침체 속, 인터넷 및 물류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활황
 - '14년부터 연평균 7%씩 성장하여 '18년까지 러시아 온라인 쇼핑물 시장은 약 1조 루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단위 : 10억루블)>



* 주 : '15년부터 예상치

* 자료원 : J'son & Partners Consulting

- 알리바바('12년 진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성공에 이어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사인 JD.com(징둥상청)도 러시아 진출('15년 6월)
 - * '14년 러시아 시장에서 알리바바를 통한 판매업체들의 거래 규모 1100억 루블, 알리바바는 러시아 국가간 전자 상거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

□ 러시아, 카자흐스탄 대형도시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 '20년 2천개 브랜드가 10만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며, 시장규모는 5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기 악화 속에서도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 꾸준히 진출
 - '14년 러시아에 Maje, Hooters 등 총 32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
 - '15년에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내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웰빙,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건강식품 수요 증가
 - '14년 러시아 유기농 식품 규모 1억 5000만 달러, 최근 3년간 20% 성장
 - '18년 러시아 건강식품 예상 거래액은 7,039억 루블('13년 대비 11.5% 성장)

□ [기회] CIS 진출 방법 다변화 시점 도래

- 온라인쇼핑, 프랜차이즈, 유통체인 진출 등 CIS 진출 방법 다변화 필요
 - 과거 딜러 거래 방식에 벗어나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같이 소매시장이 성숙된 시장은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2016년 주요 일정

-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규 세관규정 발효 : 2016.1.1.
- 우크라이나-EU 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 : 2016. 1월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자체장 선거 : 2016. 2월(잠정)
- 제20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최 : 2016.6.16.-6.18
- 몽골 총선 : 2016. 6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 2016.7.1
- 제11차 ASEM 정상회의 : 2016. 7월 / 몽골
- 러시아 하원의원(450석, 5년 임기) 선거 : 2016.9.18.
- 제2회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6. 9월
- 상하이협력기구(SCO) 제15회 총회 개최 : 2016. 9월 / 타슈켄트
- 벨라루스 총선 : 2016. 8-9월 중

II 진출환경 분석

CIS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거대한 수입시장이며, 유라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른 경제권 대비 진입장벽이 높으나 진출 후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최근 자국산업 육성 정책, 극동개발 등은 우리 기업이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특성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경제의 약 70%를 러시아가 차지 · 경제력, 정치력을 앞세워 CIS 주변국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자원 의존 경제	· 세계최대 자원보유지역,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50% 이상을 수입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집권,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공공부문 비중 높은 경제구조
양극화 시장	· 소련 붕괴 후 부의 소수 집중 · 최근 경제위기, 환율 급등으로 빈곤층 확대
높은 진입장벽	·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복잡한 법제도 · 독자표준, 높은 언어장벽

○ 러시아 주도 경제

- CIS 전체 GDP의 75.1%, 수출의 69.6%를 러시아가 차지
-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러시아의 CIS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
- 기타 CIS 국가들은 무역·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지

<CIS 주요국의 대러 통상의존도(2014년)>

구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수출비중(%)	42.2	20.3	14.7
수입비중(%)	54.6	24.9	22.8

*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 CIS 소국, 러시아 이주노동자 송금수입 없이는 자국경제 자립 불가

<CIS 주요국 GDP 중 러시아 이주노동자 소득의 비중(2013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31.6%	24.9%	21.0%	11.9%

* 자료원 : World Bank

○ 자원 의존 경제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 지역

* CIS 부존자원 세계 비중 : 가스 35%, 석유 24%, 석탄 22% 등

- 높은 자원 의존 경제로 국제 에너지 시세에 민감

<CIS 주요국 부존자원 현황 및 경제 영향>

국가	부존자원현황 및 경제 영향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8위), 석탄(2위), 철광석(3위) 등 수출의 70%, GDP의 24%가 에너지 자원 유가하락→소득감소→생산소비 감소의 악순환 <천연가스가격과 러시아 GDP> <국제유가와 루블화 환율>
카자흐스탄	석유(9위), 가스(19위), 우라늄(2위), 크롬 등 주요광물자원(10위권)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0% 이상
아제르바이잔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카스피해 소재, 원유(0.4%), 가스(0.6%) 원유 판매액이 수출의 90%, 정부재정의 60% 이상을 차지
우즈베키스탄	금(5위), 우라늄(10위), 천연가스, 석유 다량 보유
우크라이나	석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등 전 세계 5% 비중으로 보유

* 자료원 : 각국 통계청

- 체제 전환 이후 제조기반 붕괴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경제 발전 추진으로 제조업 취약, 공산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 러시아 내 제조업 비중은 약 15%로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수준

* 러시아 제조업 중에서도 정유산업이 총생산액의 2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정부 주도 경제

- 1인 장기 집권,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 안정성 도모

* 푸틴(러시아),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 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 루카센코(벨라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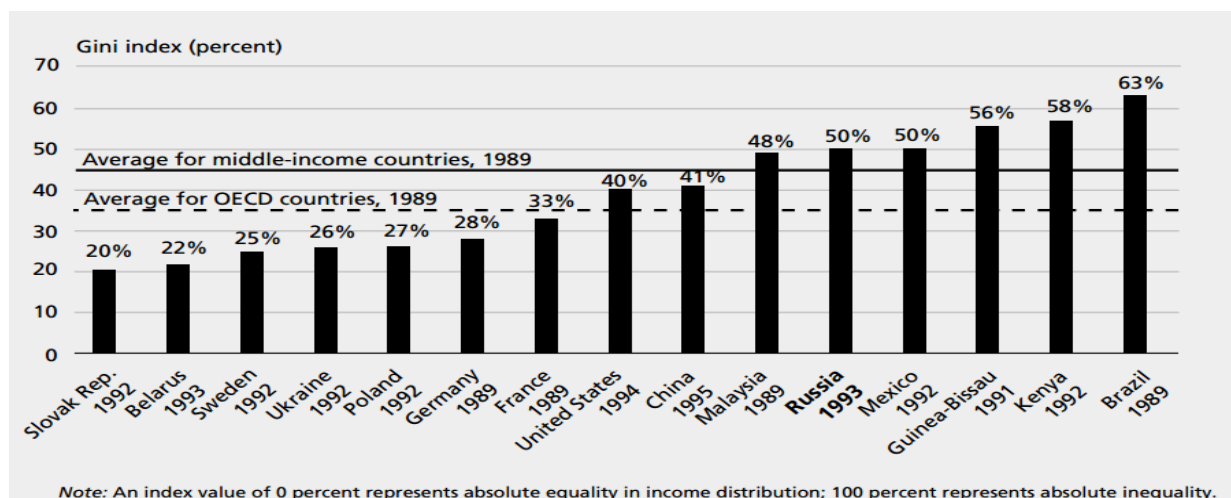
- 가스, 석유 등 주요 산업분야 가스프롬 등 공기업이 차지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정부가 경제를 철저히 계획 통제

○ 양극화 시장

- 체제 붕괴 후,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수 층에 부 집중

* '93년 러시아의 지니계수는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중간소득군의 국가 평균보다도 높았음.

<러시아 및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비교표>



* 자료원 : World Bank

-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며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으나, 소득·소비의 양극화는 다른 경제에 비해 여전히 심각
- '14년 말부터 루블화, 텡게화 등 현지 주요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송금수입이 축소되면서 기타 CIS국으로 빈곤이 확대되고 있음

○ 높은 진입장벽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로 상존

* (러시아) 건설허가 총 21단계, 239일 소요(OECD 평균의 1.6배), 지하시장 GDP의 20-40%규모

- 수입품에 자체 인증(GOST) 요구, 높은 언어장벽, 유라시아 내륙까지의 물류 비용 또한 진입장벽

□ 전략적 가치

거대 수입시장	· 인구 2.8억 명, 총수입액 4,811억 달러의 수입시장 ·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 다대
유라시아 경제 핵심파트너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가능성
자원의 보고	· 세계최대 자원 보유 지역, 우리 유력 자원공급처로 활용 가능 · 자원 개발 협력 수요 막대
풍부한 인재	· 풍부한 노동력 보유,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기술 협력 가능성 무궁

○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거대 수입시장

- CIS 전체 인구 2억 8천만명,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를 바탕으로 2000년 들어 수입시장 규모 약 6배 성장(801억 달러(2001년) → 4,811억 달러(2014년))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GDP 2.5조 달러 단일시장 탄생
- 우리나라와 10대 교역품 중 중복지품목이 전무할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 잠재력이 큰 시장
 - * 한국→CIS 주요수출품 :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컬러TV, 화물자동차 등
 - * CIS→한국 주요수출품 :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중유,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사료 등
- 주력수출품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타 상품 수출 확대 가능
 - * (현대·기아) 러시아 외국산 자동차 브랜드 판매 순위 1위, (삼성) 러시아인 선호 브랜드 3년 연속 선두
- 카자흐스탄 등에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 상승 중, 중앙아 수출확대를 위한 한류 활용 가능성 증대
- 실제 2001~2010년 동안 아시아의 대CIS 수출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

<글로벌 상품 수출 연간 성장률(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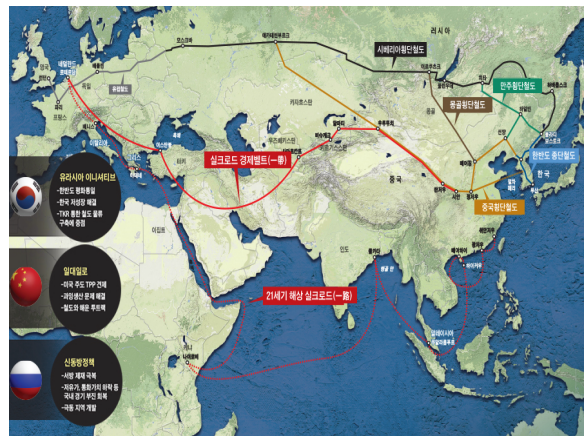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성장률
아시아→유럽	-9.2	4.5	25.1	25.7	15.3	20.3	19.5	12.0	-20.2	26.0	178.6
유럽→아시아	-0.4	7.1	19.2	21.3	7.1	11.3	17.6	12.8	-12.5	22.4	162.2
CIS→유럽	-3.7	8.2	28.1	40.0	39.9	30.5	15.9	36.7	-41.4	30.3	312.9
유럽→CIS	29.6	15.0	30.9	36.4	23.4	30.9	32.9	25.9	-38.8	22.6	439.6
아시아→CIS	12.2	24.3	63.5	46.0	45.9	34.0	60.5	36.2	-47.6	48.5	1006.8
CIS→아시아	1.5	8.6	24.2	30.4	15.6	8.3	29.6	35.9	-17.0	34.3	338.84
아시아→아시아	-10.2	10.5	21.9	25.7	15.0	14.9	15.4	15.7	-15.4	33.2	202.5
유럽→유럽	0.3	7.1	20.7	19.6	7.7	13.8	16.4	10.5	-23.2	10.4	107.3
CIS→CIS	5.5	0.5	28.7	38.5	12.3	27.3	29.8	31.2	-36.9	28.9	274.2
세계	-4.1	4.8	16.9	21.6	13.9	15.6	15.7	15.3	-22.6	21.7	136.4

* 자료원 : Emerging Eurasian Continetal Integration, Vinokurov, 2013

- 다양한 해양 루트 및 시베리아 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잠재력 보유,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 시 러시아의 물류 활용 가치 높아질 것
 - * 북극항로 : 유럽-극동간 거리 50%축소효과, 운송비 25% 절감효과
-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 개발 및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정보 인프라 개발 등 신동방정책 추진,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

<한·중·러 유라시아 정책 비교>



* 자료원 : 조선일보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의 유력 공급처
- 극동러의 목재·수산물,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등 막대한 원자재 개발 가능성
 - * 극동 오호츠크해의 해양생물자원량 : 북태평양 전체의 46%
 - * 우즈베키스탄 면화 산업 : 세계 6대 생산국, 5대 수출국, GDP의 20% 이상 차지
-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을 위한 협력 수요 막대

- 일자리 대비 구직자 넘쳐나는 거대 노동시장,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
 - * 구인처 대비 구직자 비율 : 아르메니아(33:1)>키르기스스탄(13:1)>우크라이나(9:1)>타지키스탄(7:1)>카자흐스탄(4:1) 등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저임금 회원국 활용 가능성 다대
- CIS 내 매년 2만 5천명 가량 박사인력 배출, 저임금, 노후연구시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출 매년 증가
- 기초과학, IT, 우주항공 등 최첨단 분야 인력 활용 및 기술 협력 가능성 풍부

2. 경제 환경

<CIS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 1-9월 전년동기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물동량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103.7	102.1	100.5	101.1	111.4	53.3	105.1	102.6
아르메니아	104.0	104.8	100.1	92.3	92.5	100.5	73.7	98.0
벨라루스	96.3	92.9	86.1	96.6	100.9	73.6	74.4	109.2
카자흐스탄	101.7	99.0	103.5	101.1	102.4	58.2	78.2	102.9
키르기스스탄	106.3	117.4	104.5	101.9	105.6	97.0	78.9	101.1
몰도바	103.6	105.0	97.5	84.8	95.4	82.8	77.0	109.5
러시아	96.5	96.8	94.2	95.4	91.5	68.5	60.8	110.4
타지키스탄	106.4	112.8	122.9	105.5	107.3	101.2	76.8	103.6
투르크메니스탄	108.7	-	107.9	105.1	119.5	-	-	104.7
우즈베키스탄	108.0	108.1	109.9	104.3	115.0	-	-	-
우크라이나	85.4	83.4	90.8	84.5	77.7	66.1	66.1	141.4
CIS전체	96.7	96.7	95.6	97.3	92.3	67.1	65.6	114.3

* 자료원 : CIS통계위원회

* 주 : 일부 통계는 상반기까지 혹은 8월까지의 비율

□ (경제성장)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경제 침체 장기화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함께 저유가, 루블화 약세,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겹치면서 '15년 러시아 경제 3.5~4.4% 가량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러시아의 '15년 경제성장률 : (1분기) - 2.2%, (2분기) - 4.6%, (1-8월) - 3.8%

- 러시아에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CIS 주변국으로 러시아 경기불황이 전이되면서 '15년 GDP는 벨라루스 - 3.6%, 카자흐스탄 1.5% 등 동반 경기 하락 예상

- CIS통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CIS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5년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생산)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 감소

-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 마이너스 예상
- '15년 1-8월 러시아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해 5.2% 감소 시현

* 부문별로 운송장비 - 16.7%, 기계장비 - 14.7%, 전기전자광학 - 14.7%, 비금속 - 10.8% 등

- 카자흐스탄(-2.1%~-4.2%), 우크라이나(-22.5%~-5.8%) 등의 '15년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마이너스 시현

□ (소비)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크게 위축

- 러시아의 '15년 8월까지 실질임금은 연간성장률 기준 9.0% 감소하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은 3.1% 감소하여, '15년 러시아 소비 지출 크게 감소 예상
- '15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급등하였으며, 1-9월 소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하였음
- * 러시아 중앙은행은 '15년 물가상승률을 12-1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월별 소매판매증가율이 '15년 들어 - 20% 내외를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난해(10% 내외)보다 크게 떨어진 2% 내외의 성장세 보이고 있음.

□ (교역) 유가하락, 환율 급등으로 CIS 교역액 크게 축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비중이 큰 CIS 국가의 수출구조 상, 국제유가 하락은 '15년 CIS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32.2% 감소 255.6백만 달러('14년 상반기)→173.4백만 달러('15년 상반기)
- * (카자흐) 전년동기대비 44.8% 감소 39.3백만 달러('14년 상반기)→21.7백만 달러('15년 상반기)
- 환율 급등으로 CIS 수입시장 크게 위축
- '14년 대비 러 루블화 약 80%, 카자흐스탄 텡게화 약 57% 환율상승, 아제르바이잔 33.5% 평가절하 등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약화
- CIS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5년 3분기까지 CIS 수입시장이 34.4% 축소되어, '15년 30%~40%의 수입액 감소는 불가피
- 러시아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큰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CIS국가의 교역구조도 전체 CIS지역 교역액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환율) '16년까지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 60루블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장관은 지난 10월 초 '15년 루블화 평균환율을 61루블, '16년은 63.5루블로 전망
- 로이터 통신이 10월 1일 실시한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달러대비 루블화 환율은 향후 12개월 기준 65루블 수준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9월 보고서에서 '15년 연평균 루블화 환율은 62.3루블, '16년 61루블, '17년 58.2루블 수준으로 전망

3. 산업 환경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 CIS 자동차 시장, 최근의 경기 침체로 크게 위축
 - '15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경기가 악화되는데다, 루블화 약세로 완성차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 하락세가 심화, 약 35%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의 UzGM는 주요 판매루트인 러시아 시장 축소로 '1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대러 자동차 수출액이 약 51% 감소

<연도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판매>

		2013년	2014년	2015년
승용차 생산	대수	1,919,599	1,683,677	1,261,074
	증가율(%)	-2.6	-12.3	-25.1
승용차 판매	대수	2,597,720	2,260,016	1,473,530
	증가율(%)	5.4	-13	-34.8
인구 1천명 당 승용차 대수		261.3	269.7	277.9

* 자료원 : 유럽비즈니스협회, 유로모니터('15년은 예측치)

- 시장 위축 속 러시아 진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생존 경쟁 중
 - GM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폭스바겐, 포드 등은 정리해고를 통해 시장 침체에 대응하고 있음
 - 반면, 도요타, 현대는 현지 생산 차종 확대, 생산라인 확대를 통해 GM 등이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주요 자동차사 러시아 판매 대수 및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판매량(대)		
	'14년1-9월	'15년1-9월	증감(%p)	'14년1-9월	'15년1-9월	증감(%)
AVTOVAZ	30,6	32,7	2.1	544,066	390,229	-28.3
KIA	7,7	10	2.3	137,421	119,738	-12.9
HYUNDAI	7,5	10	2.5	132,849	119,385	-10.1
VW Group	10,9	10,1	-0,8	193,354	120,27	-37.8
TOYOTA	7,3	7,4	0.1	129,412	87,898	-32.1
GM Group	7,8	4,6	-3.2	138,404	55,429	-60.0
MERCEDES-BENZ	2,4	3,3	0.9	42,31	38,845	-8.2
FORD	2,5	2,2	-0.3	44,938	26,546	-40.9
MAZDA	2	1,8	-0.2	35,28	20,944	-40.6
기타	21.3	17.9	-3.4	381,927	213,439	-44.1
전체	100	100	-	1,779,961	1,192,723	-33.0

* 자료원 : 유럽비즈니스협회

- UzGM,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차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
 - UzGM은 '15년부터 '20년까지 신차 개발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16년 Aveo, '17년 미니밴 및 해치백, '18년 크로스오더 차량 등 신규 생산 예정
 - 우리 자동차 부품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의 기회 전망
 - * UzGM과 협력 중인 한국 기업은 330여개, 현지합작 투자 부품사도 15개 이상 진출해 있음
- 러시아 현지 자동차 부품 조달 수요 지속 증대
 - 러시아 진출 완성차 메이커들은 러시아 정부와 맺은 계약 이행을 위해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필요, 현지 진출 외국 부품사와의 협력 수요 지속 증대
 - * 러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러시아 생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러정부와 계약 체결 시 특정부품의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도별로 현지부품조달비율 증대 의무를 부과하였음.

<주요 자동차 회사 부품 현지화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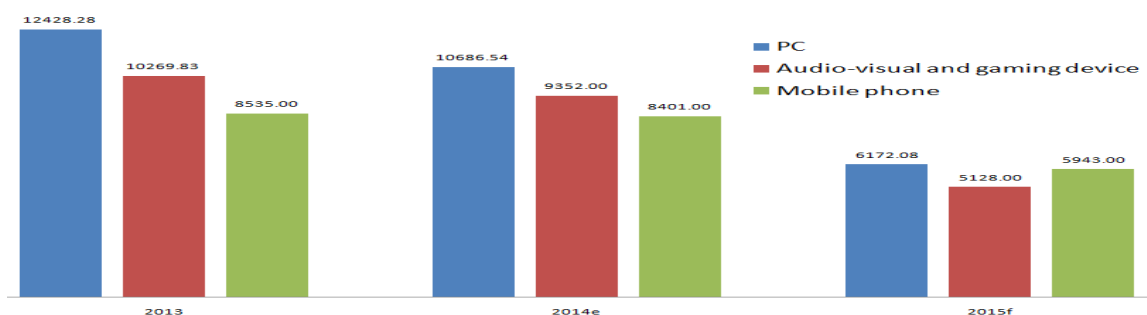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현황
르노	로간(Logan), 산데로(Sandero) 등 주요 차량 부품 현지화율 약 75%
폭스바겐	부품 현지화율 약 50%선 유지중
포드	현재 부품 현지화율 30%, 2019년까지 83-85% 증가할 계획 발표.
도요타	현지화율이 10-30%로 아직 낮은 수준
AvtoVAZ	파트너사인 르노-닛산과 함께 Togliatti 특별경제구역에 LADA 등 주요 차량용 엔진 부품 제조공장 설립 추진
Avtotor	칼린그라드에 12억루블 규모의 제조공장 설립 계획 발표

* 자료원 : 유로모니터

□ 전자기기 및 ICT 산업

- IT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크나, 경기 침체로 성장세 주춤
 - (러시아) 4G 신규투자, 모스크바지하철 wifi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 등
 - (카자흐) '정보화 카자흐스탄 2020프로젝트' 계획 수립, 전자정부·지능형교통 시스템·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이러닝 시스템 등 4가지 분야 집중 투자 예정
 - (우크라) 행정·의료·교육 정보화 니즈 증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증가

<러시아의 IT 기기 연도별 판매 금액(백만 달러)>



* 자료원 : 유로모니터

□ 에너지 산업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여건 악화
 -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 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지속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드릴링 장비, 해양 석유 개발 장비 등의 대러 수출 금지, 서방의 대러 에너지개발 협력 중단 등 개발 환경 악화
- (러시아) 원유생산은 소폭 증가, 천연가스 생산 급감

<연도별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원유생산 (백만톤)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518.1	1.3	523.4	1.0	526.7	0.6	354.2	1.3
가스생산 (백만㎥)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654,500	-2.4	668,200	2.1	642,100	-3.9	353,024	-15.5

* 자료원 : 러시아에너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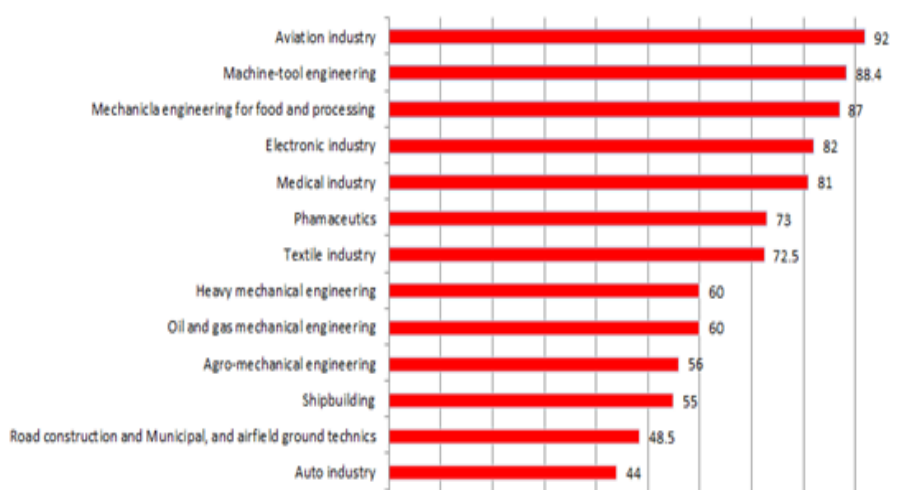
- '15년 8월까지 러시아 원유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절하 덕에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 러시아 에너지 장관, “전 세계 석유회사들의 수익은 40% 감소했지만, 러시아 회사들은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수익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 이는 산유량 증산의 이유”라고 발표
- 반면, '15년 8월까지 천연가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으로 수입선을 단기간내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이 반영
- (우즈베크) 2015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완공, 10월부터 생산 개시
 - 2006년 한-우즈베크 정상간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르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
 - 수르길에서 생산된 가스는 110km 떨어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플랜트에서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은 향후 25년간 연 840억원 수준으로 추정
- (카자흐) 2014년 카샤간 유전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16년까지 카샤간 유전 석유생산 불가
- (아제르) '17년 말~'18년 초 샤흐데니즈 가스전 2단계 생산(연간 160억㎥ 추가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정책 · 규제 환경

□ CIS 주요국, 제조업 육성 정책 본격화

- (러시아)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 본격 추진
 - '14년 말 루블화 급락, 서방의 제재조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5년 1월 '2015 경제위기 대응계획' 내에 제조업 육성 정책 포함, 본격 추진
 -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중점지원 수입대체산업으로 지정, 자금지원, 투자혜택 등 제공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 자료원 :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최근 정책 동향>

정책	주요 내용
산업개발펀드	'15년 1월 러정부 수입대체산업 지정 산업산업별 수입대체계획 발표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규모) 조성, 수입대체산업 분야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특별투자협약	러시아 내 생산설비 설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 계획 외국기업이 러시아 정부와 '특별투자협약' 체결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15년 7월부터 시행)
PPP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2015.7.13 채택, 2016.1.1. 발효) 제정 민자사업을 관리할 연방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 PPP사업 체계의 통일성 강화 기존 양허계약법과는 달리 특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소유권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공공사업자로 이전

- (우즈벡) '2015~2019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 '2015-2019 생산구조 개혁 및 현대화·다양화 보장 방안 프로그램' 대통령 승인(2015.3.4.)
- 이에 따라 국산화 프로그램 대상 품목 생산 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
- (카자흐) 정부지원 7대 산업 선정 중점 지원
 - 비자원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7대 중점분야 선정, 세제 혜택 등 지원 집중
 - 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 정책 지속 추진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공공조달에 역외국 기업 참여 제한
 - 엔지니어링 제품, 경공업, 의료, SW 등으로 제한 범위 확대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공공조달 참여제한 주요 품목>

분야	품목
기계류	불도저, 트럭, 버스, 특장차(소방차, 크레인 등), 트레일러 등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품 냉장고, 의료기기(심박동기, 적외선장비 등), 정형외과장비, 엑스레이장비, 검사기기
경공업제품	가죽제품, 가방(트렁크, 카메라케이스 등), 텍스 매트 솜, 부직포, 여성 의료, 스타킹류, 장갑류, 그물 등

*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
 - 러시아 소비자보호원, 외국 브랜드 세제의 유해성분 규정 초과 발표('15.8)
 - 벨라루스, 신규위생검역제도 도입('15.9), 수입소비재 별도위생검사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16.7)
 -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시멘트·문 등의 수입품 관세 6.5~20% 인상

□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통합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2015.1.1.)으로 유라시아 거대 단일 경제권 탄생
 - 회원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 회원국간 관세철폐, 세관통과 절차 취소를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 확대
 -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 규정의 통합화 진행 중

□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추세

- 체제 전환 이후, CIS 지역은 과거 구소련 연방국간의 FTA 체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통적 경협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관계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을 결성하여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과의 갈등, 극동개발의 필요성으로 아시아와의 협력 관계 발전 모색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14.6), 이에 러시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수입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러시아 간의 FTA 효력이 자동 소멸됨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감소 노력
- (유라시아경제연합) 베트남과 FTA 체결(2015.5.29.)로 교역대상 품목의 88%가 관세 인하 전망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의향을 나타낸 국가는 약 30개국으로 '16년부터 인도, 이집트, 이란, 중국 등과의 FTA 협의가 구체화될 전망
- (우크라이나) 북미, 유럽 지역과의 FTA로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 노력
 - '15년 말 캐나다와의 FTA 발효 예정
 - '16년 1월 우크라이나-EU간 포괄적 FTA 발효 예정, 이로써 EU와의 무역액 중 수출 99.1%, 수입 98.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서비스 무역 및 전자상거래 시장이 통합되며, EU의 공공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베크 FTA 공동연구 수행 합의('15. 7)
 -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FTA 체결 시 큰 파급효과 기대
- (몽골) 일본과 FTA 체결('15. 2)
 - 몽골 최초의 FTA로, 중국과 러시아에 치우친 경협관계를 극복하고, 미국·일본·한국 등과의 협력 관계 확대 희망

□ 러시아 극동개발 강화

- 러-서방 간 상호제재 연장과 함께, 러시아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면서 동북아·아태지역으로 경제 활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 확대
- '14년~'15년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주요 법안 확정 및 발효, '동방경제포럼'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행사 개최

<극동개발 관련 주요 법안 입법>

- 2012년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으로의 발전)** 표방
- 2012년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확정(이후 '14.4월 개정)
-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 발효**(극동 9개 지역 우선추진 대상 지정)
- 2015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발효** ('15.7 푸틴대통령 서명)

- (TOR) 극동에 기존의 러시아 특별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개발

<선도개발구역 추진 지역 및 투자혜택>



TOR는 일반 특별 경제구역에 비해 세율이나 적용 기간 등에서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큼.

구분	TOR	특별경제구역
소득세	10년간 0%	2%
재산세	10년간 0%	10년간 0%
토지세	10년간 0%	5년간 0%
보험료	7.6%	14%
입주기간	최장 70년	최장 49년

* 자료원 : 러시아 극동개발부, 경제개발부

- (자유항)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기존의 특별경제구역 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항 설립 법안 발효
- 수출입관세를 면제하는 특별통관제도, 세제감면, 외국인 무비자 체류(8일간), 항구지역 내 의료 활동 허가 등의 혜택 제공
- 향후 아태지역의 통상 및 교통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무역동향

○ 대CIS 교역액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국제유가 하락,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CIS 주요국 수입 여력 떨어져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한 5,429백만 달러를 기록
- (수입) 루블화 등의 약세로 CIS 주요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반영되어 '15년 9월까지 우리의 대CIS 수입액은 9,2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4.7% 증가하였음.
- (수지) 우리의 대CIS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15년 들어 적자폭 확대

<한-CIS 간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천톤,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15.9월	5,429	-52.7	1,361	-40.4	9,219	-29.5	33,069	14.7	-3,790
'14년	14,140	-10.0	2,853	-13.7	17,093	38.9	38,288	32.2	-2,953
'13년	15,704	-0.4	3,307	-3.6	12,308	-2.0	28,953	11.3	3,396
'12년	15,761	7.7	3,431	2.8	12,557	3.5	26,004	3.8	3,204
'11년	14,629	32.3	3,337	25.4	12,134	8.3	25,045	1.8	2,49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대CIS 주요 수출품목 급감, CIS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증가

- 승용차(-66.2%), 자동차 부품(-38.6%), 합성수지 (-46.9%), 건설중장비 (-74.0%) 등 우리의 주력제품 '14년에 이어 대부분 수출 감소
- CIS 지역 제조업 활성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 10대 수출품 중 유일하게 기타기계류만이 '14년에 이어 수출이 증가

* 한→CIS 기타기계류 수출 : '14년 91.7백만 달러(16.4%증가), '15년 9월까지 85.9 백만 달러(48.7% 증가)

- 유연탄(5.9%), 천연가스(17.4%), 사료(9.9%) 등 원자재 수입 지속 증가,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는 금액기준으로 30.9% 감소한 2,77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량기준으로는 27.8% 증가하였음

□ 투자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대 CIS 투자는 5,544백만 달러
-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 CIS지역 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국
5,544	2,510(45.3%)	2,229(40.2%)	638(11.5%)	167(3.0%)

* 주 : 괄호안은 각국별 비중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분야로는 제조업(2,198백만 달러, 39.7%), 금융 및 보험업(833백만 달러, 15.0%), 건설업(521백만 달러, 9.4%), 광업(438백만 달러, 7.9%)순
- 국별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은 대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 카자흐스탄은 금융·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
- 중견·중소기업 중 현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기업은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그 외는 물류 또는 무역업에 종사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신규투자>

회사명	분야	주요 동향
롯데 호텔	호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4억 달러 투자, 5성급 롯데호텔 건설 중으로, 2017년 5월 개점 예정. 현재는 모스크바에 호텔과 백화점 운영 중
현대 자동차	자동차	'16년 러시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지역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1개 차종 추가생산 예정. 성우하이텍 등 중소 협력사들 생산설비 확장 추진 중
GS 홈쇼핑	소매	'15년 7월 21일 러시아 통신사이자 케이블TV 운영사인 로스텔레콤과 2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Boom-TV 설립. 홈쇼핑 제품 소싱 추진 중
대상	식품	'15년 6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 자료원 : CIS 지역 무역관

- CIS국가들의 대 한국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 저조한 대한 투자 원인은 러시아 자원, 에너지 기업의 유럽 및 여타 CIS 위주의 투자와 다른 CIS국가들의 부족한 투자진출 여력에서 발생

III 시장 분석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에서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독일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CIS 수입시장 중 약 3% 가량을 점유해 10대 수입대상국 중 하나이다.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이다.

우리 기업들의 CIS 투자진출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제조공장이 진출하여 있으며,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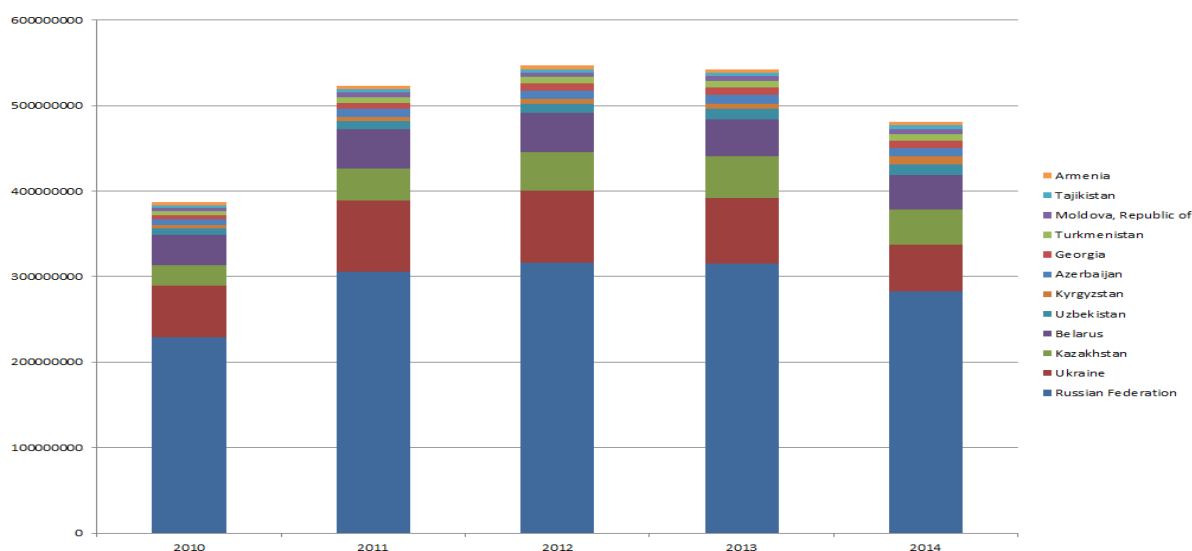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CIS 진출이 활발하였으나, 러시아와 서방간 갈등 속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협력을 구실로 CIS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 수출

□ CIS 지역 수입시장 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수입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
 -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입 규모로, 미국 혹은 중국의 수입 규모의 약 1/4 규모
- 러시아의 수입이 전체 CIS 수입시장 규모의 60%에 육박
 - CIS 전체 수입시장에서 러시아 58.7%, 우크라이나 11.3%, 카자흐스탄 8.5% 등

<CIS 지역 국별 수입비중 및 최근 수입 추이>



* 자료원 : ITC Trademap

○ CIS 수입 시장 축소 심화

- '14년 CIS 수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4% 감소한 481,048 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도 '13년 2.9%에서 '14년 2.6%로 축소
- 우크라이나 $\Delta 29.3\%$, 카자흐스탄 $\Delta 15.6\%$, 아제르바이잔 $\Delta 14.7\%$, 러시아 $\Delta 10.3\%$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 컸음
- 최근 저유가,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러-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15년에도 지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5년 상반기 수입액 전년동기대비 러시아 32.2% 감소, 카자흐 44.8% 감소

<CIS 지역 최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액(증감률)	523,240(35.1)	546,808(4.5)	542,731($\Delta 0.7$)	481,084($\Delta 11.4$)
세계수입시장내 비중	2.9%	3.0%	2.9%	2.6%

* 자료원 : ITC Trademap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장 크며, 독일, 미국 등의 순임.

- '14년 기준 중국 16.2%, 독일 9.5%, 미국 5.0%, 이탈리아 3.6%, 터키 3.4% 등
-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CIS 지역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Delta 11.4$	100.0	100.0	100.0
1	중국	78,066	81,362	77,767	$\Delta 4.4$	14.3	15.0	16.2
2	독일	53,142	53,406	45,699	$\Delta 14.4$	9.7	9.8	9.5
3	미국	22,893	23,937	24,093	0.7	4.2	4.4	5.0
4	이탈리아	19,007	20,136	17,336	$\Delta 13.9$	3.5	3.7	3.6
5	터키	15,857	16,939	16,314	$\Delta 3.7$	2.9	3.1	3.4
6	프랑스	17,311	17,406	14,009	$\Delta 19.5$	3.2	3.2	2.9
7	폴란드	13,391	15,048	13,555	$\Delta 9.9$	2.4	2.8	2.8
8	일본	19,051	16,966	13,535	$\Delta 20.2$	3.5	3.1	2.8
9	한국	16,097	15,256	13,275	$\Delta 13.0$	2.9	2.8	2.8
10	영국	11,537	12,115	10,507	$\Delta 13.3$	2.1	2.2	2.2

* 주 : CIS 역내국 제외

* 자료원 : ITC Trademap

- 품목별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입이 많음.
- '14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15.8%, 전자제품 9.8%, 자동차 9.4%, 광물연료 8.0% 등이었음
- * 광물연료의 수입이 많은 것은 역내 거래가 포함되었기 때문
- '14년 들어 서방의 제재, 환율 급등 등으로 10대 주요 수입품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폭이 컸음

<CIS 지역 주요 품목별 수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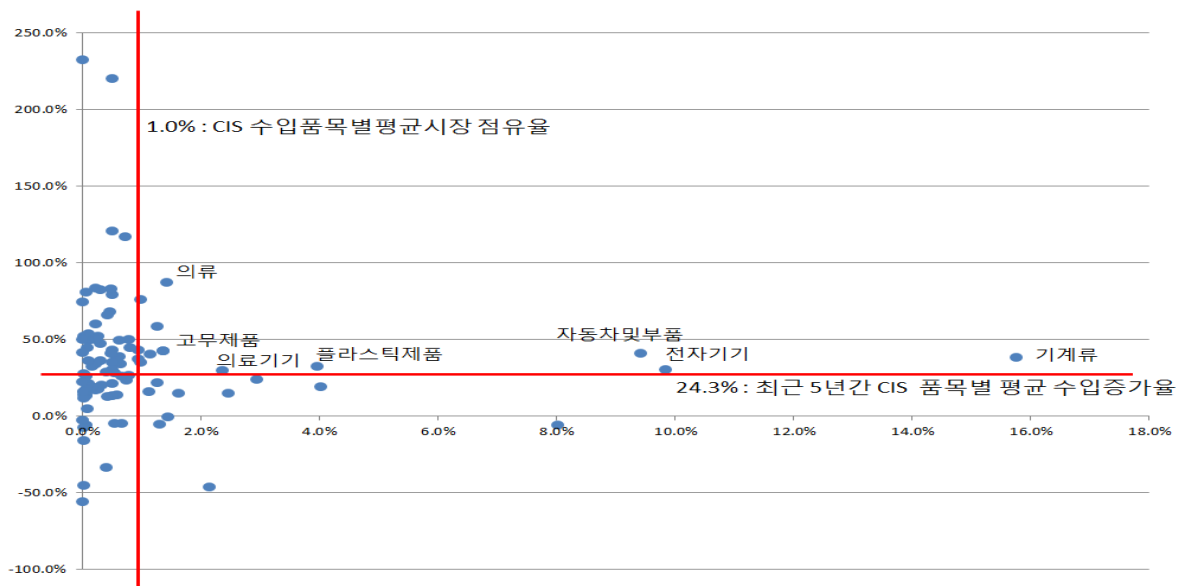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수입액				비중		
			2012년	2013년	2014년	14/13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46,808	542,731	481,084	△11.4	100.0	100.0	100.0
1	84	기계류	84,100	84,367	75,791	△10.2	15.4	15.5	15.8
2	85	전자제품	51,601	51,848	47,374	△8.6	9.4	9.6	9.8
3	87	자동차	61,346	58,365	45,308	△22.4	11.2	10.8	9.4
4	27	광물연료	58,491	48,802	38,561	△21.0	10.7	9.0	8.0
5	30	의약품	20,319	21,900	19,335	△11.7	3.7	4.0	4.0
6	39	플라스틱	19,713	20,318	19,028	△6.3	3.6	3.7	4.0
7	73	철강제품	17,253	18,281	14,219	△22.2	3.2	3.4	3.0
8	72	철강	14,376	13,786	11,846	△14.1	2.6	2.5	2.5
9	90	의료기기	14,328	12,906	11,293	△12.5	2.6	2.4	2.3
10	99	기타제품	2,041	1,691	10,238	505.4	0.4	0.3	2.1

* 자료원 : ITC Trademap

-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제품, 의료기기, 고무제품, 의류 등의 수입 증가율도 평균 이상이고, 수입량도 많아 중점 수입 분야로 분류됨

<CIS 지역 주요 수입품>



* 자료원 : ITC Trademap

□ CIS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동향

- CIS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14년 기준)은 2.8%로 9위의 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 자동차, 차체,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평판압연강판 순이며, 주로 중국, 독일, 일본 등과 경쟁구도 형성

<대CIS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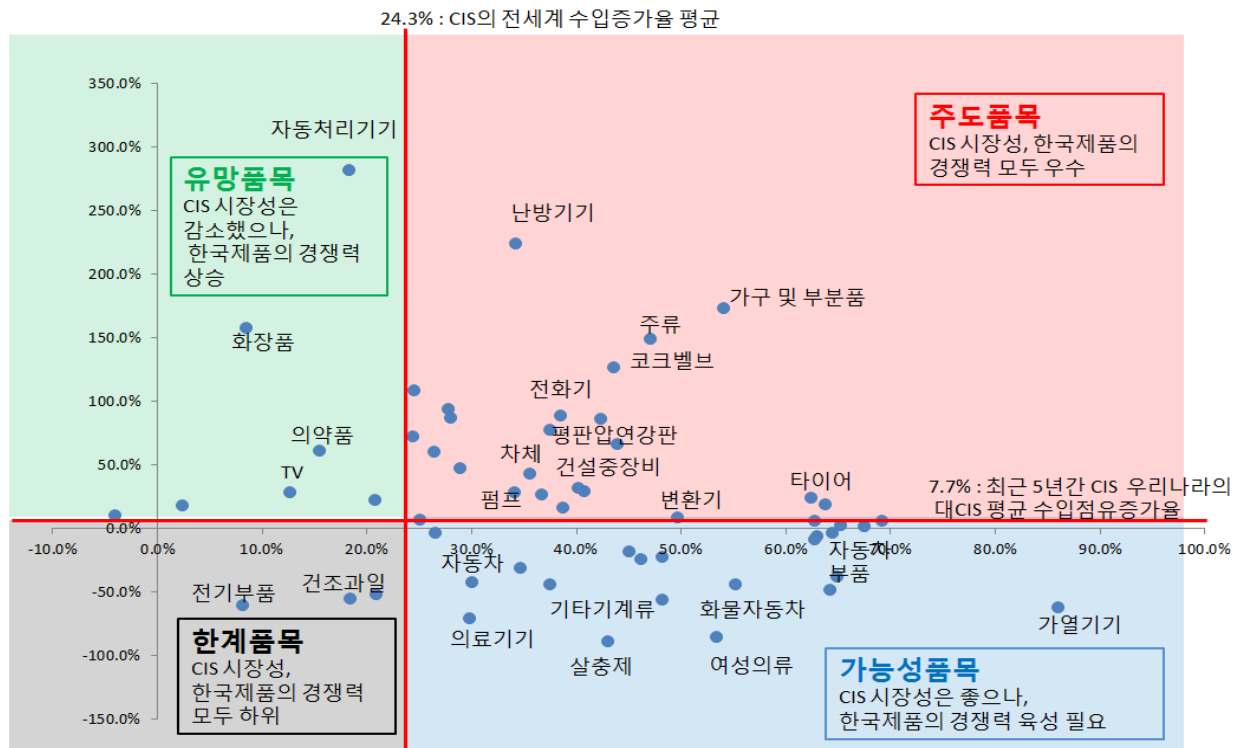
순위	자동차부품(8708)		자동차(8703)		차체(8707)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한국	19.6	일본	24.4	한국	24.0%
2	독일	13.9	독일	14.7	슬로바키아	22.5%
3	중국	13.1	미국	14.1	일본	22.3%
4	일본	11.1	영국	10.8	독일	14.4%
5	루마니아	4.4	한국	5.5	미국	4.7%

순위	내연기관(8407)		건설중장비(8429)		평판압연강판(7210)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중국	22.3	중국	26.8	중국	33.7
2	한국	16.9	일본	17.3	한국	11.2
3	일본	15.1	한국	12.2	벨기에	4.5
4	독일	12.4	영국	9.5	터키	4.5
5	루마니아	6.6	미국	6.2	독일	3.4

* 자료원 : ITC Trademap

* 주 : HS code 네자리수 기준

<대 CIS 주요 수출품목 중 우리제품 경쟁력>



□ CIS 지역 수입 규제 동향

국가	수입 규제 동향		
러시아	서방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단행		
	일자	내용	
	'14.8.6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로부터 농산물 다수 수입 금지	
	'15.4.20	EU 중 일부 국가(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 수입금지 조치 해제	
	'15.6.24	서방산 식품 수입 금지조치 2016년 8월까지 연장	
우즈베키스탄	'15.8.13	식품 금수조치 대상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등으로 확대	
	'15.9.1	부로 식품, 화학, 일부 펌프류 등에 대한 관세·소비세 인상을 담은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벨라루스	'15.9	국무회의 의결 666호로 수입 소비재에 별도의 위생검사 의무 도입	
우크라이나	품목	기간	세부사항
	철강파이프 (HS730429)	'11.10-'16.09	19,504톤 이상 수입금지 (2015.10.01. - 2016.09.30)
	식탁, 주방용품 (HS691110)	'14.05-'17.05	·제한조치 실행 직후 관세: 35.6% ·제한조치 실행 12개월 후 관세: 32% ·제한조치 실행 24개월 후 관세: 28.8%
몽골	계란·가공육류·맥주·아이스크림·시멘트·문·창문 등 수입품 관세를 6.5%~20%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특소세 인상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HS코드 8711(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13년):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금지		

□ 우리기업의 대CIS 수출 성공 사례

☞ 수출기업 : H사

☞ 품 목 : 식품포장기계

☞ 진출과정 :

- H사는 '07년 바이어 발굴을 시장조사서비스 실시 후 바이어 O사를 직접 접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 수입상 O사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H사와의 수입 상담을 중단코자 결정
- 수출 상담의 중단 위기에 처한 H사는, 부산 출장 차 H사를 방문한 해당 무역관 직원에게 생산 공장을 적극 소개하였고, 직원은 제품 공정과정 및 신제품을 촬영하여 수입상 O사와 다시 접촉하여 관련 자료 시연
- H사는 '07년 키예프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 O사와 17,720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
- '08년부터는 무역관이 신규로 소개한 K사와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현재까지 연간 4만 달러 규모로 식품포장기계를 수출 중

☞ 시사점

- CIS지역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
- 현지 진출(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KOTRA 지사화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

2. 투자진출

□ 대CIS 투자진출 특성 및 최근 동향

- CIS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은 802,638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합계
금액	510,326	126,587	74,472	26,203	19,872	19,326	9,002	6,532	3,915	3,906	2,499	802,638
비중	63.6	15.8	9.3	3.3	2.5	2.4	1.1	0.8	0.5	0.5	0.3	100

* 자료원 : UNCTAD

- '14년 대CIS 외국인직접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 '14년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55.1% 감소한 42,1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6.4%에서 '14년 3.4%로 크게 감소
 -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격히 감소

<대CIS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러시아	50,588	62.7	-8.2	69,219	73.7	36.8	20,958	49.7	-69.7
카자흐스탄	13,337	16.5	-4.6	10,221	10.9	-23.4	9,562	22.7	-6.4
아제르바이잔	2,005	2.5	36.8	2,632	2.8	31.3	4,430	10.5	68.3
투르크메니스탄	3,130	3.9	-7.7	3,076	3.3	-1.7	3,164	7.5	2.8
벨라루스	1,429	1.8	-64.3	2,230	2.4	56.0	1,798	4.3	-19.3
우즈베키스탄	563	0.7	-65.6	686	0.7	21.8	751	1.8	9.5
우크라이나	8,401	10.4	16.6	4,499	4.8	-46.4	410	1.0	-90.9
아르메니아	489	0.6	-5.1	370	0.4	-24.3	383	0.9	3.4
타지키스탄	232	0.3	45.1	105	0.1	-55.0	261	0.6	149.6
키르기스스탄	293	0.4	-57.8	626	0.7	113.9	211	0.5	-66.4
몰도바	195	0.2	-32.3	236	0.3	21.1	207	0.5	-12.2
합계	80,661	100	-8.8	93,900	100	16.4	42,135	100	-55.1

* 자료원 : UNCTAD

□ 우리기업의 CIS 투자진출 동향

- '1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CIS 투자 누적액은 5,544백만 달러이며, 국별로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로의 투자가 전체 CIS 투자액의 85.5%를 차지
- 경기침체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CIS 직접투자 규모는 변화는 크지 않음.
 - '14년 우리나라의 CIS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3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도 소액이지만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CIS주요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러시아	107	122	114	42
카자흐스탄	192	174	159	63
벨라루스	-		14	
우즈베키스탄	19	13	12	1
키르기스스탄	2	4	3	1
전체	321	313	301	107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40%로 비중이 가장 큼.
 - 제조업(39.7%), 금융·보험업(15.0%), 건설업(9.4%), 광업(7.9%) 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는 대기기업의 현지공장 건설로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카자흐스탄은 금융·보험업, 건설, 제조업 등 투자분야가 비교적 다양한 편임

<우리나라의 CIS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제조업	2,198	39.7
금융·보험업	833	15.0
건설업	521	9.4
광업	438	7.9
도소매업	302	5.4
농림어업	180	3.2
기타	1,072	19.4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주요 경쟁국의 CIS 투자진출 동향

- CIS 지역의 경기 침체, 러시아-서방간 갈등 지속으로 자동차, 부동산, 소매,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비즈니스 위축
- CIS 경기 침체 중에도 자국산업 보호·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조사들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장이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유럽 기업들의 사업 축소 경향이 크며,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서방간 경제제재 틈새로 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독일
 - 지리적 인접성, 독일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대형 유통망까지 독일 기업의 CIS 지역 진출 활발
 -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러시아에서 독일 기업의 매출액은 약 200억 유로일 정도로 활발한 비즈니스 전개 중
 -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이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타 분야에서는 신규투자가 활발함.

☞ (Bosch) '15년 6월 모스크바에 Headquarter 개소, '15년 7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ABS, ESP 제조 공장 설립

☞ (ABB) '15년 6월 러시아 리페츠크 지역에 저전압 스위치기어 제조공장 설립

☞ (Siemens AG) '15년 6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 고용량 가스터빈 제조공장 설립

- 중국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투자 확대
 - * 2009-2018 중국 동북부와 극동·시베리아 지역 협력 프로그램 추진
 - * 러중 경제통상지구 조성을 통한 제조, 물류분야 투자 활성화
 - 서방과 러시아간 갈등관계 속, '일대일로'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CIS국가와의 협력 강화
 - * (카자흐) '15.5.7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 요청, '15.5.16 중국 철도그룹, 아스타나에 경전철 교통시스템 구축 합의
 - * (벨라루스) '15.5.10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시 '일대일로' 정책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70억 달러 차관 제공 발표, 인프라 건설 협력 제안 등

☞ (Lifan) '14년 10월 러시아에 공장 설립을 위한 3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17년까지 공장 완공 예정

☞ (JD.com) 중국 제2의 온라인 쇼핑몰로 알리바바의 중국진출 성공에 힘입어 '15년 6월 진출

○ 일본

-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극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러시아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확대 중

- ☞ (Toyota) 59억 루블을 투자, '15년 말까지 공장 확대 및 현대화할 계획, 연간 생산량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 (Toyota-Atsumitec) '15년 7월 러시아 톨리야티 지역에 기어박스 제조 공장 완공. '15년 8월부터 생산 시작
- ☞ (Cokey System) '14년 9월 아스트라칸 지역 제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16년 2분기 완공 목표
- ☞ (Hitachi Zosen Inova) '15년 6월 러시아 Rostec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지역에 15개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 계획 발표

○ 미국

- 러시아와의 갈등 심화와 CIS 경기침체로 양국 비즈니스 협력 축소

- ☞ (GM) '15년 3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후, 벨라루스로 생산기지 이전 계획
- ☞ (Ford) 전직원 2000명 중 700명 구조조정 시행했으나, 현지 생산 기종 확대
- ☞ (Esprit) '14년 9월 러시아 시장 철수 발표

□ CIS 투자진출 진입장벽

- CIS 지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외국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음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 수준, 인프라 부족 등이 진출 리스크
 - 자체 인증(GOST), 높은 언어장벽, 내륙까지의 물류비용 또한 진입 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 진출기업 : 오리온
- ☞ 품 목 : 과자류
- ☞ 진출과정 :
 - '93년 러시아에 초코파이 직수출을 시작한 후, '96년 8월 모스크바에 대표 사무소 설립
 - 러시아 수요증가로 '04년부터 즈베니고르드에 소규모 공장 운영
 - '06년 2월 트베리 지역에 초코파이 생산 공장 설립
 - '07년 9월부터 현지생산 제품을 CIS 국가에 수출
 - '08년 2월 노보시비르스크에 제2공장 설립
 - 현재 오리온 초코파이는 러시아 파이류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IS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등에 수출 중
- ☞ 시사점
 - 신속한 투자 진출 결정으로 시장 선점
 - 현지 입맛을 고려한 제품 개발, 현지 브랜드 정착화 노력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 밀가루 등 경쟁력 있는 원료 공급이 용이한 러시아를 생산 거점화로 역내 수출 확대

IV

시장진출전략

CIS 시장은 유가하락, 서방과의 갈등 장기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 극동개발, 틈새시장 출현 등 다양한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기업역량 및 시장 내 위치를 분석하고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게 장단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1. 진출전략 개관

<CIS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높은 공산품 수입 의존, 거대 수입 시장 ○ 유럽-아시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의 보고 ○ 저렴한 노동력, 첨단기술 보유	<Opportunities> ○ CIS 주요국 제조업 육성 정책 확대 ○ 러-서방 갈등 장기화, 서구제품 대체수요 ○ 러 극동개발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대 ○ 유라시아경제연합 강화, 역내 교역 확대
<Weaknesses> ○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 복잡하고 변경이 많은 법제도, 지하경제 ○ 사회 전반의 인프라 노후화 ○ 높은 언어장벽, 열악한 물류, 독자인증제도	<Threats> ○ 러 경기침체 장기화가 CIS 전역으로 확대 ○ 환율불안, 수출환경 악화 ○ 보호주의 확대, 러 제조기업과 경쟁 심화 ○ 정세급변 가능성, 비즈니스 리스크 상존
<시사점> ○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 발굴과 공략방안 구축 ○ 러시아의 극동개발 및 아시아 중시정책 적극 활용 ○ CIS의 새로운 트렌드와 신시장 개척 등 시장 선도방안 마련 ○ CIS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 ○ 언어장벽, 독자인증 등 초기진출 장벽 극복을 위한 유력파트너 발굴	

□ 시기별 진출 전략

단기	◆ 경기 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발굴 및 공략 ◆ 미개척 지방시장 적극 개발 ◆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산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중장기	◆ 투자진출 분야 및 지역 다각화·고도화 ◆ CIS 경험 환경 변화 활용,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활용

□ 기업역량별 진출 전략 : 경기불황 속 역량별 차별화된 진출전략 구사 필요

기업역량	확대가능기업	현상유지기업
시장 내 위치	Market Leader	Market Follower
진출전략	적극 확대 경기불황을 시장 점유 및 사업 확대의 기회로 인식전환 신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투자 확대 등으로 비즈니스 기회 확장	리스크 관리 경기불황기에 순응한 비용절감 내수와 수출 비중 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사례	러 식품기업 로세보(Losevo)사 ·'14년말 4억 루블 신규투자 ·기존 유제품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식가공 영역을 통해 '15.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30% 증가	노키아사(타이어제조 러진출기업) ·'15.1분기 루블화 급락 추세에 대응, 러시아에 타이어 판매를 축소하고 러시아산 해외수출 확대로 전략 수정 ·'15년 상반기 러시아 매출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순이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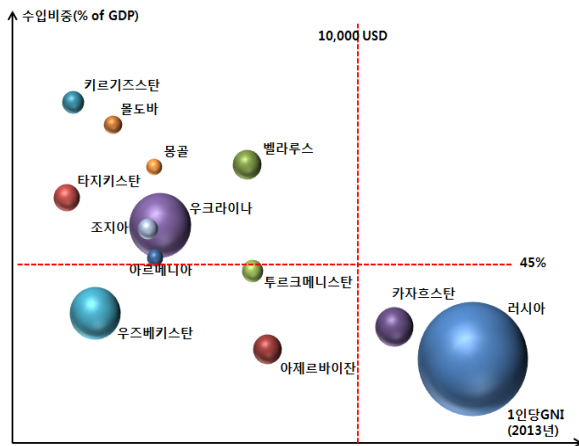
□ CIS 권역별 진출전략

구분	성숙시장권역	개방시장권역	관리시장권역
	러시아/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 벨라루스 몰도바 / 우크라이나 조지아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단기	◆ 수출상품 다변화 ◆ 마케팅 지방시장 진출 강화 ◆ 마케팅 고도화 ◆ 조달시장의 적극 공략 ◆ 제조업육성 정책 적극 대응	◆ 우리제품의 新시장화 ◆ 유력업체 파트너링 ◆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적극 대응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대응 ◆ 국제공여자금 적극 활용 ◆ 시장진출에 용이한 터키, 露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중장기	◆ 투자진출분야 다각화 ◆ 러 극동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 ◆ 북극항로시대 대비	◆ EU와의 지정학적 연계에 적극 대응 ◆ 선제적 투자 진출 통한 EU/EEU 진출 전략 강화	◆ 투자진출을 통한 폐쇄적 시장 한계 극복

[참고] CIS 시장 권역 분석

□ CIS 시장 권역 구분 : 소득과 대외경제의존도 기준

- 2013년 1인당 GNI 1만불을 기준으로 시장의 성숙도 분류
- GDP 중 수입액 차지 비중(2009~2013년 평균) 45%**를 기준으로 대외시장의존도 분류



권역		국가
미성숙	성숙 시장	러시아, 카자흐스탄
	개방 시장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몽골
	관리 시장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 원의 크기 :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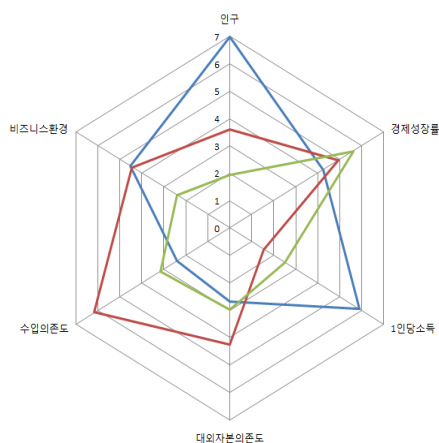
** 수입비중 45% : G7국 중 가장 GDP 대비 수입비중이 높은 독일의 수치

□ 권역별 시장 특성

권역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 GNI (달러)	순자본유입 (백만 달러)	WTO가입	원유/가스
성숙 시장 권역	러시아	143.4	13,860	70,653.7	○	가스(1위) 원유(8위)
	카자흐스탄	17.0	11,380	9,738.5	추진 중	원유(9위) 가스(19위)
개방 시장 권역	우크라이나	45.2	3,960	3,771	○	가스(24위)
	벨라루스	9.4	6,270	2,232.7	추진 중	
	타지키스탄	8.1	990	107.8	○	
	키르기스스탄	5.6	1,200	757.6	○	
	몰도바	3.6	2,460	251.1	○	
	조지아	4.5	3,570	1,020.5	○	
	아르메니아	3.0	3,790	370	○	
	몽골	2.8	3,770	2,150.9	○	
관리 시장 권역	우즈베키스탄	30.2	1,900	1,077	미정	가스(18위)
	아제르바이잔	3.0	7,350	2,619.4	미정	원유(0.4%)
	투르크메니스탄	5.2	6,880	3,061	미정	가스(4위)

* 자료원 : 월드뱅크 2013년 통계 등

시장권역별 시장 특성 분석



- 인구 : 시장성숙권역을 기준으로 한 나머지 권역의 크기
- 경제성장률 : '10-'13년 평균 경제성장률
- 1인당소득 : 2013년 기준
- 대외자본의존도 : 2013년 대외순자본 유입의 GDP 비중
- 수입의존도 : 최근 5개년 각년도 수입의 GDP 비중 평균
- 비즈니스 환경 : 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 2014 순위를 토대로 작성

○ 성숙시장권역

- 풍부한 자원, 막대한 인구 등을 바탕으로 1인당 GNI(Gross Nation Income) 1만불 이상으로 성숙한 시장, 성숙시장으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안정
- 러시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 활동 중이고 경쟁 치열한 편

* 순자본유입 : 러시아 707억 달러, 카자흐스탄 97억 달러

- WTO에 기가입했거나 가입 추진 중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양국 모두 유라시아경제연합 서명국으로 CIS 경제 통합의 중심

○ 개방시장권역

- CIS 국가 중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적거나 전무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인구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 천만 이하임
-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로 미성숙시장이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대외자본의 GDP 차지 비중도 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음.
-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모두 WTO에 가입하였으며, 벨라루스도 가입을 추진 중

○ 관리시장권역

- 가스, 석유 등 주요 자원 보유량이 풍부하나, 1인당 GNI는 1만 달러 이하의 미성숙 시장임.
- GDP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으며, 모두 WTO 미가입국이며 추진 계획도 없음. 정부가 시장을 관리.
- 자원개발을 위해 몇몇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진출해 있음

2. 세부 진출전략

2-1. 경기침체 속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기계설비	의료	농축산, 식품	미용, 건강
기회 요인	- 러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우즈베크 국산화프로그램 등 - 러 중소기업 60%가 3년내 제조업 전환 희망('14년 KOTRA 설문)	- 불황에도 CIS의료 시장 수요 유지 - 의약품, 원료 수출 성공사례 증가 (녹십자, 동원제약 등) - 러 한국 의료관광 증가로 인지도 증가	- 서방産 식품 금수로 러 국내 농축산 확대 - 농장, 식품공장 설립 움직임 확대 - 러 정부 농기계 구입 자금 대출 확대 발표 ('15.1월, 경제부)	'미샤' '토니모리' 등 전문 매장 진출 확대 - 중앙아 한류 확산 한국 화장품 인기 상승 - 러시아 내 건강식, 유기농에 대한 관심 고조

□ (기계설비) CIS지역 제조업 육성정책 수혜 기업 및 신규 설비 투자 기업 마케팅 강화 및 유력 전시회 참여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인지도 확대

○ (대상) 제조 분야 신규투자 및 설비확장 추진 기업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 수혜 기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 가입 기업
-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부품 현지화 비율 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의 러시아 유력 제조사
- 서방의 대러제재로 유럽산 기계, 설비 이용이 어려워진 석유가스, 인프라 분야 러시아 공기업

○ (전략) 전문전시회 참여 통한 한국제품 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타깃기업 공략

- 유럽산 기계 설비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 품질(내구성) 및 거래 지속성 등 강조

□ (의료) 불경기에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대규모 제약사, 의료기기 대형 디스트리뷰터 등을 타깃으로 집중 마케팅

○ (대상)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유한 의료, 의약품 분야 대기업

- Pharmstandard 등 러시아 및 러시아 진출 외국 제약사
- 러시아 대형 병원 및 의료 전문 디스트리뷰터
- 의료기기 교체 수요가 있는 공공 의료시설 및 신규 민간 병원

- (전략) 고부가가치 의약품 공급 확대 및 의료기기 대체/신규 수요 적극 발굴
 - 항암제, 패치형 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 러시아 제약사 대상 공급
 - 병원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 우리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 확대

□ (농식품) 러시아의 서방 식품 금수조치에 따른 신규 설비·원료 수요 적극 대응

- (대상) 러시아 농축산 및 식품 유력기업
 -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자체 생산이 필수적인 유력 식품 제조사
 - 전략적으로 농장 및 농축산 저장, 물류 시설을 확대하는 농축산 대기업
 - 독자적인 상권을 보유한 러시아 지방 농축산 및 식품 기업
- (전략) 러시아 기업과 기계, 원료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립, 협력
 - 러 농축산 기업 대상 농기계 및 자재·원료 공급 추진
 - 식품 기업 대상 식품 가공, 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기계 공급
 - 온실, 식품공장 설립 등 농식품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참여 추진

□ (미용) 서구제품과의 차별성 강조, 마케팅 다각화를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보장하는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및 대형 온라인 쇼핑몰
- (전략) 유력 딜러 발굴, 기능성 강조, 중양아 한류 인기 활용
 - InterCharm 등 대규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신뢰도 있는 딜러 발굴
 - 저온건조 기후, 동양여성보다 얇은 서양여성 피부 고려, 제품 현지화 필요
 - 동안미인에 대한 관심 증가, 피부노화 방지, 기미 제거 등 서구 제품과의 차별되는 효과 강조
 - 혁신성을 갖춘 아이디어 제품이나 웰빙 유기농 화장품 시장 등 공략
 - 지방상권 공략, 인터넷 및 뷰티살롱 등 틈새 바이어 발굴 중요

□ (건강) 제품현지화, 유력 딜러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대상)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취급 유력 딜러 및 디스트리뷰터
- (전략) 유력 딜러 발굴, 현지 선호 제품 개발
 - 대규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유력 딜러 발굴
 -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 남성용 운동 보조식품 등 현지 선호 제품 개발

2-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현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수출 확대

- 러시아·카자흐스탄 온라인 유통 규모 증가세
 - 러시아 온라인 유통 규모 지속 성장, '18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7% 비중, 약 1조 루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불황 및 루블화 등 통화 가치 하락으로 온라인을 통한 저가(중국산, 러시아산) 상품 구매 급증
- 러시아·카자흐스탄은 소매시장이 성숙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 환경도 개선되어 온라인 유통망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 모색 시기 도래
 - 러시아·카자흐스탄의 지방 중소권 소매시장 공략 방안으로 활용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역내 상품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 전망
- (전략)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및 국내 유력 유통망 동반 진출 추진

<러시아 유력 온라인 쇼핑몰>

회사개요		특징
회사명	오존	- 판매상품 : 14개 카테고리 350만 제품 - 주요상품 : 서적(33%), 전자기기(26%) 등 - 결제수단 : 현금, 은행카드, E-money, 핸드폰 소액 결제 - 배달 자회사 'O-Courier' 운영(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베리 지역 24시간 이내 배송) - '11년부터 카자흐스탄,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판매시장 확장
홈페이지	www.ozon.ru	
설립연도	1998년	
회사명	울마트	- 주요상품 : 전자기기(7만 5000여 상품) 등 - 결제수단 : 쿠폰,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 자사 트럭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 구축(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2시간 이내 상품 배달)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ulmart.ru	
설립연도	2008년	
회사명	Enter sbyaznoi	- 주요상품 : 가구, 전자기기 - 결제수단 : 현금, 은행카드, 상품권, 온라인 은행 - 1000개 이상 출하지점 보유, 러시아 전 지역 배달 가능 - '14년 매출 '13년에 비해 30% 상승 12억 달러 기록
홈페이지	www.enter.ru	
설립연도	2011년	

- '15년 말 GS홈쇼핑이 러시아에서 TV 홈쇼핑 개시 예정, GS 홈쇼핑과 동반 진출 적극 추진 필요

□ 조달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채널 확대

- 러시아의 정부조달시장 성장 지속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 채널 다각화 필요
 - * 2013년 기준, 러 공공조달 시장규모 약 6,500억 달러
- 자국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참여나 입찰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야로, 투자진출 또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타진 필요
- 조달 시장은 서구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으로, 서구 제품 대체 수요 다대
- 공공조달 원청 수주는 자격요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벤더 대상 제품수출 공략이 현실적
- 전자재, 산업설비, EPC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진출 유망
 - * 진출사례 : D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시영버스 공공조달을 수주한 바 있으며, H사는 현재 러시아 도로 아스팔트 보강재 조달 사업을 추진 중임.

<'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시공	23.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서비스	2.30	15	보안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 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	0.52

* 자료원 : 러시아연방조달청

-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B2B)분야도 적극 활용
 - 건설 중장비, 의료 기기 등 고가 장비 중심으로 현지 리스기업 성황

[참고] 현지리스 대표기업 : Siemens Finance

- 사업형태 : 파이낸싱, 리징
- 사업분야 : 에너지, 의료, 인프라건설 등 B2B 솔루션 제공
- 러시아 사업현황
 -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22개 도시에 지사 보유
 - 러 전역 중소기업들과 1만개 이상 리스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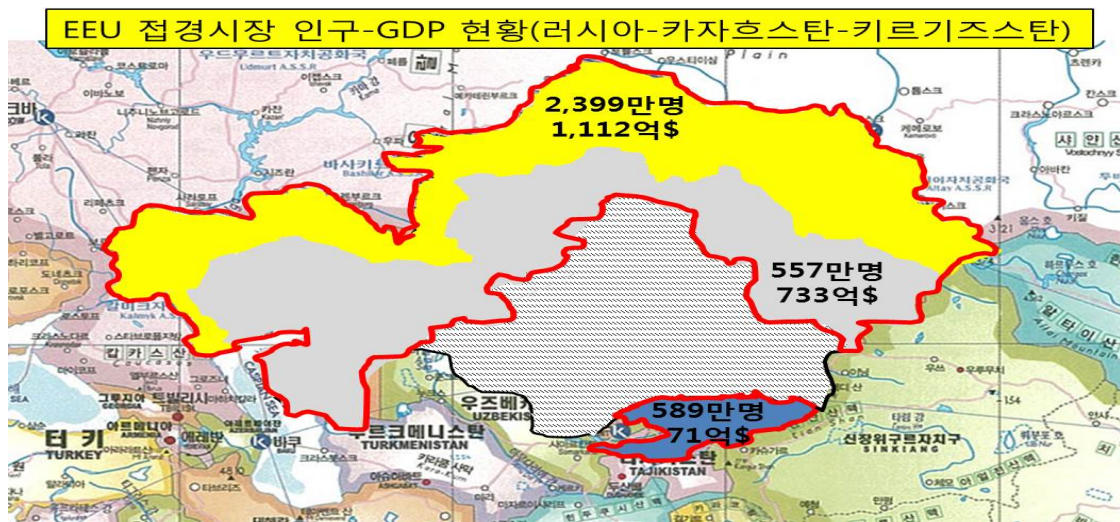
2-3. 미개척 거대 지방상권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

□ CIS 지역 미개척 거점 시장 다대

- 조지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미개척 CIS 국가가 잔존
- 러시아 내 인구 100만 도시 13개, 50만 이상 도시 21개가 존재하며, 지역 개발 확대로 지방 도시 인구의 구매력 상승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진출 부족
 - * X-5, Auchan 등 대형 소매체인, 러시아 중부 및 시베리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진출 완료

□ 유라시아경제연합 접경지역 거대 상권 개발 필요

-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교역 확대로 접경지역 중심 거점도시간 단일 시장 형성
 - 유라시아경제연합 탄생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에 인구 약 3천만, GDP 1,200억 달러 거대 상권 출현
 - * 역외교역 증가(평균 30%)에 비해, 역내 교역 증가율이 높음(평균 40%)



- 접경지역 거점도시 조기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필요

< EEU 접경지의 주요 거점도시 현황 >

국가	2선 도시	인구(백만)	주요산업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1.3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옴스크	1.1	기계, 식료품, 경공업 등
	이르쿠츠크	0.6	통신, 가공업, 무역업 등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9	건설, 무역, 물류 등
	침켄트	0.8	농업, 화학, 무역 등

2-4. CIS 투자진출 다각화·고도화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유라시아경제연합 활용 투자진출 다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 예상
 - 산업 특성, 진출 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 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 국가별 우위산업, 진출여건, 활용가치 등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 필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간 주요 투자환경 비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법인세(%)		20	20	18	10	20
개인소득세(%)		13	10	12	10	26
부가가치세(%)		18	12	20	12	20
사업진입장벽	창업소요일	13	10	9	8	3
	소요절차수	5	6	5	2	2
평균임금(달러)		597	648	450	193	369
최저임금(달러)		390	127	166	19	113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활용가치>

국가	활용가치
러시아	인구 다대, 높은 소득, 소비 성숙
카자흐스탄	중앙아 최대 소비시장, CIS 최대 소비시장인 러시아와 국경인접
벨라루스	중공업 발전, IT 인재 풍부,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접
아르메니아	낮은 비즈니스진입장벽, 친이란 국가로 이란 시장 교두보로 활용가능
키르기스스탄	친기업적 조세제도, 저임금으로 방직공업등 노동집약산업 진출 유리

□ 우크라이나 등 EU 진출 기지로 활용

-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정치적, 지리적으로 EU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 가능
 - 지리적으로 EU와 CIS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 '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EU와 경제협력협정을 맺었으며, '16년 1월 우-EU간 포괄적 FTA 발효가 예상됨

□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활용, 러시아 투자진출 지역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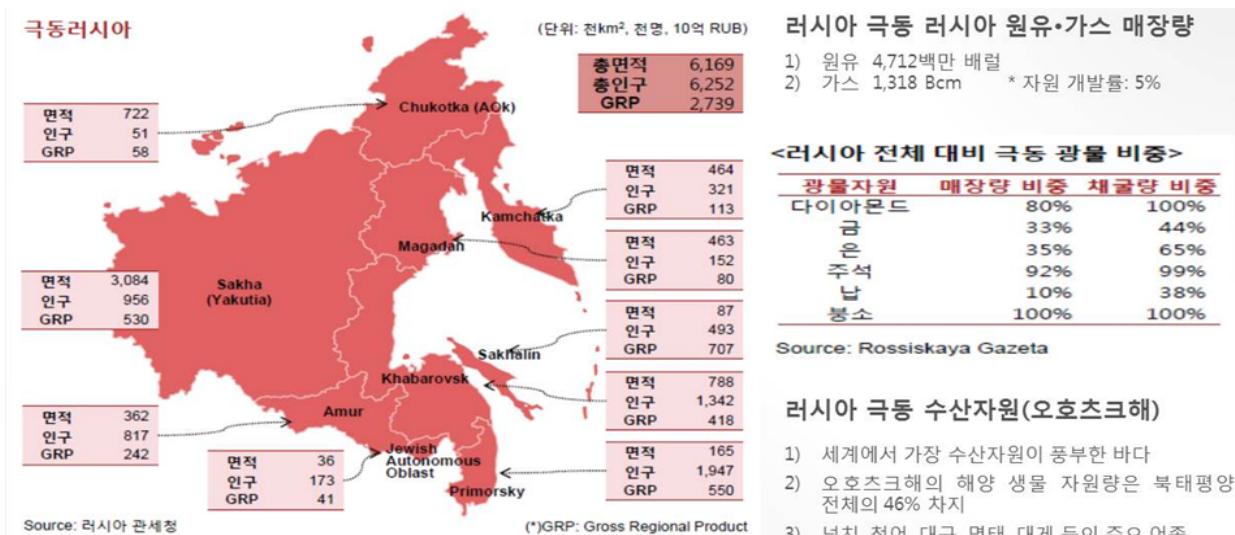
- 선도개발구역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 극동개발 본격화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투자기업에 러시아 내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선도개발구역별 특징>

선도개발구역	규모(ha)	특징
나제진스키	807	- 제조 및 물류단지로 육성 - 러 INKOM-DV사 등 입주 희망
하바롭스크	716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단지로 육성 - 호주 역청탄 업체 'Bitumania'와 입주 관련 논의 진행 중
쿰소몰스크	327	- 제조 및 산업단지 육성 - 수호이의 항공정비 및 생산공장 설립 추진 예정
미하일롭스카야 (연해주)	207.7	- 작물 생산, 사육, 가공, 물류까지 식품 생산 전 과정 클러스터 조성 - RusAgro 돈육공장 프로젝트 등 예정(약 1억4000만 달러 규모)
벨로고르스크 (아무르주)	687	- 아무르주 내 농업 발전에 초점 - 구역 내 3개의 사료공장 및 콩 가공, 제분공장 설립 예정
베링고프스키 (추코트카주)	596	- 석탄채굴 및 항만산업을 연계한 특화 공업단지 조성 - 육상, 항만으로 등 인프라 개발, 향후 대아시아석탄 수출 계획 - 오스트레일리아 'Tiger Realm Coal Limited'가 투자 관심 표명
캄차카 (캄차카주)	708	- 항만, 관광레저, 수상교통, 농업에 중점 - 캄차카 내 호텔, 복합레저센터 등 건설 계획
칸갈라스 (사하공화국)	16.9	- 사하공화국 내 최초 승인된 TOR로 화학 및 건설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 2018년까지 총 13개 업체 입주 예정

- 극동지역 인구 및 소득 수준이 낮아 역내 시장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극동의 자원을 활용, 제조 수출기지화가 가능할 경우 수익성 확보 가능

<극동러시아 잠재력>



* 자료원 : 국민대 이상준 교수 자료(유라시아진출협의회)

□ 소비재·서비스 분야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진출 고도화

- 러시아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25% 성장했으며, 2020년 경에는 2천개 브랜드, 10만개 매장, 3천~5천 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형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 확대 중
 - '14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더페이스샵' 러시아 1호점 개점
 - '15년에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커피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1호점을 개점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소비가 성숙된 시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뷰티살롱 등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CIS 진출 확대 모색 필요

□ M&A 활성화를 통한 진출 고도화

- 자동차부품, 조선, IT 등 우리 기업 우수분야의 러시아 기업 M&A를 통한 시장 진출 고도화

<러시아 기업 M&A 사례>

분야	내용
IT	한국의 K사는 러시아의 IT 관련 제조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러시아 생산 거점 구축을 계획 중
자동차부품	한국의 S사는 러시아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유력 자동차 부품사 인수 검토 중
유통	러시아 F사는 자사의 100여개가 넘는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공 식품 유통이 가능함을 제안, 인수 타진 중

*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러시아 투자진출 유망분야 >

유망분야	선정사유,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 러 경제개발부 및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방침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생산량 확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 부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해당 분야 바이어의 추가 수요 발굴 및 장기적으로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 진출 계획 수립이 필요

* 자료원 :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2-5.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IS 시장 진출 확대

주력분야	전자제품, 중공업 등 제조 현지화 프로젝트 참여
신성장분야	IT, 의료, 환경 분야 전략 프로젝트 참여 지원
특수공략	2017 아스타나엑스포, 2018 러시아월드컵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제조 현지화(Localization) 프로젝트 참여

- 자국산업 보호 및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수출에서 현지생산 체제로 전환
 - 전자제품, 중장비, 각종 부품 등 현지생산 수요 발굴,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러 스바지엔지니어링 현지생산 프로젝트>

러시아 전자제품 1위 제조기업.(PCB, 인버터, LED, 태양열 등, 연매출 1억달러)
고압 변압기, 디스플레이, LED램프, 태양광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제조
공장 설립, 공동투자 등 프로젝트 추진 희망



- CIS 시장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등 폐쇄성 극복 방안으로 활용
 - 러시아 정부의 외국산 공공조달 참여 금지, 우즈베키스탄의 지정수출산업 이외 산업의 외환거래 통제 등 CIS 국가 대부분 외국산에 대한 진입장벽 도입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우즈베크 정부의 국산화 프로그램을 활용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필요
 - CIS 주요국은 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하여 외국기업 투자 시 세제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특구 인센티브 활용 진출도 적극 검토 필요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



* 자료원 : RUSSEZ, 유라시아진출협의회

□ IT/의료/환경 등 신성장 분야 프로젝트 진출

- CIS 지역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병원설립, 폐기물처리 등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에 참여
- 신성장 분야의 경우 EBRD, EDCF 등 국제공여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구사 필요

<주요 프로젝트>

분야	국가	발주처 및 프로젝트
IT	러시아	• 러시아 중앙은행의 '러시아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비니짜市 AFC 도입 프로젝트(9백만 유로, EBRD 자금)
의료	러시아	• 러시아 Renova사 '에카테린부르크 의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 러시아 Nanolek(제약) 의약품 제조 공장 설립 프로젝트
	러시아	• 러시아 '폐기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장비 공급 추진
환경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5천만 달러 규모, EDCF 자금)

□ 아스타나 엑스포, 러시아 월드컵 등 특수 공약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진출

- '16년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시장의 최대 이슈 : "Astana Expo-2017"
- 총 12억 5천만 유로(16~17억 달러) 투입, 전시관 호텔 등 인프라 건설 예정

· Astana Expo 2017 개요

	○ 주제 : 미래의 에너지 (Energy of the future)
	○ 기간 : 2017.6.10일-9.10일 (3개월)
	○ 면적 : 부지면적 113헥타르, 전시 센터 25헥타르
	○ 총사업예산 : 12억 5천만 유로

- '18년 러시아 월드컵 관련 시설, 설비 등 공급 추진
- 경기장 건설 주계약자와 협력 계약을 통해 전광판, 조명, 시스템 구축 등에 참여

<월드컵 개최 도시와 경기장 주계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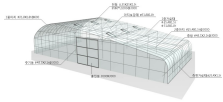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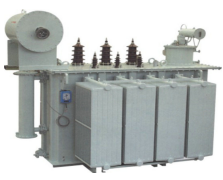
경기장명	도시	경기장 주계약사
Luzhniki	Moscow	Mosinzproject
ZenitArena	St. Petersburg	TransStroy
ArenaBaltika	Kaliningrad	CrocusGroup
Yubileyniy Stadium	Saransk	PSO Kazan
ArenaPobeda	Volgograd	StroyTransGaz
VolgaArena	NizhnyNovgorod	StroyTransGaz
SamArena	Samara	PSO Kazan
Otkritie Arena	Moscow	PozhEuroStroi
Levberdon Arena	Rostov-on-Don	CrocusGroup
CentralnyjStadion	Yekaterinburg	SinaraGroup
KazanArena	Kazan	PSO Kazan
Fisht	Sochi	SMU Krasnodar



별첨 : 수출유망품목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2.02-5
		수입액('14/백만달러)	12,040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493
	선정사유	CIS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은 한국산 차량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및부품시장이 환율불안으로 침체되었으나, 시장잠재력이 큰 만큼 성장가능성이 큼			
	경쟁동향	주요 경쟁업체들은 독일, 일본 업체들과 저가 중국산 등.			
	진출방안	OEM수출은 제조설비를 현지에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움. A/S시장에 경험이 많은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격관련 조율이 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감시카메라	HS Code	8525	수입관세율(%)	2.63
		수입액('14/백만달러)	963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21
	선정사유	보안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시장동향	보안장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안장비 시장은 연간 15% 내외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저가의 중국산 수입도 많음			
	진출방안	보안장비 취급에 경험이 많은 유통회사를 통해 체계적인 진출 필요. A/S가 중요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식품생산설비	HS Code	843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백만달러)	1,13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4.6
	선정사유	러시아의 서구산 식품금수 조치로 러시아 내 자체 식품 생산 설비 확장 움직임 확대			
	시장동향	2015년 1-8월 기간, 러시아의 여타 기계 산업은 14.2% 감소하였으나, 식품기계는 오히려 1.9% 증가.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식품산업 성장 전망			
	경쟁동향	러시아 식품 관련 기계는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산 기계임			
	진출방안	아직까지 한국 식품기계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마케팅 필요			
	유망국가	러시아			
	LED조명	HS Code	9405	수입관세율(%)	11.47
		수입액('14/백만달러)	1,1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4
	선정사유	LED조명 시장 지속 확대중. 최근 에너지절약 관련 법으로 백열전구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면서 LED조명 관련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음			
	시장동향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 외부광고, 대형건물, 운동장 관련 수요 높음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의 1/3가량을 잠식하고 있으며, 홍콩, 터키, 영국, 러시아 산이 경쟁 중			
	진출방안	현지 제조파트너 발굴을 통한 진출이 유망함. 특히 CIS에서 제조할 수 없는 분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10.98
	수입액('14/백만달러)	1,662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6
	선정사유	러시아 화장품 시장이 전 세계 10위 규모를 자랑함. 중앙아 여인 사이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시장동향	현재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제조는 10% 이하 수준임. 현재 중앙아 한류 인기로 한국산 화장품도 인기 상승 중		
	경쟁동향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은 고가브랜드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중저가 시장은 다양한 업체가 경쟁 중		
	진출방안	최근 한국 중저가 제품 편집샵이 등장하고 있음. 인터넷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어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진출도 고려할만 함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18-1.49
	수입액('14/백만달러)	3,31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6.5
	선정사유	의료기기 노후화로 국영 의료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크며, 민간병원 설립증가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시장동향	국립병원 구매수요는 연초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민간병원 수요는 수시 발생		
	경쟁동향	독일산과 영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가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음		
	진출방안	한국산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병원 설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몽골 등		
의약품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5-6.12
	수입액('14/백만달러)	15,665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9
	선정사유	막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 진출이 소수로 발전 가능성이 큼.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꾸준함		
	시장동향	유럽산이 주력이나 점차 아시아 제품으로 소심 확대		
	경쟁동향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산이 시장을 장악		
	진출방안	수입상-병원 학술세미나 등 마케팅 전개		
	유망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세제	HS Code	3402	수입관세율(%)	5-14.02
	수입액('14/백만달러)	1,629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5
	선정사유	현지 바이어로부터 지속적인 인콰이어리가 있음		
	시장동향	러정부부가 최근 다국적 기업제품에 대해 위생 문제로 판매를 금지하면서 여타국 제품의 기회 확대 예상		
	경쟁동향	P&G, Henkel, Colgate 등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		
	진출방안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최근 러시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PL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바, PL 제품 진출도 고려할 만함		
	유망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몽골		

펌프	HS Code	8413	수입관세율(%)	0-5
	수입액('14'백만달러)	2,958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97
	선정사유	CIS 지역 사막성 기후가 많아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조경 등 생활 전반에 펌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시장동향	농장 개발 확대, 플랜트 건설에 따라 수요가 증가 중		
	경쟁동향	독일, 중국, 미국 제품이 경쟁		
	진출방안	수처리 플랜트, 현지 유통 에이전트, 대리점 납품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비닐하우스 자재	HS Code	9406	수입관세율(%)	5-10.36
	수입액('14'백만달러)	63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2
	선정사유	서방산 농식품 수입 금지조치로 러시아 내 농장 개발 확대. 계절 특성 상 비닐하우스 농법 확대 필요		
	시장동향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어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경쟁동향	중국, 터키, 독일 등이 경쟁 중		
	진출방안	현지 유력 농장개발 업체와 공동 개발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평판압연제품	HS Code	7210	수입관세율(%)	0-3.91
	수입액('14'백만달러)	2,971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316
	선정사유	고품질 압연제품 생산 기술 부족으로 최근 5년간 수입 37.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높은 경쟁력으로 점유율이 최근 5년간 78.2% 증가하였음.		
	시장동향	경기 침체로 '14년 수입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제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수요 지속 전망		
	경쟁동향	저가 중국산과 러시아산 카자흐스탄산이 경쟁 중		
	진출방안	현지 유력 딜러 발굴		
	유망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압기	HS Code	8504	수입관세율(%)	0-3.43
	수입액('14'백만달러)	2,327	대한수입액('14'백만달러)	103
	선정사유	최근 5년간 수입 26.3%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높은 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이 최근 5년간 60.6% 증가하였음. Ukrenergo(우크라이나 최대 송배전 회사) 22기 변압기 국제 입찰 예정		
	시장동향	경기 침체로 '14년 수입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꾸준한 수요가 있는 품목		
	경쟁동향	중국,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터키, 영국 등과 경쟁 뚜렷한 강자는 없는 상황		
	진출방안	현지 유력 업체와 협력 입찰 참여		
	유망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틈새시장·신성장시장 공략 지원 사업

☐ 한-러 농식품 협력 플라자

- 목적 : 러시아 대서방 식품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 러시아 내 유기농, 건강 식품 등 신성장 시장 선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국내 농기계 및 자재·원료 기업과 러시아 대표 농축산 기업 간 협력 상담회, 온실/식품공장 등 농식품 관련 프로젝트 협력 상담회
- 특기사항 : 유기농,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 유기농 제배 농법 교육 등 CSR 사업 연계

☐ 유라시아 메디컬 컨퍼런스

- 목적 : CIS 의료 기기 대체 수요 발굴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의료시장 진출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
- 특기사항 : '16년 글로벌바이오메디컬포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기계플랜트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산화 프로그램 활용 우리 설비, 기자재 수출 마케팅 지원
- 시기 : '16년 4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내 제조업 전환 기업, 신규 설비 도입 기업 초청 상담회
- 특기사항 : '16년 한국산업대전과 연계 추진

2. 마케팅 고도화·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유력 온라인 유통망 초청 상담회

- 목적 : 우리기업의 러시아 및 CIS 지역 유력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서울
- 내용 : CIS 유력 온라인 쇼핑몰 초청, 국내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체와 1:1 상담회
- 특기사항 : '16년 온라인/홈쇼핑 글로벌 유통망 위크와 연계 추진

☐ 러시아 GS 홈쇼핑 입점 상담회

- 목적 : 러시아 진출 GS 홈쇼핑 입점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시기 : '16년 3분기
- 장소 : 모스크바
- 내용 : 러시아 진출 GS 홈쇼핑과 우리 기업 중소기업 진출 상담회

3. CIS 미개척 지방 상권 개척 지원 사업

☐ 러시아 지방거점도시 진출 상담회

- 목적 : 러시아·CIS 진출/진출 희망 기업의 러시아 지방상권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러시아 지방유력도시(선정 중)
- 내용 : 러시아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 협업 지방상권 개척 상담회
- 특기사항 : 주러한국대사관의 '중점협력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유라시아 미개척 시장 수출촉진단 파견

- 목적 : CIS 미개척 국가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바쿠, 민스크 등
- 내용 : 미개척 CIS 시장 순회 수출 상담회

4. 현지진출 고도화 지원 사업

☐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 목적 : CIS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4분기(2회)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등
- 내용 : 경영활동 관련 법률, 회계, 경제전망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

☐ CIS 프랜차이즈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CIS 진출 지원
- 시기 : '16년 2분기
- 장소 : 모스크바, 알마티, 울란바토르
- 내용 : CIS 주요도시 방문, 프랜차이즈 진출 사업 여건 조사 및 진출 상담회

5. CIS 프로젝트 참여 지원 사업

☐ 유라시아 진출 로드쇼

- 목적 :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시기 : 연중 4회(해외 3회, 국내 1회)
- 장소 : 극동, 서부러시아, 중앙아, 서울
- 내용 : CIS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 및 EPC기업과 우리기업간 협력 상담회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kotra
중남미지역본부

목 차

I. 20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27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527
2. 뜨는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529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531
4. 중미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535
5. 쿠바 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537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538
II. 진출환경 분석	541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541
2. 경제 환경	543
3. 산업 환경	548
4. 정책·규제 환경	551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553
III. 시장 분석	554
1. 수출	554
2. 투자진출	559
IV. 시장진출전략	567
1. 진출전략 개관	567
2. 세부 진출전략	568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583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중남미지역 국가들 중 태평양 연안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TPP 타결, 태평양 동맹 발효 등으로 국제경제 편입 확대 및 성장 모멘텀 확보가 예상 됨. 중미 6개국도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로 우리에게는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게 됨.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은 유가하락, 원자재 하락 여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됨. 중남미지역 여러 국가들은 정치적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 중.

1. TPP 협상 타결로 중남미시장의 국제경제 편입 확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 창설

-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원산지 규정, 무역규제조치, 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주요 사안 포함
- 회원국 총 인구 8억의 거대시장으로, GDP(37%), 수입(27%), 수출(25%) 차지
- * '15년도 평균 3.7%성장 예상

□ (멕시코) TPP협정을 활용, 아시아권 진출 확대 전망

- 북미에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생산라인의 통합을 도모하고, 남미에서는 칠레 및 페루와 호혜적인 관계 강화
- 일본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아시아 6개국(오스트레일리아,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페루) 남미 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 페루가 남미의 HUB로 부상하고 페루와 남미 국가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TPP시장뿐만 아니라 남미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 非 전통산업 생산품의 36%에 해당하는 제품이 TPP지역으로 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약 42억 달러)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5대 신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농수산물, 면, 알파카 등 섬유제품, 안데스지역의 곡물, 과일, 채소 판매를 위한 잠재시장 형성
- TPP시장으로의 수출입을 통해 더 많은 투자와 서비스로 페루 경제에 승수효과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한국기업의 진입장벽 심화

- 칠레정부의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식품산업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점을 강조, 그동안 진출하기 힘들었던 아시아 시장(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대
 - 특히 TPP 참여 국가는 칠레와 농업, 임업, 어업분야에서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로 연평균 5%의 교역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 칠레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입할당량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기체결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TPP 참여국 중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고, 칠레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본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15년 9월 누적기준, 한국의 對칠레 자동차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29% 하락, 일본의 경우 2% 하락하는데 그침.
- 현재 일본산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되는 수출관세는 0~3%, 한국산의 경우 6%로 더 높은 수준, TPP 협정 내용 중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기업 제품이 일본산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작업 시 가전 대상 관세 철폐 및 누적 원산지규정 완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2. 뜨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중남미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태평양 동맹 최종 발효 ('15.7.20)

-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목표로 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이 12년 6월 결성한 태평양 동맹이 '15년 7월 20일 발효
-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전체 상품의 92% 무관세 혜택, 7%는 향후 3, 7, 10년 안에 나머지 1%는 15~17년 안에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태평양 동맹을 이루는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6백만 명으로 1인당 평균 GDP 16,525(PPP기준)달러의 경제 중견국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GDP의 36.7%, 대외무역의 52.4%, 외국인투자의 43.1%를 유치하는 대표 경제 블록

<태평양동맹의 중남미·카리브 지역 내 비중>

구 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태평양 동맹	중남미 및 카리브	비중
GDP(억불)	12,827	3,849	2,580	2,029	21,285	58,004	36.7%
1인당 GDP(PPP\$)	17,881	13,430	22,971	11,817	16,525	15,489	1.1배
인구(백만 명)	119	47.7	17.8	31.4	216	603	35.8%
경제성장률 (Real GDP %)	2.5	4.8	4.3	6.2	4.5	3.7	1.2배
수출(억불)	3,975	548	757	393	5,673	10,748	52.8%
수입(억불)	4,000	611	722	408	5,741	11,051	52%
외국인직접투자	228	160	220	76	684	1,588	43.1%

* 자료원 : Regional Economic Outlook'15 (IMF), CELAC, Alianza Pacifico 공식 홈페이지

- 국가 신용도 순위에서도 동 연합의 소속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 한 단계씩 상승

<태평양 동맹 국가 신용도 현황>

	S&P		Moody's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멕시코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콜롬비아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칠레	AA-	stable	Aa3	stable	A+	stable
페루	BBB+	stable	A3	stable	BBB+	stable

* 자료원 : '15 S&P, Moody's, Fitch

□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경제적 공통점

- 공통적으로 원유, 광물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USGS(U.S. Geological Survey)의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1위, 금, 은 매장량 4위 국가
 - 페루는 은 매장량 1위, 구리, 아연 매장량 3위의 국가임, 멕시코의 경우 구리, 아연 매장량 세계 4위, 은 매장량 5위, 원유 매장량 10위의 자원 부국.
- 우호적 투자환경
 -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은 중남미 내 사업하기 좋은 국가 14위를 차지(콜롬비아 34위, 페루 35위, 멕시코 39위, 칠레 41위)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 중남미지역에서 칠레 1위, 멕시코 5위, 페루 6위, 콜롬비아 7위
 - * 남미공통시장: 우루과이 82위, 파라과이 92위, 브라질 120위, 아르헨티나 124위
-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
 - 멕시코: '14 - '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발표(약 5,900억 달러)
 - 칠레: Chile 30-30 프로그램(정부 193억 달러, 민간 111억 달러)

□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 특성

- **멕시코** 자동차 산업
 - 중남미 최대 제조업 기지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의 완성차 제조업체, 전자제품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음.
 - '14년 322만대로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국 7위에 안착
 - 2020년에는 500만대 규모로 세계 4위 생산국 예상.
 - * 우리나라의 기아차는 '1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
- **칠레**
 - 광업(구리 생산 세계 1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발달
 - 포도(수출 세계 1위), 펄프(수출 세계 2위) 등 농수산업 분야도 경쟁력 보유
- **콜롬비아**
 - 석탄, 원유매장량(확인 매장량)이 각각 중남미 1위, 5위
 - 중남미 4위 자동차 생산국

○ 페루

- 은, 구리 등 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60% 이상
- 잉카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발달

□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관계

○ '13년 7월 한국은 태평양동맹 옵서버로 가입

- 우리나라는 태평양 동맹국 중 이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멕시코와는 논의 중단 상태 (한국이 TPP 참여 시 자동적으로 해당국과 무역협정 체결)
- (직접투자) 태평양동맹 직접투자 규모는 '15년 기준 61.5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투자액의 40%에 해당

* 멕시코(누적투자는 37.6억 달러), 페루, 콜롬비아 순

- (수출) '11년 31억 달러에서 '14년 158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의 2.76%를 차지 (수출입은행)

3. 난관에 봉착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4년부터 시작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폭락 등은 원자재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국제 유가 하락

- 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과잉, 중국의 소비감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 강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14년 하반기부터 하락
- 미국 에너지 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최근 원유 가격 전망 보고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를 서부텍사스 중질유 53.57 달러, 브렌트유 58.57 달러로 전망

<국제 원유 가격 변동추이>

(단위 : USD)

	'13	'14	'15	'16*
WTI Crude Oil	97.98	93.17	49.53	53.57
Brent Crude Oil	108.56	98.89	53.96	58.57

* 자료원 : 미 에너지관리청(EIA) 단기에너지전망(STEO) 보고서_ '15.10

* '16년 전망치

○ 원자재 가격 하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 결과적으로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 또한 감소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의 대외 원자재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11		'12		'13		'14	
미국	97,353,827	30.6	92,782,344	-4.7	84,199,550	-9.3	75,296,412	-10.6
중국	59,754,502	32.8	56,892,985	-4.8	66,309,140	16.6	60,513,315	-8.7
기타	48,337,328	27.7	47,052,112	-2.7	47,654,120	1.3	1,058,402	-97.8
일본	19,272,222	20.5	18,179,735	-5.7	17,486,031	-3.8	15,159,378	-13.3
스페인	11,850,592	36.5	14,765,240	24.6	14,839,455	0.5	13,364,139	-9.9
독일	10,051,445	19.2	8,297,997	-17.4	7,650,849	-7.8	7,152,105	-6.5
기타 아시아	14,983,079	84.4	24,596,438	64.2	30,807,294	25.3	2,035,547	-93.4
네덜란드	9,916,722	39.7	8,855,597	-10.7	9,508,977	7.4	8,916,005	-6.2
대한민국	8,114,632	41.5	9,612,756	18.5	8,813,569	-8.3	8,316,323	-5.6

* 자료원 : 세계은행(WB)

□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지속

- '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 가치 상승. 원자재의 가격의 하락은 중남미 국가들로의 달러유입 감소.
- 달러 공급 부족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
-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요 공산품을 수입하는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
- 동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주요국 환율 상승 현황('14/11-'15/10)>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변동폭(%)	700**	37	21	10

* 자료원 : EXCHANGE-RATES.ORG

** (추정치)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베네수엘라의 변동폭은 비공식 암시장 환율로 동기간 민간에 대한 외환공급 축소, 유가하락, 물가인상 등에 맞물려 크게 상승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저조해 지고 수입 공산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상승함으로써 발생

- '1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 베네수엘라(68.5%), 아르헨티나(14.7%), 브라질(9.49%), 우루과이 (9.14%)

□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경기 불황 지속

- 경제 성장 둔화 지속 : '16년(-3%), '17년(-1.2%) 성장 전망(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S&P, '15.9월)
 - * 무디스와 피치는 각각 '15년 8월, 10월에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등급으로 강등
- 경제성장 둔화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사업 운영에 지장 초래 가능성 증가
- 바이어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져 대금 미지불 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 확인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통화가치 하락

-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으로 '16년도 헤알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브라질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어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57% 하락
- '15년 9월 23일 미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4.15헤알을 기록
 - * '중앙은행은 '16년 연말 환율을 1달러=4.13헤알로 전망

○ 수입산 제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15년 1-9월 누적 부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 아르헨티나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보호주의 정책 지속

- 경제위기 심화와 보호주의 정책 기조 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들이 도출
-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환율인상 및 외환유입 감소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됨
- 제조업이 약한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입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

- 경제위기 가능성 상존
 - 만성적인 경제 불황과 외환부족
 -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이는 외환부족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님. 그러나 만성화되고 있는 불황이 더욱 큰 위험요소
 - 특히 수년간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
 - 이중물가와 이중환율 시장
 - 인위적으로 10% 내외로 물가상승률 통제
 - 물가인상 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 중
 - 가격안정화협약체결(Precios Cuidados), 수출세 인상, 수입규제강화 등
 - 또한 정부는 폐소화 평가절하 및 가격동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했으나 효과는 미미함
- * 수입규제로 인한 현지 수요대비 공급부족과 현지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가격인상의 압력이 크게 작용

<아르헨티나 물가변화 동향>

(단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e)
정부발표	9.8	8.4	7.2	7.7	10.9	9.5	10.8	10.9	21.3	15
민간예측	15.0	25.7	23.5	15.0	25.8	22.8	25.8	28	40	27

* 자료원 : 정부발표: 중앙은행, 민간예측: MIT(Inflacion Verdadera)

- 달러화의 수요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환율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

<아르헨티나 대미환율 변화 동향>

(단위: %)

구분	'10	'11	'12	'13	'14	'15(e)	'16(e)
공식 환율	3.90	4.10	4.60	6.30	8.5	9.79	12.28
비공식 환율	3.90	4.30	6.76	9.99	13	-	-

*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e) '15년 1월 기준

□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 및 시사점

- '15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 150억 달러로, '16년 디폴트 불가피
- 유가하락으로 석유수출액이 연 1,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소
 - 재정수입의 75%(공정환율 기준),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환보유고는 월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별도의 경제개혁정책이 부재할 경우, '16년 디폴트사태는 불가피할 전망
 - 외채의 경우, 낮은 국가신용도로 이자율이 매우 높으며, '16년 외채상환액 규모는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정부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민간의 경우는 이미 디폴트 상태로, 공공분야 디폴트는 오히려 호재
 -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민간분야는 외환을 획득하기 어려워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있음. 정부의 디폴트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도 포기를 선택할 경우, 외환공급 증가와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중미 6개국 한국과 FTA 협상 추진

□ 한-중미 FTA 협상 개요

- 협상 추진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 추진경과('15.6월~현재)
 - '15.6.18./휴스턴 : 한.중미 FTA협상 개시 선언
 - '15.9.21~25/서울 : 1차 협상
 - '15.11.23.~27/엘살바도르 : 2차 협상

□ 한-중미 FTA 체결 효과

- 성장시장인 중미 경제 선점 효과
 - 세계은행이 전망한 금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인 반면 중미 6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파나마 6.3%, 니카라과 4.8%, 과테말라 3.8%, 코스타리카 3.5%, 온두라스 3.5%, 엘살바도르 2.2%)로 중미시장은 경기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유망시장으로 부상
 - 최근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기업들이 중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미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중미시장 선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중·일 3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3국 중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져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경제협력 및 프로젝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파나마, 니카라과 등 중미국가들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국가들로 한·중미 FTA 체결은 중미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나마의 경우 지하철, 교량, 화력발전소,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한·중미 FTA 체결 시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대

□ 중미 6개국 경제 현황

<'14년 중미 6개국 경제현황>

구 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합계/평균
인구(백만명)	15.9	8.3	6.4	6.2	4.8	3.9	45.5
GDP(억불)	604	195	253	117	481	438	2,088
1인당 GDP	7,503	4,729	8,021	4,736	14,864	19,455	9,885
경제성장률(%)	3.6	3.8	1.9	3.7	4.6	8.5	4.35

* 자료원 : Regional Economic Outlook '15 (IMF)

* 1인당 GDP(PPP기준), 경제성장률 (Real GDP 성장%)

- '14년 기준, 6개국의 GDP는 2,088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604억 달러), 코스타리카(481억 달러), 파나마(438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3%를 차지
- 6개국의 경제규모는 페루(2,029억 달러)와 유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14%수준.

5. 쿠바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 미국 최근 2차례 對쿠바 경제제재 발표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
 -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지속 협력 중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13년 기준 6,700만 달러에 불과하나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향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전망은 어렵지만 쿠바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 정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09년 4월 17일, 47년 만에 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 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 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15년 7월 워싱턴에 쿠바 대사관 개소, '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 → 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 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법인 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 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

□ 향후 교역환경 변화 및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 늘어남
 -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있음
 - 다만, 쿠바 정부만이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대금 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 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국내 은행들은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

6. 중남미 각국, 정치 현안 해결로 성장 모멘텀 확보 노력

□ 콜롬비아 반군과 평화 협상 타결

- 반군(FARC)와의 분쟁 종결,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부상
 - '12년 11월부터 시작된 콜 정부와 FARC 간의 평화협상이 약 3년 만에 타결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새로운 분위기 형성
 - 평화협상 타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 반군(FARC)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개발지역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및 지역상권형성,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확대가 기대됨

□ 페루, '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균 4%대 성장 가능

-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개방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 전망
- '16~'19년 기간 중 인프라 투자확대와 광물 생산증가로 '15년의 침체를 벗어나 평균 4%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EIU)

- 현 중도좌파 우말라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좌파정권이 집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빈곤층의 축소와 도심치안불안 해소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노선은 보수 우파성향, 정치노선은 서민 중심의 중도 좌파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대통령 탄핵 등 정치 불안 심화

-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심화
- '13년 6월 대중교통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15년 반정부 시위로 확대
 - 시위대는 부패·비리 척결, 정치 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 투자 확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을 촉구
- 지우마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 (지지율 10% 미만)
 - 불법 정치 자금 조성,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대 정부 불만 가중
-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시사 전문지 에자미(Exame)는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환율안정과 물가 상승률 하락,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야당 우세 전망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총선에서 야당의 우세 전망
- '13년 마두로 집권 이후, 극심한 물가상승과 물자부족, 치안악화의 3중고
 - 차베스 사후, 정부의 민간시장에 대한 외환배정 축소 및 수입규제 강화로 암시장환율이 치솟고, 민간의 수입용 외환획득이 어려워지면서, 물자부족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 살인적인 수준으로 심화
- 야당 승리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지속될 전망
 - 야당의 총선 승리 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법률 제·개정권한 위임(수권법) 제한, 임기 중반의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발의('16년 중 실시가능) 등이 가능해지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18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
 - 국제유가의 하락과 석유 이외 기간산업의 붕괴로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1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16년 주요 일정

- '15.10월 이후 : TPP 국회 비준 추진
- '15년 12월 : 베네수엘라 총선
- '15년 12월 : 사전수입신고세 폐지(아르헨티나)
- '16년 2월 : 신외국인투자법 시행(칠레)
- '16년 2월 : 비동맹기구(NAM) 총회 (베네수엘라)
- '16년 2월 : 과테말라 신정부 출범
- '16년 4월 : 페루 대선
- '16년 5월 : 도미니카공화국 대선 및 총선
- '16년 6월 : 멕시코 12개 주지사 선거
- '16년 8월 : 하계올림픽 (리우 데자네이루)
- '16년 10월 : 교황 멕시코 방문
- '16년 11월 : APEC 28차 총회(리마)
- '16년 11월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사회개발 장관 포럼

II

진출환경 분석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할 만큼 효자 시장.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국제경제 편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자동차, 건설, 플랜트 산업에 진출 기회가 많음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37%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

- 중남미 수출은 전체의 6.3%('14년)에 불과하나,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 유지
 - * 對중남미 무역수지 : ('14년) 17,603백만 달러, ('15. 9월) 11,711백만 달러
 - * 1987년 이후 27년 연속 흑자 지역
- '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 거듭
 - 총 GDP는 57,623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7.3%, 재화시장의 7.5% 차지('14년)
 -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평균 상회
 - * 그러나 최근 자원가격 하락,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로 하락세 전환

□ 국가정책 차원의 인프라 개발 지속

- 인프라 구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
 - (멕시코) 5,900억 달러 규모 '14-'18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 * 정부(63%), 민간(37%) 비율로 투자금 구성
 - (브라질) 약 9,000억 달러 규모 제3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 * 복지, 전력, 공공위생, 에너지, 교통, 주택부문 프로젝트로 구성('11년~)
 - (콜롬비아) 2,500억 달러 규모 국가개발 5개년 계획 추진('11~'14)
 - * 6대 성장엔진(광물, 수송인프라, 교육 등) 위주 투자

□ 중남미 공동시장 형성 및 국제경제 편입 확대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12년 출범)
 - (추진방향) 중남미 경제리더·신흥국 주도로 구성, FTA·수출육성·외국인투자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 추진
 - (시장규모) GDP 2조 달러(중남미 36% 차지), 인구 218백만명('14년)
 - (효과) 회원국 간 FTA혜택을 상호공유,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 극대화
 - * 한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25개국이 옵서버로 참여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라과이·우루과이, '91년 출범)
 - (시장성격) 회원국간 개방형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 점차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변형
 - * 현재 안데안공동체(ANDEAN), 태평양동맹 등과 역내 주도권 다툼 중
 - (시장규모) GDP 3.3조 달러, 인구 290백만 명('14년)
 - * 볼리비아, 에콰도르 회원국 추가가입 추진 중
- 카리브시장
 - (시장성격)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역내 주요시장
 - * 미-쿠바 양국간 재수교 합의('15.7월)
 - (시장규모) GDP 2천억 달러, 인구 38백만 명('14년)

□ 자원수요 사이클 퇴조에 따른 전반적 하향세 견지

- '15년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작년 대비 1.1%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 하락, 신흥국(중국·브라질 등) 불확실성 증대,美金리인상 등 대외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 → 환율상승,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 우려
 - * (주요지역 성장률 전망) 멕시코·중미 2.7%, 카리브 1.7%, 남미 △0.4% 등

□ 전략적 가치

- 인구 6억 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신흥시장 평균의 1.9배 수준(1만 달러에 육박)
 -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이 매장돼 있는 리튬과 구리 등 자원도 풍부
 - 중산층 비중은 '10년 기준으로 41%, 전체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향후 '고도성장'이 예상됨(한국수출입은행)

2. 경제 환경

□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 '15년은 '09년 경기침체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전망됨
 -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보수적인 금융정책,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
- 그러나 '16년 이후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 '19년도는 3.2% 성장 전망
 - 외부 경제충격에 견딜 수 있는 펀더멘털 구비, 외환 보유고 확충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0	4.8	3.1	2.8	1.4	0.2	1.0	3.1	3.4	3.2

* 자료원 : EIU '15

- **(브라질)** '16년 브라질 경제, 소폭반등 예상되나 성장둔화는 지속될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은 '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 -3%로 전망
 - 90년, -4.4%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전문가들은 '1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경제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 주요 경제 지표>

구분	'12	'13	'14	'15
실질GDP성장률(%)	1.0	2.5	0.1	-3.00*
인플레이션(%)	5.8	5.91	6.41	9.75*
기준금리(%)	7.5	10.0	11.65	14.25*
환율(달러 대비 헤알)	1.8	2.35	2.65	3.9*
수출(십억 달러)	243	242	225	145 (1월-9월)
수입(십억 달러)	223	239	229	134 (1월-9월)
외환보유액(억 달러)	3,731	3,757	3,722	3,726 (10월)

* 주 : * 전망치

* 자료원 : 지리통계원(IBGE), 브라질 중앙은행(BCB), 경제연구소(IBRE)

○ (멕시코) '16년 2%대 성장 전망

-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폐소화 평가 절하, 저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멕시코 정부는 '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인 3%대에서 2%대로 하향 발표

* '15년 경제성장률 전망(멕시코 중앙은행) : 2.2%~3.2%(당초) → 2.2%~2.8%(변경)

* 유가 급락으로 석유생산국인 멕시코의 재정 수입 감소 등이 성장률 둔화 요인

- '15년 물가 상승률 2.74%로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물가상승률도 아직은 정부의 목표치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음.

* 저유가 및 농산물 등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폐소화 평가 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직접적인 효과는 반감되고 있으나, 달러 강세 영향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멕시코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11	'12	'13	'14	'15*
GDP(명목)		US\$억	11,708	11,865	12,616	12,908	12,252
1인당GDP(PPP)		US\$	15,881	16,307	16,378	16,827	17,026
실질 경제성장률		%	4.0	3.8	1.7	2.1	2.4
물가상승률		%	3.8	3.6	4.0	4.1	3.7
실 업 률		%	5.2	5.0	4.9	4.9	4.9
금리		%	4.8	4.8	4.3	3.5	3.8
교역	수출	US\$백만	350,004	371,442	380,729	397,866	423,423*
	수입		351,209	371,151	381,638	400,440	427,010
	무역수지		-1,205	291	-909	-2,573	-3,586
경상수지			-13,305	-15,877	-30,446	-26,453	-24,198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부)			23,328	19,491	44,885	24,154	13,749
외환 보유고			149,208	167,049	180,200	195,681	200,502
외 채 (WB)			302,173	375,850	443,012	475,920	493,111
기말환율(U\$1)		페소	13.99	13.01	13.08	14.72	14.90

* 주 : 전망치 * '15년 전망치

* 자료원 : EIU, 멕시코 경제부

□ 중남미 주요국의 교역 동향

○ 멕시코

- '15년 8월 기준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 원유 제외 무역수지는 7억 달러 적자 기록 중으로 전년 대비 원유 제외 무역수지는 양호한 편

- 멕시코 수출에서 對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80% 수준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對한국 수출은 15억 달러로 0.4% 차지

*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전체 수출의 50%이상 차지)

- 멕시코 수입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입국 중 50%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3.3% 비중으로 주요 수입국 중 5대 수입국에 속함
- *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전기부품임

<멕시코 교역 동향 지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3	'14	'15 1월~8월
전체수출	380,027	397,535	188,537
1. 원유부문	49,493	42,979	12,831
2. 비원유부문	330,534	354,556	175,706
전체수입	381,210	399,977	192,590
1. 원유부문	40,868	41,490	16,094
2. 비원유부문	340,342	358,488	176,495
무역수지	-1,184	-2,442	-4,052
원유제외 무역수지	-9,808	-3,932	-789

*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 칠레

- '14년, 경제성장률 하락,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무역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년대비 무역수지는 개선됨
- '1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63% 감소, 그 중 한국의 對칠레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19.92% 감소함
- 이는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15년 1월부터 시행된 신차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세(19%)의 영향으로 분석됨
- 전체 수출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관련 품목(정제동 등)의 수출하락으로 상반기 수출 규모 크게 하락

<칠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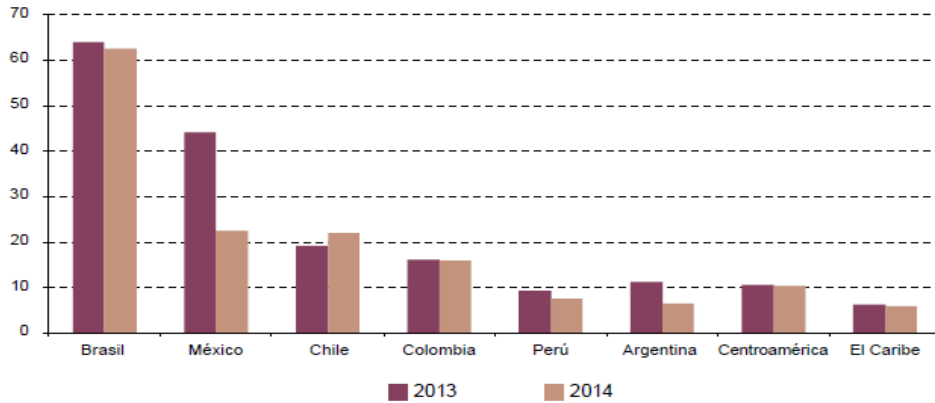
	'11	'12	'13	'14	'15(예상)
수입액 (증감율)	662,072 (25.95%)	705,660 (6.58%)	715,783 (1.38%)	654,232 (-8.6%)	584,687 (-11.63%)
수출액 (증감율)	807,654 (19.79%)	767,911 (-5.0%)	762,908 (-6.5%)	742,097 (-2.7%)	650,002 (-12.41%)
무역수지	148,082	62,251	47,125	87,865	65,315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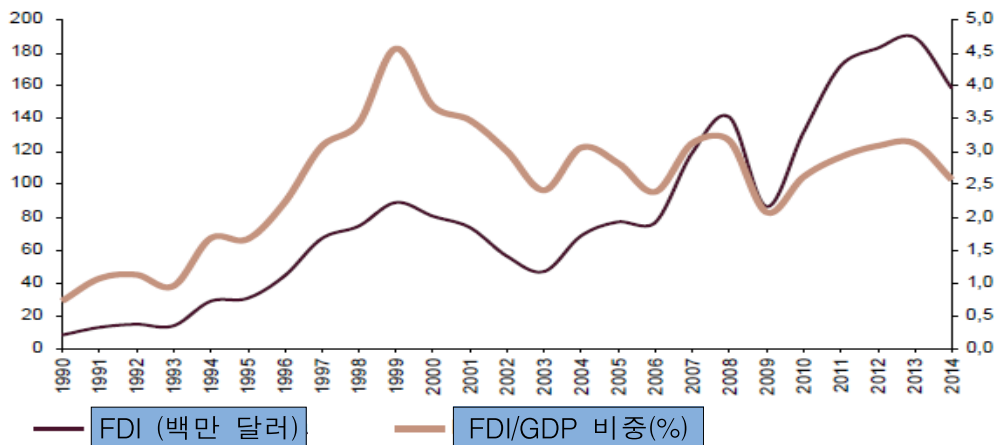
□ 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UN, CEPAL)

<중남미 주요국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유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별 FDI 규모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멕시코) 투자유치 현황('14년 총 241억 달러 유치)

- 국가별로는 미국이 67.6억 달러로 1위이며 스페인이 뒤를 이어 44.1억 달러, 한국은 약 469억 달러 투자로 11위에 위치
- '13년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이치(벨기에 글로벌 맥주 생산업체의 멕시코 업체인수)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지속 예상
- * 미국의 완만한 경제성장, 멕시코 방송통신, 에너지 시장개방, 자동차 및 항공우주산업 성장 등
-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13년 1월부터 '15년 1/4분기까지 총 233.79억불 투자 유치로 59,3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

<멕시코 FDI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	’13	’14	’15*	
					금액	비중
합계		15,872	40,165.8	24,154.7	13,749	100
1	미국	9,417	13,141.1	6,764	6,861	49.9%
2	스페인	-780.9	-217.9	4,418	1,359	9.8%
3	캐나다	1,767.6	4,350.9	2,782	187	1.3%
4	독일	946.1	1,772.5	1,554	786	5.7%
5	네덜란드	1,460.4	5,257.2	1,662	847	6.1%
6	일본	1,815.9	1,643	1,354	891	6.4%
7	벨기에	0.4	13,290.3	1,260	206	1.5%
8	프랑스	398.7	201.6	930	620	4.5%
9	브라질	435.6	39.1	479	137.9	1.0%
10	스위스	282.1	284.3	329.2	287	2.0%
11	한국	129.1	403.7	469	323	2.3%

* '15년 1월~8월 누적액

* 자료원 : 멕시코경제부(도착액 기준)

○ (칠레) 투자유치 현황('14년 총 241억 달러 유치)

- '10년 대지진 이후 복구 프로젝트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성장세 가속화

* '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 기존 투자규모가 2배 확대 되었다가 '13년 약 30% 감소, '14년 약 15% 증가하며 회복세로 전환

* '15년 외국인 투자규모는 약 150억 달러로, 작년 대비 35% 감소 예상

-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규모는 전체투자의 54% 차지

* '14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점유율 순으로 광업(54%), 보험(22.4%), 식품·음료·담배(11.2%)로 집계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선폰)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광업(35.9%), 전기·가스·수도(16.2%), 금융(10.7%), 통신(7.7%) 등 임

- 최대 투자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으로 한국의 투자규모는 미비한 수준

* '14년도 주요 외국인투자 국가는 미국(34%), 스페인(25%), 캐나다(23%), 일본(11%) 순으로 스페인 Gas Natural Fenosa 기업이 33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함

* 1974년(DL600 투자법 개선폰)부터 '13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23.6%), 캐나다(18.7%), 스페인(17.5%), 일본(9.6%), 영국(6.9%)임.

3. 산업 환경

□ 자동차 산업

- **(브라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이 대폭 감소함
 - 폭스바겐, GM, 벤츠를 비롯한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8월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함
 -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15년 8월 생산량(승용차, 버스, 화물차 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한 21만 6,500대를 기록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조업 중단 또는 감축 실시
 - 전문가들은 브라질 자동차 판매 회복이 이르면 '16년 하반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대 자동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 감소로 많은 애로
 -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인력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월 상순 시장점유율 8.9%를 기록, 포드를 제치고 브라질 자동차 판매 순위 4위 업체로 부상함
- **(멕시코)** '14년 자동차 총 생산은 322만대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경제위기 직후인 '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 '15년 기준 세계 6위의 승용차 생산국이며, 멕시코 고용인구의 5분의 1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수출의 25%를 차지
 -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3%, 제조업 분야의 20%, 직접 투자 부문의 1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음
- '15년 기준 Ford, Kia 및 Toyota 등 완성차업체 등에서 10억불이상의 신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 멕시코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20.8%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
- 멕시코는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북미용 또는 중남미 진출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
 - * 멕시코는 전 세계 7위, 중남미 1위의 자동차 제조국이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1.5%가 멕시코에서 제조됨.
- **(베네수엘라)** 원자재수급 차질로 생산량 크게 감소(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 크게 감소)
 -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은 '07년까지는 자동차 완성품이, 이후에는 자동차부품(현지 조립생산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3년 경제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부품수입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급감한 실정임
 -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저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기반으로 급성장함

- 연간생산규모 20만 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 최근 생산규모는 연 2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콜롬비아)** '14년 4월 콜롬비아 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조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취약한 자체기술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시장

- **(브라질)**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대형 국영석유회사(Petrobras) 관련 비리 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임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 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취소함
 -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 6건은 이미 F/S를 마쳤거나 입찰 단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임
-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인프라는 재원부족으로 신규프로젝트 지연
 -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전기, 수도, 통신, 교통 분야의 요금수준이 낮아, 관련 공기업들은 자체수입은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
 - 신규프로젝트는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PDVSA)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함
 - 그러나, '13년 이후 이들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이 실종되었으며, 일부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 중임
 - 핵심정책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급목표 미달
 - *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연 30만 채씩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나, 주택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부족현상으로, '14년 이후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 **(파라과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MOPC)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의 공사가 지연, 연기된 경우가 많아 중앙은행의 건설업 성장 예상치가 크게 하락되었음
 - 또한 국내 시멘트 공급 부족도 건설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는 '16년에 공공건설사업 투자를 더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도로 건설, 공공 지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강화할 예정임
 - 민간 기업들의 건축 및 신규 쇼핑센터 건설도 활발하며, 아순시온과 시우닷 델 에스페 내 건설 '붐'으로 고층빌딩, 고급 아파트 및 주택이 다수 설립되고 있음
 - 민간 업체들의 최근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에 달하며, 향후 5년간 파라과이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페루)** 건설업 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큼
- 페루의 건설 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 정부의 건설계획에 의해 낮은 금리와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받으며 성장해 왔음
 - '14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 산업 또한 위축됐으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투자과 국민연금관리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추세임.

□ 전력 산업

- **(콜롬비아)** 전력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 콜롬비아 전력 산업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19년까지 전력생산량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 전망

<콜롬비아 연간 전력생산량 및 증감율 현황>

	'13	'14	'15**	'16**	'17**
총 전력생산량(TWh)	59.729	65.062	69.646	71.317	71.511
생산 증감율 (%)	-1.0	8.9	7.0	2.4	0.3

* 자료원 : BMI

** 전망치

- '14년 콜롬비아 총 전력 생산량은 65.1 TWh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으며 '15년 생산량 전망치는 69.6 TWh 수준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콜롬비아 전체 전력의 75%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변화 및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 증대
- **(칠레)** 광업에 소요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칠레는 지속적인 발전소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첼렛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4. 정책 · 규제 환경

□ 멕시코

- '14-'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 발표
 - 역사상 최대 규모(약5,9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14년 4월)
 - * 現대통령 임기까지 에너지, 도시 발전 및 거주지, 교통·통신, 수도시설, 관광, 보건 분야 인프라 투자 진행 예정
- 경제부,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 발표
 - '15년 10월 7일 경제부는 관보에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15% 부과와 관련된 일반 수출입 관세법 및 산업진흥프로그램 개정을 발표함.
 - 이전까지 '07년 공고된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멕시코 철강 산업에서 슬래브, 후판, 냉연, 빌렛, 선재와 같은 제품들의 수입이 '1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의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

□ 브라질

-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
 -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PAC를 계승, 정부 출범과 함께 PAC 2차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PAC 3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11년 시작해 1조 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 등 6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임. (환율: 1달러=3.9헤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유럽연합(EU) FTA 체결 노력
 - '95년부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유럽연합(EU)간 FTA 체결을 시도
 - 양 블록 간 의견 차이와 아르헨티나의 미온적 행동으로 현재 답보 상태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무역에서의 고립을 우려하여 EU와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

- PIPE 2.0 정부 주요 투자계획
 - PIPE 2.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과 도로건설 분야로 각각 2조 페소(약 8억 달러)와 4조 페소(16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임
 - 도로 건설의 경우 800개에 달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데 투입 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100% 공공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분야 주요 지원정책

-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제도를 2년 연장할 예정이며 콜롬비아 수출입은행(BANCOLDEX)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호텔/관광분야 역시 금번 PIPE 2.0으로 '17년 12월 이전 착공되는 호텔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그 결과 '17년까지 약 7,500개의 호텔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업/에너지산업 역시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원스탑 행정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원유탐사 시 대 정부 결과보고 유연성 제고, 정부와의 계약 외 추가생산 자원에 대한 로열티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칠레

○ 상업지구 부흥정책

- '14년 칠레 경제부가 대형마켓 및 쇼핑몰 확대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소규모 및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상업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시작
-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지역의 도로망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36억 달러로, 칠레 정부는 더 많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 선정된 총 60개의 구역 중 한인밀집지역(Patronato)도 포함되어 향후 교민 상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건설업 활성화 정책

- 건설업은 '01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GDP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켜, '02년 이후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정부 공공투자가 바탕이 되었는데, '12년 정부는 40만 명에게 개별 77,000 달러의 주택융자를 제공하는 정부주도 저가주택계획을 발표함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중남미 33개국 대한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GDP	총수출	총수입	한국의 대 중남미 교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브라질	\$2,346,118	\$225,100	\$251,965	\$8,922	\$4,907	\$4,015
2	멕시코	\$1,282,720	\$397,535	\$439,975	\$10,846	\$3,268	\$7,578
3	아르헨티나	\$540,197	\$69,169	\$67,009	\$754	\$501	\$253
4	베네수엘라	\$509,964	\$79,172	\$43,708	\$236	\$15	\$221
5	콜롬비아	\$377,740	\$54,795	\$64,029	\$1,509	\$608	\$901
6	칠레	\$258,062	\$76,648	\$72,347	\$2,083	\$4,810	-\$2,727
7	페루	\$202,903	\$38,106	\$46,581	\$1,392	\$1,433	-\$41
8	에콰도르	\$100,543	\$25,722	\$27,515	\$812	\$342	\$470
9	쿠바	\$77,150	\$2,629	\$11,787	\$56	\$12	\$44
10	도미니카 공화국	\$63,969	\$10,248	\$19,060	\$221	\$129	\$92
11	과테말라	\$58,728	\$10,631	\$18,261	\$320	\$321	-\$1
12	우루과이	\$57,471	\$10,524	\$15,844	\$255	\$73	\$182
13	코스타리카	\$49,553	\$30,054	\$16,092	\$243	\$291	-\$48
14	파나마	\$46,213	\$811	\$13,593	\$2,765	\$495	\$2,270
15	볼리비아	\$34,176	\$12,882	\$10,560	\$130	\$299	-\$169
16	파라과이	\$30,985	\$9,653	\$12,429	\$224	\$73	\$151
17	트리니다드 토바고	\$28,788	\$19,054	\$8,038	\$112	\$175	-\$63
18	엘살바도르	\$25,220	\$5,272	\$10,510	\$139	\$58	\$81
19	온두라스	\$19,385	\$5,385	\$10,225	\$115	\$51	\$64
20	자메이카	\$13,787	\$1,301	\$6,501	\$23	\$10	\$13
21	니카라과	\$11,806	\$5,378	\$6,631	\$182	\$22	\$160
22	아이티	\$8,713	\$987	\$5,205	\$39	\$3	\$36
23	바하마	\$8,511	\$3,349	\$12,208	\$835	\$16	\$819
24	수리남	\$5,297	\$1,260	\$1,802	\$11	\$3	\$8
25	바베이도스	\$4,348	\$481	\$2,157	\$14	\$0	\$14
26	가이아나	\$3,228	\$1,427	\$1,861	\$23	\$1	\$22
27	벨리즈	\$1,693	\$435	\$1,162	\$5	\$1	\$4
28	세인트루시아	\$1,365	\$150	\$2,810	\$3	\$0	\$3
29	앤티가 바부다	\$1,269			\$7	\$0	\$7
30	그레나다	\$882	\$131	\$578	\$3	\$0	\$3
31	세인트키츠 네비스	\$833	\$110	\$684	\$4	\$0	\$4
3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29	\$83	\$601	\$1	\$0	\$1
33	도미니카 연방	\$538	\$173	\$586	\$5	\$0	\$5
	Total	6,172,884	1,098,655	1,202,314	32,289	17,917	14,372

* 자료원 : Worldbank, 수출입은행('14년)

III

시장 분석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진출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기기, 평판디스플레이로 분석됨. 우리기업은 중남미 진출 시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1. 수출

□ 최근 한국의 對 중남미 수출입 동향

- '15 9월 기준 8.1% 감소, 10월 20일 기준 11.6% 감소
- 9월 기준 對멕시코 14%, 파나마 22%, 아르헨티나 40.9%, 베네수엘라 155.4%, 과테말라 30.8% 증가한 반면, 브라질 32.8%, 칠레 14.1%, 페루 6.6%, 콜롬비아 22.1% 감소세 보임.

<對중남미 수출입 추이>

(억 달러, 전년 동기비%)

	'14년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년 1~9월
수출	358 (△1.2)	32 (37.6)	23 (3.5)	30 (13.7)	29 (△11.8)	22 (△3.0)	25 (△20.3)	28 (△16.5)	23 (△21.2)	237 (△8.1)
무역 수지	17.6	17.2	13.3	15.3	15.0	6.8	14	13	12	1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중남미 국가별 수출입 현황>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순번	국가명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총계	23,683	-8.1	11,711
1	멕시코	8,840	13.7	6,264
2	브라질	4,629	-32.8	1,835
3	파나마	1,666	22.1	1,338
4	칠레	1,343	-14.7	-2,127
5	페루	943	-6.6	84
6	콜롬비아	841	-22.1	580
7	아르헨티나	811	40.9	304

순번	국가명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지
8	에콰도르	505	-11.7	258
9	베네수엘라	373	155.4	356
10	과테말라	298	30.8	170
11	푸에르토리코	208	35.5	64
12	코스타리카	192	4.4	76
13	도미니카공화국	186	22.9	124
14	파라과이	174	11.3	167
15	우루과이	157	-10.5	93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호부진 요인 분석

- 9월 기준 대 중남미 품목별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칼라TV, 집적회로반도체, 타이어 등은 각각 20.7%, 34.8%, 30.7%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품목별 수출입 현황>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순번	품목코드	품목	'15년 (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3,683	-8.1
1	7461	선박	3,534	-21.2
2	7411	승용차	2,616	-11.9
3	7420	자동차부품	1,877	-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1,778	-17.8
5	8211	칼라TV	968	-20.7
6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18	-3.6
7	2140	합성수지	864	-15.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577	-34.8
9	6134	아연도강판	416	3.2
10	7412	화물자동차	402	-5.4
11	6133	냉연강판	350	1.4
12	7111	원동기	313	18.3
13	8121	무선전화기	304	11.5
14	7901	기타기계류	256	264.9
15	3203	타이어	242	-30.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① 승용차

- 對멕시코 승용차 수출은 7억 달러로 21.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가 자동차 생산 중심국으로 변환하면서 수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 對콜롬비아 수출은 2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와의 FTA에 따른 콜롬비아 내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제품 수요 감소에 기인

②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10.1%, 對콜롬비아는 14.4% 하락
- 멕시코 수출은 13.1% 증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가 '16년 양산 계획(연간 30만대 규모)으로 멕시코 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중
- 한국의 자동차 부속품 및 자동차 악세서리 등 수입 증가 지속세 예상
-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애프터마켓 수요가 동반 감소
- 칠레 자동차부품 수입기업 문도레뿌에스또스(Mundorepuestos)에 따르면, 일본, 한국산 대비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③ 무선기기

- 멕시코 경우, '15년 9월 기준 무선전화기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수입판매량이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우, 9월 기준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현지 이동통신 인프라 개선 및 현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적용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에 원인
- 파라과이는 삼성 스마트 폰이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LG휴대폰도 현지 진출 확대 중

④ 평판디스플레이

- 브라질 경우,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0% 하락
- 對 멕시코 '15년 9월 기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0.8%감소
-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TV 소비층인 중산층의 소비력 상실로 인한 수요 감소

⑤ 냉연강판

- 콜롬비아 경우, 전년대비 9월 기준 534.7% 증가하였으며,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건자재 수요가 급증
- 국내생산이 전무하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이동향

- '15년 10월 초 멕시코 경제부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함
- 이는 특히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나 한국도 포함됨.
- '15년 9월 말부터는 경제부에 수입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될 수 있음
- 파나마-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 파나마-멕시코 FTA가 금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산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기자재, 식품 중심으로 멕시코산 제품 수입 확대 전망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멕시코

- 표준규격제도(Norma Official Mexicana: NOM)
 - *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는 6,600개 이상으로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 대비가 어려워 이는 실질적인 수입 장벽으로 작용
- 현지 조립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완성차 수입 제한
 - * 멕시코 현지 조립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직접 수입 시 20~30%의 관세 부과
- 중고차 수입금지
 - * 중고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중고차만 허용하여 특혜부여 성격이 짙음. 현재 NAFTA체결국인 미국과 캐나다산 중고차에 한해 수입이 허용
- 통관서류에 불필요한 정보 요구
 - * 통관 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해, 누락 및 기재 오류 등 사소한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의료기기 수입 허가에 과도한 시간 소모
 - * 의료기기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에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적기에 시장 진출이 어려움

○ 콜롬비아

- '15년 10월 26일 현재 반덤핑 관세부과 건수는 총 14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수는 1건 있음. (PVC 필름)
-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마찬가지로 전체 7건 중 중국제품이 총 5개로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 주요 대상 되고 있으며 인도(2건)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
- * 한국의 경우 추가 반덤핑 조사건은 없으며 기타 미국, 일본, EU 등 경쟁국 대상 신규 반덤핑 조사 건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칠레

- 수출세 적용 :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됨
- * FTA 대상 품목 중 Non-ad valorem Tariff 제품(생사, 비디오테이프, 필름, 의료진단기구 등)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관세 외 특별관세 (Alternate duties)를 부과
- 수입제한 : 방산품목, 원자력에너지, 미사일, 독성물질 등 직간접적으로 인체유해한 제품만 제한품목으로 분류, 이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 중고타이어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따라 중고 자동차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분류
- 소액 특송 화물 관세 부과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미화 30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혹은 통관절차 필수
- * 화장품, 의약품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불가피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시 인증 필요

□ 우리기업 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 대형 유통사 등 현지 파트너사 적극 활용 (칠레 성공 사례)

- 개인 혈당측정기 제조기업(I사)의 경우, 칠레 내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고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칠레 유통구조의 특성상 중간대리점을 통한 대형유통사 납품이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사(FASA)에 소속된 약국(AHUMADA)에 진출 성공
- 이로써 I사의 가장 큰 단점인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의료보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선물로 납품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

○ 현지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부재 (멕시코 실패 사례)

- W사는 냉동 공조기 생산 업체로 많은 기관에서 기술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회사임
- 동사는 멕시코의 이동식 에어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멕시코 시장에 진출코자 하였음.

- 일단 멕시코 시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이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이었고, 멕시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컨 보다는 환풍기,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시장 초기에는 바이어들이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인증(NOM)을 취득해야하는데 바이어들이 굳이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인증 취득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고 싶어 하지 않았음.
- 특히 유럽 혹은 미국 제품은 이미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짧은 운송시간, 무관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유럽 혹은 미국 제품은 멕시코 내에 법인이 있어 제품 불량 시 워런티를 적용, 즉시 기술자를 파견 수리 및 보상이 가능했음.
- 동사의 경우, 현지 시장 특성 조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서두른 것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됨.

2. 투자진출

□ 우리나라의 최근 對중남미 직접투자 동향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최근 3개년 ('12-'14)은 투자금액 및 신규 법인 수 지속 증가
 - 그러나 '15년도 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 법인 수 동시 감소
- 아시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남미는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
 -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케이만군도와 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주도

<중남미지역 해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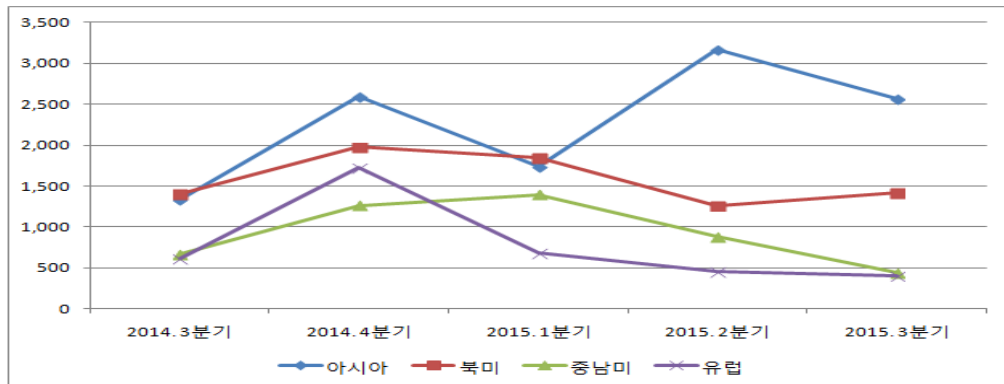
(백만 달러, 개, %)

구 분	'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투자 금액	신 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 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 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 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 규 법인수
중 남 미	3,342	103	3,374	106	4,204	120	669	33	437	24
(비중)	11.8	4.1	11.3	3.8	15.7	4.3	14.4	4.9	8.2	0.0
(증가율)	30.7	△11.2	0.9	2.9	24.6	13.2	△35.4	17.9	△34.7	△27.3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주요 투자 대상국) 멕시코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60.6% 증가
- 중남미 주요투자처인 케이만군도 및 페루 투자는 감소

<중남미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멕시코	517	691	758	116	186	60.6%
케이만군도	1,065	1,442	2,209	251	103	△58.8%
페루	54	267	403	107	78	△27.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주요 투자 업종)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시현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 증가

<중남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13	'14	'14. 3분기	'15. 3분기	
제조업	893	590	586	140	148	5.9%
금융보험업	907	888	1,121	212	119	△43.7%
광업	524	847	890	128	78	△39.3%
도소매업	69	81	75	9	40	321.6%

* 자료원 : 수출입은행, '15년 3분기 실적

□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① 멕시코

- KIA : '16년 6월 30만대 양산을 목표로 누에보 레온주(Nuevo Leon)에 공장 설립 중
- 삼성전자 : 띠틀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케레타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 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
- LG전자 : 멕시코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
- 건설 플랜트 : KMS(가스공사, 미쓰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
 -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
- POSCO :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칼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 톤을 처리

② 브라질

- 브라질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 자동차,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등
- '12년 현대자동차가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납품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해, 브라질 최초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동반 진출이 이루어짐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① 멕시코

- 미국
 - 미국은 대 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이 이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GM은 멕시코 내 차량생산량 2위(약 65만 대, 전년 대비 13.1% 증가), 포드는 3위(약 53만 대, 16.3% 증가), 크라이슬러는 5위(약 39만 대, 3.3% 증가)

- 유통 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멕시코 진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업체로, '12년 총 수익은 4,180페소(약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2%를 차지
- * 월마트의 경우 Wal-Mart 브랜드 외 Sam's Club, Bodega Aurrera, Mi Bodega Express, Superama 등 다각화된 브랜드를 도입,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 중
- 일본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대 멕시코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Nissan은 '13년 11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지역에 공장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혼다는 셀라야 지역에 4억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과나후아토 지역에 투자를 증액 중
- 중국
 - 중국과 멕시코는 높은 교역량에 비해 중국 업체의 멕시코 진출은 아직 저조한 편
 - 중국의 對멕시코 직접 투자 누적액 2억 8,140만 달러에 그쳐, 전체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 ② 브라질
 - 일본
 - '14년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는 3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함. 일본의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옴.
 -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정치 불안, 국영석유기업(Petrobras) 비자금 비리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브라질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중국
 - 중국 총리 리커창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브라질이 53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인프라, 자원·에너지, 농축산업 분야 등 총 35건의 투자협약에 서명했으며 중국은 브라질에 총 53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의함.
 - 브라질과 중국이 맺은 경제협약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대서양-태평양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가 적게는 45억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투자진출 진입장벽

① 멕시코

- 높은 공공요금 :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이 한국보다 2~2.5배 높은 수준
- 부품, 소재 현지 조달의 어려움
 - 멕시코는 자체 제조업이 취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부품 및 소재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음.
 - 현지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제조업체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법규 등이 기업운영의 애로로 작용
- 노무 관리의 어려움
 - 현지진출기업 50개사를 통해 현지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노무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는데, 이는 멕시코의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
 - 노무관리에 있어 현행 노동법 및 관련 법규와 관행을 잘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② 브라질

- 한국기업을 포함, 브라질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애로사항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임.
 - * ‘브라질코스트’는 관료주의, 복잡한 조세제도, 열악한 산업 인프라, 무거운 노무부담 등 각종 애로사항을 총칭하는 용어임.
- 그 밖에도 주재원 파견 및 지사 설립에 관한 제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금융 및 외환 거래 관련 애로사항 등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이 존재함

③ 칠레

- 칠레 내 법적대리인 요구 : 칠레 정부 조달법 19886조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은 법적대리인 없이는 입찰 참여 불가
- 입찰참여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 입찰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청과 제출 전 공증절차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포기사례 발생

- 최근 전력판매 입찰 건 참여를 준비하던 태양열 판넬 제조 및 발전기업인 S사가 입찰사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해 입찰 참여를 포기함.

○ 현지인력 의무채용비율

- 칠레 노동법 제 19조에 의거,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외국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 전체 노동력의 85% 이상을 현지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력 채용 비율 제한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실패사례

① 멕시코

○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뢰, 법과 원칙에 따른 현지진출 (성공 사례)

-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GM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07년 멕시코 몬테레이에 공장을 설립
-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에 초기 법인설립과 세무, 노무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또한, 멕시코에서는 현지기업들 사이에서조차 관행처럼 되어 있는 편법운영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실행
-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상당수가 “멕시코인들은 게으르고, 느리다. 생산성이 낮고 답답하다.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불평하며 노무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A사의 멕시코 생산법인은 불과 1년 만에 본사의 생산성을 따라잡았음
- 이직률도 낮아서 설립 8년차인 현재는 오래 근무한 숙련공이 많아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
- 여기에 한국 본사의 영업력이 더해져서 GM 멕시코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와 캐나다, 브라질 공장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멕시코 내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 등 매출과 회사 규모도 성장 중임.

② 브라질

○ 현대자동차(성공사례)

-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해 오던 현대 자동차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 연기 등 수 차례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서 '11년에 비로소 공장 건설을 시작, '12년 말에야 공장 가동을 시작함

- 현대차와 더불어 피라시카바 시 인근에는 협력업체 9개 사가 동반 투자 진출함. 현대 피라시카바 공장의 면적은 69,000m²로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등 자동차 제조와 관련 전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3년 출시된 소형 자동차 HB20는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한 맞춤형 자동차 모델로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브라질 자동차 유통협회(Fenabrave)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년 10월 상순기준 8.9%로 포드를 제치고 4위 업체로 부상함
- 현대차는 브라질 맞춤형 차량 모델 개발 외에도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후원하는 한편,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 지역의 문화 행사 후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

③ 콜롬비아 (성공 사례)

- 보고타시 대규모 ITS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사업유형 : 프로젝트 수주지원
 - 의의 : 무역관 주도로 단계별 수주 전략을 구성, 약 2년 반에 걸쳐 한국의 ITS 시스템 마케팅 추진 및 현지 발주처와 네트워크 구축
 -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범국가적 지원 유도
 - 사업성과 : 인구 800만 규모 대도시 교통카드 시스템 단일계약 최대 수주
 - * 향후 지방도시 및 여타 중남미 주요도시 유사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
- 콜롬비아 해군 미사일 현대화 프로젝트
 - 對중남미 진출분야 다양화 및 G2G 거래 확대 기반 마련
 - 한국 및 KOTRA 방산지원 역사상 최대 방산물자 수출액 기록 (8,700만 달러)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증명 및 첨단 방산물자 수출 신호탄
 - 향후 콜롬비아 및 중남미 주변국과의 방산 G2G 거래 가능성 확대

④ 아르헨티나 (실패 사례)

- 수출규제·외환규제로 인한 계약 실패
 - 현재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수입통제 정책으로 인해 사전수입허가제(DAJI)와 수출 송금건에 대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 수입허가권을 가진 업체, 외환송금 능력이 있는 업체가 이를 무기로 협상 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

- 실제 사전수입허가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송부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외환통제를 피하고자 소규모로 거래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중임
- 코트라 무역관에선 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T 거래, 제3국 수출을 통한 재수입, 제3국 물류창고 및 계좌를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를 추천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14년 7월 기술적 디폴트 이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규부보를 금지 및 기존부보율을 인하하여 실질적인 수출보험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바이어가 실제로 구매의사가 있음에도 수출이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⑤ 도미니카 공화국 (실패 사례)

- A사는 현지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MOU체결 등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을 오가며 사업추진에 2년간 노력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업무 연락조차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프로젝트를 포기
- 현지기업들은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정부 및 공기업의 업무 추진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여 주로 물밑 작업이 상당수 작용

IV 시장진출전략

중남미지역은 비록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진출해야만 하는 지역임. 그 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중남미 시장은 Post-China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략해야할 지역으로 평가됨.

1. 진출전략 개관

<중남미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 체결 논의 활발 ○ '15년도 정상 순방 후광효과 ○ 한국산 제품 인지도 지속 강화	<Opportunities> ○ 중산층 확대로 구매력 확대 ○ 태평양 연안국들의 성장 모멘텀 확보 ○ 미주지역 최대의 생산기지로 부각 ○ 미-쿠바 관계 정상화 ○ 온라인 소비 증가
<Weaknesses> ○ TPP 발효에 따른 비가입국에 대한 차별 대우 ○ 지리적, 심리적, 문화적 원거리 비용 발생 ○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 정치·정책의 불안정성	<Threats> ○ 외환위기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 ○ MERCOSUR 회원국의 경기 침체 ○ 유가 하락-재정 수입 감소-공공지출 축소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 정치적 불안정
<시사점> ○ 멕시코를 미주지역 생산 거점으로 활용 (북미 및 남미 시장 대상) ○ FTA 모멘텀을 적극 활용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6개국 등) ○ 중산층 구매력을 겨냥한 소비재 진출 확대 ○ TPP 가입 경쟁국(일본, 베트남 등)과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쿠바 위주의 카리브해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기획요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체결 논의 활발, 중산층 성장

○ (입찰시장) 중남미 정부 입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장벽 해소 기대

* 멕시코정부, 국제입찰 시 FTA체결국으로 참가기업 제한

◆한-중남미 FTA체결 현황 : 한-칠레(발효), 한-페루(발효), 한-콜롬비아(타결), 한-중미(협상 중), 한-멕시코(재협상 예정) 등

- (부품재) 중남미 소재 글로벌 생산거점의 구매수요 증가
 - * 미주지역 최대의 생산기지로 부상('18년 미국에서 중국 시장점유율 초월 전망)

- (소비재) 중남미 중산층 확대로 민간시장 구매력 증대
 - * 최근 10년간 브라질 중산층 36백만 명, 멕시코 18백만 명 증가
 - * 중남미지역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 64%(중국의 경우 33%)

□ (위협요인) 외환위기 촉발에 따른 역내 도미노식 경기위축 우려

- 브라질, 콜롬비아 등 주요국 외환위기 발생 위험도 지속 증가
 - 취약한 주변국 등 중남미 전역으로 위기 확산 우려 → 대중남미 교역, 투자진출 위축 불가피
 - * '15년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전망) : (브라질) -1.76%대, (아르헨) 0.8%
- 또한 TPP 미참여로 경쟁국 대비 역내 수출경쟁력 상실 심화
 - TPP가입국(베트남, 일본 등) 주력생산품과의 가격경쟁력 열위 불가피
 - * 중남미 TPP 참여국 : 멕시코, 칠레, 페루 3개국

2. 세부 진출전략

2-1. 중남미 제조업 Value Chain 구성 및 소비재 시장 진출

□ 제조업체의 America로 Re-Shoring 따른 중남미 제조업 부상 활용

- **(배경)**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기업이 America대륙으로 리턴함에 따라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국 제조업 신규 벨류체인 생성
 - 자동차 제조, 항공, 석유화학, 전력 장비 등 인건비 경쟁력 있는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지역으로 신규 부품 및 소재시장 기회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편중된 수출구조 완화를 위해 신시장인 중남미지역 진출 전략적 확대 전략 실행
 - 최근 10년간 중남미 GDP 성장률은 3.4%로 세계경제 성장축으로 급부상 중
- **(전략)**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전력기자재 등 글로벌파트너링을 통한 Value Chain 신규 구축
 - 주요 완성차 부품 맵핑, 항공사 1차 벤더의 구매정책 등을 조사하여 현지 구매 수요에 맞는 전략 수립 필요

- 현지 사절단, 구매정책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현지 정보 입수 및 네트워크 강화 필요
 -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상담회
 - * (브라질) VW자동차부품 테크데이, 엠브라에르 항공산업 테크데이
- 중남미에 진출한 글로벌기업과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진출 기회 확대
 -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일본·미국 자동차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예정

□ 중남미 Emerging market “소비자 평균 소득 1만 달러 돌파” 따른 소비재 시장 진출 및 Marketing Channel 다양화

- **(배경)** 중산층의 지속 확대로 건강, 자동차, 미용, 통신, 의료 등의 기호제품의 구매력 증가 추세
 - 브라질 제외하고 '16년부터 점차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성향의 고급화 Trend 공략
 - 중남미 온라인 시장은 연 20% 이상 신규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700억 달러에 달함.
- **(전략)** 전자상거래 및 기존의 전통적 전시회를 활용하여 중남미 소비재 시장 돌파구 마련
 - 온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 대비 운영비 및 위험부담이 적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고려해 볼 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비 성향이 강한 중산층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비자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e-commerce, 홈쇼핑 등으로 다양한 채널 진입 시도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등을 통해 대형 유통망 진출 확대
 - * 중남미 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 사절단, 멀티라티나(Multilatina)유통기업 네트워킹 방한 상담회 등 참여
 - * 중남미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예정('16년)
 - 소비재 관련 유망·전략 전시회 한국관에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전시회 'EXPOANTAD'
 - * 브라질 국제식품·요식업박람회 'FISPAL' (aT센터 협업)
 - * 파나마국제박람회, 아바나국제박람회 한국관 참가 등
 - 한류소비재 구매품 조성 위한 현지유통망 연계 홍보사업 참여
 - * (콜롬비아) KOTRA-Exito 공동 Korea Pop-up Store
 - * 향후 멕시코·칠레·브라질로 릴레이 팝업스토어 확대 추진 예정

- 브라질의 경우 경기와는 무관하게 막강한 소비력을 지닌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저가형 제품으로 위축된 중산층을 겨냥하는 이중전략 필요
 - * 상위 5% 고소득층은 식품,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경제 불황 시에 진가를 발휘함
 -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는 지난 6월 기준 1만 4천여대 판매되어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인 10% 기록, 중국 IT기업 샤오미는 저가형 스마트폰 '홍미2'를 브라질에 출시, 발매 일에 홈페이지 1시간 마비

2-2.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미지역 진출 확대

- 경기침체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방안 모색
 - **(배경)**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미국가들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음
 - 중남미 지역 예상 경제성장률이 0.7%인 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 * 중미지역 '16년 예상 경제성장률 : 파나마 6%, 도미니카공화국 5.2%, 니카라과 4.5%, 쿠바 4%, 온두라스 3.3%, 멕시코 2.5%, 아이티 2.5%, 엘살바도르 2.3%
 - **(전략)** 수요가 상승하는 중미지역 건설 프로젝트 시장 및 소비재 시장에 진출
 -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항만 확장 공사, 발전소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장비, 기자재 산업이 유망함.
 - * '14년 파나마 수입동향에 따르면 철강 제품(HS Code 7308)은 전년 대비 155% 성장한 3위 수입 품목으로 성장, 한국은 동 품목 수출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2위 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3년간 新중산층 100만 명 증가, 소비시장에 급변이 예상되며, '15년 처음으로 중산층 인구가 저소득층(25.9%)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온수기, 정수기, 주거용 발전기 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14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향후 SNS 마케팅을 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 * 인터넷 보급률 57.8%를 기반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자가 늘어 요식산업, 건강 제품, 뷰티제품 등의 소비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음

□ 미국 embargo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쿠바시장 진출 방안 모색

- **(배경)** 쿠바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에 중남미의 Blue Ocean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미-쿠바 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 품목은 정보통신기기, 농기계, 건설기기, 건설기자재 등을 꼽을 수 있음
 - '12년부터 쿠바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 함.
- *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꽃보다 남자 등 다수의 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전략)** 변화기에 있는 쿠바시장의 정부 우선 육성분야인 의료, 바이오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 관광 등에 진출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 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효율적임
- * 아바나 국제 박람회 : 매년 11월에 개최되며 쿠바의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는 쿠바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14년에는 약 65개국 3,000개 외국 기업이 참가함
- 쿠바는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 KOTRA가 개최하는 對쿠바 협력산업에 참여하여 주요 공기업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필수
- 또한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미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2016 CUBA Week in Korea 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 서울 및 지방
- 내용 : 쿠바전략분야 국영기업 초청하는 한-쿠바경제협력포럼, 1:1투자상담회 개최
(국영기업관·마리엘특구관·전력관·관광관 등) 운영

2-3 원거리 중남미 시장은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으로 돌파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기회 확대

- **(배경)** IDB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집행
 - * 대표 사업인 차관(Loan) 프로젝트, 기술협력, 무상원조, 보증, 출자 등을 활용, 중남미 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 중
 - IDB가 주관하는 대다수 프로젝트는 회원국 국적의 기업과 개인에게만 참여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05년 가입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전체 48개 회원국 중 47번째)
 - * 연간 100억 달러 발주 프로젝트, 90억 달러 조달, 차관 사업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가 가능
 -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및 VIP 순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
- **(전략)** 對중남미 수출 부진 타개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를 위해 IDB 적극 활용
 - KOTRA-IDB,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활용, B2B 시장 진출 확대
 - * KOTRA(BuyKorea)와 IDB(Connect americas) 온라인 협력 MOU체결('15.3월)
 - * 후속 추진 사업 : 온라인 무역상담회, 온라인 세미나 ('16. 상반기)
 - IDB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격 협력 파트너 발굴 필요
 - *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현지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추세
 - * 기 진출 국내기업과 진출 희망기업의 적격 파트너 발굴을 위해 IDB의 인지도와 신뢰도 활용
 - * Made in Americas 상담회 및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16.11월, KOTRA-IDB 협업 사업)
 - 진출 유망 분야 (인프라, 에너지, 환경 등) 프로젝트 적극 공략
 - * 중남미 대다수 국가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및 전력 등 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중
 - * IDB내 한국펀드(4개)를 활용,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술협력 사업 참여 가능

□ 중남미의 다양한 경제 협력 기구 및 기존 FTA 활용 고도화

- **(배경)** 중남미는 지리적, 정치적 복잡성으로 20여개에 달하는 경제협력 기구 상존
 -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기술 장벽 등이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
 - 최근 TPP 협상 타결로 태평양연안국들의 국제경제 편입도가 높아짐
 - * TPP 가입국 : 멕시코, 칠레, 페루
 - * 우리나라의 TPP 참가가 어려울 경우, 동 지역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제협력 기구 및 기 체결된 FTA 활용 고도화 필요
 - 태평양 동맹(발효, '15.7월)이 중남미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 * 회원국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 반면, MERCOSUR는 원자재 및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기 급냉각

*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 **(전략)** 진출 희망 분야와 적합성이 높은 경제협력 기구를 타겟팅,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

- ALADI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 BOP(Base of Pyramid)* 계층 공략

* 소득수준은 낮으나 중남미 전체에 광대하게 분포(50%이상), 절대적인 소비량은 무시 못함

* 한-ALADI 협력포럼(회원국 전체 포럼 및 국가별 라운드 테이블), 한-중남미 산업협력 포럼('16년 하반기)

* 서울 식품전, ALADI관 신규 유치 ('16년 상반기)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상생 전략으로 섬유산업 공략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우리 교민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Up-Grade 통한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 형성 및 고급화

* 방한 사절단('16년 하반기) : 동대문 패션업체와 연결, 한국 고급 다기능 섬유 수출 사업 등 전개

* '한-MERCOSUR 섬유산업 Value Chain 포럼' 서울 및 지방(경기도 및 대구) 개최

-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체결 추진 및 '16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선제적 활용

* 한-칠레 FTA(발효), 한-페루 FTA(발효), 한-콜롬비아 FTA(협상 완료), 한-중미FTA(협상 개시), 한-멕시코FTA(추진 준비) 등 다양한 중남미 FTA 활용 가속화중

* 한-중미 FTA 및 TPP 대응하는 “중남미 한국 상품전” 개최

* '16 페루 APEC정상회의 연계'하는 중남미 프로젝트시장 사업 확대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29	수입 관세율(%)	0~5%
	수입액('14/US\$백만)	5,104	대한수입액('14/US\$백만)	116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선정사유	· 최근 몇 년간 멕시코 자동차 생산업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자동차 생산 4위 국가로 성장할 전망이며 따라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 GM,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현지 생산 공장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BMW, 크라이슬러, 닛산 등이 추가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함		
	경쟁동향	· 주로 미국 및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사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진출방안	· '16년부터 멕시코 누에보 레온 주에 기아 자동차가 생산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동반진출 할 경우 안정적으로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유망국가	-		
품목명 2	HS Code	8507.60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305	대한수입액('14/US\$백만)	13
리튬이온 축전기	선정사유	· 새로 개정된 멕시코 에너지 개혁법에 따라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		
	시장동향	· 휴대폰과 노트북의 주력 전지인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1990~2005년 사이 가격이 1/10로 하락했으며, 2005년, kWh 당 1,500달러를 상회하던 전기차용 전지 가격이 이제는 300~4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함.		
	경쟁동향	· 리튬이온 전지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미국, 일본, 중국이 선점하고 있음		
	진출방안	· 상대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 3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15%
	수입액('14/US\$백만)	283	대한수입액('14/US\$백만)	0.84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선정사유	· 최근 외모를 관리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이유로 색조화장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음		
	시장동향	· 멕시코 내 한국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및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최근 K-POP 및 한국드라마를 접한 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stee Lauder Cosmetic의 MAC 브랜드이며 그 뒤를 Lancome, Clinique 등이 10%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진출방안	· 멕시코 내 소비자는 피부 톤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제품군이 한국과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및 시장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 4	HS Code	8501	수입관세율(%)	0~15%
	수입액('14/US\$백만)	1,759	대한수입액('14/US\$백만)	114
전 동 기 및 발 전 기	선정사유	·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예측해 꾸준히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노후 발전시설이 많아 발전기 및 전동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 대형 기계설비 보유 공장이나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전기 발전소, 쇼핑몰, 은행 등 전기 사용이 높은 산업에서 개별 전동기 및 발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위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위, 4위인 미국과 독일 제품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진출방안	· 한국 제조업체의 경우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함.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제품 판매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보다는 회사 규모, 인지도 측면을 모두 고려해 수입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유망국가	-		

품목명 5	HS Code	3003	수입관세율(%)	0~15%
	수입액('14/US\$백만)	185	대한수입액('14/US\$백만)	2.4
의약품	선정사유	· 멕시코 보건부는 '14년 "14년~18년 국가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그램"을 발효함. · 약 57억 달러 이상을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5개의 종합병원, 7개의 일반병원 및 클리닉 등의 신규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투자계획과 신규병원 건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위 제약시장으로 멕시코 제약 산업은 원료 생산보다는 완제품 생산이 중심임. 또한 판매되는 약의 85%가 복제의약품임.		
	경쟁동향	· 품목별로 백신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가 항생제는 중국과 푸에르토리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진출방안	· 멕시코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관련제품 및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에 많은 제약업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멕시코 시장에 맞는 의약품 개발 및 기술제휴를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유망국가	-		
품목명 6	HS Code	8521.90	수입관세율(%)	14%
	수입액('14/US\$백만)	112	대한수입액('14/US\$백만)	0.152
CCTV 및 각종 전자보안장치	선정사유	· '14년 대한수입액은 152천불이나 '15년 9월 기준, 브라질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334천불로 147%상승함. · '14년 조사된 사회개발지수(SPI)에 의하면 브라질은 조사대상 132개국 중 11번째로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로 나타남. ·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대학교(FLASCO)의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은 10만명당 29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안장비 및 서비스 시장은 '07년부터 '12년까지 79%가 성장함. 연평균 9%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8억 8천만 달러의 수익 창출 · 브라질 치안의 악화와 비례하여 브라질 민간 보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인프라 및 연계한		

CCTV 및 각종 전자 보안장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향후 2년간 CCTV 및 스마트 잠금장치 등 보안장비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 브라질 시장에서 민간 보안 산업 분야는 공공보안/치안 분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가 아닌 여러 공급업체가 세분화되어 있는 시장임.		
	경쟁동향	· 중국산 물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홍콩, 스페인 등임. 한국은 수입국 중 17위임.		
	진출방안	·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업의 제품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다만, 일반적인 CCTV나 보안 장비의 경우,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 7	HS Code	940540	수입관세율(%)	0% 또는 12%
	수입액('14/US\$백만)	96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LED 조명 (가로등용 LED 조명 장치)	선정사유	· '15년 상반기 타국으로의 동 품목 수입이 평균 22.5%하락에 비해 국내제품은 52.5%증가함. · 브라질은 '10년 공공조명과 관련한 법률을 기존에 송/배전업체에서 관리하던 공공조명을 개별 시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함. · '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조명의 관리책임을 시정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공공조명 관리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시장동향	·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민관 합동 프로젝트(PPP)이며, 특히 예산 절감 노력이 더 중요시되는 중소 시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파트너를 모색 중임. ·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뭄으로 전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정부들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브라질 LED조명 시장은 급격히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중국, 미국, 멕시코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내 대도시의 경우, GE, 필립스 등 현지 진출한 지 오래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바, 브라질 내륙의 중소 도시를 타겟으로 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갖추고(프로젝트 발굴 가능한) LED 설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제품 납품 후 현지 설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유지보수 가능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참가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유망국가			
품목명 8	HS Code	850440	수입관세율(%)	2~18%
	수입액('14/US\$백만)	624	대한수입액('14/US\$백만)	48
태양광 인버터	선정사유	·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827만 달러로 브라질 태양광인버터의 4위 수입국임. · 브라질은 전체 전력생산의 65%를 수력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검토 및 개발하고 있음. · 브라질은 연평균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생산량은 5MW 수준에 그침. · 여러 국내외 기업들 브라질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시장동향	· 브라질 정부는 '02년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다수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 입찰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임.		
	경쟁동향	미국, 독일,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 태양광 인버터의 브라질 시장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INMETRO령에 근거, 에너지 효율관리 프로그램(PROCEL) 인증셀(ENCE)을 취득해야 함. - 브라질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유망국가			
품목명 9	HS Code	860799	수입관세율(%)	2~14%
철도용 부품	수입액('14/US\$백만)	65	대한수입액('14/US\$백만)	0.3
	선정사유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4,830% 증가한 2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5년 1~9월에는 전년 대비 4,504% 증가한 1256만 달러를 기록하여 스페인 다음으로 최대 수입국임. - 이는 현대로템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상파울루주 아라라夸라시로 투자 진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기업의 브라질 철도차량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경우 한국산 철도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오텍캐리어는 '14년 브라질에 현지 합작공장을 준공해, 현대로템 법인 철도차량 기지에 철도용 에어컨을 납품할 계획임.		
	시장동향	브라질 정부는 '10년 고속철도 건립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까지 511km를 잇는 철도 건립 사업임. 브라질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산업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철도분야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스페인, 중국, 미국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로컬콘텐츠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부품의 약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해야 한다는 현지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설립함.		
	유망국가			

품목명 10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14%
	수입액('14/US\$백만)	101	대한수입액('14/US\$백만)	25
초음파영상 진단기	선정사유	· '14년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 1~9월 누적기준 전년대비 15.65% 증가한 2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다음으로 최대 수입국임. · 현재 브라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건강진단 및 의료시설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열악한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지우마 대통령은 소외계층 의료 혜택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무료 의료 혜택인 “통합의료시스템(SUS)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음.		
	시장동향	· 브라질의료장비수입협회(Abimed)에 따르면 '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한 99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 현재 브라질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며, 첨단기술 장비들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중임. · 초음파 영상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는 Philips, Siemens, GE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이 브라질에 진출해 있음.		
	경쟁동향	중국, 미국, 일본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 브라질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브라질위생감시국(ANVISA)의 강제인증 취득이 필수적인데, 브라질 현지 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허가 취득이 가능함. ·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지도는 보통~낮은 편이므로 매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 Hospitalar에 참여하여 유력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유망국가			

품목명 11	HS Code	8402.90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4
보일러	선정사유	· 매년 꾸준히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15년 상반기 기준, 대한수입액은 약 500만불을 기록, 對칠레 수출국가 중 1위를 차지		
	시장동향	·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증기보일러 수요 증가가 예상됨.		
	경쟁동향	· 일본산과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 20%로 큰 차이가 없음. 한국산은 대부분 발전소 프로젝트로 인한 증기보일러 수요가 대부분임.		
	진출방안	· 보일러는 현지 전기연료관리청(SEC) 인증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시 바이어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함.		
	유망국가	일본, 한국, 미국		
품목명 12	HS Code	8517.12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1,306	대한수입액('14/US\$백만)	49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선정사유	·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 '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 이용자 수보다 휴대폰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경쟁동향	· 중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음		
	진출방안	·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 설문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이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가격경쟁력이 있는 스마트 기기(휴대폰, 태블릿 등) 및 영상기기를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망국가			
품목명 13	HS Code	8708.30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60	대한수입액('14/US\$백만)	3
자동차부품 (브레이크 패드)	선정사유	· 자동차 부품 중 특히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항상 높은 수요가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품목임		
	시장동향	· 현지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환 주기가 있는 제품 특성상 수요는 꾸준히 있음		
	경쟁동향	· 대부분은 미국산, 중국산이나 자동차 부품은 이미 각국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며 경쟁이 치열함.		
	진출방안	· 현지 자동차 부품 시장은 수요가 높은 동시에 이미 포화된 시장이므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 브랜드와의 차별성이 필수임		
	유망국가	미국, 중국, 브라질		

품목명 14	HS Code	5407.10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5
섬유, 의류	선정 사유	·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고,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임		
	시장동향	· 군복, 공공기관 유니폼 등 기능성을 추구하는 제품의 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스포츠의류 소비의 경우 칠레가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 함께 입는 애슬레저(Athleisure)룩이 유행함에 따라 관련 제품 수요 증가함.		
	경쟁동향	· 칠레 전체 시장 점유율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음. 가격 문제로 중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기능성을 요구하는 수요의 경우 대부분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산의 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 저가 중국산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나 기능성 제품 혹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니트류 제품 등 틈새시장 공략 가능성 있음.		
	유망국가	중국, 미국, 스페인, 대만		
품목명 15	HS Code	3917.23	수입 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3	대한수입액('14/US\$백만)	0.7
정수기필터	선정 사유	· 낮은 수질 상태, 최근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향후 정수기 필터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 중산층 확대, 소득 증가로 질 높은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칠레보건부 주도의 건강 캠페인 활성화로 건강한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경쟁동향	· '15년 9월 기준 한국이 전체 시장 점유율 중 2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미국, 이스라엘이 잇따르고 있음.		
	진출방안	· 정수기 필터의 경우 선진국 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고품질을 중점으로 한 마케팅이 필요함		
	유망국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품목명 16	HS Code	84295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4/US\$백만)	83.1	대한수입액('14/US\$백만)	11.3
건설중장비	선정 사유	· 국제 광물가격하락 영향으로 '14년부터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15년말 예정된 엘니뇨 피해복구사업이 '16년 활기를 띠 전망이어서 점차 수요회복세 예상		
	시장동향	· '14년부터 국제광물가격하락으로 건설장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광물지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		
	경쟁동향	· 미국 Caterpillar, 일본 Komatsu 등 브랜드 장비와 중국에서 OEM 생산된 장비와 치열한 경쟁 불가피		
	진출방안	페루 EXPOMINA('16.9월)등 주요 광산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적정 파트너 발굴 필요. 아울러 안정적인 애프터 서비스라인 사전 구축이 필수적임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1. 신수요 판로개척을 통한 내수기업 지원 강화

☐ 멕시코 산업공단 순회 로컬부품 조달 상담회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중남미 진출 글로벌 기업의 본사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부품 해외마케팅 강화
 -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일본·미국 자동차기업 본사 수출상담회
 - * 주요 산업공단 순회 1:1 구매상담회: Puebla(VW·Audi), Guanajuato(Mazda·Honda), San Luis Potosi(GM) 등

☐ 멕시코 소비재유통망전시회(EXPO ANTAD)

- 시기 및 장소 : '16년 2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소비재 관련 유통·전략 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전시회 'EXPOANTAD'(3월)

2.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지원강화·대형유통망 소비재시장 진출

☐ Multilatina 대형유통망 네트워킹·명품소비재 릴레이 팝업스토어

- 일시/장소 : '16년 상시 / 국내외
- 참가대상 : 한국기업 50여개사, 중남미 대형유통망* 바이어 등
 - 멕시코 최대 소비재유통망 전시회 EXPO ANTAD* 한국관 참여('16.3.8-10)
 - * 국내업체 10개사 참가 및 중남미 주요유통망 초청 추진

☐ 중남미홈쇼핑시장 대중소동반진출사절단

- 시기 및 장소 : '16년 3분기, 멕시코
- 사업내용 : 다국적 유통망, 전자상거래·홈쇼핑기업 방한초청 및 네트워킹 상담회 개최
 - 현지 유통망 연계, 명품소비재(K-Product, K-Beauty) 팝업스토어*
 - * 소매·체험관, 팝업세미나(조리·화장법) 등으로 소비자 흥미유발 요소 가미

3. 한-멕시코 FTA 연계 Push사업 추진

□ 중남미 한국일류상품전(Korean Expo '16 in LAC) 개최

- 일시/장소 : '16년 6월중(3일간) / Centro Banamex(멕시코시티)
- 참가대상 : 한국기업 100개사, 멕시코 및 중남미 FTA협상국 바이어 등
- 사업내용 : 투자진출기업홍보관, 혁신기업관, 소비재관, 화상상담관*, FTA경제협력포럼 등
 - *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바이어와는 화상으로 1:1상담 주선
- 주요내용 : 한국 우수상품특별전 개최, 멕시코·중남미 유력바이어 초청을 통한 1:1상담 진행

4. 자동차부품 및 항공 산업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① 폭스바겐 자동차 부품 테크 데이

-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브라질을 기반으로 남미공동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4월, 폭스바겐 안시에따 공장 강당(잠정)
 - 대상현지기업 : 폭스바겐
 - 규모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20개사
 - 사업형태 : 폭스바겐의 구매 희망 부품을 논의하여, 관련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자동차 부품 테크 데이' 개최
 - * 1:1 상담회, 폭스바겐 구매정책 설명회(벤더등록절차 등), 공장시찰 등

② 브라질 항공 산업 테크 데이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16년 5월, 상조제두스캄뿌스(항공산업단지)
 - 대상기업 : 엠브라에르사 최대 1차벤더인 프랑스 Latecoere사 및 브라질 항공산업협회
 - 규모 : 국내 항공부품기업 10개사
 - 사업형태 : Latecoere사를 통한 엠브라에르(Embraer)사 구매정책, 구매수요 파악하여, 1차 벤더 납품 한국 기업사절단 파견을 통한 '한국 항공부품 테크 데이' 개최
 - * 1:1 상담회, Latecoere사 및 엠브라에르사 구매정책 설명회(벤더등록절차 등), 공장시찰 등

③ 브라질 주요 완성차 부품 맵핑 조사

-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수요, 생산 및 납품 현황, 주요 기업 디렉토리, 기업별 구매정책 및 담당조직 작성을 통한 현지 진출 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 시기 : '16년 1분기
 - 조사대상 현지기업 : 혼다, Fiat,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기업
 - 형태 : 책자 및 PDF 형식으로 제작하여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제공
 - 규모 : 책자 300부
- 특기사항 : 브라질은 로컬 콘텐츠 규제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어 일부 품목은 좋은 품질과 가격을 보유하여도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정책에 따라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제조 기업별 부품 구매 및 납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5. 순방후속 수출저변 확대사업

- (유통) 한-칠레 유통망 워크
 - 시기 : 미정
 - 장소 : 국내 및 현지 (산티아고)
 - 내용 : 주요 유통망별 구매정책 설명회, 소싱상담회 및 MD 파트너링
 - 참고 : 대중소 상생협력, 인근국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E-Commerce Day & Cyber Monday
 - 시기 : 미정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현지 E-Commerce Day 참석, 한국모델 소개 및 파트너링 상담회
 - 참고 : API 기반 플랫폼 공조를 통한 공동 특판 행사 참여 추진
- (기타) 전략산업 유망 전시회 참가
 - 시기 : '15.4월
 - 장소 : 산티아고
 - 내용 : Expomin (칠레 광산박람회) 참가 및 대리 상담회 추진
 - 참고 : 지사화 및 내수기업 특화사업으로 유도 (필요시 한국관 구성)

6. GtoG 프로젝트 추진 (G2G교역단, 방산센터 협업)

- 비방산 : LPD건조함(정상외교후속), 유조선, 지능형순찰차(사후관리) 등
- 방산 : 육군/공군/해군 소요 무기체계 (탄약, 공격기, 미사일 등)
- 주요 추진내용 :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획득분야 인사 네트워크 구축

7. 한-중남미 창업경진대회

- '15년 4월 VIP순방 이후 중남미 진출의 대표사업화한 "K-Move"의 구체적인 사업화
 - 상파울루 무역관 K-Move 거점무역관 지정, 산티아고 무역관 칠리콘벨리에 10년간 90팀 파견예정
 - 중남미 지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OKTA와 협력, 한-중남미 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
 - * 섬유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교포사회에 창업을 통한 차세대 인력양성을 지원
- 사업개요
 - 일시: '16년 7월 (한국 대학생 방학기간)
 -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세부장소 미정
 - 협력기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남미지부, 재아한인상공인협회
 - 참석대상 : 남미 통합무역스쿨 참가지회(Buenos Aires, Sao Paulo, Rio de Janeiro, Santiago, Asuncion, Ciudad del Este, Montevideo) 차세대회원 100명 이내
 - * 한국 내 중남미 창업희망 대학생 4개팀
- 참고사항
 - 중남미 거주회원들을 대상으로 1차 창업스쿨진행 ('15년 10월), '16년 상반기 한국과 연계하여 2차 창업스쿨 진행 예정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Start-up Chile 프로그램 참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사 및 중기청 협의예정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아프리카 진출전략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

목 차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89
1.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589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591
3. 인구 10억 명의 소비시장의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593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595
5. NDB(New Development Bank) 출범	595
II. 진출환경 분석	597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597
2. 경제 환경	601
3. 산업 환경	603
4. 정책·규제 환경	606
5. 기타(정치 등) 비즈니스 환경	608
III. 시장 분석	609
1. 수출	609
2. 투자진출	616
3. 프로젝트	620
IV. 시장진출전략	622
1. 진출전략 개관	622
2. 세부 진출전략	623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629

I '16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부진, 외환부족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둔화가 더해져 IMF는 '1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TFTA 합의를 통해 경제통합을 가시화하여 영세한 경제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증가하여 소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4년 발생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도 종식되어 '16년에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정상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48개국) 주요 자원부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자재가격하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광물, 원자재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

- 원자재 수요 감소로 SSA의 對中 수출 급감 : 49.9% (2015년 8월 누적기준)
- (남아공) SSA 제 2 경제대국으로 광물자원 수출이 총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의 수요 감소·가격 하락으로 수출급감. 현지화폐인 란드화(RAND)는 '15년 9월 13.9R/USD를 기록, 역대 최고(평가절하)를 갱신 등 세계 5대 취약 통화로 지목됨

* 세계 5대 취약통화(Fragile 5) : 남아공,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 (유가하락) SSA 원유수출 5개국(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 차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2014년 5.9% → 2015년 3.5% → 2016년 4.1% (IMF)

- (나이지리아) SSA 제 1의 경제규모, 제 1의 산유국으로 원유수출이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개인 외환송금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앙골라) SSA 제 3의 경제규모, 제 2의 산유국으로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재정지출 감축

□ 우리나라 對SSA 수출 역시 다소 어려움 전망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SSA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중을 보면, 라이베이라(30%), 앙골라(18%), 남아공(15%), 나이지리아(14%), 케냐(3.8%)로 5개국 80.8%로 집중
- 라이베이라를 제외한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16년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라이베이라 : 편의치적제도에 따라 제 3국에 대한 선박수출이 수입통계에 포함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 요인>

	주요 요인	세부내용
 나이지리아	유가하락 <원유수출 외화수입 90%>	▶ 재정지출 9% 감축('15년 2월) ▶ 개인외환보유 통제('15년 8월)
 앙골라	유가하락 <원유수출 GDP 50%,총수출 90%>	▶ 재정지출 8.1% 감축('15년 2월) ▶ 2008년 유가하락시 70억 달러 공사대금 미지급
 남아공	광물자원가격 하락 <광물자원 수출의 40% 차지>	▶ 환율 역대최저 기록(13.9R/달러, '15년 9월) ▶ 란드화, 세계 5대 취약통화(Fragile5)로 지목
 라이베리아	광물자원가격 하락 <對中수출 급감 △42.23%>	▶ 한국 對라이베리아 1개 품목(조선) 집중 98% ▶ 수출급감 : △58.68% ('15년 9월 누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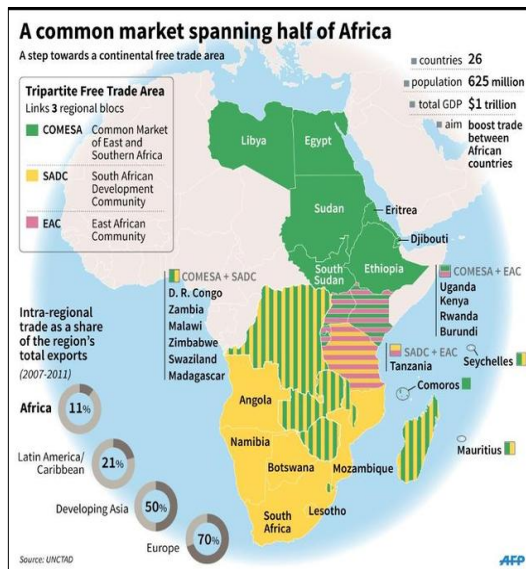
2.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체결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은 '15년 6월 10일,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에서 지난 5년간의 협상을 끝으로 합의 서명
- 아프리카 대륙內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를 2017년까지 통합 추진

아프리카 3대 경제 블록		
		
이름	참가국	출범일
COMESA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집트, 케냐, 짐바브웨 등 동·남부 아프리카 19개국	2000년 10월 출범
EAC (East African Community)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5개국	2006년 1월 출범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공, 앙골라 등 남부아프리카 15개국	1992년 8월 출범

- TFTA는 i) FTA를 통한 시장통합 ii) 인프라 개발 확대 iii) 산업화 가속을 3대 목표로 설정. 공식 출범시 총 26개국, 인구 6억 2600만 명, 1조 달러 경제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을 탄생시키게 됨
-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영세성을 극복, 미래 시장으로 발전 주목
 - SSA의 경제규모는 '14년 기준 1조 6,800억 달러로, 한국 1조 4,100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며, 48개국으로 나누어져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 TFTA 출범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교역 비중은 '13년 12%에서 30%로 증가하고 투자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 특히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가속화 전망



<우리진출기업 반응 조사>

- 시행 : '15. 7월, 아프리카지역본부
- 대상 : 아프리카 진출 지상사 30개사
- 주요내용
 - * (수출) 역외 수입품 가격경쟁력 약화, 역내 제조기지 진출 등으로 경쟁력 유지 시급
 - * (프로젝트) 건설 비용절감, 금융 지원개선으로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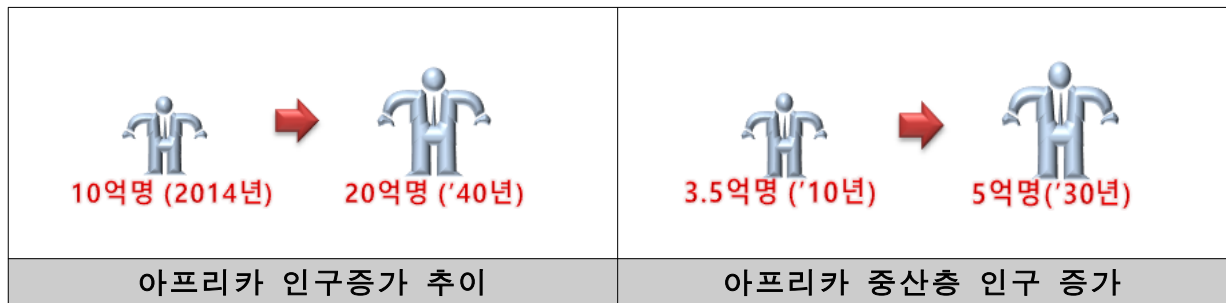
* 자료원 : AFP, 2015

- 공식 출범까지 국별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
 -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 등의 승인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 및 투자 관련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 진행 예정
 - 모잠비크, DR 콩고 등 제조업 미성숙 국가들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공 등 비교적 선진적 산업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역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관세수입 감소 등 국별 이해관계가 달라 참여국간 세부 협상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인구 10억명의 소비시장 성장과 트렌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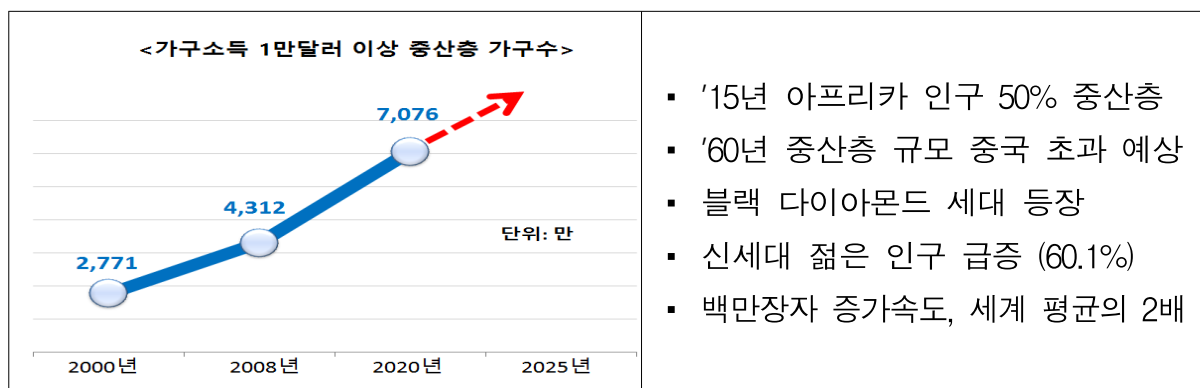
□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

- 전례없는 인구증가와 GDP 성장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확대
 - 최근 10년간의 고성장으로 중산층 비율이 커지고 있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 자료원 : U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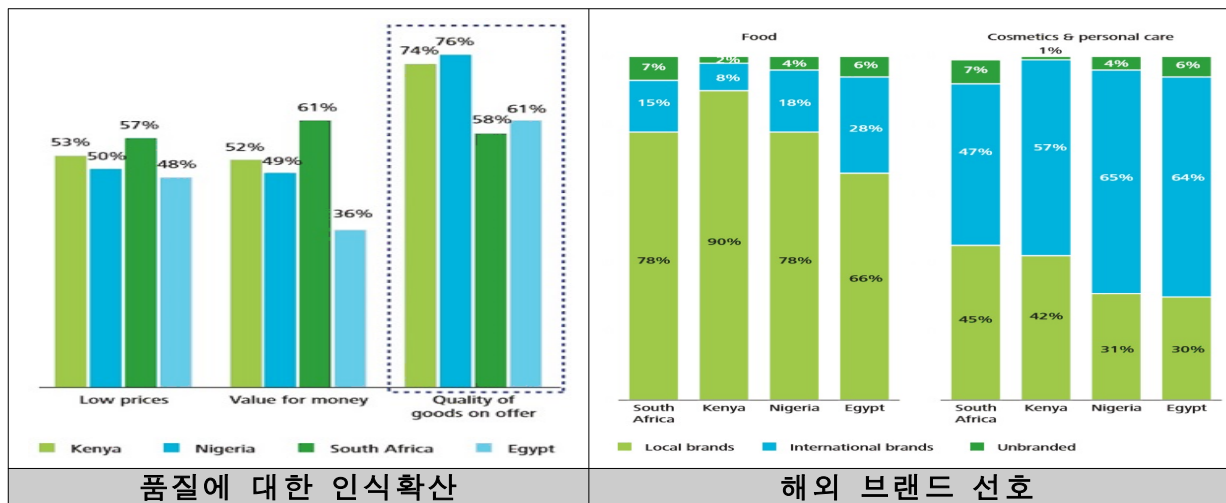
-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상권과 대형 유통망 형성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아프리카 도시의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까지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앙골라 후암보는 '14년의 5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료원 : UN, 2014

□ 저가품에서 브랜드 · 고가품 · 품질 중심의 소비재 시장 형성

- 전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아프리카, 구매력을 갖춘 젊은 인구층(블랙다이아몬드)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주도
 - 블랙다이아몬드 계층은 유행에 민감하여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브랜드를 선호하며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소비 성향을 보임
 - * 젊은 인구(15-24세)의 증가 : ('10년)2.1억 명 → ('30년)3.2억 명
 - ** 2030년 나이지리아 35세 이하 인구비중은 전체 인구의 70% 전망 (UNDESA)



* 자료원 : Deloitte Survey, 2013

□ 온라인 시장의 태동

- 무선통신의 보급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 가속
 - 열악한 유선통신의 한계를 무선통신으로 극복, E-Commerce 시장 급성장
 - * 아프리카 인터넷 사용률('13년) : 21% → 스마트폰 가입률('17년) : 약 30% (World Internet Stats)
- 대형 유통기업 SSA의 온라인 시장 주목 및 신사업 진출

- * 2014년 헛지펀드 타이거글로벌社 남아공 온라인쇼핑업체 Takealot 1억 달러 투자
- * 2014년 독일 Rocketinternet社 나이지리아 온라인쇼핑업체 Jumia 1.5억 달러 투자

4. 서아프리카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 에볼라 충격에서 회복, 서아프리카 경제 정상화 전망

- 가나와 라이베리아는 식료품가격 안정, 민간소비 회복 등의 경제정상화로 각각 '16년 4.9%, 5.6%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병 국가들의 광산 폐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바 있음

<에볼라로 인한 서아프리카 주요 3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달러, %)

국가	2015년 GDP 손실 예상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망)	2016년 (전망)
기니	5억 4000만	2.3	1.1	0.00	4.9
라이베리아	1억 8000만	8.7	0.7	0.9	5.6
시에라리온	9억 2000만	20.1	7.1	-23.9	-0.7

* 자료원 : IMF

- WHO(국제보건기구) 에볼라 종식 선언
 -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식선언 ('15.9월)
 - 시에라리온 에볼라 종식선언 ('15.11월)

5. NDB(New Development Bank) 공식 출범

□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개발은행이 '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실시

- NDB는 브릭스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이 각각 초기 자본금을 20%씩 분담해 500억 달러를 조성했으며 본부는 상하이에 설립,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개설할 예정
- 초대총재 : Mr. Kundapur Vaman Kamth (인도)
- 브릭스 정상들은 위기사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



- NDB 자본을 통한 남아공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활성화 기대

2016년 주요 일정

-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정상회의 : 2015.12.4.-5 (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주요일정
 - 지방선거 : 2016.5월
 - ANC(Africa National Congress) 전당대회 : 2016.5월
 - * ANC 전당대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하며 원내대표는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
 - 가스자원활용 종합계획(GUMP) 초안 발표 : 2016.8-9월
- 케냐 주요일정
 - 몸바사 동구쿤두 자유무역지대(FTZ) 2016년 착공식 거행 예정
 - 케냐 국제 무역 전시회 : 2016.10월
- 탄자니아 주요일정
 - 한-탄자니아 수교 25주년 : 2016.4.30
 - 다레살람 국제 무역 박람회 : 2016.6.28-7.8
 - 한-탄자니아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 2016년 상반기
 - 한-탄자니아 투자보장협정 발효 : 2016년 하반기
- 에티오피아 주요일정
 - 제 25회 AU 정상회의 : 2016.1월
 - 무역 엑스포 : 2016.2.25-28
 - 아프리카 투자 포럼 : 2016.10월
- DR콩고 주요일정
 - 대선 : 2016.11월
 - 농업단지 개발 : 2016년 연중
- 수단 주요일정
 - 한-수단 수교 39주년 : 2016.4.13
 - 카르툼 국제 박람회 : 2016.1.25-2.1
- 모잠비크 주요일정
 - 마푸투 국제종합박람회 : 2016.8월
- 가나 주요일정
 - 대선 및 총선 : 2016.11.7

II 진출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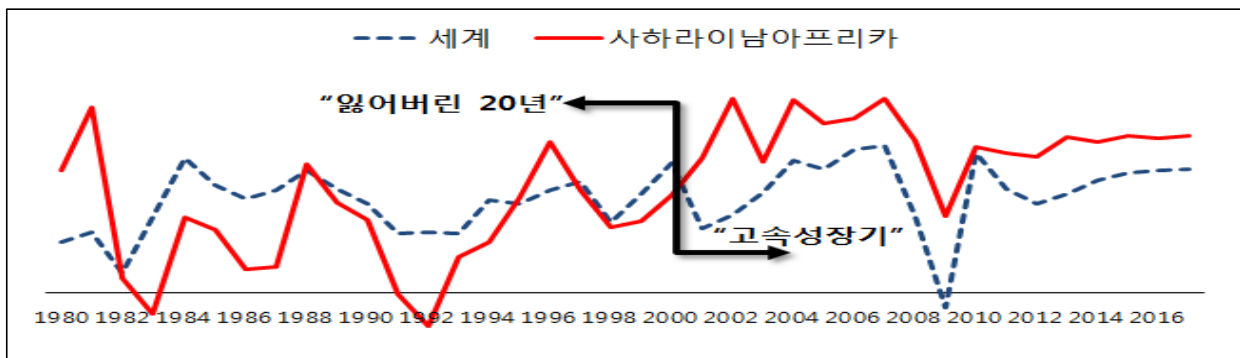
최근 10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아프리카는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교역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 수입시장 및 FDI 확대, 프로젝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제조업 확대수요를 활용하여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미래성장 엔진으로 재평가 시작

- '01년 이후 매년 5~6%대 성장률을 실현 중이며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이 포함되는 등 세계경제 신성장 엔진으로 부각

<세계 對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원 : IMF

<'11~'15년 고속성장 10개국>

(단위 : %)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순위	국가명	성장률(평균)
1	중국	9.5	6	베트남	7.2
2	인도	8.2	7	DR콩고	7
3	에티오피아	8.1	8	가나	7
4	모잠비크	7.7	9	잠비아	6.9
5	탄자니아	7.2	10	나이지리아	6.8

* 자료원 : IMF

- SSA '16년 자원부국의 경기침체에도 세계 평균(3.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4.3% (IMF)
- 저소득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25개국) 중심의 가파른 경제성장이 SSA 경제성장을 주도 전망
- * ('14) 6.5% → ('15) 5.8% 전망 → ('16) 6.4%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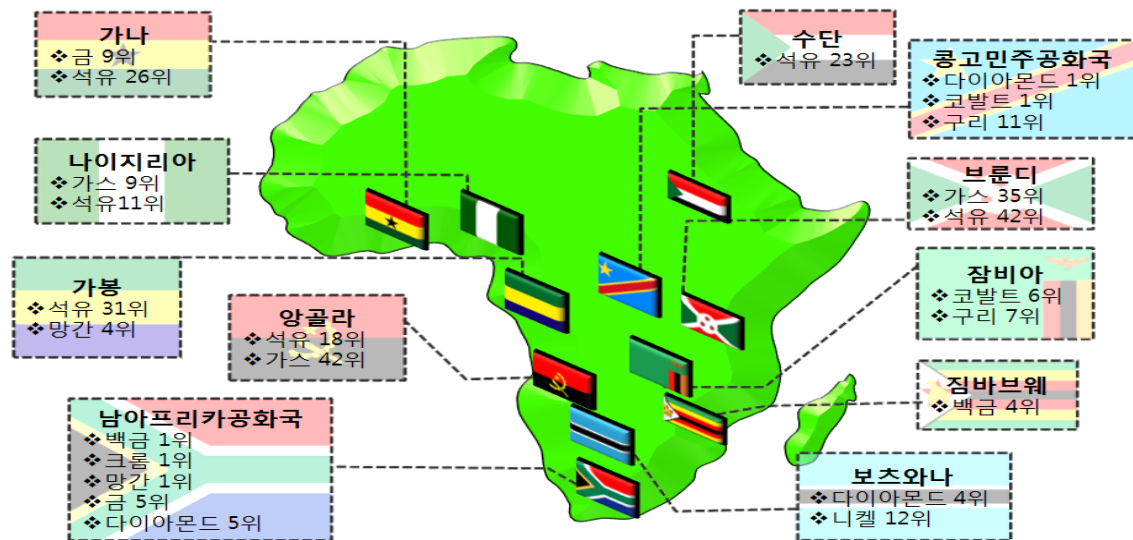
□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성장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은 최빈국·저개발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구축
- * 보츠와나 GDP 규모변화(억 달러) : ('80) 12 → ('14) 163
- * 모리셔스 GDP 규모변화(억 달러) : ('80) 12.7 → ('14) 127.2
- 여전히 SSA 시장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SSA 48개국 '13년 GDP 합계 1조 7,120억 달러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2개국의 GDP가 53.9%를 차지하며, 상위 6개국의 GDP가 70%를 상회

□ 막대한 부존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 아프리카는 원유, 광물,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미확인·미개발된 자원도 풍부
- (남아공) 세계 백금족 매장량의 95%, 망간 26.3%, 크롬 41.7%, 금 11.1%, 바나듐 25% 부존
- (모잠비크) 가스 매장량 2,800bcm(EIA), 지속적인 해상 가스전 개발에 따른 총 매장량 세계 9위 수준으로 평가
- (탄자니아) 천연가스 매장량 55조 입방미터 규모임, 2020년 양산체제 돌입했으며 英 BG 그룹은 2016년 천연가스 수출시스템 구축투자 예정 (150억 달러)
- 보츠와나는 광물자원 소득을 통해 불과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발전
- 1966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9%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반면,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등은 부존자원이 부패와 정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저해하며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림

【 참고 : 아프리카 자원보유 현황 】



자원	단위	아프리카	세계	아프리카비중(%)
Platinum	Million kg	63	71	89
Diamond	Million carats	385	600	64
Cobalt	Thousand MT	3,670	7,500	48
Chromium	Million MT	200	460	43
Iron ore (crude and iron content)	Billion MT	30	250	12
Manganese	Million MT	180	630	28
Gold	Thousand MT	8	52	15
Gas	Trillion cubic feet	513	7,331	7
Crude oil	Trillion barrels	132	1,655	8
Coal	Billion tonnes	31	861	4
Copper	Million MT	40	680	6
Uranium	Million tonnes	1	5	20
Agriculture	Million hectares	590	970	60

* 자료원 : RMB, PwC, US Geological Survey, BP, 2012년

□ 아프리카의 다양성 이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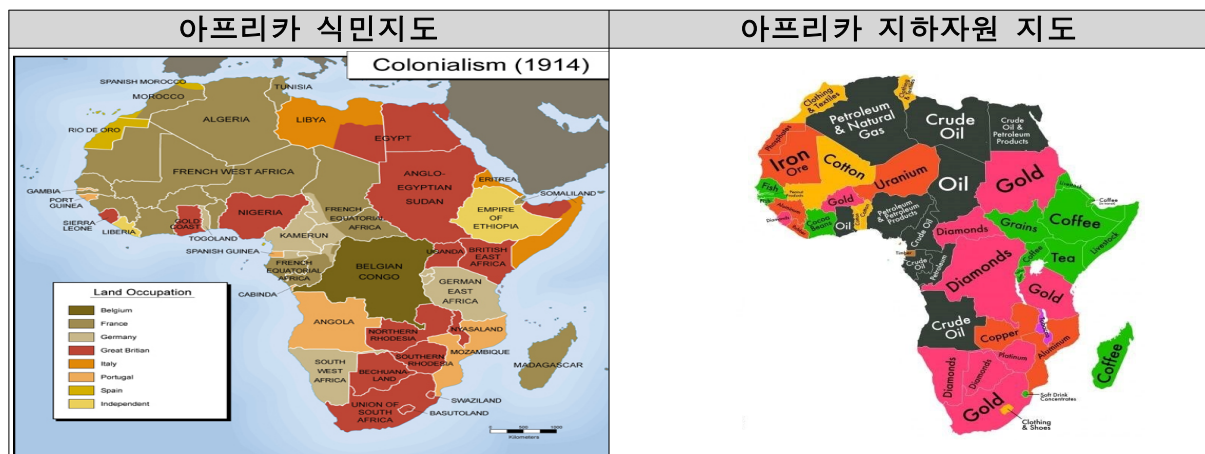
- 54개 독립국가로 구성(SSA 48개국),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음
 - 부존자원, 경제규모, 산업구조, 역사유산, 종교, 자연여건 등이 모두 제각각 다름
-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736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7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언어, 역사)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1,600여개에 달하며, 그 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음, 이에 따라 상관습도 다양함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성>

구 분	GDP('14년 / 억 달러)	경제성장전망('14-'19년)	비즈니스친화도	언어(식민)
나이지리아	5,154	7%	147위	영어(영국)
남아공	3,238	5%	41위	영어(영국)
앙골라	1,061	8%	150위	포르투갈어(포르투갈)
수단	762	2%	149위	아랍어(영국)
케냐	659	11%	129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에티오피아	575	11%	125위	암하릭어(-)
탄자니아	499	9%	145위	영어/스와힐리어(영국)
가나	392	5%	67위	영어(영국)
우간다	268	7%	132위	영어(영국)
모잠비크	169	12%	139위	포르투갈어(포르투갈)

* 자료원 : IMF, KOTRA 자료 종합

- (지하자원)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나, 국가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 앙골라 등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반면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말리, 르완다, 에리트레아 등은 세계적인 자원 빈국



* 자료원 : CIA Factbook

2. 경제 환경

□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원조대상국에서 교역 대상국으로 위상 변화

- SS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2004년 이후 연간 11.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임
- 글로벌 수입시장 비중 '04년 1.57%에서 2014년 2.3%로 증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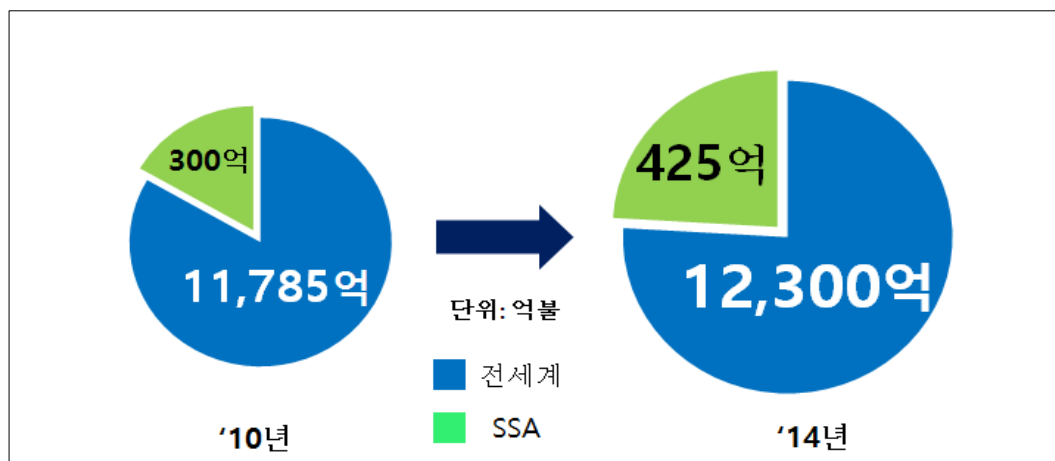
연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성장률
세계	112,666	146,123	195,057	184,990	221,075	226,062	228,877	7.48%
SSA	1,777	2,565	3,961	3,988	5,029	5,103	5,217	11.4%

* 자료원 : UNCTAD, 2014

□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에 따라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유통소비재 시장을 타겟한 FDI의 유입도 증가 추세
- SSA로의 FDI 유입액은 '10년 30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FDI 유입액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4년에는 425억 달러로 비중 또한 2.9%로 확대

<SSA FDI 증가 추이>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지속

- 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건설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총 322건, 2,228억 달러 진행중

<아프리카 건설 프로젝트 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남부 38%, 동부 29%, 서부 21%, 북부 7%, 중부 5%
재원/발주처	원조기구가 재원의 36%, 현지정부가 발주처의 56% 차지
분야	에너지 및 발전사업 비중이 36%, 교통인프라가 25%

* 자료원 : 딜로이트, African Construction Trends Report, 2013

- SSA는 연간 453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에 약 204억 달러, 신규투자에 약 249억 달러를 지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연평균 지출액>

(단위 : 억 달러)

유지보수	신규투자					총지출
정부재정	정부재정	ODA	非OECD 원조	민간투자	합계	
204(331)	94	36	25	94	249(603)	453(933)

* 자료원 : World Bank, 2014, ()는 필요액

<아프리카 주요국 건설시장>

(단위 : 십억 달러, %)

국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남아공	시장규모	13.9	14.6	16.5	18.3	20.4
	성장률	1.0	2.7	3.6	3.9	4.4
나이지리아	시장규모	2.9	3.3	3.9	4.5	5.2
	성장률	12.3	9.7	6.6	11.5	11.6
케냐	시장규모	1.6	1.8	2.1	2.3	2.7
	성장률	4.4	3.0	7.2	7.4	5.8

* 자료원 : World Bank, 2014

3. 산업 환경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국가들은 원유, 광산물, 농산물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2~3개 제품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노컬처(mono-culture)형 경제구조
 - * 남아공은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선진국형 경제구조 보유
- 농·축·수산물 등 1차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 변동에 매우 취약
- 수년간 SSA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0-15% 선을 유지, 48개국 중 제조업 비중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며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

<'14년도 제조업이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명	GDP 제조업 비중 (%)	수출품 제조업 비중 (%)
코트디부아르	13.0	15.8
모리셔스	16.0	62.5
짐바브웨	12.0	27
세네갈	14.0	34.5
나미비아	14.0	45.6
남아공	13.0	49.6
모잠비크	11.0	16.5
말라위	11.0	7.5
레소토	11.0	79.1
케냐	11.0	36.9

*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

□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인 산업 · 경제구조

-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보유자원을 유럽(구 식민종주국)에 수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획득한 외화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종속적 교역형태를 보임
 - 오랜 기간 유지된 아프리카내 유럽 국가들의 시장지배력이 타국가로의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최근 중국의 대규모 원조자금 지원, 저가 소비재 장악으로 유럽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 광업의 '14년 아프리카 GDP 기여도는 28%로 여전히 아프리카 경제의 중추
 -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부 철강, 남부 석탄, 잠비아 구리, DR콩고 구리 및 금 생산 증가
-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국들은 광산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철광석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계 철광석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 서아프리카는 세계최대의 최상급 철광 보유지역
 - 현재는 모리타니아만 2012년 기준 1,200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철광 공급국이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도 본격적인 철광 생산이 임박함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를 차지

- 대부분의 경작물이 소규모로 경작되어 산출량이 떨어지고, 가격통제로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어려움
 - 민간투자가 적고, 생산업자들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에 소극적

□ 국가별 산업 환경

- (남아공) 주요 산업은 자동차, 철강 등으로 분류
 - (자동차산업)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이 집적됨, 수출성장률은 2014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4%의 성장 기록
 - * 7대 자동차 메이커 : 토요타, 폭스바겐, BMW, 벤츠, 닛산, 포드, GM
 - (철강업) 세계 철강 생산 20위, 남아공 GDP 16%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주요 철강기업의 도산이 불가피
- (케냐)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대표산업
 - (제조업) 지난 10년간 연 GDP의 11% 수준에 머무르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육성계획을 발표
 - (건설·건축업) '14년 건설부문 성장률 전년대비 13.1% 상승,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 총 지출금액은 무려 37.6% 증가
- (DR콩고) 대표적인 산업은 광업, 농업 및 건설업으로 분류
 - (광업) 정부의 광물 개발 목표 확대 및 광산업 발전 전략 추진

- (농업) 노동력의 70%가 종사 중이며 농업관련 기계, 설비, 차량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 (건설업) GDP 8%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활황을 누리는 중이며 정부는 부족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단지 건설 추진
- (에티오피아) GDP의 약 46%를 차지하는 농업이 중심이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
 - (농업) 노동력의 약 85%가 종사하는 산업으로 해외 FDI 유입 적극 검토 중
 - (제조업)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5년-2020년) 발표, 10여개 산업단지 개발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수단) 대표수출산업은 농업, 광업 등으로 분류
 - (산업구조) 농업이 약 49%, 서비스 35%, 제조업 16%를 차지
 - (농업)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은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 중
 - (광업)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매장량 보유, 금광 산업이 수단의 수출시장 견인 전망
- (모잠비크)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 농업이 주요산업
 - (산업구조) 모잠비크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농수산업 28%, 도소매업 16%, 제조업 14%를 차지
 - (건설업) 인프라 및 빌딩 건설경기 호황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성장 전망
 - (광업) 세계 9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발돋움, 경제개발 동력 확보
- (가나) 전력산업과 석유 및 가스산업 성장세
 - (전력산업) 전기 부족 심화로 경제침체 상황에도 정부의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중
 - (석유 및 가스산업) 최근 30년간 원유 생산이 가능함을 발표하며 원유 생산국으로 급부상. 세계 9위 천연가스 매장국으로도 알려지며 경제개발 동력을 확보
- (탄자니아) GDP 구성비율은 농업 24.5%, 제조·건설업 22.2%, 서비스업 43.1% 차지
 - (농업)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국가수입의 50%, 수출소득의 25% 점유
 - (광산업) 전체 유입되는 FDI의 90% 점유, 전체 수출의 60% 차지
 - (관광업) GDP 비중의 12.4%차지, 최대 외화수입원(약 20억 달러)으로 성장

4. 정책 · 규제환경

【 산업 육성 정책 】

- (저소득국) 광업 및 농업 중심에서 식품, 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 * 저소득국 :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26개국
- (중소득국)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 * 중소득국 : 남아공, 가나,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잠비아, 보츠와나 등 13개국

□ (남아공) 제2차 산업정책실천계획(IPAP2), 외국기업 유치, 흑인경제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주요분야 광업,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기존 핵심산업 활성화, 신규산업 육성, 산업개발지역(IDZ) 확대조성, 광업분야 가공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현금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노력
 - 조세감면은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만 지원
 - 금융지원은 IDC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업에게 총비용의 30%까지 제공
 -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me)를 통해 10~30%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 수출촉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지원 제도 운영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비용의 50%까지 지원(Partnership Scheme)
 - 수출 마케팅 비용 보조,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관세 면제 등 (Export Marketing & Investment Assistance Scheme, EMIA)
- 흑인경제우대정책 실시(BEE :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된 남아공의 흑인경제 육성정책으로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 평등 등의 혜택을 부여
 - '03년에는 흑인 지분을 제고, 흑인기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흑인기업에 대한 투자 등 7개 부문으로 기준이 확대된 BBEEA(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로 개정

-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나이지리아) 경공업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나이지리아 콘텐츠개발법(Nigerian Content Development Act)을 현행 석유산업 분야에서 향후 전력 및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면 시행 예정
- 정부 중점 육성 대상인 농업, 식품, 음료, 섬유, 화학, 금속 분야에 투자할 경우 조세 면제 등 혜택 부여

□ (케냐) 외국인투자 유치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외국인투자 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인센티브 확대
 - 수출진흥 및 전략산업 자본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면
 - 수출자유지대 입주기업 인지세 및 법인세 면제, 초기 투자분 세액공제
- 경제특별구역 도입 추진
 - 기존 수출가공지역(EPZ) 외에 경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 특화산업단지, 관광진흥지 등 다양한 경제특구 조성 예정
-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중점
 -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및 관광)과 수입대체 산업(식품가공, 농산물, 화공제품) 개발 장려

□ (에티오피아) 성장 및 변혁 5개년 계획(GTP2, 2015-2020)을 통해 산업개발 추진

- 섬유, 의류, 가죽, 시멘트, 금속, 엔지니어링, 화학, 의약, 농가공 등을 우선 투자분야로 지정
 - 특히 섬유산업은 전용산업단지 개발 등 정부의 육성의지가 높은 분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지 기업의 자생력 보강, 외국인투자자 유치,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 (DR콩고) '13년 개혁조치에 따라 인프라 구축, 농업발전, 투자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 광업, 농업, 인프라가 중점 추진 분야
 - 지역별 경제거점 확보, 외국의 자본, 기술 유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특별경제구역(SEZ) 설치 추진
 - 제조업체 지원 정책금융기관(SOFIDE) 설치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조세 및 관세 면제 혜택 제공

5. 기타 비즈니스 환경 (정치, 보건)

□ 정치환경의 안정

- 1960년대 독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정착
 - 주요내전종식(수단, 앙골라, DR콩고 등)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아프리카 정권은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하지만 국지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대립에 따른 치안불안, 테러 등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음
 - (남아공) '10년 월드컵 이후 일시적으로 치안이 호전되었으나 높은 실업률, 흑백간의 갈등 등으로 절도, 살인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5년 제노포비아(Xenophobia) 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민자들 대피
 -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영토 20%까지 영역을 확대,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투자진출에 위협요인
 - (케냐·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근거, 케냐와 소말리아 대상 테러활동 정정불안 야기

□ 보 건

- (에볼라) '14-'15년 서아프리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에볼라는 종식되어 가는 추세
- (에이즈)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률 보유
 - '13년 기준, 2,470만 명의 감염자를 보유, 전세계 71%를 차지
 - 매년 에이즈로 평균 110만 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추가감염 보고
 - 세계은행은 에이즈 문제가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SSA 경제 선도국인 남아공 또한 경제 붕괴 가능성을 경고

III 시장 분석

SSA 수입시장은 최근 10년간('04-'14년)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3%에서 1.9%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FDI와 프로젝트 진출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전통적 우호국인 유럽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 중심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수출

□ SSA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시장규모) '14년 SSA 수입시장 규모는 5,232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2.3%를 차지, '04년 1.57% 대비 0.73%p 상승
- 남아공(989억 달러), 나이지리아(616억 달러), 앙골라(292억 달러), 케냐(176억 달러), 가나(146억 달러) 순으로 시장 규모를 형성

□ 산업설비 중심 수입시장 형성

- 수입규모 기준으로 산업설비 관련 품목이 크고,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 관련 품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계,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제품 등의 수입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증가율 기준으로 우모·조화·인모제품(주로 가발), 광물성연료, 철도차량, 가구·조명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물성연료와 철도차량을 제외하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 두드러짐
-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우모·조화·인모제품(98%), 가구·조명기구(66%), 우산·지팡이(95%), 잡품(73%) 등으로 소비재 시장을 독식
- 한국은 성장성이 높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1% 미만

<'14년 금액기준 수입 1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84	기계류	15,373.9	41,242.9	268.3%	1.7%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	1.2%
87	자동차	11,450.6	30,587.6	267.1%	4.0%
85	전기기기	9,192.8	26,266.4	285.7%	1.7%
73	철강제품	2,888.1	11,060.2	383.0%	4.4%
39	플라스틱	3,094.2	9,607.3	310.5%	7.3%
10	곡물	2,991.5	9,151.3	305.9%	0.0%
30	의료용품	2,702.6	9,148.2	338.5%	0.4%
89	선박	5,641.6	8,567.3	151.9%	50.0%
72	철강	1,736.8	6,523.1	375.6%	2.0%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8	기타교역	1,116.4	5,665.3	507.5%	0.0%
90	광학·측정·의료기기	2,142.1	5,442.1	254.1%	1.8%
88	항공기 및 그 부품	2,402.0	5,301.8	220.7%	0.1%
15	동·식물성지방	1,282.9	5,118.9	399.0%	0.0%

<'14년 증가율 기준 수입 15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2004년	2014년	성장률	한국 점유율
67	우모·조화·인모제품	61.9	1,617.2	2612.6%	0.2%
27	광물성연료	3,799.8	39,214.7	1032.0%	1.2%
86	철도차량	112.2	1,088.9	970.5%	1.4%
94	가구·조명기구	858.3	5,787.2	674.3%	0.3%
96	잡품	243.9	1,602.6	657.1%	0.4%
69	도자제품	504.6	2,904.1	575.5%	0.3%
64	신발	758.3	4,352.1	573.9%	0.2%
61	편물제 의류	684.0	3,711.1	542.6%	0.1%
42	가죽	266.3	1,313.3	493.2%	0.2%
62	비편물제 의류	854.3	4,188.1	490.2%	0.1%
16	육·어류 조제품	170.1	821.5	483.0%	0.0%
65	모자	45.6	215.1	471.7%	1.3%
76	알루미늄	550.8	2,583.1	469.0%	1.1%
66	우산·지팡이	32.2	151.0	468.9%	0.0%
31	비료	286.9	1,311.1	457.0%	0.3%

* 자료원 : Trade Map, 2015

□ 우리기업 및 경쟁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수출 시장점유율의 지속하락('04~'14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은 총 99억 달러로 2013년(112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대비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에볼라 사태, 저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환수입 감소, 주력 시장인 남아공 경제부진 등에 영향

<對 SSA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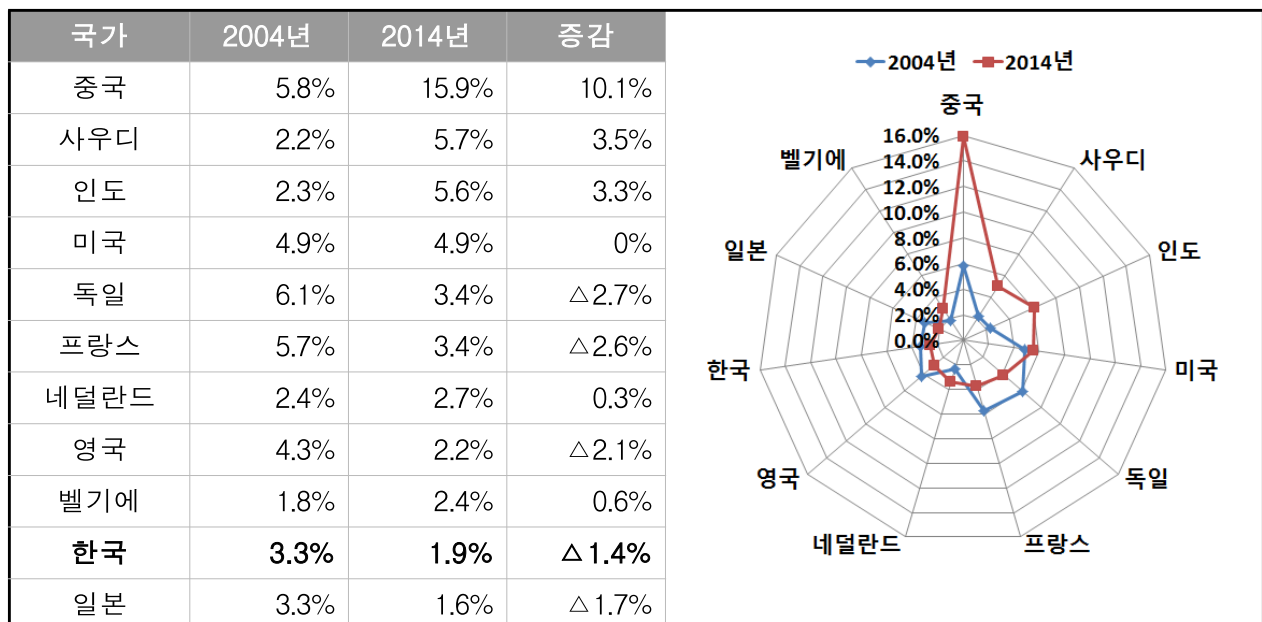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액	9,765.75	14,504.31	9,272.36	11,212.59	9,933.36

* 자료원 : WTA, 2015

○ 구 식민지중주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 점유율 증가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으로 확대된 수입시장에서 최대 수혜국 중국과 인도로 집약됨
 -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04년) 5.8% → ('14년) 15.9%
 - * 인도의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04년) 2.3% → ('14년) 5.6%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 교역국들의 위상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
 - * 사우디 : 남아공은 원유를 대부분 사우디로부터 수입, 내수 및 석유화학산업에 이용

<'04~'14년 기간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 자료원 : WTA 및 무역관 자체 분석

□ 일부품목,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 (수출품목) 대기업 중심 일부 산업재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 선박,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이 對아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61.2%(75억달러) 차지, 이들 품목 대기업 비중 77% 상회
 - 생활소비재 중심 수입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기업 진출은 미미
- (유망품목) 기계부품(중소형플랜트), 생활소비재 분야가 SSA 바이어 인콰이어리의 77% 차지
 - * 2014년 SSA KOTRA 바이어 인콰이어리 분석 : 기계부품(43%), 생활소비재(34%), IT (9%), 보안 (4%), 의료기기(3%)

<'14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대기업 비중
1	선박과 수상구조물	4,345	43.74%	3,127	72%
2	차량 및 그 부품	1,221	12.30%	1013	83%
3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05	7.10%	430	61%
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651	6.56%	286	44%
5	광물성연료	515	5.19%	422	82%
6	철강제품	468	4.71%	150	32%
7	전기기기	440	4.43%	299	68%
8	유기화학제품	214	2.15%	41	19%
9	방직용섬유의 기타제품	137	1.38%	55	0%
10	철강	128	1.29%	82	64%

* 자료원 : WTA, 2015

- (중소기업수출) 전체 수출기업 8,243개사 중 중소기업은 8,084개사로 총 33억 달러를 수출, 수출액 기준 33%에 불과
 - 전체 수출기업의 2%에 해당되는 대기업(159개사)이 수출 전체 수출의 67% (66억 달러) 차지

<'14년 중소기업 규모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분류	수출초보기업 (1백만 달러 이하)	수출유망기업 (1백~5 백만 달러)	글로벌강소기업 (5백만 달러 이상)	총합
수출액(비중)	658(20%)	724(22%)	1,908(58%)	3,289(100%)
기업수	7,667 개사	368 개사	44 개사	8,084 개사

* 자료원 : 관세청

【한국기업 성공사례 1】

- 바이어 및 품목 : European Telecom Africa / 휴대폰 케이스
- 수출성약 경과
 - '15.3월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이 Buy Korea에 게시한 일반 인콰이어리 확인 후 제품정보 송부
 - '15.3월 수출성약
 - '15.4월 F/U 미팅 진행
 - '15.10월 내수기업 소개 및 샘플 전달
 - '15.11월 충남사절단 시 수출상담 예정
- 시사점
 - 아프리카의 소비재 시장의 확대 기회를 활용, 특히 휴대폰,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
 - 중산층, 젊은 층을 타겟으로한 휴대폰 악세서리 제품 남아공 시장에 소개
 - 대형 유통기업과 적극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 성약 창출에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F/U과 관련 국내 업체 소개

【한국기업 성공사례 2】

- 바이어 및 품목 : Rock Drilling Technology / 중장비 부착장비
- 수출성약 경과
 - '15.3월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을 통해 해외비즈니스 출장 진행
 - '15.4월 매칭 바이어 F/U 및 수출 성약 진행
 - '15.6월 최종 결제조건(payment term) 협의
 - '15.7월 수출성약
- 시사점
 - 중소형 플랜트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어 인콰이어리, 현지수요를 발전 단시간 성약
 - 바이어 매칭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F/U 진행으로 란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성약 달성

□ 미국,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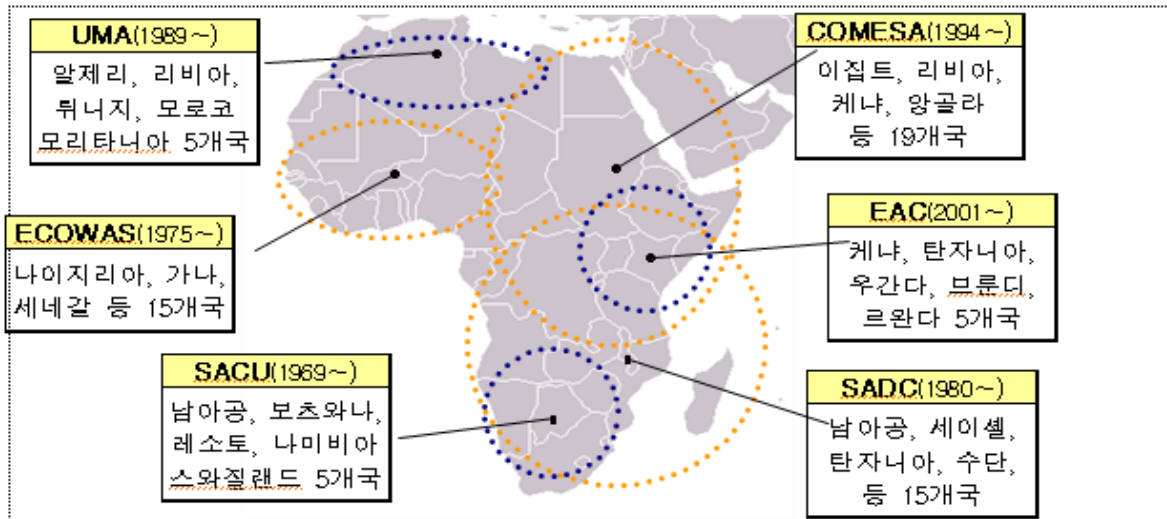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 쿼터 면제
- (EU) 기존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재검토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 교섭
 - EU의 對 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

□ 2000년대 들어 지역별 경제통합단계 심화,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출범으로 역내관세 혜택 및 미국, 유럽의 관세혜택을 활용한 현지 제조기지 진출이 시급

【 참고 :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공동체 현황 】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 분	면적 (천km²)	인구 (천명)	GDP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가입국수
UMA (아랍-마그레브 동맹)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5,112	251,646	184	731	15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283	697	19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61	488	5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379	1,618	15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별 통합단계 및 향후일정>

구 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UMA	논의중	-	-	-
ECOWAS	일부 진행중	일부 진행중	-	일부 진행중
SACU	진행중	진행중	-	-
COMESA	진행중	진행중	-	'18년 까지
EAC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15년 까지
SADC	일부 진행중	'15년 까지	'15년 까지	'18년 까지

□ 주요국의 수입시장 동향

○ (남아공) 광물자원 수요 감소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기록

- '12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란드화 약세 등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입 전반에 감소가 예상됨

<남아공 수출입 통계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분기
총수입	1,041	1,027	1,031	438 (-10.31%)
총수출	993	951	978	416 (-6.22%)

* 자료원: WTA, 2015

- (품목별분석)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석유), 자동차 및 부품, 기기 및 기계류가 있음
- 수출입 감속 추세 속, 자동차의 수출은 20%이상 대폭증가

- (나이지리아) '14년 총 수입액은 57,10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3년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5년 원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총 수입규모 대폭 감소전망

<나이지리아 수출입 통계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총수입	53,359	51,454	56,780	50,200
총수출	95,677	96,732	96,732	51,000

* 자료원 : UNCTAD, EIU, 2015

□ 케냐의 수입동향

- '15년 달러 강세에 따른 여파로 1-6월간 수입은 79억 달러 수준에 불과, '15년 연간 총 수입은 17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케냐무역 수출입 통계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6,003	4.18	5,766	-3.94	6,003	4.11	2,786	-10.9
수입	16,032	10.06	16,105	0.46	18,107	12.43	7,934	-6.5
수지	-10,029	12.75	-10,339	3.09	-12,104	17.07	-5,148	-4.0

* 자료원: WTA, 2015

2. 투자진출

□ SSA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견실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2014년 SSA FDI 유입은 425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 유지
- 서부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 FDI 유입이 증가
 -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여파로 FDI 유입이 10% 감소
 -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스분야, 에티오피아가 의료 및 섬유제품 허브로 거듭나면서 10% 이상 FDI 상승
 - (중앙아프리카) DR콩고는 55억 달러 유입, '13년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33% FDI 증가 기록
 - (남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의 남아공이 대륙 내 가장 많은 FDI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가스전 발굴로 각광받고 있는 모잠비크가 49억 달러 FDI 유입으로 대륙 내 3위로 발돋움 눈길

<'14년 지역별 FDI 유입추이>

구분	FDI 유입
서부아프리카	128억 달러
동부아프리카	68억 달러
중앙아프리카	121억 달러
남부아프리카	108억 달러
합계	415억 달러

* 자료원 : UNCTAD

□ 우리나라 진출 현황

- (규모) 우리나라 對SSA FDI 누계는 28억 달러로 전체 FDI 규모의 1.01% 차지
 - SSA가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2014년)임을 감안,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14년 누적 우리나라 對SSA FDI 규모>

(단위 : 건,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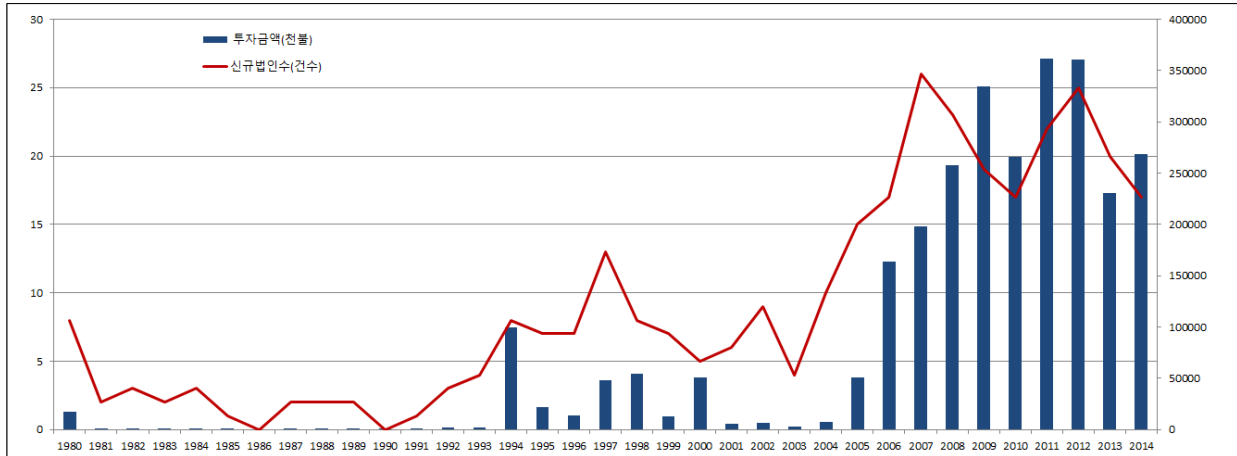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36,410	400,002	228,679	280,919
아프리카	719	3,612	1,390	2,844
비중	0.52%	0.90%	0.61%	1.0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15

○ (연도별 분석) '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07년 이후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FDI가 이루어졌음

<연도별 SSA 투자진출 현황>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12년 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 위축

○ '14년 현지 시장 진출 규모 확대로 2012년 수준의 투자규모로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12-'14년 투자목적별 SSA 투자규모>

(단위 : 백만 달러)

투자목적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촉진	5.6	48.0	5.2
자원개발	306.0	154.6	156.4
현지시장진출	41.4	26.9	105.8
저임활용	7.3	0.9	1.7
제3국 진출	0.3	0.2	0.3
원자재 확보	0	0.5	0.5
보호무역타개	360.7	230.4	268.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15

- (업종별분석)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진출이 전체 323건 중 207건 64.8% 차지하였고 특히 건설업은 '06년 이후 33건 신규 법인설립 진출하여 최근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4년 우리기업 아프리카 투자진출 업종 현황>

업종분류	누적 법인설립	비중
제조업	100건	30.96%
도매 및 소매업	68건	21.05%
건설업	39건	12.07%
광업	28건	8.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건	6.50%
농업, 임업 및 어업	16건	4.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건	3.10%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건	3.10%
운수업	8건	2.48%
숙박 및 음식업	6건	1.86%
기타	17건	5.26%
합계	323건	100%

*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15

【한국기업 진출사례】

◇ A기업 (가나)

- 투자분야 : 합판생산
 - 종업원 270명, 매출 500만 달러
- 주요품목 : 합판, Rotary Venner, Sawn Timbe
 - 생산량 중 30%는 가나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70%는 주변국가인 나이지리아, 베냉, 토코에 공급
- 성공요인 :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TMO(Ghana Timber Manufacture Organization)의 회원사로 합판 품목으로는 가나에서 유일하게 Standard Board Licence를 보유하고 있음. 가나 최초로 합판 생산용 요소(Urea) 수지공장도 운영함. 현지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현지협회,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가나시장을 진출 장악, 제 3회(2008), 제 4회(2009) 2년 연속 Ghana-Africa Business Silver Award를 가나 정부로부터 수상하였으며, 올 2012년 7월 가나 볼타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 예정이며, 중앙아프리카 가봉과 카메룬에도 합판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 L기업 (나이지리아)

- 투자분야 및 품목 : 가발 제조
 - 종업원 : 본사파견 26명, 현지고용 4,000명
- 투자분야관련 현지 산업육성 정책 및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시 5년간 세금면제
- 현지기업과 협력방법 : 현지생산공장 설립 및 운영, CSR 전개
- 성공요인
 - 소비자 트렌드,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디자인 제품으로 시장확보 (현지 브랜드 Xpression은 매우 인지도가 높음)
 - 뛰어난 가발기술 및 폴리에스테르 인조모를 사용한 패션가발 출시
- 주요 애로사항
 -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에 봉착

◇ S기업 (남아공)

- 투자분야 및 품목 : 합작투자 / 자동차 부품
- 현지기업과 협력방법 : 현지생산공장 설립 및 운영
- 진입전략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적극 활용
- 성공요인
 - 남아공 제조업 육성정책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북중미 등에 수출하여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 생산성 개선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

3. 프로젝트

□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수주현황

- (수주규모) 한국의 '14년 對 SSA 건설플랜트 수주는 22억 달러로,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660억 달러)의 3.33% 점유
- SSA의 해외건설시장, 전세계 건설시장의 약 10% 비중으로 추정(자료원 : ENR)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SSA 건설수주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SSA 수주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SA 수주	2,447	2,207	1,615	1,082	2,195
세계 수주	71,578	59,144	64,880	65,211	66,009
SSA 비중	3.42%	3.73%	2.49%	1.66%	3.33%

*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2015

- (수주국가) 나이지리아가 최대시장이며, 여타 국가는 당해 연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순위 변동

<SSA 국별 수주액(상위 5개국)>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1	나이지리아	754	나이지리아	538	나이지리아	1,389
2	가나	307	코트디부아르	207	적도기니	340
3	앙골라	192	모잠비크	108	보츠와나	164
4	적도기니	109	우간다	66	에티오피아	114
5	기니	94	적도기니	51	탄자니아	82

*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2015

□ ODA 규모, 주요 경쟁국 대비 열세

- 연 2.4억 달러 원조로 경쟁국은 한국의 10~40배 수준

<'10-'13년 주요국 對 SSA 공적원조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미국	7,937	9,302	8,816	8,497
일본	1,779	1,574	1,673	2,446
영국	3,076	3,211	3,155	3,593
프랑스	3,464	3,257	3,047	2,056
독일	1,556	1,865	2,255	1,530
한국	123	148	231	241

* 자료원 : OECD

【한국기업 성공사례 1】

□ OPS 지원 프로젝트 성공 사례 상세 내역

프로젝트 개요	
국가명/관할무역관	수단/카르툼
발주처	수단 신공항 프로젝트 오피스(KNIA)
프로젝트 규모	1,750만 유로(19백만 달러 상당)
재원	중국 Loan+수단정부 재원
낙찰일시	2015.4.7
수주기업	한국종합기술 +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프로젝트 내용	수단 신공항 건설감리
지원기간	2014.1 - 2015.7

<프로젝트 지원 참고자료>



제안심사 1차 오프닝('14.3.30, KNIA)



최종 프로포절 리허설('14.6.23, 무역관)

계약 체결식('15.4.7)
수단 공항 Holding사 회의실

1차 Kick Off 미팅('15.6.23, 무역관)

IV

시장진출전략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규모의 열세, 시장진출 후발주자로서의 진출기반 미약, 대기업중심의 수출구조 등의 이유로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이 있고, 우수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년에도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경기둔화 등의 위협요인도 있으나 우리만의 장점으로 이를 극복하여 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진출전략 개관

<아프리카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한국 압축적 경제성장 경험 전수 가능 - 산업화 정책, 첨단기술을 동시에 전달가능 ○ 높은 제조 기술력 보유	<Opportunities> ○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 구매력 증가 ○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소비재 시장 확대 ○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 ○ 제조업 육성 수요 높음
<Weaknesses> ○ ODA 등 금융규모의 상대적 열세, 금융지원 시스템 부족 ○ 시장 진출 후발주자로 진출기반 미약 ○ 우리기업 심리적 거리감, 진출의지 부족 ○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	<Threats> ○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 중국의 지속적 시장지배력 확대 ○ 사회 인프라 부족 물류비 과다 ○ 아프리카 리스크 (정치불안)
<시사점> ○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진출 추진 - 아프리카 국가와 상생발전 필요 ○ 아프리카 경제통합 가시화에 따른 제조기지 이전 진출 필요 - 아프리카 미국, 유럽 관세혜택 활용 및 TFTA 역내관세 혜택 대비 ○ 중산층 증가와 트렌드변화에 대응하는 유통 소비재 시장 공략 사업추진 ○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활성화 대비 건설 프로젝트 참여확대 필요 ○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점유율 회복노력	

2. 세부 진출전략

2-1. 아프리카 제조업 육성 수요를 활용, 상생발전 진출 전략

□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제조설비 수출, 중소형플랜트 분야 집중 진출 필요

- 아프리카 국가들,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자원수출 중심의 성장 한계에 직면,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 인식
 - 과거 식민종주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 자국의 산업화 및 제조업 육성을 시도
- 그러나 산업화 경험부족, 인력부족, 설비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어려움
 - 산업화의 노력에도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15%이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 제조업 GDP 비중 변화>

(단위 : %)

국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1995년	21.7	8.2	10.3	23.6	8.6	3.6
2014년	13	10	11	14	6	4
증감	△8.7	1.8	0.7	△9.6	△2.6	△0.4

* 자료원 : World Bank

- 사양산업(경공업)에서부터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설비 수출 기회 다수
 - 제조설비, 기계류, 중고기계 유망
 - 한국의 2015년 對SSA 수출 부진속, 기계류·농기계 등 수출은 소폭 증가
 - * 기계류(HS 84) 10월 누적 0.44% 증가, 전체 10월 누적 17.38% 감소

□ 한국의 산업화 경험 전수 가능한 뿌리산업 분야 진출 필요

-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뿌리 산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 적극적으로 진출 필요
- 해당국에 뿌리산업의 기술과 인력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 등을 수출
 - * 뿌리산업 6대 분야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2.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대비, 제조기지 진출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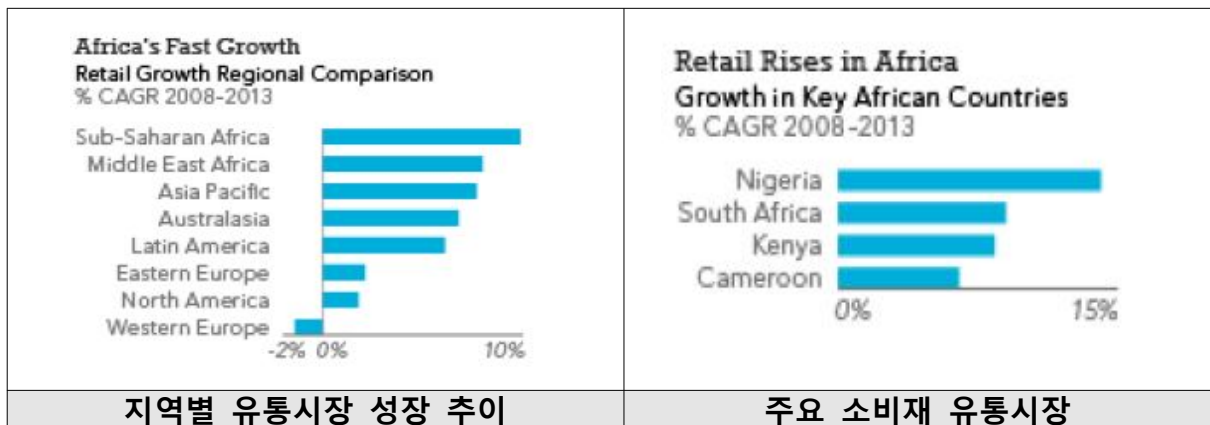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제조기지 진출 필요

- 아프리카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통합을 추진중이며, TFTA 출범시('17년 발효) GDP 1조 달러 규모의 영향력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 역내 무관세 실현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지 제조진출이 필요
- 최근 아프리카는 저임금,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아시아를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 에티오피아는 최고의 의류 생산기지 (맥킨지)
 - * 에티오피아 평균월급 21 USD (최저임금 없음) vs 방글라데시 최저임금 67 USD (국제노동기구)
- 미국(AGOA)과 유럽(EPA)의 대 아프리카 관세혜택 활용한 진출 필요

2-3. 중산층 증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소비재 진출

□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중산층의 증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유통시장 급성장



* 자료원 : Euromonitor, 2015

- 단순 저가 중심의 시장이 아닌, 아프리카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소비재 집중 진출 필요
 - 주요 유통기업, 중국발 저가 제품 소싱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입선 다양화 추진중

-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가장 크나, 아프리카 유통시장은 남아공 소재 대기업이 독점, 이들 기업의 납품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제품 수출 필요

<'13년 아프리카 Top 5 대표 소매유통기업>

연번	기업명(본사 소재국)	주요품목	매출(백만 달러)	진출규모
1	Shoprite (남아공)	식료품, 생활소비재	8,226	16개국/1,902개 매장
2	Woolworths (남아공)	식료품, 생활소비재	6,619	11개국/65개 매장
3	Truworths (남아공)	의류, 패션	3,535	40개국/650개 매장
4	Mr Price Group (남아공)	의류, 패션	3,334	24개국/1,000개 매장
5	Massmart (남아공)	식료품, 생활소비재	2,604	12개국/400개 매장

* 자료원 : Africa Business Magazine, 2013

2-4. 아프리카 리스크를 회피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적극 발굴 필요

- 심리적 거리감, 위험회피·편견 등으로 아프리카 사업 참여를 주저
 - 정보부족, 막역한 두려움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의지 낮음
- 아프리카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진출 의지 필요
 - 내전종식, 정치적 안정으로 아프리카 리스크는 상당부분 해소됨
- 주요 경쟁국은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이 아닌 교역대상국으로 인식전환

2-5. 건설·플랜트 시장 활성화 대비, 프로젝트 수주 집중 필요

- TFTA 발효시 아프리카내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이를 대비하여 미리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집중 필요
 - TFTA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 금융제도 개선 등에도 역할
- '16년 유가하락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동부아프리카, 고성장국 중심 집중 진출필요
 - 에티오피아, 케냐, 보츠와나, 탄자니아 등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가 유망

별첨 :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30
자동차브레이크 부품	수입액('14/US\$백만)	171.346	대한수입액('14/US\$백만)	3.907
	선정사유	남아공 시장규모 확대 및 높은 성장가능성, 한국산 점유율 상승추세(1.30%→2.34%)		
	시장동향	구매력 및 인구증가로 내구재 수요 확대		
	경쟁동향	독일,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등		
	진출방안	아프리카 전략마케팅 확대추진		
품목명 2	HS Code	842951	수입관세율(%)	15
셔블로더	수입액('14/US\$백만)	18	대한수입액('14/\$)	0.6
	선정사유	아프리카 GDP비중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셔블로더는 농기계 뿐 만 아닌 각종 건설사업 시에도 사용가능해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 특히 최근 아프리카는 인프라개발, 부동산개발이 한창 진행 중		
	시장동향	케냐의 2015년 3월 동 기계의 총 수입량은 340만 달러로 2014년 동기간 166만 달러에 비해 약 100%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4년 12월 까지총 수입량은 1800만 달러로 2013년 12월 850만 달러에 비해 118% 성장. 꾸준한 성장세 기록 중		
	경쟁동향	동 기계 시장의 1위는 중국(71%), 그 뒤를 미국(7%) 미국 등이 장악중에 있음. 케냐는 한국의 셔블로더를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중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가격임. 따라서 한국은 제품의 일정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가격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내구성에 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품목명 3	HS Code	8541	수입관세율(%)	10
태양광발전설비	수입액('14/US\$백만)	353	대한수입액('14/US\$백만)	0.05
	선정사유	전력부족에 따라 태양광발전 점차 증가		
	시장동향	전력공급이 취약한 지방,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저가의 중국산, 독일산 고급장비가 진출함.		
	진출방안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함.		

품목명 4	HS Code	8427-8430	수입관세율(%)	5
건설용중장비	수입액('14/US\$백만)	237	대한수입액('14/US\$백만)	1.7
	선정사유	인프라 건설붐		
	시장동향	향후 10년간 수입 지속확대 전망		
	경쟁동향	남아공, 중국, 포르투갈이 주 수출국		
	진출방안	중저가 및 중고 위주 수출 유망		
품목명 5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4/US\$백만)	3.7	대한수입액('14/US\$백만)	
	선정사유	여성 소비문화 급속히 확대		
	시장동향	최근 5년간 시장규모 3배 성장		
	경쟁동향	남아공 수입비중 50% 이상		
	진출방안	방관 등 현지유통망 진입이 중요		
품목명 6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14/US\$백만)	19	대한수입액('14/US\$백만)	4
	선정사유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시장동향	보건부 의료장비 확충 추진		
	경쟁동향	독일산 장비가 시장 지배		
	진출방안	의료기기 벤더 공략		
품목명 7	HS Code	730830	수입관세율(%)	27.5%
Steel Doors & Locks (강철제 문 및 잠금장치)	수입액('14/US\$백만)	4.8	대한수입액('14/US\$백만)	n/a
	선정사유/시장개요	강철제 문과 잠금장치는 최근 들어 가나의 주택 및 빌딩에 필수적인 주요 아이템이 되었음. 가나 사람들은 강철제 문을 자신들의 주택 및 빌딩을 지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화하면서 다양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용도로도 받아들임. 또한 높은 강도 발생 비율에 따라, 가나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둑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문을 선호함		
품목명 8	HS Code	852190	수입관세율(%)	25
CCTV	수입액('14/US\$백만)	1.7	대한수입액('14/US\$백만)	0.02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각종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음		
	시장동향	대부분의 출입통제는 사설 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복도, 담장 등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보기능까지 완비된 제품이 인기		
	경쟁동향	중국, 유럽산 제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 체크도 꼼꼼히 하고 있음		
	진출방안	사설 경호업체 및 주요 안전시설 소유기업을 대상으로 1:1 밀착마케팅 필요		

품목명 9	HS Code	850300	수입관세율(%)	25
	수입액('14/US\$백만)	2	대한수입액('14/US\$백만)	0
금고	선정사유	탄자니아 경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경제로 현금 거래량과 보관량이 많은 상황		
	시장동향	귀금속 보관 등 고가의 고급제품보다는 저가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경쟁동향	중국, 한국산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진출방안	가구유통점을 대상으로 적정 에이전트 발굴 필요		
품목명 10	HS Code	870190	수입관세율(%)	25
	수입액('14/US\$백만)	25	대한수입액('14/US\$백만)	0
농업용 트랙터	선정사유	탄자니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 시행에 따라 트랙터 수요 증가추세에 있음		
	시장동향	다양한 사양의 제품보다 보급형 저가제품 판매		
	경쟁동향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저가형 제품이 시중에 들어와 있으나 잦은 고장 및 A/S 등이 문제임.		
	진출방안	정부 산하기관을 집중 공략하여 대규모 계약창출 필요 (EDCF 자금 등 파이낸싱 연계 필요)		

첨부 '16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중소·중견 기업 수출역량 강화	아프리카 중소형플랜트 방한 구매단	1분기/서울
2		중소형 플랜트 수시 방한 구매단	2,3,4분기/서울
3		아프리카 온라인 유통망 진출사업	1분기/남아공
4		아프리카 전략마케팅 추진	연중/아프리카전체
5		아프리카 공공조달 포럼개최	3분기/남아공
6		아프리카 중고기계 수출 상담회	4분기/서울
7	새로운 수출 먹거리 지속 창출	남아공·케냐 뿌리산업 협력 사절단	1분기/남아공,케냐
		L(연계) 뿌리산업 기술학교 추진	3분기/남아공
8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 조사단	2분기 /남아공,케냐,에티오피아
9		아프리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연중지속/남아공
10		아프리카 프로젝트 조사단	2,4분기/미정
11		콩고 기업 취업설명회	3분기/서울
12	넓어진 경제협력 영역 활용 지원	아프리카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2분기/미정
13			
14		경제협력 활용 성과 FU	연중지속



KOTRA자료 15-054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발행인 | 김재홍

편집인 | 윤원석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 S B N | 979-11-86926-15-4 (93320)